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84(Ⅰ)

외 교 부

행 정 간 행 물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84(I)

외 교 부

발 간 사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 발전과 함께 걸어온 우리 외교의 발자취를 알리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개된 문서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관련 소장정보를 수록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을 편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970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6권을 발간한 데 이어, 올해 공개된 1984년도 외교문서들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관련 소장정보를 수록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년을 별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도 문서를 다룬 해제집에는 동서 양진영 간 대립과 중동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과 동 계기 일본 천황의 양국 과거사에 대한 최초의 사과 표명 등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된 역사적 순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제집이 '역사창조 현장'의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한국 외교사의 사초(史草)로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들의 각종 연구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외교정보 관리와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년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찬위원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외교부장관 **윤 병 세**

ㅣ 일러두기 ㅣ

1. 본 해제집은 2015년도에 공개된 1984년도 외교문서 내용을 요약・수록하였다.
   - 1962~79년도 문서 내용도 일부 포함.

2. 해제는 각 문서철별로 문서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그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의 수록 순서는 각 문서철의 연도순/주제순(분류번호순)이며 각 해제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생산연도・생산부서・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국가명은 현재 시점의 표기를 따르되,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외교일지, 1984년)으로 구성하였다.

1984년도

001 재외공관 등급 및 정원, 1984 31
002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83-84 32
003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78-80 33
004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1 34
005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2 35
006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2 36
007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3 37
008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1984 38
009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984.8.2 39
010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 1984.10.30 40
011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개정, 1984.10.22 41
01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개정, 1984.12.31 42
013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1983 43
014 외무부 훈령 및 예규, 1984 44
015 재외공관 보고규정 개정, 1984.7.28 45
016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개정, 1984.8.7 46
017 외교관 가족의 취업 등 영리활동 관련 규정 조사, 1979-84 47
018 중공담당관 제도 운영, 1984 48
019 Guilmin, Charles 주 Antwerp (벨기에) 명예영사 해임, 1984.2.4 49
020 Gerlein Comelin, Julio 주 Barranguilla (콜롬비아)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1984 50
021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프랑스, 1984 51
022 명예영사 임명 - 라이베리아, 1984 52
023 이상득 주한세네갈 명예영사 임명, 1984 53
024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미국, 1984 54
025 주재관 (국방무관) 파견, 1984 55
026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1 1-5월 56
027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2 6-8월 57
028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3 9월 58
029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4 10-11월 60
030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5 12월 61
031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1주기, 1984. 전3권. V.1 외교조치 및 추도식 62
032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1주기, 1984. 전3권. V.2 홍보 및 해외 언론보도 64
033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1주기, 1984. 전3권. V.3 국내 언론보도 65
034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캐나다 관계기관의 문의, 1983-84 66
035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1-84 67

036 각국 국기제도, 1982-83 68
037 국가 원수 방한 · 방문 업무 처리 요령, 1984 69
038 외국 국가원수 주최 외교단 행사 사례조사, 1984 70
039 대사파견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984 71
040 대사파견 - 호주, 1983-84 72
041 대사파견 - 호주, 1984 73
042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1984 74
043 대사파견 - 벨기에, 1984 75
044 대사파견 - 바베이도스, 1983-84 76
045 대사파견 - 버마, 1983-84 77
046 대사파견 - 브루나이, 1984 78
047 대사파견 - 중앙아프리카, 1984 79
048 대사파견 - 도미니카공화국, 1983-84 80
049 대사파견 - 에콰도르, 1984 81
050 대사파견 - 피지, 1983-84 82
051 대사파견 - 핀란드, 1984 83
052 대사파견 - 가봉, 1984 84
053 대사파견 - 독일, 1984 85
054 대사파견 - 인도, 1984 86
055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1984 87
056 대사파견 - 코트디부아르, 1984 88
057 대사파견 - 자메이카, 1984 89
058 대사파견 - 쿠웨이트, 1983-84 90
059 대사파견 - 리비아, 1983-84 91
060 대사파견 - 모로코, 1984 92
061 대사파견 - 멕시코, 1984 93
062 대사파견 - 네팔, 1984 94
063 대사파견 - 노르웨이, 1984 95
064 대사 파견 - 뉴질란드, 1984 96
065 대사파견 - 오만, 1984 97
066 대사파견 - 파키스탄, 1984 98
067 대사파견 - 필리핀, 1984 99
068 대사파견 - 파나마, 1983-84 100
069 대사파견 - 카타르, 1984 101
070 대사파견 - 세네갈, 1981-84 102
071 대사파견 - 영국, 1980-84 103
072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 1984 104
073 대사파견 - 우루과이, 1983-84 105
074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1984 106

075 대사부임 – 호주, 1983–84 107
076 대사부임 – 콜롬비아, 1983–84 108
077 대사부임 – 도미니카공화국, 1984 109
078 대사부임 – 핀란드, 1983–84 110
079 대사부임 – 과테말라, 1984 111
080 대사 부임 – 아이티, 1983–84 112
081 대사부임 – 아일란드, 1984 113
082 대사부임 – 일본, 1984 114
083 대사부임 – 케냐, 1984 115
084 대사부임 – 리비아, 1984 116
085 대사부임 – 멕시코, 1983–84 117
086 대사부임 – 나이지리아, 1984 118
087 대사부임 – 뉴질란드, 1983–84 119
088 대사부임 – 파키스탄, 1980–84 120
089 대사부임 – 파라과이, 1984 121
090 대사부임 – 시에라리온, 1977–84 122
091 대사 부임 – 터키, 1984 123
092 영사 위임장 발급, 1984–85 124
093 영사부임, 1984 125
094 명예영사 접수 – 아주지역, 1984–85 126
095 명예영사 접수 – 중동지역, 1984 127
096 명예영사 접수 – 구주지역, 1983–84 128
097 명예영사 접수 – 미주지역, 1984 129
098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1973–84 130
099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2–84 132
100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V.1 1984.2–5월 133
101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V.2 1984.6–12월 134
102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 1980–84 135
103 주한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 관저 임대차 및 채무관계, 1984–85 136
104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3–84 137
105 주한 외국공관 부지매입 및 이전 검토, 1983–84 138
106 1985년도 재외공관 업무계획, 1984 139
107 1985년 외교정책 수립 기본 자료, 1984 140
108 한국 외교정책, 1984 142
109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외교정책, 1983–84 144
110 한국의 대캄푸챠 정책, 1983–84 146
111 한국의 대필리핀 외교강화 대책, 1984 148
112 한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1983–84 150
113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류 단절, 1984 151

114 1983년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 1주년 대책, 1984. 전2권. V.1 1-8월 153
115 1983년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 1주년 대책, 1984. 전2권. V.2 9-12월 155
116 한국의 대중동 정책, 1984 157
117 페루의 대한국 정책, 1983-84 159
118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관계 개선문제, 1984 160
119 한 · 호주 정무일반, 1984 162
120 한 · 벨기에 정무일반, 1984 164
121 한 · 캐나다 정무일반, 1984 166
122 한 · 에콰도르 정무일반, 1984 167
123 이집트의 주Cairo총영사관 직원 소환 요구, 1983-84 169
124 한 · 적도기니 관계 강화 추진, 1983-84 170
125 한 · 이디오피아 정무일반, 1984 172
126 한 · 프랑스 정무일반, 1984 174
127 한 · 가나 정무일반, 1981-84 176
128 그리스 수상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발언문제, 1984-85 178
129 동독 화물기 그리스 억류사건, 1983-84 179
130 한 · 이탈리아 정무일반, 1984 180
131 다나까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한국관계 발언, 1984 181
132 한 · 일본 정무일반, 1984 182
133 한 · 일본 정상간 직통회선 개설, 1983-84 183
134 한 · 케냐 정무일반, 1984 184
135 한 · 말레이시아 정무일반, 1984 186
136 한 · 마카오 관계, 1982-84 187
137 한 · 멕시코 정무일반, 1983-84 188
138 한 · 네팔 정무일반, 1984 189
139 한 · 네덜란드 정무 일반, 1984 190
140 한 · 니제르 정무 일반, 1984 191
141 한 · 파키스탄 정무일반, 1984 193
142 한국의 팔레스타인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공여, 1982-84 194
143 한 · 페루 정무일반, 1984 195
144 한 · 스웨덴 관계, 1984 197
145 한 · 싱가포르 관계, 1984 198
146 한 · 시에라리온 관계, 1984 199
147 해외 우간다 반정부 단체의 대 한국 공관원 접근 시도에 대한 대책, 1982-84 200
148 미국 의회 청문회, 1984 201
149 미국 의회의원의 한국관계 발언 및 주미국대사 면담보고, 1983-84 203
150 주UN 남 · 북한대사 미국 TV 프로그램 출연문제, 1984 204
151 한 · 미국 정무일반, 1984 205
152 한 · 우루과이 정무일반, 1983-84 207

153 한 · 자이르 정무일반, 1984 208
154 정해융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장, 1984 210
155 함영훈 주뉴질랜드대사 겸임국 서사모아 출장, 1983-84 212
156 장선섭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출장, 1984 213
157 강석재 주케냐대사 겸임국 출장, 1983-84 215
158 호주 · 중공 관계, 1984 216
159 조자양(趙紫陽) 중공 수상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984.1.8-23 217
160 일본 · 중공 관계, 1984 218
161 중공 · 소련 관계, 1984-85 220
162 미국 · 중공 관계, 1984 221
163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중공 방문, 1984.4.26-5.1. 전2권. V.1 기본문서 223
164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중공 방문, 1984.4.26-5.1. 전2권. V.2 신문기사 225
165 오학겸(吳學謙) 중공 외교부장 중남미 순방, 1984.8.[4-15] 226
166 조자양(趙紫暘) 중공 수상 서구 순방, 1984.5.30-6.16 227
167 인도 · 파키스탄 관계, 1984 229
168 스리랑카의 이스라엘 이익대표부 설치 허가, 1984 231
169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3.23-26. 전2권. V.1 기본문서 232
170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3.23-26. 전2권. V.2 언론보도 234
171 일본 · 소련 관계, 1983-84 235
172 일본 · 미국 관계, 1984 237
173 미국 · 소련 관계, 1984 239
174 주프랑스 대사관을 통한 미수교국 관계 개선 추진, 1984 241
175 국교수립 - 브루나이, 1981-84 242
176 대중공 외교관 직접 접촉, 1984 243
177 국교수립 - 기니비사우, 1974-84. 전2권. V.1 1974-82 244
178 국교수립 - 기니비사우, 1974-84. 전2권. V.2 1983-84 246
179 국교수립 (교섭) - 이라크, 1982-84 248
180 한 · 러시아(구 소련) 관계개선, 1984 250
181 한 · 시리아 관계 개선, 1981-84 252
182 대소련 교류문제 건의 및 추진 현황, 1984 254
183 [아프리카지역]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1984 256
184 재외공관 설치 - 브루나이, 1982-84 257
185 주레바논대사관 직원 및 가족 철수, 1984 259
186 주마카오 겸임 총영사관 설치, 1981-84 261
187 재외공관 설치 - 말라위, 1973-84 262
188 재외공관 설치 - Jeddah(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1984 263
189 대아프리카 외교망 확충, 1984 264
190 주한공관 설치 - 아이티, 1981-84 265
191 주한공관 설치 - 파라과이, 1984.11.16 266

192 주한공관 설치 – 미국 영사관 (부산) 1984.1.27 267
193 태평양 지역협력, 1984 268
194 한 · ASEAN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 제5차. 서울, 1984.10.10–14 270
195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1 1977년도 271
196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2 1978–81년도 273
197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3 1982년도 275
198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4 1983–84년도 277
199 SARC(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 회의, 1984 279
200 SPC (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24차. Noumea (뉴칼레도니아) 1984.10.15–19 280
201 SPF (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5차. Funafuri (투발루) 1984.8.27–28 281
202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17차. Jakarta, 1984.7.9–10 282
203 EC(구주공동체)–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5차. Dublin (아일란드), 1984.11.15–16 283
204 한국의 대ASEAN 협력강화 : 인적자원개발계획(HRD) 참여 추진, 1984 284
205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6차. 서울, 1984.5.7 285
206 OAS(미주기구) 총회, 제14차. Brasilia, 1984.11.12–17 286
207 OAS(미주기구) 특별총회. Washington. D.C., 1984.3.12 287
208 OAS/CIES(미주기구/미주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19차. Santiago(칠레) 1984.8.27–31 288
209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OAS(미주기구) 회의, 제1차. Santo Domingo (도미니카공화국), 1984.12.10–12 289
210 OAS(미주기구) 전문회의/기타회의, 1984 290
211 OAS(미주기구) 상임 옵서버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관 파견, 1984 291
212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292
213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 1984 293
214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의, 1983–84 294
215 Klibi, Chedli 아랍연맹 사무총장 방한, 1984.6.13–15 295
216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1984 296
217 AAPSO (아시아 · 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회의, 1984 297
218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0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1984.11.12.–15. 전2권. V.1 1월–11.15 298
21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0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1984.11.12.–15. 전2권. V.2 11.16–12월 299
220 최은희 · 신상옥 납북사건 진상 발표관련 각국 반응, 1984 300
221 홍콩인의 회현동 암달러상 살해사건, 1984 301
222 일본 방송위성 발사에 따른 전파송출 문제, 1984 302
223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84 303
224 한국해군에 의한 일본어선 위협 사격 사건, 1983–84 304
225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1 1983.9.3–20 305
226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2 1983.9.21–26 306
227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3 1983.9.27–10.5 307
228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4 1983.10.6–84.7월 308
229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1 1–6월 309

230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2 7월-8.20 310
231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3 8.21-9.5 311
232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4 9.6-11월 312
233 바티칸 교황 메시지, 1984 313
234 한 · 일본 간의 서신 교환, 1984 314
235 한 · 미국 대통령 간의 친서교환, 1981-84 315
236 한 · 캐나다 외무장관 회담. New York, 1984.9.28 317
237 한 · 벨기에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4.10.29-30 318
238 한 · 캐나다 정책협의회, 제2차. Ottawa, 1984.9.20-21 319
239 한 · 독일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4.12.11-12 320
240 한 · 일본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2차. 동경, 1984.12.11. 전2권. V.1 기본문서 321
241 한 · 일본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2차. 동경, 1984.12.11. 전2권. V.2 자료 322
242 한 · 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4.3.2 323
243 한 · 스웨덴 정책협의회, 제1차. Stockholm, 1984.9.18 324
244 한 · 미국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4.10.30-31 325
245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1984.2.13-22. 전5권. V.1 기본문서 I (계획) 326
246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1984.2.13-22. 전5권. V.2 기본문서 II (공관건의, 토의요록, 연설문) 327
247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1984.2.13-22. 전5권. V.3 자료 I (면담, 브리핑) 328
248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1984.2.13-22. 전5권. V.4 자료 II (공관자료 : 중동) 329
249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1984.2.13-22. 전5권. V.5 자료 II (공관자료 : 구주, 아프리카) 330
250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1 기본계획 331
251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2 공관건의 및 관련부처 회신 332
252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3 결과보고 및 연설문 333
253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4 자료 I (장관 개별 면담자료) 334
254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5 자료 II (브리핑 자료) 335
255 관내 공관장회의 및 경제협의회 - 캐나다, 1984 336
256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일본. 동경, 1984.3.9-10 337
257 총영사회의, 1984년도 - 미국. Los Angeles, 1984.4.26-27 338
258 한 · 일본간 소련관계 구주국장 협의회, 제1차. 동경, 1984.12.7 339
259 한 · 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84.12.3-4 340
260 한 · 중국 학술회의, 제5차. Taipai, 1984.10.16-23 341
261 남북 통일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1984 342
262 한국관계 학술회의, 1984 343
263 한 · 일본 협력위원회, 1984 344
264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사항, 1982-84 345
265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 기본계획 I (정무) 347
266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2 기본계획 II (행사) 348
267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3 일정 349

268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4 의전일반 350
269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5 사전준비 351
270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6 연회 352
271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7 보안 및 경비 353
272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8 회담 I (정상회담) 354
273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9 회담 II (별도 각료회담) 355
274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0 공동성명서 356
275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1 연설문 357
276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3 결과보고 358
277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4 언론보도 I 359
278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5 언론보도 II 360
279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6 언론보도 III (보도자료 및 홍보지침) 362
280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7 자료 364
281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8 천황발언 365
282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9 기자회견 366
283 전두환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후속조치, 1983-84 367
284 Figueiredo, Joao Baptista de Oliveira 브라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3-84 368
285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1 기본문서 369
286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2 공동성명서 및 연설문 370
287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3 의전 (1) : 영접준비 371
288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4 의전 (2) : 일정 및 타부처 협조 372
289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5 자료 373
290 Pinochet Ugarte, Augusto 칠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77-84 374
291 Fait Lizano, Alberto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3-84 375
292 덴마크 왕실 Henrik공 방한, 1984.5.24-27 376
293 에콰도르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1-84 377
294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1 기본문서 378
295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2 의전 I 379
296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3 의전 II 380
297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4 자료 381
298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1 기본문서 382
299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2 공동성명 및 자료 383
300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3 의전 I 384
301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4 의전 II 385
302 Henri 룩셈부르크 왕세자 방한, 1984.4.25-5.1 386
303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1 사전교섭 387
304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2 결과보고 388
305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3 의전 389
306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4 자료 390

307 Deroburt, Hammer 나우루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 1981-84 391
308 GYANENDRA Bin Bikrm Shah 네팔 제1왕제 방한계획, 1977-84 392
309 Marcos, Ferdinand E. 필리핀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66-84 393
310 Barletta, Nic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방한, 1984.7.19-20. 전2권. V.1 기본문서 395
311 Barletta, Nic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방한, 1984.7.19-20. 전2권. V.2 의전 396
312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1 기본문서 397
313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2 의전 I 398
314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3 의전 II 399
315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4 자료 400
316 Stevens, Siaka 시에라리온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4 401
317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1 기본문서 402
318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2 의전 I 403
319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3 의전 II 404
320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4 공동성명서 · 연설문 및 언론보도 405
321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5 자료 406
322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1 사전준비 407
323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2 결과보고 408
324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3 의전 I 409
325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4 의전 II 410
326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5 자료 411
327 Omer Mohamed EL TAYEB 수단 제1부통령 방한, 1984.10.2-6. 전2권. V.1 기본문서 412
328 Omer Mohamed EL TAYEB 수단 제1부통령 방한, 1984.10.2-6. 전2권. V.2 의전 413
329 Tupou 통가 국왕 방한 초청계획, 1974-84 414
330 진의종 국무총리 서구 및 사우디아라비아 순방계획, 1984.11. 전2권. V.1 기본문서 415
331 진의종 국무총리 서구 및 사우디아라비아 순방계획, 1984.11. 전2권. V.2 자료 416
332 Compton, John G. M. 세인트루시아 수상 방한, 1984.1.9-12 417
333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1 기본문서 418
334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2 의전 419
335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3 연설문 420
336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4 언론보도 421
337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5 자료집 422
338 Martens, Wilfried 벨기에 수상 방한, 1984.4.15-18. 전3권. V.1 기본문서 423
339 Martens, Wilfried 벨기에 수상 방한, 1984.4.15-18. 전3권. V.2 의전 424
340 Martens, Wilfried 벨기에 수상 방한, 1984.4.15-18. 전3권. V.3 자료 425
341 Son Sann 민주 캄푸챠 연정 수상 비공식 방한, 1984.6.5-8. 전2권. V.1 사전준비 426
342 Son Sann 민주 캄푸챠 연정 수상 비공식 방한, 1984.6.5-8. 전2권. V.2 결과보고 427
343 Jugnauth, Aneerood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84.7.31-8.4. 전3권. V.1 기본문서 428
344 Jugnauth, Aneerood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84.7.31-8.4. 전3권. V.2 의전 429
345 Jugnauth, Aneerood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84.7.31-8.4. 전3권. V.3 자료 430

346 Soares, Mario 포르투갈 수상 방한, 1984.6.15-17. 전3권. V.1 기본문서 431
347 Soares, Mario 포르투갈 수상 방한, 1984.6.15-17. 전3권. V.2 의전 432
348 Soares, Mario 포르투갈 수상 방한, 1984.6.15-17. 전3권. V.3 자료 433
349 Mohamed M'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1 기본문서 434
350 Mohamed M'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2 의전 435
351 Mohamed M'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3 경제각료회담 436
352 Mohamed M'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4 자료 437
353 이원경 외무장관 Barletta, Nic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4.10.9-12 438
354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4.9.25-10.9. 전3권. V.1 기본문서 I : 일정 439
355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4.9.25-10.9. 전3권. V.2 기본문서 II : 활동 및 결과보고 440
356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4.9.25-10.9. 전3권. V.3 자료 441
357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1 기본문서 442
358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2 국별 교섭 443
359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3 연설문 및 언론보도 444
360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4 국별 자료 I 445
361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5 국별자료 II 446
362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6 참고자료 447
363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1 기본문서 I 448
364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2 기본문서 II 449
365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3 결과보고 450
366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4 언론보도 및 연설문 451
367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5 자료 I 452
368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6 자료 II 453
369 Aguirre Lanari, Juan R. 전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84.11.11-15 454
370 Steger, Norbert 오스트리아 부수상 겸 상공장관 방한, 1984.10.23-26 455
371 Mohammed bin Mubarak AL- KHALIFA 바레인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74-84 456
372 Julio Reyes, Humberto 칠레 외무차관 방한, 1984.9.26-30 457
373 Ochoa de Ardila, Laura 콜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4.10.22-27 458
374 Gutierrez G., Carlos Jose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방한, 1984.12.12-15 459
375 Clement Michel-Pascal NGA GNII - VOUE TO 중앙아프리카 외무 및 국제협력 장관 방한, 1984.8.27-31. 전2권. V.1 기본 문서 460
376 Clement Michel-Pascal NGA GNII - VOUE TO 중앙아프리카 외무 및 국제협력 장관 방한, 1984.8.27-31. 전2권. V.2 자료 461
377 Said KAFE 코모로 외무협력 및 대외통상장관 방한, 1984.2.27-3.2 462
378 Paz Barnica, Edgardo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1984.8.6-9 463
379 Estime, Jean - Robert 아이티 외무장관 방한, 1984.7.23-26 464
380 MINIKON, Christopher 라이베리아 외무차관 방한, 1984.10.29-11.5 465
381 Cooper, Warren E. 뉴질란드 외상 겸 대외무역상 방한 초청계획, 1982-84 466
382 Saldivar, Carlos Augusto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4.6.16-19 467

383 Chia Cheong Fook 싱가포르 외무차관 방한, 1984.10.23-27 468
384 Conteh, Abdulai Osman 시에라리온 외무장관 방한, 1984.2.1-5 469
385 Hameed, A. C. Shakul 스리랑카 외무장관 방한계획, 1981-84 470
386 Mkhonza, Z. L. K. 스와질랜드 외무차관 방한, 1984.10.6-13 471
387 Beji Caid ESSEBSI 튀니지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1983-84 472
388 Howe, Geoffrey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84.4.22-25. 전2권. V.1 기본문서 473
389 Howe, Geoffrey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84.4.22-25. 전2권. V.2 의전 474
390 Luce, Richard 영국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4.10.3-6 475
391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4.5.1-2. 전2권. V.1 기본문서 476
392 Ilboudo, Pierre 오트볼타 외무차관 방한 초청 계획, 1983-84 477
393 MAIANA Toma 서사모아 외무차관 방한, 1984.10.21-23 478
394 자이르 외상 방한 초청계획, 1982-84 479
395 권익현 특사 (국회의원)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모로코 방문, 1984.5.9-23. 전2권. V.1 기본문서 480
396 권익현 특사 (국회의원)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모로코 방문, 1984.5.9-23. 전2권. V.2 자료 481
397 강경식 특사 (대통령 비서실장) 아프리카 순방, 1984.11.23-12.16. 전2권. V.1 기본문서 482
398 강경식 특사 (대통령 비서실장) 아프리카 순방, 1984.11.23-12.16. 전2권. V.2 자료 483
399 강경식 특사 (대통령 비서실장) 남미 순방, 1984.8.5-25 484
400 Mohammed Saeed AL-BADIE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 특사 (국군 참모총장) 방한, 1984.9.28-10.6 485
401 한 · 호주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호주 및 태국 방문, 1984.4.1-11 486
402 한 · 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방문, 1984.3.26-4.2 487
403 한 · 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덴마크 및 핀란드 방문, 1984.3.25-31 488
404 채문식 국회의장 자메이카 및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1984.2.12-18 489
405 한 · 스페인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스페인 및 그리스 방문, 1984.5.14-28 490
406 한 · 노르웨이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방문, 1984.3.19-25 491
407 채문식 국회의장 요르단 방문, 1984.2.3-6 492
408 의원사절단 케냐 및 말라위 방문, 1984.2.8-14 493
409 한 · 멕시코 의원친선사절단 멕시코, 베네수엘라 방문, 1984.4.6-26 494
410 채문식 국회의장 파푸아뉴기니 방문, 1984.8.7-11 495
411 국회의원단 스위스 방문, 1984.3.28-4.1 496
412 채문식 국회의장 터키 방문, 1984.2.6-10 497
413 국회의원 미국 방문, 1984 498
414 국회의원단 중남미 순방, 1984 499
415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북미 및 서구 순방, 1984.2.9-25 500
416 McClelland, Douglas 호주 상원의장 방한, 1984.9.16-20 501
417 오스트리아 국민당 의원단 방한, 1984.8.24-29 502
418 벨기에 · 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4.5.22-27 503
419 브라질 제10야당 의원단 방한, 1984.11.6-11 504
420 볼리비아 국회의원 방한, 1984 505
421 하의무(何宜武) 중국 국민대회 비서장 방한, 1984.9.3-8 506

422 콜롬비아 국회의원 방한, 1983-84 507
423 Douglas, Michael 도미니카연방 야당 당수 방한, 1984.9.8-12 508
424 프랑스 하원 북한연구소 의원단 방한, 1984.5.27-6.2 509
425 이탈리아 상 · 하 의원단 방한, 1984.11.30-12.4 510
426 니까이도 스스무(二階堂進) 일본 자민당 부총재 방한, 1984.8.13-15 511
427 덴히데오(田英夫) 일본 사민련 (사회민주연합) 대표 방한, 1984.10.29.-11.1 512
428 야마모또 고오이찌(山本 幸一) 일본 사회당 고문 일행 방한, 1984.11.19-23 513
429 Seetaram, Iswardeo 모리셔스 국회운영위 부위원장 방한, 1984.3.15-24 514
430 네팔 국회의원 방한, 1983-84 515
431 Kwawaja Mohammad SAFDAR 파키스탄 연방입법자문회의 의장 방한, 1984.5.16-22 516
432 페루 국회의원 방한, 1984 517
433 Gina, Lloyd 솔로몬아일란드 국회의장 방한, 1984.2.22-27 518
434 스웨덴 국회의원 방한, 1984 519
435 스리랑카 국회의원 방한, 1984 520
436 Senanayake, E. L. 스리랑카 국회의장 방한, 1984.8.27-9.3 521
437 Karaduman, Necmettin 터키 국회의장 방한, 1984.9.24-30 522
438 미국 의회 전문위원 및 입법 보좌관 방한, 1984 523
439 미국 의회의원 방한, 1984 524
440 한 · 중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중국 방문, 1984.1.6-11 525
441 프랑스 · 한 의원친선협회, 1983-84 526
442 독일 · 한 의원친선협회, 1984 527
443 한 · 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2차. 동경, 1984.8.9 528
444 한 · 일본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1983-84 529
445 한 · 일본 의원연맹 활동 및 인사교류, 1984 530
446 염보현 서울시장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984.7.27-8.13 531
447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및 이병용 차관 독일 방문, 1984 532
448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기니 방문, 1984.4.23-25 533
449 대표단 이라크 방문, 1984.12.20-22 534
450 국정자문위원 시찰단 대양주 및 일본 순방, 1984.5.16-6.5 535
451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 중동 순방, 1984.6.9-17 536
452 조기일 외무부 동아프리카 과장 관할지역 방문, 1984.11.13-28 537
453 Gates, Kevin I. 호주 외무성 북아시아 담당 부국장 방한, 1984.5.29-6.1 538
454 버마 외무부 사절단 방한, 1984.11.20-25 539
455 캐나다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4 540
456 Levesque, Rene (레베끄, 르네) 캐나다 Quebec 주 수상 방한, 1984.9.27-29 541
457 Sancho Bonilla, Javier 코스타리카 대통령실 장관 비서실장 방한, 1984.5.17-21 542
458 MOKOLO Wa Mpombo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 국가문서부장 방한, 1984.5.7-11 543
459 가나 외무성 대표단 방한, 1984.10.27-11.7 544
460 기니 정부사절단 방한, 1984.10.14-19 545

461 이라크 주요인사 방한, 1982-84 546
462 Majid ADHAM 이라크 특사 (제1부수상) 방한, 1984.10.14-17 547
463 페루 주요인사 방한, 1984 548
464 Orrego Villacorta, Eduardo 전 페루 Lima 시장 방한, 1984.3.26-31 549
465 Dahlstem, Ulf 스웨덴 수상 보좌관 방한, 1984.10.31-11.3 550
466 Siddique Kemal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국장, Wong Remond 공산권담당 부국장 방한, 1984.3.23-31 551
467 Wone, Ibrahima 세네갈 내무장관 방한, 1984.9.9-15 552
468 Hernandez Gil, Antonio 스페인 국정자문회의 의장 방한, 1984.6.11-15 553
469 수리남 주요인사 방한, 1984 554
470 Hamed AMMAR 튀니지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84.1.27-31 555
471 Tupou, Lipou 주Nukualofa 통가 명예영사 방한, 1984.9.7-14 556
472 Harding, William 영국 외무성 동아시아 · 중남미담당 차관보 방한, 1984.11.28-12.1 557
473 미국 주요인사 방한, 1984 558
474 미국 주지사 방한, 1984 559
475 Barry, Marrion 미국 Washington, D.C. 시장 방한, 1984.5.22-25 560
476 Bordallo, Richard J. 미국령 Guam 지사 방한, 1984.4.18-21 561
477 Feinstein, Dianne 미국 San Francisco 시장 방한, 1984.11.20-24 562
478 Sheffield, Bill 미국 Alaska 주지사 방한, 1984.10.17-21 563
479 Sherman, Willia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984.8.13-23 564
480 Young, Andrew 미국 Atlanta 시장 방한, 1984.2.21-25 565
481 진의종 국무총리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1984.2.22-25. 전3권. V.1 기본문서 566
482 진의종 국무총리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1984.2.22-25. 전3권. V.2 의전 567
483 진의종 국무총리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1984.2.22-25. 전3권. V.3 참고자료 568
484 장경국(蔣經國) 중화민국 제7대 총통 취임식 참석 경축사절단 파견, 1984.5.18-21 569
485 정해융 주과테말라 대사 Duarte, Jose Naploeon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4.5.30-6.2 570
486 리비아 혁명기념일 경축특사 파견, 1984.8.29-9.2 571
487 이태섭 정무 제1장관 Lusinchi, Jaime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4.1.31-2.4 572
488 채문식 국회의장 Gandhi, Indira 인도 수상 장례식 참석, 1984.11.2-6 573
489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 1984 574
490 북한 · 앙골라 관계, 1984 575
491 북한 · 오스트리아 관계, 1984 576
492 북한 · 방글라데시 관계, 1984 577
493 북한 · 캄보디아 관계, 1980-84 578
494 북한 · 코스타리카 관계, 1983 579
495 북한 · 중공 관계, 1984 580
496 북한 · 중앙아프리카 관계, 1984 581
497 북한 · 이집트 관계, 1984 582
498 북한 · 에티오피아 관계, 1984 583
499 북한 · 피지 관계, 1984 584

500 북한 · 핀란드 관계, 1984 585
501 북한 · 가나 관계, 1984 586
502 북한 · 그리스 관계, 1984 587
503 북한 · 인도네시아 관계, 1984 588
504 북한 · 이라크 관계, 1984 589
505 북한 · 이란 관계, 1984 591
506 북한의 대이란 군사 지원, 1984 592
507 북한 · 일본 관계, 1984. 전2권. V.1. 1–4월 593
508 북한 · 일본 관계, 1984. 전2권. V.2. 5–11월 594
509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1. 만경봉호 595
510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2. 삼지연호: 3–6월 596
511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3. 삼지연호: 7–11월 597
512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4. 기타 대흥호 등 598
513 일본 · 조선 우호촉진 의원연맹, 1983–84 599
514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결정, 1984 600
515 북한 · 자메이카 관계, 1984 601
516 북한 · 리비아 관계, 1984 602
517 북한 · 마카오 관계, 1983–84 603
518 북한 · 몰타 관계, 1984 604
519 북한 · 나이지리아 관계, 1984 605
520 북한 · 니제르 관계, 1984 606
521 북한 · 시에라리온 관계, 1984 607
522 북한 · 스페인 관계, 1984 608
523 북한 · 태국 관계, 1984–85 609
524 북한 · 우간다 관계, 1984 611
525 북한 · 영국 관계, 1984 612
526 북한 · 소련 관계, 1984 613
527 미국 교회의 대북한 선교활동 대책, 1983–84 614
528 미국의 대북한 금수조치, 1981–84 615
529 북한 · 미국 관계, 1984 616
530 북한주민의 미국 이민문제, 1984 617
531 북한 · 부르키나파소 관계, 1984 618
532 북한 · 베네수엘라 관계, 1984 619
533 북한 · 아프리카지역 관계, 1983–84 620
534 북한 · 동남아 관계, 1984 621
535 북한 · 중동 관계, 1984 622
536 북한 · 구주 관계, 1984 623
537 북한의 대동구권 관계, 1981–84 624
538 북한 · 남미 관계, 1984 625

539 북한 · 동부아프리카 관계, 1984 626
540 북한 · 서부아프리카 관계, 1984 627
541 북한 · 북구 관계, 1984 629
542 북한 IPU(국제의원연맹) 대표단 이탈리아 방문, 1984.10.15-20 630
543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및 동구 순방, 1984.5.23-6.21. 전2권. V.1 정세조사 631
544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및 동구 순방, 1984.5.23-6.21.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632
545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미국 [UN] 입국, 1984 633
546 북한 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4-85 634
547 호요방(胡耀邦) 중공 당 총서기 북한 방문, 1984.5.4-11 635
548 이시바시 마사시(石橋 政嗣) 일본 사회당 위원장 북한 방문, 1984.9.18-22 636
549 북한의 대외경제 및 군사원조 동향, 1984 637
550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 · 중공간의 교역, 1984 638
551 일본 · 북한 경제관계, 1984 639
552 일본 · 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V.1. 1982년도 640
553 일본 · 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V.2. 1983-84년도 641
554 일본의 대북한 어선 밀수출, 1984 642
555 북한산 인삼제품 미국내 불법거래 문제, 1983-84 643
556 북한의 대구주 부채 상환 교섭, 1984 644
557 주체사상 국제 세미나. Lisbon, 1984.4.6-8 645
558 김일성 퇴임설 관련 대책, 1984 646
559 북한 9.9절 기념행사, 1983 647
560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V.1. 1-4월 648
561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V.2. 5-12월 649
562 북한관련 일본 언론보도 동향, 1984. 전3권. V.1. 1984.1-4월 650
563 북한관련 일본 언론보도 동향, 1984. 전3권. V.2. 1984.5월 651
564 북한관련 일본 언론보도 동향, 1984. 전3권. V.3. 1984.6-10월 652
565 2원적 교차승인 (한강개발계획) 1984 653
566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V.1 1-4월 654
567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V.2 5-11월 655
568 7.4 남북 공동성명 11, 12주년 대북한 성명 홍보, 1983-84 656
569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의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 획득 문제, 1983-84 657
570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1 사전준비 I 658
571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2 사전준비 2 659
572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3 결과보고 660
573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4 홍보 및 각국 반응 661
574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UN사무총장의 중재역할 활용 추진, 1980-84 662
575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1 남북체육회담 제의 및 준비 664
576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2 제1차 남북체육회담 및 IOC위원 접촉 665
577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3 제2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666

578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4 제3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667
579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5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교섭 668
580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6 해외반응 669
581 LA올림픽 남 · 북한 단일팀 구성촉구 관련 재미동포 동향, 1983-84 670
582 우리 정부의 대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제의, 1984 671
583 대 공산권 교류 홍보문제, 1984 672
584 공산권 국가 외교관등 접촉 활동 지침, 1980-84 673
585 대동구권 관계 개선, 1984 674
586 공산권 여행 허가, 1984 675
587 공산권 여행자에 대한 정세설명 및 귀국보고회 제도, 1984 676
588 뉴욕 비동맹 외상회의, 1984.10.1-5 677
589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Jakarta, 1984.1.26.-30. 전2권. V.1 기본문서 678
590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Jakarta, 1984.1.26.-30.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언론보도 679
591 비동맹 노동장관 회의, 제3차, Managua(니카라과) 1984.5.10.-12. 전2권. V.1 사전준비 680
592 비동맹 노동장관 회의, 제3차, Managua(니카라과) 1984.5.10.-12.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681
593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부문 조정국 관계 전문가 회의, 평양, 1984.6.16-22 682
594 비동맹 조정위원회 및 기타 회의, 1984 683
595 FY 84 추경 및 FY 85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대외원조법) 1984. 전2권. V.2 자료집 684
596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84 685
597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 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4 686
598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 분과위원회, 1981-84 688
599 주한미군 군납문제, 1983-84 689
600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690
601 주한미군의 김포국제공항 이용문제, 1983-84 691
602 AFKN(주한미군방송)-TV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문제, 1983-84 692
603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4 693
604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 1981-84 694
605 이기백 합참의장 구주 및 미주 순방, 1984.11.7-12.6 695
606 정호용 육군 참모총장 중남미 순방, 1984.5.24-6.5 696
607 아르헨티나 군사 · 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1-84 697
608 브라질 Sao Paulo시 경찰국장 방한, 1982-84 698
609 콜롬비아 군사 · 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699
610 캐나다 원호성 장관 방한, 1983-84 700
611 인도 국방대학원 시찰단 방한, 1984.9.27-10.3 701
612 뉴질란드 군사 · 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702
613 페루 군사 · 안보관계 인사 방한, 1984 703
614 Fall, Ahmeth 세네갈 대통령 특별 참모장 방한, 1984.7.9-12 704
615 수리남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1-84 705
616 PRASONG Soonsiri 태국 국가안보국 사무국장 방한, 1984.1.23-25 706

617 Alonso Leguisamo, Justo M. 우루과이 국방장관 방한, 1984.9.27–10.2 707
618 한 · 가봉 군사협력, 1982–84 708
619 파나마의 군사지원 요청, 1982–84 709
620 한 · 사우디아라비아 군사협력, 1984 710
621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 · 미국 학술회의, 제3차. San Francisco, 1984.11.18–20 711
622 IISS 주최 동북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 국제학술회의. 서울, 1984.12.12–15 712
623 CSIS 주관 동북아문제 한 · 미국 학술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84.4.23–24 713
624 중공 개최 국제기구회의 참가 추진, 1983–84 714
625 소련 개최 국제기구회의 참가, 1984 715
626 1984년도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4.11.7 716
627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1984 717
628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 기본 대책 718
629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2 본회의 719
630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3 위원회별 토의 I : 1위원회 720
631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4 위원회별 토의 II : 3, 4, 5위원회 721
632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5 위원회별 토의 III : 특별정치위원회 722
633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6 지지 교섭 I : 84.6.27–8.18 723
634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7 지지 교섭 II : 84.8.19–9.7 724
635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8 지지 교섭 III : 84.9.8–10.11 725
636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9 기조 연설 I : 종합 726
637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0 기조 연설 II : 84.9.23–10.5 727
638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1 기조 연설 III : 84.10.6–12.3 728
639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2 종합 보고 729
640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3 북한 동향 730
641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4 안보리 이사국 선출 731
642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V.1 사전 준비 732
643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V.2 결과보고 734
644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V.3 각국 지지교섭 735
645 UN총회, 제39차(제2위원회) New York, 1984.9.18–12.18 736
646 제3차 UN 국제개발전략 이행평가 및 검토위원회. New York, 1984 737
647 UN 안전보장이사회 / 이란 · 이라크 사태 토의, 1984 738
648 ECOSOC(UN경제사회이사회) 회의, 1984 739
649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총회, 제7차. Libreville(가봉) 1984.4.30–5.11 740
650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9–10차. New York, 1983–84 741
651 ECA(아프리카 경제위원회) 회의, 1984 742
652 UN 중남미 경제위원회(CEPAL) 총회, 제20차. Lima(페루), 1984.3.29–4.6 743

653 UN 지명 전문가 회의, 제11차. Geneva(스위스), 1984.10.15-23 744
654 UN 사무총장 동정, 1983-84 745
655 UN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리카지역 세미나. Tunis(튀니지), 1984.8.13-18 747
656 주UN 한국대표부 대외활동, 1984 748
657 주UN 북한대표부 동향, 1984 749
658 Deigo Cordovez UN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 방한, 1984.7.28.-8.1. 전2권. V.1 기본문서 750
659 Deigo Cordovez UN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 방한, 1984.7.28.-8.1. 전2권. V.2 언론보도 및 자료 752
660 주UN 미국 및 코스타리카 차석 대사 방한, 1984 753
661 UNMCK(UN기념묘지위원회) 1984 754
662 제3회 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984 755
663 나미비아의 날 기념행사, 1984 756
664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 행사, 1984 757
665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이사회) 총회 유치 검토, 1983-84 758
666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1 기본계획 I (1983) 759
667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2 기본계획 II (1984.1-2) 760
668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3 기본계획 III (1984.3-4) 761
669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4 결과보고 762
670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5 자료 763
67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개발계획위원회, 제5차. Bangkok, 1984.12.17-21 764
67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8차. Bangkok, 1984.9.11-17 765
67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교통 · 통신 10년대 정부 간 특별회의, 제1-2차. Bangkok, 1983-84 766
67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도로운수 관계회의. Bangkok, 1984.11.20-23 767
67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무역위원회 회의, 제25차. Bangkok, 1984.11.6-12 768
676 ESCAP/ 정부 정보 체계 조정연구단 회의, 제3차. Paris, 1984.2.7-13 769
67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제1회 아시아실크박람회 운영위원회 회의, 제2차. Hong Kong, 1984.7.2-4 770
67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11차. Bangkok, 1984.10.16-22 771
67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특별통상장관회의 한국개최 검토, 1983-84 772
68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환경개발통합에 관한 정부간회의. Bangkok, 1984.11.26-30 773
68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NRSE(신대체에너지) 재정동원회의. Bangkok, 1984.9.4-10 774
68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운영위원회, 제2차. Bangkok, 1984.8.29-30 775
68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제7차. Manila, 1984.11.28-30 776
68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TCG(무역협력단) 회의, 제6차. Bangkok, 1984.10.25-26 777
68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 태풍위원회 회의, 제17차. Manila(필리핀) 1984.12.4-10 778
68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V.1 기본문서 779
68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V.2 자료 780
688 Koji Nakagawa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차장 방한, 1984.7.29-8.2 781
689 ESCAP/산업자문 지역망 설치 사업, 1982-84 782

690 ESCAP/4개 산하기구 재정 지원 문제, 1983-84 783
69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CU(아시아청산동맹) 가입문제, 1983-84 784
692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상이체제국가간 무역협상, 1984 785
693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8차. Geneva, 1984.3.26-4.6 786
694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9차. Geneva, 1984.9.10-27 787
695 UNCTAD (UN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11차. Geneva, 1984.11.19-30 789
69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특별회의, 제1차. Geneva, 1984.2.13-22 790
69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5차. Geneva, 1984.12.3.-20. 전2권. V.1 기본문서 791
69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5차. Geneva, 1984.12.3.-20. 전2권. V.2 자료 792
699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선박 등록조건에 관한 회의. Geneva, 1984.7.16-8.3 793
700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중석위원회, 제16차. Geneva, 1984.12.10-14 794
701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2차. Geneva, 1984.4.24-5.4 795
702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4.11.7-16 796
703 Corea, Gamani UNCTAD(UN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방한, 1984.5.23-29 797
704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1 1983 798
705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2 1984.1. 799
706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3 1984.2-3 801
707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4 1984.4-10 803
70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각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805
709 제4차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대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지역공업장관회의. Bangkok (태국) 1984.3.12-16 806
710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1 기본문서 808
711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2 의제 810
712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3 회의록 811
713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4 자료 812
714 UNIDO(UN공업개발기구) / 상임위원회, 제21차. Vienna, 1984.11.19-23 813
715 UNIDO(UN공업개발기구) / IDB(공업개발이사회) 제18차. Vienna, 1984.5.2-18 814
716 UNCSTD(UN과학기술개발회의) / ICSTD(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6차. New York, 1984.5.29-6.8 815
717 UNIDO(UN공업개발기구) / ICGEB(국제유전 및 생물공학센터) 설립 전권대표회의. Vienna(오스트리아) 1984.4.3-4 816
718 UNDP(UN개발계획)집행이사회, 제31차. Geneva, 1984.6.4-30 817
719 UNDP(UN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지원조정관회의, 제2차. Bangkok(태국) 1984.4.30-5.8 818
720 UNDP(UN개발계획) 인사 방한, 1984 819
721 UNDP(UN개발계획)의 대북한 지원사업, 1983-84 820
722 UNICEF(UN아동기금) 일반, 1984 821
723 공무원등 UNICEF(UN아동기금) 파견 및 훈련, 1982-84 822
724 UNRWA(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기여금, 1978-84 823
725 UNV(UN봉사단) 자문회의, 제2차. Geneva, 1984.4.9-11 824

726 WFP(세계식량계획)/CFA(식량원조정책 · 계획위원회) 제17차. Rome, 1984.5.28-6.6 825
72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1 기본문서 : 1-3월 826
72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2 기본문서 : 4.3-19 828
72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3 기본문서 : 4.20-27 829
73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4 기본문서 : 4.28-6월 830
73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5 대책 및 참석보고서 832
73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6 연설문 833
73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7 참고자료 834
73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1 83.12-84.2.22 835
73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2 84.2.23-2.29 837
73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3 84.3.1-7 839
73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4 84.3.8-4월 841
738 IMO(국제해사기구) 기본문서, 1982-84 842
739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V.1 참가국별 교섭 843
740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V.2 결과보고 845
741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3차. London, 1984.11.12-16 846
742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1984 847
743 IMO(국제해사기구) 위원회 회의. London, 1984 849
744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49-50차. London, 1984 850
745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추진, 1981-84 851
746 중공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입, 1983-84 852
747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8차. Vienna, 1984.9.24-28 853
748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타 회의. Vienna(오스트리아), 1984 855
749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 지역회의, 제8차. Geneva(스위스), 1984.11.5-16 856
750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Geneva, 1984 857
751 Obasi, Godwin O. P. WMO(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북한 방문, 1984.10.22-26 858
752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19-120차. Paris, 1984 859
753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8차. Manila(필리핀) 1984.11.29-12.4 861
754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북한대표부 동향, 1983-84 862
755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BE(국제교육국) 회의, 제39차. Geneva(스위스) 1984.10.16-25. 전2권. V.1 기본문서 ... 863
756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BE(국제교육국) 회의, 제39차. Geneva(스위스) 1984.10.16-25. 전2권. V.2 자료 864
757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CPES(체육및스포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4차. Paris, 1984.10.9-16 865
758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5차. Paris, 1984.5.3-9 866
759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협력사업 평가회의. Pattaya(태국) 1984.6.25-28 867
76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제9차. Geneva, 1984.9.18-21 868
761 FAO(UN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86차. Rome, 1984.11.19-30 869
762 FAO(UN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17차. Islamabad(파키스탄) 1984.4.24-5.3 870
763 FAO(UN식량농업기구) 수산업 경영 및 개발에 관한 세계대회. Rome, 1984.6.27-7.6 871
764 FAO(UN식량농업기구) / 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 회의. Rome, 1984 872

765 FAO(UN식량농업기구) / 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9차. Rome, 1984.4.11–18 874
766 FAO(UN식량농업기구) / 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7차. Rome, 1984.5.7–11 875
767 FAO(UN식량농업기구) · 북한 관계, 1984 876
768 FAO(UN식량농업기구) 아시아 · 태평양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4.7.26–8.1 878
769 FAO(UN식량농업기구) / APFC(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회의, 제12차. Bangkok(태국) 1984.3.19–23 879
770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제3차 어업통계 및 제7차 자원평가 실무반 회의.
Santa Cruz de Tenerife(스페인) 1984.5.7–15 880
771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9차. Banjul(감비아), 1984.10.15–18 881
772 FAO(UN식량농업기구) / IPC(국제포플라위원회) 회의, 제17차, Ottawa(캐나다), 1984.10.1–4 882
773 FAO(UN식량농업기구) / 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 제21차. Kuala Lumpur(말레이지아) 1984.12.10–15 883
774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8차. Paris, 1984.10.22–26 884
775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7차. Geneva(스위스) 1984.5.7–18. 전2권. V.1 기본문서 885
776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7차. Geneva(스위스) 1984.5.7–18. 전2권. V.2 한국의 집행이사국 선출 886
777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35차. Suva(휘지) 1984.9.5–11 888

1984년도

재외공관 등급 및 정원, 1984

| 84-000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인사제도계
MF번호	2014-1 / 1 / 1~99(99p)

1. 외무부는 1984.1월 등급에 따른 공관장 보직과 등급에 상응하는 적정인력 배치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재외공관 등급화(안)와 이에 따른 재외공관 편제(안)에 대한 부내 의견을 수렴한바, 동 등급화(안)는 주재국(지)의 정치적 비중, 교역량, 경제기술협력 규모, 교민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을 특급(미국, 일본, 유엔) 및 인, 의, 예, 지, 용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함.

2. 동 등급화(안)에 대하여 주재국(지)의 중요성을 감안한 특정 공관 등급의 상 · 하향 조정, 공관정원 증원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됨.
   - ❋ 공관등급의 고착과 계급별 및 직무별 정원의 고정화는 인사관리상의 융통성을 상실케 할 우려
   - ❋ 인사체증 및 인력 구성 분포에 비추어, 또한 공관의 규모 및 중요도 차이에 비추어 특1 및 특2의 고위직 정원을 축소하고 1급 및 2급 중심으로 보임에 주력하는 것 선호
   - ❋ 재외공관 편제는 외무부 본부의 지휘체계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향으로 확립

3. 소규모 공관 운영 개선 및 상위 직급의 본부 과다배치 문제 해소방안 등에 관한 재외공관 운영 효율화 및 인력배치 적정화 방안 자료와 공관별 인원 현황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83-84

| 84-000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인사제도계
MF번호	2014-1 / 2 / 1~100(100p)

1. 외무부는 공관장 직급의 합리적 조정, 공관별 소요 인력의 재검토 및 계급별 소요 인력의 재편을 목적으로 1983.2월 아래 요지의 재외공관 직제 개정을 총무처에 요청함.
   - ❋ 64명의 특1급 외교직 공무원 정원(공관장) 중 19명을 감축하여 이를 특2급 4명, 1급 8명, 2급 7명으로 하향 조정
   - ❋ 중견 외교관 정원을 11명(2급 5명, 3급 6명) 증원하고 서기관 급을 10명 증원

2. 외무부는 1983.3월 상기 개정안을 수정 요청한바, 수정 개정안은 특1급 외교직 공무원 정원을 24명 감축하여 특2급 6명, 1급 8명, 2급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견 외교관 이하 증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며 동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 중 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3.4.12. 대통령령으로 공포됨.

3. 외무부는 3, 4, 5급 상당 20명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재외공관 직제상의 별정직 임용 조항 관련, 특수 분야 전문가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 · 활용할 수 있도록 1급~5급 상당 30명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총무처와 비공식 협의 결과, 2급~6급 상당 25명까지 별정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재외공관 직제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동 직제 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4.3.16. 대통령령으로 공포됨.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78-80

| 84-0003 |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4-1 / 3 / 1~158(158p)

1. 보건사회부는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과 병역법 시행규칙상 전 가족 개념이 상이한 문제를 1977.10월 감사원이 지적함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함.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 조항)은 기혼자인 병역의무자는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 · 차남 관계없이 해외이주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 ❁ 병역법 시행규칙(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조항)은 장남의 경우 전 가족의 한계를 배우자와 자녀 전원은 물론 동일 호적 내에 있는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 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2. 보건사회부는 상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 장남의 경우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까지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 병무청 및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1978.7.4.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포함.

3. 중앙정보부는 교육대상 연령, 교육시간, 교육시행기관 등을 개정한 새로운 해외여행자 교육지침을 1979.1.1.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보건사회부는 동 소양교육 대상 연령 변경을 포함, 해외이주 신청서류 일부 변경, 국제결혼에 의한 해외이주 시 부모의 결혼동의서 필요 연령 조정 등 요지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개정, 1979.3.12.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포 시행함.

4. 보건사회부는 해외이주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고하고 부적합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의 해외진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기준을 연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보유 부동산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해외이주 부적합자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1980.12.20. 발표함.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1

| 84-0004 |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이주계획과
MF번호	2014-1 / 4 / 1~281(281p)

1. 보건사회부는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으로 해외이주 허가 처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 시행케 되었음을 한국해외개발공사 등 관련 단체에 1981.2월 통보한바, 동 단체들은 본사 및 대행사무소 관계 직원에게 처리기간 단축을 주지시켰음을 보건사회부에 보고함.

2. 보건사회부는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함.

-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12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동 위원회 심사 사항 중 해외이주자 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 법인이 해외이주 알선업무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요지로 시행령을 개정, 1981.3월 시행
- 해외이주 희망자 모집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 사전승인 요건을 사전 신고로 하여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이주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요지로 시행령을 개정, 1981.8월 시행

3. 재무부는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이주자에게 세대 당 미화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해외 이주비의 지급 등에 관한 요령을 1981.6월 시행한바, 보건사회부는 동 이주비 지급에 필요한 세대주, 세대원의 확인 기준을 예규로 제정, 시행하고 국세청은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요령을 작성, 시행함.

4. 보건사회부는 해외이주 알선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해외이주 기회 확대를 목표로 재단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알선업 자격 요건을 법인으로 완화하고 이주 알선업자에게 이주 알선 목표량을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이주법 개정을 추진(1981.10월 내부결재 및 법제처 심의 요청), 법무부 및 경제기획원 등과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바, 개정 법률안 제안 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2

| 84-0005 |

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4-1 / 5 / 1~80(80p)

1. 국방부는 전 가족 해외이주로 인한 방위병 소집 해제자 중 이주허가 취소 또는 여권 효력 상실 등으로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 유관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지체 없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소집명령을 발령하여 재복무 조치하는 요지의 해외이주 방위병 소집 해제자 처리지침을 1982.2월 시행함.

2. 보건사회부는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등을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의 아래 요지 개정을 추진(1982.7월 내부결재), 법제처 심의와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함.

- ❁ 자본금 2억 원 이상, 영업보증금 1억 원 이상 예치 등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요건 및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
- ❁ 해외이주알선 법인의 영업보증금 예탁 및 인출요건 등을 규정

3. 1974년 월남사태 후 일부 부유층의 해외도피 기도 등 계기로 보건사회부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에서 위장이민 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1981.6월 이후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방침에 따른 관련규제 완화로 위장이민의 개념이 희박해져 위장이민 심사제도 유지에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1982.6월 동 제도 폐지를 포함한 위장이민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 ❁ 보건사회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1982.8월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한바, 동 규정에 위장이민 심사를 고유 업무(종전에는 편의상 타 부처에서 의뢰하는 위장이민 심사)로 추가하여 위장이민 심사업무를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주관하도록 조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2

| 84-0006 |

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14-1 / 6 / 1~393(393p)

1. 병역적령 미달자(14~17세)에 대한 여권발급 요건완화, 변칙적인 여행 억제를 위한 여권발급 신청 구비서류 추가 및 여권관련 수수료 조정 등 요지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82.8월 공포, 시행함.

2.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위임 및 여행 제한국의 여권상 명기제도 폐지 등에 따라 1982.7월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의 아래 요지 개정을 추진함.

❋ 여권법 개정 요지

- 여권 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한정
- 벌칙규정을 세분화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는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여권 사범의 증가를 방지하고 귀국서약을 어긴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라 위임대상 지방청을 추가하고 위임에 따른 소요경비의 국고부담 규정을 신설

❋ 여권법 시행령 개정 요지

- 국회를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에게 유효기간 1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여권발급 업무 지방위임에 따라 위임되는 업무내용을 명시
- 1981.8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2.7.31.까지 여권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 공관과의 거리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을 위해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조항을 부칙으로 신설

3. 상기 여권법 시행령 개정 관련, 우선 시급한 개정령 부칙(재외국민에 대한 특례규정)을 1982.7.31. 부터 시행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여권법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1982.12.14. 국회를 통과함.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3

| 84-0007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14-1 / 7 / 1~297(297p)

1. 여권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여권발급 업무 지방위임(1983.4.1.부터 8개 지방청에서 발급업무 개시)에 맞추어 여권법 시행 세부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권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세칙을 아래 요지로 개정, 1983.4.1.부터 시행함. (1983.3월 작성한 세칙(안)과 확정된 시행세칙 전체 내용 등 문서 포함.)

- ❁ 지방청의 여권발급 시 여권번호 부여방법과 발급지 표기 방법 등 여권법 개정에 따른 세칙 보완
- ❁ 여권발급이 위임된 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그 관할 주민에 한하여 여권을 발급하고 5인 이상의 단체 여행자에 대한 심사는 외무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등 지방청 여권발급과 관련된 업무 지침
- ❁ 단체여행에 대한 심사강화, 친지방문 목적 여행과 부부 동시여행 등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문제점 시정 지침

2. 1983.4.1.부터 시행된 상기 여권법 시행세칙을 1983.6. 아래 내용 포함, 일부 수정함.

- ❁ 여권반납 및 무효 확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제한 규정 신설
- ❁ 단체여행 심사 조항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에 대한 규제내용 삭제
- ❁ 부부 동시여행 허가 사유에 수출증진 추가
- ❁ 여권분실 재발급 및 귀국서약서 관련 규정 신설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1984

| 84-000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8 / 1~71(71p)

1. 아래와 같이 공관 설치를 결정함.

❁ 주젯다총영사관

- 젯다 소재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성의 1984.9월초 리야드 이전과 이에 따른 대사관 이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항구도시이며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한국 업체가 다수 진출한 젯다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대통령 재가 1984.5.17.)

❁ 주기니비사우대사관

- 1983.12.22. 기니비사우와 수교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1984.6.25.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 서명으로 절차 완료) 기니비사우를 주세네갈 대사의 겸임국으로 결정

❁ 주마카오총영사관

- 포르투갈 정부와 마카오 정청이 각국 주홍콩총영사관의 마카오 겸임을 권장하고 있는 점, 북한이 마카오에 상사주재 형태로 1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점, 마카오의 중국화에 대비하여 공식적인 존재 근거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주홍콩총영사가 겸임하는 주마카오총영사관 설치를 결정(대통령 재가 1984.6.8.)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유럽의 국제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이며 인근에 다수 교민이 거주하는 프랑크푸르트에 총영사관 설치 결정(대통령 재가 1984.8.14.)

2. 상기 주젯다총영사관, 주기니비사우대사관(주세네갈대사 겸임), 주마카오총영사관(주홍콩총영사 겸임) 설치에 따른 재외공관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은 1984.7.28. 대통령령으로,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설치는 1984.11.2. 대통령령으로 공포됨.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984.8.2

| 84-000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9 / 1~212(212p)

1. 외무부는 1984.1.23.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고회의 시 및 2.3. 외무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전두환 대통령의 아래 요지 지시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 지휘권 확립방안을 추진함.

- (외무부 업무보고 시) 재외공관장이 전권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전 공관원에 대한 고과를 작성, 인사에 반영하고 부적절한 공관원은 공관장의 건의가 있으면 외무장관이 부처 간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소환할 것
- (수석비서관 보고회의 시) 행정 각 부에서 파견되는 모든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권 확립을 위해 모든 주재관의 근무평가서를 공관장이 직접 작성케 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2. 공관장의 지휘권 관련, 4급 이상 주재관과 무관의 경우 공관장의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규정상 문제점이 있음에 비추어 근무실태보고와 공관장의 소환건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3. 외무부 작성 개정안에 대해 재외공관에 주재관 및 무관을 파견하고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조정, 총무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아래 요지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을 1984.8.2. 대통령령으로 공포함.

- 외무장관 또는 관계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근무실태보고서 내용을 당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조치 (종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만 가능)
- 재외공관 주재관이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공관장이 보고하여 외무장관이 소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치를 행한 후 관계부처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조치 (종전에는 조치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 외무장관이 재외공관의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재관의 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주재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 1984.10.30

| 84-001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10 / 1~99(99p)

1. 외무부의 외신업무 유관부서에서 외신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기획관리실은 외무공무원 특별채용 시 적용할 직급별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기준에 관한 아래 요지의 외무부령(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작성, 1984.8월 법제처 심의를 요청함.

- ❋ 직급별로 일정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한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시험을 거쳐 1~5급으로 특채
- ❋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시험을 거쳐 4~7급으로 특채
- ❋ 외신업무와 관련,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를 시험을 거쳐 5~9급으로 특채

2. 1984.10월 상기 규정안을 철회하고 동 규정안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요지의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안)을 법제처에 심의 의뢰하여 10.30. 외무부령으로 공포, 시행함.

- ❋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외무인사위원회에 두는 직급별 승진심사 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
- ❋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에 있어 채용예정 직급별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함
- ❋ 4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현 직급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경력에 대한 가점 평정에 관하여 규정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개정, 1984.10.22

| 84-00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11 / 1~79(79p)

1. 외무부는 해외주재 공무원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동 규정을 폐지하고 아래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함.

- ❁ 경제기획원이 원소속인 주재관의 대외직명 난을 삭제(재무부로 이체)하고 공보관의 업무에 문화업무를 추가하며 문화원 소재 공관의 경우 공보관과 문화관으로 구분하는 등 재외공관 근무 주재관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 현실화
- ❁ 육군무관의 영문 명칭을 Military Attache에서 Army Attache로 변경하는 등 주재무관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 일부 변경

2. 동 규정(안)에 대해 1984.6월 재무부, 국방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한바, 재무부와 문화공보부가 주재관에 대해서도 참사관, 1등 서기관 등의 대외직명 지정을 요청한 데 대해 필요 시 외무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재관에게 외무공무원에 준하는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게 한 동 규정(안)내 관련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정리, 법제처 심의 후 1984.10.22. 외무부령 제120호로 공포, 시행함.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개정, 1984.12.31

| 84-001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12 / 1~71(71p)

1. 1981.10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지역 일부 조정 이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 특수지 추가 및 재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1983.11월)하고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와의 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1984.3.19.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중 개정령을 외무부령으로 공포, 시행함.

- ❋ 근무조건이 어려운 파나마 및 파라과이 2개 국가와 내란으로 치안이 불안한 과테말라 1개 국가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추가
- ❋ 전쟁상태에 있는 레바논을 상향(가 지역에서 특 지역) 조정하고 근무조건이 호전된 이집트를 하향(가 지역에서 나 지역) 조정

2. 1984.7.2. 개설된 주말라위 상주대사관 근무 직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말라위를 추가하는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 중 개정령을 1984.12.8. 외무부령으로 공포, 시행함.

3. 1984.12월 개설 예정인 주니제르 상주대사관 근무 직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니제르를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다 지역)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특 지역)에 추가하는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 중 개정령을 1984.12.31. 공포, 시행함.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1983

| 84-0013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14-1 / 13 / 1~194(194p)

1. 외무부는 여권법 개정 법률안이 1982.12.14.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관련조항 개정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12.29. 법제처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1983.3.10. 국무회의를 통과, 3.25. 대통령령으로 공포함.

- ❁ 여권에 붙이는 사진을 천연색으로 통일
- ❁ 단기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하고 교섭활동이나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 여권을 발급
- ❁ 전직 3부요인 등과 동반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
- ❁ 지방으로 위임되는 여권발급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고 외무장관이 여권발급 업무에 관하여 지방관서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

2. 상기 여권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리, 보완과 해외여행 자유화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억제를 위해 1983.3월 아래 요지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의를 거쳐 1983.6.14. 외무부령으로 공포함.

- ❁ 복수여권 발급기준 강화
- ❁ 단수여권 발급범위 확대
- ❁ 공관확인 대상 초청장 확대
- ❁ 귀국서약서 제출범위 확대
- ❁ 친지방문 초청인원 제한
- ❁ 상용 및 문화여권 발급대상 자격 강화

외무부 훈령 및 예규, 1984

| 84-001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14 / 1~83(83p)

1. 해외이주 업무의 외무부 이관에 따라 외무부 위임전결규정을 1984.1.16. 개정, 동 업무 관련 위임전결권한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 ❋ 소관 법인의 설립허가 · 취소 · 양도 · 합병 · 업무정지 사무는 장관 전결
   -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해외이주희망자 모집 승인 등 3개 사무는 국장 전결
   - ❋ 해외이주적격 결정 등 4개 사무는 과장 전결

2. 외무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가 1981.5. 최종 개정된 이래 외무부 직제 및 공무원 수당규정이 수차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규정과의 일치를 위하여 동 예규를 1984.5.16. 개정함.

3. 기타 1984.5.10. 개정된 외무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1984.5.1. 개정된 직원 어학능력검정 실시에 관한 예규와 해외이주비 환급을 위한 세대주 확인기준 및 외무공무원의 인사 ·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가 수록되어 있음.

재외공관 보고규정 개정, 1984.7.28

| 84-001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15 / 1~103(103p)

1. 외무부는 1984년도 공관장 회의에서의 공관보고 간소화 및 효율화 건의와 관련, 재외공관 보고제도 검토를 위해 동 건의를 행한 7개 공관에 대해 개선안을 제출토록 함.

❋ 동 7개 공관은 정기보고의 사안별 폐지, 통합, 보고주기 조정 등, 수시보고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보고 지양, 일부 공관 해당 사안의 전 재외공관 지시 지양, 정부 각 부처의 보고지시에 대한 외무부 본부의 적절한 통제 등을 건의

2. 상기 의견 등을 기초로 아래 요지의 재외공관 정기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보고규정(외무부 훈령)을 개정(1984.7.28.) 시행함.

❋ 개선 방향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름만 다른 각종 보고를 정리, 기본 보고만 존치하고 여타 보고는 폐지
- 재외공관 추진사업의 실천결과를 분석, 평가,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보고는 분기별 사업실천 결과 보고로 단일화
- 재외공관의 비중에 따라 보고 주기를 적절히 조정

❋ 개선 내역

- 5종류의 보고 폐지, 4종류의 보고 통합하고 1종류는 보고 주기 조정하여 정기보고의 종류를 26에서 17로 축소

3. 동 보고규정 개정에 따라 종래 전 재외공관이 월별 보고하던 정세보고의 경우 외무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관은 분기별, 여타 공관은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변경된바, 이에 따른 분기별 정세보고 공관으로 지역별 외교중점국가 28개국을 선정함.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개정, 1984.8.7

| 84-0016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1 / 16 / 1~105(105p)

1. 외무부는 재외공관 예산의 운용 및 집행과정에 공관 차석을 참여시켜 예산 회계업무로 인한 공관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관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외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회계서식의 개정(지불/지급 결의서에 공관차석 서명란 추가)에 필요한 조치를 1982.1월 총무처에 요청함.

❋ 총무처가 상기 요청에 대해 재무부 제정서식인 지출결의서를 준용하라고 회신하여 동 처리규정(외무부 훈령) 개정안 재검토

2. 공관장의 회계업무 감독강화, 재외공관 회계담당 직원의 직권남용 방지, 사후 검토 및 관리 철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1984.8.7.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한바, 공관 예산(전도 및 도급경비) 관련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모든 자금의 지불은 수표로 하며 특히 공관장 명의 공문이나 공관장 혹은 총무 명의 서한을 통한 자금 지불이나 여타 예금구좌로의 이체 불가

❋ 수표발행은 회계업무 담당자와 공관장 혹은 공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공동으로 행하도록 의무화

❋ 현금보관 최소화

외교관 가족의 취업 등 영리활동 관련 규정 조사, 1979-84

| 84-0017 |

생산연도	1979-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2 / 1 / 1~193(193p)

1. 외교관 가족의 취업 문제 관련 1979.5. 아래와 같은 제의가 외무부에 접수됨.

- ❁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국무성이 주미 외교관 가족들의 취업 요청을 호혜원칙에 따라 허가하는 문제를 가까운 장래에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한 외교관 가족의 취업에 관한 한국의 법규를 알려 줄 것을 요청
- ❁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외교관 면제(immunities)의 포기 및 세금납부 전제하에 외교관 가족 취업의 상호허용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동 공한 내용에 한국이 동의, 회신하는 경우 양측의 공한으로 합의(arrangement)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법무부 의견 조회와 부내의견 수렴을 거쳐 1979.8월 아래와 같이 검토, 입장을 정립함.

- ❁ 재외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재외공무원 가족의 영리활동을 직접 규정한 바 없고 외교관 가족으로서의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동 인사관리규정 시행 관련, 배우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문화 등 일부 활동을 장관의 사전허가와 무보수 원칙하에 허용(외무장관 지시)
- ❁ 따라서 미국, 캐나다 측 제의에 대해 일응 상호주의에 따라 상호 상대방 외교관 가족의 취업을 허용하도록 긍정적 회신을 보내되 내부적으로 배우자의 영리활동 금지 내규를 계속 시행토록 조치

3. 상기 캐나다측의 각서교환 제의 관련, 각서교환을 통한 협정체결은 입국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과의 저촉 등 법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협정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는 공한을 1979.11월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함.

4. 외무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관 가족 취업 허가, 교육 · 문화 등 취업가능 분야 제한, 취업 관련 야기되는 문제에서 외교관 면제 포기, 취업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등 한국 정부의 외교관 가족 취업 관련 정책을 1984.11.2. 공한으로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하고 캐나다대사관은 11.7. 공한으로 이미 취업허가를 신청한 캐나다대사관 직원 배우자가 취업 시 세금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캐나다대사관이 고용 관련 제반사항에서 동 배우자의 외교관 면제 포기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중공담당관 제도 운영, 1984

| 84-001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2 / 2 / 1~48(48p)

1. 주홍콩총영사는 1984.1.25. 외무부에 제출한 공관장회의 자료에서 한 · 중국(구 중공) 관계에 관한 보도의 규제와 한 · 중국 접촉 조직화 및 창구 일원화 등과 함께 중국전담반 설치를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홍콩의 대중국 접촉 거점화 및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 공관의 일부로서 총영사 휘하에 중국 전담반을 설치
- 인원은 외무부, 안기부, 국책은행 및 연구조사기관 소속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중국 각 분야 정세조사와 자료수집, 조사업무 범위 안에서 홍콩의 외국 관계기관 접촉, 홍콩 주재 한국기관의 중국 조사업무 조정 등의 업무 수행

2. 외무부는 중국의 대한국 태도 완화 징후와 한 · 중국 교역 및 스포츠 교류 증대 등 상황에서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중국의 제도 및 제반 정세에 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기 건의에 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의견 조정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3. 외무부는 주요 10개 공관에 지정, 운영해 온 중국담당관 제도가 다소 부진해진 점을 지적하고 중국 자오쯔양(조자양) 수상의 방미와 후야오방(호요방) 총서기 방북설 등으로 증대되는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감안, 중국담당관의 활동을 적극화할 것을 1984.2월 동 10개 공관에 훈령함.

Guilmin, Charles 주 Antwerp (벨기에) 명예영사 해임, 1984.2.4

| 84-001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 / 3 / 1~11(11p)

벨기에 Antwerp 주재 Guilmin 한국 명예영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1984.1월 사임을 요청함에 따라 주벨기에대사는 사임을 수리할 것과 동인이 1977.9월 이래 한 · 벨기에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 외무장관 명의 감사패 수여를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84.2월 동 사임을 수리하고 감사패 수여를 결정함.

Gerlein Comelin, Julio 주 Barranguilla (콜롬비아)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1984

| 84-002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2 / 4 / 1~72(72p)

1 주콜롬비아대사는 한 · 콜롬비아 전통적 우호관계를 실질협력 증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재국의 주요 도시인 Cali와 Barranquilla에 명예영사를 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선 Barranquilla 시의 자유무역공단 이사장이며 콜롬비아 IOC 위원으로 88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준 Julio Gerlein Comelin을 명예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1983.4월 건의함.

2. 외무부가 상기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1983.7월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명예영사 임기 도입, 명예영사 임무의 일부 변경 등 요지로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1984.3월 Gerlein Comelin을 주Barranquilla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영사 위임장을 송부함.

❁ 주콜롬비아대사는 Barranquilla 시에 출장, 7.12.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갖고 명예영사 임명장을 전달

3. 콜롬비아 외무성은 1984.10.5. 공한으로 Gerlein Comelin에 대한 영사 인가장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온바, 영사 인가 관련 행정절차 과정에서 동인의 Barranquilla 자유무역공단 이사장 직위가 준공무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명예영사가 될 수 없다는 관계부처의 법적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4. 상기 콜롬비아 측 입장에 따라 Gerlein Comelin에게 경과를 설명해 주고 1984.10.29. 동 명예영사 임명을 취소함.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프랑스, 1984

| 84-00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 / 5 / 1~73(73p)

1. 주프랑스 대사는 고령의 주 Le Havre 한국 명예영사 Thillard가 은퇴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1984.3.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은퇴를 수리하고 인근 Rouen 지역 거주 의사인 김양희 박사(프랑스 국적)를 노르망디지역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상기 건의에 따라 1984.4월 Thillard 해임 및 김양희 박사의 명예영사 임명을 결정, 동 임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1984.8월 김 박사를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영사 위임장을 송부함.
   ❁ 주프랑스대사의 Rouen 명예영사관 개관식 및 리셉션 경비 지원요청에 따라 3천 달러를 지원

3. 동 임명에 따라 Rouen 명예영사관에서 노르망디 지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프랑스 내 한국 명예영사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

4. 주Lyon 명예영사가 다른 외국의 명예영사와 같이 각종 서류 확인이나 영사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도 취급토록 해줄 것을 주프랑스대사에게 요청하였고, 주프랑스대사는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사가 명예영사로 하여금 동 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문의한바, 외무부는 동 업무 중 인적 및 물적 범위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공관장이 지시한 사무를 명예영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검토함.

명예영사 임명 - 라이베리아, 1984

| 84-002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 / 6 / 1~35(35p)

1. 주라이베리아 대사는 라이베리아 정부와의 협조 강화 및 민정이양 시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유대관계 증진 등을 위해 Roger Steele 변호사의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984.7월 동인을 주몬로비아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8.22. 위임장을 발급하였으며 동 명예영사관 개설에 소요되는 비품을 제작, 송부함.

2. 주라이베리아대사는 Eastman 외상 등 주재국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9.21. 동 명예영사 선서식을 거행하고 10.26.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거행함.

이상득 주한세네갈 명예영사 임명, 1984

| 84-002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 / 7 / 1~28(28p)

1. 일본 상주 Cisse 주한 세네갈대사가 1984.5월 방한, 외무부 관계관 면담에서 1984.1월 작고한 주한 세네갈 명예총영사의 후임 후보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외무부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을 추천함.

2. 세네갈 외무성, 1984.7.6. 주세네갈 한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주한 명예총영사로 이상득 코오롱상사 사장을 제의하고 동의를 요청해 왔으며 외무부는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 1984.8.23. 이상득 사장의 주한 세네갈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

3. 이상득 사장을 주한 세네갈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1984.9.10. 세네갈 대통령 명의 위임장을 세네갈 정부가 송부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인가장 발급 등 필요 조치를 취함.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미국, 1984

| 84-002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2014-2 / 8 / 1~88(88p)

1.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이 1979.8월 폐쇄된 필라델피아 명예영사관의 부활과 필라델피아 유력 법률회사 창설자의 일원인 Harry A. Kalish 변호사의 명예영사 임명을 주뉴욕총영사에게 요청하고 주뉴욕총영사는 1983.10월 동 변호사의 필라델피아 명예총영사 임명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주미대사 의견을 조회 후 1984.1월 명예총영사관 개설과 Kalish 변호사의 명예총영사 임명을 결정함.

   ❁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가가 1984.7.6. 부여되었으며 주뉴욕총영사가 9.11. 필라델피아에 출장, 명예총영사관 개관식을 주관

2. 1976.6. 이래 재직해 온 Roland M. Dixon Jr. 주 San Antonio 명예영사가 1984.11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동 사임을 수리하고 주휴스턴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외무장관 명의 감사패를 수여함.

3. Milo M. Smith 주Tampa 명예영사가 1984.6월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주미대사의 건의에 따라 외무장관 명의 감사패를 전달토록 조치함.

주재관 (국방무관) 파견, 1984

| 84-002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2014-2 / 9 / 1~130(130p)

1. 국방부의 인사발령 계획에 따라 아래 국가에 파견 예정인 무관 및 무관보좌관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 요청 등 필요 조치를 1984.4월 해당 대사관에 훈령함.

- ❁ 캐나다, 미국, 칠레, 콜롬비아(파나마, 에콰도르 겸임),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겸임), 페루, 모로코, 그리스, 스웨덴(핀란드 겸임), 독일(덴마크 겸임)

2. 사전 동의 요청 및 진전 상황에 대한 해당 대사관의 보고를 기초로 외무부는 1984.8월 아래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함.

- ❁ 캐나다, 콜롬비아, 모로코, 그리스, 스웨덴, 독일: 동의
- ❁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교체사실 통보만으로 충분하며 사전 동의 절차 불요
- ❁ 페루: 아직 동의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추후 통보

3. 상기 각국의 동의 부여 후 1984.9월 핀란드, 파나마, 에콰도르 등 겸임국에 대해 사전 동의 획득 절차를 진행함.

4. 국방부가 이탈리아와의 군사협력 및 교류증대를 감안, 동국에 무관 보좌관을 파견키로 하고 주독일 무관보좌관으로 독일 정부의 주재 동의를 받은 바 있는 요원을 주이탈리아 무관보좌관으로 내정함에 따라 1984.8월 이탈리아 정부의 주재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1984.11월 동의가 부여됨.

5. 주서베를린 유지호 총영사 임명에 대한 미국 · 영국 · 프랑스 3국 군사당국의 동의 공한이 수록되어 있음.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1 1-5월

| 84-002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4-2 / 11 / 1~203(203p)

1. 미국 체류 중인 김대중의 1984.1~5월 동정에 관한 주미대사관 및 관련 총영사관 보고이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출판기념회

- 뉴욕 소재 교포 출판사가 발간한 김대중 옥중 서한집 "민족의 한을 안고" 출판기념회를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개최

❋ 월간지 창간

- 김대중을 발행인으로 하는 "행동하는 양심" 창간호를 84.1.1. 발간하고 한인들에게 배포

❋ 강연 활동

- 1984.2.22. 뉴욕 시 소재 교회에서 150여 명의 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소이므로 미국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등의 요지로 연설
- 1984.3.1. 하버드 대학 Kennedy School에서 개최된 패널 토의에 참석 강연한바, 귀국하면 다시 투옥될 것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1984년에 반드시 귀국할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
- 1984.5.26. 버팔로 시 뉴욕 주립대학 강당에서 교포 500여 명을 상대로 민주회복 및 군사정권 퇴진 시급, 민주투쟁 완성 후 평화적 정권교체 및 남북통일 가능, 주한미군 불필요 등 요지로 연설

❋ 귀국문제 관련

- 김대중이 기자회견을 통해 1984.5월 교황 방한 시 귀국하고 싶다고 하였다는 첩보 관련 지시에 대해 주뉴욕총영사는 동 기자회견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귀국문제 관련 앙케트 결과가 교포 언론에 발표된 바 있음을 보고

❋ 미 의회 의원 연서서한

- 외무부는 미국 상·하의원 28명이 김대중 관련 연서서한을 레이건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였고 백악관 측이 회신하였다는 정보와 관련, 해당 의원을 상대로 한 적절한 설명 등 조치를 훈령하였고, 주미대사는 연서참여 일부 의원에게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연서서한을 입수 보고

2. 김대중 체미동정 일지(1982.12.23.~1984.1.8.)도 수록되어 있음.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2 6-8월

| 84-002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4-2 / 12 / 1~146(146p)

1. 김대중 귀국문제

❁ 주뉴욕총영사는 김대중이 1984.6.6. 하버드 대학 교수, 교포학자 및 측근 등 100여 명을 숙소로 초청, 고별 칵테일을 주최하고 아래 요지로 연설하였음을 보고함.

- 귀국하여 동료들과 고난을 함께해야 하므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귀국할 신념에는 변화 없음을 언급
- 평소 주장하던 대중경제 이론을 지난 1년간 정리하여 수료논문으로 제출한바, 동 내용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장래 한국의 민주정부가 실시할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
- 6.13. 워싱턴으로 이주하여 귀국 시까지 한국 민주화를 위한 로비 활동을 계속

❁ 김대중이 교토통신 기자에게 자신이 금년 내 귀국키로 결단하고 이를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에게 비공식으로 전달했음을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1984.8.4. 보도함.

- 주미대사는 교토통신 특파원의 김대중 단독회견을 확인하고 귀국의사를 한미 양측에 비공식 전달했다는 언급 관련, 미측에 대하여는 케네디 의원 등 의회의원들에게 귀국의사를 표명한 것을 말하고 한국의 경우 일부 교포 언론에 수차 이러한 뜻을 표명한 것이 한국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비공식 전달 운운하는 것으로 관측 보고

❁ 주미대사는 김대중이 1984.8.22. 미 국무성 인권문제담당 차관보를 방문, 귀국의사를 표명하면서 귀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인권담당차관보가 언급하였다는 교포 언론인의 제보를 보고함.

- 주미대사관은 8.27. 미 국무성 한국과장을 통해 상기 면담내용을 확인한바, 동인은 미국 정부로서는 의회와의 관계상 면담요청을 거부할 입장에 있지 않고 김대중의 귀국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서 미국 정부가 가부를 운위할 바 아니라고 하고 다만 인권담당차관보는 면담 중 현재 한국 내 모든 상황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인 discourage 의도 표명

2. 김대중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의 초청으로 1984.7.16.~19.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 예정임을 주미대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가 각각 외무부에 보고함.

3. 김대중이 하버드 대학교에 제출한 수료논문이 수록되어 있음.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3 9월

| 84-002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4-2 / 13 / 1~181(181p)

1. 주미대사는 김대중이 한국 대통령(등기우편으로 발송)과 슐츠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귀국의사를 통보할 것이며 독일 수상, 교황청 국무장관 및 프랑스 수상에게 자신을 초청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다는 소식을 교포 언론인으로부터 파악 보고한바, 미 국무성이 접수 즉시 주미대사관에 알려온 1984.9.10. 서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체미 중 제반 편의 제공에 감사
- ❋ 하버드 수학 및 신병치료 완료 등 귀국 이유 제시
- ❋ 자신의 귀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발전에 기여토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미국 정부가 취해 줄 것으로 확신
- ❋ 공개적이며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 등 자신의 민주주의 운동의 목표 제시

2. 김대중 측은 동 서한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하였으며 미 국무성은 1984.9.12. 브리핑 시 동 서한에 대한 논평 요구에 대해 이는 한국 정부가 처리할 문제이나 미국은 모든 당사자에게 김대중의 귀국에 불상사가 없기를(trouble free) 바라는 희망을 표명한 바 있으며 한국법상 김대중의 법적 신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요지로 답변함.

3. 법무부 대변인은 김대중의 귀국의사 표명 관련, 김대중 씨가 20년 형기 복역 중 출국하게 된 배경 및 미국 체류 중 약속과 달리 정치활동을 계속한 사실을 적시하고 귀국 여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바, 방미 허용이 신병치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귀국한다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1984.9.21. 발표함.

4. 외무장관 방미 기회에 Kennedy 상원의원과 Solarz 하원의원이 김대중 문제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설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무장관은 동 의원들과의 개별 면담 주선을 1984.9.19. 주미대사에게 훈령함(면담 시 말씀요지가 자료로 포함되어 있음).

- ❋ Kennedy 상원의원은 김대중 귀국 시 신변안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9.10.자 대통령 앞 서한을 보내왔으며 동 의원 면담 시 이를 언급하도록 방미 중인 외무장관에게 9.29. 통보

5. 독일의 Bochum 대학 총장이 김대중을 1984.10.15.~31. 방독 초청하였음을 주독일대사에게 알려왔으며

주독일대사는 독일 외무성 측과 협의한바, 외무성 관계자는 독일 대학이 독자적으로 김대중에게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하고, 만약 김대중이 독일 입국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제3국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독일 입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4 10-11월

| 84-002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4-2 / 14 / 1~216(216p)

1. 이원경 외무장관은 1984.10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기간 중 슐츠 국무장관, 월포위츠 국무성 아태차관보, 풀러 AP통신 사장, 밴스 전 국무장관, 솔라즈 하원의원, 홀부르크 전 국무성 아태차관보 등을 만나 김대중 귀국문제와 관련, 동인의 과거 행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병치료가 끝나 귀국한다면 법에 따라 잔여 형기를 복역하여야 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바, 대부분의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로 한미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

❋ 이 장관은 케네디 상원의원과의 접촉도 추진하였으나 동 의원이 의회 일정과 대통령 선거유세 지원 등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전화 통화마저 회피하여 접촉 불가

2. 김대중 귀국 시 신변안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전두환 대통령 앞 케네디 의원 서한(1984.9.10.)에 대해 대통령 명의 회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대통령 명의 회신 방향으로 변경, 회신안을 작성 검토하다가 주미대사 명의로 회신하도록 훈령하였으며, 주미대사는 김대중 귀국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동 의원의 방한을 권유하는 요지의 1984.10.25. 회신 서한을 보냄.

3. Mikulski 의원(민주)을 비롯한 64명의 미 하원의원이 김대중 귀국 시 신변안전 및 그의 복권을 요망하는 1984.10.16.자 대통령 앞 연서서한을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주미대사 명의 회신을 송부토록 함.

4. 김대중이 유럽국가 방문을 위한 여권 목적지 변경 신청 관련 주미대사 면담을 신청한바, 유럽과 캐나다 등 10개국 방문을 위한 목적지 추가 신청서를 1984.11.13. 주미대사관에 제출하였고 11.28. 대사 집무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짐. 김대중은 대사 방문목적이 여행허가 문제라고 말하고 유럽 여행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허가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주미대사는 훈령에 따라 동인의 유럽여행을 위한 목적지 추가 신청은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함.

김대중 동정, 1984. 전5권. V.5 12월

| 84-00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4-2 / 15 / 1~146(146p)

1. 김대중 귀국 시 신변안전 관련 필요조치를 요청하는 케네디 상원의원의 대통령 앞 서한(1984.9.10.)에 주미대사가 한국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요지로 회신(10.25.)한 데 대해 케네디 의원은 김대중 씨의 미국 내 활동이 기본권리 행사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등 요지로 주미대사 서한의 논점을 반박하는 11.27.자 답신을 다시 보내왔으며 동 내용을 공개함.

2. 미 국무성 한국과장은 1984.11.30. 주미대사관 관계관을 초치, 국무성이 김대중 측근 인사로부터 김대중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국무성으로서는 동 내용의 진위를 알지 못하며 통보받은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함.
   - ❁ 주미대사관 관계관은 한국 정부가 김대중의 신변을 위협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미국 내에서의 일이라면 미국 정부가 동인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김대중의 한국대사 면담(1984.11.28.) 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면담 후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되는 저의를 의심한다고 대응

3. 김대중은 약 2,500명의 교포가 참석한 가운데 1984.12.2.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김대중 귀국 환송대회 연설에서 한국의 현 정권을 군사 독재정권이라고 하고 정국 수습을 위해 대통령과 3김 간의 4자회담을 제의함.

4. 외무장관 대리는 1984.12.13.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김대중 귀국문제 관련 정부의 입장을 아래 요지로 통보함.
   - ❁ 김대중은 도미 치료를 위한 동인의 탄원서상의 약속에도 불구, 정치활동을 계속했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마저 행한 바 있어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대처
   - ❁ 당초 정부는 김대중이 귀국한다면 재수감이 아니고 일반적인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러한 파괴적 언동에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대중이 굳이 귀국한다면 부득이 즉시 재수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5. 워싱턴 한국특파원단은 김대중 측으로부터 면담요청을 받고 개인별로 본사의 승인을 얻어 대응키로 하였으며 주미대사관은 면담 강력반대 입장을 전한바, 특파원단 12명 중 5명이 1984.12.16. 김대중을 면담 취재함.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1주기, 1984. 전3권. V.1 외교조치 및 추도식

| 84-003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2 / 16 / 1~112(112p)

1. 외무부는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1주기를 앞두고 1984.8.30. 청와대, 문공부, 안기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동 회의는 랑군사건 이후 북한의 태도 불변 및 국민감정을 고려, 국내 행사를 크게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외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 같은 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는 순국외교사절 추도식, 위령탑 제막식 및 북한의 아웅산 만행 규탄 궐기대회 행사계획에 합의

2. 주미얀마(구 버마)대사관은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1주기 대처방안을 1984.9.4. 외무부에 아래 요지 보고함.

❋ 기본 방향

- 미얀마 정부의 북한 제재, 범인 재판 및 동 사건 보고서 유엔총회 제출(예정) 등 조치를 평가하여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을 도모
- 동 사건이 다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얀마 측의 입장 등을 감안, 1주기 대외홍보는 가급적 조용히 시행
- 대사관의 1주기 추도식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동 사건으로 한국이 입은 충격의 심대함을 간접적으로 알리면서 범인처리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

❋ 사건 1주기(1984.10.9.) 아웅산 묘소에서 공관 추도행사 개최

3. 외무부는 정부대변인 명의 성명서를 1984.10.9. 발표, 아웅산 묘소에서 10.9. 공관 및 교민 중심의 추도식 거행, 언론의 미얀마 방문 취재 희망 시 입국허가를 위한 대미얀마 교섭 등을 시행하며 미얀마 측의 별도 행사를 위한 대미얀마 교섭은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1주기 외교조치계획을 1984.9.14. 대통령에게 보고함.

4. 미얀마 외무성 측이 1984.9.19. 주미얀마대사를 초치, 1주기 관련 행사에 대해 협의한바, 미얀마 측은 아웅산 묘소 주변 인파로 경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도행사를 간소하게 치른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나 추도식을 공관에서 거행할 경우 외상대리 등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관 내 개최를 종용하고, 한국 기자의 취재목적 입국은 허용할 수 없으나 대사의 초청에 의한 단순 방문이라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주미얀마대사는 미얀마 측 입장에 비추어 추도식을 대사관저에서 미얀마 정부 대표 참석하에 거행할 것과 취재희망 기자가 관용여권을 가지고 방문토록 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5. 상기 건의 관련, 추도식 행사는 대사관저에서 미얀마 정부 대표 참석하에 거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취재기자 입국문제의 경우 문공부가 현직 언론인이 문공관계 공무원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법규 및 관례에 어긋나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취재 신청한 서울신문 기자의 미얀마 방문은 추진하지 않고 미얀마 관광비자를 받은 방콕 주재 연합통신 특파원의 방문 활동에 가능한 편의를 제공토록 조치함.

❋ 미얀마 외무성 측은 외무성 간부들의 추도식 참석이 상부의 지시로 어렵게 되었다고 10.5. 전화로 통보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1주기, 1984. 전3권. V.2 홍보 및 해외 언론보도

| 84-003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2 / 17 / 1~229(229p)

1. 문화공보부는 1984.9. 아래 요지의 버마사건 1주기 계기 해외홍보 대책을 작성,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함.

❋ 정세 전망

-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재촉구하면서 버마사건을 강력히 규탄
- 미얀마(구 버마) 정부 및 유엔도 객관적으로 합당한 대북 규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버마사건의 퇴색을 획책, 갖가지 위장평화 선전책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언론의 반응 전망

- 서방과 제3세계(친북국가 제외) 언론은 대체로 대북 규탄 보도 내지 사실보도를 비중 있게 취급할 것으로 예상
- 미 · 일 및 일부 서구지역 진보계 언론은 남북한의 경직된 분위기를 우려하는 논조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

❋ 중점홍보 방향

- 대북 규탄 홍보 강화
-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 선제 제압
-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의 의연한 자세 부각
-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장자적 풍모 과시

2. 버마사건 1주기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1984.10.9. 05:00) 전에 전 재외공관에 타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동 담화문 내용이 주재국 언론에 보도되도록 할 것을 훈령하였으며 주미얀마대사에게는 동 담화문 영문 번역본을 주재국 측에 사전 전달하도록 훈령함.

3. 상기 지시에 따른 재외공관의 홍보활동 결과보고가 연합통신의 미얀마 방문취재 기사, 이란 교민사회의 북한규탄 성명서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음.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1주기, 1984. 전3권. V.3 국내 언론보도

| 84-003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2 / 18 / 1~87(87p)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1주기를 맞아 국내 언론이 보도한 아래 내용의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음.

- 미얀마(구 버마) 정부가 제출하여 1984.10.2. 유엔문서로 배포된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진상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사항
  - 27페이지에 이르는 동 보고서 요지와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
  - 유엔 제6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조치 의제 토의 시 동 보고서 관련 언급 내용
- 대통령 담화와 순국외교사절 추도식 및 위령탑 제막, 북한만행 규탄 궐기대회 등 1주기 행사 관련 내용
- 아웅산 묘소 등 버마 현장을 방문 취재한 연합통신 기사
- 유족 근황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캐나다 관계기관의 문의, 1983-84

| 84-003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2 / 19 / 1~79(79p)

1. 캐나다 토론토 소재 Canada Asia Working Group은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한국인의 반미감정의 산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캐나다가 유엔 인권위 회의에서 한국의 인권개선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진정서(유엔 인권위 제39차 회의 캐나다 대표 앞)를 1983.5월 유엔 인권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단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섬.

2. 주캐나다대사관은 한국 인권문제 관련 탄원서가 특히 1983.11월 이후 서준식의 석방 요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서준식 건이 국제사면위 캐나다 지부의 주요 과제로 할당되어 이와 같은 탄원서한 및 면담 요청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동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것을 1984.1월 외무부에 요청함.

3. Canada Asia Working Group이 1983년도 한국의 인권상황을 기술, 비판하고 캐나다가 인권위 회의에서 한국의 인권개선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는 상기 1항과 유사한 진정서를 유엔 인권위 제40차 회의에 맞추어 제출하였음을 주캐나다대사가 1984.2.2.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1-84

| 84-0035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2 / 20 / 1~260(260p)

미국 행정부가 매년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세계 각국 인권관계 보고서 중 한국 및 북한 관련 부분에 대한 주미대사관 보고와 인권 보고서 등임.

1. 1981년('80년도 보고서)

- 카터 행정부가 1980.12월 말경 의회에 제출한 동 보고서는 1981.2.2.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2.10. 공개
- 동 보고서는 한국에서 1980년 초 인권상황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5.17. 계엄확대 이후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 극히 비판적으로 언급

2. 1982년('81년도 보고서)

- 1982.1월 말경 발간 예정인 보고서를 발간 후 조속 입수, 송부하고 주요 내용을 사전 탐문 보고하라는 훈령에 따라 주미대사관에서 국무성을 접촉, 한국 관련 주요 내용을 탐문 보고하였으며 동 보고서 한국관계 부분을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이 1982.2.6. 외무부 관계자에게 전달
- 동 보고서는 개혁입법에 따른 제반 조치를 다소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수차의 사면조치, 종교 활동의 보장, 해외 반정부인사의 귀국허용 등 한국의 인권개선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북한은 김일성 족벌독재하에 가장 고도로 조직화되고 통제된 사회라고 극히 비판적으로 기술

3. 1983년('82년도 보고서)

- 1983.2.8. 공개된 동 보고서는 김대중 석방 및 동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해외여행 규제 완화 등을 인권 관련 긍정적인 예로 열거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기술은 전년도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

4. 1984년('83년도 보고서)

- 1984.2.10. 공개된 동 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은 전년도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북한의 계속적인 대남 도발을 부각하였으며 경찰 고문의 감소추세와 특사 등 정부의 조치내용을 상세 언급하고 김영삼 단식에 관한 보도 지연을 언론통제의 예로 지적함. 북한 관련 부분은 북한이 통일 명목하에 사회를 조직화, 군사화하는 한편 랑군사건과 같은 대남도발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각국 국기제도, 1982-83

| 84-0036 |

생산연도	1982-198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 / 21 / 1~220(220p)

외무부가 국기편람 제작을 위해 지시한 바에 따라 1982.9월~1983.3월 재외공관이 주재국 국기 견본과 함께 보내온 각국의 국기 제작법과 게양법에 관한 조사보고 내용임.

- 주벨기에, 주피지 및 주가봉 대사는 주재국 국기의 경우 현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주피지 대사는 초대형(6피트×12피트), 대형(3피트×6피트), 소형(6인치×12인치) 3종뿐인 주재국 국기 중 소형은 수상차량 전용 부착용으로 구입이 불가하여 대형 국기를 송부하였으며, 주에콰도르 대사는 주재국 국기가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제작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보고

국가 원수 방한 · 방문 업무 처리 요령, 1984

| 84-003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3 / 16 / 1~113(113p)

외무부 의전실 업무용으로 작성한 국가원수의 외국방문업무 처리요령, 정부 수립 후 정상외교 현황 및 외빈 영접업무 관련 자료임.

1. 국가원수의 외국방문업무 처리요령은 1984.12월 작성된 자료로 아래 내용임.

- ❁ 일정확정(청와대, 외무부), 항공기 결정(청와대, 외무부), 예산편성(외무부), 공보활동계획(문화공보부), 회담 및 교섭자료 작성(외무부, 관계부처), 국내 공항행사(총무처) 등 부처별 업무분담 명시
- ❁ 일정 작성 및 브리핑, 선물 및 훈장, 복장, 방문국 개황 등 의전관련 준비사항
- ❁ 선발대의 파견 시기, 구성, 행사별 점검필요 항목 등 선발대 관련 사항
- ❁ 국가원수 일정(비행일정, 행사일정), 수행원, 행사(환영 · 송, 회담, 연회, 교민리셉션 등), 차량, 숙소, 화물 등 본대관련 행사별, 항목별 점검사항 상세

2. 정부수립 후 정상외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 연대별(1948~49, 1950~59, 1960~69, 1970~79, 1980~84.11.1.) 정상외교 총괄표, 지역별 정상외교 총괄표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1948.10.19.~20. 일본 방문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1985.4.24.~29. 미국 방문(예정)까지의 대통령 외국방문 현황 및 외국 정상급 인사의 방한 현황 자료를 포함(1984.11.1. 기준)

3. 외빈 영접관련 자료는 한국이 아직 외빈 영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선례와 방한 외빈 국가의 의전관례를 참고하여 외빈을 예우하고 있으며 외빈 방한을 목적에 따라 공식(Official), 준공식(Informal Working), 사적(Private) 또는 비공식(Informal) 방문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담당자가 영접준비 임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외빈 영접준비 요령을 상세 기술함.

외국 국가원수 주최 외교단 행사 사례조사, 1984

| 84-003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2담당관실
MF번호	2014-3 / 2 / 1~16(16p)

본 문건은 주요국(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원수가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명칭, 개최 시기, 내용 등을 조사한 자료로서 국별 행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독일

- 외교단 신년하례 리셉션(매년 1.1.)

2. 미국

- 외교단 초청 리셉션(시기 불특정)

3. 영국

- Garden Party(매년 7월), Evening Reception(매년 11월 또는 12월초)

4. 프랑스

- 외교단 신년하례(매년 1.3.), 외국언론인 신년하례(외교단 신년하례 다음날 개최), 외교단 친목 사냥행사(Chasse Diplomatique) 등

대사파견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984

| 84-00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인사계/의전담당관실/근동과
MF번호	2014-3 / 3 / 1~36(36p)

1. 정부는 1984.10.31. 박선호 주라스팔마스총영사를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특명전권대사로 발령하고 1984.11.22. 신임 박선호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최필립 대사 소환장을 송부함.

2. 박선호 대사는 1984.12.17. 자이드(Zayed) UA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자이드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재임 중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짐하고 UAE는 인류애를 위해 국제적인 유대발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명함.

대사파견 - 호주, 1983-84

| 84-004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4-3 / 4 / 1~79(79p)

1. 정부는 1983.6.23. 김상구 연구위원을 주호주 특명전권대사로 발령하고 1983.7.2. 김상구 신임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윤하정 대사의 소환장을 발급함.

2. 김상구 대사는 외무성 의전장, Argall 지역국장 대리, Parsons 차관 대리, Nutter 차관보 대리를 각각 예방함.

❋ Parsons 차관 대리는 호주의 노동당 신정부 발족과 관련, 호주의 대북한 관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호주의 외교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언급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를 표명

3. 1983.7.27. Sir Ninian Stephen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김상구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같은 아 · 태지역 국가로서 한 · 호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하여 언급함.

❋ 호주 총독은 답사에서 한 · 호주 양국 관계,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및 스포츠 등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

대사파견 - 호주, 1984

| 84-00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4-3 / 5 / 1~32(32p)

1. 호주 정부는 임동원 신임 주호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1984.10.15. 부여되었으며, 신임장 제정일을 1984.11.21.로 예정하고 있음을 주호주대사관에 공한으로 통보하여 옴.

2. 임동원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 말씀을 전달하고 호주의 한국전 참전 사실, 한 · 호주 양국 간 경제관계의 긴밀화, 최근 남북대화 노력 등을 언급하고 남북대화 노력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요청함.

3. Sir Ninian Stephen 총독은 답사에서 작년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랑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일층 심화, 발전되기를 희망함.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1984

| 84-004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 / 6 / 1~6(6p)

1. 1984.3.21. 외무부는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신임 장기안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전임 문기열 대사 소환장, 애국가 악보 등을 송부함.

2. 1984.4.12. 장기안 주방글라데시대사는 Ershad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벨기에, 1984

| 84-004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 / 7 / 1~63(63p)

1. 정부는 1984.4.26. 신정섭 차관보를 주벨기에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토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벨기에 정부는 5.28. 신정섭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6.29. 신정섭 대사는 Baudouin 벨기에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동 국왕은 최근 Martens 수상의 방한을 통하여 한국의 발전상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방한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지금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함.

3. 겸임국인 구주공동체(EC)는 7.26. 룩셈부르크는 7.28. 각각 주벨기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해 옴.

4. 신정섭 대사는 9.18. EC 이사회 의장과 EC 집행위 의장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한 후 환담한바, EC 이사회 의장은 최근 한 · EC 관계가 계속 긴밀해지고 있음을 경하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 및 한국경제 현황에 대해 관심을 표함. EC 집행위 의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지적하고 앞으로 한 · EC 간 계속적인 관계증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자고 함.

5. 신 대사는 10.18. 겸임국인 룩셈부르크의 대공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대공은 한국 대통령의 방일로 한 · 일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방한과 관련, 자신이 IOC 위원이므로 88올림픽 기회를 이용하여 방한할 의향이나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면 방한하고 싶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바베이도스, 1983-84

| 84-004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미과/총무과
MF번호	2014-3 / 8 / 1~160(160p)

1. 외무부는 1983.11.1. 장선섭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를 주바베이도스대사에 내정하고 주재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12.22. 바베이도스 정부는 장선섭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공한으로 통보해 옴.

❋ 1984.2.22. 장선섭 대사는 W. Douglas 바베이도스 총독 대리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총독 대리는 신임장 제정 답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찬양하고 합작투자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한편 한국에 범죄를 저지를 국가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지적

2. 1984.4.13. 장선섭 주바베이도스대사는 겸임국인 그레나다 Kirton 총무처 장관과 접촉, 그레나다 정부가 대북한 단교 시 기자회견 및 UN 회담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 준다면 한 · 그레나다 양국 협력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이에 대해 총무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경찰용 무선통신 장비 및 차량, 보건소용 미니버스 등의 원조를 요청함.

❋ 장 대사는 5.16.~18. 그레나다에 출장,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총독과 양국관계에 관한 협의를 한바, 총독은 대북한 단교문제는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동독, 불가리아 등 여타 공산국가와의 외교관계도 일괄 재검토할 생각이므로 각 정당 지도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3. 장 대사는 5.23. 겸임국인 세인트루시아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 시 대통령의 안부 전달 및 북한의 만행,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하고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를 다짐함. 수상은 랭군 사건을 계기로 한 대북한 조치는 시기를 놓쳤으나,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4. 장 대사는 5.24. 겸임국인 도미니카연방의 Seognoret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국의 대통령, 수상 등과 면담한바, 수상은 도미니카연방은 한국과의 단독 수교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자국과 같은 약소국은 외교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좌경세력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버마, 1983-84

| 84-004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총무과
MF번호	2014-3 / 9 / 1~53(53p)

1. 외무부는 1983.11월 이상열 연구위원을 주미얀마(구 버마)대사에 내정하고 주재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1984.1.6. 미얀마 외무성은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2. 1984.2.14. 이상열 주미얀마대사는 U San Yu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지난해 있었던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으나 이미 지난일은 잊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한 후, 현재 한 · 미얀마 양국관계는 최상의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협조가 필요하면 지원할 것을 약속함. 방한 초청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한 후 외무성을 통해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대사파견 - 브루나이, 1984

| 84-004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3 / 10 / 1~27(27p)

1. 주반다르스리브가완 총영사는 1983.12.19. Dato Ahmad 브루나이 외교부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수교 문제를 협의한바, 브루나이는 수교 희망국이 대사를 지명 통보하고 브루나이 국왕이 동 대사임명을 승인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교 발표는 1983.12.31. 서울에서 단독으로 발표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함.

2. 정부는 1983.12.26. 최배식 총영사를 초대 주브루나이대사로 내정하고 브루나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12.31. 아그레망을 승인해 옴.

3. 최배식 대사는 1984.2.13.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환담한바, 최 대사는 대통령의 각별한 문안인사를 전하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 국왕 방한문제 및 독립기념 행사에 총리 일행 파견과 민속예술단 공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대사파견 - 중앙아프리카, 1984

| 84-004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4-3 / 11 / 1~41(41p)

1. 정부는 1984.1월 이정수 연구관을 주중앙아프리카대사에 내정하고 주재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토록 현지 공관에 지시함.

❁ 1984.2.29. 중앙아프리카 외무성은 이정수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을 통보

2. 1984.4.24. 이정수 대사는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이정수 대사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자신과 중앙아프리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감명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의 경협증진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도미니카공화국, 1983-84

| 84-004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2014-3 / 12 / 1~86(86p)

1. 정부는 1983.4.20. 강대완 주밴쿠버총영사를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로 내정하고 도미니카 정부에 아그레망을 신청토록 현지 공관에 지시함.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1983.5.27. 강대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한바, 정부는 강대완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전임자의 소환장을 공관에 송부

2. 강대완 대사는 1983.9.2. Jorge Blanc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한바, Blanco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한 후 KAL기 격추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탑승자 가족, 대통령 및 한국 국민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함.

3. 강 대사는 소련의 KAL기 격추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도미니카를 포함한 전 세계 평화애호국가들이 소련이 저지른 가공할 행위를 규탄해 줄 것을 요청한바, Blanco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규명되고 유엔 등에서 제재조치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부언함.

대사파견 - 에콰도르, 1984

| 84-004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 / 13 / 1~12(12p)

1. 1984.2.8. 정부는 김이명 주페루대사를 본부 근무로, 윤태현 주멕시코대사관 공사를 주에콰도르 특명전권대사로 내정하고 신임 윤태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주재국 정부에 요청토록 주에콰도르대사관에 지시함.

2. 에콰도르 정부는 1984.2.14. 신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함.

- 윤태현 대사는 1984.4.17. Valencia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4.24. Hurtad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각각 제정
- 신임장 제정 후 Hurtado 대통령과 환담한바, 윤 대사는 한 · 에콰도르 간 긴밀한 협력관계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대에콰도르 침투책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자신의 바쁜 일정 등으로 임기 중 방한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대사파견 - 피지, 1983-84

| 84-005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총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3 / 14 / 1~340(340p)

1. 정부는 1983.4.20. 김성구 연구위원을 주피지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하였으며, 피지 정부는 6.14.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2. 1983.8.4. 김성구 대사는 Penaia Ganilau 피지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한바, 동 총독은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제반 업적을 치하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지난 3월 피지 태풍 시 구호금 및 물자를 지원해 주고 그 밖에도 어업 장비 지원 등을 통해 피지 정부에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함.

3. 겸임국인 솔로몬 아일랜드(6.16.), 키리바시(6.23.), 통가(6.30.), 투발루(8.3.), 나우루(8.12.), 바누아투(7.14.)가 김성구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해옴에 따라 정부는 1983.7.12. 김성구 대사를 상기 국가들의 겸임대사로 발령함.

- ❋ 김 대사는 9.9. 솔로몬 총독, 9.11. 키리바시 Tabai 대통령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한바, 솔로몬 총독 및 키리바시 대통령은 KAL기 사건에 대해 소련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전체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시
- ❋ 김 대사는 12.7. Sir Fiatau Penitau Teo 투발루 총독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 후, 투발루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계획이 없으며 북한과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 ❋ 김 대사는 12.12. 통가 Tupou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국왕은 랑군 사건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북한의 처사를 염려하고 있다고 함. 아울러, 국왕은 경찰악대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산 악기와 카탈로그 및 가격 등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 ❋ 김 대사는 12.16. Deroburt 나우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북한과는 1982년 수교하였으나 수교 이후 실질적인 관계를 가진 바도 없으며 앞으로도 관계발전을 시도할 의사가 없음을 언명하고 북한측이 나우루를 방문하겠다는 제의도 거절하였다고 밝힌바, 대북한 단교 요청에 대해 나우루의 중립노선에 비추어 곤란함을 표명
- ❋ 김 대사는 1984.2.2. Sokomanu 바누아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남북한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의 2만 달러 무상원조 지원에 감사하며 방한문제는 적절한 시기를 보아 추후 통보하겠다고 언급

대사파견 - 핀란드, 1984

| 84-005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 / 15 / 1~30(30p)

1. 핀란드 외무성은 1984.10.8. 정우영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2. 1984.11.23. 김동근 주핀란드대사는 이임 인사차 Koivisto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함.

- ❁ 동 대통령은 1981.9월 남덕우 총리 핀란드 방문 시 소련 고위 당국이 한국의 대소 관심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 자신은 KAL기가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련 측이 민항기인 줄 알았으면 격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 ❁ 그 후 동 대통령이 Andropov 면담 시 느낀 인상은 미국 정찰기가 수시로 소련 국경을 넘나들며 정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KAL기를 미국 정찰기로 오인한 것 같다고 언급

3. 1984.12.21. 정우영 주핀란드대사는 Koivist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치하하고 88올림픽에 관심을 표하면서 많은 국가가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또한 최근 한 · 소 및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진전에 관하여도 관심을 표함.

대사파견 - 가봉, 1984

| 84-005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 / 16 / 1~39(39p)

1. 외무부는 1984.4.26. 황남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을 주가봉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토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가봉 정부는 6.19. 신임 주가봉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1984.6.2. 윤억섭 주가봉대사는 봉고 대통령을 이임 인사차 예방한바, 봉고 대통령은 북한은 수차 자국에 원조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없음을 지적함. 또한, 동 대통령은 일전에 기니 대통령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문의 시에도 북한은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며 한국과의 협력 증진이 기니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하면서, 북한의 IMO 가입저지를 위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적극 지지할 것을 외무성에 지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3. 황남자 신임 주가봉대사는 1984.9.13. 봉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봉고 대통령은 양국 간 관계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북한과는 실질협력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정치 선전만을 일삼고 있어 가봉으로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봉고 대통령은 금번 9월 방한 시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각계인사의 교류증진,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대가봉 진출문제와 군사 면에서의 교류 강화 협의를 희망

   - 봉고 대통령은 9.15. 한국 등 극동 방문 차 출국 예정

대사파견 - 독일, 1984

| 84-005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4-3 / 17 / 1~25(25p)

1. 정부는 정순근 대사를 주독대사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신임장 및 전임 송광정 대사 소환장을 송부함.

2. 1984.5.9. 주독대사는 Carstens 독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 대통령의 방독을 충심으로 기다렸으며 자신의 퇴임 후라도 꼭 방독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랑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격분하고 있다고 부언함.

대사파견 - 인도, 1984

| 84-005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 / 18 / 1~42(42p)

1. 인도 정부는 1984.3.21. 신동원 주인도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2. 1984.5.22. 주인도대사는 자일 싱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싱 대통령은 인도도 과거 파키스탄과 분리된 역사가 있어 분단국가가 갖고 있는 슬픔과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언젠가 통일이 달성되면 한국이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자신의 방한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가고 싶다고 말함.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1984

| 84-005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 / 19 / 1~4(4p)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5.12.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1982년 방한 시 베풀어 준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함.

2. 수하르토 대통령은 현재의 우의 돈독한 양국관계는 1981년 한국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하면서 금년에 시작한 인도네시아 제4차 경제개발계획(1984~89)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관계를 증진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함.

대사파견 - 코트디부아르, 1984

| 84-00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 / 20 / 1~57(57p)

1. 코트디부아르 외무성은 1984.3.15. 신임 최봉륨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공한으로 통보해 옴.

2. 1984.7.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Felix Houphouet-Boigny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관계에 만족을 표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두 번째 근무가 성공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3. 코트디부아르는 통상 여러 명의 공관장이 함께 신임장을 제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최 대사 단독으로 신임장을 제정한바,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주재국에 농업용 트랙터 등을 원조해 준 데 대한 우호적 태도 표명임.

4. 또한, 니제르 외무성은 1984.5.3.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니제르 겸임에 동의하는 공한을 송부해 옴.

대사파견 - 자메이카, 1984

| 84-00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3 / 21 / 1~98(98p)

1. 정부는 1984.4.16. 박민수 대사를 주자메이카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자메이카 외무성은 5.22. 공한을 통해 박민수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2. 신임 주자메이카대사는 7.2. Lorizel Glasspole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환담한바, 동 총독은 현재 양국의 우호관계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에 공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하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대사파견 - 쿠웨이트, 1983-84

| 84-005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인사계
MF번호	2014-3 / 22 / 1~32(32p)

1. 외무부는 1983.11.1. 주미대사관 박종상 공사를 주쿠웨이트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토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11.16. 쿠웨이트 외무성은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2. 1984.1.25. 박종상 주쿠웨이트대사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박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의 국왕 방한 희망을 전달한 데 대하여 동 국왕은 사의를 표하고 적절한 기회에 방한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한 · 쿠웨이트 양국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또한, 동 국왕은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대사파견 - 리비아, 1983-84

| 84-005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3 / 23 / 1~23(23p)

1. 정부는 1983.10.17. 김영섭 외교직 1급을 주리비아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토록 현지 공관에 지시함.

- 1983.10.25. 리비아 외무성은 김영섭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한다는 공한을 송부
- 아그레망을 요청한 지 1주일 만의 통보는 주재국 관례에 비추어 파격적인 조치로서 한 · 리비아 관계 강화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제스처로 평가

2. 1984.1.7. 주리비아대사는 Dr. Ubeidi 외상에게 신임장을 제정(주재국 관례라고 함)하고 면담한바, 동 외상은 한 · 리비아 양국 간 정치체제 및 이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대사파견 - 모로코, 1984

| 84-00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과/마그레브과
MF번호	2014-3 / 24 / 1~17(17p)

1. 정부는 박수길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주모로코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함. 1984.2.20. 모로코 외무성은 박수길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하는 공한을 송부해 옴.

2. 주모로코대사는 5.31. Belkziz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 및 전임대사의 소환장 사본을 제출하고 면담한바, 동 외상은 제52차 IMO 이사회에서 한국이 북한가입 문제에 대한 토의를 연기토록 한 것은 현명한 방안이라고 전제하고 자국 대표단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함한 우방들과 협의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훈령을 하달하겠다고 약속함.

3. 주모로코대사는 7.25. Hassan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국왕은 한 · 모로코 관계는 확고한 기초 위에 있다고 말하고 신임 대사가 노력하여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멕시코, 1984

| 84-00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3 / 25 / 1~76(76p)

1. 멕시코 정부는 1984.2.22. 구충회 신임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2. 주멕시코대사는 6.15. 데라 마드리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방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방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또한, 동 대통령은 멕시코는 중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과도 이 목적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대사파견 - 네팔, 1984

| 84-00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 / 26 / 1~49(49p)

1. 네팔 정부는 1984.10.23. 이문수 주네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해 온바, 정부는 이문수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이정빈 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송부함.

2. 이문수 대사는 1984.11.30. Birendra 네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국왕은 문서로 수교한 답사에서 네팔과 한국은 제3세계 국가로서 세계평화 보장에 대한 공동공약으로 상호 결속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네팔 평화지대 선언제의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 · 네팔 양국 간 기존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을 희망함.

❋ 이 대사는 전 대통령이 국왕의 명년 중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전한바, 이에 대해 국왕은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

대사파견 - 노르웨이, 1984

| 84-006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4-3 / 27 / 1~34(34p)

1. 노르웨이 외무성은 1984.3.1. 이규현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통보해 옴.

2. 최석신 대사는 3.27. 이임 인사차 Olav 국왕을 알현하고 그간 한국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우의와 협조, 특히 KAL기 및 랑군 사건 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바, 국왕은 KAL기 및 랑군 사건에 대해 다시금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서 한 · 노르웨이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냄.

3. 이규현 주노르웨이 신임대사는 5.10. 왕궁에서 Olav 국왕을 알현하고 신임장을 제정한 후 약 15분간에 걸친 국왕과의 환담에서 국왕은 한국의 역사 및 근년의 발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함.
   ❁ 정부는 4.19. 이규현 대사를 주아이슬란드대사로 겸임 발령하고 신임장을 발급

대사 파견 - 뉴질란드, 1984

| 84-006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 / 28 / 1~105(105p)

1. 정부는 1984.1.25. 윤영교 대사를 주뉴질랜드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 부여를 요청한바, 뉴질랜드 정부는 1984.2.21.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한다는 공한을 송부해 옴.

2. 윤영교 대사는 1984.5.2. Beattie 뉴질랜드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윤영교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뉴질랜드가 한국전쟁 참전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준 데 사의를 표명한바, Beattie 총통은 답사에서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영도하의 한국 경제발전이 특히 지난해 1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을 치하하고 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뉴질랜드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

3. 1984.4.19. 겸임국 서사모아 정부는 윤영교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수락한바, 윤영교 대사는 서사모아에 출장, 5.30. 서사모아 국가원수 Malietoa Tanumafili II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후 면담 시 Tanumafili II 국가원수는 랑군 만행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지 문의한바, 윤 대사는 북한의 만행은 중립국인 미얀마(구 버마) 당국에 의해 전 세계에 명백히 드러났으며 동 만행 이후에도 북한은 한국 연안에 간첩선을 보내는 등 계속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음을 설명

대사파견 - 오만, 1984

| 84-006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 / 29 / 1~36(36p)

1. 오만 정부는 1984.3.10. 이원호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통보해 옴.

❁ 이원호 주오만대사는 5.13. 주재국 외무차관을 면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국왕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

2. 이원호 대사는 5.28. Qaboos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국왕은 낭독한 답사에서 한 · 오만 양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호협력 관계로 결속되어 있으며 양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긴밀히 해나갈 것을 희망함.

대사파견 - 파키스탄, 1984

| 84-006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남아과
MF번호	2014-3 / 30 / 1~105(105p)

1.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4.10.24. 홍순영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을 공한으로 통보해 옴.

- 11.16. 파키스탄 정부는 홍순영 대사 임명동의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주재국 언론에서도 동 사실을 보도
- 외무부는 1984.11.22. 홍순영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전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송부

2. 홍순영 대사는 1984.12.24. 사타르 외무성 차관보(차관대리)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정하고 부임 후 6일 만에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파키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바, 동 차관 대리는 지아 대통령이 당지 주재 외교관의 임무수행 편의에 직접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예정보다 앞당겨 신임장을 제정토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함.

3. 홍순영 대사는 1984.12.24. 지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지아 대통령은 내년 2~3월의 바쁜 국내 일정이 끝나는 4~5월경 방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방한하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각료를 대동할 것이며, 최소한 4일 이상의 장기간의 체한 일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필리핀, 1984

| 84-006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4-3 / 31 / 1~28(28p)

1. 필리핀 외무성은 1984.3.19. 공한을 통해 김창훈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해 옴.

2. 김창훈 대사는 5.22.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마르코스 대통령은 답사에서 한 · 필리핀 양국은 오랫동안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호 유익한 협정과 교류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함.

대사파견 - 파나마, 1983-84

| 84-006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남미과/의전과
MF번호	2014-3 / 32 / 1~40(40p)

1. 정부는 1983.11.24. 정주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주파나마 특명전권대사로 내정하고 파나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신청토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파나마 정부는 12.13.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해 옴.

2. 정부는 1983.12.23. 정주년 대사를 안기부 3국장으로 내정하고 해군 제1참모 차장인 김대용 중장을 주파나마대사로 내정한바, 파나마 정부는 12.29.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함.

3. 김대용 대사는 1984.2.15. Jorge Illueca 파나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과는 유엔대사, 외상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음을 설명하고 1984년 말경 방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또한, 동 대통령은 남북한 문제 관련 통일이 한국 국민의 염원임을 잘 알고 있으며 민족화합 민주평화통일 방안 등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함.

대사파견 - 카타르, 1984

| 84-006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4-3 / 33 / 1~54(54p)

1. 정부는 1984.1월 김용권 외무부 본부 연구관을 주카타르대사로 내정하고 카타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함.

2. 카타르 정부로부터 1984.2.18. 아그레망이 접수된바, 김용권 대사는 4.5. Ahmed 카타르 외무담당 국무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면담 시 국무상은 자신이 국왕을 수행하여 4.20.~22.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함.

3. 김용권 대사는 4.7. Khalifa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국왕은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함. 또한, 국왕은 카타르 천연가스에 대한 한국, 일본 등의 개발참여 및 구매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함.

대사파견 - 세네갈, 1981-84

| 84-007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총무과/마그레브과
MF번호	2014-3 / 34 / 1~126(126p)

1. 정부는 1981.7.28. 장명관 아프리카 국장을 주세네갈대사로 내정하고 주세네갈대사관에 아그레망을 신청토록 지시한바, 세네갈 정부는 1981.9.3.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하는 공한을 송부해 옴.

❋ 장 대사는 1981.12.2.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면담 시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디우프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타진한바, 디우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하면서 생고르 대통령이 이미 방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세네갈을 답방해 주기를 희망

❋ 장 대사가 인접 미수교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세네갈이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바, 동 대통령은 배석한 니아스 외상에게 협조하여 주도록 지시

2. 장명관 대사는 1981.12.3. 주감비아 및 주모리타니 특명전권대사로 겸임 발령됨에 따라 1982.1.20. 자와라 감비아 대통령에게, 1982.2.6. 하이드라 모리타니 대통령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3. 정부는 1984.8.23. 장명관 주세네갈대사를 기니비사우공화국 겸임대사로 발령한바, 장 대사는 1984.10.9. Vieira 기니비사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Vieira 대통령 면담 시 전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한 후 금년에는 기 예정된 행사로 어려우나 내년 상반기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영국, 1980-84

| 84-0071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서구담당관실
MF번호	2014-3 / 35 / 1~147(147p)

1. 정부는 1980.11.3. 강영훈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주영대사로 내정하고 영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한바, 12.9. 영국 정부는 강영훈 신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2. 강영훈 대사는 1981.2.11. 외무성 의전장, Sir Edward Youde 사무차관 대리, Donald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Mclaren 극동국장 등을 면담한 바, 영국측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한국 정부가 김대중 사건을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난처한 사태를 잘 예방했다고 생각
- ❁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초기에 원만한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 우방으로서 반갑게 생각하며, 특히 외국원수로서 가장 먼저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것에 주목
- ❁ 영국은 과거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현지 대사만을 특사로 참석시키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경축사절로 보수당 내 중진이며 외무성에서 3인자인 Peter Blaker 국무상을 파견하는 것은 영국이 한국에 대하여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

3. 강영훈 대사는 2.25. 버킹검 궁에서 여왕을 알현하고 신임장을 제정함. 강영훈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와 찰스 황태자 약혼에 즈음한 대통령의 축의를 전달한바, 여왕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각하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함. 여왕은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잘 듣고 있다고 말하고 인구규모 등 서울 사정에 관심을 표함.

4. 1983.10.4. 한국 정부는 아일랜드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아일랜드를 주영대사관 겸임국으로 조정하고 12.22. 강영훈 대사를 주아일랜드 겸임대사로 발령함. 강 대사는 4.11. Patrick Hillery 아일랜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의 번영과 한국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답사를 함.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 1984

| 84-00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2014-3 / 36 / 1~39(39p)

1. 외무부는 1984.1월 허승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대사에 내정하고 부르키나파소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함.

2. 1984.3.20. 부르키나파소 외무성은 허승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5.18. 허승 대사는 외상 대행인 Ouedraogo 내무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한국은 와가두구에 상주공관을 설치한 최초의 나라 중 하나로서 지난 14년간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83.9월 박찬긍 특사방문 시 약속한 원조물자가 이미 도착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증식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함.

3. 6.20. 상카라 대통령에게 신임장를 제정하고 환담한바, 허승 대사는 개발경험을 상호 나눌 수 있는 양국간 남남협력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상카라 대통령은 남북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우방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토착어로 연설함.

대사파견 - 우루과이, 1983-84

| 84-007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총무과
MF번호	2014-3 / 37 / 1~101(101p)

1. 정부는 1983.11.24. 김병연 외무부 아주국장을 주우루과이대사로 내정하고 우루과이 정부에 아그레망을 긴급 신청하도록 지시함.

   ❋ 1983.12.29. 우루과이 정부는 김병연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공한으로 통보

2. 1984.3.13. 김병연 주우루과이대사는 Maeso 외상을 방문,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한바, 동 외상은 양국 간의 통상 등 실질관계가 계속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3. 1984.3.14. 김병연 주우루과이대사는 Alvarez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반공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우방이며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다짐함.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1984

| 84-00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남미과
MF번호	2014-3 / 38 / 1~95(95p)

1. 아르헨티나 외무성은 1984.3.19. Antequeda 대사를 주한 대사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3.30.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Anetqueda 대사는 7.18.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한 · 아르헨티나 양국은 고도의 산업기술에 급속히 접근하고 있으며 해외의 공공사업 국제입찰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신용 및 자본을 축적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함.

대사부임 - 호주, 1983-84

| 84-00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3 / 39 / 1~82(82p)

1. 주한 호주대사관은 1983.10.28. 공한을 통해 Mr L.L.E. Joseph 주유엔 대표부 공사가 주한 대사로 내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1983.11.14. Joseph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

2. 1984.4.12. 주한 호주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한국은 호주의 네 번째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경제관계에서 오는 상호이익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언급함. 또한, 동 대사는 지난해 비극적인 사건으로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연기된 바 있음을 지적하고 편리한 시기에 호주 방문이 실현되기를 희망함.

3. 1984.4.27. 주한 호주대사는 신임 인사차 외무차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호주 정부는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남북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함.

대사부임 - 콜롬비아, 1983-84

| 84-007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남미과
MF번호	2014-4 / 1 / 1~138(138p)

1. 콜롬비아 정부는 1983.8월 Fernando Duque Ramirez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옴.

- 9.10. 정부는 동인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
- 10.19. 콜롬비아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아그레망이 기 부여된 Ramirez 씨가 자국 내 보건 분야 업무를 맡게 되어 부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 재차 통보하여 주겠다고 통보

2. 1983.12월 콜롬비아 외무성은 Ramiro Zambrano Cardenas 현 외무성 국제기구 차관보를 주한 대사로 내정하고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바, 정부는 1984.1.5.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1984.4.12. Cardenas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양국은 지리적으로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민주주의, 평화공존이라는 공통의 이념을 기반으로 유대를 강화해 오고 있는바, 앞으로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대사부임 - 도미니카공화국, 1984

| 84-007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
MF번호	2014-4 / 2 / 1~210(210p)

1. 도미니카 정부는 1984.5.2. Ciro Amaury Dargam Cruz 전 외무차관을 주한 대사로 내정하였음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정부가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해 주기를 요청함. 이에 정부는 5.16.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사비논 주한 도미니카 대사는 대통령을 이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자신이 귀국하면 어떠한 보직을 받더라도 한국의 정당한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대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무장관을 이임예방 후 귀국함.

3. Cruz 대사는 9.19.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제정사에서 도미니카 정부는 자국의 경제공고화 및 제도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공한 기여에 감사하며 비록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함.

대사부임 - 핀란드, 1983-84

| 84-007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3 / 1~148(148p)

1. 핀란드 외무성은 1983.10.18. Pauli Opas 현 외무성 통상국장이 1984.3.1. 부로 주한 대사(동경 상주)에 내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이에 정부는 1983.11.2. Opas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Opas 주한 핀란드대사는 1984.5.16. 신임장 제정사에서 통상 및 경협이 양국관계의 핵심적 요소로 계속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은 상호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함.

❋ 5.16. 핀란드를 포함하여 피지 및 스리랑카 대사 3인의 동경 상주 신임대사들의 신임장을 제정

3. 주핀란드대사는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 중인 Opas 주한 핀란드대사를 1984.8.10. 오찬에 초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Opas 대사는 양국관계 촉진을 위해 주한 상주대사를 조속히 임명토록 본부에 강력히 건의 중에 있으며 수상면담 시에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하고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전망함.

4. 1984.10.16.~19. 방한한 Slotte 핀란드 외무성 행정차관보는 10.17.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자국에서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은행, 상사 등도 이 지역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 상주대표 격상문제는 이의 없으나 예산문제 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함.

대사부임 - 과테말라, 1984

| 84-007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2014-4 / 4 / 1~234(234p)

1. 과테말라 외무성은 1983.12.19. 공한을 통해 Jose Alberto Sandoval을 주한 대사(동경 상주)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옴.

❋ 1984.1.12. 정부는 동인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6.8. Sadoval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

2. 1984.6월 과테말라 정부는 Edgar Arturo Lopez Calvo를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코자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옴.

❋ 1984.6.18. 정부는 동인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

3. 1984.10.19. Lopez Calvo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20년도 안 되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찬양하고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은 과테말라 국민들의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대사 부임 - 아이티, 1983-84

| 84-008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
MF번호	2014-4 / 5 / 1~151(151p)

1. 아이티 정부는 1981.8.24. Nyll Calixte 현 주벨기에 대사를 주한 상주대사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옴. 그러나 동년 10월 아이티 정부는 예산사정상 한국에 신설 예정이던 공관 설치를 보류하고 Calixte 대사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옴.

2. 1983.9.3. 주베네수엘라 아이티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Yves Francois 현 주멕시코 대사를 초대 주한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10.20. 동인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3. 1984.10.19. Francois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양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대사부임 - 아일란드, 1984

| 84-008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6 / 1~199(199p)

1. 주영 아일랜드대사관은 1984.1.20. 주영 한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Whelan 주일 아일랜드 대사를 한국 겸임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1984.2.2. 정부는 Whelan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
- Whelan 대사는 4.12.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산업, 통상, 기타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정계, 경제계 인사들 간의 접촉과 교류가 증대되기를 희망함. 또한, 아일랜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2. 1984.7.2. 주일 아일랜드대사관은 Ronan 신임 주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여 왔으며, 정부는 7.20.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11.20. Ronan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신임장 제정사에서 아일랜드는 구주공동체의 국제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국제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여 왔으며 한국이 유엔에서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동 대사는 양국 간 우선과제는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공식, 비공식 수준에서의 접촉과 방문을 증대시킴으로써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사부임 - 일본, 1984

| 84-008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7 / 1~200(200p)

1. 일본 정부는 1984.9월 미카나기 기요히사 현 주캐나다 대사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여 온바, 10.2. 정부는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미카나기 대사는 12.21.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관계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는바, 지금이야말로 한 · 일 양국이 호혜평등, 상호이해와 신뢰에 입각하여 성숙한 우방으로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함.

대사부임 - 케냐, 1984

| 84-008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8 / 1~79(79p)

1. 케냐 외무성은 1984.2.9. 현 주독대사 Phillip Gichuru Gitonga를 주한 대사(동경 상주)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여 옴.

❁ 3.3. 외무부는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

2. 주한 케냐대사는 6.8.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인은 신임장 제정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국이 취해 온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의 제3세계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류증진에 감사하고 한 · 케냐 간 이러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함.

❁ 동인은 신임장 제정 후 경주, 판문점, 선경그룹,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을 시찰

대사부임 - 리비아, 1984

| 84-008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9 / 1~31(31p)

1. 주리비아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이 1984.8.27.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인민위원회 서기(대표) Mohamed Ali Abdel Sayed 및 위원 2명이 전임들과 교체됨을 통보해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1984.9.6. 주리비아대사는 신임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로 임명된 Abdel Sayed 서기는 해외국민사무소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세바 지역 및 혁명위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비 외교관 출신으로 그간 혁명위 산하 정보성의 해외정보 및 홍보분야에서 한국 및 일본지역 업무를 관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대사부임 - 멕시코, 1983-84

| 84-008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
MF번호	2014-4 / 10 / 1~109(109p)

1. 멕시코 정부는 1983.6.29. Gonzalez Galvez, Sergio 대사를 주한 대사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정부는 7.16.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1983.11.1. Galvez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랑군에서 발생한 비이성적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통상증대를 위해 상공장관이 인솔하는 고위 경제협력사절단의 방한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함.

3. 1984.3월 멕시코 정부는 현 주쿠바 공사인 Jorge Alfonso Fuentes, Mendes를 주한 대사대리로 임명하였으며 동 대사 대리는 4.14. 한국에 부임함. 동인이 쿠바 근무 시 현지의 북한 대사가 멕시코 대사에게 접근, 관계개선을 희망한 바 있으나 멕시코는 북한이 테러리즘을 버리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일축했다고 함.

대사부임 - 나이지리아, 1984

| 84-008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11 / 1~98(98p)

1. 주일 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4.7.24. 본국 외무성 영사국장으로 재직 중인 Y. W. Sada 대사가 주한 대사(동경 상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를 요청함.

❋ 외무부는 1984.10.22. Balewa 전 주한 나이지리아대사에 대한 정부 수교훈장 흥인장 및 선물(시계 1점)을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송부, 해당인에게 적의 전달할 것을 지시

2. Sada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는 11.20.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제정사에서 나이지리아 연방군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 광산물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새로운 기술, 현대적 경영기법 및 개발경험 등을 양국이 상호 호혜적으로 나누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대사부임 - 뉴질란드, 1983-84

| 84-008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4 / 12 / 1~60(60p)

1. Holborow 신임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1984.3.13.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대통령은 KAL기 격추사건 및 랑군 폭발사건 등 민족적 비극과 관련하여 한국 국민에게 보여 준 뉴질랜드 정부의 위로와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평화 우호국 모두가 이러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함.

2. Holborow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지난해 무산된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약속함.

대사부임 - 파키스탄, 1980-84

| 84-0088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남아과
MF번호	2014-4 / 13 / 1~221(221p)

1.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0.3.13. 공한을 통해 Muzaffar Hussain Soomro를 주한 총영사로 임명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해 옴. 그러나 4.23. 파키스탄 외무성은 Soomro 씨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타지로 전보케 되었음을 통보해 오면서 Bashir Batty를 주한 총영사로 재임명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옴.

❋ Batty 총영사는 1980.6.20. 서울에 부임하여 1982.10월 이임하였는바, 정부는 Batty 총영사가 재임 중 한 · 파키스탄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 수교훈장 흥인장을 서훈

2. 1982.10.23. 파키스탄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Javaid Masud를 신임 주한 총영사로 임명코자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1982.11.3. 동인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3. 1983.10.27. 파키스탄 외무성 Sattar 차관보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를 초치, 한 · 파키스탄 양국 간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제안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동의키로 결정했음을 통보함.

❋ 동 차관보는 그간 결정이 지연된 것은 옛 친구인 북한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결정을 북한 측에도 이미 통보했으며 북한 측은 이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표명했다고 부언

4. 1984.3.14. 파키스탄 외무성은 Mahdi Masud 현 주쿠웨이트 대사를 초대 주한 대사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바, 정부는 3.21. Masud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그러나 1984.6.14. 파키스탄 외무성은 Masud 대사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동인에 대한 주한 대사 임명동의 요청을 철회키로 하였음을 통보해 옴.

5. 1984.7.5. 파키스탄 외무성은 Ahmad A. Kamal 현 OIC 사무총장을 초대 주한 대사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1984.7.20.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Kamal 대사는 1984.12.21.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양국관계가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된 이래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등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

대사부임 - 파라과이, 1984

| 84-008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남미과
MF번호	2014-4 / 14 / 1~46(46p)

1. 파라과이 외무성은 1984.9.12. 공한을 통해 Anibal Paul Cazal을 주한 대사로 내정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옴.

2. 1984.11.20. Cazal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파라과이는 인권과 주권을 존중하고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평등, 내정불간섭, 민족자결의 원칙하에 세계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동 대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에 경의를 표함.

대사부임 - 시에라리온, 1977-84

| 84-0090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국제연합과/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4 / 15 / 1~130(130p)

1. Williams 시에라리온 외무차관은 1978.3월 현 주중국 대사(북한, 방글라데시 겸임)를 한국겸임 대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해 옴.

❋ 외무부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조치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동시에 겸임하게 되어 외교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북경 간 교통, 통신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 가능하면 주중 대사가 아닌 기타 아주지역 공관에서 겸임할 것을 희망한다고 제시

2. 1984.1.4. 주유엔 시에라리온대표부는 공한을 통해 Abdul G. Koroma 주유엔 대사를 뉴욕 상주 주한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바, 정부는 1984.2.2. Koroma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함.

3. Koroma 대사는 1984.6.8.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의 부흥을 이룩하고 개발도상국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시에라리온은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양국 간의 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심화, 증대되기를 기대함.

대사 부임 - 터키, 1984

| 84-009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2과
MF번호	2014-4 / 16 / 1~53(53p)

1. 주한 터키대사관은 1984.7.25. 공한을 통해 Metin Serman 현 주방글라데시 대사가 주한 대사로 내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바, 이에 정부는 1984.8.7.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1984.12.21. Serman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한 · 터키 양국은 오래전부터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이러한 돈독한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희망함.

영사 위임장 발급, 1984-85

| 84-009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17 / 1~223(223p)

1984.4월~1985.12월 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 각급 영사 직으로 발령된 직원에 대한 영사위임장 발급 조치를 수록함.

1. 외무부는 주홍콩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등에 신규 총영사, 영사에 대하여 인사발령 조치하고, 영사위임장 발급 건의 장관 결재 및 총영사인 경우 대통령 결재 등 절차에 따라 영사위임장을 발급, 해당 공관에 송부함.

2. 또한, 외무부는 영사위임장을 접수한 공관이 주재국 정부에 대한 인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영사부임, 1984

| 84-009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4 / 18 / 1~16(16p)

1. 주한 이라크총영사관은 1984.8.21. 공한을 통해 Kais Mahmood Mousa가 신임 주한 총영사로 8.18. 서울에 부임하였음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1984.8.30. 정부는 동인에 대해 영사인가장을 발급

2. 1984.7.20. 주한 일본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Hiroshi Ando가 주부산 일본 총영사로 임명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1984.8.3. 정부는 동인에 대해 영사인가장을 발급

명예영사 접수 - 아주지역, 1984-85

| 84-009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4 / 19 / 1~21(21p)

1. 통가 외무성은 1984.10월 최희각이 자신을 주한 통가 명예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Tupou 국왕에게 제의해 왔다고 하면서 동인이 명예영사로서 적합한지를 한국 정부에 문의해 옴.

❋ 외무부는 상기인이 현재 무직이며 전·현직 경력 및 동인의 발언 등에 비추어 명예영사로서 적임이 아니라고 1984.10.19. 통가 측에 회보

2. 1985.10.9. Tofilau 서사모아 수상은 최정헌 현 주한 서사모아 명예영사를 명예총영사로 승격, 임명해 줄 것을 제의해 옴. 정부는 10.25. 동 명예영사의 그간 양국 간 우호증진에의 기여도, 서사모아 측의 요청 등을 고려, 동인의 명예총영사 승격에 동의하고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명예영사 접수 - 중동지역, 1984

| 84-009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4 / 20 / 1~20(20p)

1. 튀니지 외무성은 1984.7.26. 공한을 통해 최효석 유원건설 대표를 서울 주재 명예영사로 임명하였음을 통보하면서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옴.

2. 1984.10.26. 정부는 동인에 대해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명예영사 접수 - 구주지역, 1983-84

| 84-009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4 / 21 / 1~69(69p)

1. 주일 그리스대사관은 1983.11.16. 공한을 통해 김승연 한국화약그룹 회장을 주한 그리스 명예총영사로 임명했음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하면서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를 요청해 옴.

❋ 1984.3.21. 외무부는 동인에 대해 영사인가장을 발급

2. 1984.4.10.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Daniel Rodriguez Montalt 씨를 마산 주재 스페인 명예부영사로 임명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가를 요청해 옴.

❋ 1984.6.13. 정부는 동인에 대해 영사인가장을 발급

3. 1984.8.27. 주한 독일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부산 주재 독일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을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외에 대구시와 포항시도 포함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9.3. 외무부는 공한을 통해 부산 주재 독일 명예영사의 관할구역 확대 요청에 이의 없음을 회보

4. 1981.4.24. 주한 덴마크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부산 주재 명예영사대리 임명을 허가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여 온바, 이와 관련된 외무부 의전실의 의견 문의에 대하여 국제기구조약국은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함.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관계 국내법에 따라 정부는 명예영사 대리를 인정할 수 있으며, 덴마크 명예영사 대리의 접수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명예영사 대리를 인정할 경우에도 영사대리의 경우와 같이 잠정적으로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상호주의적으로 문제 처리 가능

명예영사 접수 - 미주지역, 1984

| 84-009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남미과
MF번호	2014-4 / 22 / 1~22(22p)

1. 칠레 정부는 1984.2.15. 공한을 통해 김현철 삼미그룹 회장을 주서울 칠레 명예영사로 임명코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옴.

❁ 1984.6월 정부는 동 임명에 동의

2. 1984.6.29. 주일 온두라스대사는 본국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라 주한 명예영사를 교체할 방침임을 설명하고 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주일 온두라스대사관 측은 9.17. 공한을 통해 김영태 주한 온두라스 명예영사를 1984.8.6. 부로 해임하였음을 통보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1973-84

| 84-0098 |

생산연도	1973-1984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5 / 1 / 1~157(157p)

1.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들에게 그동안 면세되어 오던 유흥음식세가 면세 근거인 시조례의 시효가 1973.8.31. 만료되어 9.1.부터 유흥음식세가 부과됨에 따라 외교단 내에 물의를 자아낼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위와 배경을 회시해 줄 것을 1973.9.7. 서울특별시에 요청함.

❋ 서울특별시는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조치는 당초 엑스포70이 일본에서 개최될 때 일본에 집중할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나 현재로서는 조례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데 그 배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주한 외교단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계속 면세가 된다고 회신

2.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 및 기타 면세특권자에 대해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현황을 알려줄 것을 1975.9.11. 내무부에 요청함.

❋ 내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 주재 외교관에 대해 유흥음식세가 면제되며 주한 유엔군은 지방세법 141조 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음을 1975.9.26. 통보

3. 1976.5월 주한 외교단장은 구두로 '나이트클럽' 등 유흥장을 출입할 때 부과되는 입장세 및 방위세를 주한 외교관들에게는 면제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해 옴.

❋ 1976.7.21. 재무부는 입장세 면세는 현행법상 면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4조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면세가 곤란함을 회보

4. 외교관의 국내항공 여행 시 통행세 면세 조치에 대한 1976.5.12. 외무부 요청에 대하여, 재무부는 현행 통행세법상 면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4조 규정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세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항공요금에 포함된 통행세는 면세되지 않는다고 1976.7.27. 회신해 옴.

5. 1977.1.1. 유흥음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한 외교단은 외교관에 대한 면세 여부, 범위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자 1977.4.19.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회의각서를 통해 주한외교관에 대해 면세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제시하는 주한 상주 외교관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세를 면제토록 조치함.

6. 1983.1.7. 주영대사관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외교관 면세혜택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영대사관이 주재국 정부에 한국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을 하는 데 필요한 한국의 관련 법령 및 면제 실적 등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1984.3.2. 주영대사관에 송부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2-84

| 84-009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5 / 2 / 1~88(88p)

1. 1982.6.24. Follin 주한 프랑스 대사는 김병연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에 대한 이임 예방 시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법적지위와 관련, 프랑스 측은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한 · 프랑스 문화협정상의 기관이자 외무부 등록단체로 남게 되기를 희망함.

❋ 한 · 프랑스 양측 참여하에 설립된 기구를 프랑스 정부기구로 간주하여 문화협정 적용 대상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프랑스 측이 우선 문화협정에 의거한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설립토록 하고 이를 한국 국내법에 의해 설립될 재단법인을 통해 고유활동을 대행토록 위임

2. 1982.3.29.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부산소재 프랑스 명예영사관에 문화원의 부산 분원 개원을 희망하여 옴.

❋ 1982.9.30. 외무부는 동 분원 개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

❋ 1983.4.6.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불어 전문가에게 부산시가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해 한 · 프랑스 문화협정에 의거 이의 면제를 요청해 온바, 부산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

3. 1984.2월 외무부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법적지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원래 설립취지는 비영리 문화교류 기관으로서 한 · 프랑스 문화기술협력협정에 의한 문화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사설 학원으로서 과다한 수강료를 징수, 운영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사설 강습소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 문화협정에 의거한 진정한 문화기관으로 인정 예정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V.1 1984.2-5월

| 84-010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5 / 3 / 1~259(259p)

1. 1984.2월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이 면세 수입한 고가 외산 차량이 내국인에게 비정상적인 고가로 매도됨으로써 상당한 이익 취득이 가능하고 이에 편승하여 일부 외교관은 이익취득 목적만을 위하여 차량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행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규칙'의 개정을 검토함.

- ❁ 과세가격은 국내 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되, 비정상 고가로 매도되는 차종과 기타 차종에 대하여 차등 과세기준을 설정
- ❁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 수입차에 대한 양도제한 기간을 수입 후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하나 단, 소유주가 이임하거나 사망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국산차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양도 가능토록 개정

2.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면세차량 관리제도, 관계규정 등을 파악, 한국의 제도개선에 참고함.

- ❁ 본 문건에는 각국의 면세차량 관리제도, 관계규정 등도 포함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V.2 1984.6-12월

| 84-010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5 / 4 / 1~208(208p)

1. 1984.7.24. 한국원호복지공단은 외무부에 공문을 송부, 원호기금 조성사업을 지원키 위해 SOFA 면세차량을 동 공단에서 양수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 ❋ 관세청과 원호처도 관세청 고시(84-376)에 의거, SOFA 면세차량 양도 승인요령을 개정하여 한국원호 복지공단이 SOFA 면세차량의 양수권자로 추가 지정되었으므로 동 공단이 면세차량을 양수받아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
- ❋ 1984.10월 외무부는 주한 외국공관의 차량은 타국의 소유 또는 사유재산이므로 동 차량 매도 및 매입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규칙' 내에서 양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음을 회보

2. 1984.11월 외무부는 외교관 차량의 수입 또는 매도를 위요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권자의 부당이익 취득소지를 억제하고 차량 수입 및 매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 매도제한 기간을 현행 수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 이임 시에는 첫 번째 차량인 경우 언제든지 매도 허용하고 두 번째 이상 차량은 수입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은 타 특권자에게 매도하거나 재수출
- ❋ 외교관 계급별 수입제한 차종을 명문화하지는 않되 계급별 차량수입 허용범위를 내부지침으로 설정하여 수입허가 신청 시 개별적으로 종용하는 방법 채택

3. 재외공관에서 외무부에 보고한 여타국의 외교관 차량 규정 자료도 첨부되어 있음.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 1980-84

| 84-0102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5 / 6 / 1~46(46p)

1. 서울시는 1980.9.1.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방법을 이용자가 현금 징수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한 외교관도 요금 면제차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 이에 따라 외무부는 외교, 준외, 영사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가 서울시내 터널 및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공한을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에 통보

2. 1984.6.2.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외무장관 앞 공문을 통해 다수의 외교관 차량이 유료도로를 무료로 통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외교관 차량도 유로도로 이용 시에는 소정의 통행료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외교단에 주지시켜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옴.

❁ 1984.6.15. 외무부는 주한 전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소속 공용 및 사용차량들이 터널 및 고속도로상의 유료도로 사용 시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재촉구하는 공한을 발송

주한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 관저 임대차 및 채무관계, 1984-85

| 84-010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5 / 7 / 1~220(220p)

1. 한 · 라이베리아 양국은 1983.9.23. 양해각서를 체결, 대사관과 관저용 2개의 건물을 상호 제공키로 합의함.

2. 라이베리아 측의 재정사정 악화로 주한대사관 개설관련, 1983.10.2.~11.28. Hyatt 호텔 숙박비(540만 원)와 비품구입비 및 Telex 등 공공요금(3,475만 원)의 변제가 지체됨에 따라 민원과 관계당국의 협조 요청이 제기됨.

3.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측이 관저의 노후화, 배수, 환경문제로 신관저 물색과 이전을 요구해 온 데 대해 연체 공공요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이전에 동의할 것임을 표명한바, 동 대사관은 1984.11.12. 관저의 공공요금을 완납하고 신관저로 이전함.

4. 1985.8.1. 현재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측의 연체 공공요금 총액은 약 1,935만 원으로, 동 대사관은 1985.10월 말까지 완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함.
   ❁ 비품구입대금은 1985.5월 완불함.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3-84

| 84-010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5 / 8 / 1~245(245p)

1. 1983.2.18. 대통령은 문교부의 경기여고 이전계획을 재가함. (주한 미 대사관 청사이전과 관련)

- 1982.12월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대사관 이전 신축과 경기여고 이전 신축 및 재산 처리 등을 자유건설 주식회사(대표: 정주영)에 일임하여 추진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
- 문교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를 현 경기여고 부지에 이전코자 하는 미 대사의 협조요청을 수락하고 단, 이전방법, 절차, 재산처리 문제는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권고

2. 1983.4.15. 클리브랜드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공한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해 옴.

- 대사관의 현 건물로부터의 조속한 이전 요청
- 대사관의 경기여고 자리로의 이전에 대한 외무부 입장의 서면 통고
- 미국 정부 소유 안국동 부지(Compound Ⅱ)에 대사관 청사를 신축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
- 안국동 부지에 대한 현행 건축제한 규제의 면제, 길 건너편 건물과 동일수준의 고도 허가

3. 1983.4.22. 외무부는 회신을 통해 미국대사관 신청사 부지로는 안국동보다는 경기여고가 더 적합하며 취득절차에 대하여는 공립학교 매입에 관한 관계 지방법 및 규칙에 따라 매매계약 시 총 매입금액의 50%를 지불하고, 잔액은 부지 소유권 이전 시 지불해야 함. 미국 정부 소유인 안국동의 Compound Ⅱ는 주거지일 뿐만 아니라 경복궁 및 그 주변이 미관지역이므로 10m 고도제한 해제는 어려움을 통보함.

- 6.7.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시장을 면담, 미국 정부는 경기여고 부지 매입안은 시간과 복잡성으로 포기하고 대신 안국동 부지를 신청사 적격부지로 결정했음을 통보
- 서울시장은 안국동에 8층 높이의 미국대사관 청사 신축 안에 동의할 수 있음을 언급

4. 1983.10.21.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시장을 면담, 경기여고 부지에 미 대사관 청사건립을 허용토록 협조 요청하면서 을지로 소재 미문화원 부지 및 건물과 경기여고를 평가가격으로 교환할 것을 제의해 온바, 서울시 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주한 외국공관 부지매입 및 이전 검토, 1983-84

| 84-010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5 / 9 / 1~42(42p)

1. 1983.12.14. 종로구청장은 외무부 의전장을 면담, 청와대 보안강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로마 교황청 대사관을 포함한 궁정동 일대의 토지매입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 외무부는 1984.5월 교황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로마 교황청에 대해 청사 이전을 종용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을 강조

2. 1984.2.27.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서울시의 남산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외국공관 및 외국인 주택 철거계획에 관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해당공관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구체적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줄 것과 동 대사관의 청사 및 대사관저 신축용 대지를 물색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6.23. 주한 외교단장은 외무부를 방문, 남산공원 확장 계획 유무 및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교단에 구체적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 7.26. 서울시는 남산공원 계획은 외무부 및 대한주택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주 대책 등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 및 해당지역 위치 등을 통보

1985년도 재외공관 업무계획, 1984

| 84-010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북미과/동남아과
MF번호	2014-5 / 10 / 1~94(94p)

1. 본 문건에는 1985년도 각 공관(필리핀, 멕시코,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주재 대사관과 밴쿠버, 몬트리올 주재 총영사관)의 연간 주요 사업계획과 소요경비 보고가 수록됨.

2. 각 공관의 주요사업계획은 주재국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주요인사 방한초청과 접촉, 북한의 침투활동 저지 등 대북 활동, 참전용사회 등 친한단체 육성, 통상진흥활동, 88올림픽 등 한국홍보와 문화교류 증진 등에 관한 것임.

1985년 외교정책 수립 기본 자료, 1984

| 84-010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행정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4-5 / 11 / 1~152(152p)

외무부 본부가 1985년도 주요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서 소관업무 중 주요 외교일정, 추진 예정사업 및 시책, 주요 정책과제 등을 수집, 종합한 기본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요 외교과제

❋ 남북대화 진전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 미국, 일본 등 우방의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 중국, 소련 등 북한 동맹국의 대한반도 정책 파악 및 대처
- 제3세계 제국의 한국입장 지지를 통한 남북직접대화 여론 조성
- 유엔, 비동맹 등 국제회의 적극 활용 등

❋ 대미 관계
- 외무장관회담의 정례화
- 우리의 대외정책 추진(평화통일, 동북아정세 안정 노력, 태평양지역 협력 문제 등) 관련 미국의 적극적 협력 확보
- 신임 상 · 하원 지도급 인사에 대한 다각적 접촉 확대

❋ 대일 관계
- 한 · 일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 추진
- 우리의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기반 조성 노력에 대한 일본의 계속적 지지
- 재일교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우선적 해결과 취업문호 개방, 등록증 문제의 단계적 해결 추진

❋ 대중국 및 공산권 관계
- 비정치 분야의 실질관계 중심으로 정경분리 원칙하에 대중국 관계개선 신중히 추진
- 공산권 국가와 문화, 학술, 교역 등 비정치 분야 실질관계 강화
- 소련의 88올림픽 참가 유도

❋ 미수교국 관계 개선
- 경제협력 및 해외진출 교민의 외교적 활용 강화
- 대이라크 수교 추진 및 관계 강화
- 대이집트 관계개선 추진
- 미수교 아프리카 제국(잠비아, 기네, 앙골라, 소말리아 등)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T&T, 바하마 등)와 수교 추진

❋ 우방국에 대한 북한침투 저지
-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국의 대북한 정책 불변 확보
- 프랑스 등 서구 우방국의 대북관계 진전 최대한 억제
- 제3세계와의 정상외교 추진(각국 수반의 방한추진과 우리 대통령의 중동순방 검토)

❁ 대유엔 및 비동맹 외교
- 외무장관의 유엔 방문 기회에 수교교섭, 현안해결, 관계증진 방안 등 협의
- 북한의 비동맹 정상회의 및 남남협력 수뇌자회의 평양 유치 활동 견제

❁ PECC, PBEC 등 태평양지역 협력 참여

❁ 경제외교 강화
-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대책 강구
-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남남협력 활성화
-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 국제경제협상 적극 참여
- 해외이주 확대 추진

❁ 교민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 외교망 확충
- 아일랜드, 아이티, 스와질란드 등 5개국에 상주공관 개설 및 앙골라 등에 통상대표부 설치 추진
- 자메이카, UAE의 주한 상주공관 유치

2. 주요 외교일정

❁ 국가원수 급 방한
- 4.12.~16. 네덜란드 수상, 4월말 또는 5월초 프랑스 수상, 5월중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바베이도스 수상, 6.20.~24.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예정
- 기타 수리남 수상, 스페인 수상 등 17개 국가 또는 정부수반 방한 추진

❁ 각료급 방한
- 1.19.~22. 스웨덴 외상을 비롯, 프랑스, 스리랑카, 과테말라, 칠레, 적도기니 등 13개국 외상 또는 각료의 방한 예정 또는 추진

❁ 외무장관의 순방계획 등
- 2월 중순~3월초 서남아 및 동남아 순방, 1/4분기 중 GCC 순방과 한·일 외무장관 회담 및 한·미 외무장관회담 등 추진

한국 외교정책, 1984

| 84-010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 / 12 / 1~33(33p)

1. 1984.1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에 보고한 제5공화국의 외교기조와 1980년대 외교목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공화국의 외교기조

- 힘을 바탕으로 한 대화정책의 추구 (안보역량 증진과 억지력 강화를 위한 안보외교의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 추구)
- 세계를 향한 적극 개방외교의 추진 (상호주의 원칙하에 문호개방 외교 추구, 비동맹권의 우방지역화)
- 선진개도국으로의 경제외교 강화 (남남협력 정신 지지하고 이를 실천, 제3세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기여 증대 추진, 선진제국과의 자본 · 기술협력 강화와 자유무역주의 실천)
- 주인의식에 입각한 능동적 국민외교 (국민 모두가 역사, 운명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국제적 역할 증대)

❋ 80년대의 외교목표

- 한 · 미 우방관계의 공고화 (대미 협력관계 유지 강화는 한국외교의 주축, 대미외교의 최우선은 안보외교이며 한 · 미 우방관계를 국민적 공감 위에서 지속적으로 강화)
- 새로운 차원의 한 · 일 협력관계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하면서 외교협의의 폭을 넓히고 다원적 협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일본을 선진모델로 삼아 선진화 추진)
- 비동맹권의 우방지역화 (제3세계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지양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현실에 눈 뜨고 남북대화에 응하게 한다는 역사적 정당성 부여)
- 긴장완화 외교의 적극적 전개 (한국의 평화지향, 평화통일 의지 부각, 남북한 평화공존 정책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교차승인을 주장)
- 세계를 향한 적극 개방외교의 추진 (국민의 해외진출 권장, 태평양제국 간의 공동체의식 고취 선도)
- 선진개도국으로서의 경제외교 강화 (선진제국과 자본 및 산업기술협력 강화와 자유무역주의를 실천하고 남남협력의 당위성 강조와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권장)

2. 외무부가 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1984.11.19. 종합하였는바, 동 자료 중 앞으로의 추진방향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 아세안과의 실질관계 심화를 위한 아세안 각국과의 쌍무적 협력 확대 계속 추진
- 아세안 공동추진 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 검토

❋ 태평양 역내 협력사업 참여

- 아세안 회원국 및 태평양 연안국 협력관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 경주

❁ 태평양 민간협력기구 및 연구기관 활용

- PECC 및 PBEC 적극 참여, 85.4월 서울개최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다수 참여 유도 등

❁ 태평양 정상회의 실현 기반조성

- 한국의 중장기 외교목표이며 한국의 주도적 위치 확보 노력

❁ 국내기관 간의 업무협조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외교정책, 1983-84

| 84-010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5 / 13 / 1~60(60p)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주재국에 대한 외교강화 대책을 1983.8.12.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론

- 아르헨티나는 83.10.30. 총선거 및 84.1월 민정이양의 정치 일정이 진행 중인바, 이와 같은 주재국 정세로 인하여 그간 북한 침투에 대해 억지력으로 작용해 온 군부가 퇴진하게 되면서 북한의 대아르헨티나 수교재개 획책 가능성이 대두

❋ 정세 평가

- 83.10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인 노동자 및 대중의 지지기반인 정의당(당원 300만 명)과 중산층 보수정당인 라디칼당(당원 141만 명)의 경합이 예상
- 대통령 선출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인바, 정의당 후보(9월 전당대회에서 선출 예정)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고 군소정당이 라디칼당 후보(Alfonsin 후보 확정)에 가담하는 경우 라디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신정부의 대한국 및 북한 관계

- 한 · 아르헨티나 관계는 기존 우호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실질관계 심화 전망
- 신정권 하에서 북한의 수교재개 책동이 예상되나 정의당 및 라디칼당의 대외정책 정강에 북한과의 관계는 거론 전무

❋ 건의 사항

- 84년 민정 출범 후 적절한 시기에 각료급 사절단을 파견, 기존 우호관계 공고 및 대북한 수교 불가 입장 재확인
- 83.10월 총선 후 신정권 출범 전 수권 정당 유력인사 방한 초청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민정 대통령에 선출(83.12월)된 Alfonsin 대통령의 외교, 국방 고문인 Robledo를 1984.1.4. 면담, 한 · 아르헨티나 관계 증진 및 테러집단인 북한의 침투를 저지하는 데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Robledo 고문은 아르헨티나가 농목산품 수출시장으로서 아시아 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북한이 제3세계권을 통하여 수교재개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북한 저지에 협력하겠다고 언급

3. 1984.8월 외무부는 북한이 아르헨티나 민간정부 출범을 기화로 곡물수입을 빙자한 사절단 파견을 제의하는 등 외교관계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획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공식관계 수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실리 면에서 현저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부통령 · 외상 등 아르헨티나의 주요인사 방한 초청,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 강화, 문화교류 확대 심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함.

한국의 대캄푸챠 정책, 1983-84

| 84-011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5 / 15 / 1~106(106p)

1. 아세안은 1982.6월 결성된 반월남 민주 캄푸치아 연립정부의 비공산파(손산파 및 시하누크파)에 대한 국제적 지원획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한국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 및 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1983.1.1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 주재 대사관에 참고로 통보함.

❋ 기본 입장

- 유엔총회 관련 결의 및 캄푸치아 문제 국제회의 선언에 따른 평화적 해결 지지
- 캄푸치아 문제의 항구적인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아세안 제국의 노력 지지
- 캄푸치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초치는 사전에 아세안 측과 긴밀히 협의, 시행

❋ 연정승인 문제

- 현 단계에서 연정에 대한 승인문제 거론할 필요 없음 (캄푸치아 내 외군철수 후 자유선거에 의한 신정부 수립이 아세안과 유엔의 목표)
- 아세안 측이 연정승인 요청시 우방국의 입장과 시하누크의 대북관계를 고려, 신중히 대처

❋ 연정지원 문제

- 연정 구성 3파 중 우선 손산파만 지원하고, 시하누크의 경우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 취할 시 지원
- 연정지원으로 월남 및 소련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규모는 10만 달러로 하며, 말레이시아 및 태국 정부를 통해 손산파에 전달
- 군사적 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임을 아세안 국가들에 주지

2. 1983.3월에 시작된 베트남군의 대캄푸치아 연정 공세와 태국 국경침범으로 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이 대베트남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바, 외무부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에 비추어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1983.4.15. 다음과 같이 외무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함.

❋ 한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군의 캄푸치아 난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공격과 태국 영토 침범에 대하여 깊은 우려 표명

❋ 베트남 측의 침략적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 및 캄푸치아 문제와 관련한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캄푸치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

❋ 한국은 캄푸치아 문제를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력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천명

3. 또한, 본 문건에는 1983.10월 버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관련 캄푸치아 연정 손산 수상 명의의 대통령 앞 조위문, 세관감시업무에 관한 관세협력이사회(CCC) 지역실무회의(1985.5월) 서울 유치와 관련된 캄푸치아의 옵서버 자격 초청문제 검토, 아시아 · 태평양의원연맹(APPU) 제20차 총회 서울 개최(1984.9월) 시 채택될 결의안 중 캄푸치아 사태 관련 일본 측이 제출한 초안에 대한 검토 등이 수록되어 있음.

한국의 대필리핀 외교강화 대책, 1984

| 84-01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5 / 16 / 1~63(63p)

1. 주필리핀대사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19년간의 장기집권으로 부정부패, 10년간의 계엄통치, NPA 등 무장 게릴라 준동, Aquino 암살사건 이후 악화된 경제사정 등으로 민심이 이탈하여 1984.5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석이 13석에서 59석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KBL) 및 친여세력이 124석으로 절대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원내 안정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현 정권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1987년 차기 대통령 선거 시까지 계속될 전망임을 1984.10.9. 외무부에 보고함.

2. 또한, 주필리핀대사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는 동안 한국과의 현존 우호관계는 유지될 것이나 주변 ASEAN 국가가 최근 독립한 Brunei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을 승인하고 있고, 주재국 정부가 과거 갑자기 소련, 중국(구 중공) 등 공산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전례가 있으며 최근 외상 경질을 계기로 북한의 적극적인 대필리핀 접근이 예상되므로, 북한의 진출을 계속 저지하고 주재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경제,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의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함.

❋ 정무관계
- 마르코스 대통령 방한 실현
- 외상 및 유력인사(국회의장, 군참모총장 직무대리 등) 방한 초청 등

❋ 경제 · 통상 · 건설
- 양국 간 경제관계 회담 조기 개최, 통상 확대방안 강구
- 대외기술 공여(훈련생 및 전문가 파견 증원) 확대
- 민간 경협 활성화
- 한국산 승용차 및 버스 진출
- ADB 본부 건물 신축공사 수주 등

❋ 홍보 · 문화
- 유력 언론인 방한 초청
- 우리나라 소개영화 TV 방영 및 스포츠 교류 강화 등

3. 외무부는 주필리핀대사관의 지원 건의와 관련하여 본부 각 실국의 검토결과를 1984.11.18. 회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르코스 대통령 공식방한 실현
- 81.6월 전두환 대통령 필리핀 방문 시 방한 초청 의사 전달
- 양국 정부 형편을 고려,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 초청 추진 예정

- Tolentino 외상 방한
  - 이원경 외무장관의 필리핀 방문 시 방한 초청 의사 전달 예정
- 제3차 한 · 필리핀 통상장관회담의 85년 중 개최를 제의
- 민간 경협활동 활성화를 위한 한 · 필리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85년 서울 개최 추진

한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1983-84

| 84-011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5 / 17 / 1~84(84p)

1. 한국의 팔레스타인 관련 입장

- 73.12.5. 제4차 중동전 종식 계기에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중동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표명
- 79.9. 외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공식방문 시, 한국 정부는 PLO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PLO가 팔레스타인의 대표기구라는 유엔 결의를 포함한 중동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천명
- 80.5.13. 한 · 사우디아라비아 공동성명에서 유엔결의로 확인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포함한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PLO가 팔레스타인을 유일하게 대표한다고 표명
- 81.6.27. 한 · 인도네시아 공동성명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포함한 합법적 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표명
- 83.8.13. 한 · 말레이시아 공동성명에서는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는 독립국가로서의 권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국민적 권리인정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PLO를 팔레스타인의 유일 합법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해 오고 있으나 PLO에 대한 승인은 미부여

2. 외무부 중동국은 한국의 대PLO 승인문제, 주한 PLO 사무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 시행을 장관에게 건의, 1984.10.19. 재가를 받은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검토 배경
  - 한국은 국제적인 지위를 고려,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 심화방안의 일환으로 PLO가 팔레스타인 유일 합법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하는 입장 수립
  - 그러나 PLO 측은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긴밀 관계로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한국도 제3국과의 공동성명 형식 등을 통해 PLO 지위인정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PLO 승인 여부는 미정
- 기본 방침
  - PLO에 대한 직접적인 승인조치는 당분간 보류하면서 향후 한 · PLO 관계 및 한 · 아랍 관계 발전 계기로 활용
  - 주한 PLO 사무소 설치문제는 신중히 검토하되 PLO 측이 지도급 인사 방한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긍정적 검토용의 표명

3. 본 문건에는 외무부가 작성한 PLO 승인문제, 주한 PLO 사무소 설치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84.10월, 중동국), PLO의 국제적 지위와 한 · PLO 관계(84.10월, 중동국) 등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류 단절, 1984

| 84-011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 / 18 / 1~338(338p)

1. 국회사무처는 1984.4.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1차 IPU 총회 시, 아랍그룹에 의해 추가의제로 제출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문의한 데 대하여 외무부가 송부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종식 희망
-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유엔 결의를 지지

❁ 남아공에 대한 정부 입장

- 남아공이 인종차별 정책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동국과 외교관계를 포함한 공식 관계를 일체 불원
- 유엔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관련 결의를 존중 (대남아공 무기금수 결의, 투자 · 차관 금지 등 총회 결의)
- 유엔 결의를 존중, 남아공과의 스포츠 교류를 불허하며, 학술 · 예술 등 일반 문화 교류는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

2. 외무부는 1984.2월 이래 앙골라, 모잠비크 등 좌경 국가의 패전과 휴전성립으로 남아프리카지역 평화 분위기의 진전과 남아공의 역내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남아공의 대외적 인식 개선 노력이 추진되고, 특히 한국의 대남아공 교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민간 기업에 의한 대남아공 교역확대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1984.5월 검토함.

❁ 상공부는 당시 국내외 제반여건의 변화를 감안, 동부가 추진 중인 민간 베이스의 대남아공 교역촉진 시행에 대한 의견을 1984.5.19. 외무부에 문의

3. 본 문건에는 남아공 인사의 관광 및 경제 · 통상관계 증진 교류 등과 관련된 방한 신청 및 이에 따른 검토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는바,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84.3월 국제대댐회(ICOLD) 52차 집행위원회 Pre-meeting Study Tour(84.5.22.~27.) 남아공 대표 참석 검토 (외무부 입국 제한 입장)

❁ 84.4월 주일본 남아공대사관 영사,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지부와 업무협의차 입국 신청

❁ 84.5월 세계관세 총회(CCC) 참석을 위한 남아공 대표 입국

❁ 84.5월 세계교회기도성회(84.6월) 남아공 참석 검토 (북한의 왜곡 책동 소지 등 이유로 외무부 거부 의견)

❁ 84.6월 케이프타운 상공회의소, 통상사절단 파견 제의 (외무부 거부 의견)

❁ 84.6월 주일본 남아공대사관 영사부부 관광목적 입국 신청

- 84.7월 국제상공회의소 총회(ICC, 85.3월) 참석을 위한 입국신청 검토 (상공부 거부 통보)
- 84.7월 국제철강협회(IISI) 제22차 총회(서울, 88.10.10.~13.) 남아공 대표 참가문제 검토 (외무부 거부 의견)
- 84.7월 주호주 남아공대사 관광 목적 방한
- 84.10월 주일본 남아공대사관 총영사 방한

1983년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 1주년 대책, 1984. 전2권. V.1 1-8월

| 84-011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6 / 1 / 1~314(314p)

1. KAL기 피격사건 1주년 관련 정부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국방부, 교통부, 문공부, 안기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가 1984.8.18. 개최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건 1주년에 즈음한 정부대변인 성명에 대소 배상청구 문제를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에 포함시켜 소련의 배상을 재차 촉구
- 서방언론의 왜곡보도 대책
  - 미국 작가 Hursh의 첩보행위 수행설을 줄거리로 한 소설은 출판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역효과 가능성을 고려, 신중히 대처 (부득이 소설이 출간되는 경우에도 KAL기 사건 관련 많은 서적이 출판되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사건 1주년을 맞아 외국 언론의 관심이 커질 것에 대비, 각 재외공관에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및 지침을 시달
- 국제민간항공 안전 증진을 위한 법제도 보완을 위하여 시카고협약 개정안의 조기 비준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국방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
- 사건 발생 1주년 시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과 대소련 관계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2. 외무부는 1984.8.28. KAL기 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 전 재외공관에 한국 정부가 향후 대소련 관계를 감안하되 법적 권리는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소련 배상청구, 서방언론의 왜곡보도 시정, 시카고협약 개정안 비준 등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므로 이 지침으로 대처할 것을 시달함.

- 특히, 일부 서방언론이 미국의 KAL기를 이용한 첩보행위설 또는 미국이 소련의 방공전자 체제 작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로 이탈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는 등의 왜곡보도를 해 왔으며, 이러한 왜곡보도가 사건 1주년을 맞아 다시 부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최종사건조사보고서(소련의 첩보행위설 주장 부인)의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조사 및 심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적절히 대처할 것을 지시

3. 외무부는 KAL기 사건 1주년에 즈음한 정부대변인 성명(84.9.1. 발표예정)을 1984.8.30. 전 재외공관에 타전하고 적의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동 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3.9.1. 승객과 승무원 269명을 태우고 뉴욕을 떠나 앵커리지를 경유, 서울로 오던 중 탑승객 전원이 소련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잔인하게 희생된 KAL기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1주년을 맞이함.
- 한국 정부는 KAL기 사건의 주 피해당사국으로서 그간 미국, 일본 등 공동피해국과 불법 격추에 대한 대소련 배상요구 등 제반 노력을 해왔음.

- 한국 정부는 제25차 ICAO 특별총회에서 민간항공의 안전운항을 바라는 우방국들과 함께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사용을 금지한 기존의 국제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문화하는 데 기여함.
- 소련의 KAL기 격추 행위는 대다수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아 왔으며, ICAO는 정밀조사와 심의활동을 통해 소련의 억지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공표함.
- 아직도 배상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소련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소련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거듭 촉구함.

4. 본 문건에는 외무부 구주국이 작성(84.8.13.)한 집무자료(KAL기 사건 1주기에 즈음한 한국측 입장), KAL기 격추사건 이후 항공기 잔해의 인수 처리, 소련 측의 접수 거부로 진전이 없는 배상청구, 개정된 시카고협약의 비준문제, KAL기 격추 배경을 둘러싼 서방 언론의 왜곡 추측 보도와 소설 등 출간, 사건 1주년 추모 행사와 관련된 재외공관의 보고 및 문서, 신문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음.

1983년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 1주년 대책, 1984. 전2권. V.2 9-12월

| 84-011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6 / 2 / 1~202(202p)

본 문건은 KAL기 격추 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 캐나다 · 영국 등 우방국 정부 및 언론의 반응에 대한 공관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1984.8.31. 성명을 발표, 국제사회는 비무장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과 같이 무분별한 비극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소련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함.

- ABC TV는 8.30. 유족들과의 대담을 특집으로 방영하면서 KAL 여객기가 간첩행위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소련의 역정보 공세의 일환으로 조작된 논리라고 결론
- CBS TV, NYT, WT, US TODAY 등 미국 주요 언론도 KAL기 사건 1주년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

2. 영국 외무성은 1984.8.31. 주요 재외공관에 소련의 항공기 격추는 국제적 의무를 파기한 것으로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소련 외상에게 직접 제기하는 한편, ICAO의 결의안 채택과 시카고협약 개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련 측이 14명의 영국시민 희생자를 위해 모든 보상을 하도록 홍콩 정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통보함.

- 영국인 희생자 14명 중 13명은 홍콩 거주

3. ICAO 상주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대표들은 1984.9.13. 신임 인사차 예방한 주몬트리올총영사에게 KAL 사건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거의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며, 나머지는 소련의 책임인정과 보상 문제이나 소련의 일관된 부정적 태도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함.

- KAL기 격추 당시 소련군 참모총장 겸 국방부 부장관 오가르코프가 최근 현직에서 좌천된 것은 KAL기 사건으로 소련 지도층이 매우 불편해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

4. 그리스 파판드레우 수상은 1984.10.3. 의회 연설 중 KAL기의 첩보설을 주장, 그리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84.10.4.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동 수상의 해명을 요구함.

5. 영국 군사전문 잡지(Defence Attache) 1984년도 제3호(84.6월 발간)의 KAL기 첩보설 보도와 관련, KAL 측은 1984.8월 영국법정에 동 잡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이후 1984.11.19. 1심 법정에서 관련 보도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사과하고 KAL 측에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합의함.

❁ 동 잡지는 차기호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키로 결정

한국의 대중동 정책, 1984

| 84-011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6 / 4 / 1~52(52p)

외무부는 GCC(걸프협력이사회)가 걸프연안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에 의해 1981.5월에 설립된 이래 아랍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협력기구로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GCC 제국은 한국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제1의 원유공급선, 건설시장, 상품시장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지지기반이라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GCC 외교강화 실천 방안을 추진키로 1984.12월 결정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치 · 외교 분야

- ❁ 능동적 친GCC 정책 추구
  - GCC가 표방하는 Arab Cause 적극 지지 (중동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 지지 표명 등)
- ❁ 국가원수 및 고위인사 상호방문 적극 추진

2. 국방안보 분야

- ❁ GCC 기구와 군사안보 협력 제도화 추진
  - 자체 방위산업 육성책에 적극 협력 등
- ❁ GCC 제국과 쌍무군사협력 추진
  - 정기 군사교류 회담, 훈련 · 정비분야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 ❁ 치안분야 협력증진
  - 태권도 교관 파견 확대 실시, 경찰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3. 경제 분야

- ❁ GCC 국가개발에 실질적 기여방안 강구
  - 현지합작투자 정책적 지원 등
- ❁ 민간경제외교 적극 지원
  - 민간 경제사절단 정기적 파견
- ❁ 건설진출 전략 재검토
  - 재외공관의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 강화 (문제 발생 시 정부차원 해결 모색)

4. 학술 · 문화 · 종교 · 체육 분야

- ❁ 문화협정 체결, 청소년 교류 강화, 아랍문화 연구 및 아랍의 한국학 연구 육성 제도화, 한국 이슬람대학 건립 추진, 체육관계 인사 방한초청 추진 등

5. 제도 분야

❁ 비자면제 협정 체결 추진, 합동위 등 정기회의 개최, 각국별 친선협회 설립 추진 등

6. 본 문건에는 외무부 중동국이 작성한 '대중동정책재검토' (84.2월), '중동문제에 관한 아국입장' (84.5월)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페루의 대한국 정책, 1983-84

| 84-011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6 / 5 / 1~21(21p)

1. 주페루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이 공군성과 주한 페루대사관의 요청을 검토, 다음과 같은 대한국 관계 증진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1983.2.18. 외무부에 보고함.

- 외상의 방한과 양국 간 혼성위원회 창설 추진
- 현 Chavez-Soto 주한대사대리를 대사급으로 승격, 공관의 지위 격상
- 페루의 석유, 석탄 자원 개발 및 군항 건설에 한국 측의 참여문제를 관련기관과 협의
- 주한 페루대사관에 참사관 또는 1등 서기관 인력 보강

2. 1984.5.18. 주페루대사관은 페루 제1야당 APRA의 핵심인사인 Carlos Roca 의원이 대남북한 관계 기본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의 입장은 APRA 내 소장 당권파의 경직된 대북 밀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함.

- APRA 집권 시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 계획
-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더라도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 발전
-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시 한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거부반응이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 리마 주재 미국 외교관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관계 개선문제, 1984

| 84-011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6 / 6 / 1~281(281p)

1. 외무부는 일본의 이시바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사회당 방미단(1984.4.7.~18.)이 레이건 대통령, 부시 부통령, 슐츠 국무장관 등 미국 주요인사와의 면담 교섭 중인 것과 관련하여, 동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미국 측 인사들이 사회당의 편파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지적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하도록 관계자들을 접촉할 것을 84.3.16.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 일본 사회당은 이시바시 위원장 취임 이래 자위대의 법적 존재 인정, 레이건 대통령의 방일 반대 입장 철회 등 현실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 지지의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 정부와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기피
- 주미대사는 84.3.30. 백악관 NSC의 Sigur 박사와 면담, 사회당의 북한지지는 한 · 미 간 공동 이익에 크게 배치됨을 지적하고 적절한 기회에 대한국 관계개선을 설득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Sigur 박사는 한국의 요구가 미국 이익에도 합치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일본 사회당 위원장 등에게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설득하겠다고 언급

2. 주일본대사는 1984.4.23. 사회당 동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이시바시 위원장은 방미 후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 수행이 곤란함을 감지한 것으로 보이며, 방미 전에 계획하였던 자신의 방북 및 김일성 앞 친서 전달을 보류
- 사회당 조선 문제 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히로세 히데요시 중원 의원 외 2명은 84.4.26.~5.2. 어업문제, 나포어선 문제 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방북하였으나 당 대표단이 아닌 대책위원회 대표단 명으로 격하하여 방문

3. 외무부 아주국은 1984.7.28. 최근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시바시 위원장이 84.3.31. 남북한 · 미국 3자 회담 개최 또는 일 · 북한 간 정치적 관계 수립 시 대한국 정책검토 용의를 표명하고, 소가 사회당 부서기장이 84.7월 주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 면담(한국정부 관계자와의 최초 접촉)에서 9월 말 또는 10월 초 예정인 위원장의 방북 시 김일성에게 대한국 교류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언명하는 등 사회당 내의 일부 동향은 종래 한국과의 관계를 터부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목
- 그러나 획기적인 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국 관계개선 출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4. 본 문건에는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및 외무부 작성 보고서, 일본 사회당 관련 참고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한 · 호주 정무일반, 1984

| 84-011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6 / 7 / 1~104(104p)

주호주대사관이 1984년도 한 · 호주 간 정무 일반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 이와 관련된 외무부의 지시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호주대사관은 보안사범으로 1983.12.31. 체포된 이영희, 강만길 교수와 조승혁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멜본 소재 Uniting Church의 Wootton 목사 텔렉스와 호주 대학교직원연맹(FAUSA)의 청와대 앞 서한이 대사관에 송달되었음을 1984.1.20. 외무부에 보고함.

❁ 호주 수상성은 84.2.16. 언론 발표문을 통해 호크 수상의 2월초 방한 시 한국 측에 인권상황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 주한 호주대사관은 2.14. 한국 당국으로부터 조승혁 목사 등 3인이 석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한국 당국의 조치를 환영

2. 호주 수상성 Conybeare 1차관보는 1984.2.21. 주호주대사관 공사에게 호크 수상의 2월초 방한 중 환대에 감사하며 한 · 호주 정상회담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호주로서는 한반도문제, 양국 경제관계 등 하고 싶은 말을 다했다고 언급함. 또한, 동 차관보는 방한에 이은 중국 방문 시 호크 수상은 조자양 수상에게 랑군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관해 남 · 북한 직접대화가 가장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수상은 국제테러행위에 반대하며,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는 3자회담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남침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을 전달함.

3. 서호주의 수상 고문인 E. Harman과 K. Gale은 방한 중인 1984.9.20.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을 방문, 퍼스(perth) 주재 총영사관 개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 아주국은 동 요청과 관련, 퍼스는 호주의 5번째 도시로서 동 지역 거주 교민 수가 적으며 (약 490명 정도), 상주 영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국가는 9개국뿐으로 주호주대사관의 설치 건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4. 호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제2차 아시아대양주 공정거래법 회의 첫 공식 회합인 1984.5.22. 만찬에서 head table에 놓인 탁상국기 중 우리 수석대표 좌석에 북한기가 놓이는 실수가 발생하였는바, 한국 측은 이에 항의하고 북한기의 철거 및 태극기 교체 또는 태극기 즉각 교체 불가시 참가국 전체의 국기 철거를 요구함.

❁ 주최측은 실수임을 해명하고 사과하는 한편, 태극기 준비가 여의치 않아 참가국의 모든 국기를 철거

❁ 이에 대해 호주 외무성은 주호주대사관에 공식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통보

5. Hayden 호주 외상은 1984.4.16.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시아문제 세미나에서 호주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대북한관계 재개를 고려치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남북한 간 관계개선과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으로 외부의존을 감소케 할 것이며 호주의 대한국 경제관계를 위축시키게 될지 모른다고 부언함.

한 · 벨기에 정무일반, 1984

| 84-012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6 / 8 / 1~18(18p)

본 문건은 주벨기에대사관이 1984년도 양국 간 정무 일반에 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Tindemans 벨기에 외상은 1984.2.28. 하원 예산심의 시 외교정책 연설에서 대한국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 한 · 벨기에 양국 관계는 자유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맺어진 양호한 관계임을 강조
- ❋ 벨기에는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랑군 참극 이후 이러한 정책을 수정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표명

2. Nothomb 벨기에 외무성 아주국장이 1984.3.7. 최호중 주벨기에대사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 주벨기에 중국(구 중공)대사를 역임하고 귀국한 Zheng Wen Zha 중국 국제문제 연구소장이 Denorme 주중국 벨기에대사에게 언급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
  - 한반도의 긴장은 미군이 원인인바, 미군 철수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지역안정에 기여
  - 중국은 북한이 남침 의사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3회 반복)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 개최인바, 남한은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
  - 남한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장기간 분단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하며, 남한이 북침할 political will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인지
  - 북한은 교차 승인이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동맹 노선의 통일정부 수립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 ❋ Nothomb 아주국장의 평가
  -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중국이 북한에 종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EC 회원국 내의 의견
  - 79년 카터 대통령 방한 시 한 · 미 공동성명에서 3자회담이 제의되었는바, 당시 북한은 남한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중국의 설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
  - 북한의 남침 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 사실도 중요하며, 남한이 북침할 political will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중국의 견해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

3. Tindemans 외상은 1984.5.3. 이임 인사차 예방한 최호중 대사에게 자신의 1983년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순방 시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에 한국과의 수교를 권유한 데 대해 거부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며, 동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과의 갑작스러운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반응이었으나 전망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언급함.

한 · 캐나다 정무일반, 1984

| 84-01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6 / 9 / 1~41(41p)

주캐나다대사관이 1984년도 외무부에 보고한 주재국과의 정무 일반에 관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노재원 주캐나다대사의 de Montigny Marchand 주재국 외무성 정무차관과의 오찬 면담(84.8.2.)

❋ 한반도 상황 설명

- 노 대사는 북한의 대남전략, 남북대화문제, 김정일의 권력 승계 이후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동 차관은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며 3자 회담을 수락하도록 어떠한 압력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저지하는 데 협력

❋ 한 · 캐나다 외상회담 개최

- 노 대사가 84.9월 외무장관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 시 회담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 9.4. 총선으로 현 외상의 유임 여부가 미지수이기는 하나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계획으로는 9.27.경 뉴욕 방문 예정이라고 언급

❋ 아세안 문제

- 동 차관은 84.7월 아세안 외상회담 수행 인도네시아 방문 시 아세안 각국 수뇌들의 강한 개성으로 정상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외상회담 차원에서 상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

2. Kilpatrick 외무성 아 · 태차관보 언급 내용(노 대사의 84.9.12. 면담 시)

❋ 캐나다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 Mulroney 수상이 이끄는 정부의 당면과제는 실업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이며, 이를 위해 수출진흥 및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정책 추진
-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대상은 미국으로 Trudeau 정부보다 더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하여는 서부 캐나다의 경제적 관심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강한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

❋ 신정부 구성

- Joe Clark 의원 등이 외상으로 거론되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상태
- 보수당의 압승으로 Mulroney 수상이 당내 세력균형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특히 당내 대항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입장에서 각료 임명 가능

한 · 에콰도르 정무일반, 1984

| 84-012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6 / 10 / 1~89(89p)

주에콰도르대사관이 1984년도 외무부에 보고한 주재국과의 정무 일반에 관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Hurtado 에콰도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 전달

- 에콰도르 대통령은 중남미 경제위기 타개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84.1.9.~13. 끼또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 경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 및 행동계획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1984.2.28. 주에콰도르대사관에 친서로 요청
- 전두환 대통령은 친서 및 선언문 접수를 확인하면서 세계경제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Hurtado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치하하는 내용의 답서를 1984.3.20. 발송

2. 북한의 에콰도르 대학 침투 저지활동

- 북한은 에콰도르 침투가 어려워짐에 따라 끼또 및 과야낄 Univercidad Central 대학과 접촉, 동 대학을 중심으로 주체사상 세미나, 주체사상협회 설치 등을 획책
- 주에콰도르대사는 Jose Moncada Sanchez UC 대학 총장을 1984.4.4. 면담, 남북대화 경과와 한 · 에콰도르 관계를 설명하였는바, 동 총장은 한국 대학과 교수 및 장학생 교류, 대학 간 자료 교환을 희망

3. 윤태현 신임 주에콰도르대사(84.4.24. Hurtado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의 Febres Cordero 대통령 당선자 면담(84.5.18.)

- 윤 대사는 전 대통령의 당선자에 대한 축하인사를 전달하고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
- 대통령 당선자는 에콰도르가 처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취임 후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
- 윤 대사는 외무부 본부 훈령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한바, 동인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아직 시기를 정할 수는 없으나 한국, 대만 등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4. 강경식 대통령특사의 에콰도르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관련 활동(84.8.9.~12.)

- 강 특사는 8.10. 대통령 이 · 취임식 참석, 8.11. Cordero 신임 대통령을 예방

❁ 강 특사는 공식 일정에 앞서 8.9. Dr. Manuel Penaherrera 신임 부통령을 면담

- 특사의 신정부 출범 축하 및 한·에콰도르 양국 관계 긴밀화를 위한 협력 요청에 대해 신임 부통령은 우방국의 경축특사를 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신정부 수립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대사와 수출지역단지 건설, 농목분야 개발 등 제반 가능성을 협의하겠다고 언급
- 또한, 동 부통령은 북한의 침투 위험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언급

❁ Edgar Teran 외상은 8.9. 강 특사 면담 시 남북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 및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며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

이집트의 주Cairo총영사관 직원 소환 요구, 1983-84

| 84-012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6 / 11 / 1~12(12p)

1. 이집트 외무성 의전실장은 1983.12.28. 주카이로총영사를 초치, 이집트 정부가 정보 당국의 요청으로 주카이로총영사관 영사 2인과 행정직원의 외교관 신분에 합당치 않은 행위에 따라 송환 조치를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이에 관한 외무성 공한을 수교함.

2. 동 의전장은 한 · 이집트 관계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양국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손상 방지를 위해 사건을 비밀리에 취급할 것이라고 부언한 후 직원 3명의 일주일 내 주재국 출국과 출발 일시 및 항공편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3. 주이집트총영사는 이집트 정부의 조치가 매우 뜻밖이며, 3명의 직원이 일시에 이집트를 출국하게 된 것은 유감이며, 이번 사건이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4. 상기 이집트 정부의 요구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3조 1항에 따른 것이며, 동 제23조 4항은 이집트 정부의 결정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송환이 요구된 직원은 1984.1.1. 가족과 함께 출국함.

한 · 적도기니 관계 강화 추진, 1983-84

| 84-012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6 / 12 / 1~60(60p)

1. 적도기니 주재 Hardy 미국대사는 1983.12.10. 두알라에 휴식 차 기착한 기회에 주카메룬대사(적도기니 겸임)에게 동 미국대사가 Nguema 적도기니 외상 면담(1983.12.9.) 시 동 외상의 언급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 ❋ 한국대사를 84.1월중 만나기를 희망
- ❋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또는 축소를 검토 중
- ❋ 북한의 원조 사업(Bata 회의장 건설 및 말라보 농장 건설 기술자 파견)에 대한 한국의 승계 가능여부 및 한국 측에 이미 요청한 말라보 국회의사당 건설에 대한 회신 요망

2. 외무부는 우선 적도기니의 대북한 단교의지 등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주카메룬대사를 1984.1월초 현지에 파견키로 결정하고, 적도기니 요청에 대해 다음 방침을 수립함.

- ❋ 국회의사당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신중한 검토 필요
- ❋ 북한이 추진해 온 사업을 한국이 승계함은 어려우며, 대신 적도기니 측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50만 달러 상당 즉시 원조 가능
- ❋ 한국의 84년도 대적도기니 경제협력 계획(어망 및 소형어선 추진기 10만 달러 상당 지원, 어업 분야 연수생 2명 방한초청)을 설명

3. 주카메룬대사는 1984.1.9.~11. 적도기니를 방문, Obiang 대통령 및 Nguema 외상과 면담한바, 동국 대통령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한국의 어업분야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명
- ❋ 북한의 비행을 감시해 온바, 정부전복 및 밀수행위에 확증이 있어 대북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싶으나 Bata 회의장(86년 초 UDEAC 정상회의 장소) 건설과 농업협력에의 차질을 우려, 실행 불가

4. 외무부는 1984.11.~12. 외교부 아프리카국장 및 주카메룬대사를 적도기니에 파견, 우리측 방침(Bata 회의장 완공을 위한 가능한 범위 내 지원 및 농수산 분야 협력 등)을 설명하였는바, 이에 대해 Obiang 대통령은 대북관계 단절을 시사하고, 양국 간 구체적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사절단 파견을 제의함.

5. 외무부는 적도기니 측이 대북 단교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도기니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하였음을 1984.4.17. 주카메룬대사에게 통보하고, 본건 적극 추진할 것을 시달함.



- 농수산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계획에 따라 추진
- Bata 회의장 건설은 우리측이 50만 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자재 지원
- 적도기니 측이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 말라보에 1인 상주공관 설치
- 적도기니 측의 실무사절단 방한초청

한 · 이디오피아 정무일반, 1984

| 84-012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6 / 13 / 1~46(46p)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이 1984년도 한 · 에티오피아 정무 일반에 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외무부 본부의 지시 등에 관한 것인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Goshu Wolde 외상 면담 등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4.2.1. 주재국 외상 면담 시 국제기구에서 KAL기 사건, 랑군 사건 관련 주재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관계 강화를 희망하였는바, 동 외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
  - 한 · 에티오피아 양국은 영원한 친구이며 언제나 우호적인 관계인바, 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표단의 한국파견 필요성에 동의
  - 북한과 관계가 최근 친밀해지고 있으나 한 · 에티오피아 양국 관계에는 영향 없음
- Goshu Wolde 외상은 1984.4.12. 주에티오피아대사 면담 시 군복 기증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주재국의 10개년 개발계획추진 관련 합작투자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
- 1984.3.19. 에티오피아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대리는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남북한에 대한 주재국 기본입장인 중립적 태도에 변함이 없으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언급

2. 외무부 본부는 1983년 이후 북한의 대외원조 약속 불이행 현황을 1984.4.4.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참고로 통보함.

- 우간다
  - 81.12월 오보테 대통령 방북시 100ha 시범농장 설치, 고아학교 설치 등 수개의 사업을 약속하였으나 시범농장 설치 기술조사단만 1회 파견
- 적도기니
  - Bata시 공회당 건설 약속, 77년 착공하였으나 79년 공사 중단
- 기타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77.12월 황궁건립지원 약속 불이행(300만 달러 규모), 83.7월 국회의사당 건립 소요 전액(765만 달러) 지원 약속 후 126만 달러만 지원 등

3. 에티오피아 기술 연수생 망명 요청 처리문제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알미늄 공장(계양상사) 에티오피아 기술 연수생이 1984.6.15. 자국의 공산주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망명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동인의 망명을 불허하고 홍콩으로 6.17. 출국
- 그러나 동인이 귀국 시 에티오피아 정부의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토록 조치
- 추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인의 망명 신청은 필리핀 유학비자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기다리던 중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판명

4. 한 · 에티오피아 외상회담이 1984.10.2. 뉴욕에서 개최되어 한국 외무장관이 에티오피아의 6.25 참전 등 양국 간 돈독한 관계를 상기시킨 데 대하여, Goshu Wolde 외상은 양국 간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강화되기를 희망함.

한 · 프랑스 정무일반, 1984

| 84-012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북미과
MF번호	2014-6 / 14 / 1~41(41p)

본 문건은 1984.4.25. 이상옥 외무차관과 Baeyens 주한 프랑스대사와의 면담 등에서 제기된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일반대표부로의 명칭 변경 과정과 관련된 문서 등을 수록함.

1. 1984.4.25. 외무차관의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

❋ Baeyens 대사는 드 그로스브르 프랑스 대통령특보가 파리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김형률 단장을 접촉한 결과, 당시 진행 중인 남북한 체육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한국이 동의한다면 방한하여 남북한 체육회담 중재 가능성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과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

❋ 이 외무차관은 우방국 인사의 방한은 환영하나, 북한 측이 동 특보에게 언급한 내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고 당시 남북한 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관한 북한의 움직임에 관하여 설명

2. 1984.7.13. 외무차관의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

❋ 이 외무차관은 당시 외무장관의 유럽 6개국 순방 시 Cheysson 외상과의 회담을 평가하고 있으나,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명칭 변경 고려에 대하여는 다소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 프랑스 정부의 명칭 변경은 대북정책에 모종의 영향력을 수반하고, 한 · 프랑스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 우려
- 우리의 주요 우방국의 대북관계가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를 앞서지 않기를 희망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상응하는 행위가 없는 가운데 우리 우방국이 대북정책을 변경한다면 한반도의 미묘한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

❋ Baeyens 대사는 프랑스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Cheysson 외상이 82.7월 의회에서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맺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수락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을 설명

- 동 대사는 북한대표부의 명칭 변경이 북한 승인문제에 관한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랑군 사건 이후 승인문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사견을 피력

❋ 이 외무차관은 Cheysson 외상의 북한 불승인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북한 대표부의 명칭 변경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측의 미세한 정책변화가 국제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본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

3. 1984.12.18. 외무부 1차관보의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 초치 면담

❁ 차관보는 프랑스 정부가 북한대표부 명칭 변경에 공식 동의를 부여했다는 84.12.15. AFP보도를 알려 주면서, 프랑스 정부의 금번 결정과 한국 정부에 통보된 방식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대표부의 명칭 변경이 통상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분야까지 활동범위를 인정한 것인지 등 프랑스 정부의 공식 해명을 요청

한 · 가나 정무일반, 1981-84

| 84-0127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6 / 15 / 1~29(29p)

본 문건은 1981~84년간 주가나대사관이 양국 간 정무 일반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 및 외무부의 지시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한 · 가나 외무장관회담을 위한 주가나대사관의 주재국 현황보고(1981.8.7.)

❋ 정치정세

- 81.6.23. 야당통합 결의, 6.24. 발생한 빔빌리 지역 부족 간 폭동 등 불안 요소 상존하나 79년 민정 이양 이후 대체로 안정
- 각 정당 83년 후반 대통령 선거 대비 전략 수립에 부심

❋ 대외정책

- 비동맹 중립정책 표방(친서방), 모든 국가와 선린평화 관계 유지

❋ 경제상황

- 경제사정 핍박하나 부존자원 풍부로 경제적 잠재력은 큰 편

❋ 양국 현안문제

- 대토고 관계개선 지원(유엔 총회 시 한 · 토고 외상회담 주선 약속)
- 가나 외상 유엔 기조연설 시 한국문제 관련 한국 측 요망사항 언급 교섭
- 시범농장 조성 운영(약 20헥타르 규모), 농수산 기술연수생 초청 훈련 등

2. 가나 정부사절단 방한 초청

❋ 주가나대사는 1983.3~4월 예정으로 추진 중인 주재국 정부사절단의 방한초청 및 6월 예정인 주재국 외상 방한초청 건과 관련한 검토결과를 1983.3.12. 외무부 본부에 요청

❋ 외무부는 본부 사정상 당분간 사절단 및 외상 방한 초청이 불가함을 통보(1983.3.14.)

3. Rawlings 임시국가방위위원회 의장(국가원수)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주가나대사는 국군의 날 행사 참석차 방한하는 가나 군사령관이 전 대통령 앞 Rawlings 의장의 친서를 지참한바, 아래 내용의 친서 전달을 위한 일정을 1984.9.28. 외무부에 건의

- 한국 기업의 광물 채취, 가공 및 경영 분야 진출 권유
- 관개기술 등 농업분야 경험 공유
- 조선소와 도크시설 활용을 위한 한국조선소 등의 지원
- 현대조선으로부터 구입한 선박대금의 상환기간 연장

❋ 외무부는 Rawlings 의장 친서에 대하여 아래 내용의 전두환 대통령 답신을 1984.10.11. 주가나대사관에 송부, 주재국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

- 본인은 각하가 말씀하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관하여 개발도상국가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
- 양국 간의 관계가 전통적인 우호협력 정신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면에 걸쳐 더욱 증진되도록 양국 정부가 상호 노력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희망

그리스 수상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발언문제, 1984-85

| 84-012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6 / 16 / 1~46(46p)

1. 1983.10.3. 로이터 통신은 Papandreou 그리스 수상이 10.3. 사회당원들에게 격추된 KAL기가 미 CIA를 위한 스파이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실제로 스파이 목적을 위해 소련 상공을 침범한 사실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함.

- ❋ 10.4. Alan Romberg 미 국무성 부대변인은 정오 브리핑에서 Papandreou 수상의 KAL기 첩보 비행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무책임하며 문제의 핵심은 소련이 민항기를 격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것이라고 언급

2. 1983.10.5. 정부는 주그리스대사에게 외무성과 접촉, 아래 요지로 한국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하고,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Papandreou 수상이 공개 석상에서 KAL기 사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을 표명토록 지시함.

- ❋ KAL기 사건은 세계 86개국과 다수의 국제기구가 소련의 만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ICAO는 4개의 관련 결의안을 채택
- ❋ KAL기의 첩보행위설은 세계 규탄여론 및 책임회피를 위한 소련의 왜곡선전이며 ICAO의 사건 조사단은 정밀조사 결과 소련의 첩보행위 주장을 부인

3. 1983.10.8. 주그리스대사는 Petrounacos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하여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바, 동 국장은 수상의 KAL기 관련 발언이 한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내외 정치적 문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본다고 하면서 한국 측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동 건을 처리하지 않기를 희망함.

동독 화물기 그리스 억류사건, 1983-84

| 84-012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6 / 17 / 1~90(90p)

1. 주그리스대사관은 1983.7월 발생한 동독 화물기 그리스 억류 사건과 관련한 그리스 언론의 보도 기사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동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83.7.19. 그리스의 데살로니까 미크라 공항에 고장으로 착륙, 계류 중이던 항공기에 무기가 실려 있다는 제보에 비행기를 수색한 결과 자동화기실탄 213상자, 탄창과 자동화기 9상자, 400개의 자동 로켓 등 소련제 무기를 발견
- 동 항공기는 서독회사 소유로 리베리안 월드 에어라인에 대여된 것으로 카이로를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해지며, 조종사는 행방불명이었으나 1984.8.25. 프랑크푸르트로부터 도착한 서독인 조종사 2명이 동 항공기를 인수하려다 체포
- 항공기의 소유주는 무기밀수의 주범인 것으로 알려진 서독인
- 동 항공기와 무기는 재판부의 압수 결정으로 그리스 공군 및 군에서 인수

2. 내무부는 1983.9.14. 스리랑카 경찰 인터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 조회가 있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83.8.24. 탄약 및 수류탄 적재 독일 화물기가 그리스 공항당국에 압류
- 선하증권에 의하면, 동 화물은 한국으로 송부되도록 기재되어 있고 서울로 가는 길에 급유차 콜롬보에 기착토록 되어 있는바, 동 화물이 한국에 송부되는 것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

3. 내무부는 1984.1.24. 스리랑카 경찰당국이 그리스에서의 특수 항공화물 사건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조사단 파한 시 한국의 협조 가능여부를 1984.1.11. 문의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시하여 줄 것을 1.24.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본건 국방부(조달본부)와 협의하였는바, 국방부는 동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내무부에 직접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한 · 이탈리아 정무일반, 1984

| 84-01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6 / 19 / 1~31(31p)

본 문건은 1984년도 한 · 이탈리아 정무 일반에 관하여 주이탈리아대사관의 보고 및 이와 관련된 외무부의 지시 전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북한 제의 3자회담 관련 반응

❋ 이탈리아 외무성 아주과장은 84.3.7.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 이탈리아 · 북한 친선협회와 하원 공산당 의원들이 제기한 북한 제의 3자회담에 대한 이탈리아 입장 질의서한에 대해 외상은 이탈리아 정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남북 당사자 회담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2. 유엔 총회 관련

❋ 주이탈리아대사는 84.7.30. Malfatti 주재국 외무차관을 면담, 유엔총회 시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을 외상 기조연설에 언급할 것을 요청한바, 이에 대해 동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3. 이탈리아 민간 경협사절단 방한

❋ Orlando 이탈리아 전경련 대외무역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17명의 민간 경제인이 제2차 한 · 이탈리아 민간경협위원회 참석 및 전경련과의 합작사업, 기술이전, 제3세계 시장 공동 진출협력 협의를 위하여 84.11.4.~8. 방한

- 한 · 이탈리아 민간경협위원회는 11.5.~8. 개최한바, 동 위원회에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협의 이외에 이탈리아 전력공사와 한전 간에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협정 서명

4. 김대중의 유럽 방문 관련

❋ 이탈리아 기민당 사무총장인 Bernassola 상원의원 및 Giuseppe 상원 부의장은 84.12.18. 주이탈리아대사와의 오찬 면담 시 김대중의 유럽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 지난 10월 방미 중 국무성의 소개로 김대중을 잠시 만났을 때, 동인은 귀국 희망을 밝히면서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유럽여행을 준비 중이며, 프랑스, 벨기에도 방문하려 한다면서 이탈리아 방문 협조를 요청
- 이탈리아 방문의 경우 기민당 인사 접촉을 거부할 수 없으나 공식초청은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국무성도 동인의 구주 방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탈리아로서도 반대할 이유 없다는 의견

❋ 주이탈리아대사는 김대중의 유럽 방문 시 북한이 이를 악용, 반한활동을 전개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

다나까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한국관계 발언, 1984

| 84-013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6 / 20 / 1~35(35p)

1. 1984.8.24. 주일대사는 일본의 일간 현대(흥미 본위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지 8.21.에 다나카 로쿠스케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자민당의 8.10. 정례기자회견 석상 및 회견 후에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망언하였음을 보도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 이승만이 온다 해도 한국은 좋아하지 않으며, 왜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쓸 수 없는지, 그리고 올림픽을 보아도 한국은 유도에서 팔꿈치를 공격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등

2. 주일대사는 1984.8.23. 동 보도내용을 파악한 즉시, 야스이 껭 일 · 한의원연맹 회장과 접촉, 현 시점에서 자민당 현역 간사장의 폭언은 양국 간 중대 외교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함.
   - ❁ 이에 대하여 야스이 회장은 다나카 간사장이 최근 심한 당뇨병으로 정신상태가 비정상이라고 언급

3. 외무부는 주일대사의 1984.8.24. 보고를 접수한 후, 문공부 측에 보도 관제를 요청하고 주일대사관에 주일특파원의 보도자제 요청토록 지시함. 또한, 권병헌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은 다니노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일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 일측은 자민당 당직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외무성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대통령 방일 분위기를 흐리게 하여 한국 측에 미안하다는 입장 표명

4. 1984.8.24. 나카소네 수상의 부탁을 받은 세지마 류조(닛쇼 이와이 상담역)가 주일대사를 방문, 아래 요지로 언급함.
   - ❁ 나카소네 수상은 다나카 발언을 개탄
   - ❁ 수상 자신이 주일대사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나 주변에 노출될 것을 우려, 자신에게 수상을 대신하여 정중히 사과할 것을 부탁

5.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에 따라 다나카 간사장이 1984.8.24. 오후 주일대사를 방문, 공식 사과하고 자신의 경박한 발언에 대해 크게 반성하며 남은 여생 동안은 한 · 일 관계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함.

6. 일본의 주요 신문과 방송은 본건 다나카 망언을 보도하지 않음.
   - ❁ 다만, 공동통신은 일본 자민당의 한 지도자가 한국에 대해 불쾌한 논평을 하여 일본 정부 관리들을 당황시키고 있다고 보도

한 · 일본 정무일반, 1984

| 84-013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6 / 22 / 1~293(293p)

1. 김재춘 아주국장은 1984.1.5.~8. 일본을 방문, 아베 외상, 히로시 아주국장 등을 면담한바, 주요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김 국장은 1983.10.8.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최근 미국을 통하여 중국(구 중공) 측에 전달된 한국 측 입장 요지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촉구 등에 관하여 아베 외상에게 설명
- ❋ 아베 외상은 북한의 대화 제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남북한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에 대화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언급
- ❋ 히로시 국장은 남북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는 일본의 중대한 관심사인바, 한반도의 안정이 없으면 일본의 평화와 안정도 없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남측의 입장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언급

2. 1983.12.27. 주한 일본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일본 국회의원 선거 시 한국거주 일본국민이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에 개설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옴.

- ❋ 1984.4.23.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일본인들의 투표에 반대하지 않음을 공한으로 통보

3. 1984.1.26. 국방부는 일본 아사히 신문 소속 세스나기 1대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불법 비행하였음을 알려오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엄중 항의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 1.26.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측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일측은 즉각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

4. 1984.10.13. 정부는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로서 외무장관 회담, 제13차 정기 각료회의의 조기개최와 아래 실무회의 일정을 일측에 제의함.

- ❋ 제17차 무역회담(84년 11월중 서울개최)
- ❋ 과학기술 협력협정체결 교섭
- ❋ 제3차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84년 12월중 서울개최)
- ❋ 제4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고위 실무자회의

한 · 일본 정상간 직통회선 개설, 1983-84

| 84-013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6 / 23 / 1~134(134p)

1. 전두환 대통령과 나카소네 수상은 1983.1.12. 서울에서 개최된 한 · 일 정상회담 시 직통 전화 개설에 합의(공동성명 제11항)하고,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함.

❁ 한 · 일 정상은 82.11.30 나카소네 수상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취임인사로 통화한 이래 양국 정상간 통화가 증가

2. 외무부는 1983.1월 한 · 일 정상회담 시 합의된 정상 간 직통회선 개설 문제가 83.10월 한 · 일 외상회담 시에도 논의된바 83년 내에는 동 회선 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일측에 전하고, 일측의 개설방안 구상 및 준비상황을 타진 보고할 것을 83.10.19.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3. 하시모도 일 외무성 아주국장은 1983.10.24. 이기주 주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양국 정상 간 Hot Line 시설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본래 의미의 직통회선을 개설하기에 앞서 특정번호, 특정 방법 등을 상호 내정하는 현재보다 개선된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함.

4. 외무부는 한 · 일 정상 간 직통회선을 그간 양국 정부 간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설키로 합의하였음을 1984.8.18. 대통령에게 보고함.

❁ 개설방식

- 특정 비밀번호 지정, 다이얼에 의해 직접 통화를 가능케 하는 국제자동전화 방식(양국 외무부가 통화 중계)

❁ 사용방법

- 평상시: 외무부와 일본 외무성 간 연결
- 통화시: 외무부(외무성) 측 회선을 폐쇄시키고 정상 간 통화

❁ 개통시기

- 1984.8.25. 이전

5. 외무부는 1984.8.31. 다음과 같은 보도문을 발표함.

❁ 한 · 일 양국 정부는 1983.1월 한 · 일 정상회담 시 공동성명에서 합의, 발표한 바 있는 양국 정상 간 직통회선을 84.8.31. 개통

❁ 금번 직통회선의 개설은 83.1월 나카소네 일본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긴밀화되고 있는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상징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 것이며, 앞으로 양국 정상 간의 우의 및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 · 케냐 정무일반, 1984

| 84-013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 / 24 / 1~39(39p)

주케냐대사관의 1984년도 한 · 케냐 정무 일반에 대한 외무부 보고 및 이와 관련된 외무부의 지시사항 등인바,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주케냐대사는 1984.1.11. Sumbi 신임 외무차관을 예방, 양국 관계 관심사를 협의한바, 동 차관은 남북통일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일관된 평화통일 추구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회의 등에서 이러한 한국의 제반 정책에 대해 계속 지지할 것임을 언급함. 또한, 동 차관은 양국 간 통상 ·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쌍무관계 강화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양국 교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케냐 산품의 수입증대 노력을 요망함.

- 주케냐대사는 Mwangale 외상 방한 초청장을 전달 의뢰하고, 랑군 사건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

2. 주케냐대사관은 케냐 군부대의 태권도 보급을 위해 태권도복 및 벨트 80벌을 지원해 줄 것을 1984.1.28. 외무부에 건의한바, 외무부는 건의대로 태권도복을 송부함.

3. Nyachae 케냐 대통령비서실장은 1984.9.7. 주케냐대사와의 면담 시 유엔 대책 및 모이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유엔 대책과 관련 한국 측 요청을 수락, 외무장관과 협의하여 한국 지지발언이 기조연설에 포함되도록 조치
- 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케냐 방문은 양국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으며 모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갖게 되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방이 이루어지도록 건의 예정

4. 외무부는 금년 동부 아프리카지역을 휩쓴 한발로 인해 재정수입의 30% 감소, 식량 수입을 위한 2억 달러 이상 지출 불가피 등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고 있다는 주케냐대사의 보고에 따라, 한국 정부의 관심 및 우의 표시를 위하여 한발 구호금 5만 달러를 84년도 무상원조기금에서 지원키로 1984.9.18. 결정하고 이를 주케냐대사관에 통보함.

- 주케냐대사는 84.12.11. 모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대케냐 한발 구호기금 5만 달러를 전달
- 모이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측 방한초청에 응하여 85년 중 적절한 시기에 방한 희망을 피력

5. 외무부는 1984.10.19. 주케냐대사에게 북한이 군사협력 중단 위협으로 우간다 정부에 한국 공관 폐쇄 및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음을 통보하면서, 북한의 요구는 주권국인 우간다에 대한 중대한 내정 간섭이며, 북한 압력 굴복은 우간다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모이 대통령이 오보테 우간다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시달함.

- 모이 케냐 대통령은 84.10.11. 주케냐대사의 한발 구호금을 전달 받은 후 면담에서 내정간섭의 조건부 협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간다의 대북한 군사협력 증강 및 한국대사 추방 등에 관해 조사토록 하겠으며 우간다 측에 적절한 충고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

한 · 말레이시아 정무일반, 1984

| 84-013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6 / 25 / 1~34(34p)

1. 1983.3월 방한한 바 있는 아마드 샤 말레이시아 국왕은 자동차 수집가로 한국에서 사용 중인 1950년 대형 미국산 지프차를 수집용으로 입수하고자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관을 통해 희망해 옴.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선물 형식으로 이를 제공할 것을 권유함.

2. 동 지프차는 미국이 무상군원으로 제공한 것이나 미국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한 미국대사관이 제3국 이전을 위한 본국 정부의 허가를 득하고, 동 기증에 필요한 한국 국내 절차를 필한 후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이 인수, 1984.10.3. 선편으로 말레이시아로 운송됨.

한 · 마카오 관계, 1982-84

| 84-0136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6 / 26 / 1~33(33p)

1. 외무부는 1982.8월 마카오에 진출, 마카오 사법 경찰청 및 경찰특공대를 지도하는 한국 태권도 사범 2명이 태권도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극빈하여 북한 대남공작원의 포섭대상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반예산(태권도 사범 파견)에 의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관련 부서의 입장으로 시행이 보류됨.

2. 주홍콩총영사는 마카오를 통한 대중국(구 중공)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1984.12월 마카오에서 한국 최초의 상품전시회를 개최한바, 동 전시회에는 중국계 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 좋은 반응을 보여 줌으로써 대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한 · 멕시코 정무일반, 1983-84

| 84-013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6 / 27 / 1~24(24p)

한 · 멕시코 정무 일반에 관한 내용인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국방장관의 멕시코 방문 초청(주멕시코대사의 보고, 1983.7.30.)

- 멕시코 국방장관은 멕시코 독립 173주년 기념행사에 윤성민 국방장관 부처를 초청
- 동 행사는 83.9.13.~17. 개최되며, 전통적으로 특별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외국 군사절단에 대한 공식 초청은 없으며 동 행사에는 미국, 소련 등 15개국 사절단을 초청
- 외무부는 멕시코가 중남미 및 제3세계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 한국과 멕시코 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동 초청을 수락, 방문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

2. 한국외국어대학교 민만식 교수의 한 · 멕시코 관계증진 방안 연구 요지(1984.2월)

- 대멕시코 접근 강화 필요성
  - 멕시코의 풍부한 자원, 제3세계와 중남미 진출 확대의 교두보로서 멕시코의 중요성 강조
  -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의 경제, 행정 관료로서의 충분한 지식과 경험, 현 정부의 실리적, 점진적, 중도좌경 정책 전개를 고려
  -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석유자원은 우리의 안정적 석유 공급선 다변화에 기여
- 관계증진 방안
  - case by case의 실리적 접근 외교와 비동맹을 통한 접근
  - 상호 인사교류 확대
  - 한 · 멕시코 경협위원회 기능 확대, 어업분야 협력 증진, 수입구조 개선 등 경제협력 강화
  - 스와프 방식에 의한 멕시코 석유 수입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철도, 항만건설 등 기술 제공과 제조업 투자

3. 군 주요인사 방문 교류

- 주멕시코대사는 1984.7.2. 주재국 국방상을 면담, 한국 국방장관의 국군의 날 행사 계기 방한 초청장을 수교하고, 합참의장의 멕시코 방문의사 전달 및 주한 상주 무관부 설치를 요청
- 주멕시코대사는 1984.7.16. 멕시코 해군사령관에 대한 오경환 해군총장의 국군의 날 행사 계기 방한 초청장을 전달

한 · 네팔 정무일반, 1984

| 84-013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6 / 28 / 1~8(8p)

1. 주네팔대사는 1984.1.5. 주재국 Khatari 외상 및 Pradhan 외무차관을 각각 면담한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랑군 사건 이후 네팔의 남북한 관계

- 랑군 사건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는 북한의 대외관계 조정에 관심
- 랑군 사건으로 네팔의 남북한 등거리 정책은 한국으로 기울게 되었고, 북한의 테러 행위에 대해 극히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
- 네팔은 랑군 사건 이후 인접국의 대북 조치를 관찰하면서 내부적인 숙의를 가진 결과, 국왕의 방북을 무기 연기한바 실제로는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 무상원조

- 포니 10대, 앰뷸런스 5대 기증에 사의를 표명

❁ 국왕 방한 초청

- 국왕이 방북 계획을 취소한 직후 한국 정부가 방한 초청할 경우 시의적절한 우호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2월 중순 이전 초청장 전달을 요망

2. 주네팔대사는 1984.5.24. 주재국 국왕을 알현하고 랑군 사건 이후 주재국 정부의 격려와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제반 노력을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바, 동 국왕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 건설업체의 주재국 내 각종 건설 분야에서의 활약과 양국 간 교역확대에 만족하며 한국의 경이적 경제발전에 경탄하고 있다고 언급

❁ 네팔의 단기적 과제는 고도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발전보다 국민의 충분한 일용품 확보를 위한 가내공업의 발전이며,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한 수자원 개발이 장기 목표

❁ 네팔은 국제테러행위와 무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배격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한국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은 네팔의 인도대륙의 평화보존 노력과 동일

❁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하여 한국 대통령과 유익한 의견교환 기회를 갖기를 희망

한 · 네덜란드 정무 일반, 1984

| 84-01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6 / 29 / 1~19(19p)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84.1.26.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 면담 시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관련, 동 제의의 모순과 북한의 저의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적극 지지를 당부하는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동인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네덜란드 측 평가는 한국과 일치하며, 동 제의 관련 중국(구 중공)의 태도와 입장에 관심 표명
- 네덜란드의 아주지역 공관장회의(84.1.15.~17.)에서 랑군 사건에 대한 북한 규탄과 북한 도발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가 있었고, 중국의 실용주의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평가와 중국이 북한의 공격적 도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논의

2. 외무차관의 주한 네덜란드대사 면담 요지(1984.11.19.)

- 주한 네덜란드대사가 85.1월로 예정된 네덜란드 외상의 중국 방문 시 한반도 정세를 회담의제로 포함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데 대해, 외무차관은 우방국의 그러한 논의가 유익할 것이며 이의 없음을 표명
- 외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측과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본정책을 변화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

한 · 니제르 정무 일반, 1984

| 84-014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 / 1 / 1~85(85p)

본 문건은 1984년도 한 · 니제르 정무 일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니제르 겸임)의 니제르 요인 면담(84.3.8.~12.)

- 대통령군사평의회 의장, 수상, 외상은 한국 정부의 버스(10대) 지원과 태권도복 지원에 사의를 표명
- 수상 및 외상은 남 · 북한 문제와 관련, 당사자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니제르 입장을 천명
- 특히, 외상은 니제르 친선사절단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가능하면 자신이 인솔자로 방한할 의사임을 언급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참사관의 니제르 요인 면담

- 외무성 정무국장(84.4.13.)
  - 니제르 외상은 금년 중에 방한이 가능한바, 한국 측의 초청장 송부를 요망
  - Sahel지 발행인 방한초청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회신을 대기 중
  - 쿤체 의장은 한국의 협력에 매우 만족
- 수상(84.5.21.)
  - 84년 하반기 방한 희망을 피력하고 접수 가능여부 문의(일본 방문도 추진)
  - 수상의 방한 추진은 쿤체 의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외무성 정무국장이 알려준바,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희망
- 주니제르 미국대사대리(84.5.22.)
  - 쿤체 의장의 방북 취소는 니제르 국가원수의 방북 희망에 대해 북한 측의 접수여부 통보 지연 및 평양 착발 시간의 임의 변경 등 북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

3. 신임 주코트디부아르대사(니제르 겸임)의 니제르 주요인사 면담(84.8.30.~9.4.)

- 쿤체 군사평의회 의장
  - 양국 간 긴밀한 협력유지와 발전 희망, 니제르의 지원 요청 때마다 한국 정부는 우의와 결속을 표시
  - 수상의 방한은 한국 정부에 대한 사의 표시이며 양 국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의 심화 계기 확신
  - 한국의 통일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요함이 없이 국민의 여망에 따라 실현되기를 희망

4. 니제르 상주공관 설치 및 한발 관련 식량원조

- 북한의 니제르 상주공관 설치, 한국에 대한 니제르의 우호적 태도, 유엔 및 KAL기 사건 시 한국 입장 지지 등을 고려, 정부는 84.12월초 주니제르 상주공관 설치 결정
- 최근 수년간 한발로 니제르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식량 원조를 요청 중인바, 한국은 84년 중으로 5만 달러 상당 식량원조 추진

한 · 파키스탄 정무일반, 1984

| 84-01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7 / 2 / 1~76(76p)

본 문건은 한 · 파키스탄 정무 일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주파키스탄대사는 1984.1.4. 주재국 나이크 외무차관, 1.5. 사타르 외무성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 관계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협의한바, 파카스탄 측의 주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재국의 예산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2~3개월 내 주한대사 임명하고 공사 등 직원 보강 예정
- 기획원장관과 삼성, 대우그룹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을 환영
- 양국 외상을 포함한 각료급 교류 및 기타 사절단의 교류 추진을 희망
- 금년 중 각료 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공동위원회 설치를 희망
- KAL기 사건 관련 한국 입장을 이해하며 랑군 사건을 개탄하면서 미얀마(구 버마) 재판 결과에 비추어 그 진상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한국이 앞으로도 평화통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확신

2. 한 · 파키스탄 수교에 대한 공헌으로 1984.2월 Ashraf 주케냐 파키스탄대사에게 외무장관 명의 서한 및 선물을 주케냐대사를 통해 전달함.

3. 주파키스탄대사는 1984.5.16. 주재국 내무성 정보국장을 면담,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방한을 권유함. 동 국장은 특히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 지아 대통령의 이에 대한 연구 · 보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4. 파키스탄의 외무부 차관, 주소련, 인도, 영국, 미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고 제네바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gha Hilali 대사가 한국 측 초청으로 방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동아시아 상황에 관한 강연을 하고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주요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 · 파키스탄 수교를 축하
- 한국의 대북한 관계는 파키스탄의 대인도 관계와 유사
- 인도와 파키스탄은 거의 같은 수준의 빈곤상황에 있는데도 인도는 최신 군장비 도입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원자력 기술도 발전시키고 있는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 인접국은 인도의 상대가 될 수 없음. 인도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부탄의 인도 영향권 내 진입 등에 미루어 인도 대륙에서 헤게머니를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파키스탄은 이를 우려

5. 신임 주한 파키스탄대사는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84.12.3.) 및 외무차관 면담(84.12.28.)에서 한 · 파키스탄 양국 간 현안문제, 지아 대통령 방한 등에 관해 협의함.

한국의 팔레스타인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공여, 1982-84

| 84-0142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중동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4-7 / 3 / 1~236(236p)

1. 한국 정부는 1980.5월 최규하 대통령 중동 방문 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 표명과 인도적 고려, 대아랍권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00만 달러 기증을 약속한 바 있음.

2. 본 문건은 동 기금의 집행과 관련된 예산조치 및 시행기관(Student Aid International)의 집행 보고, 수혜학생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 서한, 장학기금 전달을 계기로 한 유엔 대표부와 중동지역 공관의 홍보활동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3. 상기 기금은 1981~84년간에 걸쳐 제1차~제3차 연도에는 30만 달러, 최종년도에는 10만 달러가 집행되어 83년까지 2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되었으며 중동 및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냄.

한 · 페루 정무일반, 1984

| 84-014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7 / 4 / 1~25(25p)

1. 주페루대사는 1983.6월 방북한 바 있는 주재국 제1야당(APRA)의 Alan Garcia 사무총장이 1985.4월 총선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천된 것과 관련하여, Garcia의 측근이며 당 외무위원장 Carlos Roca 하원의원(집권 시 외상), 당 원로 Sanchez 상원의원 및 Melgar 상원 외무위원 등을 1984.2.16., 3.1., 3.13. 각각 접촉, 남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Garcia 후보를 포함한 소장 당권파의 대북한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인들의 당내 영향력 행사 등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
   - ❁ 상기 의원들은 한국 입장에 이해를 표하고 가능한 지원을 약속
   - ❁ 주페루대사는 84.4.27. 페루 주재 미국대사와 북한의 페루 접근문제를 협의한바, 미국대사는 현재로서는 당분간 관망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유

2. 주페루대사는 APRA당의 대통령 후보인 Garcia 하원의원이 1984.6.25. 출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및 중국(구 중공)을 방문 예정이며, 페루 주재 북한대표부가 APRA 내 친북 의원을 통하여 중국 방문기간 중인 7.9.~11. 재방북을 추진 중임이 확인되었다고 1984.6.24.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북한이 페루 제1야당 APRA의 차기 총선 시 집권 가능성에 대비, 동당의 대통령 후보 Garcia를 비롯한 당권파 중진을 83.6월 및 84.7월 2차에 걸쳐 방북 초청, 파격적인 환대를 하면서 정치자금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당 집권 시 북한과의 수교가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된 미 국무성의 평가 및 반응을 보고하도록 1984.7.28.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이에 주미대사관은 미 국무성 페루담당관으로부터 타진한 내용을 8.1. 다음과 같이 보고함.
   - ❁ 현 시점에서 Garcia의 집권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Garcia가 30대로서 페루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
   - ❁ APRA가 집권하면 북한과 공식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 · 미 양국이 페루나 볼리비아에서 북한의 책동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 측으로서도 적극 협력 예정

4. 강경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특사로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중 주페루대사를 에콰도르로 초치, 북한의 대페루 수교책동과 관련한 정세 현황을 청취하여 1984.8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함.
   - ❁ 페루 총선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 득표 가능성 희박하고, 여당과 제1야당 간 경합이 예상되나 여권 단일후보 추대 시 여권의 압승 가능성이 예상되며, 여권 단일후보 실패 시는 제1야당의 승리가 예상됨

❁ 북한의 Garcia 후보와 측근인사 방북 초청(방북 시 국가원수급 파격적 대우와 정치자금 제공으로 수교 언질 받은 것으로 알려짐), APRA당 행사에 북한 고위인사 파견 등 접근책동이 강화되어, 제1야당 집권 시 페루 · 북한 간 수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건의

- 제1야당 요인(Garcia 후보 등), 군부 요인, 유력 언론인 방한 초청
- 페루산 철광석 수입
- 미 · 일 · 중남미 등 우방국 대사관과 협조체제 강화
- 제1야당 집권 시 특별 원조 제공 등

한 · 스웨덴 관계, 1984

| 84-014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7 / 5 / 1~45(45p)

본 문건은 한 · 스웨덴 관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스웨덴 부수상 방한 추진

- 주스웨덴대사는 84.2.9. Dafgard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 초청 업무오찬 시, 동 국장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성, 교체성 및 공업성에서 Carsson 부수상의 방한을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인바, 방한 시기는 84.9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
- 스웨덴 외무성 측은 84.4.10. Carsson 부수상의 개인사정으로 금년 가을 방한은 어려울 것 예상, 다른 정치레벨의 인사 방한을 검토 중에 있다고 주스웨덴대사관에 설명

2. 북한의 대스웨덴 외채 상환

- 외무성 아주국장은 84.4.10. 북한의 대스웨덴 부채 상환 및 구상무역 문제협의를 위해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북한 경제사절단의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스웨덴대사에게 언급
- 또한, 동 국장은 북한이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상환하면서 새로운 신용공여를 요청할 경우, 계속적인 부채상환 유도를 위해 동 상환액보다는 적은 새로운 신용공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3. 외상 방한 추진

- 휴가차 일시귀국 중인 주한 스웨덴대사는 84.7.11. 주스웨덴대사와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시, 스웨덴 외상이 방한 시기를 85.1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
  - 일정상 스웨덴 외상이 베트남을 먼저 방문하고 방한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 논의

4. 주스웨덴대사관 주최 한국의 밤 행사

- 행사 일시 및 장소
  - 84.10.12.(18:30~23:30), 스톡홀름 그랜드 호텔
- 행사 목적
  - 친한 인사 저변 확대, 한국문화 소개 및 상품 선전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강화
- 행사 내용
  - 한국 전자제품 전시
  - 한국 민속무용 공연
  - 만찬 등
- 스웨덴 정부, 경제계, 언론계, 문화 및 체육계 등 주요 인사 300여 명 참석

한 · 싱가포르 관계, 1984

| 84-014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4-7 / 6 / 1~74(74p)

본 문건은 한 · 싱가포르 관계 및 싱가포르 정세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싱가포르의 입국심사제도 완화 문제

- 싱가포르 정부는 84.1월부터 소련 등 7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2주간 싱가포르 방문이 가능토록 입국제도를 완화
- 동 조치로 북한인도 비자 없이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해진바, 주싱가포르대사관 측은 83.12.23.과 12.27. 주재국 외무성에 랑군 사건으로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해 왔고, 싱가포르에 우리 건설회사와 직원 진출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움을 들어 북한인 입국에 대해 재고를 요망
  - 이에 대해 싱가포르 측은 우리의 입장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북한인의 출입국 시 심사 철저, 입국 후 계속 감시 등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

2. 싱가포르 외상 면담

- 주싱가포르대사는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에 앞서 84.1.6. Dhanabalan 주재국 외상을 면담하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주재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Lee Kuan Yew 수상의 방한 문제 언급
- 동 외상은 수상 방한 가능성은 알 수 없으므로 확인 후 알려 줄 것이라 하고, 북한이 싱가포르 입국완화 제한 7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한국 측 우려는 이해할 수 있으며 동 경위를 조사해 보겠다고 언급
- 외상은 한국 외무장관의 84.2.23. 브루나이 독립 경축행사 참석 전후 싱가포르 방문을 희망

3. 싱가포르 총선 관련 동향 관련 내무차관 면담

- 주싱가포르대사는 1984.3.29. Chin Harn Tong 주재국 내무차관을 오찬에 초청, 주재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바, 동 차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
  - 싱가포르 총선은 헌법상 매 5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관례적으로는 4년마다 실시되는바, 차기 총선거도 예정보다 1년 앞서 금년 중 실시
  - 싱가포르 건설에 참여했던 구세대가 연로해짐에 따라 이들의 뒤를 이을 후진양성에 고심하고 있음. 72년 11명의 신진인사 발탁에 이어 76년 11명, 80년 18명이 발탁된 바 있으며 금년 총선에서도 10명 이상의 젊은 인물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
  - Lee 수상은 65세가 되는 1990년까지는 계속 집권할 것으로 보이며, Goph Chock Tong 국방상, Ong Teng Cheong 무임소장관, Tonny Tan 재무상공상이 후계자로 거론

한 · 시에라리온 관계, 1984

| 84-014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7 / 7 / 1~41(41p)

1. 주시에라리온대사는 주재국 사회복지 · 체육장관이 1984.2.8.~19. 동국에서 개최 예정인 범아프리카 축구대회에 사용될 축구공 50개와 골문 네트 4개를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온바 이를 지원해 줄 것을 1984.1.19.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시에라리온 측 요청에 따라 해당 품목을 공여키로 결정

2. 시에라리온 주재 외교단 단장인 라이베리아대사 및 다음순위 쿠바대사가 1984.6월말 귀국함에 따라 3순위인 북한대사 김병기가 외교단장 순위가 됨.

- 주시에라리온대사는 서방 주요국가 대사들로 하여금 외무성에 북한대사를 외교단장으로 수락할 수 없고, 76년에도 북한대사 다음순위 대사가 승계한 사례를 들어 의견 제시하도록 권유한바, 각기 외무성에 의견을 제시
- 84.7.6. 외교단 정기 회합에서 후임문제가 거론된바, 북한대사관 참사관이 본국 훈령에 의거 (교체 예정) 외교단장직 포기의 뜻을 전달해 옴에 따라 다음순위 대사인 이탈리아대사가 신임 단장 승계

해외 우간다 반정부 단체의 대 한국 공관원 접근 시도에 대한 대책, 1982-84

| 84-0147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 / 8 / 1~139(139p)

1. 주케냐대사는 우간다의 반정부 단체들이 케냐 내에 근거지를 두고 각종 반정부 선전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으며, 반정부 단체의 하나인 UDF는 주케냐대사 앞 서한을 통해 우간다 내 북한 군요원의 활동 관련 대책협의를 위해 면담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을 1983.7.12.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케냐대사는 우간다 내 반정부 조직인 UDRU가 우리측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에서 UDRU 관계 요원이 1984.4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방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1984.7.5. 외무부에 요청함.

❋ 내무부는 UDRU 요원의 체한 행적을 조사한 기록이 없음을 84.9.21. 외무부에 통보

3. 주우간다대사관은 우간다 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NRM(National Resistence Movement)과 한국 공관이 접촉한다는 북한의 모함에 대한 보고를 외무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외무부는 1984.10.4. 주케냐 및 주파키스탄대사관에 동지 소재 우간다 반정부 단체의 접근에 일체 응하지 말고, 서한 우송 시는 반송 조치할 것을 지시함.

4. 주스웨덴대사는 북구 우간다인권협회 회장이 1984.10.6. 우간다인 15명 및 스웨덴인 10명과 함께 스톡홀름 시내에서 자국의 오보테 정권 반대 및 북한 규탄 시위를 하고, 10.18. 공관을 방문 공동 관심사 협의를 희망한바, 이와 관련된 본부 입장을 시달해 줄 것을 10.10. 외무부에 요청함.

5.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장에게 우간다 국외 일부 반정부단체들이 한국의 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서한을 송부하거나 면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한국 정부의 타국 내정 불간섭 입장 및 우간다 정부와의 미묘한 관계를 감안, 이와 같은 단체들의 접근에 일체 응하지 말 것을 1984.10.11. 지시함.

❋ 또한, 외무부는 우간다 정부가 84.8월 한국 상사주재원 출국, 기술 훈련생 파한 중지 조치 등에 이어 한국 일부 언론의 북한군 훈련 우간다 정부군의 지방민 대량 학살설 보도(외신 인용)를 이유로 9.22. 강석홍 주우간다대사의 출국 조치를 취했는바, 이는 군사협력을 통해 우간다와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는 북한의 배후 책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을 통보

미국 의회 청문회, 1984

| 84-01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7 / 9 / 1~67(67p)

본 문건은 한반도 관련 문제, 대만(구 자유중국) 민주화 및 미 · 중국(구 중공) 관계 등에 대한 미 상 · 하원 청문회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남북한 대화에 관한 미 하원 외무위 아 · 태소위 청문회(1984.3.20.)

❁ Solarz 소위원장 개회사

-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국(구 중공)이나 소련의 분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 억제를 위해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
- 최근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석을 허용코자 한 종래의 평양 입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의 제의가 랑군 만행으로부터 세계의 관심을 오도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지 판단할 필요

❁ Gleysteen 전 주한 미국대사 증언

- 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안전함을 느낄 때 가능하며 상호 균형감군과 남북한 접촉, 남북한 간 평화약속 파기 시 미군의 재투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
- 남한을 제외하는 어떠한 약정에도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며, 3자회담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며, 남한은 카터의 3자회담에 부정적이었는바 동 회담이 미군철수를 위한 거래였다고 느끼고 있음을 언급

2. 한반도문제에 관한 미 상원 외교위 동아 · 태소위 청문회(1984.5.17.)

❁ Wolfowitz 국무성 동아 · 태 차관보 증언

- 미 · 중 양국은 한반도문제 전망과 해결에 대해 다소 상이한 견해이지만 긴장 완화,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공통이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
- 중국은 북한의 3자회담을 지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 회담과 남북한 희망 시 4자회담을 지지하며, 그러나 중국측은 현재로서는 공식적 대화에 참가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시사

3. 대만에 관한 미 하원 외무위 아 · 태소위 청문회(1984.5.31.)

❁ Ties 교수

- 미국은 대만이 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이 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임시조치법 개정, 계엄령 해제, 그리고 카오슝 사건 관계자 특별사면 등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으로 발언

❁ Lin 교수

-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장경국이 사망한다면 정치적 혼란을 수반할 것인바, 이의 예방을 위해 대만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4. 미 · 중 관계에 관한 미 하원 외무위 아 · 태소위 및 국제경제정책 · 무역소위의 합동청문회의 한국 관련 부분(1984.6.5.)

❋ Wolfowitz 국무성 동아 · 태 차관보 증언

- (Solarz 의원의 중국이 4자회담을 반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밝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우리는 남북한 대화를 강조한다고 발언
- (Solarz 의원이 랑군 사건에 관해 중국 측이 언급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한 데 대해) 중국은 동 사건 관련 공식 성명을 통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으며, 중국이 북한의 성명과 미얀마(구 버마)의 성명을 나란히 보도한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미국 의회의원의 한국관계 발언 및 주미국 대사 면담보고, 1983-84

| 84-014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7 / 10 / 1~72(72p)

1. 외무부는 Charles Percy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통령의 회한을 1982.4.28. 주미대사에게 송부, 전달할 것을 지시함.

2. 주미대사관은 Zablocki 미하원 외무위원장 서거로 후임 위원장 직을 승계할 것이 확실시되는 Dante Fascell 의원의 정치성향 및 입장 등에 대해 1983.12.15.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Fascell 의원은 동료 민주당계 의원들보다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편이며 외무위원회 내에서 타협과 설득의 명수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강직한 성격의 의원으로 부각
   - 동 의원은 외교정책 면에서는 초당적인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바, 라틴아메리카 전문가이자 반공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그레나다 침공을 강력히 지지하는 등 그 지역에 대한 레이건 행정부 정책을 지지
   - 동 의원의 대한국 관계는 Zablocki 때와 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바, 앞으로 동 의원에 대한 접촉을 강화할 계획

3. 주미대사는 Tony Hall 의원(민주당) 등 26명의 하원의원(민주당 의원 25, 공화 1)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리 대통령 앞 연서 서한을 1984.4.18. 발송했음을 4.24.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정부의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조치 및 제적학생 복교조치 환영
   - 언론기본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폐지 요청
   - 입대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대학생의 강제 군입대 중지 요청
   - 99명의 정치활동 피규제자 완전 해금 요청

4. 외무부는 상기 미 하원의원의 우리 대통령 앞 인권관계 연서에 대하여 주미대사 명의의 회신을 해당 서명 의원에게 발송하되, 동 서한에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발전을 위한 제반 조처 및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현실 및 한 · 미 간 이해와 유대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1984.5.28. 주미대사에 지시함.
   - 외무부는 미 하원의원의 서한은 한국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논의는 한 · 미 관계의 발전에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주미대사는 상기 회신 발송과 함께 가급적 해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 한국이 처한 특수한 현실 및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제고시킬 것을 시달
   - 외무부는 본건 내용을 주미국 각 총영사관에 대하여도 알리고 출신 지역구를 통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주UN 남 · 북한대사 미국 TV 프로그램 출연 문제, 1984

| 84-015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7 / 11 / 1~22(22p)

1. 주유엔대표부는 미국 NBC 뉴스의 프로듀서 겸 기자인 Bill Brown이 1984.6.18. 동 대표부 이시영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해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최근 북한 측 요청으로 북한 대표부를 방문 한시해 대사 등을 만났으며, 이때 북한의 3자회담 제의가 미국 언론에서 제대로 취급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시해의 미국 TV 출연 용의를 표명
- 한시해는 Today News 쇼에 미국인 및 주유엔 한국대사가 함께 나온다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미측 인사로 Kirkpatrick 대사가 참석할 수 있는지 문의
- Brown 기자가 미 국무성에 상기 내용을 설명하고 미 국무성 관리가 Today News 쇼에 동석할 수 있는지 문의한바, 현직 관리로서 곤란하다는 반응을 얻었으므로 전직 주한미대사이며 동 기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Snyder 대사가 출연토록 교섭

2. 상기에 대해 외무부 본부는 주미대사관 및 주유엔대표부의 검토 의견을 반영, 다음과 같은 입장을 수립하고 이를 주유엔대사에게 시달함.

- 문제의 발단이 북한 측 요청으로 Brown 기자의 북한 대표부 방문이 이루어지고, 북한 측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한시해의 TV 출연용의 표명에서 비롯된 점은 북한이 미국 선거를 앞두고 미국 언론을 이용, 한국문제의 주요 이슈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
- 따라서 동 TV 쇼가 3자회견(한시해 · 미국인 · 한국대사)이든지, 양자회견(북한 · 미국)이든지 간에 이를 저지하도록 조치
  - 북한의 저의가 명백하므로 한시해의 TV 쇼 출연은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며, 동 TV 회견은 polemic 한 것으로 북한 선전 외에 하등의 건설적 효과가 없고, 또한 미국이 3자회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오해 야기 우려
  - Snyder 대사에 대하여 우리 입장에 따르도록 협조 요청

3. 미 국무성 Sherman 아 · 태담당 부차관보는 1984.6.20.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주미국 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시해 나갈 것임을 약속함.

4. 미 국무성은 Snyder 대사가 한국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출연치 않을 것이며, Brown 기자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도 알려 주겠다고 1984.6.21. 주미대사관에 통보해 옴.

한 · 미국 정무일반, 1984

| 84-015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7 / 12 / 1~250(250p)

본 문건은 1984년도 한 · 미 정무 일반에 관한 외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간 면담록, 주미 대사관의 미국 정부와의 협의 결과보고, 기타 대미 외교정책 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과의 현안 협의를 위한 면담 요지

❁ 외무부 미주국장-카프란 미 국무성 정책기획실 과장, 던롭 주한미국대사관 참사관 면담(84.3.12.)

-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관련 한국 측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분석과 김정일의 승계전망, 중국(구 중공) · 북한 관계에 관해 의견 교환

❁ 던롭 참사관의 미주국장 면담 시 발언 요지(84.3.23.)

- 아랍연맹 측의 한국의 대이란 무기수출설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대이란 무기 수출국에 대한 단교조치 검토 입장 등 통보
- 미국의 VOA 방송중계소 설치계획, 스리랑카 및 태국과의 설치 협정체결 사실을 설명 (미주국장은 우리의 방송중계 설치 검토를 위해 협정문안 제공을 요청)
- 전 주유엔대표부 파견관의 미국에의 정치적 망명 요청 관련, 동인의 귀국 시 박해 받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문의 (미주국장은 알아보겠다고 언급)

❁ 미주국장과 던롭 참사관 면담(84.4.6.)

- 미 참사관은 USTR 대표, Murkowski 상원의원 등 방한 관련 한국 주요인사 면담 주선 요청한바, 미주국장은 미측 인사 방한에 환영의 뜻 표시
- 미주국장은 대이란 군수물자 수출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저히 조사 중이며, 위반사실 발견 시 엄중 처벌 등 심각하게 검토 중임을 통보

❁ 던롭 참사관의 미주국장 면담 시 발언 요지(84.4.20.)

- 트리니다드토바고(T&T)와의 수교교섭 지원 관련, 동국 외무성은 북한 측도 유사한 요청을 하여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워싱턴 주재 T&T 대사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권유
- 대이란 방산품 수출관련 한국의 입장을 중동제국에 통보한바, 긍정적 반응이 있었음을 전달
- VOA 중계소 설치건 진전 상황을 문의 (미주국장은 협정문안 제시 예정임을 표명)
- 슐츠 국무장관의 5월초 방한 시 월포위츠 국무성 차관보, 아미타지 국방성 차관보 등이 수행 예정임을 설명

❁ 미주국장과 던롭 참사관 면담(84.5.22.)

- 윅크 VOA 처장 방한을 설명하면서 VOA 중계소 설치원칙에 관해 문서화한 양해각서 서명을 요망
- 이에 대해 미주국장은 설치원칙에 관해 한국 외무장관이 미국대사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관계부처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

❋ 미주국장과 던롭 참사관 면담(84.6.15.)

- 미주국장은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방한 중이며 외무장관 면담 시 대이란 무기 금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음을 알려 주며, 또한 미 · 중국 국방장관회담 시 거론된 방산품목의 대북한 이전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되어야 함을 강조
- 미 참사관은 동건 관련 중국으로부터 제3국 이전 금지에 대해 확약을 받은 바 있고, 주한미군에 위협이 될 대북한 무기이전에 미국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언급

2. 외무장관은 1984.8.31. 주한 미국대사 면담 시 한 · 캐나다 TFC(Tandem Fuel Cycle) 공동연구 관련, 동 연구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현 상황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통보하고, 대통령 방일 시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와 일왕 주최 공식만찬 시 과거사에 대한 일측의 표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함.

❋ 외무장관은 이라크 청년 체육상의 양국 간 대사급 수교 요청 사실을 알렸는바, 주한 미국대사는 이라크 외무차관이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주이라크 미국대사의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

3. 주한 미국대사는 1984.10.16. 외무장관 면담 시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 등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관계 조치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도 동 제의를 수락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미국은 남북한 간의 접촉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또한, 동 대사는 VOA 실무조사단의 10월중 방한 접수를 요청하는 한편, 미 국무성 한국과장, 아브라모위츠 대사, 더윈스키 자문관, 슈나이더 안보담당 차관 등 미측 인사의 방한이 이어질 것임을 설명함.

❋ 유엔 총회 참석 후 10.15. 귀국한 외무장관은 뉴욕 방문 중 슐츠 장관과의 회동, 아세안 외상회담 및 77그룹 외상회의 참석 등에 관해서도 설명

한 · 우루과이 정무일반, 1983-84

| 84-015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7 / 13 / 1~20(20p)

주우루과이대사는 한 · 우루과이 정무 일반에 관하여 주재국 인사들과 면담, 의견을 교환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ranco 육군 총사령관 예방(84.4.2.)

- 대사는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기만적인 평화 공세를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을 설명
- Aranco 총사령관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고 양국간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를 제압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2. Maeso 외상 및 Vignali 외무차관 면담(84.4.4.)

- 대사는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및 남북한 단일팀 구성 거론 등 일련의 위장평화 공세 저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바, 주재국 외상 및 외무차관은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 표시와 함께 확고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재다짐
- 특히, Maeso 외상은 한국의 입장을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동반자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

3. Alvarez 외무성 정무국장과의 업무 만찬(84.11.22.)

- 대사는 한 · 우루과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착실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음에 사의를 표한 후, 최근 남북한 간의 경제, 적십자 및 체육회담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남북한의 접촉에 대한 북한의 진의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루과이의 민정이양을 앞두고 주재국 외무성 당국이 가볍게 정세평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Alvarez 정무국장은 한국 측 우려에 동감을 표시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경제,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동인은 85.3.1. 이후의 신정부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중국(구 중공)을 승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

4. Sanguinetti 대통령 당선자 예방(84.12.11.)

- 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Sanguinetti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별한 축하를 재전달하고, 한 · 우루과이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 협조와 남북한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지지와 적절한 기회에 방한할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동 대통령 당선자는 주재국의 민정복귀는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자신의 5년 재임기간 중 양국관계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제의하면서, 또한 73년에 방한한 바 있어 한국문제를 잘 알고 자신은 한국의 친구라고 하면서 재임 중 방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한 · 자이르 정무일반, 1984

| 84-015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 / 14 / 1~17(17p)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주재국 주요 요인과 면담, 한 · 콩고민주공화국 정무 일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Umba 외상 면담(84.1.10.)

- Umba 외상은 모부투 대통령의 1.12. 한국 대사 접견과 관련되어 사전 협의를 위해 초치했음을 설명
- 동 외상은 주재국의 대북한 관계가 한국과의 우호관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호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호혜원칙에 입각한 우호협력관계 발전이 북한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한국 대사는 외상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우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2. 모부투 대통령 면담(84.1.12.)

- 대사는 한국 정부가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수상과 외상의 방한 실현을 요망함. 또한 랑군 사건, KAL기 피격사건 등 한국의 어려운 시기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하고 격려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다시는 만행을 감행치 않도록 주재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망
- 모부투 대통령은 랑군 사건으로 인해 한국 대통령이 받은 충격에 위로를 표하고 북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1000km의 철도 부설을 제의하여 왔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동 대통령은 북한이 3자회담을 제의하고 미국은 4자회담을 제의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바, 이에 대해 한국 대사는 외무부에서 시달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랑군 사건을 감행하고도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보아 북한의 3자회담 저의를 간파할 수 있다고 설명
- 동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선진개발도상국과의 각 분야에 걸친 협력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개발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개최되는 제1차 양국 합동위원회에서의 성과를 기대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북한이 터무니없는 원조 제의를 거듭하는 등 북한 지위 향상에 혈안이 되어 있고, 주재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성의 있는 경제협력을 요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1차 합동위원회의 성공적 개최가 긴요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 관련 한국 민간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외무부에 건의

3. 신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의 Kasongo 국회의장 예방(84.11.9.)

- Kasongo 의장은 신임 대사 부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국회 간 협력관계가 특히 IPU 회의(서울 총회 및 제네바 총회)를 계기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
- 또한, 동 의장은 한반도 문제가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한 당사자 간 직접대화에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정해융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장, 1984

| 84-015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7 / 15 / 1~43(43p)

1984년 중 주과테말라대사 및 공관원의 겸임국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장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정해융 주과테말라대사의 온두라스 출장(5.1.~4.)

- 정 대사는 5.3. 외무차관 면담 시 북한 제의 3자회담 및 남북체육회담 등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를 설명한바, 동 차관은 좌경 또는 공산주의 국가의 위장정책인 상투적 수법이라고 평가
  - 또한, 정 대사는 ICAO 특별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 무상원조(마이크로버스 및 픽업트럭) 통보 및 명예총영사 동의 요청 공한 전달 등 업무를 수행
- 5.3. 신임 노동장관 면담 시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관해 설명하고 동 장관의 비동맹 개발도상국 노동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파악
- 5.4. J.D. Negroponte 주온두라스 미국대사를 방문, 온두라스 정세 특히 갑작스런 군부 내 권력 개편에 관해 의견을 교환
- 5.4. 나카소네 주온두라스 일본대사(나카소네 수상의 조카)는 정 대사 면담 시 온두라스 군권력층 개편은 정치적 야심이 큰 대통령비서실장이 실권자인 군사령관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표시, 집권여당의 차기 대통령후보로 나서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파악된다고 언급

2. 조용하 주과테말라대사관 참사관의 겸임국 출장(9.10.~14.)

- 출장 목적
  - 제3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정치, 경제 정세 파악
  - 88 서울올림픽 홍보
- 온두라스(9.10.~12.), 엘살바도르(9.13.~14.) 출장 중 외무성 고문, 정무국장, 국제기구과장 등 면담, 훈령 사항을 교섭

3. 정해융 주과테말라대사의 온두라스(11.25.~28.) 및 엘살바도르(11.28.~29.) 출장

- 온두라스의 대통령, 외상, 내무상, 외무차관 면담 및 엘살바도르 외상, 정무차관보 등 면담하고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해 사의 표명
  - 온두라스 Cordova 대통령은 한국의 차량 원조에 사의를 표명
  - 엘살바도르 외상은 한국의 앰뷸런스 등 무상원조에 사의를 표명

❁ 겸임국 정세

- 온두라스는 85.11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여야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후보자가 없어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문제 대두, 정국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있으며, 미국의 온두라스 영구 군사기지 확보에 대해 온두라스는 더 많은 경제원조 획득을 위해 명확한 태도를 유보
- 엘살바도르 정부와 좌익 게릴라 간 2차 평화협상에 대해 우익세력이 계속 반대하므로, 미국은 Duarte 정권의 국내입지 강화를 위해 군사, 경제 원조를 증액할 것으로 전망

함영훈 주뉴질랜드대사 겸임국 서사모아 출장, 1983-84

| 84-015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7 / 16 / 1~65(65p)

1. 함영훈 주뉴질랜드대사는 1983.5.5.~11. 겸임국인 서사모아에 출장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장 목적

- 82.12월 구성된 신정부의 요인들과의 유대관계 구축
- 신정부의 국내외 정책 파악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 유도
- 북한 침투 저지 당부

❁ 주요 인사 면담

- Malietoa 국가원수, 수상대리, 외상, 농업상, 외무차관보 등 인사를 예방, 면담
- 면담 인사들은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희망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한국 입장 지지를 시사
- 특히, 외상은 항만건설을 위한 한국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재정상 어려움을 알려주고 대신 무상 대외기술훈련 계획을 설명
- 농업상은 한국 참치어선에 2~3명의 서사모아 훈련생을 승선시켜 현장 훈련하는 방안을 제기한바, 이에 대해 의사소통 등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본국 건의를 약속

❁ 정세 평가

-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나 최빈국으로서 경제건설의 큰 과제에 당면, 해외원조 획득이 외교의 최우선 목표
- 대한반도 정책은 친한 관계를 기조로 하는 현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
- 북한과는 형식상 외교관계는 수립하였으나 대사 접수는 유보하는 현재의 방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2. 함영훈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3.7.~14. 이임 인사차 겸임국인 서사모아에 출장하였는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원수 및 수상에 대한 이임인사와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서사모아 정부의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명

❁ 수상은 랑군 사건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단교결정은 북한의 소행을 독립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고 한국의 친구로서 취한 조치라고 언급

❁ 농업장관은 원목합작 외에 어업합작도 희망하고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순시선 1척의 공여를 희망

❁ 내각실장 겸 외무차관은 방한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연내 방한을 희망

장선섭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출장, 1984

| 84-01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7 / 17 / 1~90(90p)

1. 장선섭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3.7.~10. 겸임국인 앤티가 바부다 및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출장하여 양국의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수상, 외상 등 주요 인사를 예방 면담함.

❁ 요인 접촉

- 앤티가 바부다: 총독, 수상, 외상, 무임소장관, 미국 대사대리
-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독, 수상, 법무상

❁ 협의 내용

-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촉구
- 북한의 3자회담 제의 허구성 폭로
- 한국 원조의 효율적 제공 방안

❁ 관찰 및 건의

-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경우 금년 중 선거 실시 예정인바, 한국의 원조가 여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품목 및 시기 고려를 요망
- 앤티가 바부다의 경우도 금년 6월 이전에 선거 실시 예상, 청소차 중심 원조 제공 긴요
- 가이아나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앤티가 바부다의 외상 및 무임소장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북한 동태 계속 주시 필요

2.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은 겸임국 정부 요청에 의거 다음 품목을 지원해 줄 것을 1984.3.14. 및 3.20. 외무부에 건의함.

❁ 앤티가 바부다

- 중형 물탱크 트럭, 중소형 불도저, 쓰레기 수거차 및 수거 용기, 의전차량 1대

❁ 세인트키츠 네비스

- 불도저, 트랙터, 트럭 등 17대 차량과 냉동고 등

3. 주바베이도스대사는 신임장 제정차 1984.3.14.~16. 겸임국인 세인트빈센트에 출장함.

❁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수상, 외상, 외무차관 등 요인을 예방

- 대북 대응조치에는 미온적 반응을 표시
- 무상원조(트럭 4대)에 사의 표명하면서, 동일 트럭 6대를 추가 지원 요청

4. 1984.4.9. 자메이카를 방문 중인 그레나다 총무처 장관은 한국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관계를 재개키로 결정하였다고 자메이카 주재 한국대사에 통보함.

❁ 그레나다 외무성은 84.4.16.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

5. 주바베이도스대사는 겸임국 신임장 제정 차 1984.5월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 연방에 출장함.

❁ 수상, 외상 등 방문국 주요 인사를 예방, 면담하고 겸임국 국내 정세, 대북한 대응문제, 북한의 침투 동향 등을 파악하고, 겸임국에서 요청하는 한국의 무상원조에 대해 협의

강석재 주케냐대사 겸임국 출장, 1983-84

| 84-015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 / 19 / 1~137(137p)

강석재 주케냐대사의 겸임국 활동, 비동맹 및 유엔총회 관련 교섭 등을 위한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모리셔스 출장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스와질란드 및 보츠와나 출장(83.2.7.~13.)

❁ 스와질란드

- 수상은 한국의 남북대화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만큼, 뉴델리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의 비생산적 한국문제 제기 책동을 봉쇄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
- 외상은 쌍무적 문제의 국제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국문제 불토의 및 미포함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외교관 연수 및 무상원조 제공에 사의를 표명
- 외무성 차관보는 북한의 스와질란드 입국 책동은 1년 전부터 완전 두절된 상태라고 언급

❁ 보츠와나

- 외상은 금차 뉴델리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의 한국문제 제기 책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입장 지지발언을 확약하고, 마시레 대통령의 방한을 계속 권고 의향 표명
- 방한한 바 있는 경찰 총감은 경찰에 대한 태권도 보급을 위해 사범과 축구 코치 파견을 요청

2. 모리셔스 출장(84.1.30.~2.1.)

❁ 총독, 수상, 외상, 재무상, 외무차관 등 요인을 예방, 면담

❁ 수상은 랑군 사건 관련 대북한 대응조치에 대해 북한대사는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북한 소행임이 확실히 드러날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수상과 부수상은 한국 투자사절단의 조속한 파견 실현, 인도양 도서국 경기 실황중계를 위한 방송장비 지원 등을 요청

3. 스와질란드 출장(84.6.17.~22.)

❁ 왕후를 알현하고 무상원조(차량 16대) 기증식 거행

❁ 스와질란드 측은 한국의 기술 연수기회(외교관 연수 등)가 계속 부여되기를 희망

❁ 내무차관은 Maputo 방문 시 한국의 모잠비크와의 수교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약속

❁ 코트라 철수 재고를 건의

호주 · 중공 관계, 1984

| 84-015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동남아과
MF번호	2014-7 / 20 / 1~104(104p)

Hawke 호주 수상의 방한 시 개최된 한 · 호주 총리회담 요지, 호주 · 중국(구 중공) 정상회담 중 한반도 관련 부분에 대한 호주 측 설명은 다음과 같음.

1. 한 · 호주 총리회담(84.2.6.)

❋ 국무총리는 KAL기 사건, 랑군 사건 시 호주 정부의 신속한 지지에 사의 표시하고 83.12월 수상의 전 대통령 앞 친서로 대북관계 동결을 재확인해 준 데 사의를 표명

- 북한 제의 3자회담의 배경과 저의, 한국의 긴장완화와 통일 방안을 설명하고, 수상의 중국 방문 시 한국의 평화통일 의지 전달을 요청

❋ Hawke 수상은 북한의 테러행위로 불행을 당한 데 대해 호주 국민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동 수상은 한국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 성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방문 시 한국 입장의 전달의사를 표명

2. 호주 · 중국 정상회담 중 한반도 관련 내용

❋ 호주 수상 발언 요지

- 북한의 랑군 사건 자행은 많은 국가를 당혹케 하였으며 호주 · 북한의 국교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 호주와 중국은 남북한 직접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
- 한국은 3자회담을 반대하며, 중국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희망

❋ 조자양 수상 발언 요지

- 북한은 남침 의도가 없으며, 중국은 북한의 남침 및 남한의 북침을 모두 반대
- 3자회담이 공평한 방안으로 관계국이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국은 측면지원 가능
- 한반도에서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며 남북한 현 체제 유지하에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하는 것이 교차승인보다 현실적

3. 한반도문제 관련 중국의 태도에 대한 호주 측 견해(84.2.23. 주한호주 대사대리의 아주국장 면담 시 표명)

❋ 중국은 진의종 국무총리의 3자회담 관련 대북 서한을 책임 있고 온건한 회답으로 평가

❋ 중국은 북한과 어려운 우호관계를 유지 중이며,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서서히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과도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코자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

❋ 중국 참여 4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바, 성공 전망이 없는 회담 참여는 한국과의 관계 등을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주저하는 입장

조자양(趙紫陽) 중공 수상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984.1.8-23

| 84-015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북미과
MF번호	2014-7 / 21 / 1~229(229p)

본 문건은 조자양 중국(구 중공) 수상의 미국 방문(84.1.8.~16.) 및 캐나다 방문(84.1.16.~23.) 시 협의 내용 등에 관한 것임.

1. 방미 중 주요 협의 내용

❁ 국제정세 등

- 국제정세 관련 중국은 제3세계(한국, 중동, 중남미 등)에서 미국과 외교정책의 차이를 지적, 미국과의 포괄적 반소 안보협력체제 설정 불가를 표명
- 중국은 대만(구 자유중국)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미 · 중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 줄 것임을 역설

❁ 미 · 중 양국관계

- 중국은 대서방 경제문호를 폐쇄하지 않을 방침과 핵 비확산 방침을 표명
- 기술이전 문제 관련 상세 미확인이나 미국은 43개 기술품목 판매를 이미 인가
- 군수물자(Tow, Hawk 미사일 등) 판매, 군 상호교환 방문, 요원훈련문제, 중국 국방상 방미문제를 협의하고, 산업기술 협력협정 및 과학기술 협정 재연장에 합의 서명

❁ 한반도 긴장완화와 한국문제 해결에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2. 캐나다 방문 결과

❁ 트뤼도 수상의 동서화해 외교 이니셔티브를 지지

❁ 양국 투자보장 협정, 기술협력 협정 및 전기통신, 통신위성 관계 장비 구입계약 체결, 대캐나다 투자(펄프, 제지, 목재 등 분야) 등을 협의하고 캐나다 · 중국 양국 간 문화, 기술협력 확대에 합의

❁ 한국관계 협의 내용

- 트뤼도 수상은 랑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 한반도의 안정 필요성을 지적
- 조자양 수상은 북한의 군사력 유지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인식, 긴장완화를 희망하는 관점에서 3자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랑군 사건은 전모를 파악치 못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테러행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트뤼도 수상은 북한의 제안이 시기 면에서 진지함이 결여됨을 지적
- 캐나다 · 중국 양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성에 동감

일본 · 중공 관계, 1984

| 84-01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4-7 / 22 / 1~103(103p)

본 문건은 일본과 중국(구 중공) 간 정무 · 경제 · 통상 등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전문 보고 및 일 · 중 간 협의 시 논의된 한반도 관련 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일 · 중 경제관계 현황(84.3.26. 주일본대사관 보고)

- 경제협력 관계
  - 엔차관: 79~83년간 6개 프로젝트에 총 3,000억 엔 공여(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 무상원조: 79~83년간 중일 우호병원 건설(164.3억 엔) 등 165.8억 엔
  - 수은 자원개발 융자: 80~84년간 일본 수출입은행이 중국은행에 4,200억 엔 공여
- 기술협력
  - 82년 말 누계로 연수생 접수 1,197명, 전문가 파견 800명
  - 공장근대화 계획, 자원개발 조사 등 프로젝트 협력
- 무역은 72년 11억 달러에서 81년 104억 달러에 달함
- 일본의 대중투자는 83.3월 현재 22건 7,000만 달러

2. 일 · 중 군사교류(84.4.17. 일본 외무성 중국과장 언급)

- 일 · 중 군사교류 문제는 중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간 양국 간 방위관계 인사 교류의 저조는 자민당 내 대만파 의원들의 로비가 강했기 때문
- 일본의 군 관계인사의 교류확대는 양국 간 모든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뜻도 있으나 이 지역의 강대국인 중국의 군사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판단

3. 호요방 중국 총서기의 한반도관련 언급(방중인 미야자와 자민당 의원과의 84.7.4. 회담 시)

- 최근 방북 시 김일성은 지금부터 북한이 대립을 중지하고 화해를 위해 일할 때라고 말하는 등 김일성이 남북한 화해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감지
- 그간 2차에 걸친 평양 방문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북한의 정치정세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금후 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발전 불가

4. 일 · 중 외상회담 시 한반도관계 언급 내용(84.8.17. 도쿄)

- 아베 외상
  - 84.9월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본은 이번 방일로 양국관계가 일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일본은 한일관계의 안정이 제3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동북아와 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 오학겸 외상

- 김일성 주석은 그간 누차에 걸쳐 남침 의도가 없음과 남북접촉을 통해 평화통일 추진할 뜻을 표명
- 남북한의 장기분단으로 상호 접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하나 북한의 희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이번 전 대통령의 방일시 남북한 간의 화해에 불리한 언동으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되며 남북대화를 저해하지 않기를 희망

중공 · 소련 관계, 1984-85

| 84-016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동구과
MF번호	2014-7 / 23 / 1~181(181p)

1. 1960년대 이념대립과 국경충돌로 악화된 중국(구 중공) · 소련 관계는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으며 1982.3월 브레즈네프의 '타시켄트' 제안 이래 관계정상화를 위한 부외상 회담(82.10., 83.3., 83.10., 84.3.) 등을 통해 공식대화를 유지해 옴.

2. 중국은 양국관계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3개항(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국경주둔 소련군 감축 및 극동배치 미사일의 감축,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지원 중단)을 제시한 데 대해 소련은 캄보디아 등 문제는 제3국 문제이며, 양국 간 상호 신뢰회복 조치(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비핵지대 설정, 국경주둔군의 상호방문과 현수준 동결, 양국간 직통전화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양국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함.

❋ 그러나 양국 간 농업, 과학기술 전문가 교류재개, 국경무역재개, 유학생 교환 등 비정치 분야의 협력은 증대되고 양국 간 교역도 증가추세

3. 1984.10.18.~11.2. 북경에서 개최된 부외상 회담에서도 중국은 3개항의 조건 토의 선행을 되풀이하고, 소련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역, 문화 등 비정치 분야 교류증진을 주장한바, 채택된 공동성명은 양국의 관계개선 희망을 표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체육 분야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확대 의사를 표명함.

❋ 제6차 회담은 85.4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키로 합의

4. 아르히포프 소련 제1부수상이 1984.12.21.~29. 중국을 방문, 조자양 수상을 비롯한 중국 정부 요인과 회담한바, 이는 1969년 코시긴 수상의 방중 이후 최초의 고위층 방문임. 동 방문 중 양국은 3개의 경제협력 협정 체결 및 공동 경제위원회 설치 · 운영에 합의했으며, 86~90년간 장기무역협정을 85년 중 체결키로 함. 소련은 중국 부총리의 방소를 초청함.

❋ 양국은 소련 부수상의 중국 방문에 앞서 상호 비난 자제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있으며, 이번 소련 부수상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

미국 · 중공 관계, 1984

| 84-01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2과
MF번호	2014-7 / 24 / 1~141(141p)

본 문건은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에 대해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주미대사관의 전문 보고, 언론 보도 및 기타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미 · 중 핵협력 문제(84.1월 외무부 미주국 작성 자료)

- 중국은 64.10월 핵실험 이후 26회의 핵실험과 핵무기운반용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잠수함, 폭격기를 개발해오고 있으며, IAEA 가입 회피와 PTBT, NPT 등을 거부
- 조자양 수상의 방미 시 핵확산에 관여치 않고 타국의 핵무기 개발을 돕지 않겠다는 언명을 기초로 양국 간 핵협력협정 체결이 추진
- 미 · 중 간의 핵협력이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책
  - 미국은 소련을 동북아 안보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인식, 대소 견제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동북아 안보의 전제조건인 한반도 안보의 1차적인 위협 세력은 북한이라 간주
  - 미 · 중 간의 핵협력에 따라 중국으로 이전된 핵기술 및 시설이 북한에 재이전 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켜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중국으로 이전된 핵기술 및 시설이 북한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사전에 취해져야 한다는 한국 입장이 미측에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2. 미 · 중 관계에 관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84.5.17.)

-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의 청문회 증언 요지
  - 레이건 대통령의 중국 고위지도자들과의 회담 시, 대만(구 자유중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미측 입장을 분명히 표명
  - 중국의 근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관계 증대기반이 조성되었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교류협정 및 과학기술정보교류협정의 서명과 핵기술협력 협정의 가서명은 큰 성과
  - 특히 핵기술협력협정 관련, 미국은 원자력협정 및 기타 국내 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고,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조자양 수상의 보장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중요

3. 미국은 1984.5.30. 상해 및 광동에 이어 심양에 3번째의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향후 우한, 청도에도 총영사관을 개설할 계획이며, 중국은 이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휴스턴에 총영사관을 개설함.

4. 1983.9월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으로 장애평 중국 국방부장이 1984.6.9.~27. 방미하였는바, 미 · 중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전차 미사일 및 대구경 포탄 등 방어용 무기의 중국 내 생산에 합의
- 중국이 제의한 대공 레이다 시스템은 금후 협의를 계속
- 중국 측이 제의한 F-8기 개조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합의
- 소련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에 동의
- 레이건 대통령의 PRESIDENTIAL ORDER가 84.6.12. 발표되어 대중국 무기판매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완료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중공 방문, 1984.4.26-5.1. 전2권. V.1 기본문서

| 84-016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2과
MF번호	2014-8 / 1 / 1~311(311p)

1. 주미대사는 1984.4.16. 미 국무성 동아태국 William Brown 부차관보로부터 레이건 대통령의 4.26.~5.1. 중국(구 중공) 방문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청취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미 · 중 양국관계

- 가장 큰 이슈의 하나는 중국의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문제
- 이번 방문 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레이건 대통령과 조자양 수상 간에 서명될 것이며, 투자보장협정은 의미 있는 진전은 있으나 서명까지는 불가
- 미국의 대중국 투자 관련, 중국은 공산국가 지원불가의 예외적인 대우를 요청하고 있으나 양국 간 이견
- 또 하나의 현안 중 큰 문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문제인바, 미국 제공 핵연료의 보관, 관리, 재처리 문제 등과 관련 이견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 방문 시 합의 도달은 불가능
- 양국 간 군사협력문제는 매우 민감한 분야로서 전략상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도 기술 이전에는 미국 측의 한계가 존재

❁ 국제문제

-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목표를 같이하고 있으나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을 중국이 단순히 반복 지지한다면 별다른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대대만(구 자유중국) 무기판매 관련 중국 측이 불평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 정책을 계속 유지
- 기타 아프가니스탄, 캄푸치아문제, 베트남문제, 소련의 위협증대 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가 협의 예상

2. 슐츠 미 국무장관은 1984.5.1. 서울에서 개최된 한 · 미 외상회담 시 이원경 외무장관에게 레이건 대통령의 방중 시 한반도문제 논의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레이건과 조자양 수상 회담(4.27.)

- 레이건 대통령의 남북한 당사자 간 직접대화 지지 및 4자회담 선호입장 표명에 대해 조자양 수상은 북한의 3자회담 지지를 표명

❁ 레이건과 호요방 당총서기 회담(4.27.)

- 호요방 총서기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주한 미군철수를 요구한 데 대해 레이건 대통령은 랑군 암살폭파사건 및 6.25 남침 등 북한의 대남도발을 지적, 미군철수 의사 없음을 천명하고 이에 호요방 총서기는 미군의 즉각 철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 레이건 대통령이 북한은 군사력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음을 지적한 데 대해 호요방 총서기는 남북한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 레이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실현 가능성 있는 조치 모색을 촉구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및 남북한 이산가족의 결합 등)
- 양측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중요성에 의견 일치

❁ 미 · 중 외상회담(4.28.)

- 오학겸 외상은 북한이 3자회담 제의와 관련, 회담형식 등에 관해 융통성을 갖고 있으며, 3자회담 문제에 대해 미측과 비밀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구두 전달
- 슐츠 장관은 남북한 양자회담 또는 4자회담 선호 입장을 강조하고, 미 · 북한 간 비밀 접촉 의사 없음을 확언
- 슐츠 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제1단계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제2단계 스포츠 교류(남북한 체육회담 성공 노력 등), 제3단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및 참관 등)를 언급
- 슐츠 장관은 랑군 사건에 관한 깊은 충격을 재차 표명하고 북한의 사과 가능성을 타진한바, 오학겸 외상은 랑군 사건은 과거지사라는 태도를 표명
- 오학겸 외상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중국 참가 방침을 천명하고, 90년 북경에서 대회가 개최될 경우 한국 참가를 환영한다고 언급

3. 일본 외무성(중국과장)은 레이건 미 대통령의 방중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일측 평가와 관련, 1984.5.8. 주일본대사관에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레이건 대통령의 방중은 회담 내용보다는 방문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

- 이번 방중이 미중관계에 특별한 진전을 가져왔다고는 보지 않으나 레이건 대통령이 미중관계를 성숙단계라고 평가한 데 대해 등소평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며 겨우 새싹이 나오는 단계라고 응수한 사실은 방중 성과를 반영

❁ 한반도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당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미중 양국이 한국 및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관측

- 미국이 한반도 긴장완화책으로 제시한 3가지 제안은 구체적 성과가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는 의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만큼 신선한 제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4. 본 문건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전문 보고, 언론 보도, 미 국무성의 브리핑, 미 대통령의 연설문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중공 방문, 1984.4.26-5.1. 전2권. V.2 신문기사

| 84-016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2과
MF번호	2014-8 / 2 / 1~126(126p)

1. 본 문건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1984.4.26.~5.1. 중국(구 중공) 방문에 관한 한국의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일간신문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 일간지 및 대만 일간지의 보도, 논평 기사의 스크랩으로 구성됨.

2. 한국 일간지 보도기사의 주요 제목은 다음과 같음.

- 한국과의 민간교류 중공에서 확대희망(4.18. 중앙일보, 미국 일간지 인용 보도)
- 한반도문제에 변화가 오고 있다(4.23. 이호재 및 정종욱 교수 대담)
- 긴장완화 구체화보다 실마리 찾을 듯(4.25. 한국일보)
- 한반도문제 진전 있을 듯(4.26. 중앙일보)
- 한반도평화 공동노력(4.27.)
- 미 중공문제 전문가들이 내다본 앞으로의 중공(4.27. 한국일보)
- 중공외상 남북한 쌍방 서로 인정, 연방제 긍정평가(4.27. 동아일보)
- 미 · 중공수뇌 한반도 집중 토의(4.27. 동아일보)
- 미국 남북대화 · 4자회담 촉구, 중국 3자회담 · 연방제 고집(4.28. 중앙일보)
- 대소 비난 등 연설문 삭제 방영(4.28. 중앙일보,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방영을 깬 중국 국영TV의 보도에 관한 기사)
- 레이건 중공 방문, 세계의 사설(4.28. 한국일보, 미국과 일본 신문사설 보도기사)
- 명분과 실리의 불균형 소득(4.30. 동아일보, 레이건 대통령 방중에 대한 각국 시각 분석기사)
- 미 · 중공 핵협력 등 3개 협정 조인(4.30. 동아, 중앙일보)

3. 미국 언론 보도 중 주요 제목은 다음과 같음.

- Prospects for Korean stability(4.25. Christian Science Monitor)
- Chinese Con session Permits US Accord on Atom Power(4.27. New York Times)
- US and China Set Cooperation Pact on Nuclear Pact(4.27. Wall Street Journal)
- Chinese Rebuff Reagan, Stress Nonalignment(4.28. Washington Post)
- Reagan and Zhao reportedly clash on Foreign Policy(4.28. NYT)
- Nuclear Reactors for China(4.28. WP)
- The China Challenge– Trade with US(4.30. CSM)
- Fruits of Trip(5.1. NYT)
- Feeling of Relief is seen in Moscow(5.1. NYT)

오학겸(吳學謙) 중공 외교부장 중남미 순방, 1984.8.[4-15]

| 84-016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8 / 3 / 1~14(14p)

오학겸 중국(구 중공) 외상의 1984.8.4.~15.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순방 활동에 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베네수엘라 방문(8.4.~7.)

- ❁ 베네수엘라 대통령, 상 · 하원 의장, 여 · 야당 총재 등을 예방하고 외상회담과 에너지 장관대리 면담 등 일정 수행
- ❁ 베네수엘라 대통령 예방
  - 방중 초청장 전달하고 미곡생산, 어업협력, 석유협력 등 경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 외상회담
  - 콘타도라 그룹의 입장(외세개입 배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중미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표명
  -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베네수엘라 외상의 방중을 초청
- ❁ 석유장관 대리 면담
  - 국제 석유시장, 양국 석유생산 현황, 외국기업에 대한 석유채굴권 양허 등에 관한 의견 교환과 석유분야의 협력 증진에 합의
- ❁ 오 외상은 기자회견 중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중국입장 질문에 대해 남북한이 각자의 정치적 체제 · 이념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주장하는 북한 입장의 지지를 표명

2. 아르헨티나 방문(8.8.~11.)

- ❁ 아르헨티나 대통령 예방, 외상회담, 중국의 대외정책 연설 등의 일정 수행
- ❁ 양국 간 문화협정 서명, 중국의 남극탐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협조 요청, 말비나스 분쟁 관련 아르헨티나 입장 지지, 소련의 팽창주의 비난,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비난, 남남협력 등을 강조

3. 브라질 방문(8.11.~15.)

- ❁ 브라질 대통령, 상 · 하원 의장, 대법원장 예방, 외상회담, 광산동력상, 재무상 등 각료와의 면담 일정 수행
- ❁ 원자력 협력협정 가서명
- ❁ 브라질의 대중국 석유 수입을 일당 6만 배럴로 증가시키고, 대신 브라질은 철광석, 철강제품을 추가 수출하는 문제를 협의

조자양(趙紫量) 중공 수상 서구 순방, 1984.5.30-6.16

| 84-016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8 / 4 / 1~40(40p)

조자양 중국(구 중공) 수상은 1984.5.30.~6.16.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유럽을 방문한바, 이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프랑스 방문(5.30.~6.3.) 중 미테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

- ❁ 동서 긴장완화, 군축, 동서 군사균형 유지 등 국제문제와 구주, 베트남, 한반도 정세 등 지역문제를 협의
- ❁ 조자양 수상은 한반도 문제를 거론, 북한 제의 3자회담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북한 입장 지지를 표명
  -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간단히 언급
- ❁ 양자관계에서는 중국 광동 원전건설에 프랑스 기업 참가문제, 통신 · 석탄 액화 프로젝트 및 프랑스산 소맥의 대중국 수출문제를 협의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

2. 벨기에 방문(6.4.~6.) 중 Martens 수상과의 정상회담 내용

- ❁ 조 수상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확고함을 밝히고, 중국과 구주공동체 간 관계강화를 위한 벨기에의 교량역할에 사의 표명하고, 초강대국(소련)의 군사우위 위협에 직면한 유럽이 군사력, 특히 핵 균형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옹호하고 세계안정을 위한 군축협상의 계속을 역설
- ❁ Martens 수상은 유로미사일 관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설명

3. 스웨덴 방문(6.6.~8.) 중 조 수상이 언급한 주요 내용

- ❁ 중국이 대미, 대소 관계에서 소련카드, 미국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중국의 기본정책은 소련, 미국과의 평화공존이라 언급
- ❁ 대미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미국의 실질정책을 주시할 것이라 표명

4. 조 수상은 노르웨이 방문(6.10.~13.) 중 중국 대륙붕 해저 유전개발에 노르웨이 석유공사의 직접참여 방안 강구를 약속하는 한편, 중국경제 현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문호개방과 국제시장경제와의 상호교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5. 조 수상의 이탈리아 방문(6.13.~16.) 중 한반도 관련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ndreotti 외상이 한반도 안정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직결된다고 관심을 표한 데 대해, 조 수상은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절실히 희망한다고 하면서, 최근 김일성의 방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이 독자적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

❁ 조 수상은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이며, 상이한 체제하의 남북한 통일은 연방제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한과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

- Andreotti 외상이 랑군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인 한국이 북한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
- 조 수상은 랑군 사건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이 있어 진상을 잘 모른다면서, 동 사건으로 북한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인도 · 파키스탄 관계, 1984

| 84-016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8 / 5 / 1~46(46p)

1. 1984.1.14.~21. 뉴델리 및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인도 · 파키스탄 합동위 소위 결과(84.1.27. 주인도 대사관 보고)

❋ 제1소위

- 양국 농업연구위원회 간 농업협력 초안 교환
- 상대국으로의 철도여행을 위해 각자의 7개 지정역을 통한 예약 및 기차표 구입
- 양국 일반 보건 및 의학 연구기관 간 전염병 관리 등 분야에서의 협의
- 산업분야 교환 방문, 기술협력, 합작투자 등 진전사항과 합동 기업 위원회 설치 검토
- 기타 해상운송 협력확대와 통신 분야 협력강화 합의

❋ 제2소위

-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Bulk trading 품목 지정 확인, 제3국 무역 중 공동 관심 품목의 시장정보 교환과 수출관심 품목에 대한 기술 협력 합의
-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가공단지 조성과 상대방의 수출가공단지 참여 권장

2. 이선념 중국(구 중공) 주석 파키스탄 방문과 소련 국방상의 인도 방문을 통해 본 최근 인 · 파 관계(84.3.10. 외무부 아주국 분석 자료)

❋ 이선념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84.3.5.~8.)은 역내 평화유지 방안 및 양국 간 경협 관심사 협의를 위한 것인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및 인도차이나 진출과 관련한 대처방안과 우호 협력관계를 재다짐한 것으로 분석

❋ 소련의 군부 내 최고 실권자인 우스티노프 국방상의 인도 방문(84.3.5.~10.)은 소련 · 인도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재천명하고, 소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미국, 파키스탄, 중국의 대소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대인도 군사협력 및 지원을 공약, 인도의 친소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

❋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따른 미국의 대파키스탄 무기제공으로 야기된 인도 · 파키스탄 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82년 이래 3차에 걸쳐 실시된 파키스탄 측 제의 불가침 조약안과 인도 측 제의 평화우호협력 조약안 토의가 84.5월 재개될 예정인바, 이는 강대국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한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으로 평가

❋ 중국과 소련의 고위급 인사가 비슷한 시기에 파키스탄, 인도를 각각 방문한 것은 중 · 소의 지속적 세력권 형성과 인도양 진출을 위한 소련의 대인도 유화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3. Yakub Khan 파키스탄 외상의 84.10.2. 유엔총회 연설 중 인도 · 파키스탄 관계 부분(84.10.4. 주인도 대사관 보고)

- 인도와 파키스탄 간 선린관계 수립은 양국 국민이 국가발전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
- 양국은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 평화와 선린관계를 추구함에 있어 일시적 좌절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
-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며 파키스탄 내 핵무기 배치도 허용치 않을 것
- 파키스탄은 공정하고 명예로운 Jammu와 Kashmire 문제의 타결을 희망

스리랑카의 이스라엘 이익대표부 설치 허가, 1984

| 84-016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8 / 6 / 1~13(13p)

1. 주요르단대사관은 주재국 Masri 외상이 Hameed 스리랑카 외상 앞 서한을 통하여, 스리랑카가 콜롬보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 내에 이스라엘 이익대표부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스리랑카와 아랍 및 요르단과의 기존관계, 이스라엘의 피점령 영토 병합정책 등을 감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스리랑카와 아랍 관계는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1984.6.4.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스리랑카 미국대사관은 84.6.6. 동 대사관 내에 이스라엘 관계 사무section을 설치했다고 스리랑카 주재 한국대사관에 통보해 옴.

-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테러 근절을 위해 미국과 협의 후 취해진 것으로 금후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타밀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보수집 및 테러훈련 등 중요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

3. 주스리랑카대사관은 84.8.1. 주재국의 이스라엘 이익대표부의 개설(84.6.1.) 허가에 따른 아랍제국 반응과 관련하여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 ❁ 이스라엘 이익대표부 개설 직후(6.7.) PLO, 리비아 등 강경국 공관은 스리랑카와 이스라엘 관계 긴밀화에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아랍제국 공관장들의 외상 공동면담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
- ❁ 이스라엘 이익대표부 설치에 따른 불만 및 항의 표시로 스리랑카 주재 리비아, 파키스탄, 이라크, PLO 등 대사들이 각각 본국정부의 소환을 받고 8월중 귀국할 것이라고 언급

4. 주쿠웨이트대사관은 84.10.1. 동지 주재 스리랑카 대사가 자국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팀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외무부는 이스라엘 팀 철수 관련 진전 상황을 보고토록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지시

5.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은 아태지역 방문 후 귀국 도중 84.11.20. 콜롬보에 5시간 기착하면서 자에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짐.

-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주재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타밀 게릴라 작전을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협력(정보요원 지도, 무기 공급)을 통하여 매우 돈독한 상태에 있는바,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단순한 기착 이상의 뜻을 가진 것으로, 양국 대통령 간 오찬에서는 양국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3.23-26. 전2권. V.1 기본문서

| 84-016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4-8 / 7 / 1~286(286p)

1. 이원경 외무장관은 1984.3.2. 한일외교협의회(3.1.~4.)에 참석차 방한한 나카지마 도시지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의 예방을 받고, 나카소네 수상 방중 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한국 입장을 중국측에 설명할 수 있도록 아베 외상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남 · 북 당사자회담의 정당성, 합리성 강조

-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자결 원칙에 합치

❋ 북한의 성실성 입증 필요

- 버마사건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로 대화에 호응한다는 성실성 표시 필요

❋ 3자회담 반대 이유

-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구실로 한 · 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대미 직접 접촉을 노린 위장평화 공세로 판단

❋ 남 · 북 당사자 간 회담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미 · 중국 참가 4자회담 등 관련국 회의도 고려 가능 입장

2. 주한 일본대사관은 나카소네 수상의 1984.3.23. 방중시 일정상 최단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도쿄-서울-산동-천진-북경 항로를 이용코자 하므로 한국 영공의 통과를 지급 허가해 줄 것을 3.19. 외무부에 요청함.

❋ 중국 측은 상기 항로를 금후 선례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특례조치로서 이의 없음을 일측에 통보

❋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항로가 군사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 일측 요청을 수락할 뜻을 비공식 통보

❋ 주한 일본대사관은 3.20. 북한의 의도 불분명으로 비행안전에 대한 확신이 적고, 랑군 사건 전례로 북한 측의 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상 특별기의 한국 영공 통과를 변경키로 결정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신속한 협조에 사의 및 방침변경에 따른 사과의 뜻을 표명

3. 이원경 외무장관은 1984.3.29. 나카지마 도시지로 일본 정부특사를 접견,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3.23.~16. 방중 결과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반도 문제

- 일 · 중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함에 의견 일치
- 일측은 남북한 신뢰감 조성을 위한 남북한 직접 접촉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4자, 6자 회담으로의 확대도 가능함을 표시

- 중국 측은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원칙적 지지 의사를 견지했으나, 당분간 한반도 문제에 거리를 두고 싶다는 자세 표명

❁ 일 · 북한 교류

- 중국 측은 일 · 북한 교류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일 · 북한 의사소통을 위한 역할을 제의한바, 일측은 한 · 일 간의 특수 관계상 일 · 북한 접근이 곤란하며 오히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
- 다만, 일측은 일본인 처의 일본 방문, 억류 일본선원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장래 중국에의 의뢰 가능성을 시사

❁ 일측은 한 · 중국 간 친족 교류가 바람직함을 표시한바, 중국 측은 이는 인도상의 문제로서 중국거주 한인 교포의 방한, 한국거주 친족의 방중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표명

❁ 일측의 한국 개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참가종용에 대해 중국 측은 새로운 장애가 없는 한 아시안게임 참가의사를 표시했으나, 88올림픽에는 언급 회피

4. 이원경 외무장관은 일본 정부특사의 상기 설명에 대해 감사를 표명한 후 중국의 일 · 북한 교류 중개 의사표명과 관련,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과 기본적 관계 개선이 없는 현 상황에 비추어 일본의 계속 자제를 요청하고, 미 · 북한 관계 언급 내용에 대하여도 문의함.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3.23-26. 전2권. V.2 언론보도

| 84-017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4-8 / 8 / 1~149(149p)

본 문건은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1984.3.23.~26. 방중과 관련된 한국 및 일본 언론의 보도기사 내용임.

1. 한국 언론 기사의 주요 제목

- 이산 한국인 중공방문 허용(3.24. 한국일보, 서울신문)
- 한반도 관계국 교류확대 논의(3.25. 조선일보)
- 중공의 일 · 북한 중개역 제의 중시(3.26. 경향신문)
- 남북한 교차 교류대비 다각대책 검토(3.26. 동아일보, 3.27. 한국일보)
- 중공의 한반도 정책 '교차교류'로 표면화(3.26. 중앙일보)
- 한반도 전쟁억지에 의견 일치(3.26. 중앙일보, 동아일보)
- 한반도 주변에 새기류 예고(3.27. 조선일보)

2. 일본 언론 기사의 주요 제목

- 대중 엔 차관 대상은 7개 사업, 총액은 4,000~4,500억 엔(2.29. 아사히신문)
- 국제행사에 적극 참가, 중국 대한국 교류 방침(3.1. 아사히신문)
- 나카소네 수상 방중, 한반도문제 등 토의(3.23. 요미우리신문)
- 한반도 평화에 중대 관심, 나카소네 · 조자양 회담에서 일치(3.24. 아사히신문)
- 경제관계 더욱 충실, 소련군비에 정보교환도(3.24. 아사히신문)
- 대한국 교류, 한걸음 더(3.24. 요미우리신문)
- 이산가족 방문 중국 수락, 한국이 환영 표명(3.24. 아사히신문)
- 등소평, 경제협력 확대 요청(3.26. 아사히신문)
- 중 · 소 대폭 개선은 없다, 호 총서기 나카소네 수상에게 표명(3.25. 마이니찌신문)

일본 · 소련 관계, 1983-84

| 84-017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구과
MF번호	2014-8 / 9 / 1~135(135p)

1. 일본 외무성은 1983.4.12.~13.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일 · 소 고위회담 시 협의 내용을 83.4.14. 주일 본대사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함.

❁ Kapitsa 소련 외무차관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박하나 폭발적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한 · 미 군사연습이 한반도 정세를 긴박하게 하는바, 소련과 북한은 만약에 대비하여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소련은 남한을 인정하지 않고 교차승인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나카지마 일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서울 올림픽 관련 소련의 참가를 타진한 데 대하여) 소련 측은 올림픽 경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스포츠는 정치와 다르며, 우리는 올림픽이 다른 곳에서 개최되도록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
- (일측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사할린 한국교포의 귀환을 위한 소련의 지원을 제의한 데 대하여) 재소 한국인의 귀환문제는 북한과 협의해 처리할 문제라고 발언

❁ 소련 측은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며 중 · 소 외무차관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 · 중 관계개선에 대하여 소련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 일측이 78년 일 · 중 평화조약 체결 시 소련 측이 일 · 중 관계개선을 격렬하게 비난한 것을 거론한 데 대하여, 그 당시 등소평은 일 · 중의 적으로 소련을 거명하며 공격하였기 때문에 소련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변
- 소련 측은 일 방위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비난하면서,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

❁ 일 · 소 양국관계 관련, 북방영토 문제는 양측 입장 표명에 그쳐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또한 소련의 경제협력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일측이 정경분리 인정 불가를 명백히 하고 동 제의를 거절하였으며, 소련의 핵 불사용협정 제의도 일측이 거절

- 일측은 일 · 소 양국관계 개선을 위하여 그로미코 외상의 방일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소련은 아직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거절

2. 일본 외무성은 1983.6.20. 주일 소련대사관 A. Vinogradov 1등 서기관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했다고 발표함.

❁ 동인은 가나가와현 소재 컴퓨터 회사 간부를 매수, 고도기술 입수 등을 기도한 혐의

❁ 일본 외무성은 동 서기관이 6.19. 가족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였으며, PNG는 아니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한 퇴거로서 동 사건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

❁ 주일본대사관은 이번 일측의 조치가 서방의 대소 스파이 활동 제재 움직임에 발맞춰 서방 측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등의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3. 외무부 구주국은 1984.3.12.~13.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일 · 소 고위회담(일측 수석대표 나카지마 외무심의관, 소측 수석대표 Kapitsa 외무차관) 시 소련 외무차관의 한반도관계 발언을 1983.4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회담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84.3.16. 작성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반도문제에 대한 소련의 기본태도에는 변화가 없으며, 단지 그 표현에 있어 83년도 발언 내용보다 구체적

- 예를 들면, 한반도정세를 "매우 긴박하나 폭발적인 정도는 아님" 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음", "교차승인에 응하지 않을 것임" 에서 "북한의 3자회담 제의를 지지", "88 올림픽 다른 곳 개최해야" 에서 "한국과 관계 첨예화할 생각은 없으나, 양국관계는 서로 제약이 있음", KAL기 사건 관련 "유족의 사건현장 방문, 위령제 요청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이라 언급

❁ Kapitsa 외무차관은 제4차 회담 시 의식적으로 대북한관계의 긴밀함과 중 · 소 관계개선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분석

- 이는 미 · 일의 대중국관계, 한 · 중의 비정치 분야 교류, 북한의 소위 3자회담 제의 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이해관계국의 움직임에 소외되지 않고 중 · 소 · 북한 삼각관계를 소련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 정치,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소련 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

4.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일 · 소 관계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전문 보고, 일본 언론 보도 기사 및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일본 · 미국 관계, 1984

| 84-01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8 / 10 / 1~213(213p)

1. 아베 일본 외상은 1984.1.26.~2.2. 방미하여 레이건 대통령, 부시 부통령 예방 외에 슐츠 국무장관, 와인버거 국방장관 등과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바, 이와 관련 외무부가 1984.2.4. 작성한 아베 수상의 방미 시 주요 협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반도 문제

(미측)

-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의도가 불분명
- 국제사회에서 북한 고립을 위한 미 · 일 양국의 계속적 노력을 다짐 (일본의 대북한 여행제한 조치 계속을 요청)
- 북한 제의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이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미 · 일 양국의 노력 다짐

(일측)

- 남북대화 중요성에 동의
-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대미접촉 저의로 풀이
- 관련국 회의에 소련이 포함되는 경우 일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반응
- 과거 미국의 3자회담 제의와 이번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 입장에 의문 제기

❁ 미 · 일 쌍무관계

- 일측은 85년도 예산 중 방위비의 6.55% 증액 관련, 일측의 국제적 책임 및 대미관계 중시 입장 설명
- 미측은 방위비 증액에도 불구 미측 희망에 미흡하다는 입장 강력 표명
- 일측은 농산물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경제현안의 실무협의 계속을 제안, 미측은 선거의 해이며 의회, 업계의 강력한 태도를 감안, 일측의 협력을 강력 요청

❁ 국제 문제

- 미측은 INF 교섭재개에 대해 소련 측이 아직 아무런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미국도 대처 방안 미결정 상태라고 설명
- 미 · 일 양측은 대중국(구 중공) 관계의 중요성에 의견 일치
- 일측은 소련과의 대화 추진 방침 설명과 아울러 미 · 소 관계개선 기대를 언급

❁ 방미 성과 평가

- 미측은 단순 일 외상 방미 차원을 떠나 장래의 일본 수상이라는 감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각종 회담은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 일측은 양국이 상호 양보하여 현안을 해결하자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소기의 방문 성과(제2차 나카소네 내각 발족 후 대미정책 불변 입장 전달 및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안 타결 원칙 합의)를 달성했다고 평가

2.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1983.1월 방미 시 레이건 대통령과 미 · 일 관계 일반에 관해 양국 수뇌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자문기구 설립에 합의하여 1983.5월 설치된 미 · 일 자문위원회(일측 7명, 미측 8명 총 15명의 경제인, 학자 및 전직관리로 구성)는 1984.9.17. "미 · 일관계의 도전과 기회" 제하의 보고서를 제출한바, 동 보고서 중 외교와 국방 및 한반도관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외교

- 소련의 급속한 군비증강은 주요 관심사로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줄 대소 통상, 신용공여, 기술제공, 자원개발 등에 상호 긴밀히 협조
- 미 · 일 양국은 중국의 현대화 노력에 지원 필요
- 아세안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 · 일 양국은 시장개방에 노력
- 양국은 아 · 태지역 국가 간에 고양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노력을 지원
- 일본과 서구제국과의 정치협력을 추진

❋ 국방

- 일본의 방위노력은 전투 수행능력 향상 및 방위력 결함 극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방위예산 액수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은 피해야 하는바, 미 · 일 양국은 고도무기 체제 발전과 연구를 위하여 공동 노력 추구

❋ 한반도 관계

- 한반도의 안정은 미국과 일본에 긴요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 군사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한반도 전쟁 억지력 향상에 중요
- 미 · 일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협의를 갖고 양측의 정책에 조화 필요

3. 본 문건에는 미 · 일 관계에 관한 주일본대사관 및 주미대사관의 전문 보고, 기타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미국 · 소련 관계, 1984

| 84-017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구과
MF번호	2014-8 / 11 / 1~132(132p)

본 문건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대소 3개항의 제의 연설, 소련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불참 발표와 주요국 반응 등 미 · 소 관계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소 3개항 제의 연설(84.1.16.)

- 소련에 대한 평화적 경쟁과 건설적 협력을 촉구하고 현실주의, 힘, 대화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소 입장 천명
- 소련에 대한 3개항의 포괄적 제의
  -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의 감소 또는 제거 방안 모색
  -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 감축 방안 모색
  -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미 · 소 선린관계 유지

2. 소련의 올림픽 불참 발표(84.5.8.)

- 소련 올림픽위원회는 타스 통신을 통해 다음의 이유로 84.7월말 개막 예정인 제23회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참가 불가능을 발표
  -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여 올림픽을 반소 정치적 목적에 이용
  - 소련 선수단의 안전보장 불가
- 소련의 상기 발표는 미국이 84.3월초 소련 올림픽 아타쉐 예르미시킨(전 KGB 요원)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로 입국비자를 거부한 바 있고, 미국 내 소련 망명단체의 올림픽 참가 소련 선수의 망명 권유, 방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부정적 요인이 이유
  - 또한, 아프간 침공에 반대한 미국의 모스크바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복조치,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 방지 의도 등으로 분석

3.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소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84.6.27. 연설)

- 상호교류협력협정, 환경보호협정, 건설협력협정, 보건협정, 농업협정, 어업협정, 해상사고방지협정, 장기협력협정 등 유효기한이 도래한 협정의 갱신 또는 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진행
- 시카고, 뉴욕 및 키에프에 상호 영사관 개설문제 협의를 재개하고, 영사협의 회담 추진, Hotline의 격상을 위한 교섭 등 냉각되어 온 양국 간의 관계를 비정치 분야에서 우선 개선하기 위한 조치 추진

4. 슐츠 미 국무장관은 84.10.5. 이원경 외무장관 앞 서한에서 최근 개최된 미 · 소 외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그로미코 외상과 동서문제, 지역정세, 인권문제, 미 · 소 양측 관심사를 협의

- 미 · 소 간 대화 재활성화 문제에 대해 소련 측 관심을 감지
- 군축 및 중동 문제를 집중 논의

❋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이 유엔 가입을 원하며 북한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

- 그로미코는 이를 경청하였으나 논평은 하지 않음
- 독일통일의 전망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 증대를 상황변경으로 간주한 그로미코의 발언으로 미루어 소련은 2차 대전 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주프랑스 대사관을 통한 미수교국 관계 개선 추진, 1984

| 84-01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8 / 12 / 1~9(9p)

주프랑스대사관은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활동을 위하여 직원의 업무분장 및 활동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공사를 반장으로 하여 소련 담당, 중국(구 중공) · 동구 · 아중동 담당, 북한관계 담당, 언론 담당, 무역정보 담당을 지정
- 루마니아, 소련, 중국, 알제리, 콩고, 토고, 베냉, 말리 등과의 관계개선 전망과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 활동 방안을 수립

국교수립 - 브루나이, 1981-84

| 84-0175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8 / 13 / 1~155(155p)

1. 주싱가포르대사는 1981.11.16.~18. 겸임국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왕실과 정부 인사들을 접촉, 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유치를 교섭하는 한편, 브루나이 정부 내에 새로 발족된 외교국과 한 · 브루나이 간 협력관계 증진, 브루나이 독립에 따른 외교관계 수립, 브루나이 거주 한국교민의 계속 체류와 취업 허용 등에 관해 협의함.

2. 주싱가포르대사관의 유명환 1등 서기관 등 직원 2명은 1982.10.17.~20.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 협의를 위해 브루나이에 출장, 외교부 행정실장과 공관개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바, 브루나이 측은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공관 개설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브루나이는 인원이 부족하여 상대국에 공관을 개설할 수는 없으나 상대국이 브루나이에 공관을 설치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함.

3. 주싱가포르대사는 1982.12.19.~22. 브루나이에 출장, Hassanal Bolkiah 국왕, 국왕보좌관, 국무장관, 외교국장, 영국 고등판무관 등 고위 인사를 예방, 브루나이 독립과 동시 수교 및 상주공관 설치 희망을 피력한바, 브루나이 측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공관은 기 개설되었으며, 태국, 필리핀, 호주는 83.1~3월 개설 예정이고, 미국과 일본은 곧 공관 개설 추진 예정
   - ❋ 주싱가포르대사는 가급적 독립 전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여 독립과 동시에 대사관으로 승격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외무부에 건의

4. 외무부는 1983.9.19. 대통령에게 브루나이 상주공관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 83.9.17. 브루나이 정부와 브루나이 상주 총영사관 설치에 합의, 개설 일자는 83.9.15.로 결정
   - ❋ 총영사는 주싱가포르대사가 겸임
   - ❋ 총영사관은 83.12.31. 브루나이 독립과 동시 대사관으로 승격시킬 예정

5. 한국 정부와 브루나이 정부는 1984.1.1. 브루나이 독립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브루나이 주재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983.12.31. 발표함.

대중공 외교관 직접 접촉, 1984

| 84-017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8 / 14 / 1~59(59p)

1. 김경원 주유엔대사는 1984.4.11. Liang 주유엔 중국(구 중공)대표부 차석대사와 접촉, 중국이 필요한 기술 및 산업발전 경험은 한국과 같은 중진국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중요함을 설명함.
   - ❁ Liang 대사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하고, 동인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잘 알고 있으며, 시간이 가면 그러한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

2. Long Yong Tu UNDP 근무 중국 직원은 1984.8.16.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 접촉 시, 중국은 유엔 관련 국제행사 주최 시 한국의 참가를 허용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1국2체제가 존재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의 고위층 방중 시 중국의 실용주의 경제정책 실시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등 북한사회를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함.
   - ❁ 상기 직원은 주유엔 중국대표부 3등 서기관으로 1982년 이래 UNDP에 파견근무 중이며 금명간 평양주재 UNDP 상주대표부 차석으로 부임 예정

3. 멕시코 개최 인구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 김모임 의원(가족협회 부회장)은 1984.8.16. Qian Xinzhong 중국 홍십자회 회장과 접촉, 지난해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중국 거주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 내 가족과의 이산상봉을 위해 협조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했는지 문의함.
   - ❁ Qian 회장은 동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아직 실무자들이 검토 중인바, 귀국하면 호의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

4.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중국 외교관 접촉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음.

국교수립 - 기니비사우, 1974-84. 전2권. V.1 1974-82

| 84-0177 |

생산연도	1974-1984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8 / 17 / 1~249(249p)

1. 외무부는 1974.5.31. 국무회의에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기니비사우 민주공화국을 승인 결정함에 따라, 동 승인 내용을 주세네갈대사관, 주유엔대표부, 포르투갈을 겸임하고 있는 주프랑스대사관 및 아프리카 전 공관 등을 통해 관련국에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74.6.6.) 이전에 통보토록 지시함.

2. 외무부는 기니비사우 승인 후 주세네갈, 포르투갈 및 영국 대사관 등을 통해 기니비사우와의 외교관계 수립교섭을 전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카브랄 기니비사우 대통령 일행은 1979.11월 북한을 방문함.

3. 기니비사우에 1980.11.14. 쿠데타가 발생,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PAIGC의 카브랄 대통령이 실각하고 군사평의회가 구성되어 온건파인 Vieira 전 수상이 집권함.
   - ❋ 쿠데타의 근본원인은 기니비사우 흑인이 카보베르데 혼혈인의 소수지배에 대한 반감, 경제사정의 악화와 최근 채택된 헌법(대통령 권한은 강화하고 수상권한 대폭 약화)에 대한 불만 등에 기인

4. 1980.11.25. 외무부는 기니비사우 혁명정부 성격이 온건하며, 경제난 타개를 위한 서방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에 비추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은 밝으나, 혁명정권의 기반이 굳어질 때까지 관망한 후 여건 성숙 시 관계개선 문제를 검토키로 함.

5. 이정수 외무부 아프리카국 심의관은 1981.6.3.~8. 기니비사우에 출장, 한국과의 수교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Turpin 수산장관의 방한을 초청하면서 수교교섭을 한바, 동 장관은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자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 ❋ Vieira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신의 때문에 수교를 주저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 이 심의관은 어망, 소형 어선용 모터 등 소규모 원조, 동원수산의 입어료 지불과 별도로 3~5톤 고기 기부 요청, Vieira 대통령 친형 등에 대한 방한 초청, 11.14. 혁명 기념일에 특사 파견 등을 본부에 건의

6. 외무장관은 1981.10.7. 유엔에서 기니비사우 외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수교문제를 협의한바, 동 외상은 한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과는 독립 후 계속 우호관계에 있으나 자국의 비동맹 정책에 입각하여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면 수교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함.

7. 1982.12.8. 주세네갈대사,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동원수산 임원이 기니비사우를 방문하여 Vieira 대통령을 예방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측의 수교 요망에 대해 양국 간 어업 및 군복 공여 등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고위 외교관 접견사실 등이 양국 간 관계수립을 향한 큰 발걸음을 의미하니 기다려 달라고 언급함.

국교수립 - 기니비사우, 1974-84. 전2권. V.2 1983-84

| 84-0178 |

생산연도	1974-1984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8 / 18 / 1~304(304p)

1. 외무부는 1983.4.7. 대통령에게 대기니비사우 관계개선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한국 정부가 약속한 15만 달러의 무상원조(군복 2,000착)가 3.20. 기니비사우에 도착

- 주세네갈대사는 조속한 시일 내 기증식 거행을 위해 동국에 출장, 기니비사우 측과 수교 노력 전개 예정

❁ 기니비사우 측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국내 여건 조성을 기다리는 것으로 평가

- 친한 인사인 Turpin 자원장관을 단장으로 한 기니비사우 경협사절단 방한을 추진

❁ 기니비사우는 독립 투쟁 시 북한의 지원을 받아 당 및 정부 내에 좌경 친북세력이 포진하고 있으나 현재 친서방 온건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관계개선 전망은 희망적

2. 주한 미국대사관 Eaton 1등 서기관은 1983.7.19. 외무부 서부아과장을 방문, Turpin 자원장관이 83.6.26.~7.4.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기니비사우 주재 미국대사와 면담(7.13.)한바, 동 장관은 방한이 성공적이었으며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함.

3. 주세네갈대사는 1983.7.16.~21. 기니비사우에 출장, Vieira 대통령 및 외상 등과 수교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외상은 한국 정부가 기 양해된 원조를 제공하고 기증식 때 가능하면 외무장관이 직접 기니비사우에 와서 수교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을 제안함.

❁ 주세네갈대사는 조기 수교를 위해 기 양해된 원조를 제공하고 기증식에 외무장관이 방문, 수교 발표를 추진할 것을 외무부 본부에 건의

- Turpin 자원장관은 83.6월 방한 시 차량 및 군복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4. 외무부는 대기니비사우 관계개선 문제와 관련, 외무장관의 기니비사우 외상 앞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원조(약 30만 달러 상당) 시행 내역을 기니비사우 정부 측에 통고하기 위하여 장명관 주세네갈대사 및 이정수 연구관을 1983.8.17.~24. 파견함.

❁ Pinto 외상서리는 Vieira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과의 수교의사를 확인하고 경운기, 의전용 차량과 통신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외무장관 앞 답신을 8.24. 주세네갈대사에게 수교

5. 주세네갈대사는 1983.9.10.~12. 기니비사우를 방문, 국산 경운기 40대 및 워키토키 10여 대 등 28만 달러 상당의 추가원조 제공 결정을 Vieira 대통령에게 설명한바, 동 대통령은 기증식 후 수교 합의 의정서 서명과 초대 대사 아그레망 신청 시 즉각 동의를 약속함.

6. 1983.12.22. 기니비사우 외무성에서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의정서에 최동규 대통령 특사(동자부장관)와 Gomes 에너지 공업상이 서명함.

- 동일자로 주세네갈대사를 동국 주재 겸임대사로 파견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신청
- 의정서 서명에 앞서 원조품 기증식을 거행

7. 주유엔대사는 기니비사우 측이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과 양국 수도에서의 공식발표를 위한 각서교환을 제의했다고 1984.2.1.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측이 대통령특사의 기니비사우 방문 시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합의의정서 서명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동일자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데 대해, 기니비사우 대사는 동 합의는 원칙적인 합의이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 외교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

8. 세네갈 다카르에서 주세네갈 양국 대사가 1984.6.25.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각서에 서명, 교환함.

- 이번 수교로 한국의 수교국 수는 122개국으로 증가
  - 북한은 코모로 및 코스타리카의 단교 조치로 101개국으로 감소

국교수립 (교섭) - 이라크, 1982-84

| 84-017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9 / 1 / 1~383(383p)

1.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1982.5.5. 주재국 영자지 Emirate News에 방소 중인 이라크 공업성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한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및 일부 아랍국가들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보도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5.6. 주바그다그총영사관 및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한국은 이란 · 이라크전에 엄정 중립입장이며 동 보도의 한국 거명은 사실무근임을 주재국 등 관계국에 해명토록 지시

2. 청와대 정무1 비서실은 한 · 이라크 관계격상에 대하여 1982.7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함.

❋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의 82.6.24.~30. 이라크 방문 중 라마단 이라크 부수상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이라크 측은 한국과의 관계격상을 위해 한국 국무총리의 이라크 방문 및 라마단 부수상의 한국 방문을 제의

❋ 조치 사항

- 이라크 측의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 (사실상 종전으로 향하고 있는 이 · 이전의 추이를 관망하여 82.9월 중순 이후로 상호 방문 시기 조정)
- 양국 간 외교관계 부재를 감안, 이라크 라마단 부수상의 방한을 먼저 실현시키고 부총리의 답방 형식 추진

❋ 상기 조치는 이라크 측의 종전에 따른 전후복구 및 국력증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와 관계격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다만 대이란 관계정상화 노력은 병행이 필요

3. 주한 이라크총영사는 1982.8.18. 국무총리를 면담, 이라크 부수상의 김상협 국무총리 앞 공한을 전달한바, 동 공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 · 이라크 양국 간 협력관계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고위관리 접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의 82.9월 하순 이라크 방문을 희망

❋ 한국 총리의 이라크 방문 시 경제, 기술 및 무역협력 협정 체결과 한국산 상품 수입, 한국의 이라크산 원유도입 등 상품교역 분야 장기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며 각료급 합동위원회 설립, 연례 회담개최를 제의

4. 외무부는 한 · 이라크 관계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이라크 방문초청을 수락하는 서한 발송(구체적 방문 시기는 추후 통보), 부총리의 연내 이라크 방문 제의, 바그다드 무역박람회 참가 및 관계 격상 추진 등에 대하여 1982.9.13. 대통령 재가를 받음.

❁ 다만, 1980년 이래 한 · 이란 관계가 계속 냉각상태에 있는 반면, 북한과 이란은 외교 및 군사적으로 밀착되어 있음을 감안, 이란 정부 고위인사(국회의장, 수상 등) 방한, 테헤란 무역박람회 참가, 석유화학단지 조사단 파견, 한 · 이란 외상회담 등을 추진

5. 이라크 외무성은 1983.12.16. 주바그다드총영사에게 라마단 부수상의 진의종 국무총리 이라크 방문 초청서한 사본을 수교함.

❁ 초청 서한 원본은 84.1.18. 주한 이라크총영사가 외무부에 전달

6. 1984.2.11. 개최된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 대이라크 수교추진문제 회의에서 주바그다드총영사는 한국 측이 수교추진을 결정만 하면 이라크 측이 호응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수교추진이 너무 지연될 경우 실기할 우려가 있음을 환기시킴.

7. 1984.3.31. 프랑스 주간지의 이라크와 북한 복교설 보도 관련, 주이집트 미국대사는 이집트 중재로 이라크와 북한 간 접촉이 있었고 북한이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할 경우 이라크는 북한과 복교키로 하였으며, 다만 북한의 이행여부 확인 후 시행하기로 했음을 한국 측에 알려옴.

8. 한 · 이라크 외상회담이 1984.10.4. 뉴욕에서 개최된바, 한국 측이 조속한 외교관계 수립 희망을 표명한 데 대해 Aziz 외상은 양국 간 활발한 인사교류와 경제관계 증대에 만족을 표명하고, 이라크의 대한국 영사관계 수립은 대외경제협력과 재정상의 문제 때문이었으며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수교문제는 국무총리 이라크 방문 시 해결하기를 희망함.

❁ 한국 측이 방한예정인 이라크 특사와 국무총리의 이라크 방문 시 외교관계 수립 합의문서에 서명한다는 양해하에 구체절차 문제를 협의토록 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동 외상은 동의

한 · 러시아(구 소련) 관계개선, 1984

| 84-018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9 / 2 / 1~273(273p)

1. 외무부는 1984.3.12.~13. 개최된 일 · 소 실무회담 시 소련 외무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소련의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3.28.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KAL기 격추사건의 여파와 동서관계 긴장 등 영향으로 소련은 종전보다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소련 외무차관은 한국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각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어 조만간 김일성의 방소가 있을 것이라 언급하고 북한의 3자회담 지지를 표명
- 소련은 북한의 친소화와 대일, 대중국(구 중공) 관계 정상화 또는 강화를 추진, 미 · 일 · 중국의 결속과 반소체제 구축을 방지하는 등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관측
- KAL기 사건 이후 소련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마저 사실상 중단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

2. Helmut Sonnenfeldt 브루킹스 연구원의 84.6.29.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 언급요지는 다음과 같음.

-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어느 정도 긴장조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고, 장래 한 · 소 교류재개 문제에 대한 소련의 긍정적 반응이 예상되는바, 이는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중국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예측 가능
- 소련은 전략적 차원에서 시베리아 개발 및 산업화를 도모할 것이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일본 또는 서구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한국과의 협력 제기 가능성도 언급
- 한반도의 전쟁방지는 소련이 선호하는 것이며, 남북한 간 대화는 반대하지 않고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동해가 봉쇄되어 극동해군의 통로가 막힘을 우려
- 미 · 소 · 중 · 일 등 주변국 모두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해가 관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문제로 인식
- 소련은 전환기로 지도체제문제, 남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동구, 경제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으며 지도층의 고령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대외 정책상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

3. 84.11.5. 미 국무성 한국과장 면담 시 소련 외무성 극동 제1부 모로조프 부부장 및 남북한 담당관의 대한반도 관계 언급요지는 다음과 같음.

- 남북대화 재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환영하나 전례로 보아 성과에 대해 회의적
- 관계 개선책으로 남북한 유엔가입, 교차승인 또는 교차접촉 방안에 부정적
-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발전보다 북한과의 관계 긴밀화가 정치적으로 소련에 유리

- 소련의 88올림픽 참가여부는 대회 개막에 임박해서야 결정
- 김일성 방소 후 북한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
- 김정일 권력승계문제는 북한 내부문제로 김정일 계승 후에도 소 · 북한 관계 불변

4.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주일본 · 미국대사관, 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이 소련 공관원과의 직접 접촉 시 의견 교환 내용 또는 우방국을 통해 파악한 한 · 소 관계 소련 측 입장에 대한 전문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한 · 시리아 관계 개선, 1981-84

| 84-0181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9 / 3 / 1~244(244p)

1. 외무부는 1981.8.1. 주유엔대표부와 주레바논대사관에 외무장관의 뉴욕 방문(9.25.~10.9.) 기간 중 한 · 시리아 수교문제 협의를 위한 시리아 외상 면담을 추진할 것을 지시함.

❋ 주레바논대사는 시리아 실업인(외상과 사돈)을 통해 외상 면담주선을 요청하였으나 외상은 면담을 거부하였다고 9.20. 외무부에 보고

2. 주요르단대사관 김원호 참사관은 1982.10.20. 시리아에 출장, Khadam 시리아 외상의 아들과 비공식 접촉한바, 동인은 부친인 외상이 한국과의 관계개선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고 전언함.

❋ 북한은 각 분야에서 시리아에 많은 지원과 기여를 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협력 시도조차 전무

❋ 아사드 대통령은 경제담당 부수상에게 대한국 관계개선 문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레바논 사태로 백지화

❋ 시리아가 대한 관계개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공한으로 시리아의 대외정책 지지를 표명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 가능

3. 외무부는 주요르단대사의 건의에 따라 한 · 시리아 양국 간의 경제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시리아 경제사절단의 방한 초청 및 내년 다마스커스 국제박람회 참가 희망을 전달하는 시리아 외상 앞 서한을 주요르단대사 명의로 작성하여 요르단 주재 시리아대사관을 통해 송부할 것을 1982.11.17. 지시함.

❋ 요르단 주재 시리아대사관은 82.12.14. 한국 측 서한을 접수, 외무성에 보고했으나, 83.2.27. 동건 관련 본국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

4. 주유엔대사는 한 · 시리아 관계개선 희망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주유엔 시리아대표부 차석 Mansouri 공사가 83.6월 이후 주일본 아랍연맹사무소 소장으로 전임될 예정이므로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83.3.29. 외무부에 건의함.

5. AALCC(아시아 · 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Sen 사무총장은 1983.3.30. 시리아 정부가 자국 훈련생(농업, 공업, 교통성 추천 20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술훈련을 희망하여 왔음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해 옴.

❋ Sen 사무총장은 본건 관련 인도 주재 시리아대사관 Bounni 2등서기관을 면담한바, 동 서기관은 연수생 한국 파견이 장기적으로 한 · 시리아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북한 및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 조용히 이루어지기 바라며, 연수 후보자 인원이 한국 측에 의해 소수로 정해질 경우 파견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83.5.2. 주인도대사관에 설명

6. 외무부 제1차관보 명의 초청으로 방한한 Mansouri 아랍연맹 도쿄 사무소장은 1983.10.4. 외무부 중동국장을 면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시리아 외무성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긍정적으로 생각
- 금번 IPU 총회에도 대표단 파견을 희망했으나 시리아 내 정책결정자들의 친소적 경향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

7. 주쿠웨이트대사가 동지 주재 시리아대사와의 1984.3.28. 및 4.30. 면담 시 시리아 측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시리아는 한국과 관계증진을 기피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에서 시리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인상이라 언급
- 한 · 시리아 간 경제관계가 심화되면 양국 간 수교도 추진 가능
- 한국 측이 다마스커스 국제박람회 참가를 신청하면 85년부터 참가토록 추진용의

8. 주요르단 및 쿠웨이트 대사관은 다마스커스 박람회(1984.9.17.~30. 개최)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1984.5월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박람회 참가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금년도 참가는 해외전시 사업이 확정되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1984.5.28. 회신함.

대소련 교류문제 건의 및 추진 현황, 1984

| 84-018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9 / 4 / 1~177(177p)

본 문건은 한국 정부의 대소 관계개선을 위한 비정치 분야 교류 및 외교관의 소련 인사 접촉 지침 등의 수정, 보완 등 정책조정에 관한 내용임.

1. 제25차 ICAO 총회 계기 대소 교류정책 조정

❁ 84.5.21. 외무부 차관 주재 부내 검토회의 및 5.22. 대소 교류문제 관계부처 검토 회의를 거쳐 대책(안) 마련하고 6.1. 대통령 재가로 시행

❁ 조정 배경

- (88올림픽 대책) KAL기 사건 이후 소련 측의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고, 비정치 분야 교류의 사실상 중단 및 올림픽의 정치화 추세로 88 서울올림픽 영향 가능
- (안보・외교적 고려)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화해 모색을 위한 6.23 문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대소 비정치 분야 교류중단의 장기화로 소련의 대북한 관계 강화와 이에 수반될 대한 관계 경직, 북한의 강경노선 조장, 한・중국(구 중공) 관계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 고려

❁ 주요 내용

(소련과의 교류재개 필요)

-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의 점진적 조성
- 북한의 대소관계 밀착화 견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외교 차원에서 대소 비정치 분야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

(전면재개는 시기상조)

- KAL기 사건에 대한 소련의 태도 및 미 대통령 선거 고려, 전면재개는 시기상조

(선별적 접촉 및 교류)

- 신중히 case by case로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의 테두리 내에서 선별적 접촉 및 교류 재개 검토
- 대소 교류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검토 주요 행사)

- 84.8월 세계지질도 편찬위원회, ESCAP 전철화 세미나 등 소련 개최 국제회의 참가
- 84.8월 국제체육기자협회 회장단 방한 초청 시 부회장(소련인) 포함, 84.11월 재외동포 세미나에 소련 학자 2명 초청 등

2. 외무부는 대소 교류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1984.7.2. 주한미국대사관, 7.3. 주한일본대사관에 각각 통보함.

3. 외무부가 1984.10.17. 작성한 '최근 소련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 진전 상황' 자료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84년도 하반기 소련의 대한국 태도를 종합해 보면, 소련은 KAL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외면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한 · 미 · 일 3각 군사블록 구축 기도를 운운하고, 금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의 폭발사건 토의 시 다른 동구국가와는 달리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등 소련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국인의 소련 개최 국제행사 참가 허용 등 한국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

❁ 수재물자 전달과 같은 남북적십자사 간 접촉 및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화를 재개시키려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은 대소 관계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교착상태에 있는 미 · 소 관계와 김일성 방소 이후의 고위인사 방문 증가 등 소 · 북한 간의 관계증진이 각 분야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 기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외무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협조하에 비정치 분야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과 성공적인 88 서울올림픽을 위하여 소련과의 교류문제에 대하여 계속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을 언급

[아프리카지역]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1984

| 84-018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9 / 5 / 1~96(96p)

본 문건은 아프리카지역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다음과 같은 대책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1. 대 미수교국 관계개선 대책(1984.4월, 외무부 아프리카국)

- 수교 가능성 및 국가의 중요도 고려, 우선순위 결정
- 소수 우선순위 국가에 집중 노력
- 직접 접촉 방식 위주
- 선 경제관계 설정, 후 수교 방식

2. 한국 기업의 대 아프리카 미수교국 진출 지원방안(1984.5.25.)

- Financing 지원
- 주요 민간기업 중에서 원칙적으로 1국1사주의로 진출 권장
- 독점권 또는 기득권 부여
- 미수교국 수교교섭과 관련한 정치적 지원

3. 미수교국 인사 초청(1984.6.20. AFDB/DF 총회 시 면담인사로서 재무장관 명의 초청)

- Tevi-benissan 토고 재무상
- Idrissa Keita 말리 재무상
- George Saitoti 케냐 재무기획상
- Luke Mwananshiku 잠비아 재무상

4. 수산청이 협조 요청한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등과의 관계개선 방안(1984.7월)

재외공관 설치 - 브루나이, 1982-84

| 84-0184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9 / 6 / 1~342(342p)

1. 외무부는 주브루나이 총영사관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83.8.4. 재가를 받은바, 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설치 내용
- 총영사관 설치(창설요원 1명 상주)
- 설치 시기는 83.11월
- 83.12.31. 독립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으로 승격

❁ 설치 이유
- 대아세안 외교기반 확충 및 북한 진출 저지
- 건설 진출 확대, 한국 기업의 경제개발 추진사업 참여,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확보
- 교민 법적지위 보장

2. 외무부는 1983.8.8. 주영국대사에게 브루나이 공관 개설을 위해 영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공관 설치에 필요한 제반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 주싱가포르대사도 주싱가포르 영국 고등판무관과 브루나이 판무관에게 공관 개설 사실을 기 통보

3. 외무부는 1983.9.8. 주싱가포르대사에게 주브루나이 총영사관 개설에 따른 훈령을 시달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총영사관 개설(늦어도 9월말까지)

❁ 브루나이 독립과 동시에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필요조치 완료 및 총영사관의 대사관으로의 승격 교섭

❁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 행사를 위한 제반 준비 철저

❁ 통신망 구비

❁ 경제 및 통상진흥 활동과 교민 선도 활동

4. 주싱가포르대사관은 브루나이 외교국에 공관 창설요원 박해수 영사의 임명사실을 통보하였음을 1983.9.10.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브루나이 정부와 동국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 상주 총영사관 설치에 합의를 보았으며, 83.9.15. 공관을 개설하였다고 9.19. 발표

5. 1983.12.29. 한국 정부와 브루나이 정부는 1984.1.1. 브루나이 독립과 동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브루나이 주재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함.

❋ 83.12.31. 양국 간 수교 및 대사관 승격 사실을 발표

6. 브루나이 국왕은 1984.4.7.~10. 방한함.

주레바논대사관 직원 및 가족 철수, 1984

| 84-018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9 / 7 / 1~412(412p)

1. 외무부는 1984.2.7. 레바논사태 악화에 따른 대책과 관련 청와대에 특별보고를 제출한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레바논 사태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 노력이 실패한 가운데 회교 지도자들의 사임 압력에 따라 84.2.5. 와잔 수상 내각이 전원 사임한 가운데 반정부 민병대가 2.6.부터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서베이루트에 나타나 각종 포를 동원, 시가에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여 사태가 극도로 악화
- 제마엘 대통령은 휴전과 국민화합회의를 호소하였으나 반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사임과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어 전면적인 내전상태에 돌입 우려
- 레바논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공관원 및 가족 22명, 코트라 관장, 럭키 · 금성 기능공 등 28명 총 50명)은 전원 무사하나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
- 한국 대사관 소재 서베이루트는 민병대 장악하에 있으며 2.6. 무장 민병대가 대사관에 침입, 차량 1대 및 영사수입금을 탈취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고 동 지역은 정전상태로 전화와 텔렉스 불통(간혹 작동) 상태
- 치안 극도 악화 시 및 전면 교전 상태에 대비 공관 임시 폐쇄, 교민 및 공관원 안전지역(국외 포함) 대피 등 비상계획을 수립

2. 베이루트 사태 악화에 따라 외무부는 1984.2.8. 주레바논대사에게 공관원 3명을 제외한 공관원 가족 및 전 교민의 소개를 결정하고 철수지역은 일단 사이프러스로 할 것을 지시함.

- 외무부는 현지 공항 및 항구가 폐쇄된 점을 감안, 주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대사관에 한국인 비상대피를 위한 주재국의 지원을 요청토록 2.9. 지시
- 기능공 및 교민 등 일행 20명은 2.10. 상선 편으로 사이프러스 경유 귀국
- 공관원 가족 포함 일행 21명은 2.10. 미해군 수송선 편 사이프러스로 철수

3. 외무부는 민병대의 서베이루트 장악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 베이루트 잔류 공관원 3명도 긴급 대피할 것을 1984.2.15. 지시함.

4. 외무부는 1984.7.30. 주레바논대사관의 베이루트 복귀와 관련 청와대에 특별보고를 제출한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 84.4.30. Karami 내각 출범 이후 정부군의 동 · 서 베이루트 배치, 공항 및 항구 재개 등 정세 호전으로 UAE, 루마니아 등은 공관을 재개하였고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멕시코 등도 조만간 복귀 계획
- 레바논 문제는 종파 간의 반목과 불신,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대립뿐만 아니라 중동문제 전반과 연관되어 장기적 정세불안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시리아의 주도하에 정국안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에 적극 반대하지 않는 태도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세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국 공관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레바논 정부 및 회교도 인사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할 가능성과 북한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한국 공관 부재 중 북한 공관의 대 주재국 활동 강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

❁ 조치

- 84.8월중 대사 및 직원 2명을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동부 베이루트에 복귀시킨 후, 정세 추이를 보아 공관 소재지인 서부 베이루트에 완전 복귀시킬 예정(가족은 당분간 복귀 보류)

5. 주레바논대사 및 공관직원 2명은 1984.8.21.~22. 베이루트 북부 쥬니에 시에 복귀하였으며, 8.27. 서부 베이루트로 완전 복귀함.

주마카오 겸임 총영사관 설치, 1981-84

| 84-0186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9 / 8 / 1~82(82p)

1. 1981.6.4. 주홍콩총영사는 서방 주요국가의 홍콩 주재 영사관이 마카오를 겸임하고 있으며, 북한은 마카오에 무역회사 형태(조광무역)로 10여 명의 요원을 파견, 홍콩 및 기타 지역의 침투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대북한 견제와 대중국(구 중공) 경제, 통상 진출 및 교민보호 차원에서 주홍콩총영사의 마카오 총영사 겸임을 외무부에 건의함.

- 그러나 외무부는 현재로서는 마카오 겸임 총영사관 설치가 시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을 81.7.18. 주홍콩총영사에 회신

2. 주홍콩총영사는 1984.3.10. 외무부에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중국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카오도 중국화가 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공식적인 근거 마련이 긴요(중국화 진행으로 북한의 입장 더 강화 예상)하며, 홍콩 주재 대다수 영사관이 마카오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마카오에 대한 겸임 영사관 설치를 외무부에 재건의함.

- 주홍콩총영사는 1984년 초 제1차 공관장 회의 시에도 마카오에 대한 겸임 영사관 설치를 건의

3.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주홍콩총영사의 마카오 겸임 총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84.6.8. 재가를 받음.

- 포르투갈 정부 및 마카오 정청은 마카오의 대외협력강화를 위해 홍콩에 영사관을 설치한 국가에 대해 마카오도 겸임할 것을 권장
- 북한은 마카오에 상사주재 형태로 요원을 파견, 홍콩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침투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안보적 견지에서 북한 활동을 감시, 견제할 필요
-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에 앞서 중국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마카오도 중국화가 진행 될 것이므로 한국의 공식적 존재 근거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

4. 포르투갈 정부는 1984.10.10. 주홍콩총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부여함.

재외공관 설치 - 말라위, 1973-84

| 84-0187 |

생산연도	1973-1984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2014-9 / 9 / 1~154(154p)

1. 정부는 1965.3월 말라위와 수교한 이래 대비동맹 외교강화의 일환으로 말라위에 상주공관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75.5.5. 대통령령 제7593호)하였으나, 당시 예산 사정과 말라위의 반공, 극우 노선 견지에 따른 외교적 불시급성 등으로 공관 설치가 보류됨.

2. 말라위는 1965.3월 양국 수교 이래 주케냐대사관에서 겸임하다가 1975년부터 주우간다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는바, 1983.9월 방한한 말라위 외무차관이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를 요청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교통 및 통신 사정상 주케냐대사관이 말라위를 겸임해 주도록 요청함.

❋ 외무부는 업무 편의상 84.1월부터 영사, 교민 업무만 주케냐대사관이 관할하도록 잠정 조치

3. 외무부는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상주공관을 말라위에 개설할 것을 건의하여 1984.4.20. 재가를 받음.

❋ 말라위는 1982.6월 북한과 수교한 이후 한국에 대해 상주공관 설치를 거듭 요청하여 왔으며, 북한은 버마 암살 폭발사건 후 동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키 위해 집요한 책동을 전개

❋ 현 말라위 반다 대통령(84세)의 사후에는 반공 친서방 외교노선 수정 가능성 및 최근 경제중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 정세 변동에 대비하고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책동 봉쇄, 한국 교민(13세대 40명) 보호 및 동국에 대한 경제 진출 등 제반 필요성에 비추어 말라위에 상주공관을 설치함이 필요

4. 외무부는 1984.4.26. 주우간다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주말라위 상주공관 설치 결정을 말라위 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5. 1984.6.9. 외무부는 주말라위대사관 창설요원을 발령하였으며, 1984.7.2. 주말라위 대사대리가 주재국 외상에게 대사대리 임명장을 제정, 동일자로 상주대사관이 정식 개설됨.

재외공관 설치 - Jeddah(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1984

| 84-018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4-9 / 10 / 1~4(4p)

1. 외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984.9월초 외무성 본부를 젯다에서 리야드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주사우디대사관도 청사 및 관저를 리야드 외교단지 내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동 이전 후 젯다에 총영사관 개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84.5.18. 재가를 받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 남부 및 북부 지역은 리야드와 광활한 사막지대 및 미개지로 분리되어 항공편 이외에는 교통시설이 없으며, 젯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항구도시로 경제활동의 중심지임.
  - 서부, 남부 및 북부 지역은 한국 건설업체 지사 24개, 건설업체 현장 93개 및 상사지사 25개가 소재
-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야드 이전 후 젯다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계획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대사관의 리야드 이전 후 젯다에 총영사관 설치를 허가한다는 입장

2.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이 1984.7.28. 개정되어 주사우디대사관 위치 변경 및 주젯다총영사관 신설이 공고됨.

- 1984.10.15. 주사우디대사관의 리야드 신청사와 주젯다총영사관이 각각 개관

3. 주사우디대사관은 주젯다총영사관 관할구역 지정과 관련, 동 지역 구분이 주재국 정부의 실제 행정관할 조직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통칭되어 오던 지역명에 따른 편의상 구분인 점을 감안, 교민의 이해를 돕고 공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영사관의 영사업무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세부 구분하여 시행 중임을 1984.10.28. 외무부에 보고함.

- 히자즈(서부)주, 나프드(북부)주 및 앗시르(남부)주 중 학클, 타북, 얀부, 메디나, 멕카, 젯다, 타이프, 아브하, 지잔, 카미스, 우샤이트, 나즈란 및 동 인근지역

4. 주젯다총영사관 관할 영사업무는 다음과 같음(84.10.29. 주사우디대사관 보고).

- 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또는 거주자에 대한 여권업무(기간연장, 여행증명서 발급, 기재사항 변경), 영사확인 또는 날인, 기타 민원업무(단, 여권 발급은 대사관 관장)
- 관할 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사증 발급
- 교민 보호 및 지도, 관할 구역 내 발생한 사고(구속, 사망, 선원 · 선박 억류) 처리
- 학교관계 업무 중 대사관 관장사항(재외국민교육, 한국인학교 운영실태 조사 등)을 제외한 사항
- 단, 여권 업무, 사증, 교민보호, 학교관계 업무와 관련되어 민원인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기 관할에도 불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어느 곳이든 민원을 제출 가능

대아프리카 외교망 확충, 1984

| 84-018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9 / 11 / 1~25(25p)

1. 외무부는 대아프리카 외교망 확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84.9.27. 재가를 받은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아프리카 제국의 탈이데올로기, 실리추구 추세로 탈소련 · 서방접근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의 평화분위기 진전은 남 · 북한 외교대결에서 한국에 유리한 정세 변화로서 주목
- 북한은 60년대 아프리카 제국의 반서방 · 좌경조류에 편승,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북한 외교 최후의 보루로 되어 있는 실정
- 특히 북한은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래 한-아프리카 관계 활성화를 저지하는 한편, 버마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약화된 외교적 기반 만회를 위해 전력 경주
- 이와 같은 아프리카의 정세변화에 대응, 한국의 외교적 우위 확보와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주공관 개설을 건의
- 상주 공관 개설 대상국
  - 니제르, 모리셔스, 적도기니, 스와질란드, 차드
- 개설 시기
  - 니제르: 84.12월 초순
  - 모리셔스, 적도기니, 스와질란드, 차드: 85~86년 중
- 공관 규모
  - 최소 3인 공관

2.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대아프리카 외교망 확충을 위한 대통령의 기본 재가문(84.8.28.), 대통령 결재를 상신하기 위한 외무부의 내부결재 문서(84.9.12.) 및 관련 자료도 수록되어 있음.

주한공관 설치 - 아이티, 1981-84

| 84-0190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9 / 12 / 1~28(28p)

1. 주한아이티 상주공관 개설 경위는 다음과 같음.

- 81.6.17. 주일본 아이티대사(도쿄 상주)는 외무장관 면담 시 상주공관 상호 설치를 제의
  - 외무장관은 아이티 정부의 제안을 환영하고, 상호 호혜주의 원칙 아래 검토 표명
- 81.8.28. 아이티 측은 주벨기에 대사대리를 주한대사로 내정하고 호혜주의에 의한 주아이티 한국대사의 파견을 요청
- 81.9.1. 한국 측은 실익이 없으며 예산 사정 등 고려 보류키로 하고, 아이티 측에 예산 사정으로 주아이티 상주공관 개설이 어려움을 통보
- 81.10.9. 아이티 정부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주한공관 설치 보류를 통보하고 아그레망 신청을 철회
- 83.9.6.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아이티 정부가 Yves Francois 주멕시코대사를 초대 주한아이티 상주대사로 임명키 위한 아그레망 신청 공한을 접수
- 83.9.26. 주한 아이티대사(도쿄 상주)는 아이티 정부의 주한 상주공관 개설 결정 및 초대 상주대사 임명을 공한으로 통보
- 83.11.4. 외무부는 아이티의 주한 상주공관 개설 결정을 발표
- 84.9.20. Yves Francois 초대 주한 아이티 상주대사 부임

2. 아이티의 상주공관 개설로 주한 외국 상주공관 총수는 52개 공관, 그중 중남미 제국 상주 공관은 15개 공관이 됨.

3. 본 문건에는 아이티의 주한 상주공관 개설 예정과 관련된 외무부의 대통령 보고(83.9.27.) 및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의 전문보고 등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주한공관 설치 - 파라과이, 1984.11.16

| 84-0191 |

생산연도	1976-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9 / 13 / 1~21(21p)

1. 주한 파라과이 상주공관 설치 경위는 다음과 같음.

- 76.1.28. 파라과이 외무성 관방장은 박동순 외무부 교민2과장(남미 이민조사단 일원으로 파라과이 방문)과 대화 중 주한 파라과이 상주대사관이 76.8월경 설치될 전망이라고 언급
  - 주파라과이대사는 본건 관련 주재국 외무성 관방장에게 확인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설치 전망이 희박하다고 언급하였음을 76.7.13. 외무부에 보고
- 78.8.17. 파라과이 외상은 고재필 특사(주재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게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설치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서울에서 이민협정, 경제기술협정에 서명하기를 희망
- 83.12.21. 살디바르 외상은 84년도에 주한상주대사 임명을 원칙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주파라과이 대사에게 언급
- 84.10.11. 주파라과이대사는 외상과 면담, Cazal 초대 주한 파라과이 상주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
- 84.10.15. 파라과이 측, 주한상주대사 임명 및 한국정부의 아그레망 접수를 대외 발표
- 84.11.16. 초대 주한 파라과이 상주대사가 부임

2. 본 문건에는 주한 파라과이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교섭 관련 주파라과이대사관의 보고 등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주한공관 설치 - 미국 영사관 (부산) 1984.1.27

| 84-0192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북미과/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4-9 / 14 / 1~137(137p)

1.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1982.1.20. 대사관 경제과 부산사무소를 개설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대사관 보도자료는 동 사무소가 한국 내 미국상사의 상품판매 및 투자를 도울 것이며, 부산사무소는 영사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
- 부산사무소장은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1등서기관이 취임

2. 김석규 외무부 미주국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과의 부산사무소 설치발표와 관련, 1982.1.22. Blakemore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동 사무소 개설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결여한 것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

- Blakemore 참사관은 협약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 취할 것임을 표명

3. 1982.2.17. 주한 미국대사관은 부산 경제사무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온바, 이에 대해 외무부는 부내 의견 조율을 거쳐 개설을 승인키로 결정하고 1982.2.22. 승인 결정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2.10.12. 부산 경제사무소를 영사, 정무,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관 부산분관(Embassy branch office)으로 승격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온바, 외무부는 각국의 관행을 조사, 검토한 후 불가하다는 입장을 1982.10.13. 통보함.

- 영사, 정무, 경제 등 모든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사무소 설치를 허가한 외교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5.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3.11.30. 주부산 미국영사관 개설 허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1984.1.4. 동 요청에 대해 동의함을 통보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주부산 미국영사관(관할지역은 경상남북도, 부산 및 제주도) 개설에 따라 부산 경제사무소를 영사관으로 활용할 것임을 제의

6. 주부산 미국영사관은 1984.1.27. 개설함.

태평양 지역협력, 1984

| 84-019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4-10 / 1 / 1~350(350p)

1. 외무부 태평양정상회담 특별반이 1984.3월 작성한 태평양 정상회담 업무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태평양 정상회담의 필요성

- 세계 각 지역에는 지역별로 정상회담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이 상례이나 유독 태평양지역에만 이러한 정상 간의 합의제적인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필요

❋ 1982.7.31. 대통령의 태평양 정상회담 제의 시 발표한 진해 5원칙

- 호혜평등과 존중, 문호 개방, 기존기구 보조, 태평양 공동체 형성은 비필수적, 비정치적 · 비군사안보적

❋ 특별반의 1984년도 업무계획

- ASEAN을 포함한 역내 각국과의 쌍무관계 강화로 상호 연대감 고양
- 태평양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
- 기존 각종 지역협력 움직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 국가 간의 공동체 인식 강화

❋ 태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각국 반응

- 호주와 캐나다는 찬성, 뉴질랜드는 유용할 것이나 수년 소요
- 미국은 원칙적 지지, 일본은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 ASEAN은 아세안 약화 우려, 정치 군사 블록화 우려, 성과 의문과 시기 미성숙 등의 반응

2. 외무부가 1984.5월 작성한 최근 역내 정세변화와 태평양 정상회담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태평양 지역의 이질성, 다양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을 통한 역내 협력이 가장 효율적이나,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경우 최근 태평양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 각국을 자극시킬 염려 우려

❋ 따라서, 태평양 정상회담 추진은 우선 분위기 조성 및 공동체 인식을 고취한 후 서서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PECC, PBEC 등과 같은 역내 민간 협력기구를 통하여 꾸준히 노력함이 좋을 것으로 분석

3. 외무부는 1984.11.20. 태평양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 쌍무적 협력확대 및 아세안 공동추진 협력사업 참여 등

❋ 태평양 역내 협력사업 참여

- 태평양 연안국 협력회의 참여를 위한 외교 노력 전개

❁ 태평양 민간 협력기구 및 연구기관 활용
❁ 태평양 정상회담 실현기반 조성

4. Fairbanks 미국 국무성 태평양지역협력담당 대사는 1984.11.22.~24. 방한한바, 동 대사가 11.23. 이원경 외무장관과의 면담 시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슐츠 국무장관은 태평양지역 협력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도하되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민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 경제협력이 진전되면 정치 분야로 확대하되 안보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자관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

5. 본 문건에는 '태평양정상회담제의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84.2월 대통령비서실 정무1작성), '태평양지역협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대응방향(84.8.31.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태평양지역협력문제'(84.10.29. 외무부 작성) 등 자료와 주미국, 일본, 아세안 등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한 · ASEAN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 제5차. 서울, 1984.10.10-14

| 84-019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2 / 1~34(34p)

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5차 한 · 아세안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가 1984.10.10.~14.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동 합동회의에 아세안 기업인 다수가 참여 가능토록 현지 공관을 통하여 현지 기업인에게 권유하여 줄 것을 1984.9.7. 외무부에 요청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81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후 아세안 각국과의 민간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 · 아세안 경제계 지도자협의회를 설립 운영
  - 상기 합동회의는 한 · 아세안 경제계 지도자협의회와 필리핀의 SGV Group이 공동 주관
- 한 · 아세안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는 아세안과의 교역증진, 자본 및 기술협력, 건설 · 플랜트 협력, 자원개발 협력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 · 아세안 민간경제계 간 이해증진과 유대강화를 통한 경협 활성화가 목적
  - 이번 제5차 합동회의에는 40여 명의 아세안 기업인이 참여 예정

2. 외무부는 상기 제5차 한 · 아세안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세안 각국의 유력기업인 다수가 참여토록 권유할 것을 주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대사관에 1984.9.17. 시달함.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1 1977년도

| 84-0195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3 / 1~197(197p)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7.7.27. 주재국의 말리크 외상과 면담하고 한국이 경제 · 기술협력을 통해 ASEAN과의 대화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지원을 요청한바, 동 외상은 한국 정부가 ASEAN과 경제협력 용의가 있음을 ASEAN 사무총장에게 전달해 주면 8.1.~3.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ASEAN 외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외무부는 1977.7.28.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경제 · 기술협력을 통하여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ASEAN의 경제발전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관하여 금후 ASEAN과 대화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한국 정부의 의사를 ASEAN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것을 지시함.

- 77.7.3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제의 서한을 ASEAN 사무총장에게 전달
- ASEAN 측은 한국의 제의를 77.11월 하순 방콕에서 개최되는 ASEAN 상임위원회의 의제로 채택, 토의하기로 결정

3. 주태국대사관은 1977.10.27. 주재국 외무성 측이 ASEAN과의 경제 ·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 측 대화 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ASEAN이 제3국과 대화를 개시하는 데 있어 선진국으로서 경제원조, 기술이전 등 구체적인 benefit가 기대되고, 동 대화가 어떤 나라와도 대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원칙에 합의를 본 바 있으므로 동 원칙에 비추어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
- 한국과 ASEAN 5개국과는 각각 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쌍무적인 경제 및 기술협력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언급

4. 외무부는 상기 태국 외무성의 견해 표명과 관련, 한국이 ASEAN과의 경제 · 기술협력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한 ASEAN 주재 각 공관의 의견을 보고하도록 1977.11.7. 지시함. 동 지시에 대한 주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5개 대사관의 의견 요지(11.22.까지 접수)는 다음과 같음.

- ASEAN의 내실화를 관망하면서 기존 쌍무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ASEAN의 대선진국 협력 방향 추이를 주시할 필요
- 한-ASEAN FORUM을 만들어, 대화기회를 갖고 점진적 협력방안을 모색 건의
- ASEAN 측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갖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5. 1977.11.23. 방콕에서 개최된 ASEAN 상임위원회는 태국 외상과 태국 주재 회원국 대사만 참석하여 한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심의 중 안건으로 처리, 78.4월 ASEAN 고위실무자회의 검토를 거쳐, 5월 외상회의에 회부키로 결정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2 1978-81년도

| 84-0196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4 / 1~144(144p)

1. 태국 외무성 ASEAN 국장은 1978.2.10. 주태국대사관 김 공사와 면담 시 방콕에서 개최된 ASEAN 상임위원회 회의(78.2.3.~4.)에서 한국의 경제 · 기술협력 대화 제의에 대해 협의하고 한국 정부의 제의에 긍정적인 답변(positive response)을 줄 입장에 있지 않다고 결정한바, 상임위 의장국으로서 이를 한국 측에 통보하는 공한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ASEAN이 선진공업국과 대화를 개시했으나 현재의 기구 및 능력으로는 원만한 운영이 곤란한 처지로 더 이상의 대화 개설이 불가능하며, ASEAN 회원국의 분위기가 대화 상대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능력의 한계에 봉착
- 한국은 아직 발전도상국가로 구분되어 있어,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유사제의가 있을 경우 문제 예상
- 한국과 ASEAN 제국은 쌍무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0.5.20. Datuk Ali ASEAN 사무총장이 한국의 경제 · 기술협력 대화 제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78년 상임위의 결정은 당시의 미소 양극화 현상과 남북분단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도 ASEAN의 태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
- ASEAN과의 대화를 위해 2, 3개 회원국이 한국의 참석을 강력히 주장하도록 교섭함이 바람직

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1.5.25.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SEAN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Reyes 동 사무총장과의 5월 중순 접촉 시, 한국 대통령의 ASEAN 5개국 공식방문과 관련하여 ASEAN과의 대화 개설 논의가 있을 경우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사무총장은 ASEAN 상임위 참석 후 주인도네시아대사와의 면담에서 5.25. 상임위에서 한국과의 대화문제가 비공식 논의되었으며, 각국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고 전하면서, 6월 외상회의 시 협의토록 한국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제시, 교섭할 것을 권유
  - 동인은 한국 대통령의 ASEAN 공식방문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4. 외무부는 1981.6.19. ASEAN 주재 공관에 한국이 ASEAN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주재국에 제시(새마을 운동 지원을 통한 농촌사회 개발, 기술훈련 및 교류, 자원공동개발 등)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하고, 대화관계 수립(ASEAN 각료회의 옵서버 참석, Forum 구성 등)을 위해 의장국인 필리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할 것을 시달함.

5. 1981.6.17.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외상회의에서는 한국 이외에 스리랑카, 인도, 이집트의 대화 신청을 명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상임위 회의 시까지 토의 연기키로 결정함.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3 1982년도

| 84-0197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5 / 1~380(380p)

1. 주말레이시아대사는 마하티르 수상이 주재국에서 1982.1.4. 개최된 제12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아세안이 한국 및 인도 등과 대화를 통한 관계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아세안의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1982.2.1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Atmonosuryo 아세안 사무총장이 아세안 내 분위기가 한국 및 인도와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대화는 북한을 의식하여 경제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임을 표명하였다고 보고함.

3. 1982.2.25. 외무부는 한국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농업 · 기술 등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일층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견지에서, 아세안 주재 공관에 싱가포르에서 6월에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 외상회의에 어떤 자격으로든 참석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외무부는 주싱가포르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2.3.26. 아세안 상임의장인 싱가포르 외상 앞으로 외상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외무장관 명의의 공한을 발송한바, 싱가포르 외상은 4.2. 개최된 아세안 상임위에서의 여타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서를 4.28. 주싱가포르대사에게 전달함.
   - ❁ 현재 아세안이 제3국과의 대화문제 전반에 걸쳐 재검토 중이며, 6월 외상회의에 새로운 지침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 ❁ 따라서 이번 외상회의에 타국을 초청함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아세안의 견해

5.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아세안 회원국별 반응은 다음과 같음.
   - ❁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개발도상국가로서 한국, 인도를 대화상대로 확장 지지
   - ❁ 필리핀: 개별국가와의 대화보다 지역별 그룹과의 대화에 우선
   - ❁ 싱가포르: 82.6월 외상회의에서 지침이 결정된 후 고려 예정
   - ❁ 태국: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나, 한국이 아세안과 overall한 대화개설보다 특정분야 협력 모색 필요

6. 1982.5.10. 외무부는 아세안 외상회의 참석 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 한국 초청문제는 상임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아세안이 전체결정(Collective Decision)해야 할 사안임
- 한국만을 대화 없이 초청하는 것은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선 대화, 후 초청의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
- 6월 채택될 대화지침에 따라 앞으로 외상회의 참석문제를 포함한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전반에 걸쳐 아세안과 협의를 시행해 나갈 계획

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V.4 1983-84년도

| 84-0198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6 / 1~325(325p)

1.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주재 공관장회의가 1983.1.17. 외무부 본부에서 장관 주재하에 개최된바, 동 회의에서 아세안과의 대화 개설은 향후 아세안 내 논의 가능성을 감안, 아세안 회원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타진하되, 한국과의 대화개설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태평양 정상회담 추진문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화 개설을 추진키로 함.

2. 1983.3.23. 방콕 개최 아세안 특별외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의 제의로 한 · 아세안 대화문제가 논의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태국 및 싱가포르는 한 · 아세안 대화에 호의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싱가포르는 대화확대 등 전반적인 문제는 5월 중순 고위회담 시 재론, 6월 외상회의에 보고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 의견이 채택
- ❁ 필리핀은 아세안과의 대화 희망국이 수개국임에 비추어 한국과의 대화문제만 토의함은 부적합하므로 대화 확대에는 아세안의 능력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 동 회의의 전반적인 추세는 현재 아세안과의 대화 희망국이 한국 외에 스리랑카, 루마니아 등 수개국이며, 아세안은 미 · 일 · 호주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 아닌 기타 개별국가보다는 지역 국가군과의 대화개설을 선호

3. 한 · 아세안 대화 개설 추진문제에 대하여 외무부는 1983.6.1.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수립함.

- ❁ 아세안 측은 한국을 포함 여러 나라들의 신규 대화 신청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그룹별의 협력 방식을 표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제3국과의 대화지침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대화문제에 대한 회원국 간 컨센서스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 아세안 측은 상기 표면적 이유 외에도 한국과의 대화문제는 분단국가와의 대화라는 정치적 고려와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과는 달리 구체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관측
- ❁ 6.24. 방콕 개최 아세안 외상회의에 대비,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의견을 재타진하고 한국지지 가능성이 있을 경우 외무장관이 동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토록 하되, 싱가포르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현 단계에서는 당분간 관망

4. 1983.6.24.~25. 방콕 개최 제16차 아세안 외상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1983.7.7. 주인도네시아대사의 Chan 아세안 사무총장 언급 내용 보고).

❋ 이번 아세안 외상회담 시 논의 결과, 제3국과의 기존 대화 방침을 재검토한 후 내년 자카르타 각료회담 시 결정키로 합의

❋ 한국 이외에도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 이집트 등이 대화 개설을 신청했으며, 북한도 신청할 경우 아세안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며, 말레이시아가 한국과의 대화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 상황

❋ 기존 대화와 다른 특별대화(sectoral base 등) 방식을 검토코자 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

5. 외무부 아주국은 1984.1.17. 본부에서 개최된 아세안주재 공관장회의 자료를 작성한바, 동 자료 중 대아세안 대화 개설 문제 관련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음.

❋ 1983.9월 이범석 장관 뉴욕 방문(38차 유엔총회 참석) 시 아세안 외상들과 면담하고 대화개설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아세안 외상들은 소극적 입장을 피력

❋ 이에 따라 이범석 장관은 아세안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동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아세안 외상들에게 언급

❋ 금후의 추진방향은 그동안의 아세안과의 교섭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우선 아세안 각국과의 쌍무 실질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

SARC(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 회의, 1984

| 84-019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10 / 7 / 1~9(9p)

1. 1984.2.24. 주인도대사는 남아시아지역협력(SARC) 상설위원회(외무차관급 회의)가 2월 마지막 주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남아시아지역협력 외상회의는 1984.7월 몰디브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2.27.~28. 개최된 SARC 상설위원회는 기술위원회가 제출한 9개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
- 동 상설위원회는 인도 측 제의에 따라 국제경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남북협력을 위한 77그룹 및 비동맹 제안의 조속한 실현을 강조

2. 인도 언론은 라오 외상이 1984.5.8.~10. 뉴델리를 방문한 Hlaing 미얀마(구 버마) 외상과의 회담 시 미얀마가 SARC 참여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함을 표명했다고 보도함.

- 미얀마 외상은 5.10. 인도를 떠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의 제스처에 감사하나 미얀마는 SARC 가입 계획이 없다고 언급

3. SARC 외상회의가 1984.7.10.~12. 몰디브의 빌링기리 섬에서 개최된바, 주요 토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85년 상반기 중 역내 정상회담개최 등 협력방안을 토의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동 정상회담을 다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몰디브 가윰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SARC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하고, 인도양 주변에서 동서 군사대립의 위험성을 경고, 인도양 평화수역화회의의 개최를 촉구
- SARC 정상회담 개최시기에 대해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1985년 중 조기개최를 인도, 파키스탄은 신중한 검토를 주장
- 1985.10월 또는 11월 중 정상회담 개최 권고안 및 악화일로의 후진국 경제, 사회 상황에 대한 선진 산업국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후 폐회
- 차기 외상회의는 1985.5월 부탄에서 개최키로 합의

SPC (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24차. Noumea (뉴칼레도니아) 1984.10.15-19

| 84-020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8 / 1~110(110p)

1. 1984.7월 SPC(남태평양위원회) 사무국은 1984.10.15.~19. 누메아 개최 제24차 SPC 총회에 한국대표(옵서버)의 참석을 요청해 옴.

❋ 8.7. 외무부는 주피지대사의 SPC 제24차 총회 참석을 허가

2. 김성구 주피지대사는 상기 SPC 총회에 참석한 후, 출장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남태평양지역 도서 국가는 외교적으로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어 북한의 침투가 우려

❋ 특히, 비동맹에 가입하고 쿠바 사절을 접수한 바 있는 바누아투, 솔로몬아일랜드가 취약지구

❋ 회원국 27개국 및 보호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차기 25차 SPC 총회 장소를 솔로몬아일랜드로 결정

❋ 1985 회계 연도의 예산에 대한 각국 기여금을 확인한바, 호주,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예산 기여율은 92.26%이며 잔여는 22개 도서국과 보호령이 부담(연간 예산규모는 미화 2,704,627달러)

❋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1986.10월 SPC 총회 시까지 연장키로 합의하고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종료한 후에는 사무총장의 임기를 단임 3년으로 제한

- 차기 총장으로는 미국령 사모아의 Tuiasosopo 지사 보좌관을 추천키로 합의

❋ 건의 사항

- SPC 총회에 매년 참석, 남태평양 지역 주요인사와의 접촉이 필요
- SPC와의 협력강화 일환으로 제25차 총회 시 2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건의

SPF (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5차. Funafuri (투발루) 1984.8.27-28

| 84-0020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9 / 1~56(56p)

1.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이 1984.8.27.~28. 투발루에서 개최된바, 관련국(뉴질랜드 및 호주) 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동 회의 시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번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역내 핵자유지대화, Pacific Forum Shipping Line 재정 지원문제 및 뉴칼레도니아 독립 문제
- 핵자유화문제 관련, Hawke 수상은 역내 해상에서 핵함 및 핵무기 적재함의 통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Lange 수상은 핵함의 기항 허용문제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피력
-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 관련, 바누아투는 즉각적인 독립을 요구하고 UN Committee on Decolonisation 회부를 주장한 반면, Lange 수상은 UN 회부에 반대
- Hawke 수상이 제의한 태평양지역을 비핵지역으로 하는 조약안 작성을 위해 Working Group 구성안이 채택
- Lange 수상은 뉴칼레도니아 독립 문제를 UN Decolonisation Committee에 제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부결
- 각 회원국은 태평양 Mururoa 지역에서 프랑스의 핵실험 계속에 대해 개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키로 결정

2. SPF Forum은 1984.8.28. 아래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종료됨.

- 뉴칼레도니아의 조속한 독립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 기타 정치단체들이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
- 역내 핵문제의 상세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Working Party를 구성, 1985년 Forum 회의까지 관계 조약 초안을 준비
- 해양법이 1984.12.9.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각 회원국이 이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
- 차기 회의는 1985.8.4.~9. Cook 제도에서 개최될 예정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17차. Jakarta, 1984.7.9-10

| 84-020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 / 10 / 1~273(273p)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특별 외상회의(1984.5.7.~8.)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번 회의는 캄보디아문제 관련, 베트남 규탄, 베트남군 철수 주장, 태국입장 지지, 시하누크 연정이 주도하는 자주정부수립 지원결의 재천명 등 캄보디아 문제가 주요 토의 내용
- 7월 개최되는 아세안 외상회의 및 대화국가와의 회의절차 관련, 종전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대화국과의 회의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에 추가하여 아세안 회원국과 5개 태평양 연안국(미, 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과 EEC 간 회의를 분리하여 개최키로 합의

2. 외무부는 7월에 개최될 아세안 외상회의 및 대화상대국 간 확대 외상회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이번 외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태평양 연안 5개국 간 태평양 연안국 협력문제에 관한 별도대화가 있을 예정
- 동 회의는 목탈 인도네시아 외상의 제의로 처음 있게 되는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지만, 참가국이 역내 협력문제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구상과 이견을 노정하고 있어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
- 미국은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역내 협력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

3. 아세안 주재공관은 아세안 외상회의(1984.7.9.~10. 자카르타) 결과를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캄보디아문제와 관련 아세안은 시아누크 연정을 지지하며 베트남의 제안은 정치적 해결을 하자는 아세안의 제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아님을 확인
-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으로 태국, 캄보디아 국경선의 난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제3국의 지원 요청
- ZOPFAN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연구반 설치
- 이번 회의는 캄보디아문제 관련, 아세안의 종래 주장을 한층 강화한바, 이는 아세안 내에 이견이 없음을 천명하고 아세안의 결속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
- 동 회의기간 중 아세안 6개국과 태평양연안 5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간 별도 회의가 개최되어 지역협력 문제를 논의

EC(구주공동체)-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5차. Dublin (아일란드), 1984.11.15-16

| 84-020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10 / 11 / 1~44(44p)

1. EC 주재 대사관(벨기에, 그리스)은 1984.11.15.~16.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5차 EC와 ASEAN 간 외상회의 공동성명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상기 공동성명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세안과 EC 협력협정이 곧 만료됨을 감안, 각료들은 양 지역 간 협력 및 관계강화, 경제문제에 관한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
-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UN을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주권, 자치, 무력 불사용, 인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UN과 더불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
- 베트남의 캄보디아 불법점령,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비난
- 캄보디아의 독립, 주권, 중립적 지위를 위한 시아누크 의장 지도하 민주 캄푸치아 연립수립을 지지
- 태국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민간인 피난민 수용소에 대한 베트남군의 공격을 비난하고 이는 UN 헌장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경고
- 인도차이나 난민 관련 각료들은 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UN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WFP, UNHCR,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들의 노력에도 감사를 표시
- 아프간에서 소련군의 즉각 철수 촉구와 독립 회복, 미래를 결정할 아프간 인의 권리를 존중

한국의 대ASEAN 협력강화 : 인적자원개발계획(HRD) 참여 추진, 1984

| 84-020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4-10 / 12 / 1~267(267p)

1. 1984.7.27. 김삼훈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Harriet Isom 국무성 한국과장과 접촉한바, 동 과장은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인력자원 개발문제와 관련, 일본은 오키나와에 이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미국은 하와이에 있는 동 · 서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도 유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2. 1984.12.13. 이원경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를 방문 수하르토 대통령을 예방한바, 수하르토 대통령이 한국은 공업화를 통한 성공적 경제개발 경험을, 인도네시아는 원유와 가스 및 기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강화발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 외무장관은 아세안 주도하의 태평양지역 협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아세안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용의를 표명
   - ❋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 측은 최근 아세안 주도하의 태평양지역 협력논의에 한국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
     - 목탈 외상은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사업과 같은 특정사업에 특별 회원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한 · 인도네시아 직업훈련원 설립협정에 가서명

3. 외무부 태특반(태평양 특별정상회담 대책반) 반장 이남기 대사는 태평양지역 인력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1984.11.18.~22. 간 아세안을 방문한바, 각국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 필리핀(외무차관): 한국 정부의 인력개발 부문에서 과거실적 인정 및 한국입장 지지
   - ❋ 말레이시아(아세안 총국장): 태평양 협력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깊은 관련이 있는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 ❋ 싱가포르(아세안국장): 아세안의 모든 결정은 consensus로 결정되므로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
   - ❋ 인도네시아(경제차관보): 인력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기술훈련공여 등의 협력을 제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나 태평양 협력문제는 step by step으로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할 것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6차. 서울, 1984.5.7

| 84-020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10 / 13 / 1~162(162p)

1. 제16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정기 집행위가 1984.5.7.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가 참석하고 회의 참가자 및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참석 대표

- 한국: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회의 주재)
- 대만(구 자유중국): Robert C.J. Shih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
- 일본: Koichi Haraguchi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 사무국: 정도순 사무총장

❁ 주요 논의사항

- 이원경 외무장관을 의장으로 선출(한우석 대표가 수락인사)
- 82~83 회계연도 재정 및 회계 감사보고를 수정 없이 승인
- 과학교육에 관한 제1차 아·태 회의 보고를 수정 없이 승인
- 84~85 회계연도 예산요구서 개요설명이 있었는바, 예산 요구액은 원안대로 수정 없이 승인
- ASPAC 장학생의 일비, 국내여비 및 기타 경비의 증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인

2. 본 문건에는 제16차 ASPAC 사회문화센터 정기 집행위원회(1984.5월) 의제별 회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OAS(미주기구) 총회, 제14차. Brasilia, 1984.11.12-17

| 84-020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1 / 1 / 1~455(455p)

1. 1984.10.27. 외무부는 제14차 OAS 총회에 파견될 한국 대표단 명단을 아래와 같이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 수석대표: 류병현 주미대사
- 교체대표: 김흥수 주미대사관 참사관
- 단원: 김영소 주브라질 2등서기관, 유병헌 공보관

2. 제14차 미주기구 총회 파견 대표단에 대한 훈령은 아래와 같음.

- 회의기간 중 OAS 제반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여, 한국의 관심을 표명
- 회원국 외상 급 인사를 비롯한 총회 참석 주요인사와 접촉, 한반도 정세설명 및 이들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증진 노력
- CBI 지역의 경제 잠재력 활용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공동 참여는 바람직하며 CBI 관련사항 토의 시 외국인 투자유치 등 CBI 활동을 위한 각국의 현행제도를 문의하여 보고

3. 한국 대표단은 제14차 OAS 정기총회 참석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11.12.~17. 브라질리아
- 주요 회의내용
  - 포클랜드 분쟁: 영국-아르헨티나 간 조속한 협상 개시 촉구
  - 중미사태: 분쟁 관련국 및 동 지지국들이 콘타도라 국가의 평화안 수락 촉구
  - 미주지역 내 무기 및 병력 감시기구 설치 권고 결의
  - 칠레-볼리비아 영토분쟁: 당사국 간 협상재개 및 85.1월 콜롬비아에서 회의 개최 촉구
  - 미주기구 활동 강화를 위해 85년 4/4분기에 특별총회 소집
- 대표단 활동
  - 한국의 대 OAS 협력사업 확대계획 홍보, 한국의 CBI 계획 참여추진 내용 설명
  - 코스타리카 외상과 면담, 84.12월 방한 관련 의견 교환
  - 파나마 외상 면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다짐
  - 기타 바하마 외상, 티엔티 외상 등 미수교국 대표와 접촉, 양국 간 협력문제 논의

OAS(미주기구) 특별총회. Washington. D.C., 1984.3.12

| 84-020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1 / 2 / 1~24(24p)

1. 1984.3월 Soares 브라질 외무차관이 OAS 사무총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된바, 동인은 아래 요지의 당선 소감을 발표함.
   - ❁ OAS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 분야 등 쇄신작업을 전개
   - ❁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운영예산에 대한 불균형한 분담비율에서 오는 갈등 등 난제를 해결
   - ❁ 비회원국인 쿠바의 가입 문제에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

2. 3.16. 동 사무총장에게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의 축전을 발송함.

3. 1984.6.20. Soares 외무차관은 제6대 OAS 사무총장에 취임한바, OAS를 명실공히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특히 역내 정치적 문제를 직접, 그리고 조용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OAS/CIES(미주기구/미주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19차. Santiago(칠레) 1984.8.27-31

| 84-020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1 / 3 / 1~72(72p)

1. 1984.5.16. 주미대사관은 OAS 경제사회이사회 및 관련회의에 한국대표 참석을 요청하는 OAS 사무국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7.18.~20. 도미니카 개최 OAS 경제사회이사회에 현지 공관(정태식 1등서기관) 직원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지시

2. OAS 경제사회이사회 참가 보고

❋ 개최 일시 및 장소: 1984.7.18.~20. 도미니카

❋ 주요 토의내용

- 설탕의 국제시장가격 폭락 관련, 향후 사탕수수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문제
- 동 에너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 증대 문제
- 각 회원국으로부터 동 에너지 산업보호 및 지원 문제
- 동 에너지 생산설비 확충 및 기술향상을 위한 financing 문제

❋ 이사회에서 채택한 '산토도밍고' 선언 요지

- 사탕수수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범미주협력기구 창설을 제의
- 각국의 사탕수수 에너지 개발사업 지원
- 석유 대체 알코올, 화학용 알코올 및 기타 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
- 사탕수수 에너지 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체제 개선

3. 주칠레대사는 주재국에서 개최된 제19차 OAS 경제사회이사회 총회(1984.8.27.~31. 칠레)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주개발은행의 기금제도 변경에 관한 연구 조속종결 권고

❋ 미 행정부에 구리 수입규제 조치 지양토록 촉구

❋ 미 행정부가 상계관세 부과 시 지역 내 무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용 촉구

❋ 미 행정부에 GSP 제도가 규제적인 성격이 되지 않도록 요청

❋ 미 행정부에 철강 수입 규제조치 지양토록 촉구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OAS(미주기구) 회의, 제1차. Santo Domingo (도미니카공화국), 1984.12.10-12

| 84-0209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1 / 4 / 1~124(124p)

1. 1983.5.18. OAS(미주기구) 사무국은 미 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OAS 회원국 준비 회의에 한국 측 참가자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83.9월 외무부는 제14차 OAS 교육, 과학, 문화이사회 및 미주대륙발견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 회의(9.19.~24.)에 노창희 주미대사관 공사를 파견키로 결정

2.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OAS 회의(12.10.~12.) 결과

- 1992년을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국제기념일로 선포할 것을 OAS 사무국에 권유
- 회원국 간 자유로운 상호 여행 허용방안 강구
- 회원국 간 국경분쟁을 1992년까지 해결토록 촉구하기 위해 국경에 박물관, 학교 등을 설치 공동 관리하는 문제
- 콜럼버스 묘지 진위 판명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 과학적으로 조사 실시

3.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 참가 보고(정태식 주도미니카대사관 참사관 참석)

- 기념행사를 위한 구체적 토의 대신 주로 의제 수정 및 보완에 중점
- 행사 준비에 정치적 성격 배제, 문화 측면에 역점 분위기
- 동 행사를 전 세계적 국제행사로 확대 움직임
- 차기 회의 개최지를 워싱턴으로 결정
- 건의
  - 기념행사 관련, 각종 회의 참석 및 기여방안 강구
  - 신대륙 Miss America 선발대회 부상으로 한국산 승용차 기증

OAS(미주기구) 전문회의/기타회의, 1984

| 84-021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1 / 5 / 1~88(88p)

1. 1983.11.7. OAS(미주기구) 사무국은 1984.1.9.~14.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IANEC(Inter-American Nuclear Energy Commission) 총회에 한국대표단의 참가를 요청해 옴.

2. 1984.1.18.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주재국에서 개최된 제13차 IANEC 총회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최 일시 및 장소
- 1984.1.9.~13. 카라카스

❋ 참가 국가
- 회원국 20개국, 옵서버 5개국, 옵서버기구 2개 등 참가

❋ 주요 토의사항
- IANEC의 규칙개정, 84~85년간 사업계획 등 11개의 결의사항 채택
- 우라늄 광산 평가지역 프로그램의 보고(기술 심포지엄 개최)
- IANEC의 자문위 최종보고서 승인

3. 1984.5월 OAS 사무국은 제3차 국제사법에 대한 미주전문가회의(5.15.~24. 볼리비아)에 한국 측 대표의 참가를 요청해 옴.

❋ 외무부는 주볼리비아대사관 이원영 참사관이 동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토록 지시

4. 1984.5월 주볼리비아대사관은 주재국에서 개최된 제3차 미주 국제사법전문가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번 회의에 미국, 볼리비아, 브라질 등 18개국이 참가
- 한국과 일본 등 6개국은 옵서버로 참가

❋ 본 회의는 2개의 Working Group을 구성, 안건을 나누어 심의하였으며 상기 외에 운송에 관한 Working Group과 신임장 위원회를 구성

❋ 회의 중 3개 협약, 1개 추가의정서와 15개 결의안을 채택

❋ 금차 회의는 OAS 총회에 대하여 제4차 미주 국제사법전문가회의를 개최토록 할 것을 건의

OAS(미주기구) 상임 옵서버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관 파견, 1984

| 84-02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1 / 6 / 1~26(26p)

1. 1984.2월 외무부는 대 미주기구(OAS) 상임 옵서버활동 강화대책으로 주미대사관에 OAS 전담관을 상주시켜 아래 임무를 수행토록 지시함.

- OAS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 활동, 각급 회의참석 및 OAS 내 동정파악
- 국가이익과 관계되는 OAS 관련 각종 중남미 지역기구에 대한 접촉활동
- 각 회원국의 국내정세에 관한 최신정보에 대하여 미 국무성과 협조, 분석, 조정
- OAS를 중남미 전역에 대한 최신 정보센터로 활용, 북한 침투책동에 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책수립 및 이를 위해 미 국무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중남미지역 미수교국에 대한 외교교섭 추진

2. 1984.7월 주미대사관은 아래 요지의 OAS 전담관 활동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함.

- OAS 회원국, 상주 옵서버 국 대표부 접촉
- 중남미지역 국제기구, 미 국무성 접촉
- OAS 및 지역관련 국제기구 회의 참석
- 중남미 지역정세, 인력 진출 확대 방안 모색
- 친한 인사 저변확대, 북한침투 책동 저지노력 등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 84-021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11 / 7 / 1~138(138p)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4.3.19.~20. 주재국에서 개최된 EC 정상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분담금 감축문제에 대한 영국의 강경한 자세와 우유생산 감축의 국내 쿼터 조정에 대한 아일랜드의 불만 등으로 최종 결론에 실패
- ❋ EC 예산과 관련, 부가가치세, 관세수입 및 농산물 수입과징금 수입과 회원국 분담금 중 현행 부가가치 세수 1% 상한을, 1986년부터 1.4% 상한으로, 1988년부터 1.6% 상한으로 인상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 ❋ 분담금 문제 관련, 영국은 연 20억 ECU 중 2/3인 13.5억 ECU의 감축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타국들이 동의하지 않아 회의가 결렬

2. 1984.3.22. 주벨기에대사관은 금번 EC 정상회의의 실패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외무부에 보고함.

- ❋ EC 재정개편과 관련, 영국은 현행 분담금 20억 ECU에서 13.5억 ECU를 제외한 6.5억 ECU만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독일이 최초 연도 10억 ECU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영국의 강경자세로 결렬
- ❋ 공동 농업정책 관련 약 34억 달러에 달하는 우유생산 감소 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쿼터량은 차기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였으나, 아일랜드는 낙농이 주산업으로 1백만 톤의 추가쿼터를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하자 퇴장
- ❋ 영국은 EC와의 교역이 41%로 달하는 등 EC를 떠나 고립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차기 정상회의까지 구주통합을 위한 조화 있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

3. 더블린 EC 정상회의(1984.12.5.)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1986.1.1.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을 재확인
- ❋ 포도주 생산쿼터를 국별이 아닌 포도주 생산지역 별로 할당하고 쿼터 초과 포도는 공업용으로 전용하며 포도생산 농지를 여타 농지로 변경토록 장려보조금 지급
- ❋ 에티오피아 등 기타 4개국 식량 기근 국가들에 대하여 120만 톤의 곡물을 제공키로 결정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 1984

| 84-021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11 / 8 / 1~18(18p)

1. 주덴마크대사는 NORDIC(북구협력기구) Council 5개국 외상회의(1984.3.13.~14. 코펜하겐)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해 온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체르넨코 등장 이후 소련의 국내정세 및 대외정책 평가
- ❁ 미 · 소 간 동서대화 필요성 강조, 현실적인 대동구권 접촉을 통한 detente 기운 조성
- ❁ 북구 핵 자유지역 안은 덴마크 정부와 의회 간 견해차이로 앞으로 계속 논의
- ❁ 레바논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지지
- ❁ 이란-이라크 분쟁은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종래 입장 재천명

2. NORDIC Council 5개국 외상회의 추계회의(9.4.~5. Reykavik, 아이슬란드)에서 채택한 공동 코뮈니케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구주 안보협력회의 노력 지지
- ❁ 북구 핵무기자유지대 안 협의 계속
- ❁ 핵 확산 금지조약 이행 촉구
-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중동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
- ❁ 이란 · 이라크전 조속 종결 희망 및 걸프지역 선박안전 우려 표명
- ❁ 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및 나미비아 불법점령 규탄
- ❁ 인권문제 관련 유엔 및 비정부기관 노력의 중요성 강조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의, 1983-84

| 84-021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11 / 9 / 1~73(73p)

1. 1983.12월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은 주재국에서 개최된 OIC(이슬람회의기구) 외상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최 일시 및 장소

- 1983.12.6.~11. 방글라데시

❋ 주요 토의내용

- 이란・이라크전 문제 토의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4차 회교국 정상회의에 회부
- 회교도의 인권증진에 관한 선언문 채택
- 회교국 사법재판소 설치 결정
- OIC 재정관리 위원회 창설

❋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요지

- 팔레스타인 및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아랍 평화계획 지지
- 이스라엘이 모든 팔레스타인 및 아랍 점령 지역으로부터 무조건 철수를 위해 공동 노력
- 아프간으로부터 소련군의 즉각 무조건 철수 및 강력제재 촉구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미비아에 대한 계속 불법점령 강력 비난

2. 주모로코대사관은 주재국에서 개최된 OIC 정상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 1984.1.16.~19. 카사블랑카

❋ 주요 논의내용

- 이집트의 OIC 회원자격을 조건 없이 부활시키기로 결정
- 이란・이라크전 평화적 해결, 소련의 아프간 철수, 미・이스라엘 전략협력 비난 등
- 차기 정상회담(87년) 쿠웨이트 개최 결정
- Habib Chatty 사무총장 84년 말까지 유임 결정
- 하산 국왕, 예수살렘위원회(ICO 성지보존을 위한 산하기구) 위원장으로 재선

Klibi, Chedli 아랍연맹 사무총장 방한, 1984.6.13-15

| 84-021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11 / 10 / 1~220(220p)

1. 1984.4.13. 주튀니지대사는 1984.3.29. 개최된 아랍연맹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된 Chedli Klibi 아랍연맹 사무총장을 면담 이원경 외무장관의 축전을 전달한바, 동인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그간 각종 사정으로 연기된 방한 문제와 관련하여 아랍세계가 비교적 조용할 것으로 보이는 6월 회교금식 기간 중 방한을 희망함.

❁ Klibi 사무총장은 1982.2월 방한 예정이었으나 중동사태 악화로 방한이 연기

2. Klibi 사무총장은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984.6.13.~15. 방한하였으며, 동인의 방한 관련 외무부 중동국이 1984.5.16. 작성한 '중동문제에 관한 아국 입장' 자료 중 중동 평화문제에 대한 입장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중동문제는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은 용납 불가

❁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독립 주권국가 창설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권리는 인정

❁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1967년 이래 점령하고 있는 모든 아랍영토로부터 철수

❁ PLO를 팔레스타인의 유일대표 기구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

❁ 역내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독립과 평화로운 생존권은 존중

3. Klibi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방한 중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면담,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바, 동인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민의 통일염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하루 속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 한국의 경제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성공사례가 제3세계와 아랍권의 발전에 자극이 될 것임을 언급

❁ 이번 방한은 한국과 아랍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유익할 것이며, 한국의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에 아랍연맹이 측면 지원할 의사가 있음. 한국이 특수한 여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평화 문제에 있어서 아랍 측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는 데 사의를 표시

❁ 한국은 미국과 맹방관계이니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아랍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

❁ 한국의 대이란 무기지원설 해명을 적극적으로 신뢰

- 외무장관은 6.14. Klibi 사무총장 면담 시 일부 언론에서 한국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처럼 몇 차례 잘못된 보도를 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확고한 기본 정책은 분쟁 당사국에 대하여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임을 설명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1984

| 84-021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11 / 11 / 1~51(51p)

1. 프랑스와 아프리카 정상회담(1984.12.13. 주프랑스대사관 보고)

- 1984.12.11.~12. 부룬디 개최
-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은 차드 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에 관심을 보인 반면, 미테랑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경제문제에 역점
  - 미테랑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위한 특별기금이 창설될 것에 대비하여 프랑스는 5억 프랑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언급
- 차드 대통령은 차드의 분할 위기를 지적하고 리비아의 지속적인 개입 비난 및 리비아 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
-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고 있는 방위조약은 준수될 것이며 어떠한 침략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

2. MRU(마노강 동맹) 정상회의(1984.6.5. 주라이베리아대사관 보고)

- 6.1. 라이베리아 개최(기니, 시에라리온 및 라이베리아 정상 참석)
- MRU의 예산 확정 및 분담금 할당, Caine 사무총장의 연임(향후 4년) 등 협의

3. CEEAC(중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의 및 UDEAC(중부아프리카 경제 및 관세동맹) 회의 (1984.12.19. 주카메룬대사관 등 보고)

- 콩고 브라자빌 개최(CEEAC 12.18. UDEAC 12.20.)
- CEEAC 정상회의는 본부 소재지는 리브르빌, 사무총장은 자이르, 84~85년 의장직은 콩고가 맡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약 200만 달러의 85년도 예산을 확정
  - CEEAC는 아프리카인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EC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만들어 경제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봉고 대통령의 주도하에 1983.1.1. 리브르빌에서 창설되었으며, 가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콩고, 적도기니, 차드 등 10개국이 참여
- 1964.12월 창설된 UDEAC는 중앙아프리카, 가봉, 콩고, 카메룬 등 6개국이 참여

4. 제7차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의(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보고)

- 1984.11.22.~23. Lome 개최(토고, 코트디부아르, 기니, 세네갈 등 16개 회원국 참여)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특별기금 창설, 상업은행(Ecobank) 창설 등이 결정
- 1984.9월 미국 정부는 ECOWAS에 2억2천만 달러 상당을 지원키로 결정(에너지,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제공)

AAPSO (아시아 · 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회의, 1984

| 84-021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11 / 12 / 1~12(12p)

1. 1983.10.22. 주가나대사관은 아프리카 · 아시아 인민단결기구(AAPSO)의 아프리카지역 총회가 1984.2월 가나에서 개최키로 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AAPSO 사무국 대표인 Dancindi는 상기 결정은 동 기구의 대 서부아프리카 지지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언급

2. 1984.2.17. 주가나대사관은 주재국에서 개최된 AAPSO 서부아프리카 지역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회의 일시 및 장소
- 1984.2.15.~17. Accra

❁ 20개 회원국 대표 참석

❁ 가나 로링스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변국(Frontline States) 개입과 인종 차별 정책을 비난하고, 특히 서방국가 및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

❁ 개회식에는 가나 정부에서 Tawiah 위원, Ennin 위원, Chiri 위원, Kojo Tsikata 특별 보좌관 및 외상 등이 참석하고 외교단에서도 일부 참석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0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1984.11.12.-15. 전2권. V.1 1월-11.15

| 84-021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11 / 13 / 1~60(60p)

1. OAU(아프리카 단결기구) 제20차 정상회의가 1984.11.12.~15.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84.9.4.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함.

- ❋ 이번 회의의 주요 예상 현안은 서부사하라문제(폴리사리오 대표권 문제), 차드사태(내란 수습), 남아공문제(나미비아 독립), 대인접국 압력(보츠와나, 레소토), 사무총장 임명 등
- ❋ OAU 회의가 한반도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없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프리카 주재 공관에 북한 책동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
- ❋ 대책
  - 축전 발송: OAU 의장(대통령 명의), 사무총장(외무장관 명의)
  - 지원 검토: 케냐 개최 제17차 회의 때는 서류가방 150개(9,000달러 상당) 제공
  - 기타 88올림픽 등 홍보 책자 배포, 실무반 파견 검토 등

2. 제20차 OAU 정상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주에티오피아, 프랑스 대사관 등 공관 보고 종합).

- ❋ 서부사하라 문제 관련, 모로코는 폴리사리오 대표의 회의참석에 항의 OAU로부터 공식탈퇴를 선언한바, 자이르도 이에 동조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비난하고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유엔결의 435호의 이행을 촉구
- ❋ 극심한 한발위기, 아프리카 외채문제, OAU가 당면한 실질문제 논의에 중점
- ❋ 서부사하라 문제 관련, 모로코가 협상보다는 무력에 의한 해결방안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서부사하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
- ❋ 분석 및 전망
  - 이번 회의의 특징은 OAU의 분열을 야기시켰던 정치문제 대신 경제문제에 중점
  - 회의 의장국, 부의장국, 서부사하라 위원회 위원국의 대부분을 급진 강경파가 차지함에 따라 OAU는 당분간 강경파 국가들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 한국 정부는 신임 의장(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 및 Mengistu 에티오피아 군사위원장(구 의장)에게 대통령 명의 축전, Onu 사무총장 서리에게 외무장관 명의 축전 발송
  - 기타 OAU 사무국용 봉고차 2대 제공 및 외무부 동부아프리카 과장 현지 파견

3. 1984.11.16. Hassan 모로코 국왕은 임시국회를 소집, 모로코의 OAU 탈퇴배경에 대하여 폴리사리오의 OAU 가입으로 동 기구의 헌장과 합법성이 유린되었고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동 기구가 지혜를 회복하면 이에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0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1984.11.12.-15. 전2권. V.2 11.16-12월

| 84-021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11 / 14 / 1~330(330p)

1. 외무부는 1984.11.15. 제20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1984.11.12.~15. 아디스아바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의 경과

- 회의는 당초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1984.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1984.4월 동국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연기되어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 서부사하라 문제 관련, 모로코 대표는 폴리사리오 대표의 동 회의 참석에 항의, OAU로부터 공식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도 이에 동조
- 각국 대표들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비난하고,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유엔결의 435호 이행을 재촉구
- 차드 현정권의 대표권 부여를 저지시키려던 리비아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극심한 한발위기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문제,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 외채문제, OAU 재정적자 문제 등 실질문제 논의에 중점
- 이번 회의의 쟁점 중 하나였던 사무총장 선출은 급진파(말리 외상), 온건파(가봉 전 외상) 간의 치열한 경합으로 누구도 필요 득표를 얻지 못해 현 총장 서리가 유임 전망

❁ 평가 및 전망

- 이번 회의가 그동안 항상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문제에서 경제 등 실질문제 논의로 중점을 옮기게 된 것은 OAU의 단합 및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동 기구 설립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 탈퇴의 오점을 남겨 역내 분쟁 해결의 한계를 노출
- 이번 회의는 온건파 국가들이 행동통일을 보지 못한 데 비해 의장국, 서부사하라위원회 위원국의 대부분을 급진 강경파 국가들이 차지하여 OAU는 당분간 이들의 주도가 예상

2.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4.11.18. OAU 정상회의 결의안 중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사하라 남부 한발 피해국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 아프리카 역내 경제협력 및 일체성 강화
❁ 나미비아 문제해결과 앙골라 주둔 쿠바군 철수 연계 반대 등
❁ 고 간디 수상 조의 표명
❁ 중동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등 불법 점령지로부터 즉각 철수 및 이스라엘과의 일체 관계 수립 반대

3. 본 문서철에는 OAU 정상회의 관련 자료 및 해당 공관의 보고 전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최은희 · 신상옥 납북사건 진상 발표관련 각국 반응, 1984

| 84-022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4-11 / 15 / 1~416(416p)

1. 안전기획부는 1984.4.2. 납북 최은희 · 신상옥 관련 보도문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은희 · 신상옥은 북한 김정일의 지령에 따른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강제 동원
-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이들의 억류 사실조차 은폐해 오다가 미얀마(구 버마), 다대포사건 등으로 실추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회복을 위해 이들까지 동원하여 대남 침략공작을 획책
- 한국의 지도자와 고위층 인사를 비방 · 모략하는 '돌아오지 않는 밀사' 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 칸 영화제 등 국제 영화제에 출품
- 이들의 국내 가족인 형, 조카 등을 해외로 유인, 납치 입북을 도모
- 안전기획부는 상기 관련 보도자료를 3차에 걸쳐 발표(84.4.3.~4.)
  - 1차: 최은희, 신상옥 납치 경위, 재북 동향과 북한의 기도 및 저의
  - 2차: 납치주범 김정일의 정체 등
  - 3차: 북한이 자행한 19건의 해외 납치공작사건 등

2. 외무부는 4.5. 최은희 · 신상옥 납북사건과 관련, 외무부가 취한 조처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주홍콩총영사에게 북한에 대해 최 · 신 양인의 원상회복을 요구토록 하고, 북한공작원에 의한 불법행위 금지 및 이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홍콩 정청에 요구토록 지시
- 북한의 만행 규탄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전 재외공관에 지시
- IPU, ICRC, LRCS, UN 등 국제기구에도 북한 만행 설명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

3.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4.11. 최 · 신 양인이 요미우리 특파원과 회견, 자신들이 북한의 초청에 의해 자유의사로 북한을 방문하였음을 주장하였다고 보도함.

- 외무부는 상기 인터뷰 내용의 허위, 기만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홍보방침에 따라 북한의 저의를 폭로하도록 전 재외공관에 지시

홍콩인의 회현동 암달러상 살해사건, 1984

| 84-02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4-11 / 17 / 1~179(179p)

1. 주홍콩총영사관은 1984.7월 회현동 암달러상 최익훈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Chen Sai Kuen가 1984.7.18. 홍콩에 도착, 홍콩 경찰이 신병을 확보 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홍콩 법률에 따라 동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
- 다만, 인터폴 정신에 의거 상호 범증 확보에는 협조
- 외무부는 이번 사건이 정치범이 아닌 형사사건이며 범죄행위이므로 한국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동인을 인도해 줄 것을 교섭 지시

2. 치안본부는 1984.7.24. 홍콩 도주 범인의 형사소추에 따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영국 정부를 통한 홍콩 정부에의 압력
- 주홍콩총영사관에 의한 동일한 요구 및 진전 상황 점검
- 외무부 및 내무부의 긴밀한 협조와 일관된 대책강구 시행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4.7.27. 홍콩 당국에 대한 Chen Sai Kuen 처벌요청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 의견을 작성함.

- 홍콩이 동인을 인도할 근거가 없으며 영국, 홍콩(미국 등 common law 국가는 모두 동일)은 범죄인 인도협정 또는 agreement가 없는 국가에 범인을 인도 불가
  - 홍콩 근거법: 33 and Victoria code 52(1870)
- 홍콩 형법상 살인행위가 홍콩 내에서 발생하여야 홍콩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홍콩 법원은 살인죄를 동인에게 적용 재판할 수 없는 상황

4. 외무부가 암달러상 살인범 홍콩인 처벌문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홍콩 및 영국 측은 홍콩 법률상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범죄인 처벌이 곤란함을 표명
  - 한 · 홍콩 간 범죄인 인도조약 부재로 인도 불가
  - 홍콩 형법의 속지주의 원칙 적용으로 외국 발생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불가
- 주홍콩총영사관 및 주영국대사관에 어떠한 경우라도 명백한 살인범이 무죄방면되는 것은 국제범죄를 조장하고 국제사법 정의 위반처사로서 유감된 일임을 강력히 전달하고 범인에 대한 엄중처벌을 교섭토록 지시하는 한편, 홍콩 및 영국 측 반응을 보아가며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

일본 방송위성 발사에 따른 전파송출 문제, 1984

| 84-022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4-12 / 1 / 1~199(199p)

1. 주일대사관은 1984.1월 일본 방송위성 발사문제에 관해 일본 우정성 관계관과 접촉한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1.23. 발사된 일본 방송위성은 일본 내 산간벽지 및 낙도 등 난시청 해소가 주목적
- 동 위성 BS-2a의 출력은 국제기준치 미달이며, 한국 내 대중시청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
- BS-2a의 경우는 한국 내 직접 영향 별무로 당면한 문제는 없으나 1988년 재발사될 일본위성의 경우는 출력이 강해 한국 내 일반대중의 시청이 용이해져 일본 문화의 유입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외무부는 1984.2.6. 일본의 방송위성 발사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일본의 방송위성 대상지역은 일본 국내로 한국에의 전파 침투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출력도 기준치 미달이므로 한국 내 시청은 거의 불가능
- 그러나, 전자기술의 발달로 일본의 제2차 방송위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관계기관 간 협의체 설치, 유기적 정책수립과 집행체제 정비가 요망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84

| 84-022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12 / 2 / 1~121(121p)

1. 일본 후생성은 1983.12.23. 1984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치료에 관한 일측 일정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하면서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 동 스케줄에 따르면 한국 요청에 따라 1984년도 치료인원이 10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종래에는 연 3회 도일 치료를 하였으나 1984년에는 연 5회 실시

- 일측은 동 스케줄에 따른 도일 치료자 명부를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

❁ 1984.1.5. 보사부는 원폭환자 치료에 관한 일측 안에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제1회 도일 치료환자 20명의 명부를 외무부에 송부

- 외무부는 1984.1.10. 동 명부를 주일대사관에 송부, 대사관 직원이 히로시마에 출장 동 명부에 따라 원활한 치료가 되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
- 도일 치료자들은 히로시마 원폭병원(12명) 및 나가사키 원폭병원(8명)에서 분산 치료 예정

2.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은 1983.4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치료에 진력한 일본인 의사 가와무라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건의함.

❁ 1984.1.25. 동인은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

3.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원폭피해자의 제2~5차 도일치료와 관련된 보사부, 외무부, 일본주재 공관 간 협조요청 공문 및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음.

❁ 대통령 방일에 따른 진정서(1984.8.23.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 한일 · 일한 의원연맹 제10차 합동총회 공동성명(1982.12.21. 도쿄)
❁ 한 · 일 의원연맹 제10차 합동총회 기조연설(1982.12.21. 간사장 이상익)
❁ 재일한국인의 법적 ·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하여(1982.12.21. 국회의원 김재호)

한국해군에 의한 일본어선 위협 사격 사건, 1983-84

| 84-022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12 / 3 / 1~153(153p)

1. 주한 일본대사관 수다 1등서기관은 1983.8.5. 외무부 동북아1과 임성준 서기관에게 연락, 동해안 대간첩작전 중 일본선박 2척이 한국 해군함정으로부터 위협사격을 받았으며 어선 외 3척도 위협을 받았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해 옴.

2.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3.8.8. 주한일본대사관 야나이 공사에게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 ❋ 한국 측은 간첩선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을 명하였으나 불응, 도주함으로써 교전규칙에 따라 정선시키기 위하여 위협 사격한 것이며 일본 선박임을 확인 후 즉시 항해토록 조치
- ❋ 이번과 같이 북한의 간첩선 침투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임을 일측에서도 이해해 주기 바라며, 한국 연근해에 출어하는 일 선박에 대하여 유사사태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
- ❋ 8.23.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는 일본 외무성 하시모토 아주국장을 면담, 상기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

3. 일본 외무성 오구라 동북아과장은 1983.10.17. 주일한국대사관 김용규 정무과장에게 10.17. 대마도 북단 공해상에서 한국 함정이 일 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10.18.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일본대사관 야나이 공사에게 일 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 관련, 조사결과를 설명
  - 해군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10.17. 간첩선으로 보이는 괴선박을 발견, 정선을 명하였으나 동 선박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부득이 경고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감으로 생각
  - 최근 버마사태 등으로 전군이 비상경계 태세에 있으므로 일 정부도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
- ❋ 10.19. 일본 외무성 북동아 과장은 주일대사관 사부성 1등서기관에게 조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한국 측은 정선요구 시 가능한 한 실탄은 발사하지 말고, 공포탄 발사 등 여타 경고 조치에 한정해 줄 것을 희망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1 1983.9.3-20

| 84-022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구과
MF번호	2014-12 / 4 / 1~193(193p)

1. 교통부는 1983.9.3. KAL기 사건 합동조사단 현지파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해 옴.

❁ 일시 및 장소
- 1983.9.3.~7. 일본 북해도 지도세 공항

❁ 조사단
- 외무부(1), 교통부(2), 기타(2), KAL(8), 기자단(30) 등 총 43명

❁ 업무 예정사항
- 항공기와 지상관제 기관 간의 통신내용 녹음청취
- 관제사 의견청취, 수색구조 현황파악
- 사고현장 확인 및 자료수집, 목격자의 증언청취 등

2. 외무부는 1983.9.10. KAL 여객기 잔해 수색작업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미측은 KAL기 잔해 및 블랙박스의 수색 및 인양 작업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예정

❁ 동 수색 및 인양 작업은 사고지점 부근 공해상에서 미국 선박 2척에 의하여 실시될 것이며, 동 수색선에 소수의 한국 관계자가 동승

❁ 미 전문가들은 동 수색 및 인양 작업을 1개월간 실시할 경우 소요경비를 약 15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성공 전망은 1/10 정도 예상

❁ 동 수색작업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경비 문제에 관하여는 대한항공측과 긴밀히 협의

3. 주한 일본대사관은 9.10. 유체처리 절차를 외무부에 통보해 옴.

❁ 유체처리 절차 관련 일본 측 입장
- 일본 측이 유체를 수용한 경우, 해당 보안청과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처리
- 신원 판명된 경우, 일본인은 검사종료 후 유족에게 인도하고, 외국인은 유족 또는 영사관 등에 인도
- 신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본인이든 외국인 어느 경우에나 시 · 정 · 촌에 인도

❁ 한국 입장
- 유체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능한 한 단일 수용 장소에 일정기간 안치하여 유족에의 인수에 편의 도모
- 한국 측은 신원 확인을 위해 전문가 팀을 파견할 계획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2 1983.9.21-26

| 84-022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구과
MF번호	2014-12 / 5 / 1~211(211p)

1. 외무부는 1983.9.21. 소련의 KAL 피격여객기 잔해반환 관련, 그간의 진전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 소련은 피격 여객기 잔해를 9.26. 사할린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인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 한국 측은 동 인수단에 한국 대표가 참여토록 미 · 일 측에 요청
- ❋ 소련이 인계하고자 하는 물품을 한국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피격 여객기에 속하는 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수
- ❋ 한국 측은 동 수색작업에 미 · 일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을 재천명하는 성명 발표

2. 외무부는 1983.9.23. 소련의 KAL 피격 여객기 잔해 인도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 ❋ 정부는 9.1. 소련 전투기에 의해 불법 격추된 KAL 여객기의 잔해 및 유류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한국에 속함을 언급
- ❋ 정부는 미국 및 일본 정부를 통해 소련 측에 한국 대표단의 동 잔해 인수단 참여를 강력히 요구
- ❋ 이는 소련이 인계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국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들에 의해 피격 여객기에 속하는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인수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

3. 외무부는 1983.9.25. 소련이 KAL기 잔해 인수단에 한국 대표의 참여를 거부한 데 대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 ❋ 소련이 KAL기 잔해와 유류품 인수단에 한국 대표의 참여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만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기도로 한국 국민과 전 세계 평화애호 국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음
- ❋ 외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참여를 거절한 것은 인류역사에 그 예가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3 1983.9.27-10.5

| 84-022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구과
MF번호	2014-12 / 6 / 1~208(208p)

1. 외무부는 1983.9.28. 소련으로부터의 KAL기 유품 인수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KAL기 유품 인수를 위한 미 · 일 인수단은 소련 측으로부터 항공기 잔해 및 유품 76점을 인수하고 인수선이 북해도 북단 왓카나이 항에 기항 시 한국 대표단 4명이 승선하여 물품을 확인
- 동 인수선에는 당초 ICAO 대표도 승선하였으나 네베리스크 항에서 상륙하지 못하고 인수선 내에서 대기
- 상기 항공기 잔해 및 한국 희생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유품은 ICAO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도록 조치

2. KAL 피격 여객기 black box 수색 결과, 제반 기술적 난제로 black box 인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국 측 통보를 1983.9.29. 접수함.

3. 외무부는 10.4. KAL기 기체 관련 물품인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함.

- 피격된 KAL 기체 관련 물품을 10.6. 홋카이도 치도세 공항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할 예정
- 동 물품들은 일본 당국이 회수한 물품과 일 · 미 양국 정부가 소련으로부터 인수받은 물품으로 구성
- 상기 인도에 있어, 한 · 일 양국 대표단 간에 인도 증서에 서명할 예정
- 인도된 물품은 대한항공 특별기 편으로 한국으로 운반되며 사고원인 조사에 참고하고 ICAO 조사단에게도 공개될 예정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V.4 1983.10.6-84.7월

| 84-022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동구과
MF번호	2014-12 / 7 / 1~224(224p)

1. KAL 잔해 인도에 관한 문서에 1983.10.6. 주삿포로총영사와 일 외무성 영사 이주부 외무참사관이 서명함.

- 일측으로부터 총 743점의 기체 관계 물건을 인도

2. KAL기 사건 관련 삿포로 유품전시장 참관단 파견

- 일시
  - 11.9.~10. 대한항공 특별기 편
- 인원
  - 유족 149명, 대한항공 인솔단 5명, 승무원 16명 등
- 방문 장소
  - 삿포로시 북해도 도청
- 유품
  - 336점

3. 외무부는 1983.11.4. KAL기 잔해 수색작업 진전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블랙박스의 인양 전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조만간 동 수색작업을 종료시킬 것을 제의
- 동 제의에 따라 동 수색작업의 종료에 동의하고 공식 발표 시기 및 발표 문안은 미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4. KAL기 사건 관련 한 · 미 · 일 3국 협의개최 결과 (11.6.)

- 소련의 옵서버 접수 용의에 대한 평가
- 한 · 미 · 일 3국의 단계적 대책 합의
- 옵서버 구성 및 사전 대소 접촉에 대한 각국 입장 조율

5. 한 · 미 양측은 1983.12월 KAL기 유품 인수단에 한국 참여를 소련 측에 요청키로 합의함.

- 소련 측은 예상대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
- 인도 시기는 12.20.이며 인도 장소는 네베리스크로 예정

6. 주삿포로총영사는 1984.1.11. 제2차로 일측으로부터 1983.12.20. 인수한 피격 KAL기 기체파편 및 유품을 외무부로 송부함.

- 기체파편(55점), 유품(9점) 등 총 64점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1 1-6월

| 84-022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북미과
MF번호	2014-12 / 8 / 1~269(269p)

1. 영국의 가디언지는 1983.12.17. 007: Licence to Kill 제하의 기사에서 KAL기를 첩보행위에 이용한 미국이 오히려 KAL기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1983.12.21. 가디언지는 동 주장에 반박하는 하기 2명의 독자투고를 게재함.

❁ Goodhart 영국하원 의원
- 소련 요격기의 전자 감시망 체제는 정보 수집을 위한 직접적인 상공비행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반박

❁ Sheila Oakes(National Peace Council)
- 소련 전투기가 적절한 요격절차를 행하기 위해서는 KAL기와 병행 비행을 하면서 예광탄 발사를 하였어야 하며 이 경우 KAL기 조종사가 요격신호를 인지하고 착륙에 응하였을 것이라 언급

2. 주일대사관 양세훈 참사관은 1984.1.24. KAL기 사건 관련, 일본 외무성 소련 담당관과 접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소련은 미국의 대소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KAL기가 소련 영공을 비행한 것으로 생각 (미국과 KAL기 기장 간 계약행위이며 한국 정부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

❁ 소련은 버마사건 전 북한의 휴전선상 군대배치가 상당히 남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바,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무력으로라도 이를 저지하려고 했을 것이라 언급

❁ 소련은 KAL기 사건에도 불구, 소련의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

3. 외무부는 1984.2.6. KAL기 희생자 위령탑 건립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수립함.

❁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령탑을 건립한다는 것은 유가족들의 대한항공, 나아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 존재

❁ 위령탑이 전체 KAL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희생자 소속 모든 국가와 사전 협의를 행함이 바람직

❁ 위령탑 건립 주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이나 정부 당국이 아닌 사회단체가 주동이 됨이 좋을 것으로 판단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2 7월-8.20

| 84-02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북미과
MF번호	2014-12 / 9 / 1~259(259p)

1. 외무부는 1984.7월 KAL기 피격 해상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사건 1주기 위령제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 최근의 동서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 동향 등을 감안, 정부 주도하에 위령제를 추진하는 것은 그 기대효과나 추진방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 ❋ 일본인 유가족들만의 위령제가 실현될 경우, KAL기 사건에 한국 정부가 무관심하며 소극적이라는 등 대한항공이나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 ❋ 일본 측의 사고현장 위령제 개최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KAL 측이 일본 유족회 측과 협의토록 추진하고 교통부에서 이를 측면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1984.8.11. Nation지는 Pearson의 KAL기 사건연구 분석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

- ❋ 미 공군, CIA, NSA, 북미 방공사령부, 국방성 등이 사전 KAL기의 항로이탈 및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경고하지 않음
- ❋ KAL기의 소련 영공진입은 미국의 좋은 대소 첩보 수집기회이므로 항로이탈을 방치함으로써 이를 이용
- ❋ KAL기의 앵커리지 출발 40분 지연은 의심스러우며 연료 재보급은 불필요 상황
- ❋ 소련 SU-15기 조종사는 요격 절차에 따라 점등 및 기타 조치를 취했으나 KAL기 조종사는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 도주 행위

3. 외무부는 1984.8.13. KAL기 사건 1주기에 즈음한 정부입장을 발표함.

- ❋ 소련이 경고 또는 강제착륙 등의 조치 없이 민항기를 격추시킨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우방국들과의 협조하에 소련에 대해 사과, 해명, 배상,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등 국제법에 따른 제반책임 이행조치를 촉구
- ❋ 그러나, 소련은 아직까지 한국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있어 심히 유감
-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국과의 협조하에 동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 등을 소련에 계속 추궁해 나갈 계획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3 8.21-9.5

| 84-023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북미과
MF번호	2014-12 / 10 / 1~193(193p)

1. 외무부는 1984.8.21. 대한항공기 피격 1주년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사건 1주기에 즈음한 정부 대변인 성명에 한국의 기본입장을 포함시켜 소련의 배상을 재차 촉구
- 미국 작가 Hersh의 첩보행위 수행설을 줄거리로 한 소설은 출간되지 않도록 노력
- 시카고협약 개정안은 조기비준이 바람직하나,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국방부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비준
- 사건 발생 1주년 성명은 발표하되 대소 관계를 고려, 지나치게 소련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2. 외무부는 1984.9.3. KAL기 사건에 대한 소련 측 반응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83.11월부터 소련의 KAL기 사건에 대한 선전활동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지난 84.8.25.부터 소련은 대내외적인 선전활동을 재개
- 소련 측 주장은 물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측 설명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서방 언론들의 자료를 다수 활용
- 소련 정부성명서(9.6.)
  - 소련 요격기가 경고 발사를 하며 인근 비행장 착륙을 유도하려 했으나 KAL기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추격을 피하려 한 결과, 지역사령부는 KAL기를 특수임무 수행 중인 첩보기로 결론을 내려 요격기들은 비행을 중지시키라는 지상 관제소의 명령을 수행
- 소련군 참모총장 기자회견(9.9.)
  - 이번 영공침범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정보작전에 따른 고의적인 것이며 침범기는 캄차카 반도의 주요 전략핵기지 인근을 비행, 지상관제소 및 소련 전투기의 조회에 불응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V.4 9.6-11월

| 84-023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북미과
MF번호	2014-12 / 11 / 1~246(246p)

1. 전 재외공관은 KAL기 사건 1주년에 즈음하여 유가족의 애도 모습, 소련의 반응 등에 관한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외무부에 송부함.

2. 교통부는 1984.9.12. KAL기 사건 현지 위령제를 위하여 대한항공 특별기의 일본 치도세 공항 착륙허가, 일본 순시선 파견요청 수락 등을 협조해 주도록 외무부에 요청해 옴.

- 참가자는 국내 희생자 유가족 89명, 종교인 2명, 수행 및 인솔 7명, 승무원 15명 등 113명
- 주한 일본대사관 측의 협조 내용
  - 특별기의 치도세 공항 착륙 허가
  - 일본 순시선 파견 요청 수락
  - 현지 해상 위령제 예정을 소련 정부에 통보
- 9.20. 외무부는 대한항공 특별기의 치도세 공항 착륙이 허가되었음을 교통부에 통보

3. KAL 사건을 다룬 책자 '격추'의 저자인 야나기다 구니오 씨는 1984.10.9. 도쿄 외신구락부에서 KAL기의 항로 이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취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항로이탈 원인은 INS의 스위치 조작 미스일 것으로 추정
- KAL기 주조종사가 R20 항로를 비행하려 했다는 의도는 확인되었으나 KAL-007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은 근거가 희박

4. 주뉴욕총영사관은 1984.10.19.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최된 KAL기 사건 세미나에서 강석원 교수(미국 Hartwick대 정치학과 교수)가 Thought on the Conspiracy Hypothesis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강 교수의 발표문 요지는 아래와 같음.

- KAL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따른 소련 요격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했고, KAL이 도망갈 기회를 찾으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
- 소련만이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킨 유일한 국가는 아니라고 언급
- KAL기 사건에 관한 UN 안보리의 결의는 미국의 승리로 보였지만, 근소한 차이의 다수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희박
- 동 교수의 의도는 미국의 유죄성 여부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KAL기 사건 토의를 위한 정치적, 역사적 context를 설정하려는 것

바티칸 교황 메시지, 1984

| 84-023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12 / 12 / 1~27(27p)

1983.12.23. 주한 교황청대사를 통해 입수한 교황의 84년 신년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계는 테러와 긴장으로 충만
- 분쟁의 근원은 인간정신에 내재한 죄악
-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인바, 공평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의 자유, 부자와 빈자 간의 유대감을 동반하는 평등 관념, 인간 상호 간의 믿음과 동족애가 그것에 해당
-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 다른 국민들 간에 평화로운 관계가 수립, 발전되도록 노력
-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각국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정력을 세계 평화를 위해 쏟기를 호소

한 · 일본 간의 서신 교환, 1984

| 84-023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12 / 13 / 1~76(76p)

1984년 대통령, 외무장관 등 한 · 일간에 교환된 15건의 서신이 편철되어 있음.

- ❁ 이원경 외무장관의 일본 개각인사 축전에 대한 답신(1.9.)
- ❁ 이수이 일 · 한 의원 연맹회장 방한 후 귀국 인사(2.24.)
- ❁ 전두환 대통령의 나카소네 수상 앞 선물 감사 서한(7.9.)
- ❁ 아베 외상의 노태우 올림픽 조직위원장 앞 방한 귀국 인사(7.10.)
- ❁ 아베 외상의 이원경 외무장관 앞 방한 귀국 인사(7.10.)
- ❁ 나카소네 수상의 경제사절단 관련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10.1. 및 10.13.)
- ❁ 김재춘 아주국장의 고토 아주국장 앞 서한(10.23.)
- ❁ 아베 외상의 이원경 외무장관 앞 일 · 북한 관계 설명(10.30.)
- ❁ 나카소네 수상의 전두환 대통령 앞 자민당 총재 재임명 축하에 대한 감사 메시지(11.2.)
- ❁ 일본 재임용 각료의 한국 측 축전에 대한 감사 메시지(11.2.)
- ❁ 나카소네 수상의 전두환 대통령 앞 일 · 북한 관계 설명(11.28. 및 11.30.)
- ❁ 전두환 대통령의 니시다 오오도오 부회장 앞 서한(12.13.)
- ❁ 이상옥 외무차관의 나카시마 외무심의관에게 호주대사 임명 축하(12.18.)
- ❁ 나카소네 수상의 전두환 대통령 아들 결혼 축하 메시지(10.26. 및 12.28.)
- ❁ 고 유시바 전 외무성 고문에 대한 조전(12.31.)

한 · 미국 대통령 간의 친서교환, 1981-84

| 84-0235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2 / 14 / 1~148(148p)

1981~84년 한 · 미 대통령 간 교환된 친서가 편철되어 있음.

1. 1981년도

- 전두환 대통령의 레이건 미 대통령 취임 축하 서한(1.20.)
-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방미 초청 서한(1.20.)
-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초청 수락 서한(1.22.)
-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중 환대에 감사 서한
- 레이건 대통령의 전 대통령 방미 시 선물에 감사 서한(3.13.)
-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취임 축하 서한(2.28.)
- 전두환 대통령의 레이건 대통령 쾌유 기원 서한(3.31.)
- 전두환 대통령의 콜롬비아호의 성공적 귀환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 앞 축전(4.14.)
- 전두환 대통령의 레이건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 복귀 축하 서한(4.27.)
-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서한에 감사 회신
- 전두환 대통령의 미 독립기념일에 즈음한 축하 서한(7.4.)
- 전두환 대통령의 한미관계 설명 및 레이건 대통령 내외 방한 초청(9.21.)
-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 수락 서한(10.8.)

2. 1982년도

- 전두환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제의 지지 요청 서한(1.22.)
- 레이건 대통령의 대북제의 지지 회신(1.30.)
- 전두환 대통령의 레이건 대통령의 71회 생신 축전(2.6.)
- 전두환 대통령의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 성과 평가(3.30.)
- 레이건 대통령의 한 · 미 수교 100주년 경축 서한(4.21.)
- 레이건 대통령의 한 · 미 수교 100주년 경축식에 Lemnitzer 장군일행 파견 서한(5.17.)
- 전두환 대통령의 한 · 미 수교 100주년 경축식에 축하사절단 파견에 감사 서한(6.10.)
- 레이건 대통령의 한 · 미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축하(7.24.)
- 레이건 대통령의 대통령내외의 아프리카 순방 후 앵커리지 기착 환영 메시지(8.31.)

3. 1983년도

- 전두환 대통령의 한국이 레바논 다국적 평화군에는 참가할 수 없으나 레바논 평화정착과 복구를 위한 비군사적 분야에서 협력용의 표명(1.6.)

❋ 전두환 대통령의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 결과 설명(1.13.)
❋ 부시 부통령의 한 · 일 관계개선 경하(1.25.)
❋ 전두환 대통령의 부시 부통령의 구주순방 성과 경하(2.3.)
❋ Jesse Helms 상원의원의 한 · 미 상호방위 조약 30주년 기념 결의안 설명(5.2.)
❋ 레이건 대통령의 한반도 유사시 한국 지원 다짐(5.12.)
❋ 레이건 대통령의 독립 207주년 기념 축전에 감사
❋ 레이건 대통령의 광복절 축하 메시지(8.11)
❋ 레이건 대통령의 그레나다에서 미국의 군사행동 지지에 사의(11.2.)
❋ 레이건 대통령 부부의 한국방문 시 환대에 감사 서한(12.22.)

4. 1984년도

❋ 레이건 대통령의 도날드 리건 재무장관 한국방문 설명(3.15.)
❋ 전두환 대통령의 도날드 리건 재무장관 방한성과에 감사(4.2.)
❋ 레이건 대통령의 광복절 축하 메시지(8.10.)
❋ 전두환 대통령의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에 대한 차량 테러 위로 서한(9.21.)
❋ 레이건 대통령의 베이루트 차량 테러 위로에 감사(10.4.)
❋ 레이건 대통령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증가에 우려 표명(10.4.)
❋ 레이건 대통령의 미 · 소 간 군축협상 진전사항 설명(11.22.)
❋ 전두환 대통령의 미 · 소 간 군축협상 설명에 사의
❋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 축하 메시지에 사의(12.8.)

한 · 캐나다 외무장관 회담. New York, 1984.9.28

| 84-023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3 / 1 / 1~64(64p)

1. 주캐나다대사는 1984.9.7. 외무장관이 유엔 방문 후 캐나다를 방문해 주도록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외무장관의 캐나다 방문을 10.5.경 추진하도록 주캐나다대사에게 지시
- 한 · 캐나다 양국은 9.28. 외상회담 개최에 합의

2. 한 · 캐나다 외상회담 준비를 위한 각종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 Clark 외상 인적사항
- 남북대화, 태평양 협력
- 경제 · 통상 관계
- 멀루니 수상 및 클라크 외상 방한초청

한 · 벨기에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4.10.29-30

| 84-023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13 / 2 / 1~224(224p)

1. 주벨기에대사는 1984.8월 한국과 벨기에 간 정책협의회를 10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토록 외무부에 건의함.

- ❋ 벨기에 Roelant 외무차관은 10.29.~30.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온바, 외무부는 동 제의에 동의
- ❋ 10.1. 벨기에 측은 Roelant 차관이 참석 못하게 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수석대표로 Nothom 아주국장을 지명

2. 외무부는 1984.10.30. 제4차 한 · 벨기에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 EC 회원국으로서 주요 서구 우방국인 벨기에 고위 정책 입안자에게 최근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여 벨기에 측의 이해와 지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
- ❋ 벨기에 측은 소련 등 동구제국이 대한국 정책을 변경할 때까지 서구제국의 대북한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국 입장을 EC 아주국장 회의에서 설명하여 EC 제국의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약속
- ❋ Nothomb 아주국장의 방한 기회에 훈장을 수여하는 등 환대 및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벨기에 외무성과의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추진

3. 한 · 벨기에 정책협의회 준비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한 · 캐나다 정책협의회, 제2차. Ottawa, 1984.9.20-21

| 84-023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3 / 3 / 1~343(343p)

1. Davison 캐나다 외무성 동아관계 과장은 1984.2.9. 외무부 북미과장 면담 시 한 · 캐나다 정책협의회를 9월 중순 개최하자는 한국측 제의에 동의함.

❁ 일시 및 장소

- 9.20.~21. 오타와

❁ 수석대표

- 한국 측은 한우석 제1차관보, 캐나다 측은 Kilpatrick 외무성 아 · 태 담당 차관보

2. 오타와에서 1984.9.20.~21. 개최된 한 · 캐나다 정책협의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

❁ 캐나다 측은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한국의 급격한 국력신장과 외교역할 확대에 심심한 경의를 표시

❁ 캐나다 측은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처리에 있어 한국 정부가 보여준 자제와 슬기를 높이 평가

❁ 태평양 협력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으며 한 · 아세안 관계강화를 위한 캐나다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캐나다 측은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계획 참여를 위한 측면지원을 다짐

❁ 캐나다 측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 한 · 캐나다 정책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종래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동의

3. 한 · 캐나다 정책협의회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한 · 독일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4.12.11-12

| 84-02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13 / 4 / 1~186(186p)

1. 1984.10월 주독대사는 독일 외무성이 양국 정책협의회를 12.10.~11.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10.25. 외무부는 독일 측의 상기 제의를 수락하고 회의 의제는 국제문제, 한반도 정세, 쌍무관계를 협의할 것을 제의

2. 서울에서 12.10.~11. 개최된 제4차 한 · 독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정책협의회는 독일의 고위 정책입안자에게 북한의 평화 제스처를 통한 대서방 접근 책동을 설명하였으며 독일 측은 이에 대해 확고한 한국지지 태도를 표명

❋ 북한 황장엽 노동당 중앙위 서기 일행의 방독은 제1야당인 사민당 국제부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독일 정부가 간여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대한 기본정책의 불변을 재차 강조

❋ 겐셔 독일 외상은 외무장관 앞 친서를 통해 1985년 방한 희망을 표명

❋ 독일 측은 독일에 한국문화원 설치를 권유하였으며, 한국 언론인들을 1985년도에 방독 초청할 의사를 밝히는 등 한 · 독 문화교류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

3. 제4차 한 · 독 정책협의회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한 · 일본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2차. 동경, 1984.12.11. 전2권. V.1 기본문서

| 84-024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13 / 5 / 1~129(129p)

1. 1984.6월 일 외무성 하타노 중동아프리카 국장은 한국과 일본 간 아프리카 정책협의회를 9월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한국 측 사정으로 10월 이후 재협의할 것을 통보

❁ 11.6.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는 한 · 일 아프리카 협의회를 12월중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12.10.~12. 개최키로 합의

2. 제2차 한 · 일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회의록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일측 설명

- 아베 외상은 아프리카 한발현황 파악과 식량위기에 따른 원조제공 목적으로 11.14.~23. 잠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를 방문
- 일본의 대아프리카 원조는 기 약속한 1억 1,500만 달러에 5천만 달러를 추가하여 1억 6,500만 달러를 원조키로 한바, 식량, 농업기자재, 비료, 기간산업용 중기기증 식량 및 농업관계 원조를 실시할 계획

❁ 한국측 설명

-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기조 및 원조현황을 설명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4개국 중 미수교국이 15개국인바, 기니, 앙골라, 잠비아 등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의 수교에 측면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북한의 침투현황 설명
- 비동맹 외상회의가 85.9월 앙골라에서 개최 예정이며 한국인의 앙골라 입국이 불가능하여 일측의 협조 요망

한 · 일본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2차. 동경, 1984.12.11. 전2권. V.2 자료

| 84-02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13 / 6 / 1~288(288p)

1. 제2차 한국과 일본 간 아프리카 정책협의회(1984.12.10.~12. 도쿄) 관련, 아래 자료가 편철되어 있음.

- ❋ 아프리카 정세
  - 지역별 주요정세, 한국 관심사항
- ❋ 한 · 일의 대아프리카 관계
- ❋ 아프리카에서의 남북한 현황
- ❋ 한 · 일 간 협조사항
- ❋ 일본의 대아프리카 관계(84.11월, 주일대사관)

2. 한 · 일 아프리카 정책협의회에 대비, 1984.10.18. 주일대사관은 일본의 대아프리카 농업원조 현황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농림 수산성은 아프리카의 농업기술 및 자연 · 사회 환경실태, 사막에서의 관개 · 물 관리, 사막 주변의 식림조성 등을 통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85~87년간 매년 4개국씩 총 12개국에 전문가 파견 예정
- ❋ 농업기술 협력형태는 농업연수생 접수, 농업전문가 · 조사단 및 청년 해외협력대원의 파견, 농업기자재 공여사업, 프로젝트 방식에 의한 농림 수산업 협력사업 등 4가지가 기본

한 · 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4.3.2

| 84-0242 |

생산연도	1979-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13 / 7 / 1~325(325p)

1. 1979.7월 한 · 일 양국은 한 · 일 정책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합의함.

- ❁ 한 · 일 외교정책 당국자의 양국 간 현안문제 협의, 세계적 및 지역적인 정치, 안보, 경제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
- ❁ 양국의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연 1회 번갈아 개최

2. 한국 측은 1984.2.8. 제1차 한 · 일 정책협의회를 3.2.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일측이 수락한바, 양측이 합의한 의제는 아래와 같음.

- ❁ 한국측 주도
  - 랑군 사건 이후 북한의 최근동향
  - 북한의 소위 3자회담 제의와 한국입장
  - 한국의 대 중국(구 중공) · 소련 관계 현황과 평가
- ❁ 일측 주도
  - 체르넨코 등장 이후 미 · 소 관계 전망
  - 중국의 국내정치 사정
  - 최근 중동사태 평가 및 전망

3. 서울에서 1984.3.2. 개최된 제1차 한 · 일 정책협의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대표단
  - 한국측: 이상옥 외무부 제1차관보, 김재춘 아주국장, 김석우 동북아1과장 등
  - 일본측: 나카지마 도시지로 외무성 외무심의관(수석대표), 야나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등
- ❁ 일측 수석대표에게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카소네 수상의 방중 시 한국 입장을 전달함과 아울러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구 중공)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
- ❁ 양측은 외교협의회를 통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이 외교정책 수립에 매우 유익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차기 협의회 개최 시기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 결정

4. 제1차 한 · 일 정책협의회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한 · 스웨덴 정책협의회, 제1차. Stockholm, 1984.9.18

| 84-0243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13 / 8 / 1~209(209p)

1. 1984.7월 외무부는 한 · 스웨덴 정책협의회를 9월중 스톡홀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7.18. 스웨덴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은 정책협의회를 9.24. 개최할 것과 의제는 한 · 스웨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국 측 평가, 스웨덴 주변정세 등으로 할 것을 제의
- 7.20. 한국 측은 개최 일자를 9.17. 또는 9.18. 중 택일할 것을 제의한바, 스웨덴 측은 9.18. 개최에 동의

2. 스톡홀름에서 9.18. 개최된 제1차 한 · 스웨덴 정책협의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
- 스웨덴 측은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도 관심을 표명
- 스웨덴 측은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에의 계속적인 참여를 다짐하였고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한국과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
- 스웨덴과의 관계증진은 향후 북구제국 등과의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3. 한 · 스웨덴 정책협의회 자료(각 실국 종합)가 첨부되어 있음.

한 · 미국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4.10.30-31

| 84-024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3 / 9 / 1~377(377p)

1. 외무부는 1984.7.11. 제4차 한 · 미 정책협의회를 10.29.~11.3. 기간 중 2일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8.20. Engel 주한 미대사관 1등서기관은 동 정책협의회를 10.30.~31.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동의
- 의제는 소련의 세계전략 및 구주정세, 동북아정세, 북한정세 및 각 지역정세 등으로 합의

2. 서울에서 1984.10.30.~31. 개최된 한 · 미 정책협의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세계정세 전반에 걸친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교적 협력의 확대를 다짐
- 한국 측은 최근 북한의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의 기본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의 성급한 대북한 접근이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
  - 미측은 일본이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와 같은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
- 미측 대표단은 회의기간 중 판문점 시찰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

3. 제1, 2차 회의록 및 제4차 한 · 미 정책협의회 참가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1984.2.13-22. 전5권. V.1 기본문서 I (계획)

| 84-024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과/중동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4-13 / 10 / 1~273(273p)

1. 외무부는 1984.2월 서울 개최 예정인 '1984년 제2차 공관장회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함(참석 대상은 구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 본부 각 부서와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의제 선정

- 정무: 북한침투 저지, 유엔가입 추진, 비동맹 대책 등
- 경제: 수출 진흥, 합작 · 제3국 공동 진출 등
- 홍보 · 문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홍보 등
- 영사 · 교민: 교민대책 등
- 예산 · 행정: 행정개선, 사정업무 추진 등

❋ 회의 및 내 · 외부행사 일정 결정

- 회의 일정은 전체 회의, 분야별 회의, 지역별 회의, 외무장관 개별면담 등
- 내부행사 일정은 장관 주최 리셉션, 차관 주최 오찬 등
- 외부행사 일정은 대통령 예방 · 만찬, 국무총리 예방 · 오찬,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예방 · 만찬, 국가안전기획부장 면담 · 오찬, 문화공보부 장관 면담 · 오찬, 새마을운동 본부, 전방 방문 등
- 부인 별도일정은 의식개혁 · 국산품사용교육, 새세대육영회, 새마을운동 본부 방문 등

2. 회의에는 공관장 54명이 참석함.

❋ 구주 지역 19명

❋ 중동 지역 16명

❋ 아프리카 지역 14명

❋ 아주, 미주 지역 신임 공관장 5명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1984.2.13-22. 전5권. V.2 기본문서 II (공관건의, 토의요록, 연설문)

| 84-024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과/중동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4-14 / 1 / 1~298(298p)

1. 외무부는 1984.2.13.~22. 제2차 공관장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각 공관이 건의한 사항을 국내 각 부처 · 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줄 것과 관계자의 공관장회의 참석을 요청함.

- 건의사항은 주로 문화행사 개최, 홍보물 작성 · 제공, 인적 교류, 한국학 연구 지원 등
- 대상부처 · 기관은 문화공보부, 문교부, 체육부,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2. 공관장회의 관련 내 · 외부 행사에서 주요 인사의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전두환 대통령은 2.15. 만찬 격려사에서 국민외교의 선봉으로서 정치, 경제 분야는 물론, 사회, 문화 분야로 활동범위를 넓히라고 당부
- 진의종 국무총리는 2.13. 오찬 격려사에서 적극적, 창의적 자세로 민족의 웅비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
- 이원경 외무장관은 2.13. 개회식 훈시에서 북한의 도발과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국익을 지키고 발전시키라고 당부
  - 2.13. 리셉션 치사에서는 한인사회의 인화와 단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
- 이상옥 외무차관은 2.14. 오찬 격려사에서 정부, 민간, 정치, 외교, 문화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자원을 활용한 총력외교의 전개를 당부

3. 공관장들은 2.17. 폐회식에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경주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4. 외무부는 공관장 토의요록을 회의별, 분야별로 작성함.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1984.2.13-22. 전5권. V.3 자료 I (면담, 브리핑)

| 84-024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과/중동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4-14 / 2 / 1~580(580p)

1. 외무부는 1984.2.13.~22. 제2차 공관장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장관용 공관장 개별면담 자료를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함.

- ❋ 인적 사항
  - 학력, 경력, 부임시기 등
- ❋ 분야별 공관장 평가
  - 주재국 대상 활동
  - 정세보고 활동
  - 본부지시 이행
  - 공관 통솔
- ❋ 공관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
- ❋ 공관 건의에 대한 본부 방침
  - 각 공관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부내 각 부서의 입장을 수렴하여 작성

2. 외무부는 공관장회의 준비용으로 의제별 담당 실 · 국장 브리핑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업무계획(기획관리실)
- ❋ 지역별 정무분야
  - 구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
- ❋ 기타 정무분야
  - 북한 동향, 동구권 관계, 국제기구조약
- ❋ 경제분야
  - 경제외교, 경제운용, 상공시책, 해외취업, 해외건설, 대외경제협력
- ❋ 홍보분야
  - 문화행사, 해외홍보
- ❋ 영사교민분야
  - 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국민교육, 해외근로자 보호
- ❋ 행정분야
  - 예산행정, 통신보안, 공관비상대비, 공관보안, 충무계획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1984.2.13-22. 전5권. V.4 자료 II (공관자료 : 중동)

| 84-02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과/중동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4-14 / 3 / 1~258(258p)

1. 중동지역 공관이 외무부 본부에 제출한 1984.2.13.~22. 제2차 공관장회의 자료 중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이라크는 미수교국으로 바그다드에 총영사관 설치)
- 이란 · 이라크 전쟁 추이를 보고하면서 군사작전에 대한 후세인 대통령의 간섭이 심해 군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

❁ 주오만대사관
- 주재국 외무, 국방, 농수산 장관을 방한 초청하여 실질협력관계 증진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건의

❁ 주쿠웨이트대사관
-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외국산 건자재를 사용하여 외화가득률이 떨어진다면서 국산화 독려를 건의

❁ 주레바논대사관
- 종파 갈등,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대립, 주둔미군 철수전망 때문에 주재국 정세가 계속 혼미할 것으로 예상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주재국이 건설업의 '사우디화'를 추구함에 따라 현지 기업과의 합작진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 주바레인대사관
-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재국의 건설공사를 적극 수주할 것을 건의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소액수주를 기피)

2. 한편, 주사우디대사관은 미수교국인 북예멘과의 수교여건 조성을 위해 소규모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양국 공관 간 교류를 강화할 것을 건의함.

공관장회의, 1984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1984.2.13-22. 전5권. V.5 자료 II (공관자료 : 구주, 아프리카)

| 84-024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과/중동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4-14 / 4 / 1~239(239p)

1. 구주지역 공관이 외무부에 제출한 1984.2.13.~22. 제2차 공관장회의 자료 중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프랑스대사관

- 사회당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외교의 독자성에 집착하는 만큼, 미국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경우 역효과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 주독일대사관

- 주재국의 도 · 소매상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소액주문이 대세임을 들어 한국 기업이 이런 풍토에 적응할 필요성을 지적

2. 아프리카지역 공관이 제출한 1984년 제2차 공관장회의 자료 중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케냐대사관

- 동부아프리카의 거점 공관임을 들어 주재국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건의
- 미수교 겸임국인 소말리아, 잠비아, 탄자니아, 세이셸, 짐바브웨 등과의 인적교류(경제사절단 파견 등) 확대를 건의

❁ 주우간다대사관

- 북한 군사요원 100여 명이 활동하는 등 주재국의 북한 일변도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비정치 분야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적 교류를 늘릴 것을 건의

❁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주재국 좌파정권의 친북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섬유공장 건설지원 등 실질협력 확대를 건의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1 기본계획

| 84-025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4 / 5 / 1~352(352p)

1. 1983.11월 외무부는 198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 개최 시기: 84년 1~2월 중
- ❁ 개최 구분: 1차 회의(아시아, 미주지역), 2차 회의(구주, 중동, 아프리카지역)

2. 외무부는 1983.12.23. 1984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 ❁ 일시 및 장소: 84.1.16.~25. 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범위(공관장 39명): 아주지역(19), 미주지역(20)
- ❁ 연회별 참석자 명단(1984.1.6. 아주국)
  - 개 · 폐회식, 1~6차 회의, 그룹별 회의, 연회별 참석자 명단 확정

3. 1984년도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부인교육(1984.1.20.)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일시: 1.20. 및 1.23.
- ❁ 교육 내용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 한국경제 현황
  - 의식개혁 교육
  - 공관살림 운영과 국산품 애용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2 공관건의 및 관련부처 회신

| 84-025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4 / 6 / 1~161(161p)

1. 외무부는 1984.1.4. 84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시 제기된 아래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에 회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체육부
- 네팔: 운동 용구 및 기자재 무상원조, 태권도 시범 경기단의 네팔 방문
- 뉴질랜드: 88올림픽 준비상황 필름제작 송부
- 미얀마(구 버마): 한국 축구팀 미얀마 파견, 친선경기 개최
- 일본: 일본지역 체육교류는 여유를 두고 사전 대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
- 태국: 태국 스포츠계 인사 방한초청 요망 등

❋ 문교부
- 네팔: 네팔 장학생 연 2명 초청 건의
- 인도네시아: 한국학 요원 확보를 위한 장학금 제공
- 필리핀: 한국학 서적 제공 및 한국학 연구학자 방한 초청
- 페루: 산 마르코스 국립대학에 과학기술 서적 기증

❋ 문공부
- 뉴질랜드: 실내 교향악단 또는 저명 음악인 파견 연주회 개최
- 방글라데시, 버마, 브루나이: 민속예술단 파견
- 스리랑카: 스리랑카 현지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

2. 상기 공관장 건의에 대한 관계부처의 회신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3 결과보고 및 연설문

| 84-025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4 / 7 / 1~297(297p)

1. 아세안주재 공관장회의(1984.1.17.)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아세안 각국의 최근정세 및 전망
- ❁ 아세안 각국과의 협력심화 방안
- ❁ 대아세안 대화개설 문제
- ❁ 기타 캄푸치아, 브루나이 독립 및 아세안 가입문제 등

2. 남미지역 이민관계 그룹회의(1984.1.17.)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중남미 이민현황, 주재국 수민정책, 기존 농장의 영농현황 및 대책
- ❁ 이민 가능분야 개척 및 구체적 방안
- ❁ 중남미 이민정책 등

3. 1984년도 제1차 아주 ·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종료 후 채택한 결의문(1.20.)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선진조국 창조의 민족적 과업 달성을 위해 불굴의 신념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외교 일선에서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
- ❁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이룩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
-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외교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 ❁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사생활에 있어 근검절약하며 국산품 애용에 앞장

4. 외무장관 훈시, 공관장회의 개 · 폐회사 등 각종 연설문이 첨부되어 있음.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4 자료 I (장관 개별 면담자료)

| 84-025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4 / 8 / 1~286(286p)

1. 1984.1.6. 외무부는 1984년 제1차 공관장회의 자료 중 인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방침을 해당 공관에 통보함.

2. 공관장 건의사항에 대한 각 실 · 국별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 ❋ 영사교민국(1.6.)
- ❋ 경제국, 통상국: 경제관계 건의사항 조치 계획

3. 각 공관에서 작성한 장관 면담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 ❋ 인원 및 예산, 주요 현안문제, 공관 건의사항 등 사전작성 제출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아주 · 미주지역. 서울, 1984.1.16-25. 전5권. V.5 자료 II (브리핑 자료)

| 84-025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5 / 1 / 1~428(428p)

1. 1984.1월 외무부 각 실 · 국은 1984.1.16.~25.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1984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브리핑 자료를 작성함.

- 영사교민국: 영사 교민 업무
- 정보문화국: 1983년도 북한 대외동향, 홍보 · 문화 · 체육관계 브리핑
- 미주국: 북미지역 정세
- 총무과: 보안관계 브리핑
- 구주국: 대동구권 관계개선 활동
- 기획관리실: 84년도 주요업무 계획
-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 회의 자료
- 아주국: 제1차 공관장회의 아주지역 정무 브리핑

2. 1984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브리핑 자료 책자가 첨부되어 있음.

- 각 실 · 국 브리핑 자료
- 문공부, 문교부, 평통자문위,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해협위 등 관계부처의 브리핑 자료 포함

관내 공관장회의 및 경제협의회 - 캐나다, 1984

| 84-025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5 / 2 / 1~175(175p)

1. 1984.6월 외무부는 1984년도 캐나다지역 공관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함.

❁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초순, 주캐나다대사관

❁ 의제
- 캐나다 정세 검토와 관계증진 방안 논의
- 양국 간 경제협력, 수출, 인력진출 현황 검토와 증대방안 강구
- 교민 실태분석 및 선도방안 모색
- 주캐나다대사관과 총영사 간 업무협의 조정
- 홍보활동 강화방안 등

2. 주캐나다대사관은 84년도 전반기 합동 경제협의회 및 관내 공관장 회의(7.12. 주캐나다대사관)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합동 경제협의회
- 한국 주재 상사 진출의 확대
- 컬러 TV 덤핑제소 사전 방지책 강구
- 자원수입 창구 일원화 방안 검토, 무역 전문 상임 변호사 고용 등

❁ 공관장회의
- 정무, 공보 · 문화, 영사 · 교민, 국방, 안보관계 등 분야별 업무실적 브리핑

3. 주캐나다대사관은 84년도 하반기 합동 경제협의회 및 관내 공관장회의(12.6.~7. 밴쿠버)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공관장회의
- 태평양 협력증진 노력
- Mulroney 수상 방한 추진
- 대캐나다 투자이민 증진, 명예영사 임명활용 등

❁ 경제협의회(대정부 건의사항)
- 85년 한 · 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서울개최
-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정부의 관심 및 노력 경주
- 한국업계 간 컬러 TV 과당경쟁 방지책 강구
- 앨버타 주 한국 상품 종합전시회 개최 등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 1984년도 - 일본. 동경, 1984.3.9-10

| 84-02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15 / 3 / 1~191(191p)

1. 주일대사는 1984년도 일본지역 공관장회의(1984.3.9.~12. 주일대사관)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논의 사항
- 정무, 경제 · 통상, 영사교민, 홍보 · 문화, 교육, 행정 분야 등

2. 분야별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정무
- 지방의원 방한 시 외무부의 협력제공, 민간단체 간 교류협조 요망

❁ 경제 · 통상
- 중소업자 개최 전시회 등에 대한 공관의 지도체제 확립
- 상사 수출활동 개선
- 산업정보 자료 입수를 위한 예산지원 및 정보 확산체제 정비
- 연예인 송출 억제 및 허가요건 강화
- 각종 영사관에 대한 경제관계 자료 지원
- VISA 제도 개선 등

❁ 영사교민 분야
- 국내 연고자의 모방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요구 억지
- 연예인 송출중지 및 주일 공관의 사전 영사확인 실시
- Black List 수시 재분류
- 주고베, 니가타 총영사관 직원 충원
- 일어요원 충원 요망 등

❁ 홍보 · 문화
- 지방 언론계 인사 초청, 니가타 내 각종 문화행사 개최

❁ 교육 분야
- 교원 엄선 및 근무기간 연장

❁ 행정
- 부임 전 통신교육 강화, 고용원 퇴직금 신속 지불 등

3. 주일대사관이 외무부에 송부한 1984년도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총영사회의, 1984년도 - 미국, Los Angeles, 1984.4.26-27

| 84-02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5 / 4 / 1~54(54p)

1. 1984.3.29. 주미대사는 주미총영사회의를 5.11.~13.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개최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주미대사는 1984년도 주미총영사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책

- 북한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책동 검토
- 북한의 대미 접근 및 한 · 미 관계 이간 책동, 교민사회의 분열을 통한 미국 내 친북 세력의 확산기도 등에 효과적 대처방안 검토
- 재미 교민사회에 대한 친북세력의 고립, 무력화 및 이를 위한 대교민 홍보강화, 대교포 언론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시행

❋ 경협 및 통상증진

- GSP 수혜문제, 한국 상품에 대한 미측의 수입규제 대책, 중남부 등 미개척 시장의 적극적인 침투방안 등 논의

❋ 영사교민, 홍보강화

- 교민의 조기정착 지원, 교민회의 육성과 발전, 민원업무의 개선 등
- 친북 교포언론을 교포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동시 건전한 교민여론 형성 도모

❋ 건의 사항

-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책비 특별지원
- 주재상사에 대한 공관장 지휘 감독권 부여
- 경제담당관 파견
- KBS 공연단 로스앤젤레스 공연 시기 조정
- 순회영사비 부활, 비활동 명예영사 교체 등

한 · 일본간 소련관계 구주국장 협의회, 제1차. 동경, 1984.12.7

| 84-025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15 / 5 / 1~180(180p)

제1차 한 · 일 간 소련관계 외무부 구주국장 협의회가 1984.12.7.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4.10월 마쓰나가 일본 외무차관 방한 시 한 · 일 양국은 외무부 간부들 간의 상호방문 및 소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의 실무협의 개최 제의에 대해 일 외무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련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희망

2. 회의 결과

- 1984.12.7. 일본 외무성 구주국장실 개최
- 이복형 외무부 구주국장, 유병우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 태석원 외무부 담당관 참석
- 니시야마 외무성 구아국장, 노무라 외무성 소련과장, 다카시마 외무성 동북아과장 등 참석
- 한국 측은 KAL기 사건 이후 대소 정책, 비정치 분야 교류현황, 북한의 국내정세 등 설명
- 일본 측은 1984.11월 소련 외무차관의 언급내용 설명
  - 김일성 방소 이후 소-북한 관계 증진
  - 88 올림픽에 북한, 소련 불참, 동구권 동조
- 일본 측은 일-소 간 대화가 재개되었으나 실질적 성과 없음을 설명
  - 소련은 북방영토 반환 요구를 묵살한 채 대일 협력관계 개선을 희망
- 일본 측은 체르넨코의 건강은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

3. 참고 자료

- 한 · 일 구주국장 협의자료(1984.11.29. 동구과)

한 · 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84.12.3-4

| 84-025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15 / 6 / 1~318(318p)

제2차 한 · 미 간 소련관계 외무부 구주국장 협의회가 1984.12.3.~4.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3.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 · 미 간 비공식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에서 표제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양측 간 합의
- 당초 김일성 방소 및 KAL기 사건 이후 한 · 소 관계 등 논의를 위해 1984.8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

2. 회의 결과

- 1984.12.3.~4. 미국 워싱턴 국무성 소회의실 개최
- 이복형 외무부 구주국장, 김삼훈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김승영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태석원 외무부 담당관 등 참석
- Palmer 미국 국무성 구주 부차관보, Simon 소련과장, Pascoe 소련과 부과장 등 참석
- 한국 측은 KAL기 사건 이후 대소 정책, 대소 교류현황, 북한의 대내외 정세 등 설명
- 미측 설명 요지
  - 현 단계에서 한 · 소 관계개선 가능성 희박 평가
  - 1984.6월 이후 비정치 분야에서 미 · 소 관계개선 조짐 보이기 시작
  - 미 · 소 간 군축회담 진전 없으나 1985년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
  - 김일성 방소 이후 소련 · 북한 관계 강화
  - 체르넨코는 9월 이후 회복단계, 고르바초프 또는 로마노프가 후계자로 유력

3. 참고 자료

- 북한 동향
- 남 · 북 경제회담 제1차 회의(1984.11.19. 정보문화국)
- 제2차 한 · 미 간 소련 관계 실무자 회의 자료(1984.11.29. 동구과)

한 · 중국 학술회의, 제5차. Taipai, 1984.10.16-23

| 84-02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15 / 7 / 1~79(79p)

1984.10.16.~23. 대만(구 자유중국)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한 · 대만 학술회의에 관한 내용임.

1. 개최 배경

❁ 1980년 이래 국토통일원이 대만 국제관계연구중심과 공동 주최하는 학술회의
- 1980.8월 한 · 대만 양국 간 통일문제 정보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쌍무회의 협의서 체결
- 이에 따라 서울과 타이베이에서 교대로 학술회의 개최

❁ 대만 측이 한국 측에 13명의 대표단 참석을 요청

2. 학술회의 결과

❁ 참석자
- 한국 측은 서극생 통일원 조사연구실장, 윤경태 통일원 연구관, 조기수 통일연수소 교수, 민병천 동국대 교수, 이상우 서강대 교수, 상승주 고려대 교수 등 13명 참석
- 대만 측은 소옥명 국제관계연구중심 주임, 방설순 국제관계연구중심 연구원, 공추천 문화부흥위원회 위원 등 30명 참석

❁ 회의 주제
- 중국(구 중공) 및 북한의 당면 정치 정세
- 중국 및 북한의 외교 노선과 전략 평가
- 중국 · 소련 관계 분석
- 북한의 중국 및 소련 관계 분석
- 소련의 동북아 전략
- 80년대 소련의 아시아 정책

❁ 성과(통일원 보고서 내용)
- 중국 민항기 사건,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대회 등으로 인한 한 · 대만 관계가 미묘한 시점에서 개최되어 양국이 서로의 입장과 특수성을 재확인하고 이해하는 계기
- 한국이 처한 내외 환경이 대만과는 다름을 대만 측 참석자에게 주지
- 통일 문제에 있어 한국은 민족통일, 대만은 대륙광복을 주장함을 확인

남북 통일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1984

| 84-02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15 / 8 / 1~131(131p)

1984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에 관한 심포지엄과 국제적 남북문제(국제개발 문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임.

1. 남북 통일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 1984.8.9.~10. 동경 재일 한국 YMCA 회관 개최
- 코리아 평론사 주최
- 참석자
  - 김일평 미국 코네티컷 대한교수 등 재미학자 6명, 오충근 박사(재일 학자), 안병준 연세대 교수 및 오코노기 게이오 대학교수 등 일본학자 2명 등 참석
- 주제
  - 4강의 한반도 정책, 남북한의 외교정책, 남북통일 방안 등
- 결과
  - 통일 방안으로 현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결점을 비판하면서 주최측 코리아 평론사의 지론인 중립화 방식을 부각
  - 남북한의 현 정권이 자신의 정권 유지에 유리한 통일 방안을 버리고 민족의 과업을 이루려는 진지한 자세를 촉구

2. 제2회 남북문제 국제 심포지엄

- 1984.11.11.~13. 일본 동경 캐피탈 도큐호텔 개최
- 남북문제 일본위원회(위원장 오키타 사부로 전 외상) 주최
  - 동 위원회는 국제개발 관련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1978.11월 설립
  - 1984.10월 일본 민사당 국제국장이 주일본대사에게 한국 측의 심포지엄 참가를 요청
- 참석자
  - 오키타 남북문제 일본위원회 위원장, 사사키 민사당 위원장, 오가타 소피아대 교수, 사이토 일본 아·태 위원장, 사에키 노무라 연구소 고문 등 위원회 회원 참석
  - 통가, 마이크로네시아 등 태평양 군도 국가,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국가의 고위공직자, 외교관, 국회의원, 학자 등 참석
  - ESCAP, ADB 등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이남기 전 대사, 조순 서울대 교수 참석
- 심포지엄 내용
  - 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의견 교환

한국관계 학술회의, 1984

| 84-02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5 / 9 / 1~184(184p)

1984년 미국에서 개최된 한국관계 학술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아시아 학회(AAS) 연례회의

- 1984.3.23.~25. 워싱턴 DC 개최
- 올슨 해군대학원 교수, 핸더슨 하버드대 교수, 양기선 메리워싱턴대 교수, 와트 포토맥협회 회원, 임용순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 김일평 코네티컷대 교수, 패터슨 노버트대 교수, 전혜승 예일대 박사 등 참석
- 한국의 군부 정치, 한 · 미 관계 현황, 한국의 인권, 한국의 교육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주미국대사관은 반한 또는 반정부 성향 인사들의 시도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

2. Asia Society 주최 한국관계 세미나

- 1984.4.10. 뉴욕 개최
- 주제: Doing business in Korea : US Corporate Perspective
- 참석자들은 개인용 컴퓨터 수입제한, IT 정보보호 부족, 회사설립 절차 복잡성, 투자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3. US-Asia Institute 주최 아 · 태 지역 안보 학술대회

- 1984.6.18.~19. 워싱턴 DC 개최
- 스가하라 US-Asia Institute 소장, Armacost 국무성 정무차관, Brown 국무성 부차관보, Stilwell 국방성 부차관, McLean 뉴질랜드 국방상, Albrecht 국무성 부차관보, Zheng Wei Zhi 중국(구 중공) 국제문제연구소장, 박근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참석
- 한국 관계, ASEAN, 일본 및 호주 관계, 중국 관계 등 토의
- 한국과 미국 참석자들은 한반도 문제, 동남아 국가들은 캄푸치아 문제에 관심 집중
- 중국 참석자들은 개방정책 추구 및 아 · 태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사 표명

4. Brookings 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관 미국의 정치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세미나

- 1984.9.30.~10.4. 워싱턴 DC 개최
-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이석채 청와대 비서관, 현정택 해협위 담당관 및 강진구 전자공업진흥회 회장, 구두회 럭키금성 사장 등 기업인 다수 참석
- 세미나 목적
  - 미국 무역정책 수립과정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5. 기타 아시아학회(AAS) 학술대회(1984.11.9.~11.), Columbia대 주최 세미나(1984.11.16.) 등

한 · 일본 협력위원회, 1984

| 84-026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15 / 10 / 1~388(388p)

제22차 합동회의 개최 및 인사교류 등 1984년 한 · 일 협력위원회 교류에 관한 내용임.

1. 제22차 한 · 일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 1984.7.30.~31. 일본 도쿄 개최

❋ 참석 대표단

- 한국 측은 신현확 전 국무총리(회장), 김종철 국민당 총재(고문), 장승태 협력위 사무총장, 정주영 전경련 회장, 정수창 상공회의소 회장, 유기정 중소기업중앙 회장 등 기업인, 정치인, 학자 등 26명 참석
- 일본 측은 기시 전 수상(회장), 하세가와 중의원 의원(사무총장) 등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 참석

❋ 합동회의 결과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 · 일 양국의 광범위한 협력이 중요
-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을 평가하며 전두환 대통령의 성공적 방일을 위해 상호 노력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당사자 간 대화추진 및 민주적, 평화적 통일실현 노력
- 88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 무역불균형 시정, 고도기술 이전 등 경협의 강화
- 재일한국인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
- 청소년 교류 등 광범위한 문화교류 촉진

2. 인사교류

❋ 신현확 한 · 일 협력위원회 회장 등 방일(1984.1.23.~26.)

- 신현확 회장, 장승태 사무총장, 정수창 상임위원, 구자경 상임위원 등 총 10명
- 나카소네 수상, 아베 외상, 다나카 자민당 간사장, 기시 전 수상 등 예방
- 회장 신임 인사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협의

❋ 하세가와 한 · 일 협력위원회 사무총장 등 방한(1984.4.3.~6.)

- 하세가와 사무총장, 미츠야바시 사무총장 대행, 오가와라 사무차장 등 3명
- 나카소네 수상 방한 시 협조에 대한 답례로 한국 측 위원회가 초청
-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등 예방

❋ 하세가와 한 · 일 협력위원회 사무총장 등 방한(1984.9.30.~10.3.)

- 하세가와 사무총장 등 위원회 위원 12명
-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및 한 · 일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전두환 대통령 방일 평가, 양국 간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사항, 1982-84

| 84-0264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5 / 11 / 1~79(79p)

1982.3월 외무부는 대통령 아세안 순방 후속조치에 대한 국가별 사업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인도네시아

- 합작투자: 1982년 말까지 제조업 5건, 임업 7건, 기타 3건 등 총 15건(26백만 달러) 추진 중
- 현대건설 외 13개 업체가 개발 사업에 참여(12건 338백만 달러)
- 기술협력을 위해 기술훈련생 초청(39명), 전문가 파견(6명)
- LNG 도입 합의, MADURA 유전 공동개발합의 등 자원협력 강화
-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협정 체결
-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1982.10.16.~19.)

2. 말레이시아

- 제조업 2건, 건설업 2건, 기타 2건 등 총 6건 합작투자
- 대림산업 등 7개 업체가 말레이시아 개발 사업에 참여
- 통상장관회담 정기적 개최, 관 · 민 경제조사단 파견 등 통상확대 모색
- 원유도입, 자원협력위 구성 등 양국 간 자원협력 추진 중
-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조속 체결 추진

3. 태국

- 짜끄리 왕조 200주년 동상건립 모금 기증(2만5천 달러), 태국 내 인지난민 구호사업에 참여(50만 달러 상당 구호품 전달)
- 통상장관회담 정례화, 통상 분야 고위인사 교류강화, 한 · 태국 실업인 합동회의 개최 등 민간 경제협력 활동 강화
- Hoi Luang 주석 및 주석광 합작개발, 뽕나무 묘목 기증 등 잠업 기술협력
- 투자보장협정, 해운협정 체결 추진

4. 필리핀

- 제조업 3건 등 170만 달러 합작투자
- 한일개발 등 5개 업체가 개발 사업에 참여
- 기술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고위급 과학기술 인사교류
- 한 · 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추진

5. 싱가포르

- ❁ 통상증진을 위해 월례 경제협의회, 연례각료회담 및 경제협력위 개최
- ❁ 서일, 현대, 쌍용 등 8개 업체가 개발 사업에 참여
- ❁ 신규 항공노선 개설, 해운협정 체결, 민간 해운회사 간 공동운항 협정체결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 기본계획 I (정무)

| 84-026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5 / 12 / 1~358(358p)

1. 1984.2~3월 외무부는 대통령의 방일 관련 의의, 방문시기, 주요의제, 홍보, 경호 대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2.9. 이원경 외무장관은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희망(9월초 2박 3일)을 일측에 통보
- 3.17.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가 1984.9.6.~8. 대통령의 방일을 희망한다고 외무장관에게 통보

2. 1984.7월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 관련, 의제별 일측의 의도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천황의 반성방안을 거론할 시는 천황에 의한 발언으로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일측의 구체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대통령의 방일 그 자체가 나카소네 수상의 재선 전략 및 자민당의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플러스 요인임을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활용
- 최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데 역점을 두고 정상회담 시 거론하는 한편, 공동성명 문안에도 포함
- 양측이 제기한 경제 및 문화 분야 관심사항은 package로 처리되도록 교섭
- 재일한국인 지위개선 문제와 관련한 교섭전략으로 일측의 관심사항인 재일동포 보안사범 문제에 대한 호의적 대처 검토

3. 1984.8.13.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 관련, 일측의 비공식 제의와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정상가족 간 비공식 오찬 시 대통령 자제분들이 올 경우 수상 자제들도 참석시켜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
- 비공식 단독 일정을 마련, 양국 문화관계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
-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 폐지문제 등 실현 불가능 사항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대립적 요소는 자제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2 기본계획 II (행사)

| 84-026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1 / 1~352(352p)

1. 1984.4월 외무부는 일본 방문행사 관련, 잠정일정, 의제, 공식수행원 명단, 경호, 홍보, 의전, 문서, 예산 등 대통령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함.

- ❋ 5.17. 아주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통령 방일계획 사전 실무준비반을 구성
- ❋ 방일 의의로서 대통령의 영도력 대내외 부각, 천황 생존 시 과거사 반성 확보, 한 · 일 관계의 미래상 확보,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기술
- ❋ 의제는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한 · 일 관계(재일한국인의 지위향상, 호혜평등의 경제관계 포함), 한 · 일 간 평화협력 증진 등
- ❋ 한국 측의 동경선언(가칭) 제시: 주권존중, 평화유지, 호혜협력, 상호이해 포함

2. 1984.8월 발간한 '대통령 각하 내외분 일본국 공식 방문계획' 소책자가 첨부되어 있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3 일정

| 84-026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2 / 1~174(174p)

1. 1984.5월 외무부는 대통령 일본 방문계획과 관련, 잠정일정(안), 행사별 세부일정 등을 작성함.

2. 1984.7~8월 외무부는 일본 외무성과 대통령 일본 방문계획 관련, 일측과 세부 의전사항을 협의함.

- ❁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천황 예방, 수상 접견 및 정상회담, 천황주최 공식만찬, 외교단 접견, 수상부처 주최 오찬, 시종무관 제도, 차량배치 등 계기별 상세내용을 협의
- ❁ 일측은 한국측이 제의한 영부인의 한국학교 방문 및 고대한국인쇄전 개막식에 참석하는 별도 일정을 경호상의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 ❁ 일한의련 관계자 접견, 수상부처 주최 오찬시간 30분 연장, 전직수상 접견, 교민대표 접견 일정 조정 등을 건의

3. 1984.7월 주일대사는 일본 내 대통령 방일계획 비판세력 현황 및 순화계획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함.

4. 1984.8.14. 일본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내외의 일본방문을 공식 발표함.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4 의전일반

| 84-026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3 / 1~285(285p)

1. 1984.6-9월 외무부는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계기별 의전사항을 관계부처 및 일본 측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작성함.

- ❋ 행사별 시나리오 작성 보고
- ❋ 일정발표, 궁중만찬, 숙소예약, 일측 요청자료
- ❋ 정상회담 회담방식, 천황 회견, 정상회담 대외발표
- ❋ 선발대 황거견학, 궁중행사, 궁중만찬 시 화제
- ❋ 영빈관 환영식(우천 시), 천황예방 시간변경, 천황주최 만찬 시간변경
- ❋ 일 국회의원의 선물증정, 영부인 앞 선물증정 등

2. 1984.8월 외무부는 대통령 내외 일본국 공식방문 계획(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 일정, 수행원, 항공기, 숙소, 복장, 훈장 및 선물, 교민, 선발대, 국내행사 등
- ❋ 8.16. 대통령 내외의 일본 공식방문에 따른 공항 환송식 및 환영식을 주관해 주도록 총무처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등

3. 1984.8월 총무처가 작성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일본국 공식방문 환송 · 영 행사기본계획'이 첨부되어 있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5 사전준비

| 84-026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4 / 1~250(250p)

1. 외무부는 1984.7월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공식 · 비공식 수행원, 기자단 명단을 확정하고 수행원 안내서를 발간, 배포함.

- ❁ 신현확 부총리 등 공식 수행원 23명
- ❁ 청와대, 외무부 및 관계부처 비공식 수행원 36명
- ❁ 경호관 91명, 기자단 70명 등
- ❁ 1984.8.20. 대통령은 합참의장이 공식 수행하도록 재가
- ❁ 9.3. 수행원 안내서 (1), (2) 발간, 배포

2. 의전 선발대가 1984.8.6.~8. 방일, 일측과 세부 의전사항을 협의함.

- ❁ 무궁화 선발대 파견 내부결재
- ❁ 8.10. 선발대 방일 결과 보고
- ❁ 숙소예약, 숙소 내 국기게양, 숙소배치 등
- ❁ 차량임차 및 소요예산, 기본차량 대형, 행사별 차량대형, 일정별 배차계획 등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6 연회

| 84-027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5 / 1~186(186p)

1.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외무부는 1984.7~8월 일측과 세부사항을 협의함.

- 궁중만찬, 수상오찬 시 입장, 참석자 소개
- 대사주최 리셉션, 주일 공관장들을 위한 만찬, 영부인 학생접견 등 행사별 테이블 배치계획 등

2. 1984.8월 주일대사관은 대통령을 위한 대사 주최 리셉션 초청 대상자 명단 및 인적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 리셉션 초청문안
- 초청대상자 추가 건의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7 보안 및 경비

| 84-027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6 / 1~272(272p)

1. 주일대사관은 1984.6.15.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영빈관 단면도, 영빈관 관계관 면담요지 및 경호관계자 회의요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2. 1984.6.10. 주일대사관은 일본 내 야당, 조총련 및 반한단체 등의 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 6.1. 사민당은 대통령의 방일초청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방일 공식발표 후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예정
- 공산당은 아직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 없는바, 랑군 사건 이후 북한과 김일성주의를 비판하는 등 공산당과 북한 관계가 최근 악화되어 있는 경향
- 한민총은 5.27. 대통령 방일 반대집회 개최, 시가데모, 삐라 살포를 계속 진행

3. 주일대사관은 1984.7.17. 동경도내 주요기관 연쇄 방화사건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함.

- 일한의원 연맹 화장실, 일한친선협회 화장실, 일한경제협회, 하네다 공항 국제선 화장실 등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한바, 일경은 나리타 공항 건설반대 투쟁집단인 극좌계열의 범행으로 단정
- 본건과 북한, 조총련 또는 반한단체의 연계 여부를 예의주시 예정
- 일 경찰당국에 한국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경비태세 강화를 요청

4. 1984.7월 주일대사관은 일본좌익 및 혁신단체의 대통령 방일 반대활동 관련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 7.19. 각종 좌익 및 혁신단체 합동회의, 7.31. 집회 개최, 8.8. 김대중 납치사건 해결과 아시아 평화의 8.8. 집회, 8.19. 궐기대회, 9.2. 전국 통일집회 등이 예정
- 7.19. 조총련 중앙 상임위는 대통령 방일반대 행동요강을 결정한바, 주일대사관은 동 요강을 입수, 외무부에 송부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8 회담 I (정상회담)

| 84-02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7 / 1~196(196p)

1. 1984.9월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 관련, 한 · 일 정상회담 준비 자료를 작성한바, 동 자료에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한 · 일관계의 미래상 정립, 한 · 일 경제관계, 재일한국인문제, 문화교류문제 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2. 1984.9월 대통령실(정무 I)에서 작성한 한 · 일 정상회담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 ❁ 한 · 일 양국관계의 과거와 미래
   -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 ❁ 한 · 일 양국관계 전망
   - ❁ 일본 측 관심사항에 대한 한국 입장
   - ❁ 일 · 북한 관계
   - ❁ 참고자료 등

3. 한 · 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영문)가 첨부되어 있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9 회담 II (별도 각료회담)

| 84-027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6 / 8 / 1~389(389p)

1. 외무부는 1984.6.5. 한 · 일 협력사업(경제, 문화교류 분야) 추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를 작성함.

- 경제 분야는 무역역조 개선, 양국 간 기술협력 확대, 농어촌 · 에너지 분야 협력, 자본협력,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협조방안 검토
- 문화 분야는 청소년교류, 한 · 일 역사공동연구위 구성, 한 · 일 교과서 편수관 교류, 한국문화재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전통예술 연구사업 등 문화 · 학술분야 교류

2. 8월 외무부는 비경제부처 관계국장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종합 정리함.

- 법무부는 한국인 문제, 협정 영주권자 후손 법적지위 문제, 잠재 거주자 일괄 구제문제,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적용문제, 취업기회 확대문제, 사할린교포문제 등
- 문화공보부는 일본 교과서 문제, 문화교류 문제, 양국 간 '문화교류 합동위' 설치문제,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 등
- 국방부는 양국 간 군사정보 및 인사교류 계속유지 등

3. 일본 외무성 대신접견실에서 1984.9.7. 한 · 일 외상회담이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측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연내 무역회담 등 실무회담 개최문제를 외교 채널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재일 한국인 문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 일측은 86 아시아경기 및 88 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양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의사를 표명

4. 기타 개별 각료회담(국방부, 과학기술처, 문화공보부, 상공부, 법무부) 회의록 및 회담 결과보고가 편철되어 있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0 공동성명서

| 84-02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7 / 1 / 1~433(433p)

1. 1984.7월 외무부는 대통령 일본방문 공동성명 한국 측 초안을 작성, 일측에 제시함.

- ❋ 제1항: 일본국 국빈으로 공식방문, 수행원 명단
- ❋ 제2항: 천황의 영접 및 대통령의 천황 예방
- ❋ 제3항: 정상회담 개최, 동북아 정세 및 양국관계 증진방안과 공동관심사 토의
- ❋ 제4항: 한 · 일 기본조약 재확인, 상호주권 존중 및 호혜평등 원칙하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 수립 필요성 확인
- ❋ 제5~8항: 한반도정세, 일 · 북한 관계, 양국 간 경제협력, 문화 · 학술교류 언급
- ❋ 제9항: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안정 및 처우개선
- ❋ 제10~12항: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태평양 연안국가 간 협력증진
- ❋ 제13~14항: 일본 정부의 환대에 사의, 천황 및 수상의 방한초청

2. 8.16. 상기 한국 측 초안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대안을 제시하여 온바, 일측은 천황과의 회견내용, 한국의 유엔가입, 일 · 북한 관계, 재일동포 처우개선, 88 서울올림픽을 삭제하는 대신 한국의 국제적 역할 향상에 대한 일측의 협력 언급, 무역 및 기술협력 등 종전의 일측 주장 반복, 뉴라운드 문제 제기, 문화교류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3. 8~9월,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은 일측 대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공동성명에 대한 교섭을 진행함.

- ❋ 일 · 북한 관계(제5항): 일측으로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조항 마련 방향으로 검토
- ❋ 경제관계(제6항): 전체적으로 기본입장에 차이가 있는바 경제부처와 재협의, 일측 대안을 제시할 예정
- ❋ 문화관계(제7항): 20주년 행사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며, 문화교류 합동위 발족문제는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재검토
- ❋ 재일한국인문제: 나카소네 수상이 한국 측 입장을 배려, 가능한 한 금후 검토하자는 선의 지시가 있어 조항 마련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4. 1984.9.8. 발표된 한 · 일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문이 첨부되어 있음(국어본, 일어본, 영어본 첨부).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1 연설문

| 84-02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7 / 2 / 1~315(315p)

1. 1984.9.6.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방문 전 아래 요지의 출국성명을 발표함.

- ❁ 한국의 국가원수로서 처음 일본을 공식 방문
- ❁ 양 국민 간에는 쓰라린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양국 간 국교정상화 이후 20년이 지난 만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
- ❁ 아 · 태 지역의 세기를 맞아 한 · 일 양국은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
- ❁ 방문기간 중 일본 각계 지도자들과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상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2. 천황 주최 만찬(1984.9.6.) 시 대통령 답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양국 간 불행한 과거는 밝고 가까운 한 · 일 간의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
- ❁ 한국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국가지표로 삼고 민족통일의 평화적 성취를 위해 노력
- ❁ 한일 양국은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통의 이념 아래 세계에 귀감이 되는 선린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

3. 나카소네 수상 주최 오찬(1984.9.7.) 시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한일 양국은 지리적 위치로 좋든 싫든 오랫동안 서로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맺어온 숙명의 이웃
- ❁ 한일 양국은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도우면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
- ❁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제의 배경 설명
- ❁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발전시켜 희망찬 태평양시대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희망

4. 기타 일본 도착성명, 교민대표 접견 시 격려사, 일본 각계 지도자초청 리셉션 격려사, 귀국성명 등이 첨부되어 있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3 결과보고

| 84-027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7 / 4 / 1~207(207p)

1. 1984.9.7. 나카소네 수상내외 주최 오찬 시 나카소네 수상의 오찬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과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우호협력관계 없이는 일본의 평화도 번영도 있을 수 없음을 언급
- 양국 국민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상호협력 강화,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양국관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
- 청소년 교류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국교정상화 20주년에 즈음한 각종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

2. 1984.9.11. 외무부는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성과는 한 · 일 양국관계의 미래상을 정립, 한반도 주역으로서의 지위강화, 한 · 일 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전진적 자세 확보
- 특기사항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환대, 일본 언론의 대한국 긍정적 자세, 사회당의 대한정책 변화 조짐, 고대 일본의 한국문물 전수사실 공식 인정 등
- 후속조치로는 외상회담, 제13차 각료회담 추진,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일본 수입 촉진단 접수, 산업기술협력 촉진, 재일한국인 지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인적 · 문화적 교류의 점진적 확대
- 향후 주요과제는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예의 주시 대처해야 하며, 일 사회당의 대한 태도를 분석,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당과의 교류를 검토

3. 1984.9.6. 개최된 제1차 한 · 일 정상회담 요록은 아래와 같음.

- 대통령: 수해 피해에 대한 일측의 위로 전문과 거액의 성금에 감사를 표명
- 수상: 이번 방일이 대통령의 용단으로 결정된바, 앞으로 새로운 천년의 밝은 양국 역사를 위해 노력
- 대통령: 한반도 분쟁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바,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련의 군사력 증강으로 동서의 세력균형이 위협받고 있음.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소련은 부득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도 개입하게 될 것이므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바, 성급한 정책변동이 없기를 희망
- 수상: 북한의 대화제의는 진실성이 없으며 버마 사건 이후 국제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이고 본인은 중국(구 중공) 방문 시 중국의 대북한 억지력 행사가 중요함을 조자양, 호요방에게 강조함.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기존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조자양 수상에게 3자회담은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좋고 그 이유로 중국은 휴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중국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

4. 9.7. 개최된 제2차 한 · 일 정상회담 요록이 편철되어 있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4 언론보도 I

| 84-027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7 / 5 / 1~404(404p)

1. 1984.9월 대통령 방일 관련, 주요 국내 언론의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선일보: 민간 경제계, 대일 상품판매협력위 구성 예정, 전 대통령의 주일 외교단 접견 시 공산권 대사 참석 미지수, 재일한국인은 80%가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주택, 취업 및 사회복지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는 등 영원한 이방인(뉴욕 타임스 특집)
- 서울신문: 나카소네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한 · 일 관계의 불행한 기간과 연결되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한국과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역사의 전기에 서서' 시리즈(5)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것이며 20년이 지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
- 한국일보: 사회당, 무토 의원의 기자회견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도

2. 1984.3~6월 주일대사관은 대통령 방일 관련, 일본 언론 보도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1984.3.13. 닛케이(전 대통령 방일, 9월에라도): 전 대통령의 방일은 나카소네 수상 방한 시 초청한 것으로 최근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연내 방일 의사를 전달
  - 일측 정치일정을 감안, 9월 방일설이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사상 최초의 일
- 3.20. 요미우리(언제? 한국 대통령의 방일): 전 대통령의 연내 방일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
- 5.16. 동경신문: 한국 현직 대통령의 방일은 전례가 없어 국제적, 국내적으로 파문을 일으킬 것
  - 전 대통령 방일 시 천황과 접견하게 될 것인바, 천황이 일본의 한국통치 시대의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할 것인가가 관심
  - 한국에서는 전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일체 보도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경호상의 이유
- 6.20. 시즈오카: 대통령의 방일이 한일 양국과 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추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은 천황이 한국통치 시대에 대한 반성의사를 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납득을 얻어 한일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추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5 언론보도 II

| 84-027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7 / 6 / 1~353(353p)

1984.9월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대통령 방일에 대한 해외 언론 등의 반응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언론
- 한 · 일 관계사에서 새로운 장 개막, 대한국 과거문제의 외교적 청산 등

❋ 미국 언론
- 뉴욕 타임스(9.8.): 천황의 유감표시는 매우 신중했으나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완전한 사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것
-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9.10.): 한 · 일 간 현안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나 이번 방일은 양국 관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중요
- 워싱턴 포스트(9.8.): 전 대통령의 방일은 한 · 일 간 우호를 확인하였으나 양국 간 견해차를 해소하는 데는 실질적 진전이 별로 없는 듯

❋ 중국(구 중공)
- 신화사 통신(9.8.): 전 대통령 방일은 한 · 일 양국의 정치적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나 방일에도 불구, 양국 간 현안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

❋ 소련
- 타스통신(9.8.): 전 대통령 방일은 한 · 미 · 일 3각 군사동맹으로 NATO와 유사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의 일환이며 일본 지도자들은 전 대통령 방일로 한 · 일 관계를 강화, 대한정책에 있어서의 미 · 일 간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

❋ 북한
- 외교부 대변인(9.10.): 전 대통령의 방일은 한 · 미 · 일 3각 군사동맹체재 강화를 노린 것이며, 한국의 현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해 반성 받을 대표자격이 없음

❋ 베트남
- 공산당 기관지: 전 대통령의 방일로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획책하고 한국은 미국의 사회주의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함. 미국은 한 · 일 간의 결속을 강화하여 그들의 세계전략에 부응하는 군사동맹을 획책하고 있는 것

❋ 대만(구 자유중국)
- 중화일보(9.8.): 전 대통령의 방일은 한 · 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정세완화에 기여

❁ 영국

- 데일리 텔리그라프(9.8.): 일 수상의 사과 등으로 양국 간 감정은 공식적으로 해소되었으나 한국의 대일무역 불만해소는 부분적으로만 성공
- 옵서버(9.9.): 천황의 사과내용은 천황에 의한 것으로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며, 아직 일본이 대한 기술 이전의 역효과를 우려할 단계는 아님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6 언론보도 III (보도자료 및 홍보지침)

| 84-027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7 / 7 / 1~415(415p)

1. 1984.6.18.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 홍보대책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홍보의 목표
- 방일 의의 제고, 북한의 도발책동 방지 등 부작용 극소화

❋ 단계별 홍보계획
- 대외공표 전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수시 역홍보로 방일시기 교란
- 한 · 일 간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등 건설적 여론 조성 및 일측과 보안유지 필요성 등 긴밀 협조
- 대외공표 후 방일 의의, 시기적 필연성 등에 대한 지지여론 조성,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확대 홍보 절제하고 관계부처 간 언론대책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 방일 시 각종 설명, 연설의 배경설명 등을 통해 방일 의의 부각, 기자회견, TV회견 등에 대한 사전대비, 남 ·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입장 부각
- 방일 후 방일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적극 전개

2. 1984.6월 문화공보부는 대통령 방일행사 관련, 해외 홍보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일본 내 친한 홍보 기반 확충 및 일본의 각계 여론 지도층과 접촉, 설득논리 정립

❋ 입체적 총력 홍보 전개

❋ 내외 반한세력 효과적 제압, 국내 반일감정의 순화대책과 연계 추진

❋ 단계별 사업시행, 홍보효과 극대화

❋ 중점 추진 홍보계획
- 일본 유력언론인 초청, 공관장, 공보관, 문정관의 적극적 언론대책 활동, 기획 특집 보도 활동 등

3. 8.2. 대통령실은 대통령 방일에 관한 기본 홍보지침을 문공부장관에게 전달함.

❋ 방일을 통해 구체적 성과보다는 방일의 상징적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부각

❋ 방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부처는 언론과 접촉하여 협조토록 조치

❋ 일본의 언론은 국가이익에 관한 한 긍정적이고 대국적으로 보려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일본 언론의 태도를 한국의 언론들도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

4. 9.6. 외무부는 천황의 과거사 반성에 대한 보도방향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이번 천황의 과거사 반성은 한국 국가원수를 대면하여 직접 반성을 표명하였다는 점과 그 발언 내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도가 깊다는 데 의의

- 천황이 한 · 일 간의 불행한 과거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 것은 한 · 일 관계의 미래를 향한 일본 측의 엄숙한 결의로 볼 수 있음을 강조
-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자기 성찰은 한 · 일 양국의 미래사에 구현되어질 것으로 예상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7 자료

| 84-028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1 / 1~416(416p)

1. 1984.6.16. 외무부는 재일한국인문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재일한국인 문제 주요 사항

- 법적 지위 문제: 협정 영주권자 후손 법적지위 확정문제, 강제 퇴거자 인수문제, 잠재거주자 구제문제
-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 지문날인 및 등록증 상시 휴대 제도 철폐 문제
- 취업기회 확대 문제: 공무원 문호개방 문제, 초 · 중 · 고 교원 임용문제, 사기업 취업기회 확대문제 등

❋ 제3차 회의 주요 협의내용

- 일 국적법 개정(5.18.)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상정 중
- 국 · 공립대학 교원 임용: 1984.6월 기준 재일한국인 4명 임용

2. 1984.7월 주일대사관은 일본의 천황 및 황실 관계 자료를 외무부에 보고함.

❋ 천황의 인적사항, 천황과 국정, 천황의 행위, 사상, 생물학 연구내용 및 저서, 취미 · 운동, 식욕 · 기호, 황족 ·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자의 자녀, 천황의 자녀, 황실제도, 황실 관계법규 등 기술

3. 1984.8월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 관련, 수행 기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함.

❋ 대통령 방일 의의, 한 · 일 관계 주요일지, 교류현황, 주요현안, 일 · 북한 관계, 일본 국내정세 등

4. 1984.8.16. 외무부의 국정자문위 보고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8 천황발언

| 84-028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2 / 1~116(116p)

1. 1984.7월 주일대사관은 일본 천황 및 황실관계 자료를 외무부에 보고함.

- 천황 인적사항, 학력, 이력
- 천황과 국정, 천황의 행위(국사행위, 공적행위, 사적행위), 천황의 외출, 사상, 생물학 연구, 취미 · 기호, 식욕 등
-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자의 자녀, 천황의 자녀, 천황의 형제 인적사항
- 황실제도, 황실 관계법규 등 조사 보고

2. 외무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과거사 발언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이동원-시이나 공동성명(1965.2.20.)
  - 한 · 일 기본조약 서명 후 이 장관은 과거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관계에서 연유하는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을 설명한바, 시이나 대신은 그와 같은 과거관계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이라고 언급
- 전 대통령 주최 만찬 시 나카소네 수상 답사(1983.1.11.)
  - 한 · 일 양국 간에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우리는 이것을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나카소네 수상의 방일 한국 언론인과의 회견(1984.8.22.)
  - 과거에 있어서 폐를 끼치고 참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결의하고 있음을 언급
- 천황 만찬사 중 관련부분(1984.9.6.)
  - 이와 같은 사이에도 불구하고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심히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3. 1985.9.5. 외무부는 주일 한국 특파원에게 아래 천황의 과거사 반성에 대한 보도 방향에 따라 사전 브리핑을 실시토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 금번 일 천황의 과거사 반성은 그 발언 내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도가 깊다는 데 의의
- 이러한 유감 및 반성의 표명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
- 한 · 일 관계는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올바른 미래를 개척해 나감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자기 성찰은 한 · 일 양국의 미래사에 구현되어질 것 예상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V.19 기자회견

| 84-028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3 / 1~83(83p)

1. 1984.8월 주일대사는 대통령 방일시 일본 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을 수락해 주도록 외무부에 건의해 옴.

- 30명 내외의 기자를 초청, 영빈관에서 개최
-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진 기자의 사전 질문서 제기로 예상되는 위험부담이 있으나 국가원수에 대한 결례에 해당할 경우 배제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등으로 대처
- 일본 매스컴의 적극적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조건하의 일본 기자클럽주최 회견 성립이 긴요하다고 판단

2. 1984.7.17. 주일 한국 특파원이 나카소네 수상에게 제출한 기자회견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전 대통령의 방일 평가는?
- 일본이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을 호감으로 바꾸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전 대통령 방일 후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 군사력을 포함한 일본의 금후 진로와 한국과의 관계는?
- 한 · 일 기술협력이 일 · 미 협력 정도의 레벨까지 발전될 수 없는지?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특별한 배려는 없는지?

3. 1984.8.18. 외무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일측 예상 질문
  - 방일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 천황의 과거사 언급에 만족하는지?
  - 새로운 한 · 일 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은?
  - 일 · 북한 관계에 대한 견해는?
  -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 추가 예상 질문
  - 김대중을 포함한 3김이 해금 조치에서 제외된바, 이유는 무엇인지? 해금 전망은?
  - 단임 관련 개헌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견해는?

전두환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후속조치, 1983-84

| 84-028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부/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18 / 4 / 1~321(321p)

1982.8.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대한 후속조치로 1983~84년 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후속조치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 내용

❁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아프리카 경협실무조사단 활동 결과 보고(1983.1.5.)
- 전 대통령은 장기적 진출계획 수립, 아프리카 진출업체 투자위험 보상, 기술지원, 수출입은행 지원 확대, 언어교육 강화 등을 지시

❁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아프리카 6개국 주재대사 보고(1983.1.24.)
- 공관장들은 관계 공관장 협의회 개최, 20개 진출 희망업체 간담회 개최, 공관장의 희망기업 개별접촉 진출 유도 계획 등 보고
-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대미국, 유럽 진출 중간기지로 활용, 업계와 연계한 인력진출, 공관장의 KOTRA 지휘권 확립 등 지시

❁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1983.4월)
- 국가원수 초청, 합작투자, 한국 기업의 현지 개발계획 참여, 기술훈련, 문화교류 등 조치 현황 및 계획 보고

2. 국별 주요 후속조치 내용

❁ 나이지리아
- 대통령 방한 초청, 농기계 제작수리, 가방공장 등 합작투자, 한국 기업의 개발계획 참여, 과학기술 분야 연수생 초청

❁ 케냐
- 시계제작 등 합작투자, 연수생 초청

❁ 가봉
- 대통령 방한 초청, 한국 기업의 합작투자 장려,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 세네갈
- 체육·문화 협력, 가발제조 합작투자, 기술 및 농업개발 협력

❁ 라이베리아
- 주한 상주공관 설치, 냉동시설 등 합작투자, 연수생 초청

❁ 자이르
- 건설 및 플랜트 수출, 연수생 초청 등

Figueiredo, Joao Baptista de Oliveira 브라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3-84

| 84-028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8 / 5 / 1~75(75p)

정부는 1982년부터 Joao Baptista de Oliveira Figueiredo 브라질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브라질 측 사정으로 1984년까지 실현되지 못함.

1. 방한 초청 경위

- 이범석 외무장관은 1982.9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한 · 브라질 외상회담 계기에 Figueiredo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 1983년 초 외무부는 브라질 대통령의 1983.9월경 일본 방문 계기에 방한할 것을 교섭하도록 주브라질대사에 지시하였으나 브라질 대통령의 방일이 1984년으로 연기
- 1984년 봄 브라질 대통령의 일본 및 중국(구 중공) 방문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는 주브라질대사를 통해 한국을 극동 방문에 포함시키도록 재차 교섭하였으나, 브라질 측은 한국을 방문국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반응

2. 브라질 대통령 극동 방문

- Figueiredo 대통령은 1984.5.23.~30. 일본 및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5.27. 이동 중 제주도 남방 80마일 통과 시 전두환 대통령 앞으로 한국민의 번영과 양국 간 우호관계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
- Figuiredo 대통령의 일 · 중 방문 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으며, 일본과의 차관 합의, 과기협정 체결 및 중국과의 원자력 정보교환 협력 등이 주요 방문 성과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1 기본문서

| 84-028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6 / 1~253(253p)

1984.4월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의 방한과 관련한 사전교섭, 결과보고, 언론보도, 감사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1. 방한 초청 및 교섭

- 1983.12월 주반다르스리브가완총영사는 브루나이 국왕의 1984년 봄 일본 방문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양국 관계강화를 위해 동 국왕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
- 정부는 ASEAN과의 관계 강화 및 브루나이에 대한 경제 진출 확대를 위해 Bolkiah 국왕을 초청하기로 하고 1984.1월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 1984.3.6. 브루나이 왕실 경호실장은 브루나이 국왕이 1984.4.7.~9. 방한 예정임을 주브루나이 대사에게 통보

2. 방한 개요

- 방한 기간은 1984.4.7.~9.
- 주요 일정은 국무총리 접견, 국립묘지 헌화, 정상회담, 국빈만찬, 국방부 조달본부 시찰, 특전사 시찰
- 제1 왕비, 외무장관 부처, 제3 공주 부처, 제4 공주 부처, 국왕 영애, 시종무관 부처, 개발성장관 부처 등 총 36명 수행

3. 방한 결과

- 공동성명서 요지
  -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에 대한 유감표명 및 테러행위 근절 노력 다짐
  - 동북아와 동남아 간 안보 연계성 확인
  - 브루나이의 ASEAN 가입 환영 및 ASEAN의 노력과 공헌을 평가
  -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 브루나이의 경제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 참여 환영
  - 양국 간 문화교류 촉진
- 양국 외무장관 조찬 협의 요지
  - 브루나이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 검토 약속
  - 양국 간 사증면제 협정 호의적 검토
  - 브루나이 거주 한국 교민 및 건설근로자 보호 합의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2 공동성명서 및 연설문

| 84-028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7 / 1~185(185p)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의 1984.4.7.~9. 방한과 관련한 공동성명, 연설문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1. 공동성명 등 교섭 경위

- ❋ 한국 측은 국왕의 출발 도착성명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생략할 것을 제의
- ❋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서 관련, 1984.3.17. 한국 측이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브루나이 측은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한 대안을 4.3. 제시
- ❋ 한국 측은 KAL 및 버마사건 관련 우려 표명 및 테러에 대한 반대 결의 표시는 최근 한국과 외국의 정상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포함되는 것임을 설명

2. 공동성명 요지

- ❋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에 대한 유감표명 및 테러행위 근절 노력 다짐
- ❋ 동북아와 동남아 간 안보 연계성 확인
- ❋ 브루나이의 ASEAN 가입 환영 및 ASEAN의 지역안정 노력과 공헌을 평가
  - ASEAN의 동남아 내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구상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
- ❋ 브루나이의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 확인
- ❋ 브루나이의 경제개발 계획, 특히 농업, 건설 분야에 한국 기업 참여 환영
- ❋ 양국 간 주요인사 교류 및 예술, 교육, 스포츠 등 문화교류 촉진

3. 연설문

- ❋ 전두환 대통령 만찬사
  - 브루나이의 ASEAN 가입 경하
  - 보호무역 및 테러리즘 규탄
  - 북한의 도발 불구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평화 해결 노력 설명
- ❋ Bolkiah 국왕 답사
  - 브루나이 국가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민간기업 참여 기대
  - 양국 간 우호관계 가속화 희망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3 의전 (1) : 영접준비

| 84-028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8 / 1~317(317p)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의 1984.4.7.~9. 방한과 관련한 의전 영접준비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1. 국왕 방한 준비 관련 외무부와 브루나이 정부와의 협의 내용(1984.2~3월)

- 1984.2월 국왕 방한 준비를 위한 특사(국무총리) 파견 관련 행정사항
- 수행원, 호칭, 사진, 음식, 국기, 국가, 특별기, 선물, 훈장, 통역 등 의전사항
- 선발대 방한 시기
- 공식 만찬 진행 계획 등

2. 환영 · 송 행사 기본계획(1984.3월 총무처)

- 공항 행사 계획

3. 영접계획(안)(대통령 재가 문서, 외무부)

- 방한 일정, 수행원, 각종 행사계획 등

4. 행사 진행 절차(영문)

| 84-0288 |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4 의전 (2) : 일정 및 타부처 협조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9 / 1~211(211p)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의 1984.4.7.~9. 방한과 관련한 일정과 타 부처 협조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1. 방한 일정 관련 브루나이 정부와의 협의

❋ 브루나이 정부는 Bolkiah 국왕의 방한 일정을 1984.4.7.~9.로 제의하였으나, 정부는 방한기간 중 1984.4.8.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의

- 국왕이 1984.4.7.(토) 오전 도착하여 동일 오후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하거나, 출발일자를 4.10.(화)로 연기

❋ 브루나이 측은 국왕 해외방문의 관례 및 일본 방문기간(2박3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당초 제의 일정을 고수

- 이에 따라 대통령 보고 후,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일요일에 진행하기로 결정

2. 일정 관련 타부처 협조

❋ 국왕 영접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조 내용

- 청사초롱 대여, 기념우표 제작 발매, 기념담배 제작 발매, 홍보자료 작성, 서훈, 경비, 공항행사, 시민환영, 무기반입, 수행기자단 취재 지원, 왕비 방문 시설 협조 등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방한, 1984.4.7-9. 전5권. V.5 자료

| 84-028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4-18 / 10 / 1~183(183p)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의 1984.4.7.~9. 방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정상회담 자료(1984.3.13. 주브루나이대사관)

2. 국왕 관련 사항 보고(1984.3.15. 주브루나이대사관)
   - ❁ 국왕 성명, 이력 사항, 말레이어 칭호, 영문 칭호, 존칭, 호칭, 몸무게, 건강상태, 국왕 및 왕비 사진 등

3. 한 · 브루나이 경제관계 현황(1984.3.26. 외무부 경제협력과)

4. 공식방한 영접계획(소책자, 1984.4월 외무부 의전장실)

5. 한 · 브루나이 정상회담 자료(1984.4월 청와대 정무1)

6. 영부인 브루나이 왕비 면담자료(1984.4월 외무부)

Pinochet Ugarte, Augusto 칠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77-84

| 84-0290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8 / 11 / 1~46(46p)

칠레 대통령에 대한 1977~84년간 방한 초청에 관한 내용임.

1. 1977.1월 주한 칠레대사는 외무부 차관에게 Augusto Pinochet Ugarte 칠레 대통령의 방한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비공식 타진한 데 이어, 1978.5월 주한 칠레대사대리는 Pinochet 대통령의 1978년 가을 아시아 방문 기회에 방한 가능성에 대한 외무부의 비공식 의견을 문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국내 사정상 방한이 어려움을 주칠레대사를 통해 통보

2. 1979.9.5. 주칠레대사는 1980년 Pinochet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기에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79.9.6. 동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경우, 한국도 방한 초청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만 할 것을 주칠레대사에게 통보

3. 1981.9.30. 주칠레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의사를 Pinochet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1982년 중 방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4. 1982.12.30. 주칠레대사는 송년인사회 참석 기회에 Pinochet 대통령에게 조속한 방한을 희망한 데 대해 동 대통령은 1984년 중 방한 가능성을 시사함.

Fait Lizano, Alberto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3-84

| 84-029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18 / 12 / 1~13(13p)

1. Alberto Fait Lizano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은 1983.1월 주코스타리카대사 면담 시 1983년 가을 방한 의사를 표명함.
   ❁ 한국 기업의 선박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참여 희망

2. 1984.2월 외무부는 두산산업의 요청으로 Fait 부통령 및 Peters 외무차관에 대한 두산산업 대표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도록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지시함.

3. 1984.2.26. 주코스타리카대사는 Fait 부통령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고 Peters 차관도 곧 사임 예정이므로 대신 새마을 협력 추진을 위한 주재국 실무진을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덴마크 왕실 Henrik공 방한, 1984.5.24-27

| 84-029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18 / 13 / 1~156(156p)

덴마크 여왕 부군 Henrik 공은 한·덴마크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대표단을 인솔하고 1984.5.24.~2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4.2월 덴마크 왕실은 주덴마크대사에게 Margrethe II 여왕의 부군 Henrik 공이 한·덴마크 경제협력위원회와 낙농 관계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주요 경제인단을 인솔하여 1984.5.24.~27. 방한하기를 희망함.

- Henrik 공 및 경제인은 5.19.~23. 일본 방문

❋ 한국 정부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3.20. Henrik 공을 정부 빈객(Government Guest)으로 접수한다는 외교공한을 송부

2. 방한 결과

❋ 수행원

- Windfeld-Lund 한·덴마크 경협위 위원장(덴마크 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기업인 30명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 제5차 한·덴마크 경협위 참석(고문 자격), 낙농기술 심포지엄 개막연설
- 동두천 낙농단지, 창원 쌍룡중공업 방문
- 경주 관광

❋ 제5차 한·덴마크 경협위 주요 결과(공동성명서 요지)

- 양국의 경제현황 및 무역현황 점검
- 한국 측은 무역자유화 정책 설명 및 덴마크의 무역장벽 완화 요청
- 한국 측은 투자자유화 정책 설명 및 덴마크의 한국 개발 사업 참여 요청
- 덴마크 측은 선박 디젤 엔진, 전자, 공해 억제 장비, 식품가공, 전자의료 장비 및 산업용 효소 등에 관심 표시
- 덴마크 측은 개도국 공업화 기금 설명
- 덴마크 낙농기술 이전 장려 방안 협의

에콰도르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1-84

| 84-0293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18 / 14 / 1~48(48p)

1. Jaime Roldos Aguilera 대통령 방한 계획 관련 내용임.

- Roldos 대통령은 1981.1월 주에콰도르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 방한 희망을 표시
-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북한 침투 저지를 위해 1981.2월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장을 작성하였으나, 대사 교체 및 에콰도르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1981.5.24. 동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초청이 무산

2. Osvaldo Hurtado Larrea 대통령 방한 계획 관련 내용임.

- Hurtado 대통령은 1984.3월 주에콰도르대사에게 4월 중국(구 중공) 등 아시아 방문 기회에 방한을 희망
- 주에콰도르대사는 1984.3월 이임 예방 시 한국 정부의 외빈 영접 계획상 6월 초 Hurtado 대통령의 방한 접수가 가능함을 에콰도르 외상에게 통보
  - 주에콰도르대사는 외무성 등 주재국 정부 부처들이 Hurtado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치 없이 관망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1 기본문서

| 84-029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19 / 1 / 1~244(244p)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의 1984.9.21.~23. 방한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및 교섭

- 1984.5.9. 가봉 대통령실 의전장은 주가봉대사에게 봉고 대통령이 1984.9월로 예정된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
- 정부는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봉고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하고 1984.5월 가봉 측에 통보하였으며, 봉고 대통령은 6.2. 주가봉대사에게 방한 시 양국 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를 희망
-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체한 기간을 9.24.까지로 하루 연장하는 문제를 9월초 가봉 선발대 방한 시까지 협의하였으나 미합의
- Mebiame 수상 부부는 9.18. 먼저 도착하여 국무총리 면담 등 별도 비공식 일정 후 방한단에 합류

2. 방한 결과

- 수행원
  - 외무협력장관, 공업기업장관, 통상소비장관, 경제재무장관, 대통령 특별참모장 등 52명
- 주요 행사
  - 정상회담, 국무총리 접견, 확대 각료회의, 방산품 구매 회의, 항공협정 서명
  - 현충탑 헌화, 조달본부 시찰
- 확대 각료회의 결과
  - 정부청사, TV 방송국 건설 차관 요청, 수산 분야 진출 요청에 대해 조사단 연내 파견
  - 농업개발 타당성 조사 추진(가봉 측 비용 60% 부담)
  - 우라늄, 목재, 망간 등 자원 개발 참여 위한 경제성 검토
  - 경제기획 고문, 경호요원 파견 검토
- 방산품 구매 회의에서 가봉측은 무기류 연불수출 요망
- 공동성명서 요지
  - 가봉 경제개발에 한국기업 참여 및 합작투자 장려 등 경제협력 강화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한국의 유엔가입 지원
  - 버마 사건 유감 표명, 테러행위 근절 위한 공동노력
  - 나미비아 독립투쟁 및 아프리카 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
  - 한 · 가봉 항공협정 체결
  - 남 · 남 협력 필요성 강조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2 의전 I

| 84-029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19 / 2 / 1~241(241p)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의 1984.9.21.~23. 방한과 관련한 의전 영접준비에 관한 내용임.

1. 일정, 특별기, 국가, 국기, 호칭, 이력서, 기호사항, 민요, 수행원, 훈장, 사진, 차량, 숙소 등 기본사항

2. 대통령 영식 Ali Ben Bongo의 1984.7.21. 결혼식에 대한 대통령 명의 축전

3. 선발대 방한

- 선발대 구성, 일정, 협의 필요사항 등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3 의전 II

| 84-029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19 / 3 / 1~298(298p)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의 1984.9.21.~23. 방한과 관련한 의전 영접준비에 관한 내용임.

1. 영접 계획

- ❋ 영접준비 관계기관 회의자료(1984.8.29. 외무부 의전장실)
- ❋ 업무분담 통보(1984.9.15. 총무처)
- ❋ 공항 환영 · 송 행사 기본계획(1984.9월 총무처)
- ❋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 각하 내외분 영접계획(안)(대통령 재가문서 1984.9월 외무부)
- ❋ Mouity 의전장과의 협의사항

2. 연회

- ❋ 전매청 앞 연송 제작의뢰, 민속공연 프로그램, 만찬 식단, 만찬사 및 답사, 좌석 배치 계획
- ❋ 각종 연회 참석자 명단

3. 타부처 협조

- ❋ 선발대 사전답사 협조 요청
- ❋ 기념담배, 기념우표 제작 발매 요청
- ❋ 의료진 배치요청
- ❋ 주파수 사용허가 요청
- ❋ 항공기 이착륙 허가, 항공관제 협조 요청 등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 방한, 1984.9.21-23. 전4권. V.4 자료

| 84-029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19 / 4 / 1~144(144p)

El Haji Omar Bongo 가봉 대통령의 1984.9.21.~23. 방한과 관련된 자료임.

1. 외무부 관련 국(局)별 현황 자료

2. 봉고 대통령 영부인 예방 자료

3. Mebiame 수상 국무총리 예방 관련 자료

4. 가봉 대통령 방한 회의 자료

5. 한 · 가봉 정상회담 자료(1984.9월 청와대 정무1)

6. 봉고 대통령 방일 시 경제협력 관계 요청 사항

7. 일본 · 가봉 공동성명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1 기본문서

| 84-029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9 / 5 / 1~183(183p)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의 1984.9.12.~17. 방한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및 사전교섭

- 1983.12.29. 감비아 외상은 주세네갈대사에게 감비아 대통령의 1984.4월 중순 이후 방한을 희망
- 정부는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동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1984.1.24. 주세네갈대사를 통해 84년 하반기 이후 방한에 동의함을 통보
- 양국 정부는 1984.7월 방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세네갈 대통령의 방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9.12.~17.로 최종 합의

2. 방한 결과

- 수행원
  - 외상, 기획산업개발상, 의전장, 외무성 사무차관 대리, 농업성 사무차관 대리, 무역공사 사장 등 총 15명
- 주요 일정
  - 정상회담, 국립묘지 참배, 국무총리 접견
  - 별도 각료회담(외무장관 회담 및 경제장관 회담)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한국중공업, 동양물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 용인 민속촌 관광
- 각료회담 결과
  - 버마 사건, KAL기 사건 관련 감비아의 협조에 사의 표명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및 유엔 가입 노력 설명
  - 감비아에 30만 달러 원조 통보
  - 주한 감비아대사 임명 요청
  - 영농장비, 수송수단, 미작기술 등 농업 분야 협력, 의료기기, 지방통신시설, 교량건설 등 지원 문제 협의
  - 양국 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가서명
-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 발표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2 공동성명 및 자료

| 84-029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9 / 6 / 1~320(320p)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의 1984.9.12.~17. 방한 관련 공동성명 협의 과정 및 방한 준비 자료임.

1. 공동성명

- 1984.8월 공동성명의 한국 측 초안에 대해 감비아 측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는 정상회담 후 포함 여부 결정
  - 세네감비아 연방의 성과에 대한 한국의 성공기원 문구를 포함 희망
  - 자와라 대통령이 이·이전 종식을 위한 Islamic Peace Committee의 의장으로서 걸프전 종결과 중동 평화에 기여하였음을 찬양하는 문구를 포함 희망
- 공동성명 요지
  - 양국 관계 만족 표명 및 협력 강화 희망
  - 감비아 경제 개발에 한국기업 참여 지원,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조기 체결 합의
  - 감비아 경제사정 및 한발 대책 설명
  - 한국 측의 평화통일 노력 설명 및 감비아 측 지지 표명
  - KAL기 격추 사건 및 버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 아프리카 지역 정세, 중동평화에 대한 양국 공동입장 확인
  - 자와라 대통령의 중동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찬양
  - 남남 협력 필요성 강조

2. 자료

- 감비아 최근 정세(1984.6월 주세네갈대사관)
- 양국 관계 관련 주세네갈대사관 및 외무부 관련국 작성 자료
- 각종 연설문 작성 자료 및 연설문(안)
- 국무총리 감비아 대통령 예방 자료(외무부)
- 한-감비아 경제 각료 회담 자료(해외협력위원회)
- 감비아 개황(외무부)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3 의전 I

| 84-030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9 / 7 / 1~263(263p)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의 1984.9.12.~17. 방한 관련 의전 영접준비 관련 사항임.

1. 의전 일반

- ❁ 일정, 특별기, 국가, 국기, 호칭, 이력서, 기호사항, 민요, 수행원, 훈장, 사진, 차량, 숙소 등 기본사항

2. 영접 계획

- ❁ 방한초청 기간 관련 건의(대통령 재가문서, 1984.1월 외무부)
- ❁ 각종 서식 문안
  - 기념담배 환영 문안, 기념우표 문안, 공식 문안, 선물, 화환 문안 등
- ❁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공문
- ❁ 주요인사 약력
- ❁ 민요 악보
- ❁ 감비아 공화국 자와라 대통령 각하 내외분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대통령 재가문서, 1984.8월 외무부)
- ❁ 공항 환영 · 송 행사 기본계획(총무처)
- ❁ 초청인사 명단(총무처)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 방한, 1984.9.12-17. 전4권. V.4 의전 II

| 84-030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19 / 8 / 1~112(112p)

Dawada Kairaba Jawara 감비아 대통령의 1984.9.12.~17. 방한 관련 의전 영접준비 관련 사항임.

1. 타부처 협조

- 서울시경 앞 비표제작 보안 의뢰
- 기념우표, 담배 제작 발매 의뢰
- 숙소, 방문 · 시찰 관련 협조 의뢰
- 무기반입, 기념 영상물, 취재 보도 관련 협조 요청
- 환영 공연 프로그램 등

2. 연회

- 좌석배치표, 만찬사 및 답사, 연회 식단
- 각종 연회 초청자 명단
- 만찬 입장 카드
- 좌석 배치도 등

Henri 룩셈부르크 왕세자 방한, 1984.4.25-5.1

| 84-030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0 / 8 / 1~113(113p)

룩셈부르크 Henri 왕세자(The Prince Henri, Grand-Duke Heir)의 1984.4.25.~5.1.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4.3월 주벨기에대사는 룩셈부르크 대공(국가원수) 계승자인 Henri 왕세자가 사적 방한을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인이 국가원수 계승권자로서 정부의 정책 입안에 영향력이 있으므로 정중히 예우해 줄 것을 건의함.

2. 방한 개요

❋ 방한 목적

- 양국 간 친선 및 경제협력 강화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장, 외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교통부 장관, 재무부 차관, 서울시장 예방
- 전경련, 대한항공 방문
- 삼성전자, 대우자동차 시찰
- 제주 관광

❋ 교통부 장관 예방 시 Cargolux의 서울 취항 문제 거론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1 사전교섭

| 84-030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0 / 9 / 1~247(247p)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의 1984.10.29.~11.1. 방한 관련 양국 간 사전교섭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2.7월 Jameel 몰디브 외상은 주스리랑카대사에게 Gayoom 대통령의 1983년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방한 수락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1983.7월 자밀 외상은 주스리랑카대사에게 가윰 대통령이 1983.8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나 이는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 가윰 대통령은 1983.11월 주스리랑카대사에게 1984년 중 방한 희망

2. 방한 준비 사전교섭

- 양국 정부의 교섭을 거쳐 1984.6.27.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 1984.7.26. 가윰 대통령은 주스리랑카대사에게 방한 시 관심사로서 상품차관 공여, 몰디브 남부 Gan 섬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문제 거론
- 1984.8.16. 몰디브 정부가 한국 측에 제시한 관심사항 중 특기 사항
  - 인도양 평화지대(IOPZ) 등 지역 문제
  - Male 스포츠 스타디움 건설, Male 도로 유지 보수
  - 문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 1984.10.2. 몰디브 외상은 뉴욕에서의 한국 외무장관과 회담 시 가윰 대통령이 체육 및 청년 육성에 관심이 많아 방한 중 스포츠 시설 시찰을 희망한다고 언급

3. 선발대 방한

- Shihab 외무성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가 1984.10.21.~23. 방한하여 일정을 점검하고 사전답사 실시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2 결과보고

| 84-030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0 / 10 / 1~177(177p)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의 1984.10.29.~11.1. 방한 결과보고, 공동성명 등에 관한 내용임.

1. 결과보고(1984.11.1.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사항)

❋ 주요 성과

- 국무총리의 가윰 대통령 예방 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조 당부
- 양국 간 문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 가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 지지 표명

❋ 후속조치

- 몰디브의 재정지원 요청, Male 운동장 건설 및 도로 유지·보수 등 협의를 위해 각료급 경제사절단 파견 추진 또는 30만 달러 범위 내 무상원조 제공

2. 공동성명

❋ 1984.9월 한국 측의 초안 제시에 이어 진행된 양국 간 협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견사항에 대해 의견 조정

- 한반도 정세, 유엔 가입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몰디브 측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이유로 표현이 완화된 수정안 제시
- 몰디브가 주장하는 인도양평화지대(IOPZ) 관련, 이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 측이 수정안 제시

❋ 공동성명 주요 내용

- 남북대화 노력 지지
- 버마사건 유감 표시 및 테러방지 위한 공동노력
- 한국의 UN 가입 노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 인도양평화지대 관련, 몰디브는 UN의 평화수역 선포 결의의 실현 필요성 강조, 한국은 인도양 평화가 서남아 안보에 중요함을 공감
- 양국 간 개발경험 교환 및 과학기술 협력 증진 합의
- 서울올림픽 성공 기원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3 의전

| 84-030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0 / 11 / 1~266(266p)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의 1984.10.29.~11.1. 방한 관련, 의전 영접준비에 관한 자료임.

1. 공항 환영 · 송 행사 기본계획(총무처)

2. 초청인사 명단(총무처)

3. 몰디브 공화국 가윰 대통령 각하 영접계획(대통령 재가문서, 외무부)

4. 몰디브 대통령 방한 일정(안)

- ❁ 국무총리 접견, 현충탑 헌화, 정상회담
- ❁ 새마을운동본부, 삼성전자, 선경합섬, 잠실운동장 시찰
- ❁ 기자회견

5. 몰디브 공화국 가윰 대통령 각하 환영공연

6. 환영만찬 연설문

7. 악보

8. 일정 관련 타부처 및 기관 앞 협조요청 문서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 방한, 1984.10.29-11.1. 전4권. V.4 자료

| 84-030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1 / 1 / 1~368(368p)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대통령의 1984.10.29.~11.1. 방한 관련, 정상회담, 면담자료 등 방한 준비에 관한 자료임.

1. 정상회담 자료

- 정상회담 자료 작성 준비를 위한 각 관련 부처, 외무부 부내 관련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 및 현안문제에 관한 입장 조회 문서
- 한 · 몰디브 정상회담 자료(청와대 정무1)

2. 면담 자료

- 몰디브 자밀 외상 면담자료(외무부 아주국)
- 가윰 몰디브 대통령 국무총리 면담자료

3. 공동성명서

4. 기타 기본의전 사항 관련 자료

- 일정, 국가, 국기, 호칭, 이력서, 기호사항, 민요, 수행원, 훈장, 사진, 차량, 숙소 등

Deroburt, Hammer 나우루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 1981-84

| 84-0307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1 / 2 / 1~48(48p)

Deroburt 나우루 대통령 방한 계획과 관련한 1981~84년 양국 간 협의 내용임.

1. 1981.4.29. Hammer Deroburt 나우루 대통령은 호주 멜버른에서 주호주대사에게 Air Nauru의 서울 취항을 제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을 희망함.

2. 1984.11월 나우루 정부는 11.6.~16.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 협의회(APT) 총회에 Deroburt 나우루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회의 직전 국내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함.

GYANENDRA Bin Bikrm Shah 네팔 제1왕제 방한계획, 1977-84

| 84-0308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21 / 3 / 1~341(341p)

Gyanendra bin Bikrm Shah 네팔 제1왕제의 방한 계획과 관련한 1977~84년 양국 간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1977~79년 교섭내용

- 1977.7월 정부는 Gyanendra bin Bikrm Shah 네팔 제1왕제가 북한의 초청으로 국왕을 대신하여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도 방문할 것을 교섭하였으나, 네팔 측은 한국을 방문국에 추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추후 북한 방문도 취소
- 1977.8월 정부는 네팔 측의 요청으로 Gyanendra 왕제의 1978.6월 방한을 환영한다는 뜻을 네팔 측에 전달하였으며, 북한 동시 방문 가능성을 감안하여 먼저 방한하는 문제 등 방한 시기를 협의하였으나, 동 왕제는 한국 측과 사전협의 없이 1978.7월 북한만 방문
  - 정부는 동 왕제의 북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동 왕제의 영향력 및 북한 침투 저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978.7월 최규하 국무총리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 1979.3월 네팔 측이 5월 방한에 동의함에 따라 양측 간 일정 조정을 거쳐 5월 말 방한에 합의하고, 방한과 관련한 모든 행정 및 의전상 준비를 완료하고 5.23. 양국 정부가 왕제의 방한을 공식 발표하였으나, 네팔 정부는 학생소요 사태로 인한 방한 무기연기를 한국 정부에 통보

2. 1980~84년 교섭내용

- 1980.7월 네팔 외무성 인사가 Gyanendra 왕제의 방한 건을 주네팔대사에게 재론한 이후 양국은 동 왕제의 1980년 가을, 1981.3월, 1982,10월 방한 가능성을 협의하였으나, 네팔 측 사정으로 무산
- 1983.10월 전경환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네팔 방문 시 Gyanendra 왕제를 비공식 초청하였으며 네팔 측은 1984.4월 방한에 동의
  - 1984.2월 주네팔대사는 전경환 사무총장의 Gyanendra 왕제 앞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나 네팔 측은 1984년 말 또는 85년 초 방한 가능성을 언급

Marcos, Ferdinand E. 필리핀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66-84

| 84-0309 |

생산연도	1966-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1 / 4 / 1~115(115p)

1. 주필리핀대사는 1966.6월 서울 개최 ASPAC 각료회의에 참석한 라모스 필리핀 외상과 1966.8월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대통령이 방미하는 도중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에 관하여 비공식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 외상도 원칙적으로 동의함.

2. 주필리핀대사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1966.7.12. 라모스 외상을 방문,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공식 협의하였는바, 동 외상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방한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미국 방문 귀로에 방한을 희망했다고 설명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1966.9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공식 초청장을 송부 요청함.
   - ❁ 라모스 필리핀 외상은 1966.7.27. 주필리핀대사에게 마르코스 대통령은 9월 미국 방문 후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이번에는 미국만 방문하고 한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

3. 마르코스 대통령은 1968.3.22. 주한 필리핀대사관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1968년 가을 뉴질랜드 방문 전후에 필리핀 방문을 초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국 대통령이 1968년 중 이미 방문을 약속한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그 이외 나라는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사정임을 설명하고, 필리핀 측 사정이 괜찮다면 1969년 봄 방문할 수 있겠다는 의사와 아울러 마르코스 대통령의 1968년 가을 방한을 희망한다는 뜻을 1968.4.22.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통고함.
   - ❁ 1968.6.11. 잉그레스 필리핀 외상 서리는 한·필리핀 양국 원수의 상호 공식 방문에 관하여 공한을 보낼 것이라고 주필리핀대사에게 설명하면서, 그 내용은 1969.3월경 박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초청하는 것이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방한은 국내 정무 관계상 1968년 중에는 필리핀을 떠나기 곤란하다고 언급

4. 1977.3월 주필리핀대사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1977.4월 방일 계획을 보고하면서 동 기회에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영접할 사정이 못 된다고 통보함.

5. 외무장관은 1979.5월 필리핀 방문 후 대통령에게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하고 1979.10월 방한을 필리핀에 제의하였으나, 1979.9월 필리핀 측은 국내 사정상 연내 방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임.

6. 1982.5월 필리핀 외무성은 전두환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1981.7월)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1982.9월 방미 계기에 방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방한이 취소됨.

Barletta, Nic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방한, 1984.7.19-20. 전2권. V.1 기본문서

| 84-031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1 / 5 / 1~250(250p)

Nicolas Ardito Barletta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의 1984.7.19.~20. 방한과 관련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사전교섭

- Barletta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는 1984.6월 파나마를 방문한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면담 시 7월 일본 방문 후 방한 의사를 표명
- 정부는 파나마 신정부와의 우호관계 및 북한 침투 저지를 위해 동인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1984.6월 주파나마대사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2. 방한 개요

- 방한 기간: 1984.7.19.~20.
- 수행원
  - 당선자 부인, 제2부통령 당선자 부처, Calvo 주일대사, Duque 국회의원, 미국 · 파나마 운하 합동위원회 위원 부처, 투자위원장 부처 등 26명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전경련회장, 대우회장 면담
- 주요 협의내용
  - 한반도 정세 및 평화통일 노력
  - 한국 기업의 미국이 제안한 카리브 개발계획(CBI) 활용 문제
  - 양국 간 통상사절단 교환
  - 한국 기업의 메타놀 개발사업 참여

3. 자료

- 국무총리 예방 참고 자료(외무부)
- 명단, 약력 등 의전 자료
-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접견 자료(청와대 정무1)

Barletta, Nic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방한, 1984.7.19-20. 전2권. V.2 의전

| 84-03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1 / 6 / 1~204(204p)

Nicolas Ardito Barletta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의 1984.7.19.~20. 방한과 관련한 의전 영접준비에 관한 내용임.

1. 의전 일반

- 인적사항, 부인, 수행원, 일정, 연회 참석자, 서열 등과 관련한 파나마 정부와의 협의 내용

2. 영접 준비

- 방한 영접 계획(외무부 의전장실)
- 방한 영접 관련부처 협조 요청
- Barletta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내외 영접 계획(외무부)

3. 연설문

- 국무총리 연설문
- Barletta 대통령 당선자 답사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1 기본문서

| 84-031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의전과
MF번호	2014-21 / 7 / 1~340(340p)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의 1984.4.20.~22. 방한과 관련한 사전교섭, 방한 결과, 공동성명 등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사전교섭

- 1983.2월 칼리파 국왕은 박동진 대통령 특사 접견 시 방한 희망을 표시
- 1983.5월 정부는 주카타르대사의 건의에 따라, 대카타르 건설 · 통상 진출확대 및 걸프 국가들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
- 1983.11월 주한 카타르대사(일본 상주)는 이원경 외무장관에게 국왕의 1984년 4~5월 방한 희망을 전달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환영
- 1984.3.15. 양국 정부는 칼리파 국왕의 4.20.~22. 방한을 공식 발표
  -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아시아 순방의 일환

2. 공식방문 결과

- 수행원
  - 석유재무상, 외무담당 국무상, 공보상, 석유공사 총재 등 공식 21명, 비공식 25명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접견, 현충탑 헌화, 정상회담, 외교단 접견, 서울시 관광, 기자회견(공보상) 등
  - 동자부, 재무장관 면담(석유재무상), 경제기술통상협력협정 서명(외무담당 국무상)
- 공동성명 교섭
  -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중동전, 팔레스타인 문제(주한 상주공관 설치문제 등에 대해 양측 간 약간의 이견이 있어 사전 교섭을 통해 문구 수정 또는 삭제)
- 공동성명 주요 내용
  - 버마 사건 및 KAL기 피격 사건 관련 공조
  - 카타르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 참여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 중동평화 정착 노력 지지 등
- 기타 주요 논의사항
  - 카타르 LNG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문제, 카타르의 북한 수교 불고려 확인 등

3. 비공식 재방문

- 칼리파 국왕은 당초 계획된 일본 방문 기간을 단축하여 1983.4.29.~5.2. 한국을 비공식 재방문
- 조달본부 방산품 전시장을 시찰하였으며, 그 외 일정은 쇼핑 및 시내 관광 등 사적 일정 위주로 휴식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2 의전 I

| 84-031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의전과
MF번호	2014-21 / 8 / 1~325(325p)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의 1984.4.20.~22. 방한과 관련한 의전 영접계획에 관한 문서임.

1. 세부 일정

- ❋ 일정, 인적사항, 국가 · 국기 · 민요, 수행원, 서훈, 선물, 특별기, 무기반입, 숙소 등 관련 사항
- ❋ 석유재무상 별도 일정

2. 영접 계획

- ❋ 행사별 담당자
- ❋ 환영현판 문안, 악보, 환영 민속공연
- ❋ 방한일정 소책자
- ❋ 카타르국 칼리파 국왕전하 공식방한 영접계획(안)(대통령 재가문서, 외무부)
- ❋ 카타르 국왕 비공식 방한 준비사항 점검표
- ❋ 비공식 방한 영접준비 관련, 관계 부처 및 기관 협조요청 내용

3. 서훈

- ❋ 서훈 교환 관련 양국 간 사전협의 및 국내 준비 관련 내용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3 의전 II

| 84-031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의전과
MF번호	2014-21 / 9 / 1~260(260p)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의 1984.4.20.~22. 방한과 관련한 선발대 방한, 국내 관련 부처 협조 등에 관한 내용임.

1. 선발대

- ❁ 칼리파 국왕 방한 준비를 위한 카타르 선발대가 1984.3.15.~19. 방한
  - Al-Nuami 왕실 의전수석 등 5명
- ❁ 한국 착발 시각, 수행원 명단 확인
- ❁ 환영식, 헌화, 정상회담, 오 · 만찬, 외교단 접견, 시내 관광, 기자회견, 배석인사, 통역, 차량, Hot Line 등 의전 절차 점검 및 장소 답사

2. 타부처 협조

- ❁ 기념우표, 기념담배, 선발대 답사, 국기 제작, 방문지 준비, 숙소, 만 · 오찬, 특별기, 주파수 사용 등 관련부처 협의
- ❁ 양국 간 정상회담 및 별도 각료회담 준비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
- ❁ 공항 환영 · 송 행사 기본계획(총무처)

3. 만찬사

- ❁ 대통령 만찬사
  - 국왕 업적 찬양,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관련 카타르의 위로에 감사, GCC의 중동평화 노력 치하, 민주통일 노력 설명
- ❁ 국왕 답사
  - 팔레스타인 민족자결 및 독립국 창설 노력 지지에 사의 표명
  - 이스라엘의 아랍 침공 종식 필요성 공감 희망
  -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 지지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 방한, 1984.4.20-22. 전4권. V.4 자료

| 84-031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의전과
MF번호	2014-21 / 10 / 1~277(277p)

Khalifa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의 1984.4.20.~22. 방한과 관련한 양국관계, 현안문제 등에 관한 자료임.

1. 공동성명 포함 외무부 관련 부서 협조 요청

2. 국왕 방한 자료 제출(주카타르대사관)

400

3. 카타르 국왕 방한 자료(공보관실 용)(외무부 중동국)

4. 한 · 카타르 정상회담 및 별도 각료회담 관계 실무자회의 자료(외무부)

5. 칼리파 카타르 국왕 면담자료(외무부 중동국)

6. 카타르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자료(중동국)

7. 한 · 카타르 정상회담 자료(청와대 정무1)

Stevens, Siaka 시에라리온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 1982-84

| 84-0316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2 / 1 / 1~92(92p)

1. 1983.1월 시에라리온 정부는 스티븐스 대통령이 1983.3.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대통령 일정 등 국내사정으로 1983년 하반기 방한을 제의함.

2. 1983.9월 시에라리온 정부는 스티븐스 대통령이 뉴델리 개최 영연방 정상회의 직전인 1983.11.15.~19. 방한을 제의하였으나 방한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건강 사정으로 인도 방문 후 귀국함.

3. 1984.2월 비공식 방한한 콘테 시에라리온 외상은 스티븐스 대통령의 1984.4.~5월 방한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하반기 방한을 희망함.

4. 1984.7월 시에라리온 외무성은 스티븐스 대통령이 8월 초 북한 방문 예정이라고 주시에라리온대사에게 설명하고 9월경 방한을 희망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방한할 경우 최소한 수개월의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고 회신함.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1 기본문서

| 84-031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2 / 2 / 1~289(289p)

자예와르데네(Junius R. Jayewardene) 스리랑카 대통령의 1984.5.27.~30. 방한과 관련한 사전교섭, 방한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사전교섭

❋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은 1981.10. 주스리랑카대사가 신임장 제정 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수락의사를 밝혔으며, 정부는 1981.11월 방한 초청장을 전달
- 비동맹 내 지위, 상주공관 재개, 북한의 침투 저지 등 필요성 감안

❋ 1983.12월 스리랑카 외상은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의 1985.5월 방한 희망을 전달한 데 이어, 1984.1월에는 방한 시기를 1984.5월로 수정 제의
- 그 후 스리랑카 측은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의 일본 및 중국 방문과 관련한 기간 조정 끝에 1984.5.27.~30. 을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

2. 방한 결과

❋ 수행원
- 비서실장 내외, 외상 비서실장, 국무성 공보국장 등 18명

❋ 방한 일정
- 국무총리 접견, 국립묘지 참배, 정상회담, 외교단 접견
- 울산 및 포항 산업시찰, 경주 관광, 옥포 조선소 시찰, 잠실 종합운동장 시찰
- 새마을운동본부 시찰, 기자회견

❋ 주요 협의사항
- 비동맹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문제
- 주한 스리랑카 상주 공관 설치
-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 및 무역협정 체결

3. 후속조치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사절단 스리랑카 파견, 스리랑카 공무원 초청, 민간 경협위 활성화 등 추진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2 의전 I

| 84-031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2 / 3 / 1~251(251p)

자예와르데네(Junius R. Jayewardene) 스리랑카 대통령의 1984.5.27.~30. 방한과 관련한 의전 영접계획, 준비내용 등에 관한 내용임.

1. 영접 계획

-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자예와르데네 대통령 각하 내외분 영접계획(안)(대통령 재가 문서, 외무부)
- 행사별 스리랑카 측 참석자 명단(영문, 외무부 의전장실)
- 스리랑카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이춘림 회장 주최 오찬 계획(외무부 안)

2. 환영 · 환송 계획

-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자예와르데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공식방한 공항 환영 · 송 행사 기본계획(총무처)
- 초청인사 명단(총무처)
- 스리랑카 대통령 영접계획(대우자동차주식회사)

3. 선발대

- 1984.5.10.~16. 방한
- 외무성 대사, 주한 대사(도쿄 상주), 외상보좌관 등

4. 수행원

- 수행원 명단
- 외상은 해외출장으로 인해 수행원에서 제외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3 의전 II

| 84-031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2 / 4 / 1~233(233p)

자예와르데네(Junius R. Jayewardene) 스리랑카 대통령의 1984.5.27.~30. 방한과 관련한 외교단 접견, 차량, 일반 의전사항, 국내 유관기관 협조 등 의전 관련 준비사항에 관한 내용임.

1. 외교단 접견

- 외교단 접견 행사 관련, 주한 외교단 통보 및 회신

2. 차량

- 행사별 차량 배차 계획

3. 의전일반

- 일정, 인적사항, 국가 · 국기 · 민요, 수행원, 서훈, 선물, 무기반입, 숙소 등 관련사항

4. 국내 유관기관 협조

- 영접준비, 행사진행 등과 관련한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내용
- 스리랑카 측의 요청으로 이한 항공편(김포-타이베이-홍콩 운항 대한항공)상 타이베이 경유를 생략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4 공동성명서 · 연설문 및 언론보도

| 84-032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2 / 5 / 1~200(200p)

자예와르데네(Junius R. Jayewardene) 스리랑카 대통령의 1984.5.27.~30. 방한과 관련한 공동성명, 연설문, 언론보도 등 자료임.

1. 공동성명

- ❁ 한국 측 제시 초안을 토대로 협의, 버마 사건, 서남아시아 지역협력, 스리랑카 정세 등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
- ❁ 스리랑카 측은 특히 자국 대통령의 스리랑카 단일국가 유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할 것을 희망
- ❁ 공동성명 요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노력 지지
  - 버마 사건 관련 유감 표시 및 테러방지 공동 노력 다짐
  - 서남아 지역안보 중요성 및 SARC 역할 공감
  - 남북한 유엔 가입 지원
  - 각료급 경협 사절단 파견
  - 양국 간 개발경험 교환 및 과기협력 증진 합의
  - 새마을운동 중요성 강조 및 한국의 지원

2. 연설문

- ❁ 전두환 대통령 만찬사
  - 개발경험의 교환을 통한 남남협력 참여
  - 남북 직접 대화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원 및 비동맹을 통한 격려에 사의
- ❁ 스리랑카 대통령 답사
  - 부처님의 가르침이 양국 교류 강화의 요인
  - 선진국의 개도국 경제발전 관심 및 지원 중요
  - 지역협력을 통해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목표 달성 가능

Jayewardene, Junius R.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1984.5.27-30. 전5권. V.5 자료

| 84-03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2 / 6 / 1~288(288p)

자예와르데네(Junius R. Jayewardene) 스리랑카 대통령의 1984.5.27.~30. 방한과 관련한 정상회담, 의전행사 준비 등 관련 자료임.

1. 정상회담 자료

- ❋ 한 · 스리랑카 정상회담 자료(외무부)
- ❋ 한 · 스리랑카 정상회담 자료(청와대 정무1)

2. 민요 악보

- ❋ 스리랑카의 대표적 민요 악보

3. 참고 자료

- ❋ 인적사항, 사진, 관련 서적 등
- ❋ 기자회견 시 질문사항(국문, 영문)
- ❋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관련 총리 부인 말씀 자료
- ❋ 스리랑카 개황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1 사전준비

| 84-032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22 / 7 / 1~242(242p)

1. 1982.8월 세네갈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은 압두 디우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이후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쳐 1984.7.9.~12. 일정을 추진함.

❋ 당초 이 시기에는 감비아의 자와라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세네갈이 주도하여 감비아와 '세네감비아' 연방 체제를 운영하는 현실과 국제무대에서 세네갈의 비중을 고려하여 디우프 대통령을 먼저 초청하고 자와라 대통령은 9월에 추진키로 결정함.

2. 한 · 세네갈 양국 정부는 1984.6.12. 디우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을 동시에 발표하였으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정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디우프 대통령의 주요 일정은 전두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만찬, 시찰(삽교 방조제, 양수장, 새마을 시범부락, 삼성전자)

❋ 별도 각료회담으로 외무장관회담, 경제각료회담 개최

❋ 투자보장협정 서명, 공동성명 발표(문안교섭진행) 추진

❋ 정상회담 의제는 외교협력, 경제 · 통상 관계

- 외교협력은 유엔, 비동맹회의에서의 협력문제(세네갈의 한국 지지), 한국-미수교국 관계(세네갈이 수교를 지원) 등
- 경제 · 통상은 세네갈 기술연수생 초청, 무상원조 제공, 한국의 세네갈 댐, 관개공사 참여, 세네갈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국의 지원문제 등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2 결과보고

| 84-032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22 / 8 / 1~236(236p)

1. 1984.7.9.~12. 방한한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은 7.10.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 결과는 7.12. 공동성명으로 발표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 공동위원회 설치
- ❋ 이중과세방지협정, 해운협정 체결 추진
- ❋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세네갈이 지지
- ❋ 남아공의 인종차별과 나미비아 불법점령 규탄(공통 입장)
- ❋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지지(공통 입장)

2. 이에 앞서 진의종 국무총리가 디우프 대통령을 숙소로 예방하고 북한의 도발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디우프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3. 별도로 개최된 각료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이원경 외무장관과 무스타파 외무장관과의 회담
  - 세네갈 측이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를 표명하고 비공개적인 실질협력을 약속함.(한국-기니 수교를 위한 지원도 약속)
  - 양측이 경제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합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함.
- ❋ 금진호 상공장관, 김기환 대외협력기획단장, 강영식 수산청장과 셰이크 칸 기획협력장관, 세린 디오프 산업개발장관과의 경제각료회담
  - 세네갈 측이 재정, 어업개발, 시범농장건설, 철광개발을 위한 항만철도건설 지원 요청
  - 한국 측은 재정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다른 분야는 검토를 약속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3 의전 I

| 84-032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22 / 9 / 1~258(258p)

1. 외무부는 디우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세네갈 측이 선발대를 파견하지 않을 계획임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아래 사항에 관해 협의하고 사전준비를 진행함.

- ❁ 대통령과 영부인 희망일정
- ❁ 정상회담과 만찬, 시찰, 기타 행사의 참석범위
- ❁ 공식, 비공식, 경호, 언론 등으로 구분한 수행원 및 체재비 부담 범위
- ❁ 입 · 출국, 경호
  - 전용기 입 · 출국 시간
  - 출입국 및 세관 신고(신고서 사전작성)
  - 경호원 무기반입 여부와 반입 시의 무기 종류
- ❁ 기타 대통령 내외 기호, 국가와 민요의 악보, 선물 대상과 내용

2. 디우프 대통령의 수행원은 공식 18명, 비공식 9명임(전용기 승무원 5명 제외).

- ❁ 공식 수행원에 대통령 영애 포함
- ❁ 비공식 수행원 가운데 경호원 4명, 언론 · 홍보 관계자 4명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4 의전 II

| 84-032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22 / 10 / 1~235(235p)

1. 외무부가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 방한을 위해 국내적으로 준비하고 점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장답사

- 공항행사장, 숙소(신라호텔)
- 삽교천 방조제, 운정 양수장, 새마을 시범부락(경기도 화성)
- 잠실운동장, 호암미술관

❁ 국내인사 참석범위

- 행사별 참석 · 배석자, 좌석배치

❁ 차량배치

- 행사별, 이동구간별 차량과 탑승자

❁ 기타 행사별 통역 등

2. 외무부는 위의 결과를 불어 자료로 작성하여 세네갈 측에 제공함.

3. 외무부는 지방과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의 상세한 계획을 관련기관과 단체로부터 입수하여 행사 준비에 참고함.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방한, 1984.7.9-12. 전5권. V.5 자료

| 84-032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경제협력과
MF번호	2014-23 / 1 / 1~274(274p)

1. 외무부는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 방한 준비의 일환으로 부내 각 부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고 대통령 비서실 등에 송부함.

❁ 정상회담 관련
- 국제정세, 지역정세, 한반도정세 평가
- 한 · 세네갈 양자관계 현황, 현안, 대책

❁ 연설문, 인사말
- 공항행사, 정상만찬 등
- 대통령 영부인 면담자료

❁ 기타 공동성명 문안 등

2. 해외협력기획단은 디우프 대통령 방한에 대비하여 '한 · 세네갈 경제협력 현안 및 추진방향' 관련 자료를 작성한바,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세네갈 경제현황
- 경제동향, 정책기조, 주요사업

❁ 경협여건과 추진방향
- 양자경제관계 평가, 분야별 경협여건, 추진방향

❁ 현안문제와 교섭지침
- 통상, 합작투자, 기술협력, 개발계획 참여, 무상원조, 협정체결, 민간경제협력위원회

Omer Mohamed EL TAYEB 수단 제1부통령 방한, 1984.10.2-6. 전2권. V.1 기본문서

| 84-032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3 / 2 / 1~353(353p)

1. 정부는 엘 타옙 수단 제1부통령이 방한을 희망한다는 주수단대사의 보고를 검토하여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로 초청함.

❁ 수단 정권의 제2인자인 점 등을 고려

2. 당초 수단 측은 1984.4월 방한을 희망했으나 이후 양측 사정과 협의를 거쳐 10월 초로 확정함.

412

3. 엘 타옙 부통령은 1984.10.2. 도착하여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국방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면담, 지방 산업시설 시찰(대우조선) 등의 일정을 마치고 10.6. 출국함.

❁ 예방 · 면담 결과

- 수단 측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초청기술훈련 확대, 직업훈련소 설립, 자동차 수리공장 건설 지원 등 경제기술협력을 요청함.

❁ 개별각료회담 결과

- 부통령을 수행한 만수르 재무경제기획장관, 와기 공업장관은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담하고 위의 경제기술 협력을 요청함.

4. 수단 측은 국방장관과의 면담 등에서 군사협력에 관심을 보임.

5. 외무부 본부는 후속조치로서 각 부처와 수단 측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외교경로로 전달함.

❁ 수도 카르툼과 아트바라를 잇는 도로건설 참여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

Omer Mohamed EL TAYEB 수단 제1부통령 방한, 1984.10.2-6. 전2권. V.2 의전

| 84-032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3 / 3 / 1~378(378p)

1. 외무부는 엘 타옙 부통령 방한 준비를 위해 주수단대사관과 아래 사항을 협의함.

- ❁ 수단 측 희망일정
- ❁ 행사별 참석범위
  - 회담과 만찬, 면담, 시찰, 기타 행사
- ❁ 수행원 범위
  - 공식, 비공식, 경호, 언론 등의 구분
- ❁ 입 · 출국, 경호 관계
  - 전용기 입 · 출국 시간
  - 출입국 및 세관 신고
  - 경호원 무기반입 여부와 반입 시의 무기 종류
- ❁ 기타
  - 부통령 기호

2. 또한, 외무부가 부통령 방한을 위해 의전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현장답사
  - 공항행사장, 숙소, 잠실운동장
- ❁ 국내인사 참석범위
  - 행사별 참석 · 배석자, 좌석배치
- ❁ 차량배치
  - 행사별, 이동구간별 차량과 탑승자

3. 엘 타옙 부통령의 수행원은 공식 12명, 비공식 5명, 경호원 5명, 수행기자 8명임(전용기 승무원 11명 제외).

Tupou 통가 국왕 방한 초청계획, 1974-84

| 84-0329 |

생산연도	1974-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3 / 4 / 1~34(34p)

1. 1974.11월 주뉴질랜드대사가 겸임국 통가를 방문하여 신임장 제정 시, 투포우 국왕은 이듬해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외무부 본부가 국내사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함.
   - 1979.9월 주뉴질랜드대사가 예방했을 때도 국왕이 방한 의사를 표명

2. 1982.10월말 겸임국 통가를 방문한 주피지대사에게 외무장관을 겸하는 투포우토 왕세자가 국왕의 방한 희망을 전달함.

진의종 국무총리 서구 및 사우디아라비아 순방계획, 1984.11. 전2권. V.1 기본문서

| 84-03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23 / 5 / 1~320(320p)

1. 외무부는 진의종 국무총리의 1984.11월 포르투갈, 바레인 공식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하였으나 행사 직전 발생한 진 총리의 신병으로 무기 연기함.
   ❁ 동시에 추진된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비공식 방문계획도 취소

2. 당초 외무부는 진 총리의 의향에 따라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공식방문도 함께 추진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됨.

진의종 국무총리 서구 및 사우디아라비아 순방계획, 1984.11. 전2권. V.2 자료

| 84-033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23 / 6 / 1~340(340p)

1. 외무부는 1984.11월로 예정되었다가 무기 연기된 진의종 총리의 해외순방 자료를 준비함.

❁ 공식 방문

- 포르투갈은 총리 회담자료, 대통령 예방자료, 교민행사자료(이하 각국 공통)
- 바레인은 총리 회담자료, 국왕 예방자료, 진출기업 방문자료

❁ 비공식 방문

- 프랑스는 총리 면담자료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 예방자료, 진출 기업 방문자료
- 태국은 국왕 예방자료

2. 진 총리는 프랑스 비공식 방문 시 파리특파원단과의 회동을 추진함.

Compton, John G. M. 세인트루시아 수상 방한, 1984.1.9-12

| 84-0332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3 / 7 / 1~310(310p)

1. 주캐나다대사는 1983.12.19. 세인트루시아 정부가 1984.1.8.~11. Compton 수상의 방한을 희망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수상이 홍콩 방문기회에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외교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 동 수상의 방한 희망을 정부가 수락할 것을 건의해 옴.

- 1983.12.21. 외무부는 동 수상을 방한 초청키로 하고 총리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
- 동 수상의 방한 일정을 1984.1.9.~12.로 조정

2. 방한 중인 세인트루시아 수상은 1984.1.10. 외무장관 및 국무총리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 측 언급 내용
  - 랑군 사건 및 그레나다 사태 등 관련, 대북한 단교 촉구
  - OECS(동부카리브국가기구) 정상회의 시 대북한 대응조치가 논의되도록 영향력 발휘 요망
  - 경제협력 용의 표명
- 세인트루시아 측 언급 내용
  - 북한의 그레나다 침투 관련, 대북한 관계 재검토 시기 도래
  - OECS 회의 시 거론 예정

3. 1984.1월 외무부는 세인트루시아 수상의 방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세인트루시아 수상은 북한의 그레나다 사태 개입과 관련, 대북한 관계를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동부 카리브 국가기구 정상회담에서 동 문제를 협의토록 하겠다고 약속
- 동 수상은 한국 측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평화통일 노력을 포함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약속
- 대세인트루시아 경제 및 기술협력 용의 표명
- 외무부는 동부카리브국가기구(OECS) 제국의 대북한 공동 대응조치 교섭을 위해 김영주 대사를 1984.1.7.~24. 파견

4. 세인트루시아 수상 방한 영접계획 및 공식 방한일정 소책자도 첨부되어 있음.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1 기본문서

| 84-033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3 / 8 / 1~353(353p)

1. 정부는 1983.10월 하순 호주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로버트 호크 수상이 다음해 1월말~2월초 방한을 희망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명의로 초청함.

- ❋ 호크 수상은 같은 시기에 일본, 중국(구 중공) 방문도 추진함.
- ❋ 호크 수상이 방한을 희망하기 직전에 예정되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호주 방문계획이 미얀마(구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으로 무산됨.

2. 호크 수상은 1984.2.4. 방한하여 전두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만찬, 국무총리 면담, 경제 각료 합동회의, 경제단체대표 간담, 부산 유엔군 묘지 헌화(호주군 묘역), 산업시찰(포항제철) 등의 일정을 가진 후 2.7. 출국함.

3. 호크 수상은 방한 중인 2.6. 신병현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 김만제 재무, 박종문 농수산, 금진호 상공, 최동규 동자부 장관과 경제 각료 합동회의를 가진바, 동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한국 측 표명
  - 호주 정부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한국에 대한 개도국 특혜관세 적용범위 축소, 자동차 수입허가제도 도입,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움직임을 거론하고 시정을 요청함.
- ❋ 호주 측 표명
  - 한국의 요청에 유의하겠다고 약속하고 호주산 농축산물의 수입확대를 요청함.
- ❋ 양측은 지역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함.

4. 방한 중 호크 수상은 아래의 비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짐.

- ❋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인사
- ❋ 권오기 동아일보 주필 등 언론계 인사
- ❋ 정일숙 이화여대 총장 등 학계 인사

5. 한편, 2.6. 주한 호주대사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근황을 묻고 그 결과를 호크 수상 체한 기간 중 알려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외무부에 보내 왔으며, 외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 이들의 근황과 함께 이들이 현행법 위반자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회신함.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2 의전

| 84-033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4 / 1 / 1~389(389p)

1. 외무부는 호크 수상 내외의 1984.2.4.~7. 방한 준비를 위해 호주 측과 아래 사항에 관해 협의함.

- 호주 측 희망일정
- 행사별 참석범위
  - 회담, 면담, 오・만찬, 시찰, 기타 행사
- 경호
  - 경호원 무기반입 여부와 반입 시의 무기 종류
- 기타
  - 총리 내외 기호 등

2. 외무부가 호크 수상 방한을 위해 의전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장답사
  - 공항행사장, 숙소, 부산 유엔군 묘지
- 국내인사 참석범위
  - 행사별 참석・배석자, 좌석배치
- 차량배치
  - 행사별, 이동구간별 차량과 탑승자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3 연설문

| 84-033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4 / 2 / 1~219(219p)

1. 로버트 호크 호주 수상 방한 시 전두환 대통령 주최 만찬(2.6.), 진의종 총리 주최 오찬(2.6.)에서의 양측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상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태 시대 건설을 위한 양국 협력을 희망

- 호크 수상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지지를 표명하고 양국의 무역·경협 증진, 아·태지역협력 발전을 위한 협조를 기대

❁ 진 총리는 세계평화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천명하고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아·태지역협력을 위한 협조 필요성에 언급

- 호크 수상은 한·호주 교역의 호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호주산 농산물, 원자재, 석탄 등 에너지원의 한국에 대한 수출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완화 의도를 시사

2. 호크 수상이 2.6. 숙소(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지에 대한 질문

- 전두환 대통령, 진의종 총리, 이원경 외무장관에게 거론하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변

❁ 호주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여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

- 남북관계는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호주가 이를 고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 한국 측으로부터 중국(구 중공) 방문 시 메시지 전달을 부탁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 중국 지도자들에게 한·중국 관계 개선의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언급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4 언론보도

| 84-033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4 / 3 / 1~197(197p)

호크 호주 수상 방한계획 발표(1983.11.18.) 시점 및 체한기간 중의 한국 및 호주 언론의 보도 추이는 아래와 같음.

1. 한국 언론

- ❁ 방한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경협증진, 무역역조시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의 호주접근을 견제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노동당 출신 호주 수상의 첫 방문임을 강조
- ❁ 전두환 대통령 및 진의종 총리와의 회담에 관해 무역불균형 시정, 자원개발협력을 위한 노력과 지역협력발전을 위한 협조에 합의한 사실을 부각
  -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호주의 지지도 크게 취급
  - 진 총리가 한국의 평화정책을 중국에 전달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도 주요 내용으로 소개

2. 호주 언론

- ❁ 방한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캔버라 타임스, 더 오스트레일리안 등 유력지는 호크 수상의 방한이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과 아 · 태지역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 ❁ 방한 결과에 관해 캔버라 타임스, 더 오스트레일리안,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유력지는 호크 수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아 · 태지역협력에 대한 논의 사실을 크게 취급
  - 호크 수상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사실도 비중 있게 보도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4.2.4-7. 전5권. V.5 자료집

| 84-033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4 / 4 / 1~135(135p)

1. 호크 호주 수상 방한 준비의 일환으로 외무부(아주국)는 아래 항목에 따라 부서별 소관자료를 취합하고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에서 활용함.

❋ 한 · 호 경제현안

- 양국 경제관계 현황
- 한국 측 요구사항(무역의 확대균형 등)
- 호주 측 제기사항(호주산 농축산물 수입확대 등)
- 대책(무역 · 경협관계의 호혜적 발전 제의 등)

❋ 북한 관련 언급사항

-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설명 및 협조요청

❋ 태평양 정상회담

- 아 · 태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구상으로 설명

2. 외무부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총리를 위한 '호크 호주 수상 방한 - 정무관계 보고' 자료와 외무장관용 참고자료를 작성함.

Martens, Wilfried 벨기에 수상 방한, 1984.4.15-18. 전3권. V.1 기본문서

| 84-0338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4-24 / 5 / 1~221(221p)

1. 윌프레드 마르텐스 벨기에 수상은 아래와 같은 경위를 거쳐 1984.4.15.~18. 방한함.

- 82.3.19. 주벨기에대사관이 마르텐스 총리의 방한 희망을 외무부 본부에 보고하면서 국무총리 명의 초청을 건의
  - 이에 앞서 81.9월 벨기에를 공식 방문한 남덕우 국무총리는 당시 아이스켄스 벨기에 총리의 방한을 초청
- 외무부는 유창순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82.3.24.) 발송
- 마르텐스 수상이 82.6.22. 서한으로 방한 초청을 수락
  - 방한 시기는 외교경로로 협의할 것을 제안
- 83.11.24. 벨기에 정부는 방한 시기로 84.4.15.~18.을 희망
  - 외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 서한(83.12.16.)으로 동의
- 84.3.16. 양국 정부가 방한 계획을 동시에 발표

2. 마르텐스 수상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테러에의 공동대처 및 세계자유무역촉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
- 진의종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 경협 증진에 합의
  - 벨기에 측은 한국의 제5차 5개년 계획 참여를 희망

3. 마르텐스 수상은 1984.4.18. 기자회견에서 벨기에 · 북한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 없으며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제3국 공동 진출을 포함한 산업 · 경제협력 발전의 기대를 표명

Martens, Wilfried 벨기에 수상 방한, 1984.4.15-18. 전3권. V.2 의전

| 84-033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4-24 / 6 / 1~309(309p)

1.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한 마르텐스 벨기에 수상의 1984.4.15.~18.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 4.15. 도착, 공항행사(국무총리 출영)
- 4.16. 외무장관 접견(숙소: 롯데호텔), 국무총리와의 회담, 대통령 예방 · 회담, 국무총리 주최 오찬,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주최 만찬
- 4.17. 한 · 벨기에 직업훈련원 방문(창원), 현대중공업 시찰, 경주 방문
- 4.18. 벨기에 · 룩셈부르크 참전탑 헌화(동두천), 판문점 시찰, 기자회견(숙소), 출국

2. 수상 부인은 별도 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과 국무총리 부인을 예방하고 새 세대 육영회를 방문함.

Martens, Wilfried 벨기에 수상 방한, 1984.4.15-18. 전3권. V.3 자료

| 84-0340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4-24 / 7 / 1~246(246p)

1. 마르텐스 벨기에 수상 방한 준비의 일환으로 외무부는 아래 항목에 따라 부서별 소관사항을 취합하고 자료를 준비함.

- 정세 관련
  - 세계, 동북아, 한반도, 유럽정세와 EC 현황
- 한 · 벨기에 경제관계 현안
  - EC의 수입규제 완화, GSP 수혜 개선 문제 등
- 외교적 협력
  - 한국의 부룬디, 르완다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지원

2. 전두환 대통령 주최 만찬(4.16.)에서의 양측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현황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
  - 세계자유무역의 발전을 위한 한 · 벨기에 협력을 기대
- 마르텐스 수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를 표명
  - 양국 간의 경제, 통상, 산업, 기술 분야의 협력을 희망

3. 외무부는 아래 자료를 작성 활용함.

- 정상회담 · 면담자료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용
- 연설문
  - 대통령 주최 만찬, 국무총리 주최 오찬
- 대통령 영부인용 접견자료

Son Sann 민주 캄푸챠 연정 수상 비공식 방한, 1984.6.5-8. 전2권. V.1 사전준비

| 84-03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4 / 8 / 1~203(203p)

1. 민주 캄푸치아 연정의 손산 수상이 1984.6.5.~8. 비공식 방한함.

- 한국은 민주 캄푸치아 연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대아세안 관계 등을 고려, 인도적 견지에서 동 연정을 지원
- 손산 수상은 당초 84.3월말~4월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시아의 가잘리 외상, 인도네시아의 목탈 외상 및 태국 정부 고위관리들은 손산 수상의 방북을 만류하고 대신 방한을 권유
- 손산 수상은 연정 내부 사정상 방북이 부득이함을 설명하면서 한국 측이 초청한다면 84.6월말~7월초 방한 용의가 있음을 표명
- 손산 수상은 84.3.29. 주태국대사와의 면담 시 자신의 방북이 취소되었음을 밝히고, 84.6월초 방한을 희망

2. 외무부는 손산 수상의 방한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대책을 수립함.

- 수상 급에 준해 예우하며 총리 예방, 외무장관 면담, 안전기획부장 면담 등 주선
  - 국회의장 예방, 전방과 산업시찰 일정도 포함
- 행사는 가능한 한 조용하게 진행
- 군사지원 요청은 거부하되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현금지원 검토 가능성 시사

Son Sann 민주 캄푸챠 연정 수상 비공식 방한, 1984.6.5-8. 전2권. V.2 결과보고

| 84-034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4 / 9 / 1~252(252p)

1. 손산 민주 캄푸치아 연정 수상의 1984.6.5.~8.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진의종 국무총리 예방(6.7.) 시 한국의 지원에 사의 표명
  - 국무총리는 캄푸치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
- ❁ 이원경 외무장관 면담(6.5.) 시 한국의 계속 지원 요청
  - 이 장관은 미화 20만 달러 지원 용의를 표명하고 시아누크 대통령의 친북한 언동 견제를 요청
- ❁ 손산 수상은 기자회견(6.8.)에서 한국 정부의 연정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시아누크 대통령의 친북한 자세는 연정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언급

2. 손산 수상은 안기부장 면담(6.7.) 시 아래 품목의 지원을 요청하는 각서를 수교함.

- ❁ 전투 병력의 식량 구입 등을 위한 재정지원
- ❁ 군사요원 훈련
  - 간부와 홍보요원 양성
- ❁ 군복, 군화 등 개인군사장비
- ❁ 기타 군사장비
  - 무전기, 지뢰탐지기, 가스마스크

Jugnauth, Aneerood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84.7.31-8.4. 전3권. V.1 기본문서

| 84-0343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4 / 10 / 1~219(219p)

1. 아네로드 쥬그노스 모리셔스 수상이 아래와 같은 경위를 거쳐 1984.7.31.~8.4. 방한함.

- 1982.11월초 겸임국 모리셔스를 방문한 주케냐대사가 쥬그노스 수상의 방한을 구두 초청
  - 이에 앞서 82.6월에 실시된 총선 결과 쥬그노스 내각 출범
- 김상협 국무총리 명의 초청서한(82.11.20.) 발송
- 모리셔스 측의 요청으로 방한 초청시기(84.7~8월)를 명시한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 서한(84.4.24.)을 다시 발송
- 쥬그노스 수상이 답서(84.5.15.)로 8월초 방한을 희망
-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쳐 7.26. 방한계획 발표
  - 외무장관 등 각료 4명 수행 포함

2. 쥬그노스 수상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전두환 대통령, 진의종 국무총리와 회담
  - 외무장관, 경제장관 개별회담도 개최
- 모리셔스 측은 아래와 같은 유 · 무상 지원을 요청
  - 첩보 및 소방장비 공여
  - 전대차관 미화 1,000만 달러 제공(당초 한국이 검토한 금액은 200만 달러)
  - 어업합작 투자, 중동진출 한국건설업체의 모리셔스 인력 고용
- 한국 측은 무상원조 25만 달러 상당 공여, 전대차관의 점진적 증액 및 기타 요청에 대한 호의적 검토를 약속
- 모리셔스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지지를 표명
  - 한국의 유엔 가입 포함

Jugnauth, Aneerood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84.7.31-8.4. 전3권. V.2 의전

| 84-0344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4 / 11 / 1~181(181p)

1. 주케냐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된 쥬그노스 모리셔스 수상의 방한 상세일정은 아래와 같음.

- 7.31. 도착
- 8.1. 외무장관 접견,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와의 회담 및 만찬
  - 대통령 예방 시 서훈
- 8.2. 구미(금성사), 울산(현대중공업) 방문
- 8.3. 전방 시찰, 기자회견
- 8.4. 출국

2. 진의종 국무총리 주최 만찬에서의 양측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진 국무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설명하고 모리셔스의 지지를 요청
- 쥬그노스 수상은 경제건설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
  - 한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 정책 지지

Jugnauth, Aneerood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84.7.31-8.4. 전3권. V.3 자료

| 84-0345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5 / 1 / 1~234(234p)

1. 쥬그노스 모리셔스 수상 방한 준비를 위해 외무부가 부서별 소관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 대통령 접견자료
  - 세계, 동북아, 한반도 정세
  - 양국 관계와 외교 협력
  - 모리셔스 측의 거론이 예상되는 사항과 대책
- ❋ 총리 회담자료
- ❋ 외무장관 회담자료
- ❋ 대통령 영부인 접견자료
  - 수상 부인 인적사항, 영부인 말씀요지, 모리셔스 개황

2. 외무부는 모리셔스 측이 요청할 유 · 무상 지원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국내유관부처와 협의함.

- ❋ 전대차관 증액문제(해외협력위원회)
- ❋ 첩보 및 소방장비 공여문제(내무부)

Soares, Mario 포르투갈 수상 방한, 1984.6.15-17. 전3권. V.1 기본문서

| 84-034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5 / 2 / 1~378(378p)

1. 마리오 소아레스 포르투갈 수상이 아래와 같은 추진 경위로 1984.6.15.~6.17. 방한함.

❁ 81.12월 외무부는 소아레스 사회당 당수(전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래혁 국회의장 명의 초청서한을 발송

- 81.5.10. 사회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김영남은 소아레스 당수와 동당 사회부장 등 2~3명을 방북 초청
- 소아레스 당수는 81.9월 남북한 방문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이를 취소할 것 같다고 언급(도미니카 집권당 창당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문 중이던 소아레스 당수가 81.7.6. 리셉션에서 주도미니카 대사와의 대화에서 밝힘)

❁ 83.7월 소아레스 내각 출범 이후 방한 초청을 다시 모색하는 가운데 포르투갈 측이 84년 일본 등 극동지역 순방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기를 희망하여 국무총리 명의 초청서한(84.5.4.) 발송

2. 소아레스 수상은 방한 시 진의종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양측은 경제협력 · 무역확대, 제3국 공동진출(특히 아프리카 지역)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포르투갈 측은 한국 진보정당(신사당)의 SI(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가입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3. 소아레스 수상 방한 시 개최한 별도 각료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를 포르투갈이 지원하기로 합의

❁ 상공장관 회담에서는 합작투자(제3국 공동 진출 포함) 증진에 합의

Soares, Mario 포르투갈 수상 방한, 1984.6.15-17. 전3권. V.2 의전

| 84-034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5 / 3 / 1~360(360p)

1. 외무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한 소아레스 포르투갈 수상의 1984.6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 6.15. 도착, 공항환영행사(국무총리 출영), 외무장관 접견(숙소), 대통령 예방과 회담, 한국TV사 회견, 대통령 주최 만찬
  - 외무장관회담, 통상장관회담 별도 개최
- 6.16. 국립묘지 참배, 국회의장 예방, 국무총리와의 회담, 기자회견, 국무총리 주최 오찬, 삼성전자 시찰, 한국외국어대학 방문(명예박사학위 수여), 경제4단체장 주최 만찬
- 6.17. 국립박물관, 비원 방문, 출국(국무총리 전송)
  * 수상 부인 별도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부인 예방, 새 세대 육영회 방문

2. 소아레스 수상 수행원은 공식 18명(하이메 가마 외무장관 등), 비공식 12명, 기업인 9명, 기자단 19명임.

Soares, Mario 포르투갈 수상 방한, 1984.6.15-17. 전3권. V.3 자료

| 84-03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5 / 4 / 1~163(163p)

1. 대통령비서실(정무1)이 작성한 한 · 포르투갈 정상회담자료는 아래와 같이 말씀자료, 포르투갈 개관, 참고자료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됨.

- 말씀자료
  - (국제정세) 동서대립 격화와 자유진영 결속 필요성 거론
  - (동북아정세와 한국의 통일정책) 북한의 군사력 강화추세와 위장평화공세 거론
  - (양국 협력관계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지원, 국제사회 주의연맹(S.I.)에서의 지지를 요청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 경협확대를 거론
  - (포르투갈 측 거론사항)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포르투갈 입장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 포르투갈 개관은 국가개황, 국가과제, 권력구조, 한 · 포르투갈 관계, 북한 · 포르투갈 관계로 구성
- 참고자료는 총리 인적사항, 체한일정, 공식수행원 명단으로 구성

2. 외무부는 소아레스 수상 방한 준비의 일환으로 아래 자료를 실무적으로 작성함.

- 대통령 만찬사
- 대통령 영부인 말씀자료
- 국무총리 말씀자료
- 외무장관 예방자료

Mohamed M' 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1 기본문서

| 84-034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4-25 / 5 / 1~157(157p)

1. 모하메드 므잘리 튀니지 수상이 아래와 같은 초청 경위로 1984년 10월 방한함.

- 1984.7월 튀니지 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극동순방의 일환으로 10.20.(토)~21.(일) 방한계획 통보
  - 81년 튀니지를 방문한 국무총리의 초청에 따른 답방
- 한국측이 방한 시기가 주말임을 이유로 변경을 요청하자 체한 기간을 연장 10.24.(수)~26.(금)로 조정
  - 일본 10.17.~20. 중국 10.21.~23. 방문
- 10.16. 방한계획을 양국 정부가 동시에 발표
- 공식수행원 15명(라쉬드 스파르 경제장관 등), 비공식수행원 14명으로 구성

2. 므잘리 수상의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 10.24. 도착, 공항환영행사(국무총리 출영)
- 10.25. 외무장관 접견(숙소), 국립묘지 참배, 대통령 예방, 올림픽 경기장 시찰, 국무총리와의 회담과 만찬
- 10.26. 삼성전자 방문, 내외신 기자회견, 한국TV사 회견, 출국(국무총리 전송)
  * 수상 부인 별도일정으로 국무총리 부인 예방, 새 세대 육영회 방문

3. 전두환 대통령 예방, 진의종 총리와의 회담, 이원경 외무장관 접견 시의 대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전 대통령은 유엔, 비동맹에서의 지지를 요청하고 므잘리 수상은 이를 약속
- 진 총리는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므잘리 수상은 한국의 입장 지지 표명
- 므잘리 수상은 인광석 수입과 개발경험 공유를 요청하였으며 이원경 장관은 이와 관련 민간에 대한 측면지원과 정부의 협력을 약속

Mohamed M' 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2 의전

| 84-035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4-25 / 6 / 1~275(275p)

1.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튀니지 측과 므잘리 수상의 1984년 방한시기, 세부일정, 의전, 경호업무에 관해 협의했으며 아래와 같이 국내기관과 일정 주선을 진행함.

- 총무처: 공항환영 및 전송 행사
- 상공회의소: 정수창 회장 주최 오찬
- 새 세대 육영회: 수상 부인 방문행사

2. 므잘리 수상의 방문에 앞서 포르투갈 선발대 5명이 84.10.5.~9. 방한함.

- 수상보좌관, (경제)기획부 국장, 투자진흥청장, TV방송사 관계자 등
- 의전, 경호에 대한 협의 외에 경제부처와 민간 기업을 방문하고 수산, 조선 분야 협력문제 논의
  - 재무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수산청 등 방문

Mohamed M' 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3 경제각료회담

| 84-035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4-25 / 7 / 1~192(192p)

1. 외무부는 므잘리 튀니지 수상의 1984.10.24.~26. 방한에 앞서 경제각료회담 개최에 대비, 아래 부처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주재함.

- 재무부: 합작투자허가문제
- 상공부: 인광석 수입, 합작진출, 공동위원회 부활문제
- 해외협력위원회: 합작진출문제
- 수산청: 수산전문가 파견문제
- 수출입은행: 연불수출 지원문제

2. 므잘리 수상 방한 중 10.25. 개최된 경제각료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라쉬드 스파르 경제장관 참석
- 양측은 산업협력, 무역, 수산협력문제 등을 협의
  - 튀니지 측은 국제상사(주)와의 직물공장 건설, 부산파이프(주)와의 강관공장 건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 측은 검토 약속
  - 튀니지 측은 인광석의 수입을 요청하고 한국 측은 품질과 가격조건에 따라 검토할 의향 표명
  - 튀니지 측은 양어사업 등 어업협력을 요청하고 한국 측은 수산전문가 파견 검토를 약속
  - 양측은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

Mohamed M' ZALI 튀니지 수상 방한, 1984.10.24-26. 전4권. V.4 자료

| 84-035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4-25 / 8 / 1~215(215p)

1. 외무부는 므잘리 튀니지 수상 방한 준비의 일환으로 부내 부서별 소관사항을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차원의 자료를 작성함.

- 정세(튀니지, 동북아), 한 · 튀니지 관계, 수상 내외 인적사항 등을 포함
- 국무총리용 회담자료, 외무장관용 예방자료, 국무총리 부인용 면담자료 등

2. 대통령비서실(정무1)이 작성한 대통령용 접견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수상 인적사항, 튀니지 개황, 체한일정
- 말씀자료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정세 등
- 튀니지 측 거론사항(예상)
  - 섬유, 제강,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요청과 이에 대한 호의적 검토 약속 등
- 참고자료
  - 튀니지 정세, 튀니지와 남 · 북한의 관계, 수행원 명단

3. 진의종 총리 주최 만찬에서 양측은 아래 요지와 같이 연설함.

- 한국 측은 남북관계와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 · 튀니지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기대
- 튀니지 측은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수산, 조선, 해운 분야에서의 지원을 희망

이원경 외무장관 Barletta, Nic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4.10.9-12

| 84-035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25 / 9 / 1~217(217p)

1. 이원경 외무장관은 1984.10.11. 거행된 니콜라스 바르레타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함.

❁ 84.7월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방한하여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원경 장관과 면담 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요청, 이원경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후 파나마를 방문 추진

2. 이원경 장관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외에 아래와 같이 활동함.

❁ 대통령, 제1, 2 부통령, 군사령관 예방, 외무장관 면담

- 바르레타 대통령은 한 · 파나마 관계의 발전을 희망
- 현지 공관 건의에 따라 오이덴 오르테가 외무장관 면담 시 수교훈장 서훈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4.9.25-10.9. 전3권. V.1 기본문서 I : 일정

| 84-035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5 / 10 / 1~377(377p)

1. 이원경 외무장관은 제39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84.9.25.~10.9. 미국을 방문함.

2.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총회 참석기간을 이용, 아래와 같이 양자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함(대상 53개국).

- 아주지역 14개국
  - 일본, 아세안 6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버마, 스리랑카, 몰디브
- 북미 2개국
  - 미국, 캐나다
- 중남미 14개국
  - 브라질, 멕시코, 페루, 파나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유럽 8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 중동 8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UAE, 수단, 레바논, 북예멘, 이라크, 쿠웨이트
- 아프리카 7개국
  - 나이지리아,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카메룬, 아이보리코스트, 지부티

3. 이원경 장관은 상기 일정 이외에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연설(9.27.),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오찬연설(10.4.), 교민단체대표 초청 만찬간담회(10.1.) 등도 추진함.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4.9.25-10.9. 전3권. V.2 기본문서 II : 활동 및 결과보고

| 84-035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1 / 1~214(214p)

1. 이원경 외무장관은 1984.9.25.~10.9. 제39차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정부수반 3명(수리남 대통령 등), 외무장관 31명(미국 국무장관 등), 유엔사무총장 등과 개별적으로 면담 · 회담하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협의함.

2. 주요 국가 외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슐츠 미국 국무장관(9.26.)

- 한국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 지원과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수입규제완화를 요청
- 미국 측은 유엔가입문제를 소련에 제기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도 수입자유화를 촉진하라고 요청

❁ 아베 일본 외상(9.28. 조찬)

- 한국 측은 유엔가입 지원을 요청하고 일 · 북한 관계 진전(민간어업협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
- 일본 측은 유엔가입문제를 중국(구 중공) 측에 제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불변이라고 강조

❁ 라잉 미얀마(구 버마) 외무장관(10.1. 오찬)

- 한국 측은 미얀마 정부가 랑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 것을 평가
- 미얀마 측은 한 · 미얀마 관계의 발전을 기대(경제, 기술협력 등)

3. 이원경 장관과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아르 유엔사무총장의 면담(9.27.)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이원경 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

❁ 케아르 사무총장은 남북교류를 위한 협조를 약속

- 유엔가입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이 장애이며 자신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언급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4.9.25-10.9. 전3권. V.3 자료

| 84-03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2 / 1~286(286p)

1. 외무부는 이원경 장관의 제39차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양자회담 개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회담에서 제기, 언급할 사항을 정리함.

- ❁ 양자회담 개최 우선순위는 지역단위로 검토
  - 아 · 태, 아프리카, 중동, 미주, 유럽지역
- ❁ 모든 회담에서 공통으로 제기할 유엔가입 문제 외의 양자현안이 대상

2. 또한 외무부 본부는 이원경 장관이 교민단체대표와의 만찬간담회에서 언급할 내용에 관해 부내 각 부서와 주뉴욕총영사관의 의견을 수렴함.

3. 미 외교협회 초청 오찬(10.4.)에서의 기조연설과 Q&A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이원경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상황,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 한 · 미 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을 설명
- ❁ Q&A에서는 미국에 체류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의 귀국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귀국할 경우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 또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지적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공산권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전망을 물은 데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표명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1 기본문서

| 84-03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3 / 1~304(304p)

1. 1984.7월 외무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 12월 중 이원경 장관의 아세안 6개국(귀로에 일본) 순방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 전두환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 아세안과의 실질협력관계 발전과 지역협력기반 조성
- 북한의 외교책동 억제
- 유엔, 비동맹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2. 외교경로를 통하여 브루나이(12.6.~9.), 필리핀(12.9.~12.), 인도네시아(12.12.~17.), 태국(12.17.~20.) 공식방문과 일본(12.20.~21.) 비공식 방문 계획을 확정하고 1984.11.26. 발표함.

3. 순방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브루나이
  - 하사날볼키야 국왕 예방 시 한국 기업의 브루나이 경제개발계획 참여를 요청
  - 모하메드볼키야 외무장관과 한국인 체류비자 제도 개선에 합의
- 필리핀
  - 마르코스 대통령 예방 시 랑군 사건과 관련한 필리핀의 지원에 감사
  - 톨렌티노 외무장관과 농산물 구상무역 추진문제 논의
- 인도네시아
  - 수하르토 대통령 예방 시 양국 경제의 보완적 협력강화 필요성에 의견 일치
  - 목타르 외무장관과 한 · 아세안 대화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 태국
  - 프렘 총리가 한국의 통일노력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지지
  - 시티 외무장관은 한 · 아세안 대화 발전 지원을 약속
  - (푸미폰 국왕도 예방)
- 일본
  -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불변임을 강조하고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을 위한 협력을 약속
  - 아베 외상과 한 · 아프리카 미수교국(잠비아, 이집트) 관계개선을 위한 협력문제 논의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2 국별 교섭

| 84-035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4 / 1~384(384p)

1. 1984.7월 이원경 장관의 순방 계획을 세운 외무부는 아세안 6개국 주재공관을 통해 접수여부, 방문기간 등을 협의함.

2. 위의 과정을 거쳐 브루나이 등 4개국 방문을 결정(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외무장관의 제3국 방문예정 때문에 무산)하고 구체일정, 회담의제 등을 협의함. 이와 관련한 국별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 브루나이는 국왕의 외유일정을 고려하여 첫 방문국가로 정했으며 브루나이 경제개발계획에의 한국기업 참여문제 논의에 우선순위 부여
   - ❁ 필리핀 방문일정에 라모스 참모총장 대행(후일의 대통령) 등과의 오찬 포함
   - ❁ 인도네시아 방문 시 경영자 단체(IEC)에서의 연설 추진
   - ❁ 태국 방문 시 유력 영자지 방콕포스트와의 단독회견 추진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3 연설문 및 언론보도

| 84-035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5 / 1~241(241p)

1. 이원경 외무장관의 1984.12.5.~21. 아세안 4국 순방 시 공식만찬에서의 외무장관 간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2.8. 브루나이에서 이 장관은 캄푸치아 사태의 정치적 조기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한 · 브루나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

- 모하메드 볼키아 장관은 캄푸치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동남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긴요함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브루나이 경제개발계획 참여 등 관계 발전을 환영

❋ 12.10. 필리핀에서 이 장관은 필리핀이 유엔 등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한 데 감사하고 남남협력 차원에서의 경제 · 기술협력 강화를 제의

- 이 장관은 파시피코 카스트로 필리핀 외무차관에 대한 서훈행사에서 한 · 필리핀 관계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기여와 국제무대에서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

❋ 12.13. 인도네시아에서 이 장관은 동남아 정세의 안정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무역,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희망

- 이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영자 단체(IEC)에서의 연설에서 에너지자원, 원목가공 분야에서의 협력 기대를 표명

❋ 12.18. 태국에서 이 장관은 랑군 사건과 관련한 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강화를 희망

- 시티 장관은 캄푸치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이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 사의를 표하고 무역,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언급

2. 아세안 4국 언론은 이 장관의 방문이 무역 · 경제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4 국별 자료 I

| 84-03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6 / 1~392(392p)

1. 외무부 본부는 이원경 장관의 1984.12.5.~21. 아세안 4국 순방 준비를 위해 현지공관과 해외협력위원회가 보고 · 제공한 내용을 취합하여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공통자료
  - 외무장관 회담자료, 국가원수 · 정부수반 예방자료, 만찬사
- ❁ 국별 별도자료
  - 교민, 현지진출 건설근로자 면담자료(브루나이)
  - 교민, 현지진출 상사주재원 면담자료(필리핀)
  - 방콕 포스트 회견자료(태국)

2. 외무부는 이 장관의 일본 비공식 방문 자료에 아래 내용을 포함함.

- ❁ 일 · 북한 교류 자제 촉구
- ❁ 재일한국인 처우개선 요청
  - 외국인 등록 갱신 관련
- ❁ 한국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촉구
  - 섬유류, 농수산물
- ❁ 태평양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 제의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5. 국별자료 II

| 84-03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7 / 1~271(271p)

1. 외무부 본부는 이원경 장관의 아세안 4국 순방 준비를 위해 현지공관과 해외협력위원회가 보고 · 제공한 내용을 취합하여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공통자료
     - 외무장관 회담자료, 국가원수 · 정부수반 예방자료, 만찬사
   - ❋ 국별 별도자료
     - 교민 면담자료(인도네시아)

2. 외무부 본부는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한 참고자료에 공관 현황, 인도네시아 외교정책과 경제 현황, 한 · 인도네시아 관계, 인도네시아 · 북한 관계 등을 수록함.

3.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외무부 본부에 보고한 자료에 주요 인사 인적사항과 함께 인도네시아 측이 외무장관회담에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을 포함함.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일본 순방, 1984.12.5-21. 전6권. V.6 참고자료

| 84-03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동북아1과
MF번호	2014-26 / 8 / 1~204(204p)

1. 외무부 아주국은 이원경 외무장관의 1984.12.5.-21. 아세안 4국 공식방문 준비를 위해 부내 각 부서의 아래 자료를 취합 준비함.

- 양자 경제관계 현황과 현안(경제국)
- 국별 교민 현황(영사교민국)
- 국별 문화교류 현황(정보문화국)
- 남북대화 현황(정보문화국)
- 양자협정 체결 · 추진 현황(국제기구조약국)
- 일본, 중국(베이징) 정세(아주국)
- 공관별 현안, 애로사항, 건의사항과 본부입장(기획관리실, 총무과)

2. 또한 외무부는 장관 부인용 자료에 방문국가 개황, 면담인사 인적사항, 말씀자료 등을 수록함.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1 기본문서 I

| 84-036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7 / 1 / 1~403(403p)

1. 1984.2월 외무부 본부는 이원경 장관의 유럽순방 계획을 세우고 현지 공관을 통한 교섭으로 아래 일정을 확정함.

- ❋ 6.21.~6.24. 네덜란드
- ❋ 6.24.~6.26. 오스트리아
- ❋ 6.26.~6.30. 이탈리아
  - 교황청 별도 방문
- ❋ 6.30.~7.3. 벨기에
  - 제2차 한·EC 고위협의회 주재
- ❋ 7.3.~7.4. 독일
- ❋ 7.4.~7.5. 프랑스

* 한국 외무장관의 유럽순방은 이범석 장관 당시인 1983.4월과 6월에 각각 추진되었으나 양측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음.

2. 외무부 본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일정, 의제, 의전, 대외발표, 서훈, 선물 등에 관하여 방문국 측과 협의함.

3. 이원경 장관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예방 시 전두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함.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2 기본문서 II

| 84-036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7 / 2 / 1~179(179p)

1. 외무부 본부는 이원경 장관의 1984.6.21.~7.5. 유럽 순방 관련, 현지 공관을 통하여 일정, 의제(토의 순서 포함), 의전, 대외발표, 서훈, 선물 등에 관해 방문국가 정부와 협의함.

2. 각국에서의 일정 중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오페라 관람(오스트리아)
  - 같은 시기에 현지를 방문하는 코스타리카 외무장관과 면담
- 수교 백주년 기념 강연(이탈리아)
-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벨기에)
- 이준 열사 묘적지 참배(네덜란드)
- 특파원 간담회(프랑스)

3. 각국에서의 주요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네덜란드에서 베아트릭스 여왕, 루베르스 수상을 예방하고 브르에크 외무장관과 회담
  -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 측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원을 요청하고 네덜란드 측은 이에 동의
- 오스트리아에서 키르히슐레거 대통령, 시노바츠 수상을 예방하고 라노 외무장관과 회담
  -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 측은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을 설명하고 오스트리아 측은 지지를 표명
- 이탈리아에서 페르티니 대통령, 크락시 수상을 예방하고 안드레오티 외무장관과 회담
  - 외무장관회담에서 양측은 무역확대 필요성에 공감
- 독일에서 바이제커 대통령을 예방하고 겐셔 외무장관과 회담
  - 외무장관회담에서 독일 측은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를 약속
- 프랑스에서 모로와 수상을 예방하고 쉐송 외무장관과 회담
  -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 측은 프랑스 · 북한관계 발전 자제를 요청하고 프랑스 측은 호의적으로 반응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3 결과보고

| 84-036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7 / 3 / 1~150(150p)

1. 외무부 본부는 이원경 장관의 1984.6.21.~7.5. 유럽 순방기간 중 2개국씩 방문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각국 정상 예방, 외무장관회담 결과 중심

2. 외무부 본부는 이원경 장관의 유럽순방 후속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함.

❋ 부내 각 부서에 소관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

❋ 전 재외공관에 순방결과 통보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 차관 방한 초청장 발송

❋ 감사서한 발송

- 각 순방국 외무장관, 의전책임자
- 주한대사(일본상주 대사 포함)
- 기타 방문국가에서 면담한 주요 인사

* 선물을 받은 방문국가 인사들도 이원경 장관 앞 감사서한 송부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4 언론보도 및 연설문

| 84-036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7 / 4 / 1~328(328p)

1. 이원경 장관이 1984.6.21.~7.5. 방문한 유럽의 각국 언론은 아래와 같이 보도함.

- 네덜란드의 한델스블라트 등은 한국 측이 무역의 확대균형을 희망했다고 보도
- 오스트리아의 디 프레세는 이 장관 방문이 서울 상주 대사 파견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의 일 포폴로 등은 양측이 교역확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보도
- 프랑스의 르 마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한 이 장관 회견을 보도

2. 이원경 장관이 각국에서 행한 오 · 만찬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대화노력 설명(공통)
-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 설명(네덜란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 당부(오스트리아)
-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만족 표명(이탈리아)
-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과의 관계발전 의지 천명(벨기에)
- 양국 간 무역, 경제협력의 꾸준한 확대에 만족 표명(독일)

3. 국내 신문도 이원경 장관의 동정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동아일보는 유럽순방이 북한의 이 지역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함.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5 자료 I

| 84-036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7 / 5 / 1~391(391p)

1. 외무부는 이원경 장관의 1984.6.21.~7.5. 유럽 순방을 위한 외무장관회담 자료를 공통자료와 국별 별도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함.

2. 공통자료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함.

- 유럽 정세
  - EC개황, G7정상회담, 동서문제
- 중동문제
  - 레바논 사태, 이란 · 이라크 전쟁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노력,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3. 국별 별도자료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함(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 일정
- 각국 개황과 국내정세
- 외무장관회담 자료
  - 의제, 양국관계 현황과 현안, 대책
- 예방 자료
  - 예방인사 인적사항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예방과 카시롤리 교황청 국무장관 면담 대비 자료로 바티칸 개황, 한국과의 관계를 작성

이원경 외무장관 서구 순방, 1984.6.21-7.5. 전6권. V.6 자료 II

| 84-036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7 / 6 / 1~306(306p)

1. 외무부는 이원경 장관의 유럽순방 대비 외무장관회담 자료를 공통자료와 국별 별도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함.

2. 공통자료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함.

- ❁ 유럽 정세
  - EC개황, G7정상회담, 동서문제
- ❁ 중동 문제
  - 레바논 사태, 이란 · 이라크 전쟁
-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노력,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3. 국별 별도자료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함(벨기에, 독일, 프랑스).

- ❁ 일정
- ❁ 각국 개황과 국내정세
- ❁ 외무장관회담 자료
  - 의제, 양국관계 현황과 현안, 대책
- ❁ 제2차 한 · EC 고위협의회 자료
  - EC 측 관심사항으로 한국의 무역흑자, 한국시장 개방, 특혜관세(GSP) 축소, 위조상품 교역 방지, 뉴라운드협상 전망 등을 예상하고 자료 수록
  - 한국 측 관심사항으로 특혜관세(GSP) 수혜연장, 주한 EC대표부 설치 요청 등을 거론
- ❁ 예방 자료
  - 예방인사 인적사항

4. 외무부 본부는 위의 자료 작성 시, 현지 공관이 건의한 주재국 정부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제와 대책을 참고함.

Aguirre Lanari, Juan R. 전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84.11.11-15

| 84-036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27 / 7 / 1~86(86p)

1. 아귀레 라나리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1982.10월 주유엔대사에게 1983년 초 방한할 의사를 밝혀 이범석 장관 명의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국내사정으로 연기함.

- 이후 외무장관 직에서 퇴진

2. 1984.4월 외무부는 귀국하는 주한대사 편에 이원경 장관 명의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라나리 전 장관 부부는 아래와 같이 방한함.

- 11.11. 도착
- 국회의장 예방, 외무장관 예방 · 만찬
- 지방 산업시설 방문
  - 현대조선, 포항제철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문
- 11.15. 출국

Steger, Norbert 오스트리아 부수상 겸 상공장관 방한, 1984.10.23-26

| 84-037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27 / 8 / 1~316(316p)

1. 1984.10월 오스트리아의 노르베르트 쉬테거 부수상 겸 상공장관이 신병현 부총리 초청으로 방한함.

❁ 현지 공관이 공식초청을 건의하여 외무부 본부가 경제기획원에 요청

2. 쉬테거 부수상은 방한기간 중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신병현 부총리와의 회담, 외무, 상공장관 면담, 한 · 오스트리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참석, 지방 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대통령 예방 시 서훈

3. 주요 회담 · 면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신병현 부총리와의 회담 등에서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
- 제3국 건설 · 플랜트 사업에의 공동 진출
- 한국 기업의 동유럽 진출을 오스트리아가 지원
- 정부 간 경제실무협의회 설치

❁ 이원경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남북관계, 88올림픽 개최, 한국 · 공산권 관계 등을 논의

Mohammed bin Mubarak AL- KHALIFA
바레인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74-84

| 84-0371 |

생산연도	1974-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4-27 / 9 / 1~94(94p)

1. 외무부는 현지 공관의 건의에 따라 1974.8월, 1980.3월, 1982.3월에 각각 바레인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상대 측 사정으로 무산됨.

❋ 1974.8월 당시는 바레인이 미수교국이어서 겸임공관(주이란대사관)을 통해 교섭

2. 1983.7월 주바레인대사관이 알 칼리프 외무장관의 방한 실현을 건의함에 따라 이범석 장관 명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12월 중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바레인 측의 외교 일정 때문에 다시 연기됨.

❋ 바레인 측은 걸프제국(GCC) 정상회의, 아랍정상회의 준비를 연기 이유로 설명

Julio Reyes, Humberto 칠레 외무차관 방한, 1984.9.26-30

| 84-03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27 / 10 / 1~31(31p)

1. 1984.9월 움베르토 훌리오 칠레 외무차관이 방한하여 이원경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이상옥 외무차관과 면담함.
   - ❁ 훌리오 차관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 · 태지역 칠레 외교관회의 주재를 위해 방한
   - ❁ 방한기간 중 판문점 등도 시찰

2. 이상옥 차관은 9.28. 훌리오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외교관 교류와 아 · 태지역 협력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 이 차관은 훌리오 차관을 위한 오찬 주재

Ochoa de Ardila, Laura 콜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4.10.22-27

| 84-037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27 / 11 / 1~128(128p)

1. 1984년 10월 라우라 오초아 콜롬비아 외무차관이 이상옥 외무차관의 초청으로 방한함(부부 동반).
   ❁ 현지 공관이 북한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

2. 오초아 차관은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외무차관과의 회담 · 오찬, 전방(판문점, 땅굴), 지방 산업시설(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중앙박물관, 올림픽 경기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이상옥 차관과의 10.23. 한 · 콜롬비아 외무차관 회담에서 한국 측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노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콜롬비아 측은 니카라과 사태 해결을 위한 중미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소개함.

4. 오초아 차관을 10.23. 접견한 이원경 외무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콜롬비아 측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Gutierrez G., Carlos Jose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방한, 1984.12.12-15

| 84-03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8 / 1 / 1~404(404p)

1. 1984.12월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이 이원경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부부 동반).

- 당초 외무부는 몬게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코스타리카 측 사정으로 외무장관이 방한
- 이원경 장관은 유럽 순방 당시인 84.6.25. 오스트리아에서 현지를 방문 중이던 구티에레즈 장관과 면담

2. 구티에레즈 장관은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 오찬, 외무장관(대리) 회담 · 만찬, 수도권 산업시설(삼성전자) 시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올림픽 경기장, 국립중앙박물관, 판문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몬게 대통령의 친서 전달

3. 이상옥 장관대리와의 한 ·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이원경 외무장관은 아세안 순방 중).

- 양측은 한국 기업의 코스타리카 투자 등 경협을 촉진하고 새마을사업 관련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
- 한국 측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
- 코스타리카 측은 북한이 니카라과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

| 84-0375 |

Clement Michel-Pascal NGA GNII - VOUE TO 중앙아프리카 외무 및 국제협력 장관 방한, 1984.8.27-31. 전2권. V.1 기본 문서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8 / 2 / 1~362(362p)

1. 1984년 8월 응가니 부에 토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이 이원경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 외무부는 현지 공관의 건의에 따라 동시수교국인 북한이 응가니 부에 토 장관의 방북 초청한 사실을 감안하고 유엔대책의 일환으로 초청

2. 응가니 부에 토 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면담, 외무장관과의 회담 · 만찬, 산업시설(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방문, 전방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서훈

3. 이원경 장관과의 한 ·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강조

❁ 중앙아프리카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

4. 신현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면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앙아 측은 경제협력문제 논의를 위한 민관 혼성위원회 구성, 중앙아의 인프라 부문과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

❁ 한국 측은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발경험을 전수할 용의 표명

Clement Michel-Pascal NGA GNII - VOUE TO 중앙아프리카 외무 및 국제협력 장관 방한, 1984.8.27-31. 전2권. V.2 자료

| 84-037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8 / 3 / 1~156(156p)

1. 외무부는 응가니 부에 토 장관 방한에 즈음한 한 ·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회담 자료를 아래 요지로 작성함.

- ❁ 유엔, 비동맹 등 국제회의에서의 지지 확보
- ❁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설명
- ❁ 양국 간 현안 및 협력강화 방안 논의
  - 중앙아 국가원수 방한초청
  - 의료 기자재 등 무상원조 제공
  - 중앙아 광산개발 진출, 새마을 사업 연수생 초청 추진

2. 외무장관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양국 간의 협력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혼성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
- ❁ 남남협력 차원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 중앙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조사단 파견
- ❁ 중앙아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3. 응가니 부에 토 장관을 위한 만찬에서 이원경 장관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제의하였고, 중앙아 측은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Said KAFE 코모로 외무협력 및 대외통상장관 방한, 1984.2.27-3.2

| 84-037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8 / 4 / 1~232(232p)

1. 외무부는 1983.12월 코모로 관할공관(겸임)인 주프랑스대사관 건의에 따라 이원경 장관 명의로 사이드 카페 외무장관의 방한을 초청함.

2. 카페 장관은 1984.2.27. 도착하여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 오찬, 외무장관 회담 · 만찬, 울산 · 창원지방 산업시설(현대중공업,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동양물산) 방문, 전방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3.2. 출국함.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서훈

3. 이원경 장관과의 한 · 코모로 외무장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북한의 대남도발 상황을 설명하고 랑군 사건,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코모로 정부의 한국입장 지지에 감사

- 코모로 측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한국과 공유한다고 강조

❁ 양측은 코모로 원조회의에의 한국대표 파견, 코모로 기술연수생 방한초청에 합의

Paz Barnica, Edgardo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1984.8.6-9

| 84-037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28 / 7 / 1~290(290p)

1. 1984.8월 에드가르도 바르니카 온두라스 외무장관이 이원경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 관할공관(겸임)인 주과테말라대사관 건의에 따라 극동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하려는 바르니카 장관의 희망을 수용

2. 바르니카 장관은 외무장관 회담 · 만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예방, 상공장관 면담, 지방(옥포 조선소, 포항제철, 경주유적) 방문, 전방(땅굴 등)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이원경 장관과의 한 · 온두라스 외무장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북한의 도발상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
  - 온두라스 측은 한국 입장을 지지
- 온두라스 측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국 지지를 약속
- 온두라스 측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요청
- 양측은 주한 온두라스 명예총영사에 대한 영사 인가증 발급에 합의

Estime, Jean - Robert 아이티 외무장관 방한, 1984.7.23-26

| 84-037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28 / 8 / 1~240(240p)

1. 1984.7월 장-로베르 에스티메 아이티 외무장관이 이원경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 주한대사(일본 상주)를 통해 전달된 아이티 측의 요청을 관할공관(주베네수엘라 대사관이 겸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락
-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에스티메 장관과 만난 경축특사(이태섭 장관)도 외무부에 방한초청을 건의

2. 에스티메 장관은 국무총리 예방 · 오찬, 외무장관 회담 · 만찬, 상공회의소, 삼성전자 방문, 전방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진의종 국무총리 예방 시 에스티메 장관에게 서훈
- 외무장관 회담 시 에스티메 장관이 이원경 장관에게 서훈

3. 이원경 장관과의 한 · 아이티 외무장관 회담 후 그 결과를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으로 발표함.

- 아이티 측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
- 양측은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해 경제 · 기술 · 문화 ·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

4. 그 밖에 한국 측은 무상원조 미화 20만 달러, 전대차관 미화 2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함.

- 당초 아이티 측은 전대차관 미화 1,000만 달러를 요청

MINIKON, Christopher 라이베리아 외무차관 방한, 1984.10.29-11.5

| 84-038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8 / 9 / 1~116(116p)

1. 외무부는 1984.6.11.~15. 런던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 제52차 이사회의 의제에 포함된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신청과 관련, 북한 가입 저지 발언 유도 대책의 일환으로 IMO 이사국인 라이베리아 등의 주재 공관에 주재국 고위당국자의 방한 초청을 건의하도록 1984.4.19. 지시함.

❁ 북한상선이 국제테러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랑군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으로 북한의 IMO 가입문제 토의를 연기시킨다는 목표 설정

2. 주라이베리아대사는 IMO 이사회에서 한국 입장 지지 표명과 우호적 대한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미니콘(Christopher Minikon) 외무차관을 1984.5월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미니콘 외무차관에 대한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방한 희망시기를 타진할 것을 주라이베리아대사에게 지시함.

3. 주라이베리아대사는 미니콘 외무차관이 외상의 부재 등 사정으로 당초 예정한 1984.5월 방한이 불가하고 1984.7월 이후 방한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동 일정 수락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미니콘 외무차관의 방한 기간을 84.10월 하순으로 제의할 것을 84.9.6. 주라이베리아 대사에게 지시함.

4. 미니콘 라이베리아 외무차관은 이상옥 외무차관의 초청으로 1984.10.29.~11.5. 방한한바, 동 차관은 방한 기간 중 외무장관 예방, 외무차관 회담 · 만찬, 해운관계자(해운항만청장, 선급협회 회장) 면담, 올림픽 경기장, 코엑스,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땅굴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5. 이상옥 차관과 미니콘 차관과의 한 · 라이베리아 외무차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와 한국 유엔가입의 당위성을 설명

❁ 라이베리아 측은 양국 간 경제, 문화교류 현황에 만족을 표명

❁ 양측은 아프리카 연대기구(OAU) 정상회의(84.11.12.~15. 아디스아바바 개최) 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

Cooper, Warren E. 뉴질란드 외상 겸 대외무역상 방한 초청계획, 1982-84

| 84-0381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8 / 10 / 1~7(7p)

1. 상공부는 1984.9.3.~4. 서울에서 뉴질랜드와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교섭해 줄 것을 1984.5월 외무부에 요청함.

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상기 통상장관회담 일정을 뉴질랜드 측에 제시하기에 앞서 통상담당 각료를 겸하는 위렌 쿠퍼 외무장관을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쿠퍼 장관은 1982년 취임 이래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

3. 외무부는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복수 초청을 피하기 위해 상공장관 명의로 초청하되 외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기로 하고 이 사실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함.

Saldivar, Carlos Augusto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4.6.16-19

| 84-038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29 / 1 / 1~385(385p)

1. 카를로스 살디바르 파라과이 외무장관이 이원경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984.6.16.~19. 방한함(부부 동반).

- 한국 외에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2. 살디바르 장관은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외무장관 회담 · 만찬, 산업시설(방림방적, 기아산업), 민속촌, 올림픽 경기장, 국립박물관 방문, 명동성당 미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서훈
- 부인은 별도일정으로 코엑스, 새세대육영회를 방문하고 대통령 영부인 예방

3. 한 · 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6.19.) 결과는 아래와 같음(공동성명 요지).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긴장완화 노력을 설명하고 파라과이 측은 한국 입장을 지지
  - 한국이 유엔에 가입해야 할 당위성에도 인식 일치
- 파라과이 측은 한국의 기술이전과 합작투자 진출을 희망하고 한국 측은 실질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
- 파라과이 측은 주한 상주대사의 조기임명을 약속

Chia Cheong Fook 싱가포르 외무차관 방한, 1984.10.23-27

| 84-038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9 / 2 / 1~140(140p)

1. 치아 청 혹 싱가포르 외무차관이 이상옥 외무차관의 초청으로 1984.10.23.~27. 방한함(부부 동반).

2. 치아 차관은 외무장관 예방, 외무차관 회담 · 만찬, 전방(판문점, 땅굴), 지방 산업시설(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경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한 · 싱가포르 외무차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을 설명하고 싱가포르 측은 공감을 표명
- 양측은 한국이 주창한 태평양지역 협력문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인식 일치
- 양측은 리 콴 유 싱가포르 총리 방한, 이원경 외무장관 싱가포르 방문 계획에 관해 의견 교환
- 한국 측은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기대하고 싱가포르 측은 외교관 증원 시 우선적 고려를 약속

4. 치아 차관은 이원경 외무장관 예방 시 다나발란 외무장관 명의의 싱가포르 방문 초청장을 전달함.

Conteh, Abdulai Osman 시에라리온 외무장관 방한, 1984.2.1-5

| 84-038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9 / 3 / 1~74(74p)

1. 1984.2월 압둘라이 콘테 시에라리온 외무장관이 비공식 방한함.

❁ 재일교포 실업가(조광실)와 미국인 석유 브로커(클린턴)의 알선으로 추진

2. 외무부는 현지 공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원경 장관과의 면담 · 오찬을 주선하고 입 · 출국 편의와 교통편을 제공함.

❁ 콘테 장관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고 육군참모총장(정호영)과 만찬 회동

3. 한 · 시에라리온 외무장관 면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시에라리온 측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를 약속

❁ 양측은 스티븐스 시에라리온 대통령의 방한 시기 협의

- 한국 측은 1984.9~10월 제안

❁ 시에라리온 측은 스티븐스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 전달

Hameed, A. C. Shakul 스리랑카 외무장관 방한계획, 1981-84

| 84-0385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29 / 4 / 1~229(229p)

1. 외무부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샤흘 하미드 외무장관의 1981.3월 중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스리랑카 측 사정으로 연기됨.

2. 또한 외무부는 하미드 장관의 1982.7월 방한 희망에 동의하였으나 이범석 장관의 방미로 이상옥 차관이 장관대리로 응대할 것을 제의한바, 스리랑카 측이 연기를 요청 실현되지 못함.
   - 1983년에도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양측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

3. 1984.7월 하미드 장관이 연내 방한을 희망하여 외무부가 그 시기로 11월 하순을 제안하였으나 스리랑카 측이 일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유엔총회에서 회동할 것을 제의함.
   - 이에 따라 1984.9.28. 뉴욕에서 한 · 스리랑카 외무장관 회담 개최

Mkhonza, Z. L. K. 스와질랜드 외무차관 방한, 1984.10.6-13

| 84-038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4-29 / 5 / 1~114(114p)

1. 1984.10월 음콘자 스와질랜드 외무차관이 이상옥 외무차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 주케냐대사관(겸임공관)이 유엔 및 비동맹 대책의 일환으로 초청을 건의

2. 음콘자 차관은 한 · 스와질랜드 외무차관 회담 · 만찬, 상공차관 및 코트라 사장 면담, 외교안보연구원, 지방과 서울의 산업시설(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전방(판문점, 땅굴), 올림픽 경기장, 민속촌, 국립 박물관, 비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한 · 스와질랜드 외무차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평화통일정책과 남북대화 노력을 설명하고 스와질랜드 측은 한국 입장을 지지

- 스와질랜드 측은 북한의 수교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명언

❁ 한국 측은 1985년 중 상주공관 설치계획을 설명하고 스와질랜드 측은 이를 환영

Beji Caid ESSEBSI 튀니지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1983-84

| 84-038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29 / 6 / 1~47(47p)

1. 1983.5월 외무부는 현지공관 건의에 따라 이범석 장관 명의로 베지 에셉시 튀니지 외무장관을 방한 초청함.

❋ 북한이 에셉시 장관의 방북을 초청한 사실 고려

2. 양측은 에셉시 장관이 이슬람 국가 외무장관 회의(83.12.6. 방글라데시)에 참석하는 것을 전후하여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튀니지 측 사정으로 무산됨.

3. 이원경 장관과 에셉스 장관은 1984.10.2. 유엔총회 참석 기회에 한 · 튀니지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측은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튀니지 측은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

❋ 한국 측은 한 · 알제리 수교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튀니지 측은 알제리에 거론할 것을 약속

❋ 양측은 1984.10월로 예정된 마잘리 튀니지 총리의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Howe, Geoffrey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84.4.22-25. 전2권. V.1 기본문서

| 84-038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1과
MF번호	2014-29 / 7 / 1~220(220p)

1. 제프리 하우 영국 외무장관은 이원경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984.4.22.~25. 방한함.

- ❁ 외무부는 이에 앞서 1982.3월 캐링턴 외무장관, 1982.4월 핌 외무장관 방한 초청
- ❁ 하우 장관은 한국 외에 일본, 중국(베이징) 방문

2. 하우 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회담 · 만찬, 상공장관 면담, 기자회견, 지방 산업시설(포항제철), 판문점 시찰, 영국참전 기념비(파주) 헌화 등의 일정을 가짐.

3. 한 · 영 외무장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 영국 측은 대북한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다고 언명
- ❁ 영국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영국 상품 수입확대 요청
  - 한국 측은 영국기업의 한국진출 강화, 제3국 공동 진출 제안
  - 영국 측은 영국석유(BP)와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LPG 충전시설 합작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요청
- ❁ 한국 측은 동구 공산권 제국,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미수교국과의 수교를 위한 외교적 지원 요청
  - 영국 측은 협력 약속
- ❁ 영국 측은 동서관계의 현황과 전망 설명

4. 기자회견(4.23.)에서 하우 장관은 자신은 한 · 영 간 교역의 불균형 현상과 관련하여 영국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기회 확대(무역 자유화), 산업협력 강화 문제 등에 관해 한국 측과 협의했다고 말함.

- ❁ 하우 장관은 한반도 분단 상황 해소 필요성도 강조

Howe, Geoffrey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84.4.22-25. 전2권. V.2 의전

| 84-038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1과
MF번호	2014-29 / 8 / 1~130(130p)

1. 외무부는 제프리 하우 영국 외무장관의 1984.4.22.~25. 방한 준비를 위해 주한 영국대사관 등의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아래의 의전사항에 관해 협의함.

- 일정별 세부 상세계획
- 일정별 행동 및 이동계획
- 행사별 참석자
- 행사별 좌석배치
- 경호업무(무기소지, 양측 경호원 업무분담 등)
- 출입국 수속, 특별기 이착륙
- 취재 지원

2. 한편, 총무처는 공항영송 등 국내행사 준비를 위해 별도의 행사계획을 수립함.

Luce, Richard 영국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4.10.3-6

| 84-039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29 / 9 / 1~93(93p)

1. 1984.10월 리처드 루스 영국 외무담당 국무장관이 방한함(부부 동반).

❁ 관할지역 정세파악 목적으로 한국 외에 일본, 미얀마(구 버마) 방문

- 영국 외무부의 국무장관(국회의원)은 4명

2. 루스 장관은 국회의장 예방,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장관 대리, 통일원 장관, 상공차관 면담, 유엔군 사령부,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외무장관 대리가 만찬 주최

3. 이상옥 외무장관 대리와의 면담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 북한이 공여를 제안한 수해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목적(남북대화 촉진)을 설명

❁ 양측은 공산권 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

❁ 양측은 홍콩반환 문제에 관해 논의

- 한국 측은 한 · 중국(구 중공) 접촉 포인트로서 홍콩의 중요성 설명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4.5.1-2. 전2권. V.1 기본문서

| 84-039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의전과
MF번호	2014-29 / 10 / 1~211(211p)

1.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이 1984.5.1.~2. 방한함(부부 동반).

- ❁ 슐츠 장관은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
- ❁ 폴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리처드 아미티지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동행

2. 슐츠 장관은 대통령 예방 · 오찬, 외무장관 회담 · 만찬 일정을 가짐.

3. 이원경 장관과의 한 · 미 외무장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미국 측은 레이건 대통령과 중국 지도자들의 회담 내용을 설명
  - 레이건 대통령은 남북당사자 직접대화와 4자회담을 선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자오쯔양(조자양) 중국 총리는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 지지를 표명
  - 후야오방(호요방)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들어 철수의사가 없다고 발언
  - 양측은 한반도 긴장완화 필요성에 관해서는 의견 일치
- ❁ 한 · 미 양측은 중국 민항기 납치범 처리, 남북회담, 한 · 미 안보협력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
- ❁ 미국 측은 한국과 미수교국가의 수교 지원을 약속
  -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집트, 이라크 등

4. 슐츠 장관은 이한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직접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함.

Ilboudo, Pierre 오트볼타 외무차관 방한 초청 계획, 1983-84

| 84-039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9 / 12 / 1~25(25p)

1. 1983.3월 외무부는 현지 공관의 건의에 따라 피에르 일부도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외무차관을 방한 초청함.

- 부르키나파소 정부의 친북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
- 파리-서울 왕복 항공료와 국내 체재비 부담 조건

2. 그러나 부르키나파소 측 사정으로 방한이 계속 연기되던 끝에 쿠데타 발생으로 외무차관이 교체됨.

- 일부도 차관은 쿠데타에 의한 신정부 출범 후인 1983.3월 외무차관에서 물러났다가 1984.7월 외무부 감사관으로 복귀

MAIANA Toma 서사모아 외무차관 방한, 1984.10.21-23

| 84-039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29 / 13 / 1~123(123p)

1. 토마 마이아나 서사모아 외무차관이 이상옥 외무차관의 초청으로 1984.10.21.~23. 부부동반 방한함.

- 서사모아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보인 차관의 역할을 평가한 관할공관(주 뉴질랜드대사관)이 초청 건의
- R. H. 카루터스 명예영사(마이아나 차관의 빙부)도 함께 초청

2. 마이아나 차관은 외무장관 예방, 외무차관 회담 · 만찬, 해외개발공사, 새마을운동 본부, 산업시설(인천소재 한양목재), 창덕궁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한 · 서사모아 외무차관 회담(10.22.)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북한과의 단교를 평가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
- 서사모아 측(명예영사)은 양국 기업 합작투자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요청
- 양측은 서사모아 총리 방한 추진에 합의

4. 이원경 외무장관은 10.22. 마이아나 차관 접견 시 한반도 정세와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서사모아 측은 한 · 중국(구 중공) 관계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표명함.

자이르 외상 방한 초청계획, 1982-84

| 84-0394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29 / 14 / 1~34(34p)

1. 외무부는 1982~83년 아래와 같이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콩고민주공 측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함.

- 1982.1월 망고네 요카 장관에게 노신영 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 1982.12월 카만다와 카만다 장관에게 이범석 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2. 1984.3월 외무부는 루테테 움바 외무장관에게 이원경 장관 명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방한을 추진함.

-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로 시토옌 켕고 콩고민주공 총리 방한도 초청

권익현 특사 (국회의원)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모로코 방문, 1984.5.9-23. 전2권. V.1 기본문서

| 84-039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4-29 / 15 / 1~386(386p)

1.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4.5.9.~23.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과 모로코를 방문함.

❋ 외무부가 주재공관을 통해 일정을 주선하고 정창화, 이영준 의원 동행

2. 권 특사는 5.9.~12. UAE 방문 시 수루르 알 나하얀 관방장관, 함단 알 나하얀 부총리, 아메드 알 마드파 국회부의장을 만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함.

❋ 관방장관과 자예드 UAE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키로 합의
- 전두환 대통령의 자예드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부총리는 한국의 대아랍, 팔레스타인 정책 평가

3. 권 특사는 5.14.~17. 모로코 방문 시 국왕 하산2세를 예방하고 람라니 총리, 벨크지즈 외무장관과 면담함.

❋ 국왕은 람라니 총리의 방한이 실현된 다음 자신의 방한을 결정하겠다고 언급
- 국왕은 한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권 특사가 해명
-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 전달

❋ 총리는 모로코 인광석의 한국수출에 관심 표명

❋ 외무장관은 주한 상주공관 설치추진 약속

4. 권 특사는 경유지인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사의 M. 아베르 총재대리를 면담하고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문제에 관해 논의함.

권익현 특사 (국회의원)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모로코 방문, 1984.5.9-23. 전2권. V.2 자료

| 84-039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4-30 / 1 / 1~125(125p)

1. 모로코 언론은 권익현 특사의 5.14.~17. 방문 시 국왕, 총리 면담 사실을 보도하고 한 · 모로코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함.

2. 외무부는 권 특사의 1984.5.9.~23. UAE, 모로코 방문을 위해 아래 자료를 작성함.

- 말씀자료(국 · 영문)
  -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 설명
  - 국제무대에서의 지원에 사의 표명
  - 한국기업 진출을 위한 지원 당부(UAE)
  - IPU 서울총회 개최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모로코)
- 오 · 만찬사(국 · 영문)
- 한국기업 진출 관계자 격려사
- 방문국가 관련 개황
  - 대내 · 외 정세
  - 한국과의 관계
  - 북한과의 관계

강경식 특사 (대통령 비서실장) 아프리카 순방, 1984.11.23-12.16. 전2권. V.1 기본문서

| 84-039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0 / 2 / 1~422(422p)

1. 강경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84.11.23.~12.16. 전두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함.

❁ 북한의 아프리카 진출 억제, 비동맹외교 강화 목적

2. 국별 방문결과는 아래와 같음.

❁ 브루키나파소(11.27.~29.)

- 상카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 기소 외무장관은 한국의 경협에 대한 기대 표명

❁ 아이보리코스트(11.29.~12.2.)

- 우푸에트브와니 대통령은 남남협력 차원에서의 한국의 지원(전문가 양성 등) 요청
- 아케 외무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 나이지리아(12.2.~4.)

- 부하리 국가원수(군사평의회 의장)는 남북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대 표명
- 감바리 외무장관은 한 · 나이지리아 합동위원회 서울개최 실현을 위한 노력 약속

❁ 자이르(12.4.~8.)

- 모부투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모부투 대통령은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 지지

❁ 에티오피아(12.9.~12.)

- 고슈 외무장관은 고위사절단 한국파견 계획 언급

* 외무부는 특사방문에 앞서 멩기스 국가원수 예방을 추진했으나 실패

3. 외무부는 대통령 특사 순방에 즈음하여 5개국에 대해 각각 20~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공여계획을 수립하고 특사 방문 시 각국에 약속함.

4. 외무부는 특사용 자료 작성에 앞서 방문국가 요인 면담기회에 특사가 언급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관한 현지공관 의견을 수렴함.

강경식 특사 (대통령 비서실장) 아프리카 순방, 1984.11.23-12.16. 전2권. V.2 자료

| 84-039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0 / 3 / 1~255(255p)

1. 외무부는 강경식 대통령 특사의 1984.11.23.~12.16. 아프리카 5개국 순방 준비의 일환으로 부내 각 부서 소관사항을 취합하여 아래 항목으로 자료를 작성함.

- ❁ 일반 훈령(공통사항)
  - 우호관계, 호혜협력 증진 희망 표명
  - 한반도 정세, 통일문제 입장 설명
- ❁ 국별 훈령
  - 국가원수, 외무장관 방한 희망(브루키나파소)
  - 토고, 베냉, 말리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지원 요청(코트디부아르)
  -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요청(나이지리아)
  - 북한의 진출기도 저지 교섭(자이르)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립입장 요청(에티오피아)

2. 또한 외무부는 특사용 준비 자료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킴.

- ❁ 국별 개황
- ❁ 대내 · 외 정책 동향
- ❁ 한국과의 관계 현황
- ❁ 북한과의 관계 현황

강경식 특사 (대통령 비서실장) 남미 순방, 1984.8.5-25

| 84-039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0 / 6 / 1~392(392p)

1. 강경식 대통령 특사(대통령 비서실장)가 1984.8.5.~25. 남미 3개국을 순방함.

❁ 에콰도르 정부 요청으로 베프레스 코르데로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참석하는 기회에 방문

2. 순방 결과는 아래와 같음.

❁ 8.8.~13. 에콰도르 방문

-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베프레스 코르데로 대통령, 블라스코 페나데레라 부통령, 에드가르 테란 외무장관 면담
- 부통령과 외무장관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

* 강 특사는 취임식에 참석한 윔 우덴호트 수리남 총리의 요청으로 면담하고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지지 요청(수리남 측이 지지 약속)

❁ 8.15.~17. 우루과이 방문

- 그레고리오 알바레스 대통령, 카를로스 마에소 외무장관 면담
- 대통령과 외무장관은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를 약속

❁ 8.17.~22. 브라질 방문

- J.B. 피게이레두 대통령,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서리 등 면담
- 외무장관서리는 한국의 유엔가입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국 측 입장에 공감 표명

3. 강 특사는 각국 정상에게 전두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함.

Mohammed Saeed AL-BADIE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 특사 (국군 참모총장) 방한, 1984.9.28-10.6

| 84-040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4-30 / 7 / 1~98(98p)

1. 모하마드 알-바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 참모총장이 UAE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1984.9.28.~10.4. 방한함.

2.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9.27. 도착
- 9.29. 서울소재 기업 방문(삼성물산, 대우실업)
- 9.30. 윤성민 국방장관 예방, 전방 시찰
- 10.1.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진의종 국무총리 예방
- 10.2. 전두환 대통령 예방
  - UAE 대통령 친서 전달
- 10.2.~3. 진해기지 및 지방산업시설 방문
  - 대우중공업, 삼성정밀, 기아기공, 쌍용중공업, 옥포조선
- 10.4. 출국

한 · 호주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호주 및 태국 방문, 1984.4.1-11

| 84-040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0 / 8 / 1~35(35p)

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해외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 · 호주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4.4.1.~11. 호주를 방문함.

- ❁ 고판남 의원(단장, 민주정의당), 김정남 의원(민주정의당), 오홍석 의원(민주한국당)
- ❁ 한 · 호주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호크 총리, 바우엔 부총리, 매클렌드 상원의장, 젠킨스 하원의장 면담
  - 모리슨 상 · 하원 합동외교국방위원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한반도정세 등에 관해 의견 교환

2. 의원단은 귀로에 인도네시아(4.7.)와 태국(4.8.~11.)을 방문함.

- ❁ 인도네시아에서는 소후드 국회부의장과 한 · 인도네시아 의원외교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 ❁ 태국에서는 우타이 국회의장 대리와 한 · 태국 의원외교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한 · 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방문, 1984.3.26-4.2

| 84-040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0 / 9 / 1~47(47p)

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해외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 · 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4.3.26.~29. 오스트리아를 방문함.

- 박정수 의원(단장, 무소속), 유수환 의원(민주정의당), 이원범 의원(민주정의당)
- 하인리히 나이세르 의원 등 오스트리아 측 친선협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제프 빌레 사회당 원내대표, 프리드리히 페터 자유당 원내대표, 프리드리히 쾌니히 인민당 원내 부대표 등과 면담
  - 한 · 오스트리아 의원외교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2. 의원단은 귀로에 스위스(3.30.~4.2.)를 방문하고 외무장관, IPU 관계자 등과 면담함.

한 · 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덴마크 및 핀란드 방문, 1984.3.25-31

| 84-040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0 / 10 / 1~33(33p)

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해외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 · 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4.3.25.~28. 덴마크를 방문함.

- 황인성 의원(단장, 민주정의당), 박경석 의원(민주정의당), 김문원 의원(민주한국당)
- 페데레센 IPU 위원장, 한센 자유당 원내총무 등과 면담
  - 한 · 덴마크 의원외교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2. 의원단은 귀로에 핀란드(3.28.~31.)를 방문하여 IPU 의원단과의 간담, 피스티엔 국회의장, 바이리엔 외무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한 · 핀란드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눔.

- 한국 측은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 설명

채문식 국회의장 자메이카 및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1984.2.12-18

| 84-040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30 / 11 / 1~350(350p)

1. 채문식 국회의장이 자메이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을 1984.2.12.~18. 방문함(부부 동반).

- 국회 의원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외무부의 주선으로 방문국가 국회의장이 공식초청
- 국회의원 3명 동행
  - 이치호 의원(민주정의당), 오상현 의원(민주한국당), 김영광 의원(국민당)

2.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자메이카(2.12.~15.)
  - 프로리잘 글라스폴그 총독 예방, 알바 로스 하원의장, 오스왈드 하딩 상원의장 면담
  - 양측은 한 · 자메이카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도미니카공화국(2.15.~18.)
  - 살바도르 블랑코 대통령, 유고 디프 하원의장, 야코보 알자르 상원의장, 호세 임베르트 외무장관 면담
  - 양측은 한 · 도미니카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임베르트 외무장관이 채 의장에게 서훈

한 · 스페인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스페인 및 그리스 방문, 1984.5.14-28

| 84-040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0 / 12 / 1~99(99p)

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해외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 · 스페인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4.5.14.~18. 스페인을 방문함.

- 윤석민 의원(단장, 국민당), 박종관 의원(민주정의당), 임채홍 의원(무소속)
- 레오폴드 토레스 단장 등 IPU 의원단과 간담하고 호세 카스바할 상원의장, 아르투르 리손 하원 부의장 등과 면담
  - 한 · 스페인 의원외교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 교민간담회 참석

2. 의원단은 귀로에 포르투갈(5.18.~24.), 그리스(5.24.~28.)를 방문함.

- 포르투갈에서는 카를로스 라제 국회의장대리, 자이네 가마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한 · 포르투갈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그리스에서는 이오암스 알레바스 국회의장, 테오도레 팡갈로스 외무차관과 면담하고 한 · 그리스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양국에서 교민간담회에 참석

한 · 노르웨이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방문, 1984.3.19-25

| 84-040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0 / 13 / 1~69(69p)

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해외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 · 노르웨이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4.3.19.~22. 노르웨이를 방문함.

- 이진우 의원(단장, 민주정의당), 이흥수 의원(민주정의당), 김문석 의원(민주한국당)
- 페르 싱–달 국회의장, 스벤 스트라이 외무장관, IPU 의원단과 면담하고 한 · 노르웨이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2. 의원단은 귀로에 아이슬란드(3.22.~25.)를 방문함.

- 트르발루르 크리스트얀슨 국회의장, 스타인그리누르 헤르만손 수상과 면담하고, 한 · 아이슬란드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채문식 국회의장 요르단 방문, 1984.2.3-6

| 84-040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0 / 14 / 1~327(327p)

1. 채문식 국회의장이 1984.2.3.~6. 요르단을 방문함(부부 동반).

- 국회 의원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외무부의 주선으로 요르단 국회의장이 공식 초청
- 국회의원 3명 동행
  - 이치호 의원(민주정의당), 오상현 의원(민주한국당), 김영광 의원(국민당)

2. 채 의장은 핫산 왕세자 예방, 알 파예즈 하원의장, 로위지 상원의장, 오베이다트 총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요르단 측 인사들과 양국관계 증진방안, 의원외교 강화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로위지 상원의장이 채 의장에게 서훈
- 후세인 국왕의 와병으로 핫산 왕세자가 대신 접견

3. 요르단 체류 중 채 의장은 교민간담회에 참석하고 한국기업의 건설현장을 방문함.

4. 요르단 언론은 채 의장의 방문사실과 요인 면담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함.

의원사절단 케냐 및 말라위 방문, 1984.2.8-14

| 84-040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1 / 1 / 1~109(109p)

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해외순방계획의 일환으로 의원단이 1984.2.8.~14. 케냐와 말라위를 방문함.

- 고정훈 의원(단장, 신정사회당), 신상초 의원(민주정의당), 이건호 의원(민주정의당), 이윤기 의원(민주한국당)
- 당초 모리셔스 방문도 추진했으나 해당국 사정으로 무산

2.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말라위(2.8.~11.)
  - 반다 대통령, 콘제 국회의장 등 면담
  - 한 · 말라위 의원외교 강화방안,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케냐(2.11.~14.)
  - 마티 국회의장, 티피스 국무장관, 숨비 외무장관 등 면담
  - 양측은 한 · 케냐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

3. 의원단은 말라위와 케냐에서 교민간담회에 참석함.

한 · 멕시코 의원친선사절단 멕시코, 베네수엘라 방문, 1984.4.6-26

| 84-040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1 / 2 / 1~96(96p)

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해외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 · 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4.4.8.~11. 멕시코를 방문함.

- ❁ 이낙훈 의원(단장, 민주정의당), 이홍배 의원(민주정의당), 박완규 의원(민주한국당)
- ❁ 움베르토 질 하원의장, 미구엘 아렐라드 상원의장과 면담하고 IPU 의원단과 간담
  - 한 · 멕시코 의원외교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 ❁ 교민간담회 참석

2. 의원단은 멕시코에 이어 베네수엘라(4.12.~15.)를 방문함.

- ❁ 레오나르도 페레즈 하원의장, 소몬 콘살비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하원 국제기구위원회 의원들과 간담
  - 한 · 베네수엘라 의원외교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 페레즈 하원의장에게 채문식 국회의장 명의 방한초청장 전달
- ❁ 교민간담회 참석

3. 의원단은 귀로에 도미니카 공화국(4.15.)에 기착하여 아이바르 산체스 한 · 도미니카 의원친선협회 사무총장과 면담함.

채문식 국회의장 파푸아뉴기니 방문, 1984.8.7-11

| 84-041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1 / 3 / 1~240(240p)

1. 채문식 국회의장은 1984.8.7.~11. 파푸아뉴기니(PNG)를 방문함(부부 동반).

❁ 티모시 봉가 PNG 국회의장이 1983년 자신의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국회 신청사 개관식에 영연방 태평양지역 정상회의(CHOGM) 19개 회원국 정상 · 국회의장들과 함께 초청

- 영국의 찰스 왕세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 등 참석

2. 채 의장은 8.7. 도착하여 국회 신청사 개관식과 관련행사에 참석하고 마이클 소마레 수상, 티모시 봉가 의장 면담, 친한 의원 초청 만찬, 교민간담회 참석, 한국기업(한라자원주식회사) 삼림개발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8.11. 귀국함.

❁ 소마레 수상과의 면담에서 채 의장은 한 · PNG 양국이 태평양 연안국들의 공동번영을 위해 기여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소마레 수상은 한국의 자본 · 기술과 PNG의 자원을 결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기대

3. 또한 채 의장은 괌, 홍콩 등을 경유하며 현지 중앙 · 지방의회 의장 면담, 교민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짐.

국회의원단 스위스 방문, 1984.3.28-4.1

| 84-04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1 / 4 / 1~14(14p)

1. 오스트리아 방문 후 귀로에 스위스를 방문한 한 · 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단장: 박정수 의원)은 1984.3.30. 아베르 외무장관, 브룬너 외무차관과 면담함.

❋ 스위스 측은 남 · 북한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스위스 영토를 남북대화를 위한 장소로 제공할 용의를 표명

2. 또한 의원단은 헤프티 상원의원 등 스위스 상 · 하원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 · 스위스 의원친선협회 설립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3. 의원단은 교민간담회에도 참석함.

채문식 국회의장 터키 방문, 1984.2.6-10

| 84-041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1 / 5 / 1~163(163p)

1. 채문식 국회의장은 1984.2.6.~10. 터키를 방문함(부부 동반).

- 국회 의원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외무부가 주선하여 네즈메틴 카라두만 터키 국회의장이 공식 초청
- 요르단,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식방문과 연계 진행되어 국회의원 3명이 계속 동행
  - 이치호 의원(민주정의당), 오상현 의원(민주한국당), 김영광 의원(국민당)

2. 채 의장은 케만 에브렌 대통령, 네즈메틴 카라두만 국회의장, 투르굿 오잘 수상 등과 면담함.

- 에브렌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터키 방문을 초청
  - 또한 1984.3월 중국(구 중공) 국가주석의 터키 방문계획을 알리면서 한 · 중 관계를 위한 역할을 자임한 데 대해 채 의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당부
- 카라두만 국회의장은 한 · 터키 경제협력발전을 기대하고 터키가 북한과는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 오잘 수상은 가까운 장래 방한을 희망

3. 터키 언론은 채 의장 방문사실과 요인 면담결과를 한 · 터키 간 전통적 우호를 부각시키면서 비교적 크게 보도함.

국회의원 미국 방문, 1984

| 84-041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1 / 6 / 1~84(84p)

1. 지갑종 의원(사단법인 유엔한국참전국 협회회장)은 1984.2월 미국을 방문하고, 6.25 참전의원을 포함 상 · 하원 의원 11명과 만나 한국방위를 위한 미국 군사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지 의원이 면담한 6.25 참전의원은 워렌 라드만(상원, 공화), 존 워너(상원, 공화), 찰스 랑겔(하원, 민주) 의원 등

2. 김영선 위원장 등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1984.4월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국가를 거쳐 미국을 방문함.

- 김사룡 의원(민주정의당), 김노식 의원(민주한국당), 조병규 의원(국민당) 동행
- 미하원 군사위원회 등이 주관한 다과회에 참석하여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노드롭 항공사 등을 시찰

국회의원단 중남미 순방, 1984

| 84-041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중미과
MF번호	2014-31 / 7 / 1~212(212p)

1. 국회의원단이 의원외교활동의 일환으로 1984.3~5월 아래와 같이 중남미지역을 방문하고 각국 요인들과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 교환함.

❁ 한병채 위원장 등 법사위원회 의원 4명이 브라질, 콜롬비아 방문
- 3.31.~4.5. 브라질 방문 시 하원의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면담
- 4.10.~13. 콜롬비아 방문 시 상 · 하원 의장과 법사위원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면담

❁ 김영선 위원장 등 국방위원회 의원 4명이 콜롬비아, 페루 방문
- 4.29.~5.1. 콜롬비아 방문 시 국방장관, 상 · 하원 외무국방위원장 면담
- 5.1.~3. 페루 방문

❁ 정재철 재무위원장 등 특별사절단원 5명이 페루, 아르헨티나 방문
- 5.5.~8. 페루 방문 시 대통령, 상 · 하원의장, 수상 면담
- 5.8.~12. 아르헨티나 방문 시 상 · 하원 의장, 수산장관 면담하고 상 · 하원의원들과 합동으로 간담

2. 정재철 위원장 등은 아르헨티나 방문 시 한 · 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창설에 합의함.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북미 및 서구 순방, 1984.2.9-25

| 84-0415 |

생산연도 | 1984
생 산 과 | 서구1과
MF번호 | 2014-31 / 8 / 1~26(26p)

1.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은 1984.2월 북미와 서구를 순방함.

2. 각국 요인 면담 및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프랑스(2.9.~11.)

- 클라우드 에스티르 하원 외무위원장과 중국(베이징)의 한반도정책에 관해 의견 교환
- 자크 헌칭거 사회당 국제부장으로부터 사회당-북한 관계에 대해 청취
- 파리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간담

❁ 이탈리아 · 교황청(2.13.~14.)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예방(2.13.)

❁ 캐나다(2.16.~20.)

- B. 멀로니 진보보수당 당수로부터 캐나다 총선 전망 청취
- J. 쉬테티엥 에너지장관과 한 · 캐나다 원자력 산업협력문제 논의

❁ 미국(2.21.~25.)

- 상원의 헬름즈, 심즈 의원과 하원의 허바드, 브룸필드, 하이타워 의원을 만나 특혜관세(GSP) 연장을 위한 지원 요청
- 파쉘 하원외무위원장 주최 다과회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 미국의 대한군사원조(FMS), GSP 연장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McClelland, Douglas 호주 상원의장 방한, 1984.9.16-20

| 84-041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1 / 9 / 1~79(79p)

1. 더글러스 매클랜드 호주 상원의장은 채문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984.9.16.~20. 방한함.

2. 매클랜드 의장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제20차 아 · 태의원 연맹(APPU) 총회 개막식 참석,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산업시설(울산)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 이원경 외무장관 면담(9.17.)시 한국이 적자인 무역불균형 시정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하고 남북 관계의 현황에 대해 청취

3. 매클랜드 의장 부인은 9.17. 별도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예방함.

오스트리아 국민당 의원단 방한, 1984.8.24-29

| 84-041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1 / 10 / 1~170(170p)

1. 오스트리아 국민당(보수계) 소속 의원단이 프리드리히 쾌니히 원내부총무를 단장으로 1984.8.24.~29. 방한함.
   - ❁ 하원의원 17, 상원의원 4, 주의회 의원 2, 기타 관계자와 배우자 17명
   - ❁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후 방한

2. 의원단은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외무장관, 상공장관, 체육장관, 민정당 대표 예방 · 면담, 산업시설 (포항제철, 삼성전자 수원공장), 판문점 시찰, 경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이원경 외무장관은 의원단을 위해 오찬(8.28.)을 주재함.
   - ❁ 이 장관은 오찬사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관해 설명

벨기에 · 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4.5.22-27

| 84-041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1 / 11 / 1~50(50p)

1. 벨기에 · 한국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국회초청(체재비 부담)으로 1984.5.22.~27. 방한함.

- 롤랑 질레 회장 등 상 · 하원 의원 6명

2. 의원단은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한 · 벨기에 의원친선협회 회장(김종호 의원) 예방 · 면담, 지방산업시설(구미의 대우전자, 삼성반도체통신), 한 · 벨기에 직업훈련원(창원), 판문점 시찰, 경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국회의장, 김종호 회장이 각각 오 · 만찬 주재
- 진의종 국무총리 예방 시 질레 회장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설명 청취 후 국제무대(UN, IPU)에서의 한국 지지 약속

브라질 제1야당 의원단 방한, 1984.11.6-11

| 84-041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1 / 12 / 1~140(140p)

1. 브라질의 민주운동당(제1야당으로 약칭은 PMDB) 소속 의원단이 1984.11.6.~11. 방한함.
   - ❁ 세베로 고메스 단장 등 상 · 하원 의원 5명(일부 의원은 부부 동반)
   - ❁ 북한의 브라질 의원 초청공세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 공관이 건의하여 국회가 초청
     - 항공료, 체재비 부담

2. 의원단은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장관, 한 · 브라질 의원친선협회 회장 예방 · 면담, 지방산업시설(울산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수원의 삼성전자), 전방(판문점, 땅굴) 시찰, KAIST, KDI, 농촌진흥청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이상옥 외무차관과 한 · 브라질 의원친선협회 회장(이동진 의원)이 각각 의원단을 위해 오 · 만찬을 주재함.

볼리비아 국회의원 방한, 1984

| 84-0420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1 / 13 / 1~169(169p)

1. 볼리비아 국회 요인들이 채문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4.7월 아래와 같이 방한함.

- ❁ 훌리오 가레뜨 아욘 상원의장(7.10.~15.)
  -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장관, 정무1장관 예방 · 면담
  - 신병현 부총리 면담 시 한국의 민간경제사절단 파견 추진에 합의
- ❁ 에우도로 갈린도 아세 하원의원(국민민주행동당 부당수, 7.22.~27.)
  - 국회의장, 정무장관, 민정당 사무총장, 외무차관 예방 · 면담
- ❁ 양인은 방한기간 중 지방산업시설, 전방(판문점, 제3땅굴) 등도 시찰

2. 이에 앞서 외무부는 현지 공관이 북한의 수교공세에 대한 대책으로 볼리비아 국회의장의 방한초청을 건의하여 1982년부터 이를 추진함.

- ❁ 1983.3월 당시 정래혁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 발송

3. 또한 외무부는 주볼리비아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1984.6월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 중인 구알베르또 클라우레 오르뚜르 하원의장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나 직전에 동인이 급거 귀국하여 무산됨.

하의무(何宜武) 중국 국민대회 비서장 방한, 1984.9.3-8

| 84-04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의전과
MF번호	2014-31 / 14 / 1~40(40p)

1. 대만(구 자유중국)의 어원 호(Erwin Ho, 何宜武) 국민대회 비서장이 우병규 국회 사무총장 초청으로 1984.9.3.~8. 방한함.

- 국민대회는 총통, 부총통을 선출하는 대의기관
- 1984.2월 국회는 사무총장 명의 초청장을 이 쇼우 감찰원 비서장, 샤오 셴 잉 입법원 비서장에게도 발송

2. 호 비서장은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국회사무총장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진의종 총리 면담 시 호 비서장은 중국(구 중공) 민항기 납치범 6명을 대만으로 추방한 데 감사

콜롬비아 국회의원 방한, 1983-84

| 84-042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1 / 15 / 1~344(344p)

1. 콜롬비아 국회의원이 1983~84년 아래와 같이 방한함.

❁ 1983.7월 카를로스 뚜르히요 상원 헌법위원장

- 당초 상원의원 3명이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뚜르히요 의원만 도착
- 일정은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 면담, 판문점 시찰 등

❁ 1983.9월 에밀리오 가스떼야노스 하원의원(전 하원의장)

- 일정은 국회의장, 외무차관 예방 · 면담, 판문점 시찰 등

❁ 1984.5월 콜롬비아 · 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에르난도 뚜루바이 의원 등 6명)

- 일정은 국회의장,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수도권 산업시설(삼성전자, 대우중공업), 판문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찰 등

❁ 1984.6월 세사르 뚜르히요 하원의장

- 일정은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 예방 · 면담 등

❁ 1984.9월 비르일리오 바르꼬 상원의원

- 일정은 대통령,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차관 예방 · 면담,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시찰 등

2. 위의 방한 인사 가운데 세사르 뚜르히요 하원의장은 전두환 대통령 예방(84.6.18.) 시 방한 직전 방문한 중국(구 중공)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눔.

Douglas, Michael 도미니카연방 야당 당수 방한, 1984.9.8-12

| 84-042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31 / 16 / 1~17(17p)

1. 도미니카연방의 마이클 더글러스 제1야당(UDLP : United Dominican Labour Party) 당수(전 재무장관)가 1984.9.8.~12. 개인 자격으로 방한함.

❁ 관광업체 일성산업(주) 초청으로 방한하여 강화도 등을 방문

2. 더글러스 당수 방한에 앞서 주바베이도스대사(도미니카연방 겸임)와 오찬(9.4.)을 가진 찰스 도미니카연방 총리는 더글러스 당수가 북한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친북 인사라고 설명함.

❁ 찰스 총리는 더글러스 당수의 방북 경력도 언급

프랑스 하원 북한연구소 의원단 방한, 1984.5.27-6.2

| 84-0424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1 / 17 / 1~255(255p)

1. 프랑스 하원의 북한연구소 소속인 피에르 쿠스테 의원이 1984.5.27.~6.2. 방한하여 정내혁 국회의장, 공로명 외무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북한연구소 소속 의원단 방한에 관해 협의함.

- ❁ 쿠스테 의원은 우파정당 소속의 친북성향 정치인
- ❁ 이후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북한연구소 소속 의원단 방한문제 협의

2. 이에 따라 쿠스테 의원을 단장으로 5명의 의원단이 방한함.

- ❁ 우파정당 소속 의원 3명, 사회당 소속 의원 2명
- ❁ 주프랑스대사관이 프랑스 · 북한 관계 대책차원에서 한국 측 경비부담으로 초청할 것을 건의하여 국회가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

3. 의원단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 통일장관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 이원경 외무장관은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의원들과 남북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이탈리아 상 · 하 의원단 방한, 1984.11.30-12.4

| 84-042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1 / 18 / 1~61(61p)

1. 마리오 타소네 하원의원(건설차관)이 이끄는 이탈리아 상 · 하원 의원단이 1984.11.30.~12.4. 방한함.

-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3명
- 국회가 체재비 부담

2. 의원단은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외무장관, 건설장관 예방 · 면담, 수도권 산업시설(삼성전자, 대우중공업), 전방(판문점, 제3땅굴)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타소네 단장은 12.7. 출국

니까이도 스스무(二階堂進) 일본 자민당 부총재 방한, 1984.8.13-15

| 84-042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1 / 19 / 1~72(72p)

1. 니카이도 스스무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1984.8.13.~15. 방한함.

- 권익현 민정당 대표위원이 초청
- 자민당 소속 하야시 요시로 중의원 의원 등이 동행

2. 니카이도 부총재는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민정당 대표위원, 한 · 일 의원연맹 회장, 전경련 회장단 예방 · 면담,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의 친서 전달

덩히데오(田英夫) 일본 사민련 (사회민주연합) 대표 방한, 1984.10.29.-11.1

| 84-042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1 / 20 / 1~164(164p)

1. 일본의 야당 사회민주연합(약칭: 사민련)의 덩 히데오 대표(참의원 의원)가 1984.10.29.~11.1. 방한함.

- 사민련 소속 중의원 아베 쇼고, 에다 사츠키 의원 2명 동행

2. 덩 대표 일행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여 · 야당 대표,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이원경 외무장관 예방 · 오찬 시 북한동향,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등에 관해 논의
- 전두환 대통령 예방은 비공식 행사로 취급
-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면담(10.31.)

3. 이에 앞서 덩 대표는 1983.6월 방한 예정이었으나 아래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바 있음.

- 덩 대표가 방한을 위해 사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안전기획부는 동인의 방한 목적이 단식 중이던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위문이라는 점을 들어 발급거부를 외무부에 요청
- 일본 외무성이 구상서로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덩 대표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
  - 외무성이 일본 국회의원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일본의 관행
- 주일본대사관은 구상서상의 방한 목적이 '주한일본대사관과의 업무협의'로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파문이 예상됨을 들어 발급을 건의
- 외무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증 발급을 결정하고 주일본대사관에 발급 지시
- 덩 대표가 방한 계획을 취소

야마모또 고오이찌(山本 幸一) 일본 사회당 고문 일행 방한, 1984.11.19-23

| 84-042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2 / 1 / 1~259(259p)

1. 야마모토 코오이치 일본 사회당 고문(전 서기장) 등이 1984.11.19.~23. 방한함.

- ❁ 일행은 전직의원 4명과 현직의원 1명 등 5명
  - 현직의원은 고바야시 스스무 중의원 의원
- ❁ 주일본대사관은 사회당의 친북노선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여 이들에게 방한을 권유하고 외무부 본부에 국회의장 개인 명의 초청, 경비부담 등을 건의하여 실현
- ❁ 야마모토 고문 일행은 사회당 지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한

2. 야마모토 고문 등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여 · 야당 대표, 한 · 일 의원연맹 회장 예방 · 면담,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 사회당 인사들은 이원경 외무장관 등 한국 측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남북대화 지지, 사회당 대한정책의 변화 필요성 언급

3. 야마모토 고문 등은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와도 11.22. 면담함.

- ❁ 김 전 총재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는 달리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 표명

4. 한 · 일 양국 언론은 일본 사회당 고위관계자들의 방한 동정을 크게 보도함.

5. 고바야시 스스무 의원은 귀국 후 월간지(月刊現代)에의 기고문에서 일본국회가 한 · 일 기본조약을 승인했음을 들어 사회당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함.

Seetaram, Iswardeo 모리셔스 국회운영위 부위원장 방한, 1984.3.15-24

| 84-042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2 / 2 / 1~39(39p)

1. 주케냐대사는 1984.3.7. 겸임국 모리셔스의 Jugnauth 수상이 기술원조 및 전대차관 도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국의 Iswardeo Seetaram 국회 운영위 부위원장을 3.15.~24. 공식 파한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수상 희망대로 이를 접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주케냐대사는 1984.1월 모리셔스 출장 중 동국 재무상이 정부 간 장기 저리 차관공여를 요청한바, 주케냐대사가 상업베이스가 아닌 정부 간 soft loan 공여는 곤란한 입장임을 설명
- Seetaram 의원은 79.7월 수산장관 재직 시 한 · 모리셔스 친선협회를 창설,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아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

2. 정부는 Seetaram 의원의 한 · 모리셔스 우호증진을 위한 그간의 기여와 이번 방한이 Jugnauth 수상의 특별요청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할 것을 3.8. 결정함.

3. Seetaram 의원은 1984.3.15.~24. 방한한바, 주요 체한일정은 다음과 같음.

- 외무장관, 재무차관, 국회 외무위원장, 수출입은행장, 외환은행장, 전경련 부회장, 한 · 아프리카 친선협회장 예방
- 대우, 현대자동차, 국제종합기계, 화승, 동양 Express 등 업계와 접촉, 투자유치문제를 협의하고, 현대자동차와 버스 수입문제를 논의
- 동 의원의 전대차관 제공 요청에 대해 수출입은행장은 200만 달러 한도(연리 10%, 2년 한도의 grace period 고려 가능) 제공 검토 약속

네팔 국회의원 방한, 1983-84

| 84-0430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2 / 3 / 1~154(154p)

1. 네팔의 마리치 싱 국회의장이 1983.9.28.~10.1. 방한함.

- 정내혁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을 1982.1월 발송하여 제70차 IPU 서울총회 참석 기회에 공식 방한
- IPU 대표단과는 별도로 국회의원 3명 동행
- 공식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수도권 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IPU 서울총회에 참석

2. 상기 싱 국회의장과는 별도로 1983~84년 네팔 국회의원이 아래와 같이 방한함.

- 나바 수베디 의원은 83.10.26.~30. 방한
  - 오세응 정무1장관 초청으로 방한하여 국회의장 예방, 전방시찰 등
- 야다브 판트 의원(전 재무장관, 주한 네팔대사)은 84.5.14.~26. 방한
  - 방한 기간 중 KDI 세미나 참석, 재무장관, 외무차관 면담 등

Kwawaja Mohammad SAFDAR 파키스탄 연방입법자문회의 의장 방한, 1984.5.16-22

| 84-0431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2 / 4 / 1~303(303p)

1. 크와와자 사프다 파키스탄 연방입법자문회의 의장이 1984.5.16.~22. 공식 방한함.

- 연방입법자문회의는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잠정적 입법기관
- 주이슬라마바드 총영사관은 83.1월 당시 미수교국이던 파키스탄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동 의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정내혁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83.5월 방한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2. 사프다 의장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정자문회의의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장관 예방 · 면담, 판문점,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서훈(지아 파키스탄 대통령 친서 전달)

3. 사프다 의장은 1984.5.18.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진의종 국무총리, 이원경 외무장관과의 면담 시 한 · 파키스탄 관계 발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함.

페루 국회의원 방한, 1984

| 84-043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2 / 5 / 1~367(367p)

1. 페루의 국회의원 · 정치인이 1984년 아래와 같이 방한함.

❁ 7.3.~7. 라이네스 다고베르토 하원의장

- 일정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상공장관, 외무차관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수도권 산업시설(삼성전자 등),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등
- 이상옥 외무차관 면담 시 자원협력(철광석)에 관해 논의

❁ 7.24.~29. 알바 루이스 하원의원(제1야당 APRA의 제2부통령 후보)

- 일정은 국회의장,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포항, 울산), KDI 방문 등

❁ 9.23.~28. 오깜보 에르네스또 하원의원 등

- 일정은 국회의장, 외무차관 예방 · 면담, 판문점, 석탄공사, 농업연구소 방문 등

❁ 11.8.~15. 곤잘레스 루이스 제1야당 APRA 대통령 후보 고문

- 일정은 외무장관, 동력자원장관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포항, 울산) 방문 등

❁ 12.10.~23. 산체스 루이스 제1야당 APRA 대통령 후보 고문

- 일정은 농수산장관, 수산청장, 상공차관, 동력자원차관, 농촌진흥청장 면담 등

2. 또한 외무부는 네그레이로스 루이스 페루 하원의원의 방한을 1984.10월 중 추진하였으나 동인 사정으로 연기됨.

Gina, Lloyd 솔로몬아일란드 국회의장 방한, 1984.2.22-27

| 84-043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2 / 6 / 1~59(59p)

1. 로이드 기나 솔로몬아일랜드 국회의장이 채문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984.2.22.~27. 공식 방한함.

- 주피지대사관이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책차원에서 초청 건의
-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후 방한

2. 기나 의장은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포항, 울산),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이원경 외무장관 면담 시 수산업, 임업 분야 등 한국기업의 솔로몬아일랜드 진출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

스웨덴 국회의원 방한, 1984

| 84-043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2 / 7 / 1~121(121p)

1. 스웨덴 국회의원이 1984.9.2.~7. 아래와 같이 방한함.

❁ 스웨덴 국회 공업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단(단장: 에릭 와그 의원 등 15명)

- 말레이시아, 상가포르 등 동아시아 순방계획의 일환
- 방한 일정은 국회의장, 상공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한국개발원(KDI) 원장,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 예방 · 면담, 판문점, 지방 산업시설(구미, 포항, 울산) 시찰 등

❁ 스웨덴 국회 교통체신위원회의 쿠르트 휴고손 위원장, 롤프 클라크손 부위원장

- 정동성 국회 교통체신위원장이 초청
- 방한 일정은 국회의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교통장관, 체신장관 예방 · 면담, 수도권(삼성전자)과 지방(울산) 산업시설 시찰 등

2. 상기 스웨덴 국회의원 방한 일정 중 특기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업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단의 상공부(9.3.), KDI(9.4.), 전경련(9.5.) 방문 시 각각 한국의 산업정책과 공업현황에 관한 브리핑 청취

❁ 휴고손 위원장 등과 손수익 교통장관 면담 시 고속철도 건설분야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스리랑카 국회의원 방한, 1984

| 84-043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2 / 8 / 1~116(116p)

1. 스리랑카 국회의원의 1984년 중 방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4.23.~30. 존 아마라퉁가 스리랑카 · 한국 의원친선협회 사무총장, 쉐튼 라나라쟈 법무부장관

- 방한 일정은 한국 · 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관계자, 법무장관 · 차관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부산, 경주) 방문 등

❁ 9.17.~24. 아누라 반다라나이케 의원(야당 자유당 당수)

- 유치송 민주한국당 총재가 초청 (경비는 국회 부담)
- 방한 일정은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 민주한국당 총재,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수도권과 지방(울산) 산업시설 시찰 등

2. 반다라나이케 의원은 9.19. 이원경 외무장관 면담 시 남북관계, 랑군 사건, 인도 · 스리랑카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아누라 반다라나이케 의원은 반다라나이케 전 스리랑카 총리의 아들

Senanayake, E. L. 스리랑카 국회의장 방한, 1984.8.27-9.3

| 84-043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2 / 9 / 1~186(186p)

1. E. L. 세나나야케 스리랑카 국회의장이 1984.8.27.~9.3. 아래와 같이 방한함.

❁ 채문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 후 방한

- S. D. 반다라나이케, T. G. 반다, C. W. 구나와르데나, S. 다니엘, G. V. S. 데 실바 의원 5명 동행
- 국회가 체재비와 도쿄-서울 왕복항공료 부담

❁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수도권과 지방(울산) 산업시설 시찰, 조계사, 민속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경주 방문 등

- 의장 부인은 별도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2. 이원경 외무장관은 세나나야케 의장 일행을 위한 오찬(8.29.) 연설에서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스리랑카의 지원을 당부함.

Karaduman, Necmettin 터키 국회의장 방한, 1984.9.24-30

| 84-043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2 / 10 / 1~97(97p)

1. 네제메틴 카라두만 터키 국회의장이 채문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984.9.24.~30. 방한함.

- ❁ 하이레티르 엘마스, 메킨 사리오글루, 알리 이카이딘, 메멧트 카라, 펜니 이스리미엘리 등 여 · 야 의원 5명 동행
- ❁ 하이레티르 엘마스 의원은 사전에 도착하여 제20차 아시아 · 태평양 의원연맹(APPU) 총회에 참석하고 카라두만 의장 입국 후 합류

2. 카라두만 의장 일행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건설장관 예방 · 면담, 수도권과 지방(울산) 산업시설, 경주 방문, 터키군 참전 기념비, 부산 유엔군 묘지 참배 등의 일정을 가짐.

-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서훈
- ❁ 의장 부인은 별도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3. 카라두만 의장과 면담한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한 · 터키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함.

미국 의회 전문위원 및 입법 보좌관 방한, 1984

| 84-043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2 / 11 / 1~115(115p)

1. 미국 의회의 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이 1984년 중 아래와 같이 방한함.

❁ 래리 닉쉬 입법봉사처 아시아 담당 전문위원(6.18.~23.)
- 국회도서관장이 초청
- 방한 일정은 외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토통일원, 체육부,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등

❁ 빌 벨(데이비드 보렌 상원의원) 입법보좌관 등 6명(7.7.~17.)
- 한국개발원(KDI)과 한국경제센터(KEI)가 초청
- 방한 일정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외무부, 상공부, KDI, 무역협회,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울산, 포항) 산업시설 방문 등
- 입법보좌관들은 한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관심 표명

❁ 제임스 로처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등 3명
-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과 11.5. 면담하고 한미관계, 남북관계에 관해 의견 교환

❁ 가이 힉스 하원 공화당 소속 전문위원(12.3.~8.)
- 방한 일정은 외무부, 국방부, 국토통일원, 전방(판문점, 제3땅굴) 방문 등

❁ 제임스 맥거번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2명
- 12.14.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하고 한일관계, 미중(베이징)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의견 교환

2. 위의 인사 가운데 가이 힉스 전문위원은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친한 인사인 점을 고려하여 외무부가 경비를 부담하고 초청함.

미국 의회의원 방한, 1984

| 84-04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2 / 12 / 1~346(346p)

1. 미국 상 · 하원 의원의 1984년 중 방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조셉 아다보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등 8명(1.19.~22.)
- 방한 일정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합참의장 예방 · 면담, 주한 유엔군사령부 방문 등
- 윤성민 국방장관 면담 시 군사판매차관(FMS) 지속공여 문제에 관해 논의

❁ 메르빈 디말리 하원의원(1차: 3.3.~5. 2차: 4.23.~26.)
- 1차 방한일정은 외무장관 면담 · 오찬, 국회의원(이종찬, 봉두완, 박정수 의원) 면담 등
- 2차 방한일정은 외무장관 면담, 한양대학(초청자) 방문 등이며, 이원경 장관은 디말리 의원 면담 시 한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사의 표명

❁ 하워드 베이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4.18.)
- 방한 일정은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 면담, 전방 시찰 등

❁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4.17.~20.)
- 방한 일정은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 예방 · 면담, 주한유엔군사령부, 판문점 시찰 등
- 4.19. 이원경 외무장관 면담 시 북한과 중국(구 중공)의 동향에 관해 의견 교환

❁ 베릴 안소니 하원 세입위원장(5.26.~31.)
- 방한 목적은 한국 정부의 무역정책, 농업정책 책임자 접촉

❁ 잭 에드워즈 하원 세출위원회 군사소위원장 등 4명(7.8.~12.)
- 방한 일정은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 국방장관 예방 · 면담 등

❁ 멜빈 프라이스 하원 군사위원장 등 14명(11.13.~16.)
- 방한 일정은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 면담 등
- 11.14. 이원경 외무장관 면담 시 남북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해롤드 다우브 하원의원(12.17.~22.)
- 방한 일정은 국회의장, 외무장관 대리, 상공장관 예방 · 면담 등

❁ 찰스 퍼시 상원 외교위원장(12.21.~22.)
- 방한 일정은 전두환 대통령 예방 등

2. 해롤드 다우브 의원과 이상옥 외무장관 대리 면담(12.18.) 시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의 동향 등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한 · 중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중국 방문, 1984.1.6-11

| 84-044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32 / 13 / 1~42(42p)

1. 김종철 국민당 총재가 1983.9.23.~29.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하여 순윤쉬안(孫運璿) 행정원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순 원장은 중국(베이징) 민항기 납치범을 대만에 보내 주도록 요청

2. 또한, 1984.1월 한 · 대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아래와 같이 타이베이를 방문함.

❁ 송지영 의원을 단장으로 여 · 야 의원 6명

- 민주정의당의 송지영, 윤국노, 황병준 의원, 민주한국당의 고병현, 강보성 의원, 국민당의 이필우 의원

❁ 일정은 장칭궈(蔣經國) 총통, 니웬야(倪文亞) 입법원장, 순 행정원장 예방 · 면담 등

- 장 총통 등은 민항기 납치범을 조기에 보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프랑스 · 한 의원친선협회, 1983-84

| 84-044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2 / 14 / 1~43(43p)

1. 1983.9월 국회 사무처는 Loic Bouvard 프랑스 · 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 국회의장 면담 시 언급한 한 · 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명칭 격하문제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 한국 측이 프랑스 의회는 한국과 남아연방 친선협회만 지위를 격하하여 연구단체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Bouvard 부회장은 사회당 정부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는 그렇게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시정되어 다른 친선협회와 동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 ❋ 주프랑스대사는 1981.6월 총선으로 사회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에서는 프랑스 · 한 의원친선협회 명칭을 연구조로 개칭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명칭을 공식 개칭하지 않고 있음을 1983.9.29. 외무부에 보고

2. 서울 IPU 총회에 참석 중인 프랑스 대표단을 위한 고재청 부의장(한 · 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1983.10.11. 오찬 석상에서, 프랑스 측 단장인 Escutia 의원은 프랑스 하원 내에 프랑스 · 한 의원친선협회 호칭문제는 없으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태로 시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독일 · 한 의원친선협회, 1984

| 84-044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2 / 15 / 1~34(34p)

1. 주독대사는 1984.6.19. Renger 주재국 연방 하원부의장을 면담하고 독 · 한 의원연맹 조기결성을 위해 동 부의장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6.15. 주독대사는 Reddemann 연방하원 내독관계 분과위원장을 면담한바, 동 위원장은 각 정당으로부터 조기결성에 대한 양승을 얻었다고 말하고 9월 이후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2. 주독대사는 독일 연방하원이 독 · 한 의원친선협회를 1984.6.28. 결성하였으며 9월 중 첫 모임을 갖기로 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친선협회 회원 수는 총 41명으로 기민, 기사당 33명, 사민당 5명, 자민당 3명 (회장은 기사당의 Karl Heinz Spiller 의원)
- Spiller 회장은 독 · 한 의원 친선협회 대표가 1984.10월경 방한하기를 희망
- 1984.7.4. 국회의장은 독 · 한 의원친선협회 재구성과 관련, Spiller 회장에게 축전을 발송

3. 1985.3월 주독대사는 1985.3.1. 현재 독 · 한 친선협회 회원 수가 73명으로 증가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한 · 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2차. 동경, 1984.8.9

| 84-044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2 / 16 / 1~252(252p)

1. 제12차 한일 · 일한 의원연맹 총회가 1984.8.9. 아래와 같이 도쿄에서 개최됨.

- 한일의원연맹에서 이재형 회장 등 51명, 일한의원연맹에서 야스이 켄 회장 등 130명 참석
-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후쿠나가 켄지 중의원 의장, 기무라 무츠오 참의원 의장, 한국의 채문식 국회의장, 진의종 국무총리 축사 낭독
- 양측에서 4개 의제에 관해 주제를 발표하고 자유토론 진행
  - 안보 분야에서는 '동북아 정세와 한일 양국의 안보확보' 란 주제로 한국의 김덕규 의원과 일본의 호리에 마사오 의원이 발표
  -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증진' 이란 주제로 한국의 최상업 의원과 일본의 야나기사와 렌조 의원이 발표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일 문화교류 확대와 촉진' 이란 주제로 한국의 임방현 의원과 일본의 미우라 다카시 의원이 발표
  - 법적지위 분야에서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 이란 주제로 한국의 김길중 의원과 일본의 후루야 도오루 의원이 발표

2. 총회에서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일본 측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
- 양측은 무역의 균형발전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
- 양측은 청소년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
- 양측은 재일한국인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

3. 한국 대표단은 방일 기간 중 나카소네 총리, 후쿠나가 중의원 의장, 기무라 참의원 의장, 여 · 야당 대표 예방 등의 별도 일정을 가짐.

한 · 일본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1983-84

| 84-044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3 / 1 / 1~173(173p)

1. 한일 · 일한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가 1983.7.7. 아래와 같이 도쿄에서 개최됨.

- 한일의원연맹에서 이상익 간사장 등 13명, 일한의원연맹에서 모리 마츠헤이 간사장 등 19명 참석
- 공동발표문 채택
  - 양측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협력
  - 양측은 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기술협력을 위해 노력
  - 양측은 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일치
- 제11차 한일 · 일한 의원연맹 총회 일정(1983.9월)과 아래 의제에 합의
  - 안보 분야는 '소련의 극동전략과 한일의 안전과 평화'
  - 경제 분야는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
  - 사회문화 분야는 '문화교류기금의 운영과 역할'
  - 법적지위 분야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안정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2. 또한, 한일 · 일한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가 1984.6.8.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 한일의원연맹에서 이상익 간사장 등 32명, 일한의원연맹에서 가토 무츠키 간사장 등 12명 참석
- 공동발표문 채택
  - 1983.7.7. 도쿄 개최 합동간사회의 공동발표문과 유사하나 사회문화 분야에서 '양국 관계사 공동연구 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합의' 했다는 내용 추가
- 제12차 한일 · 일한 의원연맹 총회 개최 일정(1984.8월, 도쿄)과 아래 의제에 합의
  - 안보 분야는 '동북아 정세와 한일 양국의 안보 확보'
  - 경제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의 증진'
  - 사회문화 분야는 '한일 문화교류 확대와 촉진'
  - 법적지위 분야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
-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별도일정으로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친서 전달

한 · 일본 의원연맹 활동 및 인사교류, 1984

| 84-044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3 / 2 / 1~448(448p)

1. 한일 및 일한 의원연맹의 1984년 중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 1월 일본총선에 즈음하여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46명 낙선 또는 정계은퇴
- 2.1. 한일 · 일한 의원연맹 간담회(서울)에서 문화교류기금 운영문제 논의
- 2.7. 일한의원연맹 임시총회를 개최, 임원을 개편하고 신규의원 가입
  - 가토 무츠키 간사장 취임, 48명 신규가입
- 2.16.~18. 야스이 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방한하여 국무총리, 외무장관 면담
- 3.18.~23. 이재형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방일하여 총리, 중 · 참의원 의장, 여 · 야당 지도자 예방 · 면담
  -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예방 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
- 4.1.~5. 한일 · 일한 의원연맹 사회문화위원회 합동회의 개최(도쿄)
- 6.8. 한일 · 일한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개최(서울)
  - 가토 무츠키 신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방한
- 9.4.~9. 이재형 한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2. 또한, 1984년 중 일본 지방의회 친선협회 관계자들이 아래와 같이 방한함.

- 1월 효고 현의회 자민당 의원 10명
- 4월 효고현 쓰시마 시의회 의원 5명, 나가사키 현의회 의원 8명
- 5월 나라 현의회 의원 14명, 홋카이도 도의회 의원 10명
- 6월 오사카 부의회 의원 30명
- 8월 오사카 남부지역 지방의회 의원 63명
- 9월 후쿠시마 시의회 의원 15명
- 10월 기후 시의회 의원 13명

염보현 서울시장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984.7.27-8.13

| 84-044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3 / 3 / 1~156(156p)

1. 염보현 서울시장이 1984.7.27.~8.13. 아래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함.

-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개막식(7.28.), 폐막식(8.12.) 참석
- 개막식과 폐막식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호놀룰루, 몬트리올 방문
  - 워싱턴 시장은 염 시장을 정식으로 초청
  - 몬트리올 방문은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정보교환 목적

2. 각 도시 방문 시 염 시장은 시청 방문, 시장 면담,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짐.

- 미국 및 캐나다의 시장 면담 시에는 서울시와의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및 이병용 차관 독일 방문, 1984

| 84-044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3 / 4 / 1~254(254p)

1. 손재식 국토통일부 장관이 1984.6.25.~30. 아래와 같이 독일을 방문함.

- ❁ 분단국 문제에 관한 한 · 독 정부 간 협의회 참석
  - 손 장관과 하인리히 빈델렌 내독부(內獨部) 장관이 주재
- ❁ 방문 기간 중 협의회 참석, 연방 하원의장, 총리실 장관, 외무차관, 사민당 당수 예방 · 면담, 통일문제 강연회 등 일정 수행
  - 통일문제 강연회는 교포를 대상으로 쾰른, 본, 뮌헨에서 실시
  - 손 장관 면담 시 빌리 브란트 사민당 당수는 "동 · 서독 관계 발전은 경제통상교류와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계기였으며, 이후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고 말하고, 자신은 "유럽에서의 분단 상황이 영구히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언급함.

2. 또한, 이병용 국토통일부 차관이 1984.9.2.~7. 독일을 방문함.

- ❁ 제5차 한 · 독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9.3.~5.) 참석
- ❁ 방문 기간 중 회의 참석, 독일연구소 방문, 베를린 시찰 등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기니 방문, 1984.4.23-25

| 84-04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3 / 5 / 1~58(58p)

1.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가 수교교섭 수석대표 자격으로 1984.4.23.~25. 아프리카의 기니를 방문함 (기니를 관할하는 장명관 주세네갈대사 동행).

- 시에라리온을 방문하던 기니 신정권의 디아라 뜨라오레 총리(쿠데타로 집권)가 현지 한국대사를 면담한 기회에 한국 수교교섭대표단 파견을 제안
- 외무부는 수교교섭에 대한 훈령에서 그동안 기니가 수교를 경제협력과 연관시킨 사실과 관련하여 선수교 · 후경협 원칙을 견지하되 교섭의 성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니가 원하는 군사장비(무기 제외) 등 1백만 달러 상당 원조 제공 용의를 밝히도록 지시

2. 한 차관보는 기니 방문 중 디아라 뜨라오레 총리, 하신느 뚜레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수교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기니 측이 선경협 · 후수교 방침을 고수하여 합의에 실패함.

- 한 차관보는 뚜레 장관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원경 외무장관 친서를 전달했으며, 뚜레 장관은 초청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이 장관 앞 답서를 한 차관보에게 수교

3. 교섭결과 보고에서 한 차관보는 기니 정부가 북한이 공여하고 있는 원조에 차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선경협 · 후수교에 집착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추후 기니 사절단을 방한 초청하여 수교와 경협을 동시에 타결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함.

대표단 이라크 방문, 1984.12.20-22

| 84-044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3 / 6 / 1~174(174p)

1.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가 이라크와의 관계격상(한국과 이라크는 상호 총영사관을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대표 자격으로 1984.12.20.~22. 이라크를 방문함(재무부, 해외협력위원회, 수출입은행 관계자 동행).

❋ 이에 앞서 1984.1월 이라크 정부 특사로 마지드 아람 대외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이라크 측 제의를 담은 야신 라마단 제1부총리의 진의종 국무총리 앞 친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한 차관보는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히는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국무총리대리 자격)의 답서를 휴대

❋ 이라크 측 제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답서)의 요지

- 이라크가 제의한 정부 간 금융지원협정 체결은 제도상 불가능하나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은 적극지원 (이라크가 제의한 5억 달러 한도 내에서의 자본재, 소비재 연불수출에도 동일한 방침 적용)
- 이라크가 제의한 원유, 유황, 인광석 도입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원유도입 문제에 한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
- 이라크가 요청한 무기 공급은 불가
- 이라크가 제의한 일반군수물자 연불수출은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을 검토
- 이라크가 요청한 기술인력 초청연수는 50명을 목표로 적극 검토

2. 한 차관보는 이라크 방문 기간 중 야신 라마단 제1부총리, 타하 알리 외무장관 대리 면담, 실무회담 3회(알리 장관대리 주재) 등의 일정을 가짐.

❋ 실무회담 등에서 양측은 당초 자국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나중에 이라크 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 제안을 담은 라마단 제1부총리의 신병현 부총리 앞 서한을 한 차관보에게 수교

- 정부 간 금융지원 '협정' 대신 '의정서' 형식 가능
- 3개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와 금융지원 제의 (바크마 댐, 제2모술 댐, 알라시드 대학)
- 연불수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지 않는 데 동의
- 1986년부터 원유를 일일 6~10만 배럴 도입하기 시작하여 점차 증량

3. 교섭결과 보고에서 한 차관보는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라크가 잠재적으로 큰 시장임을 감안, 이라크가 제의한 3개 건설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연불수출을 적극 고려할 것과 최소한의 원유를 도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국정자문위원 시찰단 대양주 및 일본 순방, 1984.5.16-6.5

| 84-045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3 / 7 / 1~98(98p)

1. 국정자문위원단이 1984.5.16.~6.5. 아래와 같이 동남아, 대양주, 일본을 순방함(박충훈 전 총리를 단장으로 민복기 전 대법원장, 류달영 서울대 명예교수, 강원용 한국기독교회협의회장 동행).

- ❁ 브루나이(5.16.~18.)
  - 일정은 상왕(국왕의 부친) 예방 등
- ❁ 호주(5.19.~24.)
  - 일정은 대법원장, 하원의장, 상공회의소회장, 전국농민연합회장 면담 등
- ❁ 뉴질랜드(5.24.~29.)
  - 일정은 수상,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리, 국방장관, 농수산장관 면담 등
- ❁ 피지(5.30.~6.2.)
  - 일정은 총독 면담 등
  - 주피지대사 주최 만찬에 부총리, 상 · 하원의장, 대법원장 등 참석
- ❁ 일본(6.2.~5.)
  - 일정은 관방장관, 일 · 한 의원연맹회장 면담 등

2. 국정자문위원단은 각국에서 교민간담회도 가짐.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 중동 순방, 1984.6.9-17

| 84-045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3 / 8 / 1~182(182p)

1.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이 1984.6.9.~17. 아래와 같이 중동지역을 순방함.

❁ 이라크(6.9.~12.)

- 일정은 타렉 아지즈 외무장관 예방, 제1차 한 · 이라크 공동위원회 참석 등
- 공동위원회에서 이라크 기술연수생 50명 초청 합의

❁ 요르단(6.13.~14.)

- 히샴 샤와 외무부 정무국장 면담 시 유엔에서의 지지를 요청하고 요르단 측이 이를 약속

❁ 사우디아라비아(6.14~17.)

- 가지위 외무부 아시아담당국장과 면담하고 한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일각의 관측이 사실 아님을 설명 (민 국장은 이라크, 요르단 방문 시에도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설을 해명)

2. 이라크 방문 시 민 국장은 아지즈 외무장관과 관계격상 문제를 논의한바, 아지즈 장관은 외교관계 수립에 장애가 없다고 하면서도 고위인사 교류 제의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음.

❁ 84.5월 이원경 외무장관이 관계격상을 제의하는 친서를 아지즈 장관에게 보냈으나, 답서를 받지 못한 가운데 민 국장이 면담 석상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장관 친서를 아지즈 장관에게 전달

조기일 외무부 동아프리카 과장 관할지역 방문, 1984.11.13-28

| 84-045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3 / 9 / 1~174(174p)

1. 조기일 외무부 동부아프리카 과장이 1984.11.13.~28. 관할지역을 아래와 같이 방문함.

- 에티오피아(11.13.~18.)
  - 아프리카연대기구(OAU) 사무총장, 외무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OAU 정상회의 결과,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방문결과 청취
  - * 84.11.12.~15. 아디스아바바에서 OAU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김영남 부장 방문은 비동맹회의 평양 유치 목적
- 케냐(11.19.~21.)
  -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약속을 확보
- 말라위(11.21.~23.)
  - 외무부 아주국장은 면담 시 북한과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친한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
- 우간다(11.24.~28.)
  -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우간다의 친북 자세를 재확인

2. 조 과장은 귀국보고에서 공관별 애로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에티오피아 주재 공관원은 매 2년마다 교체 (친북 정권하에서의 업무부담 고려)
- 케냐를 특수지로 지정 (치안상태 악화 등을 고려)
- 말라위 주재공관 관저 신축 (임대주택 확보의 어려움 고려)
- 우간다 주재공관 직원 1명 증원 (대사대리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 고려)

Gates, Kevin I. 호주 외무성 북아시아 담당 부국장 방한, 1984.5.29-6.1

| 84-045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3 / 10 / 1~51(51p)

1. 케빈 게이츠 호주 외무성 북아시아국장이 관할지역 순방계획의 일환으로 1984.5.29.~6.1. 방한하여 외무부 제1, 2차관보, 아주국장,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판문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2. 게이츠 국장과 외무부 관계자 면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우석 제1차관보와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호주의 한반도정책, 한 · 중국(구 중공) 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신정섭 제2차관보와 중동과의 석유교역, 미국의 고금리정책, 한 · 호 무역불균형대책에 관해 논의
  - 신 차관보는 한국 상품에 대한 호주의 수입규제 완화 요청
- 김재춘 아주국장과 한 · 중국(구 중공) 관계, 북한 정세, 북한 · 소련 관계, 호주 · 공산권 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이장춘 국제기구조약국장과 유엔, ICAO, WHO, ILO 등 국제기구 업무 및 비동맹회의와 관련한 협조문제 논의

버마 외무부 사절단 방한, 1984.11.20-25

| 84-045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3 / 11 / 1~135(135p)

1. 미얀마(구 버마) 외무부 사절단 3명이 1984.11.20.~25.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단장: 초 카잉 기획관리실장).

- ❁ 초 카잉 단장은 군 출신으로 주미국, 소련 대사를 역임했으며 국회의원을 겸직

2. 미얀마 사절단은 방한 기간 중 외무장관, 제1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예방 · 면담, 국가안전기획부 방문, 전방(판문점, 제3땅굴, 임진각 경내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부산) 시찰, 경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이상옥 외무차관이 각각 만찬과 오찬 주재

3. 이원경 외무장관이 11.21. 미얀마 사절단 접견 시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자신의 1985년 중 미얀마 방문계획 설명
- ❁ 미얀마 측의 한국어 연수생 증원(1명에서 2명으로) 요청에 협조 약속
- ❁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축구대회에의 미얀마팀 참가를 위한 지원 약속
- ❁ 미얀마 기술연수생 초청범위 확대 추진 약속

4. 국내 언론은 랑군 사건 이후 처음인 미얀마 외무부 대표단 방한을 비중 있게 보도함.

캐나다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4

| 84-045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3 / 12 / 1~96(96p)

1. 1984년 중 캐나다 외무부 관계자들이 아래와 같이 방한함.

❁ 러셀 데이비드 동아시아과장(2.8.~11.)

-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의 업무협의 목적

❁ 러셀 데이비드 동아시아과장(9.16.~20.)

- 한 · 캐나다 민간경협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목적
-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과 면담하고 민간경협 발전방안, 양국 정상과 외무장관 교류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존 해드윈 동아시아국장(11.30.~12.6.)

- 일정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제1차관보, 아주국장, 미주국장 예방 · 면담, 판문점,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문 등

2. 상기 한 · 캐나다 민간경협위원회 합동회의(9.18.~19.)에는 한국 기업인 28명, 캐나다 기업인 52명이 참석하여 무역, 자원협력, 자본기술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 캐나다 대표단은 합동회의 참석 외에 별도 일정으로 상공장관, 동력자원장관 면담

Levesque, Rene (레베끄, 르네) 캐나다 Quebec 주 수상 방한, 1984.9.27-29

| 84-04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3 / 13 / 1~296(296p)

1. 르네 레베끄 캐나다 퀘벡 주 수상이 정부초청으로 1984.9.27.~29. 방한함.

❁ 레베끄 주 수상 방한에 앞서,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외무부 본부에 퀘벡 주정부가 캐나다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대외활동을 벌이거나 몬트리올 주재 외국총영사관을 통해 교섭을 진행한다면서, 한국이 레베끄 주 수상 방한문제를 외교경로를 통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교공한 수교)

- 이후 외무부는 주캐나다대사관-캐나다 외무부, 주한 캐나다대사관-외무부 본부를 교섭창구로 하되 주몬트리올총영사관-퀘벡 주정부를 통한 연락도 병행하며 준비 진행

2. 레베끄 주 수상 일행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캐나다군 참전비(가평) 참배 등의 일정을 가짐.

❁ 이상옥 외무장관 대리가 만찬 주재

❁ 신병현 부총리 면담 시 한국 기업의 퀘벡 진출(에너지 분야 등) 확대추진에 합의

3. 이상옥 외무장관 대리는 동행한 버나드 랜드리 주 외교 · 대외무역담당 장관과 별도로 면담하고 한국과 퀘벡 주 간의 교역, 경제협력 증진문제를 논의함.

Sancho Bonilla, Javier 코스타리카 대통령실 장관 비서실장 방한, 1984.5.17-21

| 84-04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담당관실
MF번호	2014-33 / 14 / 1~59(59p)

1. 하비에르 산초 보닐라 코스타리카 대통령실 장관 비서실장이 1984.5.17.~21. 방한함.

- 현지공관 건의에 따라 한 · 코스타리카 친선협회 집행위원으로서 친한 인사인 보닐라 실장을 외무부가 초청하고 체재비 부담

2. 보닐라 실장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차관, 미주국장 예방 · 면담, 수원 · 포항 · 울산 산업시설,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고궁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박건우 미주국장이 오찬 주재

3. 이상옥 차관 예방(5.18.) 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내정을 포함한 중미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함.

- 몽헤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시기도 논의

MOKOLO Wa Mpombo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 국가문서부장 방한, 1984.5.7-11

| 84-045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3 / 15 / 1~26(26p)

1. 와 음폼보 모콜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국가문서부장이 국가안전기획부 초청으로 1984.5.7.~11. 방한함.

- 국가문서부는 정보기관
- 현지 공관은 모콜로 부장이 모부투 대통령의 측근 실력자임을 들어 본인 희망에 따른 방한 초청을 건의

2. 모콜로 부장은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 국가안전기획부장, 외무차관 예방 · 면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방문,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진의종 국무총리 예방(5.9.) 시 전두환 대통령의 자이르 방문을 초청하는 모부투 대통령 친서 전달
- 이상옥 외무차관 면담(5.9.) 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약속

가나 외무성 대표단 방한, 1984.10.27-11.7

| 84-045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3 / 16 / 1~127(127p)

1. 가나 외무부 대표단 3명이 1984.10.27.~11.7. 방한함(단장: 프란츠 제이시 경제차관보).

- 북한이 가나의 좌경화에 편승하여 방북초청 등 외교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공관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재국 외무부 간부의 방한초청을 건의하여 실현
  - 외무부가 항공료, 체재비 부담
- 제이시 차관보는 방한에 앞서 84.8월 북한을 방문

2. 제이시 차관보 일행은 방한 기간 중 외무장관, 제1차관보, 경제기획원 차관보, 상공부 차관보 예방 · 면담, 울산지역 산업시설(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전방(판문점, 제3땅굴), 국기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주가나대사는 제이시 차관보가 귀국 후, 자신이 방문한 북한과 비교하며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토로하였음을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기니 정부사절단 방한, 1984.10.14-19

| 84-04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4 / 1 / 1~104(104p)

1. 미수교국인 기니 정부의 실무사절단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4.10.14.~19. 방한함.

- 셀루 디알로 대통령실 축산 · 수산 담당국장(단장) 등 5명
- 방한에 앞서 외무부는 84.4월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의 기니 방문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경제협력과 수교의 동시 추진' 방침에 따라 사절단 방한 시 이에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관할공관(주세네갈대사관)을 통해 사전 교섭
- 또한 외무부는 84.10월초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하는 기니 총리가 한국도 방문토록 교섭하였으나 무산
- 당초 기니 측은 유수프 디알로 공공사업부 장관을 단장으로 파견키로 하였으나 실제 사절단에는 제외

2. 기니 정부 실무사절단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해외협력위원회, 건설부, 수산진흥원 관계자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도로, 항만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디알로 단장은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와 아래 요지의 의사록을 작성함.

- 공식관계 조기 정상화
- 주요 협정 체결 추진
  - 경제통상, 기술, 어업, 투자보장
-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장려

이라크 주요인사 방한, 1982-84

| 84-0461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4 / 2 / 1~96(96p)

1. 이라크의 압둘 와합 바그다드 시장은 1982.4.30.~5.6. 방한함.

❁ 이라크에 대한 건설 진출을 확대하려는 현대건설(주)이 요청하고 외무부가 동의하여 서울시장 명의로 초청(현대건설이 경비 부담)

-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이 시청에 초청장을 전달하고 방한일정 협의

2. 압둘 와합 시장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 건설장관, 서울시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예방 · 면담, 지방 산업시설(울산의 현대그룹 계열사, 포항제철), 경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노신영 외무장관 예방(5.3.) 시 고위인사 교류(외무장관회담 개최 등), 산업 협력, 이란 · 이라크 전쟁 등에 관해 의견 교환

3. 1984년 외무부는 압둘 알-모푸티 바그다드 시장을 방한초청(서울시장 명의)하려는 현대건설의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함.

❁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지시하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Majid ADHAM 이라크 특사 (제1부수상) 방한, 1984.10.14-17

| 84-04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4 / 3 / 1~234(234p)

1. 이라크의 마지드 아담 내각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차관급)이 1984.10.14.~17. 방한함.

❁ 라마단 제1부수상 명의의 진의종 국무총리 앞 서한을 휴대하고 특사 자격으로 방한

2. 아담 특사는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 외무장관, 재무장관, 해외협력위원회 단장, 건설차관, 동력자원 차관을 예방 · 면담함.

❁ 외무부는 이라크 정부가 특사를 통해 제시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세운 후 대응

3. 아담 특사가 진의종 총리에게 전달한 라마단 제1부수상의 서한과 체결을 희망한 2개 협정상의 이라크 측 제의는 아래와 같음.

❁ 국무총리의 이라크 방문
❁ 5개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 5억 달러 상당의 상품 연불수출
❁ 이라크산 원유 일일 6만 배럴 수입
❁ 이라크산 유황, 인광석 수입
❁ 한국산 무기 및 일반 군수품 연불수출

4. 상기 이라크 측 제의에 대해 한국 측(국무총리, 외무장관)은 사전에 수립한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함.

❁ 한국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대규모 금융지원은 곤란
-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방안은 계속 검토

❁ 실무적으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여 합의에 이르고 수교가 실현된 단계에서 국무총리가 이라크를 방문하거나 라마단 부총리가 방한하는 것이 바람직

5. 특사 출국 후 이라크 측 제의를 검토한 관계당국(재무부, 국방부, 건설부, 해외협력위원회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나 무기 수출은 곤란하며 민간기업 차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함.

페루 주요인사 방한, 1984

| 84-046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4-34 / 4 / 1~185(185p)

1. 1983.12.11.~13. 페루를 방문한 정희택 감사원장은 미구엘 쿠시아노비치 페루 감사원장을 답방 초청하여 쿠시아노비치 감사원장이 1984.3.5.~9. 방한함.

- ❋ 쿠시아노비치 감사원장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외무장관 예방 · 면담, 수원과 지방 산업시설(포항, 울산) 시찰 등의 일정을 수행
- ❋ 채문식 국회의장 예방(3.8.) 시 의원친선교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2. 페루 외무부의 루이스 뚜델라 국제기구국장이 1984.11.27.~12.1. 방한함.

- ❋ 뚜델라 국장이 방북을 계획함에 따라 현지 공관이 이에 앞서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여 실현
  - 방북 계획은 연기
- ❋ 뚜델라 국장은 방한 기간 중 외무차관, 국제기구조약국장, 미주국장 예방 · 면담, 산업시찰 등의 일정 수행
  - 이상옥 차관 예방(11.27.) 시 페루 정부의 한국 지지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

Orrego Villacorta, Eduardo 전 페루 Lima 시장 방한, 1984.3.26-31

| 84-0464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4 / 5 / 1~71(71p)

1. 페루의 에두아르도 오레고 전 리마 시장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4.3.26.~31. 방한함.

- 일본 등 극동지역 순방 계획의 일환
- 현지공관 건의에 따른 북한 외교공세의 대책으로 친북 성향 인사로서 여당 중진이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동인을 초청

2. 오레고 전 시장은 방한 기간 중 외무차관, 미주국장 예방 · 면담, 제3땅굴, 수도권과 지방 산업시설(수원, 울산, 포항), 경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이상옥 외무차관은 오레고 전 시장 접견(3.31.) 시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함.

- 오레고 전 시장은 벨라운데 대통령이 페루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유익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Dahlstem, Ulf 스웨덴 수상 보좌관 방한, 1984.10.31-11.3

| 84-046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4 / 6 / 1~89(89p)

1. 스웨덴의 울프 달스템 총리보좌관이 1984.10.31.~11.3. 방한함.

❁ 주스웨덴대사관이 한국의 신사당 계열 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하는 달스템 보좌관의 공식일정 주선을 외무부에 건의하여 실현

2. 달스템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외무장 · 차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상공차관, 체신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민정당 원내총무 예방 · 면담, KDI, 한국전력, 대우(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이종찬 민정당 원내총무 면담(조찬)은 스웨덴 사회당 소속인 달스템 보좌관과의 만남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대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

3. 이원경 외무장관 예방(11.1.) 시에는 남북한 관계, 이상옥 외무차관 면담(11.1.) 시에는 서울 올림픽에의 공산권 참가 전망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Siddique Kemal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국장, Wong Remond 공산권담당 부국장 방한, 1984.3.23-31

| 84-046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실
MF번호	2014-34 / 7 / 1~74(74p)

1. 싱가포르 외무부의 케말 시디크 정무국장이 1984.3.23.~31. 방한함(레몬드 웡 공산권 담당 부국장 동행).

❁ 일본 정부의 초청계획에 따라 방일한 후 귀로에 방한

2. 시디크 국장은 방한 기간 중 외무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아주국장, 미주국장, 구주국장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경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이상옥 외무차관(전 주싱가포르대사)이 오찬 주재

3. 외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3.27.)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우석 제1차관보

- 한국의 대외정책 전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의견 교환

❁ 김재춘 아주국장

- 동북아 정세에 관해 논의
- 상가포르 측은 한일 안보협력에 관심 표명

❁ 박건우 미주국장

-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의견 교환

❁ 이복형 구주국장

- 한국과 공산권 관계에 대해 논의

Wone, Ibrahima 세네갈 내무장관 방한, 1984.9.9-15

| 84-0467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4 / 8 / 1~152(152p)

1. 세네갈의 이브라히마 원느 내무장관이 1984.9.9.~15. 방한함.

- 82.5월 현지 공관이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한 대책으로 친한 인사인 당시 원느 치안총감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 안응모 치안본부장 명의로 초청하였으나, 내무장관으로 승진하여 방한이 연기
- 83.5월 노태우 내무장관 명의로 다시 방한 초청하였으며 한 차례 연기된 끝에 1984년 방한이 실현

2. 원느 장관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외무장관, 내무장관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지방 산업시설(창원, 울산), 경찰대학, 국기원, 영등포 교도소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전두환 대통령 예방(9.14.) 시 압두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 친서 전달

3. 이원경 외무장관은 9.11. 주재한 오찬 인사에서 한 · 세네갈 관계 발전을 위한 원느 장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Hernandez Gil, Antonio 스페인 국정자문회의 의장 방한, 1984.6.11-15

| 84-046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4 / 9 / 1~268(268p)

1. 스페인의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질 국정자문회의 의장은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초청으로 1984.6.11.~15. 방한함.
   - ❁ 83.4월 스페인을 방문한 최 의장이 구두 초청하고 6월 초청장 발송
   - ❁ 스페인 국정자문회의는 스페인 최고 정부자문기관이며 3부요인급인 에르난데스 질 의장은 카를로스 국왕의 스승

2. 에르난데스 질 의장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국정자문회의 의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 면담, 무역협회, 기업(포항제철, 선경합섬)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전두환 대통령 예방(6.12.) 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 양국 도시 간 교류증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수리남 주요인사 방한, 1984

| 84-046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34 / 10 / 1~89(89p)

1. 수리남의 헴프리 베르그라프 국가재건사업기구 조정위원장이 1984.11.13.~23. 방한함.

- 국가재건사업기구는 청소년 · 학생 교육과 농촌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인 정부기관

2. 베르그라프 위원장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문교부, 농촌진흥청,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 연수원 · 시범부락, 교육개발원, 건국대학, 지방 산업시설(울산, 포항, 창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베르그라프 위원장은 수리남의 문교, 과학, 문화장관이 각각 그를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신임장을 휴대

3.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11.22.) 시 양측은 1985년 수리남 기술연수생 2명을 방한 초청키로 합의함.

Hamed AMMAR 튀니지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84.1.27-31

| 84-047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34 / 11 / 1~62(62p)

1. 튀니지 외무부의 하메드 암마르 아주국장이 1984.1.27.~31. 방한함.

❁ 현지공관 건의에 따라 암마르 국장의 일본 방문에 즈음하여 서울-도쿄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

2. 암마르 국장은 방한 기간 중 외무장관, 아중동국장, 경제국장 예방 · 면담, 경인지역 산업시설(삼성전자, 대우실업, 대우중공업)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이원경 외무장관 예방(1.28.) 시 튀니지 외무장관이 이 장관의 방문을 초청하는 뜻을 다시 전달하였으며 이 장관과 한 · 알제리 관계개선을 위한 튀니지의 외교적 지원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민수홍 아중동국장 면담(1.27.) 시에도 외무장관 교류, 한 · 알제리 관계개선을 위한 튀니지의 지원문제 등에 관해 논의

Tupou, Lipou 주Nukualofa 통가 명예영사 방한, 1984.9.7-14

| 84-047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4 / 12 / 1~31(31p)

1. 통가(수도 누쿠아로파)의 리포우 투포우 한국 명예영사가 1984.9.7.~14. 방한함.

❁ 관할공관(주피지대사관) 건의에 따라 유럽여행에 나서는 명예영사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초청

2. 투포우 명예영사는 방한 기간 중 외무부, 수산청, 상공회의소 방문, 전방(판문점, 제3땅굴)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투포우 명예영사와 면담(9.11.)한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은 북한의 통가 진출 시도 저지, 한 · 통가 통상진흥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함.

❁ 투포우 명예영사는 통가의 상공회의소 회장

4. 투포우 명예영사는 수산청 방문(9.11.) 시 통가에 대한 어업진출과 해면양식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함.

Harding, William 영국 외무성 동아시아 · 중남미담당 차관보 방한, 1984.11.28-12.1

| 84-04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34 / 13 / 1~106(106p)

1. 영국 외무부의 윌리엄 하딩 차관보(동아시아, 중남미 담당)가 1984.11.28.~12.1. 방한함.

2. 하딩 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 외무장관, 외교안보연구원장, 제1차관보, 구주국장, 경제기획원 차관, 국토통일원 차관, 주한유엔군 사령관 예방 · 면담, 판문점, 삼성전자(수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이원경 외무장관 예방(11.30.)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이 장관은 하딩 차관보의 질문에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에 관해 설명하고 북한 · 소련 관계개선 추이에 대해 설명
- 하딩 차관보는 전두환 대통령과 이 장관의 영국방문 계획에 관심 표명

4. 한우석 제1차관보 면담(11.29.)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 차관보는 하딩 차관보의 요청에 따라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
  - 하딩 차관보가 한국 · 공산권 관계 전망을 물은 데 대해서는 4강의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하딩 차관보는 홍콩반환에 관해 영국과 중국(구 중공)이 체결한 협정 내용에 홍콩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설명

미국 주요인사 방한, 1984

| 84-047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4 / 14 / 1~104(104p)

1. 1984년 중 미국의 전 · 현직 주요인사가 아래와 같이 방한함.

❁ 찰스 타이슨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2.19.~21.)

- 방한 일정은 외무장 · 차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주한유엔군 사령관 예방 · 면담 등
- 방한 목적은 미국의 소리(VOA) 중계소 설치문제 협의 등

❁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대사

- 중국(구 중공) 방문 후 5.14.~20. 방한 시 일정은 외무장관 면담(오찬 형식) 등
- 미국 기업인 11명을 동행한 10.31.~11.2. 방한 시 일정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무역협회회장 면담 등

❁ 리처드 알렌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9.28.~10.3.)

- 방한 일정은 대통령,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예방 · 면담 등
- 방한 목적은 서울올림픽 관련 사업 추진

2. 한편, KAL기 격추사건(1983.9월 발생) 희생자인 래리 맥도널드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미망인은 통일교가 주최하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1984.11.23.~28. 방한하는 기회에, 동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 청취를 희망하여 외무부가 국가안전기획부 방문을 주선함.

미국 주지사 방한, 1984

| 84-04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4 / 15 / 1~290(290p)

1. 1984년 중 미국의 주지사들이 인솔하는 5개의 경제통상사절단이 방한함.

2. 방한한 주지사는 아래와 같음.

❁ 스코트 매티슨 유타 주지사(3.14.~16.)
- 방한 목적은 석탄, 농산물 수출 가능성 모색
- 방한 일정은 동력자원장관, 농수산차관, 경기도지사, 한전사장 면담 등

❁ 빅터 아티예 오리건 주지사(5.8.~13.)
- 방한 목적은 밀 등 농산물 수출가능성 모색과 한국기업 유치
- 방한 일정은 대통령, 외무장관, 상공장관, KOTRA사장, 한미경제협의회의장(남덕우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현대그룹 회장 예방 · 면담 등

❁ 루디 퍼피치 미네소타 주지사(6.21.~24.)
- 방한 목적은 육우, 우유 수출가능성 모색
- 방한 일정은 국무총리, 상공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예방 · 면담, 농협, 축협중앙회 방문 등

❁ 크리스토퍼 본드 미주리 주지사(9.20.~23.)
- 방한 목적은 한국기업 유치
- 방한 일정은 대통령, 상공차관, KOTRA사장, 한미경제협의회의장 예방 · 면담 등

❁ 리처드 셀레스트 오하이오 주지사(12.5.~8.)
- 방한 목적은 경상북도와의 자매결연, 한국기업 유치 등
- 방한 일정은 대통령, 상공장관, 한미경제협의회의장 예방 · 면담 등

Barry, Marrion 미국 Washington, D.C. 시장 방한, 1984.5.22-25

| 84-04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4 / 16 / 1~169(169p)

1. 매리온 배리 워싱턴DC 시장이 서울시장 초청으로 1984.5.22.~25. 방한함(현지 기업인단 동행).

- 미국 흑인사회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외무부가 체재비 부담
- 방한을 전후하여 도쿄, 베이징, 상하이, 방콕 방문

2. 시장 일행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외무장 · 차관, 재무장관, 상공장관, 서울시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예방 · 면담, 전방(판문점, 제3땅굴)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한국기업 유치활동 전개
- 서울시장과 자매결연 협정 서명

Bordallo, Richard J. 미국령 Guam 지사 방한, 1984.4.18-21

| 84-047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4 / 17 / 1~109(109p)

1. 리처드 보달로 미국령 괌 지사가 1984.4.18.~21. 방한함.

❁ 한인사회 규모, 활발한 한국건설업체 진출, 전두환 대통령 동·서남아 순방 시의 적극적인 협조(기착지) 등을 이유로 현지공관(주아가나총영사관)이 건의, 외무부가 주선하여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명의로 초청(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경비 부담)

- 괌 거주 한인은 2,400명으로 필리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전체 인구의 3% 점유

2. 보달로 지사는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외무장관, 내무장관, 건설장관, 교통장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예방·면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관광공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전방(판문점, 제3땅굴)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보달로 지사는 귀국 후 서한으로 주영복 내무장관의 괌 방문을 초청함.

Feinstein, Dianne 미국 San Francisco 시장 방한, 1984.11.20-24

| 84-0477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4 / 18 / 1~110(110p)

1. 다이앤 파인스타인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현지 기업인 등 22명과 함께 1984.11.20.~24. 방한함.

❁ 81.2월 자매도시인 서울시가 박영수 시장 명의로 제12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초청하였으나 파인스타인 시장 측 사정으로 실현 불가

2. 파인스타인 시장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외무장관, 해운항만청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삼성 · 대우 · 대한항공 회장 예방 · 면담, 오 · 만찬,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파인스타인 시장은 1984.11.24. 기자회견에서 미국 여성정치인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국내언론이 이를 상세히 보도함.

4. 한편, 11.22.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는 동행기자의 서울발 기사로 염보현 서울시장이 김포공항에 출영하지 않은 것은 그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파인스타인 시장이 공항에 나오지 않았고 면담과 만찬 시간에도 늦었던 결례에 따른 '냉대(snub)' 라고 보도함.

❁ 서울시는 '냉대' 설을 부인하고 부득이한 다른 일정 때문에 출영하지 못했다고 해명

Sheffield, Bill 미국 Alaska 주지사 방한, 1984.10.17-21

| 84-047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4 / 19 / 1~155(155p)

1. 빌 쉐필드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실업인 등 19명과 함께 1984.10.17.~21. 방한함.
   - ❁ 수산물, 목재, 석탄 등의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일본, 중국(구 중공), 한국을 순방

2. 쉐필드 주지사 일행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외무장관, 상공장관, 동력자원차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예방 · 면담, 한국의 금융기관 · 기업 · 산업시설(산업은행, 경인에너지, 한국화약, 호남발전소), 판문점, 제주도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 경희대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여

3. 쉐필드 주지사는 귀국 후 이원경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1985.5월 알래스카에서 개최될 예정인 '환태평양회의(Pacific Rim Conference)' 참석을 초청함.
   - ❁ '환태평양회의'는 태평양 연안제국과 알래스카 간의 무역과 통상관계 발전을 위한 관민합동회의

Sherman, Willia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984.8.13-23

| 84-047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4 / 20 / 1~61(61p)

1. 윌리엄 셔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 담당)가 1984.8.13.~23. 방한함.

❁ 방한 목적을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업무협의라고 설명하고 일정도 대사관이 주선

2. 셔먼 부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 외무장 · 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미주국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정무비서관, 주한유엔군 사령관, 정당 대표, 기업인 대표 예방 · 면담, 판문점, 광주, 부여, 부산, 진해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광주에서는 종교지도자, 반체제인사들과 면담하고 부여에서는 대학생들과의 세미나에 참석

3. 셔먼 부차관보의 외무부 방문 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원경 장관(8.14.)

- 미국의 소리(VOA) 중계소 설치,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규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VOA 중계소 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조용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 일치

❁ 박건우 미주국장(8.14.)

- 북한의 미국인사 방북 초청, 일본 · 북한 관계 개선 추이 등에 관해 논의

Young, Andrew 미국 Atlanta 시장 방한, 1984.2.21-25

| 84-0480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5 / 1 / 1~189(189p)

1. 앤드류 영 애틀랜타 시장이 자매도시인 대구시 초청으로 1984.2.21.~25. 방한함.

- 대구시는 82년과 83년 방한초청한 바 있으나 영 시장의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84.1월 방한 의사를 표명하여 성사
- 당초 영 시장과 친분이 있는 오바산조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으로 방한 직전에 취소

2. 영 시장 일행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외무장관, 내무장관, 상공장관, 서울시장 예방 · 면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전방(판문점, 제3땅굴)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2.22.~24. 자매도시 대구와 경주, 포항, 부산 등 지방 방문

3. 방한 중 주요 인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영 시장은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경제협력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진의종 국무총리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1984.2.22-25. 전3권. V.1 기본문서

| 84-048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5 / 2 / 1~417(417p)

1. 정부는 브루나이 독립경축식(1984.2.23.)에 진의종 국무총리를 경축사절로 파견키로 함.

- ❁ 구종주국인 영국의 주한대사관, 주브루나이 한국대사관을 창구로 교섭 진행
- ❁ 경유지로 싱가포르와 홍콩 결정
- ❁ 공식수행원은 김성배 건설장관, 이상옥 외무부 제1차관보 등

2. 당초 브루나이는 하사날 볼키아 국왕명의 친서로 전두환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외무부가 각국의 경축사절 파견 동향을 파악한 결과 국무총리 파견으로 결정함.

3. 진 총리는 1984.2.20. 출국하여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수상과 면담하고 2.22. 브루나이에 입국하여 경축식 참석, 하사날 볼키아 국왕 예방,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싱가포르, 브루나이, 홍콩에서 교민, 진출기업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짐.

- ❁ 리콴유 수상 면담 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초청 의사 전달
- ❁ 지아 대통령 면담 시 동인의 방한 시기에 관해 논의
  - 파키스탄 측은 84.9월 시사

진의종 국무총리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1984.2.22-25. 전3권. V.2 의전

| 84-048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5 / 3 / 1~97(97p)

1. 브루나이 독립경축식(1984.2.23.)에 참석한 진의종 국무총리의 브루나이 및 경유지에서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 2.20.~22. 싱가포르
- 리콴유 수상 면담
- 한국기업 건설현장 방문(쌍용건설, 대우건설), 교민간담회 참석

❋ 2.22.~25. 브루나이
- 경축식 참석, 하사날 볼키아 국왕 예방
- 해상 석유 시추장 시찰
- 한국기업 건설현장 방문(대한조선공사 등), 교민간담회 참석

❋ 2.25.~27. 홍콩
- 교민간담회 참석, 한국 상사대표 면담

2. 한편, 1984.2.20. 김포공항 출국 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장관, 총무처 장관, 주한외교단장이 전송함.

진의종 국무총리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1984.2.22-25. 전3권. V.3 참고자료

| 84-048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5 / 4 / 1~188(188p)

1. 외무부는 진의종 국무총리의 1984.2.22.~25. 브루나이 방문과 경유지 싱가포르, 홍콩 관련 자료를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함.

- ❋ 각지에서의 세부 일정
- ❋ 면담자 인적사항과 면담자료
  - 리콴유 싱가포르 수상
  -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
- ❋ 교민, 진출상사직원, 근로자와의 대화자료
- ❋ 각국 · 지역 개황
  - 대내외 정세
  - 각종 지표
  - 정부 주요인사 인적사항
- ❋ 공관 현황
  - 한인사회 현황 포함

2. 진 총리는 브루나이 주요인사 및 관계자들을 위한 선물 이외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홍콩의 한글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용품을 준비함.

장경국(蔣經國) 중화민국 제7대 총통 취임식 참석 경축사절단 파견, 1984.5.18-21

| 84-048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35 / 5 / 1~191(191p)

1. 1984.5월 정부는 채문식 국회의장을 대만(구 자유중국)의 장칭궈(蔣經國), 리덩휘(李登輝) 제7대 정 · 부총통 취임식(5.20.)에 경축사절로 파견함.

- 미국, 일본 등 15개국이 전 · 현직 행정부 · 입법부 고위인사 파견
- 민정당의 봉두완, 윤석순 의원, 민한당의 임종기 의원, 국민당의 김종하 의원 동행

2. 채 의장 일행은 1984.5.18.~21. 대만 방문 기간 중 취임식 참석, 정 · 부총통 예방, 입법원장, 행정부원장 면담, 교민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짐.

- 외무부가 채 의장을 위해 작성한 면담자료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할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구 중공) 민항기를 한국으로 납치한 승무원 6명의 인도를 대만 측이 요청하는 문제에 관해 "국제관례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 포함

3. 현지 언론은 한국 정부가 제6대 정 · 부총통 취임식에 전직 대사들을 파견했던 것과 비교하여 사절단 격상을 부각시켜 보도함.

- 일부 언론은 민항기 납치범 6명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이 성의를 보이기 위해 사절을 격상시킨 것으로 해석

정해융 주과테말라 대사 Duarte, Jose Naploeon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4.5.30-6.2

| 84-048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35 / 6 / 1~76(76p)

1. 정부는 엘살바도르 정 · 부통령 취임식(1984.6.1.)에 정해융 주과테말라대사(엘살바도르 겸임)를 경축 사절로 파견함.

- 이에 앞서 84.5월 외무부는 호세 두아르떼 대통령, 로돌포 까스띠요 부통령 당선자에게 각각 전두환 대통령과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 친전 발송
- 전두환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파견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으나 외무부가 여타 중미국가들과의 균형문제 등을 들어 겸임대사 파견을 재건의

2. 정 대사는 1984.5.30.~6.2. 엘살바도르 방문 기간 중 신임장 제정을 위한 현직 대통령 예방, 취임식 참석, 신임 대통령 예방, 전 · 현직 외무장관 면담, 경제부처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신임 대통령 예방 시 전두환 대통령 선물 전달

3. 정 대사는 외무부 본부에 보낸 방문결과 보고서에서 두아르떼 대통령이 친미정책을 펼 것이며 미국도 개혁 지향적인 새 정권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함.

리비아 혁명기념일 경축특사 파견, 1984.8.29-9.2

| 84-048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35 / 7 / 1~179(179p)

1. 정부는 1984.9.1. 거행된 리비아 혁명 15주년 기념식에 김성배 건설장관을 대통령 경축특사로 파견함.

- 현지 공관이 각료급 파견 건의
- 리비아 정부는 혁명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대수로 공사(동아건설 시공) 기공식(84.8.28.)에 한국의 재무장관, 건설장관 초청

2. 김 장관은 1984.8.27.~9.2. 리비아 방문 기간 중 기공식, 혁명 기념식 참석, 외무장관 면담,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교민 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 8.28. 대수로 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카다피 혁명지도자와 면담

3. 북한에서는 정준기 부총리가 경축사절로 참석함.

이태섭 정무제1장관 Lusinchi, Jaime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4.1.31-2.4

| 84-048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5 / 8 / 1~264(264p)

1.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1984.2.2.)에 이태섭 정무 제1장관을 대통령 경축특사로 파견함.
   - 83.12월 하이메 루신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전두환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 신정섭 외무부 경제차관보 등이 수행

2. 이 장관 일행은 1984.1.31.~2.4. 베네수엘라 방문 기간 중 취임식 참석, 현직 대통령, 신임 대통령, 상 · 하원의장, 외무장관 예방 ·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신임 대통령 예방 시 전두환 대통령 선물 전달
   - 레오나르도 페레르 하원의장 예방 시 북한의 베네수엘라 상주대사관 설치반대 의견에 하원의장이 공감 표명

3. 이 장관은 취임행사 참석 시 아래 각국 경축사절과의 접촉 기회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부입장을 설명함.
   - 몽헤 코스타리카 대통령, 실레즈 수아조 볼리비아 대통령, 멜빈 콤트 세인트루시아 총리,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 로베르또 이스띠메 아이티 외무장관, 패트릭 엠마뉴엘 그레나다 외무장관 등

4. 특사 파견에 앞서 외무부는 랑군 사건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정부가 북한사절을 접수하지 않도록 외교경로로 요청했으나 결국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참석함.

5. 이 장관 일행은 귀로에 미국을 방문(2.4.~8.)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수혜연장을 요청함.

채문식 국회의장 Gandhi, Indira 인도 수상 장례식 참석, 1984.11.2-6

| 84-048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5 / 9 / 1~176(176p)

1. 정부는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 장례식(1984.11.3.)에 채문식 국회의장을 조문사절로 파견함.

- 84.10.31. 피격 · 사망 후 전두환 대통령 명의 조전을 자일 싱 인도 대통령에게 발송
- 정부는 각국 조문사절의 격을 참고하여 국회의장으로 결정

2. 채 의장은 1984.11.2.~6. 인도 방문 기간 중 싱 대통령, 라지브 간디 수상(인디라 간디 수상의 영식으로 10.31. 전격적으로 수상 승계) 예방, 자카르 하원의장 면담, 장례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3. 정부는 인도 정부가 요청한 기념책자 수록을 위한 전두환 대통령 명의 추모사를 작성하여 외교경로로 전달함.

- 각국의 전 · 현직 지도자 70여 명과 민간 명사들이 기고
- 전두환 대통령의 추모사는 인도의 대내외정책에서 간디 수상이 보여준 리더십을 칭송하고 한 · 인도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평가하는 내용

4. 장례식에 참석한 주요 국가 지도자는 다음과 같음.

-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 네윈 버마 최고지도자
- 대처 영국 수상, 콜 독일 수상, 나카소네 일본 총리, 티호노프 소련 수상, 여오이린 중국(구 중공) 총리
- 슐츠 미국 국무장관 등

5. 북한은 박성철 부주석을 조문사절로 파견함.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 1984

| 84-048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35 / 10 / 1~276(276p)

외무부는 북한의 대외관계 종합 정리 목적으로 세계 각국과 북한과의 관계 현황 및 국제기구별 북한과의 관계를 1984.11월 취합한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관계수립일, 공관설치일 등 기본관계
- 대북한 기본정책
- 체결된 주요 협정
- 주요 인사교류
- 경제 · 통상 · 기술협력 관계
- 문화교류 현황
- 북한 교민 수

북한 · 앙골라 관계, 1984

| 84-049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5 / 11 / 1~96(96p)

1. 1984.9월 외무부 본부는 외신이 '북한군의 앙골라 진출'을 보도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유럽, 미국, 아프리카 주재 공관에 지시함.

2. 이에 대해 주미국, 주영국 대사관 등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나 주포르투갈(앙골라의 구종주국),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은 북한군이 쿠바군과 교체되고 있다는 주재국 정부 설명을 보고함.
   ❁ 나중에 포르투갈 외교당국은 북한군의 앙골라 진출 가능성을 부인

3. 1984.10월 앙골라 정부는 북한군이 쿠바군을 대체하고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며,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난함.

4. 그러나 이후에도 포르투갈 언론은 북한군이 앙골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계속 보도함.

북한 · 오스트리아 관계, 1984

| 84-049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5 / 13 / 1~72(72p)

1. 1984년 북한 · 오스트리아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 교체(6월)
  - 박경선 대사에서 최기철 대사(대외문화연락위원회 소속)
- ❁ 북한 교사시찰단 방문(6월)
  - 단장은 김지호 북한 교육부 부부장
- ❁ 오스트리아 연방 상 · 하원의원 5명 방북
- ❁ 바우어 오스트리아 외무부 정무총국장 방북(12.2.~5.)
  - 귀국 후 방북 소감을 한국대사관에 설명
- ❁ 북한 노동당 대표단 방문(12.6.~8.)
  - 단장은 황장엽 중앙위원회 서기
  - 사회당 출신 각료(외무, 내무장관 등)와 면담하고 3자회담 제안 취지 등 설명
- ❁ 김충일 북한 외무차관 방문(12.19.~21.)
  - 바우어 정무총국장 초청으로 방문하여 경제협력문제 논의

2. 외무부 본부는 황장엽 서기 등의 오스트리아 방문 결과를 유럽주재 공관에 통보하면서 각 주재국에서의 북한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북한 · 방글라데시 관계, 1984

| 84-049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35 / 14 / 1~86(86p)

1. 1984년 북한 · 방글라데시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북한 농업사절단 방문(2.6.~13.)
  - 농업부, 농업연구소, 시범농장 등 방문
- 북한 교육사절단 방문(4.30.~5.4.)
  - 단장은 최태복 교육위원장
  - 문화예술 교류문제 협의
  - 에르샤드 대통령 방북을 초청
- 북한이 수해복구용 시멘트 2천 톤 기증(8월)
- 북한대사가 에르샤드 대통령을 방북 초청하는 김일성 주석 서한을 방글라데시 외무부에 전달(10월)
-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 장례식에 참석한 에르샤드 대통령이 박성철 북한 부주석과 면담(11월)

2. 외무부 본부는 에르샤드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북한방문 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지공관의 활동을 독려함.

북한 · 캄보디아 관계, 1980-84

| 84-0493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5 / 16 / 1~55(55p)

1. 1980~1983년 북한 · 캄보디아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경련 북한 부총리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요구하는 아세안 입장에 대한 지지를 천명(80.8월)
- 북한이 캄보디아 난민을 위해 1만 달러 지원(81.7월)
- 김영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태국 영자지와의 회견에서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요구하는 아세안 입장 지지 천명(81.8월)
- 북한이 시아누크 수반이 이끄는 캄보디아 연정 승인(82.7월)
- 이성호 주미얀마(구 버마) 북한대사가 태국 · 캄보디아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 연정에 신임장 제정(1983.4월)

2. 1984년 북한 · 캄보디아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북한이 캄보디아 연정에 8만 달러 제공(1월)
- 시하누크 수반 등 연정 지도부 방북(4월)

3. 외무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들에 요청하여 1984.4월 손산 총리가 시하누크 수반과 함께 방북하는 것을 저지함.

- 캄보디아 망명그룹의 하나인 손산파를 이끌며 시하누크 수반과 연정을 구성한 손산 총리에게 "방북은 연정이 표방하는 중립노선에 어긋난다."고 설득

북한 · 코스타리카 관계, 1983

| 84-0494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36 / 1 / 1~225(225p)

1. 코스타리카 정부는 랑군 사태와 관련하여 1983.11.23. 각의에서 북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결정하고 금후로도 하등의 관계를 수립치 않을 것이며 북한을 정상국가가 아닌 국제 테러집단으로 간주키로 함.

- ❁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겸 제2부통령은 12.5. 이영호 대통령 특사와의 면담에서 자국 대표가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의 단교 입장을 표명할 것임을 언명
- ❁ 코스타리카 정부는 12.7. 대북한 단교 성명문을 대통령령으로 선포
- ❁ 주유엔 코스타리카 대표는 12.7.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 총회 제6위원회 토의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발표
- ❁ 전두환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몽헤(Alberto Monge Alvarez) 대통령 앞으로 감사 전문을 타전

2. 1983.12.7. 외무부는 코스타리카의 대북한 관계단절에 즈음하여 아래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 코스타리카 몽헤 대통령은 북한의 야만적인 랑군 테러사건을 규탄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앞으로도 하등의 관계를 수립치 않겠다고 표명
- ❁ 북한이 미얀마(구 버마)에서 자행한 테러행위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법질서를 파괴한 만행이며, 이러한 파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는 이번 코스타리카 정부가 취한 바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유효적절한 방법인바, 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한 조치를 환영
- ❁ 한국 정부는 세계 다른 모든 평화애호국들도 이러한 북한의 테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기대

3. 1983.12.8. 외무부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대북한 대응조치의 확산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 전 재외공관에 코스타리카 정부의 대북한 대응 조치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대북한 대응교섭에 적극 활용토록 지시
- ❁ 코스타리카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세계 여타국을 대상으로 한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

4. 1983.12.11. 이원경 외무장관은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몽헤 대통령을 면담, 코스타리카 정부의 대북한 단교조치에 사의를 표명한바, 동 대통령은 랑군 사태는 인류에 대한 위해 행위로서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에 대한 침략행위도 되므로 대북한 단교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함.

북한 · 중공 관계, 1984

| 84-049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36 / 2 / 1~227(227p)

1. 1984년 북한 · 중국(구 중공)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방중(2.7.~14.)
  - 후야오방(胡耀邦) 공산당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우쉐첸(吳學謙) 외교부장 예방 · 면담
  - 중국은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을 지지
- ❁ 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 방북(5.4.~11.)
  - 김일성 주석이 초청
  - 북한의 권력세습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각국의 평가
- ❁ 강성산 북한 부총리 방중(8.5.~10.)
  - 리셴녠(李先念) 국가주석, 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 자오쯔양 총리 예방 · 면담
  - 중국은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 지지를 재확인
- ❁ 김일성 북한 주석 비공식 방중(11.26.~28.)
  - 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가 초청
  - 중국의 당 · 정 지도자들 외에 최고실력자인 덩샤오핑(鄧小平)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면담
  -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였다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관측

2. 외무부는 미수교국인 중국과 북한 관계의 동향을 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홍콩 주재 공관을 통해 파악함.

북한 · 중앙아프리카 관계, 1984

| 84-049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6 / 3 / 1~101(101p)

1. 1984년 북한 · 중앙아프리카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살레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북(1.16.~19.)
  - 공보장관과 함께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 면담
  - 북한이 시멘트, 철근, 트랙터 원조 약속
- ❁ 북한대사관이 북한영화 상영회 개최(4.6.부터 1주일)
- ❁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주체사상 세미나에 중앙아 방송관계자 2명 참석(4.6.~8.)
- ❁ 콜링바 중앙아프리카 국가원수가 김일성 주석 생일축전 발송(4.14.)
- ❁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문(4.26.~30.)
- ❁ 북한대사관이 사진, 서적, 수공예품 전시회 개최(7.9.~17.)
- ❁ 중앙아프리카 · 북한 친선협회 임시위원회 개최(7.21.)
- ❁ 북한대사관이 주최한 9.9절 행사에 콜링바 국가원수 참석(9.9.)
- ❁ 프랑크 국가원수 보좌관 방북(12.25.~28.)
  - 김일성 주석에게 훈장 전달

2. 한편, 북한은 중앙아프리카 국회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1984.5월부터 기술자를 파견하고 시멘트, 철근 등을 제공함.

북한 · 이집트 관계, 1984

| 84-049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6 / 5 / 1~81(81p)

1. 1984년 북한 · 이집트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방태율 북한 무역부 부부장 3.18. 방문
  - 카이로 국제박람회 참관
- ❁ 이집트 군사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북한요원 10명 방문(5월)
- ❁ 제1차 북한 · 이집트 각료급 공동위원회 개최(7.20.~22. 카이로)
  - 간주리 이집트 계획 · 국제협조부 장관, 최정근 대외무역부장 참석
  - 농업, 어업, 조선, 선박수리 분야 협력에 합의하고 이집트산 석유 북한수입 문제 논의
- ❁ 북한문화원이 북한영화 상영회 개최(7.25.~30.)
- ❁ 이집트 무역사절단(단장: 후세인 경제통상부 차관) 방북(8월 하순)
  - 1984~85 회계연도 무역협정 체결 목적
  - 북한산 광 · 공산품, 이집트산 면제품 등 9천만 파운드 상당 교역 합의
- ❁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 방문(11.8.~21.)
  - 방산장비 전시회 참관
  - 무바라크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집트군 지도부 면담

2. 한편, 1984.8월 주이집트 북한대사가 강만수에서 우창림으로 교체됨.

- ❁ 우창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북한 · 에티오피아 관계, 1984

| 84-049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6 / 6 / 1~133(133p)

1. 1984년 북한 · 에티오피아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제1차 북한 · 에티오피아 경제과학기술무역 및 문화공동위원회 개최(1.13. 평양)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 북한이 수력발전소 건설, 농업시설 확장 등을 위한 차관 2억 달러 제공 약속
- ❁ 만데프로 에티오피아 문교장관 방북(2월)
  -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분야 협력방안 협의
- ❁ 김용섭 북한 외교부 부부장 방문(3.28.~30.)
  - 에티오피아 최고회의, 외무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교류 · 협력 증진방안 논의
- ❁ 허담 북한 부총리 방문(6.15.~17.)
- ❁ 강성산 북한 총리 방문(9.4.~13.)
  - 에티오피아 혁명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방문(11.9.~17.)
  - 아프리카연대(OAU) 정상회의 참석

2. 북한은 1983년 멩기스투 최고회의의장 방북 이후 에티오피아에 대한 인적지원을 강화하여 1984년에는 군사고문, 산업 · 기술요원, 문화 · 체육 분야 전문가 등 백 수십 명을 파견함.

북한 · 피지 관계, 1984

| 84-049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6 / 7 / 1~76(76p)

1. 1984년 북한 · 피지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사우스 패시픽 대학 도서관에서 북한 사진, 서적 전시회 개최(3.6.~12.)
- 비자야 바르마난담 피지 하원 부의장 등 반공연맹 소속 인사 3명 방북(6월초, 약 2주)
  - 만 싱 전 수바 시장 등 동행
  - 북한 측은 피지 상주대사관 또는 무역대표부 설치를 위한 지원 요청
- 피지의 자유기고가 에페스마 투라가 전 Fiji Sun 기자가 북한 초청으로 연말 방북 추진

2. 1984년 북한은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 직원의 피지 입국과 피지 요인의 방북초청을 추진했으나 주피지대사관이 주재국 주요기관을 설득하여 대부분을 저지한바, 북한의 방북초청을 시도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피지청년회의소 대표단에 9.9절 참석 초청
- 토라 농촌개발장관 방북초청(연중 수시로 시도)

북한 · 핀란드 관계, 1984

| 84-050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6 / 8 / 1~65(65p)

1. 1984년 북한 · 핀란드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방문(5.4.~9.)

- 진관섭 대외문화연락위원장(단장) 등 6명
- 핀란드 공산연합당이 초청
- 북한의 채무상환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에르키 피스티엔 핀란드 국회의장을 방북초청

❁ 에르키 피스티엔 핀란드 국회의장 북한 방문(8.17.~22.)

- 김일성 주석,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면담
- 북한 측은 광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기대

* 주핀란드대사는 피시티엔 의장 귀국 후 오찬(9.20.)에 초대하여 방북결과 청취

❁ 김충일 북한 외교부 부부장 방문(12.6.~10.)

- 북한의 채무상환 문제 등 협의

2. 1984년 주핀란드대사관은 주재국 주요 기관과의 접촉에서 북한의 3자회담, 올림픽 단일팀 구성 제의의 비현실성 등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폭로하는 데 주력함.

북한 · 가나 관계, 1984

| 84-050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6 / 10 / 1~113(113p)

1. 1984년 북한 · 가나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북한 화물선 연풍호가 가나에 입항하여 원조품 하역(3월)
  - 트랙터, 농기구, 시멘트 등 1백만 달러 상당
- ❁ 북한대사관이 주체세미나 개최(3.24.)
- ❁ 북한대사관에서 북한 서적, 사진 전시회 개최(4.18.~25.)
- ❁ 가나 외무부 간부(자이시 차관보, 브로베이 아주국장) 방북(8.10.~22.)
- ❁ 치카타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북(10.26.~11.2.)
  - 아사모아 외무장관 동행
  - 치카타 보좌관은 방북 시 "북한의 자주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한다." 고 공언

2. 1984년 주가나대사관은 외무부 등 주재국 주요 기관과 접촉하며 북한대사관의 3자회담 제안 홍보를 반박하는 데 주력함.

북한 · 그리스 관계, 1984

| 84-050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6 / 11 / 1~51(51p)

1. 1984년 북한은 그리스에 설치한 민간통상대표부를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외교공세에 역점을 두고 활동함.

2. 이에 따라 주그리스대사관은 주재국 외무부, 국회, 여당(사회당) 관계자와 접촉하며 관계격상이 부적절함을 설득하여 저지함.
   - 1984.12월 프랑스가 북한 통상대표부의 격상을 허용하면서 그리스가 그 추이를 주목

3. 그리스는 1981.10월 사회당이 집권(파판드루 수상)하면서 민간통상대표부 설치를 인정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킴.
   -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집권 사회당은 적극적이고 그리스 외무부는 소극적

북한 · 인도네시아 관계, 1984

| 84-050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6 / 13 / 1~91(91p)

1. 1984년 북한 · 인도네시아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북한대사가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3자회담 지지 요청(2.20.)
- ❁ 인도네시아 정부가 랑군 사건 책임과 관련하여 일련의 조치로 북한을 견제(1~6월)
  - 신임 주북한 인도네시아 대사 부임 지연
  - 북한 통상사절단 파견 제의 거부
  - 김일성 주석 생일 리셉션에 외무장관 불참
  -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문 협의요청 거부
  - 북한 순회대사 접수요청 거부
- ❁ 줄라르만 인도네시아 기자협회 회장 방북(11.2.~9.)
  - 북한기자연맹이 초청

2. 한편, 1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대리가 북한 외교부장 교체 배경에 관해 자카르타에 보고한 내용을 입수하여 외무부 본부에 알려옴.

- ❁ 주북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외교부장 허담에서 김영남으로의 교체가 랑군 사건의 여파인 것으로 관측

북한 · 이라크 관계, 1984

| 84-050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6 / 14 / 1~226(226p)

1. 외무부는 1984.4.1. 이집트 일간지들이 보도한,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프랑스 Figaro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이란 무기지원을 중지키로 약속함으로써 북한과 외교관계 복귀에 합의했다는 내용과 관련, 동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주바그다드총영사, 주이란대사, 주프랑스대사 등에 지시함.

- 외무부 중동국장은 4.2. Majid 주한 이라크 총영사대리를 초치, 동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문의하면서 이라크는 대북한 관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

2. 외무부가 1984.4.14. 작성한 '이라크 · 북한 간 외교관계 재개 접촉'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은 대이란 무기지원 중단에 대한 대가로 이라크 · 북한 간 복교와 함께 한국 · 이라크 간 영사관계 단절을 이라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예상
- 이라크의 북한과의 복교 추진은 이라크 · 이란전의 장기화로 인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기 종전이 시급한 상황이며, 쿠웨이트 등 아랍 온건국들도 북한의 대이란 무기지원을 중지시킴으로써 이 · 이 종전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의도
- 북한은 대이란 무기지원 중단을 약속함으로써 이라크와의 복교는 물론 한 · 이라크 간의 영사관계 단절과 한국과 온건 아랍제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저해를 기도
- 외무부는 이라크 · 북한 간 복교 움직임을 저지하고 한국과 이라크 간의 수교를 추진함에 있어 미, 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협조를 얻어 대처

3. 이기주 주일대사관 공사는 1984.5.15. 최근 이라크를 방문하고 귀국한 하다노 일본 외무성 중근동아프리카국장에게 이라크 · 북한 관계에 대해 문의한바,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이라크 외무차관과 면담 시 북한의 대이란 무기 공급 중단 및 이라크 · 북한 간 외교관계 재개 문제를 제기하자, 이라크 외무차관은 북한이 약 1개월 전부터 이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간 계속해서 이란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 그때 가서 상호 대사를 nominate할 것이라고 언급
- 이라크 외무차관은 '북한의 무기수출 중단과 이라크 · 북한 외교관계 재개' formula는 이라크 · 이집트 간의 협의를 거쳐 작년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북한 방문 시 북한 측에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

4.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이 1984.8.20. 현지 이집트 이익대표부와 접촉 시, 이집트 측은 최근 북한 측의 태도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함.

- 1984.5월말 이후 북한은 대이란 무기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아랍제국에 통보한 결과, 아랍제국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 북한 측의 일부 부품 공급이 있으나 부품공급까지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언급

5. 외무부는 1984.8.30. 이라크의 대북한 복교 추진 저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라크 · 북한 복교 합의가 사실인 경우 이라크에 대하여 남 · 북한 동시수교를 촉구하는 대책을 강구키로 함.

북한 · 이란 관계, 1984

| 84-050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6 / 15 / 1~57(57p)

1. 1984년 북한 · 이란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이송록 북한 대외무역부 부부장 등 9명 방문(1.19.~2.9.)
  - 국방부, 상공부, 산업부, 중공업부를 방문하고 경제협력협정 체결문제 협의
- ❁ 공진태 북한 부총리 방문(2.2.~9.)
  - 이송록 부부장 일행과 합류
  - 하메네이 대통령, 라프산자니 국회의장, 무사비 총리, 벨라야티 외무장관, 하쉐미 산업장관, 자파리 상공장관 예방 · 면담
  - 경제협력협정 체결
- ❁ 하라지 이란 국영통신사장 겸 전쟁홍보본부장 방북(6월 초)
- ❁ 아르델빌리 이란 외무차관 방북(8월)
  - 김일성 주석 등 예방
- ❁ 북한 · 이란 외무장관회담 개최(9.29. 유엔총회 참석 기회에 뉴욕에서 회동)

2. 북한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는 이란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

- ❁ 공진태 부총리 이란 방문 시에도 무기 공여 문제 논의

북한의 대이란 군사 지원, 1984

| 84-050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36 / 16 / 1~170(170p)

1. 1984년 초 외무부는 이란과 여타 공관의 보고를 통해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공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란과 북한의 무기거래에 관하여는 주카이로, 주바그다드 총영사관, 주쿠웨이트 대사관 등 중동지역 공관, 인도, 스리랑카 등 서남아지역 공관, 영국, 네덜란드 등 구주지역 공관이 보고
- 공관들은 주재국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무기수출 외에 군사고문 파견, 이란 조종사 훈련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2. 외무부는 이 사실을 전 중동지역 공관에 알리고 북한을 규탄하고 주재국 진출을 억제하는 데 활용할 것을 지시함.

3. 1984.5월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이집트의 요청으로 북한이 이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는 주재국 군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외무부에 보고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주이란 대사관도 북한의 무기 공급 중단 가능성을 보고함.

4. 일부 해외공관은 북한이 이란에 계속 무기를 공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보고하여 외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함.

- 각 공관이 보고한 첩보는 포탄 · 지뢰 공급(주영대사관 등), 북한전투기 수출과 북한조종사 파견(주바그다드, 주카이로 총영사관, 주카타르 대사관) 등이며, 일부 공관은 중국(구 중공)이 북한을 경유하여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
- 그러나 주이란대사관은 무기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

북한 · 일본 관계, 1984. 전2권. V.1. 1-4월

| 84-050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6 / 17 / 1~268(268p)

1. 1984년 북한 · 일본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일본대사관 등의 보고).

- 대성무역상사 등 4개 북한기업 대표단 방일(1~5월)
-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북제재 유지 요청(1월 하순, 주일본 미국대사관 제보)
- 아베 신타로 외상, 국회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답변(3.22.)
-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중국(구 중공) 방문(3.23.~26.) 시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과의 현안해결을 위한 측면지원 요청
  - 북송 일본인 처 일본 방문, 북한이 억류한 선박(후지산마루) 선장 석방
- 한덕수 조총련 의장이 김일성 주석 생일행사 주최(4.14.)
- 유엔대학 주최 세미나에서 조총련계 학자가 발표(4.14.)
  - 신희구 재일조선인 과학자협회 부회장
  - 주제는 '한반도 안보-3자회담과 핵전쟁 위협'
- 아베 외상,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이 남북관계를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4.21.)
- 일본 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방북(4.26.~5.2.)
  - 히로세 히데요시 사회당 조선문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 한편, 일본 사회당의 이시바시 마사시 위원장은 방미 시 주요인사와 만나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 지지를 표명함.

- 조지 부시 부통령, 조지 슐츠 국무장관, 폴 월포위츠 국무부 차관보 등과 면담
- 미국 인사들은 사회당이 한국과 교류할 것을 권유

북한 · 일본 관계, 1984. 전2권. V.2. 5-11월

| 84-050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7 / 1 / 1~386(386p)

1. 1984년 북한 · 일본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일본대사관 등의 보고).

- ❁ 북한의 조선과학자협회 대표단 4명 방일(6.7.~14.)
  - 큐슈대학, 오키나와대학 방문
- ❁ 시아누크 캄보디아 연정 지도자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에게 김일성 주석 메시지 전달
  - 나카소네 총리와 가진 오찬(6.1. 도쿄) 석상
  - 일본과의 경제 · 문화 교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
  - 나카소네 총리는 랑군 사건을 인용하며 북한과의 관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 설명
- ❁ 쿠노 쥬지 전 일본 · 조선 우호촉진의원연맹 회장 방북(6.27.~7.3.)
  - 북한 대외문화연락협회 초청
  - 민간어업협정 갱신문제 협의
- ❁ 한민군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 방일(7.11.~25.)
  - 조총련 행사 참석, 일본체육계와 교류
- ❁ 북한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어선 피격(7.28.)
  - 선장 사망, 선원 4명 구금

2. 한편, 중국(구 중공)의 우쉐키안(吳學謙) 외교부장은 방중 미야자와 키이치 전 일본외상과의 면담(7.4.)에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함.

- ❁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주일본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설명 청취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1. 만경봉호

| 84-050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7 / 2 / 1~363(363p)

1. 1984년 북한 · 일본 간 인원과 물자 수송, 조총련과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북한이 운용하는 만경봉호(3,570톤)의 일본방문 동향은 아래와 같음.

- (입항일자 불명)~1.21. 니이가다 방문
- 2.1.~8. 도쿄, 요코하마 방문
  - 방북자 34명 승선(전원 조선적과 일본국적자)
- 2.26.~29. 니이가다 방문
  - 방북자 127명 승선(한국국적 13명)
- 3.29.~4.6. 센다이, 요코하마 방문
  - 방북자 41명 승선(한국국적 5명)
- 5.11.~14. 요코하마 방문
  - 방북자 61명 승선(한국국적 2명)
- 6.16.~20. 요코하마 방문
  - 방북자 29명 승선(전원 조선적)
- 7.6.~10. 요코하마 방문
- 9.25.~29. 니이가다 방문
- (입항일자 불명)~10.2. 요코하마 입항
  - 방북자 135명 승선(한국국적 10명)
- (입항일자 불명)~11.4. 요코하마 방문
  - 방북자 132명 승선(한국국적 11명)
- 12.17.~20. 니이가다 방문
  - 귀국하는 금강산 가극단원 승선

2.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수시로 일본 정부에 만경봉호의 방문 목적이 정치적이라며 규제를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실제행동에 비추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2. 삼지연호: 3-6월

| 84-051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7 / 3 / 1~98(98p)

1. 1984년 북한 · 일본 간의 인원(북한 단기 방문자) 수송을 주목적으로 북한이 운용하는 삼지연호의 일본 니이가다 방문 동향은 아래와 같음.
   - ❋ 4.3.~5. 방북자 286명 승선(한국국적 22명)
   - ❋ 4.23.~24. 방북자 105명 승선(한국국적 21명)
   - ❋ 5.8.~10. 방북자 327명 승선(한국국적 34명)
   - ❋ 5.26.~28. 방북자 305명 승선(한국국적 39명)
   - ❋ 6.12.~13. 방북자 193명 승선(한국국적 12명)
   - ❋ 6.28.~29. 방북자 114명 승선(한국국적 38명)

2. 삼지연호의 니이가다 방문 추이에 관하여는 주니이가다총영사관이 현지 공안당국의 협조를 얻어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3. 삼지연호: 7-11월

| 84-05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7 / 4 / 1~255(255p)

1. 1984년 북한 · 일본 간 인원(북한 단기방문자) 수송을 주목적으로 북한이 운용하는 삼지연호의 니이가다 방문 동향은 아래와 같음.

- 7.14.~16. 방북자 308명 승선(한국국적 43명)
- 7.31.~8.1. 방북자 398명 승선(한국국적 21명)
- 9.12.~13. 방북자 308명 승선(한국국적 43명)
- 9.20.~21. 방북자 288명 승선(한국국적 20명)
- 9.28.~29. 방북자 323명 승선(한국국적 23명)
- 10.6.~8. 방북자 318명 승선(한국국적 35명)
- 10.24.~25. 방북자 353명 승선(한국국적 34명)
- 11.9.~10. 방북자 310명 승선(한국국적 23명)
- 11.26.~29. 방북자 110명 승선(한국국적 4명)

2. 주니이가다총영사관은 1984.8.7. 북한이 8.7.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이 끝날 때까지 북한 선박의 방문을 중지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외무부에 보고함.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4. 전4권. V.4. 기타 대흥호 등

| 84-051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7 / 5 / 1~81(81p)

1. 1984년 중 만경봉호 및 삼지연호 이외의 북한선박이 일본을 방문한 동향은 아래와 같음.

- 1월 요코하마 – 대흥호, 금수산호
- 2월 요코하마 – 송도호, 오산덕호, 동해호
- 3월 요코하마 – 동해호, 수근호, 대흥호
- 4월 요코하마 – 동해호, 대흥호
- 5월 요코하마 – 송도호, 수근호
- 6월 요코하마 – 동해호, 수근호, 대흥호
- 7월 미야코(동해호), 요코하마(대흥호, 동해호), 쯔루미(대흥호)
- 8월 코베(충성 127호), 요코하마(전진호, 대흥호, 수근호), 기누하라(대흥호), 시오가마(동해호)

2.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과 관련하여 1984.5.22. 이원경 외무장관은 마에다 도시카즈 주한 일본대사에게 랑군 사건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함.

일본 · 조선 우호촉진 의원연맹, 1983-84

| 84-051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7 / 6 / 1~68(68p)

1. 1983.12월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 조선 우호촉진의원연맹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소속 중 · 참의원 의원은 300명으로 추정되나 명단은 비공개
- ❁ 명단이 확인된 의원은 82명
  - 자민당 36, 사회당 22, 공명당 8, 공산당 9, 민사당 3, 신자유클럽 1, 사민련 1, 무소속 2
- ❁ 1983년 하반기 실시된 총선에서 18명이 낙선 또는 불출마
  - 쿠노 쥬지 회장 등 지도부 다수 낙선

2. 총선의 영향으로 일본 · 조선 우호촉진의원연맹이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에 빠지고 후임 회장 희망자도 없는 가운데 1984.6월 다니 요이치 의원이 회장대행으로 선출됨.

- ❁ 다니 의원은 자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

3. 주일본대사관은 위의 과정에서 여야당과의 접촉을 통해 지도부 구성 동향을 파악하면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회장 등에 취임하지 않도록 조용히 작용함.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결정, 1984

| 84-051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7 / 7 / 1~203(203p)

1. 일본 정부는 1984년 하반기에 들어서며 1983년 랑군 사건 발생에 즈음하여 북한에 가했던 제재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내부검토하고 대외적으로도 이를 시사함.

- ❋ 일본의 제재조치는 공적 인사 교류의 금지, 제3국에서의 외교관 접촉 제한, 특별기 운항 금지 등
- ❋ 일본 정부는 해제검토의 배경으로 남북교류 재개(북한이 제안한 수해물자를 한국이 수령하고 북한에 대해 경제교류를 제의한 점 등), 일본과 북한의 현안(민간어업협정 갱신문제) 해결 필요성 등을 고려

600

2. 일본 언론은 제재해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으며, 특히 1984.10월 민간어업협정 갱신을 위한 협의가 진행됨에 해제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함.

- ❋ 다니 일본 · 조선 우호촉진의원연맹 회장이 방북하여 협정 갱신에 합의(84.10.14.)

3. 민간어업협정 교섭타결 직후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제재해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함.

- ❋ 마츠나가 노부오 외무차관의 이원경 외무장관 예방(10.19. 서울) 기회 등을 활용
-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 등에 비추어 시기상조이며 한국 국내사정(선거계획 등)도 고려하여 1985년 초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식도 공식발표보다 자연소멸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

4.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84.10.31. 관방장관 담화로 1984.12.31.을 기해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 ❋ 한국 정부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10.29. 대외발표 계획을 통보

북한 · 자메이카 관계, 1984

| 84-051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37 / 8 / 1~60(60p)

1. 주자메이카대사는 북한 측이 주자메이카 신임 북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 중이라는 정보를 1983.12월 입수, 외무부에 보고한 데 이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 보고함.

- 1984.1.18. 및 2.1.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임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황
- 1984.3.6. 접촉한 자메이카 군 정보관계자는 신임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지 않아 현 북한대사가 귀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아그레망 지연은 자메이카의 대소련 강경조치(소련 외교관 추방) 등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음이 확실시된다고 언급
- 1984.4.9.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 최근(약 2주 전) 신임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확인
- 신임 북한대사, 1984.5.16. 주재국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

2. 주자메이카대사는 북한대사관 활동 관련 다음 내용을 보고함.

- 좌익세력에 대한 자금지원
  - 주자메이카대사관이 1984.7.30. 주재국 안보성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쿠바의 지원을 받는 좌익 게릴라 단체에 북한 대사관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안보성이 알고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
- 주재국 Gleaner지에 1984.8.30. 및 9.8. 김일성 광고 게재 등 선전활동
- Pegasus 호텔에서 1984.10.8.~14. 북한 공예품 전시회 개최
  - 전시회 개회식 사진 수록

북한 · 리비아 관계, 1984

| 84-051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37 / 9 / 1~98(98p)

1. 북한 · 리비아 군사 분야 협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주리비아대사는 주재국 공군사관학교와 벵가지 공군기지 등에 25명 정도의 북한 공군요원이 진출해 있다고 1984.1.22.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리비아가 북한 조종사를 동원, 아스완댐을 폭격할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있다고 이집트 국방상이 언급했다는 제보에 따라 주리비아대사에게 북한 공군요원의 활동에 대해 상세 보고토록 1984.8.25. 지시
  - 주리비아대사는 상기 약 25명의 북한 공군요원이 모두 교관 및 고문단 요원으로 전투 조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제반 상황에 비추어 이집트 측의 언급내용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9.3. 보고
- ❋ 오극렬 북한군 총참모장 리비아 방문(1984.8.6.~12.)
  - 오극렬 총참모장은 카다피 예방 및 리비아 군총사령관과의 군사회담 등 일정을 가진바, 카다피 예방 시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군사회담에서는 군사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
  - 주리비아대사는 동 방문이 1983.9월 리비아 군총사령관의 방북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띤 것으로 평가

2. 북한 화물선 리비아 입항과 적재 · 하역화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남포항에서 쌀 1만 톤을 적재한 1만2천 톤급 북한선박 청천강호가 1984.7.7. 리비아에 입항, 벵가지와 트리폴리에서 각각 5천 톤을 하역하고 7.28. 출항
- ❋ 약 1만 톤급 북한 화물선 오산덕호가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약 2천 톤을 적재하고 1984.7.26. 벵가지항에 입항

3. 북한 쌀 구매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주리비아대사는 (주)대우 측이 대량 구매 가능한 여타 쌀이 없는 상황에서 동사의 리비아 진출 근로자 약 1만5천 명을 위한 용도로 현지에 있는 북한산 쌀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해 왔음을 1984.10.6.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주)대우가 이미 쌀 수입허가를 받아 스페인에 발주한 바 있고 북한 쌀 구매 허용 시 전 업체가 저렴하고 구매가 용이한 북한 쌀을 구매하려 할 것이라는 점 등 이유로 불허입장을 10.26. 주리비아대사관에 통보

4. 기타 북한의 건설근로자 및 의료요원 리비아 진출 상황 등에 관한 주리비아대사 보고와 외무부가 주카이로총영사관에 송부한 북한 · 리비아 관계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북한 · 마카오 관계, 1983-84

| 84-051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37 / 10 / 1~17(17p)

1. 북한이 마카오에 장청(長青)고려인삼약행이라는 한약방을 1983.10.28. 개설한바, 마카오 당국은 동 한약방 개설이 북한의 무역기관인 조광무역의 재정조달을 위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주홍콩총영사가 1983.11.2. 외무부에 보고함.

2. 주홍콩총영사는 마카오 정청 경찰이 마카오 내 북한 조광무역 사무실에 대해 1984.3.9. 불시 점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포르투갈법에 의하면, 모든 상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자, 피고용자 및 방문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그간 현지 공산당 실력자의 영향력 때문에 조광무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다 1983.12월 동 실력자의 사망 이후 마카오 경찰국이 마카오 주둔군 사령관을 설득하여 실시
- 마카오 경찰국 직원들이 현장 출입을 차단하고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의 신분을 조사
- 점검 종료 직후 상기 공산당 실력자의 지위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가 마카오 경찰 관계자와 주둔군 사령관을 방문하고 조광무역 점검에 항의하였으나, 주둔군 사령관 등은 법 규정에 따라 의례적으로 실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

북한 · 몰타 관계, 1984

| 84-051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7 / 11 / 1~77(77p)

1. 북한 · 몰타 비밀군사협정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교황청 대사는 주재국의 한 · 이탈리아 가톨릭 의원단 소속 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인용, 1982.7월 체결된 북한 · 몰타 비밀군사협정에 대한 몰타 야당의 대정부 질의 및 비난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몰타에 머무르던 김정일이 약 2개월 전 몰타를 떠났다고 1984.1.19. 보고
- 몰타 야당인 국민당의 아다미(Adami) 당수가 1984.1.16. 서독 마인즈에서 개최된 구주민주연합(European Democrat Union)의 유럽정책위원회에서 동 협정 체결을 폭로하고 동 협정에 몰타에 대한 북한의 경찰 무기 및 훈련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는 구주민주연합 보도자료 내용을 주오스트리아대사가 1984.1.25. 보고
- 본 문건에는 외무부 구주국이 1984.2월 작성한 몰타-북한 비밀 군사협정 체결로 인한 몰타 국내 정세 동요에 관한 자료 수록

2. Mintoff 몰타 수상의 북한 방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는 민토프(Mintoff) 수상이 북한과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1984.8.17. 출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동 수상의 방북 목적 및 체류 중 활동사항을 가능한 대로 파악, 보고토록 주영대사에게 1984.8.20. 지시
- 외무부는 민토프 수상의 1984.8.21.~28. 북한 방문 시 김일성과의 회담 4회(예방 1회 포함) 및 오 · 만찬, 문화협정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등 체결과 순천 시멘트공장 시찰 등 방북 활동 내용과 만찬 시 김일성 및 민토프 수상 연설문을 1984.9.1. 주영대사에게 송부

3. 북한의 대몰타 원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영대사는 주몰타 북한대사대리가 1984.1.31. 몰타 농수산부 장관을 방문, 북한이 1983년 지원키로 약속한 요소비료 3천 톤 중 제2차분 1천 톤을 전달하였다고 몰타 언론이 보도하였음을 1984.2.9. 외무부에 보고

  - 북한은 1984.8.17. 몰타에 기항한 북한 선박 오산독호 선상에서 몰타 정부에 대한 비료 3천 톤 중 마지막분 1천 톤 기증식 거행

4. 몰타 3자회담 중개 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영대사는 주재국 외무성 제보에 의하면 몰타 수상은 1984.8월 북한 방문 후 미국 측과 접촉, 한 · 미 · 북한 간 3자회담 실현을 위하여 자신이 미 · 북한 간에 중개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미국 측이 이를 즉각 거부한 바 있다고 1984.9.20. 외무부에 보고

북한 · 나이지리아 관계, 1984

| 84-051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7 / 13 / 1~57(57p)

1984년 북한 · 나이지리아 관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북한대사관 주최 행사

- ❁ 김정일 생일 리셉션을 2.15. 대사관 정원에서 개최한바, 공산권 및 아프리카 지역 외교관, 북한 친선협회 및 주체사상 단체 회원 등 100여 명 참석
- ❁ 김일성 생일 리셉션을 4.13. 대사관 정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공산권 및 비동맹권 외교관 약 70명, 주재국 인사 약 20명 참석
  - 북한은 또한 4.14. Guardian지에 김일성 사진과 함께 전면 광고기사를 게재
- ❁ 주재국 인사 20여 명 포함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9.9절 칵테일파티를 9.8. 북한대사관에서 개최한바, 주재국 참석자 중 정부인사는 불참

2. 북한 박성철 부주석의 나이지리아 방문(1984.8.2.~5.)

- ❁ 주요 활동
  - Buhari 국가원수와 Idiagbon 최고사령부 참모장(군사정부 제2인자) 면담
  - 북한 지원으로 건설된 농장 시찰
- ❁ 평가
  - 나이지리아 혁명정부 수립(1983.12월) 후 최초의 북한 고위사절로 소원했던 나이지리아와의 관계개선 시도의 일환
  - 특별 합의사항 없고 공동성명 발표도 없었는바, 주나이지리아대사는 나이지리아가 한반도문제 관련 북한입장을 수락하지 않아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된 것으로 평가

3. 북한 · 나이지리아 협력 관련

- ❁ 북한의 Korea Economic Cooperation Company와 나이지리아 Ogun 주정부 산하업체와의 농업 합작회사 설립 계약이 3.27. 체결됨(북한대사관 참사관과 주정부 농업장관 서명).
  - 주정부 산하업체가 30헥타르의 농지 제공, 북한은 현금 25만 나이라(약 35만 달러) 투자
  - 북한 측이 경영을 담당하며, 옥수수와 야채 재배 사업을 하고 버섯과 양어장 사업으로 확대
- ❁ 북한이 1983년 말 나이지리아에 경질유 40,000BD 구매를 신청,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와의 협의를 통해 20,000BD 공급에 1984.6월 합의했으나 북한의 가격인하(OPEC 공시가격 이하) 요청과 북한이 전매목적으로 구매를 기도한다는 정보 등에 비추어 나이지리아의 원유수출 원칙상 북한과의 원유공급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NNPC 관계관의 전망을 주나이지리아대사가 1984.8.15. 외무부에 보고

북한 · 니제르 관계, 1984

| 84-052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7 / 14 / 1~38(38p)

1. 박계열 주니제르 북한대사 사망 관련

❋ 박계열 대사가 1983년 말 베냉의 코토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니제르 주재 정파의가 1984.1.13.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통보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겸임국 니제르 출장 중 니제르 정부 관계자 및 외교단을 통해 알아본바, 동 대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억측이 구구한 상황으로 니제르 외무성 정무국장은 제반 정황으로 보아 정치적인 피살로 보인다고 말하였음을 1984.3.13. 외무부에 보고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측 행동이 자유로운 베냉으로 동 대사를 유인, 살해 또는 강제 송환하였거나 여성이나 밀수와 관련되어 북한이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 후임 북한대사는 1984.4.28. Kountche 니제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한바, 후임 대사가 황급히 부임한 것은 Kountche 대통령의 방북 관련하여 니제르 정부가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

2. 니제르 대통령 북한방문 계획 취소

❋ Kountche 대통령은 1984.5월 중국(구 중공) 방문 기회에 북한 방문을 계획하고 이를 북한 측에 제의하였으나 결국 중국만 방문하고 방북은 취소한바, 니제르 측은 북한의 무성의에 불쾌한 감정을 표출

❋ Kountche 대통령은 1984.4.17. 겸임국 니제르를 방문한 주코트디부아르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북한 대사대리로 오인하여 초치, 면담하고 5.13.~15. 방북 제의에 대한 회답이 늦다고 지적하였으나 참사관은 자신의 니제르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북한 대사대리가 아님을 자연스럽게 언급

- 동일 오후 Kountche 대통령이 니제르 주재 북한 대사대리를 초치 접견한 사실을 니제르 TV가 보도한바, 방북 제의에 대한 회답 지연에 불만 표시하고 조속 회답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가 보고

❋ 1984.5.9. 중국 공식방문차 출국하는 Kountche 대통령을 위한 공항 환송석상에서 니제르 주재 미국대사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Kountche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코트디부아르 미국대사관 측이 한국대사관에 전달

❋ 1984.4.28. 신임장을 제정한 북한대사는 니제르 대통령 방북 준비차 일시 귀국하였으나 방북이 취소된 후 5월 중순경 다시 귀임

북한 · 시에라리온 관계, 1984

| 84-05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7 / 19 / 1~67(67p)

1. 주시에라리온 북한대사 동정은 다음과 같음.

❁ 1984년 초 시에라리온을 떠난 김병기 북한대사가 평양 귀임한다는 첩보와 함께 동 대사 자신은 휴가차 일시귀국이라 하나 차석은 송환 성격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동 대사는 약 1개월 후 2.9. 귀임하였으며 12월 초에 이임

- 김병기 대사는 스티븐스 시에라리온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것과 관련, 1984.8.1. 동 대통령 면담 시 자신의 임기만료에 따른 귀국계획이 대통령 방북관계로 연기되었는데 방북이 취소되어 자기가 난처하게 되었으며, 취소된 동 대통령의 평양방문 실현을 위해 귀국을 연기하고 교섭을 계속하겠다고 언급(김병기 대사 이임 시까지 대통령 방북 미실현)

2. 시에라리온 대통령 방북문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티븐스 대통령의 1984.8.8.~10. 평양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동 기간 직전 시에라리온 방문하는 IMF 대표단을 대통령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므로 방북이 불가하다고 취소를 결정, 7.27. 북한 측에 통보

-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스티븐스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IMF 차관교섭에 불리할 것이라는 점 등이 방북 취소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

❁ 김병기 북한대사는 8.24. 스티븐스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하여 전용 항공기 제공을 제의하는 등 방북을 계속 요청하고 동 대통령의 아들(국회의원)을 방북 초청하는 등 대통령 방북 실현을 집요하게 추진

3. 북한 · 시에라리온 간의 교류 협력은 다음과 같음.

❁ 장세국 북한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사절단, 주체사상연구소 교수, 경제조사단(소규모 공장 합작 상담 및 시장조사) 등이 시에라리온 방문

❁ Cole 외무성 차관보, Williams 공보성 공보국장 등 공보성 직원, 언론사 기자(제3세계 언론인 평양연수 참가), 교육대학 학장단 등 북한 초청에 의한 방북

❁ 1984.3.6. 시에라리온 교통체신성 장관과 북한대사의 양국 간 우편전신협정 서명, 북한의 조선기계설비공사를 창구로 철공 · 정미 · 채광 등 18개 부문의 기계제작 및 수리공장 합작계획 추진 등

북한 · 스페인 관계, 1984

| 84-052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7 / 20 / 1~70(70p)

1. 북한의 스페인 접근 동향을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경 및 리스본 주재 북한대사는 1984.1~2월경 동지 주재 스페인대사에게 관계개선을 위한 빈번한 접촉을 요청하고,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는 1984.2월경 스페인 비자 발급지를 주북경 스페인대사관에서 주모스크바 대사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스페인대사에게 요청하였으며 주북경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IMO 가입 지지를 요청

- 스페인 측은 한국과 우호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측의 접근 시도를 거절하고, 또한 북경 주재 대사관을 통한 비자발급 방침은 불변임을 통보하였으며 IMO 가입 지지 요청도 거절

❁ 주스페인대사는 주재국 정부가 북한 불승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와의 관계개선이라는 대외정책상 국익에 도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스페인 침투 저지를 위해 1985년에 수상, 외상 및 외무성 고위 실무진 방한 초청과 경제, 문화사절단 파견 등을 외무부에 건의

2. 스페인 접근을 위한 북한인사 주재국 방문

❁ 염국렬 북한 민사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사당 대표단이 PSOE(노동사회당) 초청으로 1984.4.2.~6. 스페인을 방문, PSOE 인사들을 만나 북한 민사당의 SI(Socialist International) 가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PSOE 측은 북한에는 공산당만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요청을 거절

❁ 김희수 북한직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스페인 공산계 노동조합 총회(6.21.~24.)에 참석하고 회의 참석 공산당 인사를 접촉

❁ 김종용 당 중앙위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984.6.28.~7.4. 스페인 공산당 1984년도 축제에 참석한바, 국제관에 북한관을 개설하여 인삼주, 자기제품, 목각 등 토산, 민예품과 선전책자를 판매하고 친북단체를 내세워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 지지서명을 접수

❁ 황장엽 당 중앙위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PSOE 제30차 전당대회 참석차 1984.12.8.~17. 스페인을 방문

- 스페인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은 12.18. 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대표단 측이 동 위원장에게 수교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이스라엘과는 수교에 관한 의회의 결정이 있었고 기타 국가에 관하여는 일체 거론된 바가 없다는 의회 입장을 설명했다고 언급

북한 · 태국 관계, 1984-85

| 84-052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8 / 1 / 1~86(86p)

태국 정부는 랑군 사건 이후 대북한 접촉 불허 방침을 결정(1983.11월)하여 시행 중인바, 북한은 동 방침 변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함.

1. 북한의 태국산 농산물 구매 제의

- 태국 외무성 관계관은 경제 분야의 대북한 접촉 정상화 여부에 대한 주태국대사관의 문의에 대하여, 북한이 1984.2월 중국(구 중공) 주재 태국대사관을 통하여 태국산 농산물 수입 상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각의 논의를 거쳐 주중국 상무관의 북한 접촉을 허가한 바 있으나, 동 결정은 농산물 수출에 한한 것으로 북한 접촉 중단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고 설명
- 주태국대사는 북한이 태국산 옥수수 2만5천 톤을 수입 예정이라고 1984.8.13.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태국의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태국산 농산물 다량 구입 등의 조치 없이 태국의 대북한 농산물 수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

2. 북한 곡마단 태국 공연

- 태국어 일간지 타이라트(Thai Rath)지가 자선기금 조성 목적으로 1984.10.19.~12.16. 북한 곡마단 초청 공연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주태국대사관은 동 공연이 북한의 태국 침투활동의 일환으로 한 · 태 우호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한바, 태국 외무성 정무국장은 1984.8.31. 주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사기업 재단에 의한 자선 목적의 공연을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선전과 활동 불허 등 조건하에 허가하였다고 설명

3. 태국 사회노동당 의원단 방북

- 국회의원 5명 포함 20명 규모의 태국 의원단 방북(1984.10월)에 대한 한국대사의 관심과 우려 표명에 대하여 태국 측은 동 의원단이 정당 차원의 방문임을 내세워 외무성의 만류에도 불구 방북하였다고 하고 태국 정부의 대북한 공식접촉 당분간 제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

4. 태국 Bichai 부수상 북한 방문(1984.12.11.~14.)

- Bichai 부수상의 방북 계획을 접하고 한국대사가 시티 외상과 Bichai 부수상에게 방북 계획의 재고를 요청한바, 동 부수상은 태국이 북한과도 외교관계가 있으며 1984.1. 먼저 한국을 방문한 후의 방북이라는 점을 강조
- 태국 · 북한 양측은 부수상 방북 중 연설을 통하여 동 방문이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계기임을 강조한바, 북한은 동남아 평화 · 자유 · 중립지대 창설노력 등 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태국은 무역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

5. 북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

❁ 북한이 상주공관 설치를 집요하게 요청하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를 주태국 겸임대사로 임명(주미얀마대사가 겸임하다 랑군 사건 이후 공석)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1984.12.4. 태국 정부 각의에서 북한 상주공관 설치문제가 논의된바,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Bichai 부수상이 12.4. 한국대사에게 언급

북한 · 우간다 관계, 1984

| 84-052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8 / 2 / 1~297(297p)

1. 북한의 우간다 경찰 훈련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우간다 소말리아대사가 1984.1.27. 우간다 전투경찰 훈련을 위해 파견된 북한요원을 목격하였다고 한국대사에게 제보

- 영국이 우간다에 제공하던 훈련을 북한이 맡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우간다 영국대사관 측은 북한이 훈련 대가로 정치적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2. 북한 제의 3자회담의 대우간다 홍보활동은 다음과 같음.

❁ 주우간다 북한대사관은 대사관 공한(1.25.), 대사의 우간다 외무차관(3.6.) 및 국제기구국장(2.28.) 면담 등을 통해 3자회담 제의 지지를 요청하였고 우간다 측은 1984.5.16. 외무성 공한으로 지지 입장을 전달

- 주북한 우간다대사(북경 상주)는 1984.1월 본국 정부에 당분간 북한 제의 3자회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

3. 우간다 인사 방북 및 북한 인사 우간다 방문 등 주요인사 교류현황은 다음과 같음.

❁ Alimadi 수상은 1984.4월 방북 시 북한 군사훈련요원 증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Muwanga 부통령 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사절단은 1984.8. 방북 시 북한 포병 훈련요원 약 100명 파견 등 요지의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임은섭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사절단이 1984.9월 우간다 방문, 군사협력 문제 협의하고, 북한은 김영남 외교부장의 1984.9월 우간다 방문을 제의하였으며 우간다는 이에 동의

4. 주우간다대사는 북한군 250명이 1984.11월 우간다에 도착하였다는 제보가 있으며, 이러한 북한군 추가파견은 1984.8월 체결된 군사협력협정에 의한 것으로 우간다 파견 북한군이 총 7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1.15.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 · 영국 관계, 1984

| 84-052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8 / 3 / 1~37(37p)

1. 한국문제 관련 motion 의회제출

❁ 친북 노동당 의원들이 주동하여 제출한 motion이 노동당 의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것과 관련, 한 · 영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1984.6.20. 주영대사가 주최한 한 · 영 의원친선협회 연례 오찬에서 동 motion에 교황 방한, 남북한 접촉, 핵무기 철거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며 중요한 것은 핵무기 철거로 주동자들이 이를 노린 것 같다고 말함.

❁ 한 · 영 의원친선협회 회장 등 친한 의원들이 주영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요지의 수정 motion을 1984.7.25. 하원에 제출함.

2. 북한인 영국 입국 시도

❁ 런던 개최 국제 체조대회에 초청된 북한 선수단의 사증 발급을 영국 정부가 불허하였음에도 동 선수단이 1984.10.8. 영국 공항에 도착, 주최측 주선으로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됨.

❁ 영국 정부는 신상옥 등 20여 명의 북한인들이 London Film Festival 참석 목적으로 신청한 입국 사증을 발급하기로 11.27. 결정한바, 주영대사는 영국 외무성 측에 유감을 표하고 동 조치가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촉구함.

- 외무성은 비자발급 거부 의견을 제시했으나 내무성이 발급을 결정하였고 북한인들이 정치활동 등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

3. 영국 · 북한 수교문제

❁ 하원 노동당 의원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문한데 대하여 외무성의 Luce 국무상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어 외교관계 수립 계획이 없다고 1984.10.26. 서면 답변함.

북한 · 소련 관계, 1984

| 84-052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북미과
MF번호	2014-38 / 4 / 1~145(145p)

1. 김일성 · 김정일 방소 관련

- 주일대사관은 김일성의 연내 방소를 목표로 소 · 북한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정보를 1984.2.9. 일본 외무성 관계관으로부터 탐문,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주스페인대사는 김일성의 방소 목적이 대북한 지원요청이라는 요지의 스페인 외무성 자료를 1984.7.12. 입수 보고함.
- 김정일의 1984.1월 소련 방문설 관련, 주소련 일본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소련 외무성 담당자가 김정일의 방소를 부인하지는 않는 점으로 보아 방소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밝혔다고 주일대사가 1984.2.11. 보고함.

2. 김일성 타스통신 사장 회견

- 김일성이 일본 군국주의 비난, 소련과의 친선과 단결 강조 요지로 1984.3.31. 타스통신 사장과 회견한 내용이 조선중앙통신 및 모스크바와 동경발 외신으로 보도된바, 외무부는 이를 주요 해외공관에 전파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카피차 소련 외무차관 북한 방문

- 카피차 외무차관이 1984.11.12.~27. 방북한바, 북한 방송은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소 · 북한 국경회담이 11.13.~19. 성공리에 끝났으며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과 안기부가 작성한 분석자료 및 주한 미국대사관이 알려온 카피차 차관의 주소련 일본대사 면담 시 방북 관련 발언 요지(주소련 미국대사관 보고)는 다음과 같음.
  - 외교안보연구원: 소 · 북한 국경선 문제는 우량에 따라 수로가 변하기 쉬운 두만강의 자체변화를 고려한 국경선 획정일 것으로 예측
  - 안기부: 김정일의 '85중 방소, 소 ·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저지활동 강화 등 예상
  - 주한 미국대사관이 전달한 카피차 언급 요지: 88올림픽 서울 개최 시 소련 및 북한 불참, 김일성은 국제관계 및 전략문제에 전념하고 김정일은 국내 일상문제 담당 등

미국 교회의 대북한 선교활동 대책, 1983-84

| 84-052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38 / 5 / 1~121(121p)

1.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대북한 선교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다음 요지의 대북한 선교지침을 작성하여 1983.6.5.~10. 개최되는 총회에서의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1983.4.14. 외무부에 보고

- 북한 기독교계와 북한 주민과의 기독교적 접촉을 발전
- 남북 이산가족의 방문 및 재결합을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
-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미 · 북한 평화증진이 교회의 임무라고 믿음
- 북한에 기독교가 현존함을 믿으며 기독교 틀 내에서 북한과 새로운 관계 정립 희망

❋ 정부는 종교를 빙자한 각종 국내외 책동을 전개하고 있는 북한에 의해 대북 선교 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 동 선교지침 채택 저지 노력을 전개

❋ 미국 거주 한국인 교계 지도자와 한국에서 동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들에게 상기 선교지침에 대한 우려를 설명, 협력을 유도하여 선교지침 채택의 일단 보류를 희망하는 예장 총회의 서한을 미국 장로교회에 전달하고 총회 참석 대표단을 통하여도 노력한바, 미국 연합장로교 총회는 6.9. 원안을 일부 수정한 선교지침을 채택

2. 외무부는 뉴저지주 소재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가 북한 기독교에 관한 비공식 협의회를 1984.2.5.~7. 개최한다는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보고에 따라 주뉴욕총영사관이 동 Center 관계인사를 접촉, 북한 선교의 비현실성을 설득하고 동 협의회 관련 정보를 확인 보고토록 1983.12.12. 주뉴욕총영사에게 지시함.

미국의 대북한 금수조치, 1981-84

| 84-0528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14-38 / 6 / 1~107(107p)

1. 미 행정부는 Trading with Enemy Act에 따라 1981~84년 미국의 대북한 금수조치를 매년 9.14.자로 1년 연장함.

2. 미 국무성 관계관은 1979~81년 미 · 북한 무역액이 31만 달러에 달한다는 1982.10.20. 홍콩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 기사 관련 주미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이는 통계상의 오류로서 대북한 금수 조치로 인하여 미 · 북한 교역은 없으며 예외적으로 미국 자선단체에 의한 대북한 긴급구호 물품에 대하여 간혹 수출허가를 해 준다고 밝힘.

북한 · 미국 관계, 1984

| 84-052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8 / 7 / 1~38(38p)

1. 북한이 남북 직접대화에 응하면 미 · 북 양자회담을 가져도 좋다는 뜻을 미국이 북한에 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984.7.29. 보도하였으며,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984.4월 방북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미국 대학교수로부터 들었다고 일본 외무성 인사가 1984.7.31.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언급함.

- 1984.8.3. 미 국무성 한국과장은 상기 관련, 키신저 방북은 사실 무근이며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동경 언론을 중심으로 한 근거 없는 소문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하려는 의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

2. 1984.8.21. Harriet Isom 미 국무성 한국과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8.21. 대북 교역 및 경협제의와 8.17. 제4차 체육회담 제의에 대한 주미대사관 관계관의 설명에 대해 동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3. 또한, Isom 미 국무성 한국과장은 미코르도베스 유엔 사무차장이 8.16. 업무협의차 국무성을 방문한 기회에 최근 남북한 방문 소감을 질문한 데 대하여 동 차장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8.21. 주미대사관 측에 설명함.

북한주민의 미국 이민문제, 1984

| 84-05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8 / 8 / 1~26(26p)

1. 중앙일보는 1984.5.31. Solarz 미 하원의원이 5.29. 뉴욕에서 가진 한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산가족 재결합이라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함.

❁ 주미대사관은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하원 아태소위 전문위원이 동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Solarz 의원이 그러한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말하였음을 6.1.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는 이북 출신 미국 거주 교민의 기대에 편승한 반정부 인사 및 친북 단체들의 책동에 의해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추진될 가능성을 감안, 미 국무성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여 미국 정부 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생기지 않도록 1984.6.1. 주미대사에게 훈령함.

❁ 미 국무성 관계관은 6.4. 및 6.7. 주미대사관 접촉 시 이 문제가 미국 내 한인 교포사회의 문제이며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표명

3. 미국 이민법의 관련 규정을 조사한바,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을 위한 특별한 입법은 불필요하며 국무장관의 권한으로 북한에 대한 이민 쿼터의 배정,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북한 · 부르키나파소 관계, 1984

| 84-053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8 / 9 / 1~65(65p)

1. 북한 · 부르키나파소 경제협력

- 공연장, 박물관 및 시범농장 건설 등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북한의 원조계획을 담은 경제 · 기술협력 의정서가 북한대사와 부르키나파소 기획협력상 간에 1984.1.9. 서명되어 북한이 시멘트, 철근 등 소요자재를 제공하고 건설 관계자를 파견한바, 인력동원과 현지물자 조달 등의 문제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
- 북한 대외경제 사업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84.11월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여 농업, 광업 및 무역 분야 협력 문제를 협의함.

2. 북한 · 부르키나파소 군사협력

-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경호대, 특공대 등의 훈련을 위한 북한 군사요원이 파견됨.
- 오극렬 북한군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 사절단이 부르키나파소 혁명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상카라 대통령과 면담함.
- 부르키나파소 국방장관 겸 최고사령관 Lin Gani 소령이 1984.5월 방북하여 북한의 군장비 및 군사훈련 지원 문제를 협의함.

3. 기타 양국 간 교류

- Diallo 부르키나파소 외상은 1984.8.13.~15. 방북하여 김일성 면담, 김영남 외교부장과의 회담 등 일정을 가진바, 만찬 연설에서 북한의 3자회담 제의 환영 등 북한 입장 지지를 밝힘.
-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 7명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여 학생, 체육교사 등 대상으로 부르키나파소 혁명 1주년 기념축제 공연을 위한 훈련을 실시함.
- Compaore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실 장관 겸 법무장관이 1984.10월 방북하여 김일성 면담, 박성철 부주석과의 만찬 등 일정을 가진바, 만찬석상에서 고려연방제 지지, 휴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 지지 등 입장을 표명함.

북한 · 베네수엘라 관계, 1984

| 84-053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8 / 11 / 1~59(59p)

1. 손성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Luxinchi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로 1984.2.1.~8. 베네수엘라를 방문한바, 공식행사 참석 외에 베네수엘라 좌익정당 및 친북 인물을 접촉하고 El Nacional지에 광고를 게재함.

2. 박용세 주쿠바 북한대사가 1984.4.21.~29.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Ferrer 하원의장, Paparoni 외무성 정무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상주공관 설치를 협조 요청하고 동 의장 방북 초청하였으나 Ferrer 의장은 상주 공관 설치는 행정부 소관사항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며 방북은 일정상 곤란하다고 거절함.
   ❁ 박용세는 1984.10월에도 베네수엘라를 방문, 4월과 유사한 활동 후 귀임

3. 양형호 등 북한인사 4명이 1984.10.13.~11.10. 베네수엘라를 방문, 주체사상 세미나, 소규모의 서적 및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함.

북한 · 아프리카지역 관계, 1983-84

| 84-053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8 / 12 / 1~100(100p)

1. 북한은 1984년 중 정준기 부총리(2개국, 1.4.~20.),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8개국, 3.24.~5.13.), 박성철 부주석(6개국, 7.25.~8.20.), 이종옥 부주석(5개국, 10.16.~11.1.), 강성산 총리(에티오피아, 9.4.~13.) 등 많은 사절단을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함.
   ❁ 상기 관련 공관 보고와 북한 인사 아프리카 방문 현황 자료 등이 포함

2. 1984.9월 외무부는 북한의 9.9절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아프리카 지역 전 공관에 지시한바, 아프리카 주재 북한대사관의 9.9절 관련 리셉션 · 사진전 개최와 선전기사 언론게재 등 활동에 대한 각 공관의 보고 및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3. 기타 1983년 이후 북한의 대외원조현황 및 대외채무현황, 북한 · 아프리카 군사관계 전망 등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음.

북한 · 동남아 관계, 1984

| 84-053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38 / 13 / 1~92(92p)

1. 북한-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랑군 사건 관련, 1984.1.4. 각의에서 향후 1년간 북한과의 인사교류 동결 등을 결정하고 북한 측과의 긴밀한 접촉을 삼가 하도록 해외 공관에 지시함.

- 말레이시아는 경제사절단 파견,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 북한의 제의에 거절 또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하원의장 방북 초청에도 불응하는 등 각의가 결정한 입장을 견지

2. 북한-브루나이

❋ 북한은 1984.1.1. 독립한 브루나이를 1.8. 승인하고 볼키아 국왕 앞 김일성 명의 축전을 발송함.

3. 북한-필리핀

❋ 1984.5.31. 주한 필리핀대사는 외무부 제1차관보를 방문, 북한-필리핀 친선협회가 결성되었다고 평양방송이 1984.5.20. 보도한 것과 관련, 동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북한-필리핀 친선협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마닐라 개최 유네스코 회의 북한 수석대표 전재홍은 1984.12.15. Castro 필리핀 외무차관을 면담, 북한-필리핀 관계개선 문제를 거론하여 자기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였다고 Castro 차관이 주필리핀대사에게 설명함.

- 북측은 동 차관에게 김영남 외교부장의 Tolentino 외상 앞 서한을 전달

❋ 주필리핀대사관은 북한의 주재국에 대한 통상대표단 파견 추진 및 동 추진의 1985.2월 연기 첩보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북측의 대필리핀 관계개선 노력이 적극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임을 1984.12.19.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 · 중동 관계, 1984

| 84-053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근동과/마그레브과
MF번호	2014-38 / 15 / 1~63(63p)

1. 북한-레바논 관계(주레바논대사대리 보고)

❋ 주레바논 북한대사가 1984.5.8. 레바논 법무 · 수자원장관인 시아파 회교 민병대 지도자를 방북 초청한바, 동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사태가 안정된 후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2. 북한-모리타니 관계(주모리타니대사 보고)

❋ 주모리타니 북한대사(알제리 상주)의 1984년 모리타니 방문 활동은 다음과 같음.

- 1984.1월 모리타니를 방문, 외상 예방(신년 예방), 공보상 예방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Chaab지 편집국장을 면담, 김정일 생일 광고기사 게재 교섭했으나 정치성이 짙다는 이유로 거부
- 1984.3월 특사 자격으로 모리타니에 입국,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을 선전하는 내용의 김일성 메시지를 모리타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모리타니 문화 · 청년 · 체육상을 면담, 구두 방북 초청

❋ 1984.4.8. 입국하여 모리타니 외상 면담하고 Chaab지에 김정일 광고기사 및 사진 게재

3. 북한-튀니지 관계(주튀니지대사 보고)

❋ 북한 · 튀니지 친선협회 계장환 부회장이 1984.3.5. 튀니지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방북 초청하였다고 보도된바, 튀니지 외무성 측은 북한 요원이 외무성에 알리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기로 하고 북한 대사를 초치하여 경고

❋ 수공예품 · 자수 · 도서 전시회 개최와 매스게임 훈련을 위한 북한 요원이 1984.2. 각각 튀니지를 방문하였으며 튀니지 국회 문공위원장이 경비 전액 북한 부담으로 1984.9월 북한을 방문

북한 · 구주 관계, 1984

| 84-053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4-38 / 16 / 1~113(113p)

1. 주네덜란드대사관은 바터교역이나 BOND 구입 등 다양한 목적하에 네덜란드 방문을 신청하는 북한인들의 입국 관련 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입국 여부, 네덜란드 내 관련인사, 출국 확인 등) 파악에 대해 주재국 외무성 측에 협조를 요청함.

2. 북한 인사 3명이 1984.5.16. 벨기에를 방문, 북한의 대벨기에 채무 상환 문제를 협의하고 3년 거치 5년(1988~92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함.

3. 북한의 김충일 외교부 부부장이 1984.12월 스위스를 방문, 스위스 외무성 국무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전하고 외무성 차관보와의 면담에서는 광산개발, 간척사업 등에 관심을 보인바, 스위스 측은 북한의 부채문제를 언급함.

4. 황장엽 북한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1984.6.14.~17. 이탈리아를 방문, 이탈리아 공산당 간부들에게 베르링거 공산당 서기장 사망에 대한 조의를 표함.

5. 북한 IPU 대표단의 이탈리아 방문이 추진됨에 따라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북한 대표단 접수가 랑군 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관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을 불허할 것을 외무성에 요청하고 친한 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함.
   - ❁ 이탈리아 측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IPU 활동은 별개라는 반응이었는바, 결국 북한 대표단은 1984.10.15.~21. 이탈리아를 방문
   - ❁ 손성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상원 부의장, 하원 외교 분과위원장 등 면담기회에 양국 간 무역대표부 설치를 제의한 것으로 탐문되었으나, 이와 관련 이탈리아 외무성 측은 자국의 대북한 기본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국대사관 측에 언명

북한의 대동구권 관계, 1981-84

| 84-0537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38 / 17 / 1~13(13p)

1. 주서베를린총영사는 동독 Neues Deutschland지가 1984.8.31. 보도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군사대표단의 동독 방문 일정 요지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8.31. 동독 국방차관의 안내로 Carl Zeiss Jena 공단 방문 및 마이크로 전자산업 시찰, Gera 관광 등
- 9.1. 북한 · 동독 국방장관 회담 개최
- 9.2.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방문하고 공군 조종사들에게 북한 인민 최고훈장 수여
- 9.3. 호네커 동독 서기장은 오진우를 면담하고 오진우에게 우호협력 증진 공로훈장 수여
- 9.4. 동독 군부대와 군사훈련시설 시찰 및 국방장관 회담 후 출국

2. 외무부는 오진우 일행의 활동 내용 등 관련 사항 상세를 보고토록 1984.9.1. 주서베를린총영사에게 지시함.

- 주서베를린총영사가 1984.9.5. 동독주재 서독대표부 공사에게 오진우 방독 내용을 타진한 데 대해 동 공사는 동독 신문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알 수 없는 실정이며 구체적 내용 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3. 주미대사는 오진우 동독 방문에 관한 북한 중앙통신 방송 내용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입수, 1984.9.12.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 · 남미 관계, 1984

| 84-053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38 / 21 / 1~98(98p)

1. 볼리비아 주재 한국대사는 볼리비아 · 북한 간 외교관계가 없음에도 리마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들이 볼리비아를 쉽게 방문하고 있어 이들의 방문 목적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 향후 비자 발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1983.11월 및 1984.2월 페루 주재 볼리비아대사를 면담 요청한바, 볼리비아대사는 북한 요원에 대한 비자 문제는 본부 승인 후 처리토록 하는 등의 협조를 약속함.

2. 리마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김찬식 대표가 볼리비아의 친북 의원을 통해 Fernandez 외상 면담을 추진하여 1984.8.29.~9.7. 볼리비아를 방문, 친북 의원들 외에 외상과 외무차관도 면담하였다고 주볼리비아대사가 1984.9.18. 외무부에 보고함.

   ❁ 볼리비아 외상과 외무차관은 사무실이 아닌 개인 주택에서 김찬식과 비공식적으로 만났으며 북측의 수교 요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반응하였음을 확인

3. Lebolo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콜롬비아 국회의원단이 1984.5월 방북하였으며, 1984.9월 Cartagena에서 개최된 77그룹 회의에 3명의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최근 북한-콜롬비아 간 인사교류가 있었음.

   ❁ 반면, 콜롬비아 공산당 전당대회에 참석이 예상되었던 북한대표단이 불참하였고, 리마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김찬식 대표가 콜롬비아 입국을 시도했음에도 1984.12월까지 입국하지 않은 상황

북한 · 동부아프리카 관계, 1984

| 84-05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8 / 22 / 1~99(99p)

1. 모리셔스-북한 관계

- 이용연 주탄자니아 북한대사가 1984.6월 신임장 제정을 위해 겸임국 모리셔스를 방문, 모리셔스 수상의 방한 계획 저지를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한 · 모리셔스 친선협회장의 보고가 접수됨.
- 모리셔스 외무성 측은 모리셔스 수상의 방한 협의를 위해 1984.7.9.~13. 모리셔스를 방문한 주케냐 한국대사관 관계관에게 북한 대사가 모리셔스 외상의 방북을 초청하였으나 외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함.
- 주케냐대사관은 북한대사가 모리셔스 수상 방한계획에 매우 낙심한 인상이었다는 모리셔스 친북단체 간부의 언급, 모리셔스 수상 및 외상 등이 모두 반공, 친한 성향인 까닭에 북한의 책동이 모리셔스 정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는 관찰내용을 1984.7.16. 외무부에 보고함.

2. 지부티-북한 관계

-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이 1984.10.2. 접촉한 지부티 외무성 인사와 주에티오피아대사가 1984.11.29. 면담한 동지 주재 지부티대사는 주소말리아 북한대사가 서한으로 또는 수차례 지부티 방문을 통해 북한 · 지부티 수교를 요청하면서 수교할 경우 도로 건설, 의사당 건축, 체육시설 건설 등 원조를 제의하고 있다고 밝힘.

3. 짐바브웨-북한 관계

- 짐바브웨에서 가톨릭 농촌청년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수녀의 방문을 받고 면담한 주케냐 대사는 짐바브웨에 북한의 영향력이 상존하며 국민동원, 사상교육 등 분야에서 북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이 주목된다고 1984.10.26. 외무부에 보고함.

4. 케냐-북한 관계

- 주케냐대사가 1984.6.13. 및 11.9. 접촉한 케냐 외무성 아주국장은 한국을 지지하는 케냐의 기본 입장과 랑군 사건 강력규탄 입장을 확인하고 중국(구 중공), 우간다, 탄자니아 등 주재 북한대사로부터 케냐 주재 북한 상주공관 설치 책동이 있으나 불허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힘.

5. 탄자니아-북한 관계

- 이종옥 북한 부총리 일행이 1984.10.29.~11.1.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Nyerere 대통령 예방, Mwinyi 부통령과의 회담 등 일정을 통해 경제기술 합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농업과학 연구소 설립 지원, 빅토리아 호수 수리관개 사업 지원 등 농업분야 협력의정서를 체결함.

북한 · 서부아프리카 관계, 1984

| 84-054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38 / 23 / 1~227(227p)

1.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회사절단은 1984.4월 가봉 방문을 희망했으나 가봉 의회는 의회 개회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고 북한이 가봉 외무성 측에 타진한 데 대하여 외무성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2. 외무부는 이종옥 북한 부주석이 1984.10월 기니를 방문, 콘테 국가원수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보도에 따라 이종옥 일행의 방문 여부 등 주시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전체 아프리카지역 공관에 훈령함.

3. 북한 중앙방송이 Beye 말리 외상의 1984.8월 북한방문을 보도한바, 동 외상은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졌으며 만찬에서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 지지 입장을 밝힘.

4. 북한이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에 실험농장 건설,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제의, 북한 대외통상성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사절단이 1984.3월 콩고민주공을 방문, 사업계획 확정을 제의하였으나 콩고민주공 측은 동국 농업차관의 1984.4월 방북 시 협의, 결정하자고 하면서 북한 사절단의 체류기간을 단축시켜 북한 대표단은 귀국 시 불만을 표시함.

5.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84.4.20.~26. 콩고민주공을 방문, 콩고민주공 수상과 국회의장 등을 면담한바, 국회의장과는 양국 의회 간 교류 증진,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투쟁지지 등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함.

6. 주카메룬 적도기니대사는 적도기니의 Nguema 외상과 Obiang 대통령이 1984.7월 및 1984.8월 각각 북한을 방문한 배경에 대하여 서방 측의 원조가 기대보다 미미한 가운데 북한으로부터의 원조 획득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힘.

7. 카메룬 국회의장이 1984.8월 방북하였으며,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은 비동맹 운동, 북한 · 카메룬 협력문제 등 협의를 위해 1984.11월 카메룬 방문을 제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방문 계획의 연기를 통보함.

8. 정준기 북한 부총리가 1984.1월 토고를 방문, 북한 지원으로 건립한 토고 인민연합당 훈련원 준공식 및 토고 해방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바, 북한이 훈련원 건립용 시멘트를 민간에 매각한 사실 등으로 토고 측이 북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가나 주재 미국대사가 한국대사에게 전함.

9. 토고 대통령실 공업 및 국영기업 담당 장관과 외무장관이 1984.4월 및 1984.7월 각각 방북한바, 토고 외무장관은 김일성을 예방하고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지지 등 내용의 토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으며 김영남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함.

북한 · 북구 관계, 1984

| 84-05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38 / 24 / 1~65(65p)

1.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원단이 1984.4월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구제국 순방 예정이라고 노르웨이 국회 측에서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 제보함.
   - 북한 의원단의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방문 계획도 확인되었으나 노르웨이 방문은 취소

2. 덴마크 국회는 덴마크 주재 북한대사가 북한 의원단의 1984.4월 덴마크 방문 의사를 통보, 방문일자에 잠정 합의하였으나 동 일자에 방문하지 않았고, 또 다시 1984.9월 말경 방문을 제의한 후 10월 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데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함.

3. 스웨덴은 외무성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채무상환 교섭단을 1984.2월 북한에 파견한바, 북한이 대스웨덴 부채를 매분기 7천만 크로나씩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행함에 따라 대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됨.
   - 최정근 북한 대외무역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84.11월 스웨덴을 방문하여 스웨덴 대외무역상 면담, 조선소와 자동차 회사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진바,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은 북한이 대스웨덴 부채 일부 상환을 계기로 광산, 에너지 및 조선 분야 등에서 스웨덴과의 경협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측함.

4. 김관섭 대외문화연락위 위원장 등 북한 의원단이 1984.5월 스웨덴을 방문하고 외무위 부위원장 면담, 국회 시설 견학 및 운영현황 청취 등의 일정을 가진바, 국회 간부 면담 시 남북 체육회담, 고려연방제 등에 관하여 언급함.

북한 IPU(국제의원연맹) 대표단 이탈리아 방문, 1984.10.15-20

| 84-054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38 / 27 / 1~13(13p)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IPU 대표단이 제네바 개최 IPU 총회 참석 후 이탈리아 · 북한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1984.10.15.~20.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이탈리아 하원 의장, 상원 부의장, IPU 위원장, 이탈리아 · 북한 친선협회 간부 등을 접촉하였다고 주이탈리아대사가 외무부에 보고함.

1. 상원 부의장 면담에서 북한 측이 무역대표부 개설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부의장은 자신의 소관 밖의 문제라고 대답

2. 이탈리아 IPU 위원장인 Andreotti 외상이 남북대화를 위해 로마 또는 기타 장소에서 남북 IPU 대표단의 만남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손성필은 동의하면서 88올림픽에서 수개 종목의 북한 개최 문제를 제기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및 동구 순방, 1984.5.23-6.21. 전2권. V.1 정세조사

| 84-054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39 / 1 / 1~377(377p)

1. 김일성의 소련 방문

❁ 주일대사관은 김일성이 연내에 소련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고 카피차 소련 외무차관이 주소련 일본 고위 외교관에게 말하였다는 정보를 일측으로부터 입수, 1984.2.25. 외무부에 보고함. 이와 관련, 외무부가 주미, 일, 영, 프랑스 등 재외공관과 주요 우방국 등을 통해 탐문 결과 1984.5월 중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 순방 계획이 확인됨.

- 외무부는 소련이 미·일·중국(구 중공) 간 고위인사 교류 증대를 반소체제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편으로 한·중국 간 비정치 분야 교류 등으로 북한·중국 관계가 다소 긴장되고 있어 북한·소련 양국이 상호 관계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김일성의 방소 배경을 분석

❁ 김일성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강성산 총리, 김영남 외교부장 등 대규모 대표단과 함께 1984.5.23.~25. 소련을 방문, 체르넨코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과 공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총리 등 수행 인사와 소련 각료와의 회담도 개최한바, 미, 일 등 우방국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파악한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은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서의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근래 관행이라는 분석이 제기
- 김일성·체르넨코 회담에서 쌍방은 동북아에서 미·일에 의한 군사위협에 인식을 같이하고 당 차원의 정치·경제문제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
- 소련은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였으나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였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나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양국 총리, 외무 및 국방장관 간의 별도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소련의 경제, 군사원조 문제가 협의되었을 것으로 관측되며, 주소련 미국대사관이 접촉한 중국 외교관은 소련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원유공급 증대 등을 북한에 약속했다고 언급

2. 김일성의 동구 순방

❁ 김일성은 소련 방문 후 1984.5.27.~6.21.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제국을 순방한바, 전체적으로 친선방문 성격이었다는 평가이며, 헝가리 외상은 은퇴하는 원로 지도자가 우방국들에게 고별인사를 하는 방문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함.

❁ 동독, 유고, 불가리아를 제외한 방문국으로부터는 3자회담 제의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등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방문국과의 관계증진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동독 및 불가리아와는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및 동구 순방, 1984.5.23-6.21.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 84-054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39 / 2 / 1~333(333p)

김일성 주석의 1984.5.23.~6.21. 소련 및 동구 순방 관련, 순방결과 보고서와 1984.5.23. 만찬 시 김일성과 체르넨코 소련 공산당 서기장 연설문, 북한 중앙방송 청취록, 순방 일정과 일정별 관련사항을 정리한 일지 등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순방 결과 보고서

❁ 소련방문 종합평가

- 소련이 미 · 일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구 중공)도 간접 비난한 데 대해 김일성은 미 · 일 · 중국, 특히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바, 북한은 대미 · 일 관계를 의식한 전술적 배려와 중국 입장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
- 소련은 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였으나 3자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바,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련이 배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 소련은 김정일 세습체제 문제와 관련,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김일성 방소 실현 자체가 김정일 세습체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 중국 편향으로 인한 북한의 대중 · 소 관계 불균형의 점진적 해소와 북 · 소 간 경제협력의 증대가 예상되며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 특히 신형전략장비 및 무기공급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
- 북한이 88올림픽 방해 책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 · 소련 관계 진전이 한국의 대소련 관계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이나 소련이 한국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 재개를 희망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 주목

❁ 동구 순방(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순방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양자 간 경제 · 과학 · 기술 · 문화 등 제분야 교류 증진에 각각 합의하고 불가리아와는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
- 방문국들은 주한 미군 철수와 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였으나 북한의 3자회담 제안에 대하여는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만이 지지를 표명

2. 순방 일정 정리 일지

❁ 방문, 도착 시 영접인사, 회담 발언 요지, 만찬 시 연설 요지 등 자료 포함

❁ 김일성 · 체르넨코 회담에서 김일성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북한의 제안들을 설명하였고 체르넨코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외세의 간섭 없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북한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언급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미국 [UN] 입국, 1984

| 84-054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39 / 3 / 1~68(68p)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일행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84.9.18.부터 3개월간 뉴욕 체류 목적의 미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고 1984.9.11. 미 국무성 측이 알려온바, 주미 한국대사관은 김영남이 사증 신청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줄 것을 국무성에 요청하였으며, 주유엔대표부는 기자회견 등 김영남의 예상 가능한 책동에 대한 대비를 외무부에 건의함.

2. 1984.9.20. 뉴욕에 도착한 김영남 외교부장은 유엔 활동 외에 Washington Post지의 Oberdorfer 기자와 회견한바, WP지는 10.8. 동 회견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
   - ❁ 3자회담은 미국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전한 외교 메시지를 계기로 추진된 것이라고 김영남이 주장
   - ❁ 북한은 3자회담 구상을 가지고 중국(구 중공)을 통해 미국 측에 회답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 버마사건을 일으켜 대화 전망을 후퇴시켰다고 발언
   - ❁ 김영남은 미국 관리들과 어떤 형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만나기를 희망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상황

3. 김영남은 또한 1984.10.9. 뉴욕 교포언론 미주매일과 회견한바,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은 북한의 허위선전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의 위험성을 미주매일 측에 지적하고, 보도해야 할 입장이라면 한국 정부의 입장도 함께 보도할 것을 요구함.
   - ❁ 미주매일은 랑군 사건이 한국의 조작이라는 등의 김영남 회견 내용을 10.13.부터 8회에 걸쳐 보도하면서 김영남의 주장을 반박하는 미주매일 편집인의 기명 논단을 함께 게재

북한 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4-85

| 84-0546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서남아과
MF번호	2014-39 / 4 / 1~154(154p)

1. 북한 통상사절단

- 최정근 무역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통상사절단이 1984.11.5.~19.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및 인도를 방문함.
- 방글라데시 방문 시 양국이 새로운 바터무역 의정서와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의정서는 북한이 체결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과거 의정서 이행상황 검토 결과 만족스럽지 않아 방글라데시가 거절하였으며, 해운협정의 경우 북한 측이 도착 하루 전 협정안에 동의한다고 알려옴에 따라 서명에 필요한 내부절차 진행시간 부족으로 체결하지 못한바 합의의사록에만 서명
- 인도네시아와는 인도네시아산 고무 3만 톤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 간 각서를 교환한바, 각서는 인도네시아는 가스, 생고무, 팜 오일, 주석, 합판 및 농산물 수출을, 북한은 철강, 비료, 화공약품, 합성섬유의 수출을 제의하였고 양측이 경협, 기술자 교류와 인도네시아의 주석, 니켈, 구리 개발과 북한의 석유가스 개발에 협력의사를 표하였다는 내용임.
- 인도에서는 북한 측이 비철금속, 아연생산 및 원유탐사 분야에 인도의 합작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인도 측은 중공업, 기계공업, 채광시설 및 굴착장비를 북한과의 협력가능 분야로 제시함.

2.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일행

- 전용진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일행이 1984.9.8.~10.1.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및 방글라데시를 방문함.
- 파키스탄 방문 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북한 · 파키스탄 공동위 개최와 양국 간 경제기술 협력 추진에 합의한바, 북한 · 파키스탄 친선강화를 과시하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파키스탄의 지지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관측됨.
- 인도에서는 전용진 부부장이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 북한 대사 10여 명이 참석한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북한대사관 측이 인도 외무성에 연락한 것이 확인됨.
- 네팔 및 방글라데시는 공관 자체감사를 위한 방문으로 파악된바, 네팔에서는 공식일정이 없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외무차관보 주최 비공식 오찬이 있었고 북한 측이 대통령 예방을 요청했으나 방글라데시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호요방(胡耀邦) 중공 당 총서기 북한 방문, 1984.5.4-11

| 84-054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정보2과
MF번호	2014-39 / 5 / 1~250(250p)

후야오방(호요방) 중국(구 중공) 공산당 총서기의 1984.5.4.~11. 북한 방문과 관련된 주일대사관 등 우방국 주재 공관의 관련 사항 파악 보고 및 외무부의 보고자료 등임.

1. 공관 보고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우방의 외교당국은 중 · 미 관계개선과 스포츠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한 · 중 교류에 따른 북한의 불만 무마와 북한의 소련 경사 견제를 후야오방 방북의 주요 목적으로 관측

❁ 일본 외무성 인사는 후야오방이 방북 직후 신화사 통신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정세 분석, 한반도 통일 문제, 3자회담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이 북한 방문 시 협의 의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달

- 중국 외교부 측이 주중 일본대사관에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또 남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

2. 종합 보고

❁ 외무부 간부는 주요언론 논설위원, 학계인사 등이 참석한 주요 외교문제에 관한 간담회(1984.5.15.)에서 후야오방 총서기의 방북 결과를 브리핑

-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및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방중 결과와 이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북한에 설명하고 김일성의 소련 방문을 앞두고 상호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하는 한편, 한 · 중 관계 발전에 따른 북한의 불만을 무마, 북한의 소련 경사를 견제하기 위해 방북
- 김일성은 3자회담 제의를 비롯한 북한의 통일방안을 설명하고 후야오방은 나카소네 수상 및 레이건 대통령 방중 결과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설명하고 3자회담 및 연방제 지지를 표명

❁ 대통령 앞 보고

-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는 한편, 한 · 중 스포츠 교류 등으로 인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여 소련 경사를 견제하는 것이 후야오방 방북의 목적
- 후야오방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및 3자회담 제의를 지지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강조한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불원의 표시로 평가되며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군사협력을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경협문제는 깊이 다루어졌을 것으로 판단
- 한 · 중 스포츠 교류 및 미 · 중 관계 긴밀화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북한은 대중 · 소 등거리 외교 추구가 예상

이시바시 마사시(石橋 政嗣) 일본 사회당 위원장 북한 방문, 1984.9.18-22

| 84-05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9 / 6 / 1~153(153p)

1. 이시바시 마사시 일본 사회당 위원장은 1984.9.18.~22. 방북 기간 중 8시간에 걸친 김일성과의 단독 회담 등 국빈에 준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바, 동인의 귀국 기자회견과 일본 외무성을 통해 파악한 동인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북한 측의 환대는 사회당에 대한 신뢰와 대일본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사회당을 통한 국제적인 이미지 구축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
- 랑군 사건을 이유로 일본이 북한 대표단 입국을 거부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일 · 북 민간어업협정 문제는 김일성이 북한에서 회담을 개최해도 좋다고 양보한바, 성어기까지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최고 방침은 김일성이 결정하나 실무사항은 김정일이 결정한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김일성은 통일문제에 낙관적인 견해를 표하고 그 이유로 홍콩의 중국 귀속 교섭의 예를 제시
- 사회당으로서는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는 해제되어야 하며 정부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고 언급

2. 외무부는 1984.9.28. 작성한 보고서에서 상기 북한의 환대에는 사회당의 한국 접근 움직임 사전 저지, 유화정책 선전으로 대외 이미지 개선, 대일관계 개선의사 전달 등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주일대사관 공사는 9.28.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 방일로 구축된 양국 간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일본이 대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전달

3. 한편 주일대사관 관계관이 1984.10.8. 및 10.4. 각각 접촉한 사회당의 소가 부서기장과 무토 산지 의원은 이시바시 위원장이 사회당의 한국과의 교류 불가피성을 김일성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하에 방북하였으나 김일성의 극진한 환대에 눌려 그러한 뜻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고 사회당 내 분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견해라고 말함.

북한의 대외경제 및 군사원조 동향, 1984

| 84-054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39 / 7 / 1~67(67p)

1. 외무부는 북한이 랑군 사건 이후의 정치 · 경제 · 외교적 3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채의 일부상환을 통한 대외적 신용제고 및 합작투자 유치 등 대서구제국 경제 침투를 적극화하는 한편, 개도국 1차 산품 정책수입, 중계무역 및 무기판매 등을 통해 경제난 해결을 시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1984.5.22. 재외공관에 알리고 적극 대처 및 북한 특이동향 보고를 훈령함.

2. 북한의 대외 경제 · 군사원조에 관한 자료가 1984.6월 입수되어 외무부 내 관련 부서 간 공유된바, 동 자료는 선택과 집중 등 북한 대외원조의 특징과 함께 북한의 대외 무기 공급이 3년 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북한의 해외파견 군사요원이 기술 전문가, 전술공군 요원, 고문단의 3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고, 1983년 말 현재 450명이 제3세계에 파견되어 있음을 보여 줌.

3. 주미대사관은 국제 테러, 무기거래 등에서의 북한의 역할과 적화야욕 실현을 위한 김일성의 대남 모험 가능성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MARA(Mid-Atlantic Research Associates) 간행 자료를 1984.9.26. 외무부에 송부함.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 · 중공간의 교역, 1984

| 84-055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9 / 8 / 1~231(231p)

1. 중국(구 중공) 대련항의 화물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청진항을 경유하는 일 · 중 무역항로 개설이 1982.3월 이래 일본의 이이노 해운 등 일 · 중 · 북 3개국 관련사 간 추진된바, 한국은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동 항로 개설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82.3월부터 1983.11월까지 동 항로개설 저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교섭함.
   - ❁ 일측은 해운자유 원칙에 따른 일본 국내법상 동 항로개설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1983.11월부터 동 항로 운항이 개시

2. 외무부는 청진항 경유 일 · 중 무역이 일 · 북 접근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동 항로 구상에 참여한 일본 이이노 해운 소속 선박의 한국 입항 금지조치를 1984.5월 교통부(해운항만청)에 요청하고 해운항만청은 관련 조치를 취함.

3. 이이노 해운 측은 일본 정부에 한국 입항 금지가 해제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일대사관을 방문, 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협조를 요청해 온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제재조치는 당분간 계속하되 일본 정부가 동 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해 올 경우 대일본 및 대중국 관계 차원에서 해제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함.

4. 이이노 해운이 부산 소재 대선 조선소에 발주한 6,800톤급 벌크선 문제는 동 선박이 이이노 소속 선박의 한국 입출항 금지조치 이전 발주한 것이므로 출항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취하여 1984.12월 인수, 출항할 수 있도록 함.

일본 · 북한 경제관계, 1984

| 84-055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9 / 9 / 1~127(127p)

1. 주일대사관이 1983년도 일 · 북한 교역 현황을, 주니이가다 총영사관과 고베 총영사관이 무역통계 자료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1983년 일본의 대북 수출은 776억 엔(약 3억2천7백만 달러), 수입은 300억 엔(약 1억2천6백만 달러), 합계 1,076억 엔(약 4억5천3백만 달러)으로 전년도에 비해 수출은 4.4% 증가하고 수입은 20% 감소함.

2. 북한의 신규차관 교섭단 파견 등 움직임에 따라 북한의 대서방 채무상환 동향을 파악한바, 북한은 일본에 대해 1976.12월 채무 지불을 연기하였으며 그 후 교섭을 통해 1980.6월말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2회씩 20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고 1983.2월 상환일정을 재교섭, 합의하였으나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 주일대사는 일본 업계가 북한의 대일 수출이 부진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순조로운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

일본 · 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V.1. 1982년도

| 84-0552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9 / 10 / 1~182(182p)

1. 일 · 조 의원연맹 구노 쥬지 회장이 1982.3.11. 스즈키 수상에게 일 · 북한 민간 잠정 어업합의 연장교섭을 위해 현준극 당국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으나 일 정부는 현준극의 방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한 · 일 경협문제 해결 후 북한 대표단의 입국을 허가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 동 잠정합의(통칭 일 · 북한 민간 어업협정)는 1977.8.1. 북한의 200해리 경제수역 실시를 계기로 1977.9.6. 일 · 조 의련 대표단 방북 시 일 · 조 어업협의회와 북한 동해수산 협동조합 간에 서명, 이후 2차 연장되었고 군사경계수역을 제외한 북한의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

2. 주일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일본 외무성 측은 현준극의 입국은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대표단 자체의 입국을 막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바, 한국 측은 아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하여 북한 대표단의 일본 입국 불허를 강력히 요청함.
   - ❁ 일 · 북한 민간 잠정 어업합의는 한 · 일 기본조약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 합의 자체에 반대하며 북한 대표단 방일 허용은 한 · 일 양국 관계에 극히 위험스러운 일
   - ❁ 현준극은 물론 여타 인원의 방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한 · 일 경협문제와 연결시켜 고려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

3. 일본 정부는 현준극 입국 거부 시 북한이 대표단 자체의 입국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현준극의 입국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북한은 대표단 방일을 보류함.

4. 동 잠정 어업합의가 연장조치 없이 1982.6.30. 기한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 · 조 의련 측이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거부 반응을 보였으며 잠정합의는 기한 만료, 실효하고 북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들은 철수함.

5. 1982.12월 일본 외무성이 현준극을 순수한 사적 자격으로 방일시키는 방법 등 잠정 어업합의 교섭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합의서의 체결 또는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측에 다시 전달한바, 일본 외무성 측은 일본 정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으며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6. 한편 1982.5월 및 7월 일본 어선 3척이 각각 북한에 의해 나포되었고 벌금 지불 후 석방됨.

일본 · 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V.2. 1983-84년도

| 84-0553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9 / 11 / 1~98(98p)

1. 1983.1월 일본 정부가 현준극(조 · 일 우호촉진 친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어업 교섭단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 관련, 주일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확인한바, 외무성 측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방침(현준극 입국 불허)에 변화가 없다고 말함.

2. 일본 사회당의 요네다 토오고 중의원과 일 · 조 어업협의회 이시다 요오가즈 고문이 1983.1월 북한을 방문하여 현준극의 방일 초청 의향을 전한바, 북한은 한일 관계에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나카소네 수상 방한 발표)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좀 더 검토코자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

3. 아베 일본 외상이 국회 답변에서 북한과 정치가의 교류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 외무성 측은 종래부터 해오던 국회의원 교류를 지칭한 것으로 대북 교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바, 동 발언은 일 · 북한 관계 최대 현안인 현준극의 방일 문제를 의식한 면이 큰 것으로 해석됨.

4. 다니 일 · 조 의원연맹 회장 대행과 하세가와 일 · 조 어업협의회 회장이 1984.10월 방북, 교섭하여 일본 측의 일 · 조 어업협의회와 북한 측의 조선 동해수산협동조합 연맹 간에 일 · 북한 민간어업협정을 타결, 10.15. 서명한바, 기존 협정(1982.6.30. 기한 만료로 실효)과 유사한 내용에 양측 어업 당사자 간 공동위원회 설치 조항이 추가됨.

일본의 대북한 어선 밀수출, 1984

| 84-055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39 / 12 / 1~14(14p)

1. 일본 경찰은 124톤급 화물 냉동운반선을 북한에 밀수출한 후지산업 사장 등 3인의 일본인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1984.1.18. 체포한바, 이들은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어선을 수출 승인이 간단한 화물선으로 개조하여 북한 대성무역상사에 밀수출함.

2. 주고베총영사관은 동 체포 사실과 함께 일본 경찰 당국이 같은 방법으로 10여 척의 어선이 밀수출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고 또한 북한 공작원과의 관련 가능성도 추궁하고 있다는 1984.2.3. NHK 뉴스를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동건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2.11. 주일대사에게 훈령하였으며 주일대사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북한 공작원과의 관련 여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2.16. 보고

북한산 인삼제품 미국내 불법거래 문제, 1983-84

| 84-055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4-39 / 13 / 1~55(55p)

1. 주유엔대표부가 미국 재무성의 Foreign Assets Control 뉴욕사무소 책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무역 및 선적이 금지된 북한산 인삼제품이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동인에게 알려 1983.2월부터 북한 상품 거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됨.

- 뉴욕사무소 책임자는 차이나타운에서 판매되는 북한 인삼제품이 홍콩 및 일본에서 재포장, 선적되어 미국에 반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홍콩 소재 거래상 Lee Yuen Cheong Co. Ltd.의 소유주 등을 확인해 줄 것과 북한산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한국산 홍삼뿌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바,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한 홍콩 소재 거래상 정보와 전매청으로부터 받은 인삼을 미국 측에 제공

2. 미국 측은 동건 수사가 완료되었다고 1984.4월 알려온바, 뉴욕지역 거래 북한 인삼은 약 20% 정도가 순수 북한산이고 나머지는 일본산 가짜 제품이었으며 수사 개시 이래 차이나타운에서 북한산 인삼제품이 거래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함.

3. 차이나타운 소재 2개 수입 및 도매회사가 유죄를 인정한바, 1984.4.19.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중 한 회사 및 회사 소유주에게 벌금 1만5천 달러, 최고 2년 징역형 및 벌금 5천 달러의 유죄 평결이 각각 내려지고 나머지 1개 회사에 대한 판결은 회사주의 신병으로 연기됨.

북한의 대구주 부채 상환 교섭, 1984

| 84-05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정보2과
MF번호	2014-39 / 14 / 1~149(149p)

1. 북한이 대서방 외채상환 및 신규차관 획득 교섭단 파견 등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유럽의 대북한 채권국과 일본 주재 공관을 통해 북한의 채무 총액, 최근 상환액 또는 상환연기 내용, 북한의 채무상환 저의에 대한 이들 국가의 평가 등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책에 대한 공관 의견을 문의함.

2. 북한은 1983년 말 현재 대서방 채무 22.75억 달러 중 오스트리아 약 88백만 달러, 서유럽 은행단 약 5천만 달러 등 약 1.68억 달러를 1984.8.30. 현재 상환하고 서유럽 은행단, 프랑스, 서독, 핀란드, 벨기에 등과 분할상환 계획에 합의한바, 이는 채무 일부 상환을 통해 국제금융 및 무역거래에서의 북한 기피분위기를 해소, 랑군 사건 이후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대서방 기술도입 재개 등 다목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됨.

주체사상 국제 세미나. Lisbon, 1984.4.6-8

| 84-05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40 / 1 / 1~167(167p)

1. 주포르투갈대사관은 북한대사관이 리스본 시내 호텔 리셉션 룸을 예약한 사실을 파악, 포르투갈 외사 경찰로부터 주체사상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the Juche Idea)가 1984.4.6.~8. 개최됨을 확인함.

2. 주포르투갈대사관은 주재국 언론에 대한 대응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포르투갈 외무성과 내무성을 접촉, 동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현지 공항에서의 사증발급 불허 등 가능한 조치를 요청한바, 포르투갈 측은 국제회의의 경우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하여 왔으며,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고 포르투갈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 감안할 때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한 입국거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

3. 주체사상 국제세미나 포르투갈 조직위 및 주체사상 국제연구소가 주최한 동 세미나에는 황장엽 당 중앙위 비서 등 북한 대표 40여 명 포함, 70여 개국 약 300명이 참석한바, 주포르투갈대사관은 동 세미나가 랑군 사건 이후 실추된 북한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책동의 일환이며 포르투갈 정부 및 일반대중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와 함께 세미나 참석자 명단, 관련 언론기사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김일성 퇴임설 관련 대책, 1984

| 84-055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0 / 2 / 1~106(106p)

1. 북한은 1983.12월 김영남 당 국제부장의 외교부장 기용 등 고위 핵심간부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시행하고 1984.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종옥 총리를 부주석으로, 강성산 제1부총리를 총리로 기용하는 개편을 단행한바, 외무부는 동 개편이 외교 열세 만회를 위한 외교 전열의 보강,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체제정비 등과 함께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 강화를 목표한 것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1984.2.2. 재외공관에 통보함.

2.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외무성의 고위관리가 1984.6.20. 및 6.21. 동국 주재 일본대사관 고위인사에게 김일성의 건강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주석직을 물러나 명예적인 지위에 취임할 것 같다거나 김일성의 소련 · 동구 순방은 머지않아 은퇴하고 김정일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라고 의미부여 할 수 있다고 각각 언급하였음을 주일대사관이 일본 외무성 관계관으로부터 1984.6.23. 확인, 외무부에 보고함.

3. 안기부에서 김일성 사후 대책 관계부처 회의가 1984.7.11. 개최되어 관련 정세와 대응에 대해 논의한 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한 외교환경 조성 등의 대응방안이 제시됨.

4.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 관련, 김일성 생존 중 승계의 경우 김일성 신격화 및 항일투쟁사 등 민족 역사의 날조, 세습왕조 구축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김일성 사후 김정일 승계 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야기한 전쟁범죄자로서의 김일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계태세와 대동구권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한다는 요지의 대책서가 작성되었고, 외무부는 미 · 일 정부와의 협조, 비상근무태세 돌입, 대북 및 대외정책 관련 중 · 장기 대책 등 외무부 소관 시행계획을 1984.8월 작성함.

5. 안보정세보고회의가 1984.9.20. 개최된바, 대통령은 이미 김정일을 실질적 통치자로 본다는 견해와 함께 미국은 한국 안보의 주축이므로 각 부처가 총동원되어 대미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며 대미 유대를 희생으로 하는 한 · 소 관계 개선은 절대 금물이라는 요지로 언급함.

북한 9.9절 기념행사, 1983

| 84-0559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0 / 3 / 1~226(226p)

북한은 해외공관을 통해 9.9절 계기 각국 축하 사절단 방북을 초청하는 한편, 대사관, 대표부 등 북한 해외공관 주최 리셉션, 친북단체 주최 경축 집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진바, 정부 사절단 58, 의회 사절단 11, 공산당 등 정당 사절단 23 등 92개 사절단이 방북한 것으로 집계됨(북한 발표 사절단 수는 116개국 270개).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V.1. 1-4월

| 84-05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정보문화과
MF번호	2014-40 / 4 / 1~433(433p)

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가 1984.1.25.~27. 개최된바, 이종옥 총리가 부주석으로, 강성산 제1부총리가 총리로 기용되는 등 요직 개편이 있었고 남남협조를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협력 확대문제를 의제로 토의, 대외경제협력을 강조함.

- 일본 외무성은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실무파의 약진, 김일성 일족의 중용 등을 요직 개편의 특징으로 보고 있음을 주일대사가 보고하였고, 외무부는 랑군 사건 이후의 외교적 곤궁 타개 및 외교 열세 만회를 위한 외교전열의 보강, 심각한 경제난국 극복 위한 체제 정비, 김일성 부자 세습 · 족벌체제 강화를 개편의 목적으로 분석
- 대외경제협력 강조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북한 경제의 자력갱생이 한계에 이르러 서방기술 도입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대외경협 제의가 북한의 본심일 수도 있으나 중국(구 중공)과는 달리 문호개방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대외경협을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2. 중국에 편향되어 있던 북한의 대소련 관계가 1984년 들어 증진되는 경향이 주목된바, 북한 · 소련 관계 증진이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안보위협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나 동북아의 평화를 원하는 소련이 한국군 장비보다 우수한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분석됨.

- 1984.5월 방소가 예상되고 있는 김일성은 1984.3.31. TASS 통신사 대표단과의 회견에서 소련의 북한 통일방안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소련과의 친선, 단결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련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3. 김일성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남침 의사 없다는 등 북한의 대외 선전과 관련, 이를 랑군 사건으로 실추된 북한의 이미지 개선, 한국민의 경각심 약화 및 국론 분열 유도, 3자회담 제의에 대해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등의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호전성과 북한 선전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함.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V.2. 5-12월

| 84-05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정보문화과
MF번호	2014-40 / 5 / 1~361(361p)

1. 국제해사기구(IMO) 제52차 이사회에서 다루어질 북한의 동 기구 가입문제 관련, 한국은 북한가입 저지 차원에서 동 가입문제 토의 연기를 추진한바, 일본은 한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토의 연기에 대한 이사국들의 반응이 소극적이며 동 연기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패배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평가라고 하였으나, 이사회는 1984.6.13. 찬반 토의 후 막후 절충에 따른 의장의 제안으로 북한 가입문제 심의를 1년간 보류하기로 결정함.

2. 북한이 1984.9월 합영법을 발표한바, 정치 면으로는 김정일 후계체제 활로 모색, 경제 면으로는 남북한간 경제격차 해소 등이 동법 제정의 주요 동기로 분석됨.

❁ 일본 외무성 측은 합영법 발표를 북한의 경제개방 의도로 보아 환영하나 북한 시장의 협소, 북한에 대한 신뢰 결여 등에 비추어 일 · 북한 경제관계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응

3. 북한은 1984년 중 한국의 2~3배에 달하는 방문 · 초청외교, 김일성의 소련 · 동구 순방 및 후야오방(호요방) 방북, 미국을 겨냥한 3자회담 제의, 합영법 제정과 대서방 채무 일부상환, 체육회담과 수재지원 제의 등 활발한 대외정책을 보임.

❁ 외무부는 1984년 북한외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북한외교의 목표를 대서방 접근과 경제력 증강, 세습체제 공인, 88 올림픽 개최 방해 등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남북대화의 지속, 서방의 성급한 대북한 접근 자제 촉구, 대공산권 관계 개선 등을 제시

북한관련 일본 언론보도 동향, 1984. 전3권. V.1. 1984.1-4월

| 84-05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일본담당관실/정보2과
MF번호	2014-40 / 6 / 1~160(160p)

1. 주일 공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요직개편, 3자회담 제의, 중국의 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계획 등 북한 관련 일본 언론 기사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해 1984.1.12. 아사히 신문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움직임이나 북한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본 외무성의 반응이라고 보도하면서, 한국이 다시 한 번 대국적 견지에서 이번 제안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요지의 사설을 게재
- 주니치 신문은 중국(구 중공)을 방문 중인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후야오방 중국 총서기에게 김일성 명의 방북초청을 전한바, 과거 비밀리에 이루어진 중 · 북한 수뇌의 상호 방문을 이렇게 사전 공표한 것은 희귀한 일이라고 1984.2.15. 보도

2. 북한은 김정일 사진과 함께 김정일의 약력과 업적, 11년제 무료교육 실시 등을 선전하는 광고기사를 1984.2.16. 고베 신문에 게재한바, 조총련계 조선신보가 2.22. 동 광고기사를 고베 신문의 취재기사로 위장 보도, 배포함에 따라 주고베총영사는 2.25. 고베 신문 편집국장에게 이를 지적하고 통일일보는 조선신보의 허위보도를 폭로하는 사설을 게재함.

북한관련 일본 언론보도 동향, 1984. 전3권. V.2. 1984.5월

| 84-056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일본담당관실/정보2과
MF번호	2014-40 / 7 / 1~236(236p)

후야오방 중국 총서기 방북, 김일성 소련 및 동구 순방,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남북 체육회담 등 북한 관련 일본 언론보도에 대하여 주일대사관 및 주고베총영사관 등이 외무부에 보고한 문건인바, 주요 보도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1984.5.18. 중의원에서의 나카소네 수상 발언(마이니치 신문)
-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바, 한국은 랑군 사건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 가능

❋ 1984.5.29. 고베 신문 사설
- 김일성의 방소로 북한이 소련에 가까워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중국(구 중공)에서 떨어져나가 소련에 급 접근했다는 견해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

북한관련 일본 언론보도 동향, 1984. 전3권. V.3. 1984.6-10월

| 84-056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일본담당관실/정보2과
MF번호	2014-40 / 8 / 1~264(264p)

김일성의 소련 · 동구 순방, 북한의 LA 올림픽 불참, 북한 3자회담 제의, 김일성의 대일 관계개선 희망 표명, 일 · 북한 민간어업협정 대표단 방일 문제 등 북한 관련 일본 언론 보도기사임.

2원적 교차승인 (한강개발계획) 1984

| 84-056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4-40 / 9 / 1~256(256p)

1. 전두환 대통령은 1984.9.19.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계획 보고 시 한 · 중국(구 중공) 및 일 · 북한 교차승인과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교차접촉 추진을 지시한바, 외무부는 그간 검토해 온 교차접촉 내지 교차승인 문제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1984.11월 동 지시 이행을 위한 아래 요지 시안을 작성함.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교차승인과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 교차접촉이 필요한바, 4강을 미국과 소련, 일본과 중국으로 연계 추진하되 미 · 소 관계 등에 비추어 소련의 한국승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감안, 일본과 중국의 남 · 북한 교차승인을 우선적으로 추진

❋ 86 아시안게임 전후 교차접촉 본격화, 88 올림픽 전후 교차승인 달성 등을 위해 4~5년 목표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 후 추진

❋ 일본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공고해진 한일 관계 및 나카소네 수상과의 친분관계, 일 · 중 관계 긴밀화 등 긍정적 측면과 일본의 정치적 역할 확대, 선량한 중재자로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 한국민의 대일 불신감 등 부정적 측면이 있는바, 일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의 측면협조 및 대중국 직접접촉을 병행 추진

2. 교차승인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 외무장관은 1984.11.19. 워커 주한 미국대사에게 동 구상을 제시하고 미국 측 견해를 요청한바, 한미 간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미 국무성이 관계공관의 의견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미국의 1차적 반응이 11.27. 워커 대사를 통하여 외무장관에게 전달

❋ 1984.12.7. 미국의 공식 견해가 전달된바, 미국은 동 방안을 일본과 협의하는 데 이의 없으나, 북한의 반대로 중국이 동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남북대화의 진전이 이루어진 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입장

❋ 한국은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레이건 대통령 앞 친서를 발송하고 1984.12.11. 주미대사가 동 친서를 월포위츠 미 국무성 차관보에게 전달한바, 동 차관보는 미국의 최종 입장 접수 전에 한국이 일본 정부에 동 구상을 전달한 데 대해 놀라움과 불만을 표시했고,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나카소네 수상이 1985.1.2. 미일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일본에 대한 사전 통보 이유를 설명

- 동 구상은 1984.12.1. 나카소네 수상에게 제시되었으며, 아세안 4개국 순방 후 귀로에 일본을 방문한 외무장관이 아베 외상에게 설명한바, 아베 외상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표명

❋ 레이건 대통령은 상기 전두환 대통령 친서에 대해 북한이 완강히 반대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 구상을 시행함에 있어 시기와 전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1984.12.28.자 회신을 보내왔으며, 워커 미국대사는 동 회신 전달 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수락할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동 구상에 반대하지 않음을 표명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V.1 1-4월

| 84-0566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국제연합과/동북아1과/서구1과
MF번호	2014-40 / 10 / 1~237(237p)

1. 슐츠 미 국무장관의 1983.2.6. 방한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 한반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심각한 위협과 긴장이 상존한다는 점에 한·미 간 상호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레이건 대통령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한국 측에 전달
- ❋ 교차승인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나 교차승인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양국이 공동으로 신중히 모색키로 합의
- ❋ 미·일·중·소가 동시에 남북한을 승인하는 기존 교차승인 정책을 미국 정부가 수정해야 하는 바, 이에는 절차가 필요
- ❋ 슐츠 장관은 북한 군사력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과중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2. 1983.2.17. 이범석 외무장관은 아베 외상 앞 친서에 슐츠 미 국무장관의 방한 결과를 설명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슐츠 장관을 통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
- ❋ 교차승인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바, 이 문제는 이지역의 정세변화 추이 등 관련사항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분간 거론치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일치

3. 1983.4월 아베 외상은 강연에서 일본이 남북한 간 교차승인의 진전을 위해 역할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바, 외무부는 동 발언에 대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에도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본의 외교력을 부각
- ❋ 본건이 일·중국(구 중공)에 의한 단계별 승인방식으로 논의되는 점을 고려, 일본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을 모색
- ❋ 교차승인이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 본건을 계속 거론함으로써 일·북한 교류에 대한 안전판 구실 확보

4. 본 문건에는 남북한 교차승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와 관련된 국내 언론보도, 주일대사관에서 외무부에 보고한 현지 언론보도 기사 등이 편철되어 있음.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V.2 5-11월

| 84-0567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국제연합과/동북아1과/서구1과
MF번호	2014-41 / 1 / 1~235(235p)

1. 1983.5월 외무부는 남북한 교차접근에 관해 북한이 미국, 일본에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소련 및 중국(구 중공)에 대하여는 한국과의 접근을 적극 저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관측함.

2. 1983.5.25. 외무부는 남북한 교차접근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방안은 북한의 거부로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차화해(Cross Rapprochement) 또는 교차접근(Cross Access)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
- ❁ 한국의 대공산국 접근 속도 및 밀도보다 미 · 일 · 서구의 대북한 접근 선행 방지로 교차접근의 Balance 유지가 필요
- ❁ 교차접근 방식은 남북한의 이해가 상응하는 대상끼리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 동구제국의 대한국 관계개선과 EC 제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 동 · 서독의 남북한 교차승인
  - 한 · 중국 접근과 일 · 북한 접근
  -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

3. 1983.6월 외무부는 남북한 교차접근에 관한 아래 내용의 Talking Paper를 작성함.

- ❁ 한국은 6.23선언 이후 서방 측의 북한과의 교류는 크게 확대되어 남북한 교차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측이 질적, 양적으로 모두 한국에 월등히 앞선 것으로 판단
- ❁ 이와 같은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해 가는 것으로 오판, 남 · 북 대화를 더욱 기피하고 지역 내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
- ❁ 따라서, 우방 제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자제하고 북한의 접근요구에 대해서는 한국과 공산권과의 접근촉진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북한이 한국의 대화 노력에 응해 오도록 유도하여 줄 것을 요청

7.4 남북 공동성명 11, 12주년 대북한 성명 홍보, 1983-84

| 84-056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1 / 2 / 1~68(68p)

7.4공동성명 발표 11, 12주년에 즈음하여 1983.7.4. 및 1984.7.4. 각각 발표된 남북조절위 서울 측 위원장 대리(민관식) 명의 아래 요지의 대북성명을 전 재외공관에 송부하여 대외 홍보한바, 동 성명 전문과 해외 언론 보도에 관한 공관 보고가 수록되어 있음.

1. 11주년 성명 요지

- 북한 측은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 공동성명 기본정신을 유린
- 한국 측은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의 재개를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하였고 또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
- 북한 측이 7.4공동성명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무조건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촉구

2. 12주년 성명 요지

- 북한 측은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 공동성명 기본정신을 유린
- 한국 측은 80년대에 기필코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
- 북한 측은 버마(랑군) 사건에서 보듯 야만적인 폭력도발로 응수해 옴으로써 다시 한 번 공동성명 정신을 유린하였으며 3자회담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내외 여론을 기만
- 북한 측이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추구한다면 버마(랑군)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하루 속히 남북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의 UN 경제사회 이사회 자문지위 획득 문제, 1983-84

| 84-056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1 / 3 / 1~103(103p)

1. 1천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은 1983.11~12월 유엔사무총장 등 유엔 인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서독 내독성,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적십자사 인사 등을 만나 이산가족 재회 추진문제를 설명, 협조를 구하였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문지위 획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함.
   - ❋ 추진위원회는 해외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외무부는 지부장 추천 등 지부 결성에 협조
   - ❋ 추진위원회는 1984.4.10.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엔 NGO 위원회 의장(주유엔 코스타리카 차석대사)을 기조연사로 초청

2. 주유엔대표부는 관련 경험이 있는 영국대표부 인사, 사무국 NGO 담당 과장 등을 1984.2월 접촉한 바, 이들은 자문지위를 신청하는 단체의 성격 및 목적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이고 비정치적일 것, ECOSOC 산하기구 회의 참석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실적이 있을 것, 본부 및 지부 소재지 국가에서 광범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설명하고 소련 등 동구권의 태도를 예측할 수 없으며 북한의 대응 책동도 예상된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피력함.

3. 외무부는 자문지위 획득을 위한 요건 중 국제적 성격 문제와 관련, 한국 교포로 구성된 해외지부 설치만으로 국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 재회추진위의 ECOSOC 자문지위 획득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여 국제적 성격 구비 및 활동실적 축적 등 요건을 갖춘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1984.4.6. 결정함.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1 사전준비 I

I 84-0570 I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경제기구과/북미과
MF번호	2014-41 / 4 / 1~321(321p)

1. 전두환 대통령이 1984.7.6. 대북 차관 및 원조제공 용의 표명 문제 검토를 지시하여 청와대, 안기부, 외무부, 통일원 등 유관부처 실무대책회의에서 협의한바, 이러한 용의 표명이 한국 국력의 대북한 우위를 과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북한 측이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로 동 제의가 선전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남북한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제의할 것을 건의함.

2. 대통령은 1984.8.20.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을 제의함.

3. 상기 제의 실현을 위해 남북경제회담을 제의하는 신병현 부총리 명의 서한을 1984.10.12.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전달하였으며, 북한 측은 11.15.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자는 김환 정무원 부총리 명의 회신을 10.16. 보내옴.

4. 국토통일원이 작성한 남북경제회담 기본대책은 회담의 제1차적 목적을 전쟁의 억지 및 남북관계 개선에 두고 당국 주도로 운영하며 정치적 문제 거론을 배제한다는 등의 기본전략하에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구성, 대표단 교육훈련 계획 등을 마련함.

5. 북한의 예상태도와 한국의 기본전략, 교역대상 품목 선정 등 상품교역 관련 사항,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을 담은 남북경제교류 추진계획(안)이 해외협력위원회와 남북경제회담대비 경제실무작업반에 의해 작성됨.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2 사전준비 2

| 84-057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경제기구과/북미과
MF번호	2014-41 / 5 / 1~437(437p)

1984.11.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준비를 위해 작성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계획과 남북한 교역·경제협력 관련 제반 합의서(안)가 관련 부서 간 협의내용과 함께 수록되어 있음.

1.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계획

- ❋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은 남북한 상호 번영, 중국(구 중공) 등 대공산권 교류 촉진, 한국의 체제와 경제적 우위 북한주민에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
- ❋ 북한은 3자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경제난 타개를 위한 돌파구 등 정치, 경제적 이유로 남북경제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체제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경제체제의 우열을 반영하는 분야는 기피할 것으로 예상
- ❋ 한국은 정치적 성격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경제적 실리에 바탕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며 실현이 어려운 합작투자보다는 상품교역을 우선 추진
- ❋ 수입은 북한의 수출의존도가 높으면서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수출은 북한이 수입하는 품목 중 한국이 수출하거나 수출여력이 있으며 군사 목적 전용 가능성이 적은 품목 등으로 추진
  - 교역대상 품목 적시하고 결제방법 등 교역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 제시
- ❋ 남북한 경제체제 및 관련법규 상이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위해 교역약정 체결이 필요

2. 남북 간 제반 약정(안)

- ❋ 남북 간 교역이 결제,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외국 간 거래에 가까우나 국내법 체계상 내국 간 거래로 간주한다는 입장하에 남북 간 교역에 관한 약정, 투자에 관한 약정, 경제협력에 관한 약정, 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약정,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 등 제반 약정(안)을 검토, 작성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3 결과보고

| 84-05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경제기구과/북미과
MF번호	2014-41 / 6 / 1~305(305p)

1.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과 리성록 북한 무역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 간의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1984.11.15.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기조연설 및 토의가 진행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회담 공개 문제, 보도, 기록 등 운영, 절차 문제 합의
- ❁ 회담 의제가 주요 쟁점이 된바, 한국 측이 남북 간에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와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2개 항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 측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것에 대하여 제시
  - 토의 과정에서 남북 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절충 중 북한 측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 ❁ 양측이 물자교역 문제에서 각각 판매 및 구입희망 품목을 제시하였으며 합작투자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힌바, 북한은 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제시

2. 국토통일원은 회담 결과 보고를 통해 북한 측이 유연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교역보다 경제합작에 중점을 둔 것은 교역의 경우 북한 경제수준의 상대적 열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며, 북한이 구매 희망 상품으로 중간재만 제시하고 일용품과 공업완제품을 제외한 것, 합작사업에서 제조업 분야를 제외한 것 등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함.

3. 외무부 내부자료 북한 대외동향의 새 양상과 대책 및 북한의 대남전략 분석과 우리의 대응책에는 1984.9월 한국에 대한 수재구호물자 제공 제의, 1984.10월 남북경제회담 제의 수락, 대서방 접근노력 강화, 합영법 제정 등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외동향을 분석하고 남북경제회담의 경우 가장 정치적 부담이 적고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으며 이를 합영법 실시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함.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V.4 홍보 및 각국 반응

| 84-057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경제기구과/북미과
MF번호	2014-41 / 7 / 1~158(158p)

1. 남북대화(1984.11.15. 남북경제회담, 11.20. 남북적십자회담)를 앞두고 정부 관계부처 간 토론 및 협의를 거쳐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함.

❁ 청와대 정무 1수석 주재하에 1984.11.5. 개최된 관계부처 홍보대책회의는 북한의 동향 및 국내외 여론 등을 분석, 북한이 무력남침 · 대남적화 기본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를 대외 · 대남 위장술책의 하나로 악용할 것이 명백하다는 인식하에 다음 요지의 대책 수립

- 대화재개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의 대북 적극적 포용자세 과시 · 부각
- 남북대화 재개를 전두환 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 및 집념의 성과로 부각
- 북한의 대화호응 저의, 대화의 불가피성 등 북한의 속사정과 배경을 국내외에 실증적으로 설명, 공감 획득
- 남북 간의 실질적 교류와 쌍방 대표 왕래를 촉구
- 해외홍보에서는 외교 ·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남북대화 재개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등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의 소산임을 강조
- 대화가 북한의 터무니없는 고집과 실현 가능성 없는 제의로 장기화 또는 난관 봉착 경우 반격 역홍보 공세 강화

❁ 문화공보부는 대화 초기단계에는 한국의 기본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 선점, 난관 봉착 시 북한의 성의 촉구 및 규탄홍보 강화 등 단계별 전략과 대통령의 통일경륜 중점 부각 등을 홍보의 초점으로 하는 해외홍보 단기시행계획을 작성

2. 외무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온 저의를 김일성 부자 권력승계 정지 작업, 경제난국 타개 돌파구, 서방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진의와 진지성이 입증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구체적 전망이 서고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주재국이 대북한 관계 진전을 자제하도록 외교 · 홍보 노력을 전개할 것을 1984.11.7. 전 재외공관에 훈령함.

3. 외무부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 정리한바, 미 · 일 등 주요 언론은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일단의 의구심을 표하는 가운데 대화계속 합의, 경제회담에서 쌍방 구체적 제안 교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신화사 통신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고무적인 시도라고 보도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UN사무총장의 중재 역할 활용 추진, 1980-84

| 84-0574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1 / 8 / 1~307(307p)

1. Perez de Cuellar 유엔 사무차장은 1980. 1월과 2월 주유엔 남북한 대사를 각각 만나 남북대화 움직임(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관심을 표하고 한시해 북한대사에게 남북대화 관련 사무총장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통보하였고, 한시해 대사는 외군철수, 연방제 등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무총장의 뜻을 평양에 보고하겠다고 함.

❋ 1984.2.28. Kurt Waldheim 사무총장을 만난 한시해 대사는 당장은 사무총장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알려 주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

2. Perez de Cuellar 유엔 사무차장은 1981.1.6. 윤석헌 주유엔대사에게 한반도 현실 파악과 정부 지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남북한 방문 희망을 표한바, 윤 대사는 한국을 먼저 방문해 주기 바란다는 뜻과 함께 동 사무차장에게 방한초청 의사를 전달함.

❋ 페루 정부가 페루-에콰도르 분쟁 해결 위한 교섭 담당자로 동인을 임명함에 따라 사무차장직을 사임하게 되어 방한초청 진행은 보류

3. 전두환 대통령은 1981.1.31. 뉴욕에서 Waldheim 사무총장 면담 시 1.12. 제의(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 실현을 위한 사무총장의 중재역할을 요청한바, Perez de Cuellar 사무차장은 북한 측이 사무총장의 중재역할 문제에 대해 거부입장을 보였다고 알려옴.

4. 주유엔대사는 6.5. 제의(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내용을 발표 전에 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이를 북한 측에 전달, 반응을 타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Essaafi 사무차장의 설명을 들은 한시해 북한대사는 자기는 남한 측의 어떠한 메시지도 접수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접수를 거절

5. 주유엔대사는 남북한 수뇌회담 실현을 위한 알선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위촉하자고 1981.7.10.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감안, 추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함.

6. 1982.1.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의를 Cordovez 유엔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을 통해 사전 북한 측에 전달 요청한바, 북한대사는 동 사무차장의 1.21. 면담요청을 일정 분주 이유로 거절하다 1.25. 면

담하였으나 한국 측 제의를 접수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한국 측 제의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면서 문서 접수를 거절함.

7. Perez de Cuellar 사무총장은 랑군 사건 관련 1983.11.29.자 남북한 수뇌 앞 자신의 서한에 대해 김일성이 보내온 회신 내용을 김경원 주유엔대사에게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통일이 성취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용의를 표하는 서한을 1984.2.9.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옴.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1 남북체육회담 제의 및 준비

| 84-05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1 / 9 / 1~260(260p)

1. 김유순 북한 올림픽위원장은 1984.3.28. 정주영 대한올림픽위원장 앞 서한에서 아래 내용을 제의함.

- ❋ 제23차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남 · 북 유일팀을 구성, 공동 출전
- ❋ 그 후 계속되는 아시아 및 세계 선수권대회에도 남 · 북 유일팀 구성, 공동 출전
- ❋ 동 문제 협의를 위해 남 · 북 올림픽위원회 부책임자급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대표단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2. 정주영 위원장은 1984.4.2. 아래 내용의 답신을 김유순 위원장에게 송부함.

- ❋ 랑군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
- ❋ 체육대표단 회의는 스포츠 정신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
- ❋ 1981.6.19. 조상호 대한올림픽위원장이 남북단일팀 구성을 이미 제의한 바 있으며 동 제의에 뒤늦게나마 호응해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
- ❋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체육 교류를 위해 남북 간 직통전화 개설 제의

3. 1984.4월 국토통일원은 북한의 남북 체육회담 제의와 관련 대북조치 계획을 발표함.

- ❋ 한국 측은 남북한 당사자회담과 국제체육경기대회에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남북 체육교류를 촉구해 온 만큼 남북체육 회담을 개최하도록 결정
- ❋ 남북체육 회담에서는 LA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 국한하지 않고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 올림픽대회에의 공동출전 문제도 토의함으로써 북한이 체육회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책략을 견제
- ❋ 한국 측은 적극적인 남북대화 자세를 취하되 버마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요구는 계속 현안으로 잔존

4. 국토통일원은 김유순 북한 올림픽위원장의 답신(1984.4.6.)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함.

- ❋ 한국은 북측의 제의에 관계없이 1차 회담부터 수석대표가 참석하여 체육회담을 실무대표 회담으로 격하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봉쇄하는 한편,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도권을 장악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2 제1차 남북체육회담 및 IOC위원 접촉

| 84-057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1 / 10 / 1~209(209p)

1.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1984.4.9.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측은 랑군 사건, 최은희 · 신상옥 문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담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퇴장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됨.

2. 국토통일원은 1984.4.9. 제1차 남북한 체육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 한국 측 기조발언 요지
- 버마 테러사건과 최은희 · 신상옥 납치사건에 비추어 한국 선수단의 신변 안전문제 제기 및 동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 촉구
- LA 올림픽뿐만 아니라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단일팀 구성 제의
- 선수훈련을 위한 기존시설 이용과 필요한 경우 비무장지대 공동경기장 건립 제의
- 단일팀의 호칭은 'KOREA', 국가는 '아리랑'으로 하고 경비는 공동부담 원칙

❁ 북측 발언 요지
- 회담 장소 및 운영, 회담 공개, 회담 보도, 회담 기록, 합의사항 발표, 회담 주기 및 직통전화 개통 문제 등 언급

❁ 기타
- 북측은 랑군 사건 및 신상옥 · 최은희 납치사건에 언급, 정치문제를 거론한다고 반박하고 북측은 김대중 사건 및 광주사건을 비방함에 따라 한국 측은 동 사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
- 양측은 회담절차, 장소문제를 논의하던 중 북측은 랑군 사건, 최은희 · 신상옥 문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회담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퇴장

3. 주스위스대사는 1984.5.10. 남북 체육회담 중재 관련,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면담한바 동인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소련의 LA 올림픽 불참 선언에 따른 북한의 동조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자신의 제의는 연기하여야 할 것이라 언급

❁ IOC 중재하에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될 경우 랑군 사태 등 정치문제는 거론치 않아야 한다는 입장

❁ 북한 측에는 아직 동 제의를 한 바 없다고 발언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3 제2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 84-057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2 / 1 / 1~292(292p)

1. 국토통일원은 1984.4.15. 북한 올림픽위원장의 대남서한 분석 및 조치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4.14. 정주영 위원장 앞 김유순 북한 올림픽위원장 서한 요지
- 버마 사건, 신상옥 · 최은희 사건 등 체육 외적 문제에 대한 사죄요구 비난
- 김종하 대표는 체육 회담에 적합지 않다고 언급
- 회담 계속을 위해서는 정치적 비방을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담보 필요

❁ 분석
- 북측은 수락할 수 없는 회담재개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회담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듯
- 1차 회담에서 한국 측이 북한 정권의 학정과 부자 세습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점에 비추어 회담이 계속될 경우 북한체제의 취약점이 폭로될 것을 우려
- 북측은 3자회담의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버마 사건으로 실추된 대내외적 위신회복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체육 회담을 제의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회담을 중단

2. 국토통일원은 1984.4월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태도변화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북측은 4.20.자 서신에서 체육 회담에서 정치적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라고 하면서 한국 측이 제의한 회담날짜만 수정 제의한 채 사실상 조건 없이 동의

❁ 북한의 태도변화는 레이건 미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방문을 앞두고 비정치적 체육 분야에서나마 남북한 대화에 성의를 보여야 할 전략적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

3. 국토통일원은 1984.5.1.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토의절차, 직통전화, 의정문제 합의 후 유일팀 구성문제 논의
- 회담장소(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쌍방 합의하에 공개, 회의간격은 7일, 직통전화 5.3. 개통을 위해 쌍방 기술실무진 협의
- LA 올림픽대회와 그 이후 국제체육 경기대회, 남북한 체육분야 합작 및 교류
- 유일팀 구성, 공동사무국, 참가종목 및 선발방법 등

❁ 북측은 체육 외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10. 회담재개를 제의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4 제3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 84-057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2 / 2 / 1~273(273p)

1. 국토통일원은 청와대, 외무부, 문공부, 통일원, 안기부 등과의 1984.5.1. 실무대책회의를 거쳐 남북한 체육회담 관련 향후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 남북체육회담을 계속하는 경우, 북한 측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
- ❁ 그러나, 한국의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통일대화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남북한 간 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담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 ❁ 북측이 3차 회담에서 또다시 버마 사건을 한국 측의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내부문제를 거론할 경우 제2차 회담처럼 강력히 대응
- ❁ 버마 사건은 언제든지 재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체육회담과 관계없이 정부, 민간단체의 버마사건 규탄 캠페인은 계속

2. 국토통일원은 1984.5.17. 북한 올림픽위원장의 5.12.자 대남서한 관련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 북측은 한국 측의 제3차 남북한 체육회담 제의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LA 올림픽 불참 결정에 동조할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
- ❁ 한국 측의 성실한 대화 자세를 과시하고 회담 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3차 남북한 체육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하는 정주영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

3. 제3차 남북한 체육회담이 1984.5.25. 개최된바, 동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한국 측 수석대표 기자회견
  - 북한 측은 한국 측의 제의를 완전히 외면하고 한국 측이 LA 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방해한 데 대하여 사과하라는 부당한 요구
  - 북한 측은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는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공개회의를 고집하였으며 남북한 직통전화 개통 제의마저 거부
  - 3차 회담은 의제문제 토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체 종료
- ❁ 한국 측은 4차 회담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LA올림픽 예비 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6.2.까지 엔트리를 제출하여 LA올림픽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예비 엔트리 마감일인 6.2.까지는 북측의 회신을 기다린 후 대처토록 조치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5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교섭

| 84-057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2 / 3 / 1~280(280p)

1. 국토통일원은 1984.5.28. 남 · 북한 체육회담 관련 당면조치 및 제4차 회담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 한국 측이 LA올림픽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더라도 체육회담은 지속되도록 유도
- ❁ 버마 사건은 필요시 언제든지 거론할 수 있도록 현안문제로 남겨놓고 체육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
- ❁ 의제문제 관련, 제4차 회담에서는 일단 의제 먼저 토의를 주장하여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에의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탐색

2. LA올림픽대회 참가선수 명단제출 관련, 1984.6.2.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북측은 그간 남북체육회담에서 일방적 퇴장 등 회담의 진전을 고의로 방해하다가 5.24. 체코 공산 11개국 체육관계자 회의에서 채택한 LA올림픽 불참선언에 가담
- ❁ 6.1. 북측은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이 어렵게 된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 2가지 전제조건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의 재개를 기피

3. 국토통일부는 1984.6월 남북체육회담 관련 향후 조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 남북체육회담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바, 이를 위해 북측에 회담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서한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
- ❁ 대북 서한 시기는 88서울올림픽 개최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는 LA올림픽 종료 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

4.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1984.8.17. 한국 측 서한에 대해 8.27. 북측은 이를 거부하는 답신을 보내옴.

- ❁ 앞으로 체육회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정치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

남 · 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6 해외반응

| 84-058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2 / 4 / 1~350(350p)

1. 외무부는 1984.4.5. 남북체육회담 관련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해외반응을 종합 정리함.

❁ 일본 외상
- 북한 측 제의는 주목할 가치가 있으나 실현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단일팀이 구성되는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

❁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 한국이 북측 제의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랑군 사건에 북한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자세를 동시에 취해 나가는 것이 지당

❁ 아사히 신문
- 한국이 북한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예상 외의 유연한 자세로 응한 것은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등에 되도록 많은 국가를 초청해 성공시키려는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논평

❁ 클리블랜드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
- 한국의 긍정적 태도를 환영하며 한국 측 회신이 발표될 경우, 언론 논평 등을 통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방침

❁ LA올림픽 조직위원장
- 남북 단일팀 구성 움직임을 환영하며, 남북 NOC가 합의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것

❁ IOC 대변인
- 공식통보 있을 때까지 논평을 보류함. 이론적으로는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은 없다고 보이나 구체적 사항 통보 없이는 말하기 곤란

❁ 독일 외무성 동북아 부 과장
- 북한 제안은 선전 목적으로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며 한국의 긍정적인 반응은 매우 고무적

2. 1984.5월 외무부는 남북한 체육회담 관련 해외반응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LA올림픽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그러한 제의를 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며 버마 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궁지를 모면하고 그들의 3자회담 실현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의 저의가 개입

❁ 한국이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찬성한 것은 좋은 징조이며, 앞으로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쌍방이 성의 있는 대응을 해 나감으로써 남북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LA올림픽 남 · 북한 단일팀 구성촉구 관련 재미 동포 동향, 1983-84

| 84-058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42 / 5 / 1~181(181p)

1. 1983.4월 체육부는 남북한 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제의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 현 시점에서 일단 보류하고 LA올림픽 이후 제기
- ❋ 남북한 체육교류는 LA올림픽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 ❋ 기술적으로도 분단국가의 단일팀 구성은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LA올림픽 이전 제의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북한을 LA올림픽에 불참케 하려는 동기로 오해 받을 소지도 있음)

2. 1983.4월 주미대사는 LA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촉구를 위한 정도회 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 ❋ 4.11. 정도회 박봉철 회장은 주미대사관을 방문, 남북단일팀구성 추진운동의 동기와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대사관이 동 운동을 지원 내지 묵인해 줄 것을 요청
- ❋ 5.11. 워싱턴 교포신문에 재미교포에 보내는 호소문 게재, 동 운동의 취지 및 남북한 최고 책임자에 대한 건의
- ❋ 5.19. LA올림픽 단일팀 참가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호소문을 7월초에 유엔 주재 남 · 북 대표부에 전달하기로 결정
- ❋ 6.30.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상기 움직임이 재미교포와 북한 간의 접촉을 위한 구실 내지 계속적 접촉을 위한 통로가 되어 북한의 대교민 침투에 역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

3. 남북 단일운동 총본회 대표 박봉철은 1984.5.23. LA 올림픽에 남북 통합 단일팀 참가가 실현되도록 남북 수뇌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앞으로 송부함.

4. 체육부는 남북 체육단일팀 구성추진 재미교포 모국방문단 방한(1984.5.22.~24.)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 방한 중 주요 일정은 국토통일원 장관, 체육부 장관, 외무차관 예방,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준비상황 설명, 땅굴 및 판문점 시찰 등
- ❋ 교포들은 제1, 2차 남북 체육회담 시 버마 사건을 한국 측에서 거론하는 등 정치문제를 거론하는 배경을 문의한바, 북한 측의 체육회담 제의 저의를 설명하고 버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설명

우리 정부의 대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제의, 1984

| 84-058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4-42 / 6 / 1~178(178p)

1. 국토통일원은 1984.7.11. 대북제의 관련,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대북차관 및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할 경우, 북한 측이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로 동 제의가 선전적이라는 일부 오해를 받을 우려
- ❁ 한국 측 제의의 합리성과 성실성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원조나 차관제공 용의 표명보다는 남북한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제의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할 것을 건의

2. 대통령 특별기자회견(1984.8.20.) 중 남북한 관계 부분은 아래와 같음.

- ❁ 북한 측의 남북대화 호응과 이산가족 재회 및 경제교류 등 실질적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성실한 태도 표명 촉구
- ❁ 남북한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 실시 용의 표명
  - 북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 제공 용의 표명
- ❁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 출전할 것을 희망하며 남북 체육회담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

3. 외무부는 1984.8.27. 대통령 하계 특별 기자회견 관련 해외반응을 아래와 같이 종합정리함.

- ❁ 대부분 정부 관계자, 언론이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남북 체육회담 재개 촉구, 한반도 안보 전망 및 북한 도발 가능성 등에 긍정적 반응
- ❁ 대북교역 및 경협제의는 국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력 있는 이니셔티브로 이를 적극 환영
- ❁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이며 이번 대통령의 대북경제, 스포츠 교류 제의 사실을 중시(일본, 아베 외상)
- ❁ 대북 교역, 무상기술 및 물자공여 제의는 설득력 있는 이니셔티브로 이를 환영(미 국무성 한국과장)

대 공산권 교류 홍보문제, 1984

| 84-058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42 / 7 / 1~57(57p)

1. 외무부는 1984.8.28. 대공산권 교류 홍보지침을 마련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88 서울올림픽 준비 및 각종 국제행사에 공산권 참가보장 홍보
- 88 서울올림픽 관련 대공산권 접촉 및 교류 보도는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 확정시까지 자제, 특히 과장 및 추측 보도 금지
- 기타 비정치 분야 교류는 행사 종료 후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 보도

2. 외무부는 1984.8.30. 대공산권 교류 홍보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 대공산권 국가에 관한 보도요강(문화공보부 내규)을 검토한바,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각 언론기관은 정부 및 민간의 공산권 국가와의 교섭 · 접촉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함에 있어 문화공보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은 사실보도에 국한
- 각 언론기관은 대공산권 관계 보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화에 의한 취재, 송고 또는 생방송 불가
- 대공산권 국가 관계 보도에 있어서는 품위와 냉정을 유지하고 선동적인 경향에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의 이익을 존중하고 국가의 정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의

공산권 국가 외교관등 접촉 활동 지침, 1980-84

| 84-0584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동구담당관실
MF번호	2014-42 / 8 / 1~96(96p)

1. 외무부는 1983.4.10.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과의 접촉활동 지침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주재국 거주 혹은 방문 중인 공산권 국가 외교관이나 인사로부터 오·만찬, 방문, 면담요청 등을 받았을 때는 본부의 허가를 득한 후 접촉하는 것이 원칙
- ❁ 한국 측에서 상대국 외교관 등을 접촉코자 할 때에는 접촉 목적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하여 사전에 본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
- ❁ 공산권 국가 외교관과 접촉은 가급적 서로 상응하는 직급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록 위주의 접촉은 지양

2. 1983.5월 외무부는 대북한 및 공산권 무관 접촉활동 지침을 마련함.

- ❁ 북한을 하나의 국가나 정부로 인정하는 어떠한 언행도 행하는 것은 불가
- ❁ 공적 행사에 부득이 참석, 북한기가 게양되거나 소위 국가가 연주될 때는 참석한 채로 예우를 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
- ❁ 주재국의 행사 및 무관단 행사로 접촉하는 경우 사교적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대처하고 상황에 따라 한국의 발전상 및 평화통일방안 등을 설명

3. 외무부는 1983.8.1.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 접촉활동 지침을 일부 보완함.

- ❁ 특정 공산국가에 대한 실질적 접촉 및 교섭은 반드시 창구공관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고 기타 공관에서의 공산권 외교관 등 접촉은 공적 행사와 제3국 주최 연회 등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에 국한
- ❁ 재외공관에서 공산권 외교관 접촉 시 초청 및 피초청의 경우를 불구하고 접촉 목적 및 필요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기하여 사전에 본부에 청훈, 본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

4. 외무부는 1984.6.4. KAL기 사건 이후 소련 및 공산권 외교관과의 신축성 있는 접촉 및 내실화를 위해 상기 접촉지침을 일부 완화함.

- ❁ 개별접촉 허용 및 접촉 시 공관장 사전 허가제
- ❁ 접촉 후 verbatim record 작성보고 삭제 등

대동구권 관계 개선, 1984

| 84-058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42 / 9 / 1~126(126p)

1. 1984.2월 외무부는 대동구권 관계개선 활동방안을 수립함.

- 동구권 외교관 접촉활동 강화, 교섭창구 공관 조정 및 접촉활동 지침 보완
- 한 · 미, 한 · 일,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등 우방국을 통한 관계 개선
- 직 · 간접 교역추진 등 경제, 통상관계 확대
- 스포츠, 학술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 실질관계 확대 등

2. 1984.12월 외무부는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동구권 국가들의 대한국 태도를 분석함.

-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북한 입장 지지 및 태도 견지
- 체육, 교역 등 비정치 분야 교류가 점증하고 있으나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 동맹국에 앞선 대한국 관계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헝가리는 가장 전향적인 국가로서 통상, 경제 등 비정치 분야 교류확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정치, 외교문제에 관하여는 소련 등 바르샤바 동맹 테두리 내에 잔류하려는 태도
- 유고도 타 국가에 비해 전향적인 국가이나 비동맹에서의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로 외교관계 개선으로의 발전에는 기대 난망

3. 1985.1월 외무부는 최근 동구권 외교관과의 접촉결과를 분석함.

- 동구권 국가들은 양국 관계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단계에서의 실천의지는 미약
- 88서울올림픽에는 대체로 참가를 희망하는 분위기(루마니아, 유고, 동독 등)

공산권 여행 허가, 1984

| 84-058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동북아2과/동남아과
MF번호	2014-42 / 10 / 1~130(130p)

1. 문화공보부는 1984.3.24. 88서울올림픽 대비, 재독 작곡가 윤이상에게 교향곡 작곡을 위촉해도 좋은지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옴.

- 4.18. 외무부는 윤이상이 민족화합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곡을 의뢰함이 바람직함을 회신

2. 문공부는 1984.5.3. 88서울올림픽 문화행사에 소련, 중국(구 중공), 체코, 동독, 폴란드 등 공산권 국가의 저명예술단을 초청 교섭키 위해 외무부의 의견을 조회함.

- 5.28. 외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 저명 예술단의 초청에는 이의 없으나, 소련 예술단 초청은 KAL기 사건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안, KAL기 사건 1주기가 지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을 통보

3. 페루 여자배구팀 감독 박만복은 소련, 체코 방문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소련 방문(4.16.~23.) 시 KAL기 사건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소련 측 임원들은 88년 서울에서 만나자고 언급
- 체코 방문(4.23.~30.) 시 관계임원들은 친절하고 편의를 제공

4. 아래 동구권 여행허가 신청에 대해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회신함.

- 김치선 서울법대 교수 헝가리 방문(9.16.~21.)
- 한국 루터교 교단 총회장인 지원상 목사의 동독, 헝가리 여행(7.14.~8.5.)
- 서울대 박봉열 교수의 동독 여행(7.15.~28.)
- 88 올림픽 대비, 문공부의 공산권 언론인 방한초청
-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근무 중인 백영한, 이진민의 중국, 베트남 여행
- 방글라데시 거주 김윤옥의 베트남 방문 등

공산권 여행자에 대한 정세설명 및 귀국보고회 제도, 1984

| 84-058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42 / 11 / 1~35(35p)

1.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1984.10.10. 만찬 시 중국(구 중공) 개최 ESCAP 및 UNIDO 주관 세미나 참석자들의 방중 소감 발표가 있었는바,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국 출입국 절차는 회의 주최측의 배려로 비교적 간소한 편
- 중국 측은 한국 대표단의 존재를 언론 등에 공식적으로 부각시키기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였으나 체류 중 대표단 신변 및 활동의 자유는 대체로 잘 보장
- 회의 시 중국 측은 한국을 정식 호칭 않고 South Korea로 호칭하거나 또는 기타국가에 포함시켜 지칭하는 태도
- 중국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 대표단에 친절하였고 일반적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듯해 보이는 태도
- 회의 중 국기 문제, 국호 사용문제 등에 관해 국제기구의 정회원국으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존재

2. 외무부는 1984.10.20. 그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온 정세설명 범위를 공산권 여행 민간인에 대해서도 시행하고 귀국 후 방문자로 하여금 귀국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음을 관계부처에 통보함.

- 외무부 정세 설명 반에서 공산권 여행자에 대한 사전 브리핑 시행
- 공직자, 국영기업체 직원을 포함, 상사, 학계, 체육계 인사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
- 공산권 여행자는 귀국 후 1주일 내 귀국보고서를 작성 외무부, 안기부, 관계부처에 제출
- 선원에 대하여는 해외취업 선원관리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예외로 규정

뉴욕 비동맹 외상회의. 1984.10.1-5

| 84-058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2 / 12 / 1~125(125p)

1. 유엔총회 대비 비동맹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1984.10.1.~5. 뉴욕 비동맹외상회의 관련, 주유엔대표부는 최종선언 초안에 한국관계 조항을 넣지 않도록 의장국 인도에 협조를 요청하여 1차 초안에는 한국 조항이 없었으나, 수정 초안에는 아래 요지의 문안이 포함되어 그대로 채택된바, 인도 측은 북한이 전년도 선언 내의 한국 조항과 동일한 문안의 삽입을 요청하여 이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함.
   - ❋ 한국인(Korean People)의 평화통일 염원과 7.4공동성명의 3원칙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이 염원을 실현하려는 한국인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 그 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군의 철수로 한국인의 평화통일 염원의 실현이 증진될 것을 희망

2. 주유엔 인도대표부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모로코, 바레인 3국이 동 한국조항 전체에 대하여, 요르단이 두 번째 항에 대하여 유보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며 외무부는 이를 해당국 주재 공관에 알리고 주재국 정부에 적절히 사의를 표하도록 조치함.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Jakarta, 1984.1.26.-30. 전2권. V.1 기본문서

| 84-058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2 / 13 / 1~257(257p)

1. 비동맹 지역 내 정보전달 체제 확립, 비동맹 기자협회 창설 문제 등 토의를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984.1.23.~30. 개최(1.23.~24. 정부간 운영회의, 1.26.~30. 공보장관회의)되는 비동맹 공보장관회의 관련, 북한의 반한 책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래 요지의 대책을 수립함.

❁ 기본대책

- 한국이 비회원국임을 유념, 적극적 외교조치는 강구 제외
- 북한 또는 친북한 비동맹국의 반한 선전책동 견제
- 랑군 사건에 대한 북한의 허위 날조 분쇄

❁ 구체적 시행방안

- 랑군 사건에 대한 책임 전가를 포함, 한국에 대한 비난 책동에 대비하여 파키스탄, 사우디, 케냐 등 친한 비동맹 제국의 한국입장 대변 확보 교섭
- 회의 주최국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북한의 정치 선전책동 견제 교섭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및 랑군 사건 특집 게재 등 홍보활동과 공보장관 및 주요 언론인 방한 초청

2. 외무부는 동 대책에 따라 북한의 관련 동향 등 파악을 83.12.23. 비동맹국 주재공관에 훈령하고, 정부간 운영회의 위원국 중 친한 국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한 책동 시 견제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1984.1.10. 해당 공관에 훈령하였으며 교섭 결과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알려 활용토록 함.

3. 인도네시아 정부가 회의의 선전장화를 막기 위해 조직위를 통해서만 문서배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의 성공을 위한 강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언론에 게재를 추진하던 특집광고는 보류하고,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한국과 제3국 관계 등을 주제로 한 기사 내지 논설 게재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공보대책 시행을 1984.1.14.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훈령함.

❁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1984.1.4. 주최측에게 한국의 회의 참관 및 북한 비난 선전물 배포 불허, 개회식에 한국대사 불초청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주최측은 누구도 제3국을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개회식에 상주 공관장을 모두 초청하는 경우 특정국을 차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주인도네시아대사가 1.5. 확인, 외무부에 보고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Jakarta, 1984.1.26.-30.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언론보도

| 84-059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3 / 1 / 1~343(343p)

1.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가 1984.1.23.~30. 자카르타에서 개최된바,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외무부 본부, 주인도대사관에서 파견된 실무지원팀은 회의 주최측과 친한 비동맹국 대표를 통해 회의 진행을 파악하는 한편 북한의 정치선전, 반한책동 시 견제해 줄 것을 교섭함.

2. 북한은 1984.1.27 주현옥 수석대표(조선중앙통신 사장)가 본 회의에서 기조 연설한바, 연설 끝부분에서 미국의 남한 군사점령으로 초래된 위중한 사태를 감안하여 북한은 3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여기에서 북한 · 미국 평화협정과 남 · 북한 불가침선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요지로 3자회담 제의를 언급함.
   - ❋ 동 기조연설에 한국에 대한 노골적 비방이나 랑군 사건 언급은 없었는바, 한국 측이 북한의 연설이 정치선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석대표 등은 직접적인 한국 비난이 없는 등 북한의 연설 내용이 종래에 비해 강경하지 않았다고 평가
   - ❋ 북한은 각국 대표단에게 허용된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등 회의장 내외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바, 이는 랑군 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실추된 이미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북한 정치책동 규제 압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3. 공보장관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뉴스 흐름의 불균형 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지의 최종선언과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해소를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호소하는 요지의 Jakarta Appeal을 채택함.

비동맹 노동장관 회의. 제3차, Managua(니카라과) 1984.5.10.-12. 전2권. V.1 사전준비

| 84-059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3 / 2 / 1~189(189p)

1. 노동부는 니카라과 개최 예정인 제3차 비동맹 및 개도국 노동장관 회의(1984.5.10.~12.) 참가가 한국의 ILO 가입기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교섭해 줄 것을 1984.1.20. 외무부에 요청함.

2. 비동맹의 고용 및 인적자원 분야 조정국 의장인 튀니지의 사회성장관이 한국의 동 회의 참가를 희망하며 니카라과 노동성장관의 별도 초청서한이 전달될 것이라는 내용의 한국 노동부장관 앞 서한을 보내옴(1984.4.12. 접수)에 따라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 주튀니지 및 주인도 대사관 등을 통해 동 노동장관 회의 피초청 문제를 파악함.

680

- 튀니지 사회성 측은 튀니지의 초청 서한이 한국도 초청된 제2차 노동장관 회의(바그다드) 초청 리스트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니카라과가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경우 이는 부당하게 국제회의와 자국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주유엔 튀니지대표부 측은 어느 국가를 초청하느냐 하는 문제는 주최 국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례라고 언급
- 주유엔대표부에서 1948.4.18. 접촉한 주유엔 니카라과대표부 관계관은 비동맹 회원국에게만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다고 설명
- 주인도대사관 공사가 1984.4.23. 접촉한 인도 외무성 유엔국장은 동 노동장관 회의 준비회의에서 초청 범위 결정을 주최국에 일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최국에 일임된 이상 인도가 비동맹 의장국 자격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하고 주유엔 인도대표부 측은 이 문제는 주최국의 Matter of Courtesy에 관한 것으로서 튀니지 측 서한은 관행에 따른 단순한 사실 통고로 본다는 견해
- 비동맹 비회원국으로서 바그다드 회의에 한국과 함께 초청된 바 있는 필리핀, 태국 등은 니카라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음을 확인

3. 외무부는 니카라과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동 회의 참가 불능을 1984.5.11. 노동부에 통보하는 한편, 북한이 동 회의에서 반한 책동을 전개하는 경우 친한 비동맹국들이 이를 견제해 주도록 해당 공관을 통해 교섭 시행함.

비동맹 노동장관 회의. 제3차, Managua(니카라과) 1984.5.10.-12.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 84-059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3 / 3 / 1~186(186p)

1. 주유엔대표부와 주인도네시아, 주튀니지 등 공관에서 제3차 비동맹 노동장관 회의(1984.5.10.~12.) 참석 후 귀임한 대표들로부터 회의 결과를 청취한바, 북한 수석대표인 윤소 노동장관이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한반도 문제가 토의되거나 회의문서에 언급된 것은 없으며 비동맹의 관심사인 아파타이트 및 중동문제와 니카라과가 제기한 중남미 사태, 그리고 현안인 사이프러스 문제만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2. 본 문건에는 공관 보고와 결의안 등 회의 문서, 니카라과 개황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부문 조정국 관개 전문가 회의. 평양, 1984.6.16-22

| 84-059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3 / 4 / 1~98(98p)

1. 북한은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1983.3월, 뉴델리) 결정에 따라 1984.6.16.~22. 평양에서 개최하는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부문 조정국 관개전문가 회의에 식량 · 농업분야 조정위원국과 여타 비동맹국을 초청하고 대표단 파견을 독려함.

2. 비동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동 회의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방 책동 가능성을 적절히 주재국 측에 지적하고 랑군사건 관련 대북 제재 시행 국가의 경우 이를 상기시키는 등 현지 상황별로 가능한 조치를 시행함.

3. 평양방송은 동 회의가 40개국 및 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며 김일성에게 보내는 편지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보도함.

❋ 회의 참석 후 귀임한 인도대표가 주인도대사관에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회의 기간 중 정치문제 언급을 일체 피하였으며 관개분야 국제센터 설치문제 토의 시 사회자인 기니와 북한이 회의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동 센터의 평양 설치를 확정하려 한 데 대해 인도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국가들이 동조함에 따라 결정 선포 직전에 저지

비동맹 조정위원회 및 기타 회의, 1984

| 84-059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3 / 5 / 1~103(103p)

1984년 개최된 비동맹 회의 중 조정위원회(뉴욕), 비동맹 뉴스 풀 세미나, 비동맹 공보 · 체신장관 회의 등 관련 내용 및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뉴욕 조정위원회

- 니카라과 요청으로 1984.3.15. 개최되어 니카라과를 목표로 한 남미에서의 외국 군대의 훈련 및 활동 종식 호소 등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
- 남아공 수상의 서구 9개국 순방과 관련, 아프리카 그룹의 요청으로 1984.6.6. 개최되어 동 순방이 남아공 주민의 정당한 투쟁 노력에 반할 뿐 아니라 아파타이트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비동맹, 유엔 등의 선언과 결의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순방국 정부가 동 방문을 취소할 것과 남아공 방문 초청을 거절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
- 니카라과 요청으로 1984.11.19. 소집되어 니카라과를 둘러싼 중미지역의 긴장고조 및 무력위협을 지적하고 니카라과에 대한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요지의 성명을 채택

2. 비동맹 뉴스 풀(News Agencies Pool of Non-Aligned Countries) 세미나

- 1984.1월 자카르타 개최 비동맹 공보장관회의 최종선언에 포함된 권고에 따라 인도 PTI(Press Trust of India) 통신이 UNESCO의 지원을 받아 1984.4.25.~27. 뉴델리에서 개최하였으며, 뉴스 풀 기사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언론인 연수, 통신요율 인하, UNESCO를 통한 대개도국 기술지원 등 21개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

3. 비동맹 공보 · 체신장관 회의

- 1984.1월 자카르타 비동맹 공보장관회의에서 통신요율 문제 협의를 위해 체신장관들도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비동맹 공보 · 체신장관 회의를 1984.5.9.~10. 카이로에서 개최, 비동맹 회원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통신 · 정보교환 서비스 요율의 최소 50% 인하 등에 합의

FY 84 추경 및 FY 85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 협력법 (대외원조법) 1984. 전2권. V.2 자료집

| 84-059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43 / 8 / 1~333(333p)

미 하원 아 · 태소위의 FY 85 대외원조수권법안 심의 보고서와 상 · 하원 관련위원회 청문회 증인 발언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하원 아 · 태 소위 보고서 주요 요지

- 한국의 차관상환 기간을 10년 거치 20년으로 연장
-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차관 2.3억 달러 중 46백만 달러를 특혜이자율로 제공할 것을 권고
- 한국의 국내정치, 인권상황에 계속 우려 표명
- 한국 정부와 국민이 KAL기 격추와 랑군 사건이라는 2개의 큰 비극을 겪은 것을 주목

2. 청문회 증인 발언문

- FY85 대외원조법안의 주안점, 원조대상국별 정세, 소련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대응 노력 등에 대한 증언
- Shultz 국무장관, Weinberger 국방장관, Wolfowitz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Kelley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 Shaeffer 국무부 근동 · 남아시아 부차관보, Vessy 합참의장 등이 증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84

| 84-059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43 / 12 / 1~78(78p)

NATO의 국방상 회의, 외상 회의 등 주요회의 관련 주 벨기에 및 주미대사 보고와 최종성명 등 회의문건이 수록되어 있음.

1. NATO 핵 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제35차 각료회의(1984.4.3.~5. 터키)는 소련의 SS-20 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고 NATO가 1983.12월부터 개시된 중거리(INF) 미사일 배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결의를 강조하는 최종성명을 채택함.

2. 국방상 회의가 1984.5.15.~17. 및 12.4.~5. 각각 NAT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5.15.~17. 회의는 아래 요지 공동성명을 채택함.

- NATO는 억지와 방어 전략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통해 평화유지를 추구함.
- 국방상들은 소련의 군사력 강화에 우려를 갖고 있는바, 소련은 SS-20 등 INF 미사일 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동독에 배치 중인 미사일에 추가하여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INF 미사일 전진배치를 계획
-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과 전진방어가 바르샤바(Warsaw)동맹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할 유일한 방안이며 유연반응의 신뢰성은 균형 있고 현대적인 군사력의 보유에 좌우되는바, 국방상들은 NATO 전략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재래식 전력 증강 결의를 재확인

3. 워싱턴과 NATO 본부에서 1984.5.29.~31. 및 12.13.~14. 각각 외상회의가 개최됨.

- 5.29.~31. 회의는 공동성명과 동 · 서 관계에 관한 워싱턴성명을 발표한바, 공동성명은 소련의 군비확장에 대비, NATO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및 핵 억지력 증강과 소련과의 정치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START 및 INF 협상재개를 소련에 촉구하였으며, 워싱턴성명은 NATO가 진정한 데탕트 성취를 위해 바르샤바동맹 회원과의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표명
- 12.13.~14. 회의는 1984.5월 워싱턴성명의 원칙 재확인, 1985.1.7. 예정된 미 · 소 외상회담 환영,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할 수 있는 재래식 병력 및 핵무기 수준 유지 등 요지의 공동성명 채택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 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4

| 84-059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안보과
MF번호	2014-43 / 13 / 1~98(98p)

핵 추진 및 핵 적재 미군함의 뉴질랜드 기항 금지를 공약한 노동당이 1984.7.14. 뉴질랜드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국 핵 군함의 뉴질랜드 기항 문제와 ANZUS 동맹문제가 제기되어 1984년 말까지 미국과 뉴질랜드 간 협의와 입장표명이 계속됨.

1. 노동당 신내각 출범 전인 1984.7.16.~17. 미국 · 호주 · 뉴질랜드(과도내각 외상) 3개국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웰링턴에서 개최된 ANZUS 이사회 기자회견에서 Shultz 미 국무장관은 안보동맹 유지상 핵 군함 파견은 필수이며 군함 파견 없이는 안보동맹의 의의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Hayden 호주 외상도 같은 입장을 표명함.

2. 영연방 수뇌회의 계기, Papua New Guinea에서 1984.8.7. 뉴질랜드 · 호주 양자회담을 가진 Hawke 호주 수상은 핵 군함의 기항 금지문제에 관하여 미 · 뉴질랜드 간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으면 ANZUS 조약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Lange 뉴질랜드 수상은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함.

3. 뉴질랜드 노동당은 1984.9.9. 연례총회에서 핵보유국과의 동맹에서의 탈퇴, 뉴질랜드 내 미 공군기지 폐쇄 등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바, Lange 수상은 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당의 정책위원회와 의원총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지적하면서 동 결의를 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ANZUS 동맹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함.

4. Lange 뉴질랜드 수상은 1984.9.24. 뉴욕의 Foreign Policy Association 연설에서 미국 핵 군함 뉴질랜드 입항금지 정책에도 불구, 미국과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9.25. Shultz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동 결과를 아래 요지로 기자단에 발표함.

- Shultz 장관은 핵 군함 입항금지가 ANZUS 동맹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
- 양국 간 대립되는 입장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나 현 상황 하에서는 해결이 불가능
- 1985년도 미국 군함의 뉴질랜드 입항 계획서가 1984.12월 제출되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검토

5. 국민 여론의 핵 군함 입항금지 지지, 1972~75년 노동당 집권 시 핵 군함 기항 거부에도 ANZUS 동맹 유지 등이 뉴질랜드 정부 입장의 배경인 반면, 미국은 군함의 핵 보유 여부를 비밀로 하는데 뉴질랜드 입장 수락 시 뉴질랜드 입항 미군함의 핵무기 불보유를 선언해야 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뉴질랜드 주장 수용 시 여러 우방국 내 반핵단체를 고무하는 효과를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뉴질랜드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 분과위원회, 1981-84

| 84-0598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43 / 14 / 1~153(153p)

1. Hodges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81.8.24. 송영식 한국 측 간사 앞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중장비 기사들이 미군시설 내 건설, 유지, 보수작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 도로를 통과할 경우, 주한미군이 동인들에게 발급해 준 중장비 운전면허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981.9.24. 건설부는 주한미군에서 발급한 중기 조종 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국공립병원장이 신체검사서 발급)만을 거쳐 한국 중기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외무부에 회신

2. 주한미군 특수임무 차량의 SOFA 등록과 관련, 주한미군 당국은 184대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대체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교통부는 1984.11.15.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 당국의 주장은 '184번째까지' 라는 합동회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수임무 차량등록 관리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84.11.19. 외무부는 SOFA 제123차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 중 '184번째 특수임무 차량까지' 의 의미는 184대의 운영수준 내에서 등록, 말소, 이전 및 대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 184대의 범위 내에서 보충등록을 허용하는 데 이의 없으며 특수임무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

3. 내무부는 1983.10.6. SOFA 차량의 차체노후, 외관불결, 난잡한 그림 등 도로교통 관계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외무부에 의견을 조회함.

❋ 1983.10.8. 외무부는 1983.11.4. 개최 예정인 SOFA 합동위 제150차 회의에서 동 문제 전반을 검토하도록 교통 분과위원회에 과제를 부여할 예정임을 내무부에 통보

주한미군 군납문제, 1983-84

| 84-059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43 / 15 / 1~43(43p)

1. SOFA 미국 측 대표 스코트(Scott) 장군은 1983.2.19.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 현재의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처법 및 동법 시행령이 SOFA 제16조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계약행위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 옴.

- 1983.3.9. 상공부는 SOFA 16조가 주한미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국내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한은 본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외무부에 회보
- 또한, 상공부는 등록은 허가나 승인과 달리 행정관청의 기속행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므로 이는 제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지적

2. 한국 군납수출조합은 1983.9.5.~17. 군납수출조합 교섭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 국방성 및 의회 관계자들을 접촉, 주한미군 건설군납계약제도 변경에 관해 교섭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 미 의회에서는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주한미군 건설군납계약 제도를 1984년도부터는 경쟁입찰(500만 달러 이상 발주 시) 방식으로 전환, 미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84 군사비 지출법안 제정을 진행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 84-060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43 / 16 / 1~80(80p)

1. Carroll Hodges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 미측 간사는 1984.2.9. 이양 외무부 안보과장을 면담,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함.

- ❋ 주택공사가 용산에 건설 예정인 주한 미군용 임대보증 주택(300세대) 내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경찰권 행사 문제 제기
- ❋ 미측은 상기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행사 문제해결이 토지반환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
- ❋ 국방부 측은 동 토지가 일단 반환된 후에는 한국 측의 경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2. 외무부는 3.28.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 미군이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요지의 합의각서(안)에 대한 국방부 및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요청함.

- ❋ 5.9. 국방부와 법무부는 상기 미군 주택단지 내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인정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이 경우에도 한국과 공동으로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외무부에 회보

3. 1984.5월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John Pickitt 미측 대표 / 박건우 한국 대표) 간에 상기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 주한미군에 경찰권 행사를 허용하되, 상기 주택단지가 미군에 의해 전용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권이 한국에 반환된다는 요지의 합의각서가 체결됨.

주한미군의 김포국제공항 이용문제, 1983-84

| 84-060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44 / 1 / 1~57(57p)

1. 주한미군 군수 참모부장 포인터(Pointer) 장군은 1983.1.26. 교통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미공수단의 김포공항 내 운영소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

❁ 1983.3.11. 교통부는 상기 요청사항은 1981.5.4. SOFA 합동위원회에서 교통 분과위에 부여한 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시설이용에 관한 과제와는 별개 사항임을 지적하고, 미군 출입국 지원 업무를 위한 운영소 설치는 교통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국제 공항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

2. 미 8군 사령부는 1983.9.13. 김포공항 미군 전세기 일시 사용기간(1983.11.30. 종료)을 오산기지 보수 공사 지연관계로 1984.1.2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교통부에 요청함.

❁ 10.31. 외무부는 미측의 상기 요청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관례에 따라 동 건이 제150차 SOFA 합동위원회에 상정되도록 교통부에 협조 요청

3. 주한 미8군사령부 121 이동외과 병원에 배속되어 온 A. Siraa 육군대령은 교통부 1984.8.7. 항공국장 앞 서한을 통해 자신이 국내에 반입한 자가용 항공기(민간항공기) 운항 및 국내 각지 비행장 간 운항 허가를 신청함.

❁ 상기 관련, 교통부는 8.8. 회신을 통해 일본의 후쿠오카/김해 국제공항/오산 비행장까지의 운항은 일단 허가하되 국내 각지 비행장간 운항은 선결문제 해결 시까지 보류

❁ 1984.8월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자가용 사유 비행기는 SOFA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항공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유항공기 반입, 국내비행, 시설사용료 납부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유항공기 반입 시 관세는 면세될 수 없다고 회신

AFKN(주한미군방송)-TV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문제, 1983-84

| 84-060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44 / 2 / 1~141(141p)

1. AFKN의 1983.10.4.부터 24시간 종일방송 실시에 따라 10.6. 문화공보부는 미국 방송이 한국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한 · 미 간 방송시간, 편성내용 및 운용 등에 관해 별도로 협의할 방송협의체 추진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주한미군 측은 문화공보부, 체신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AFKN에 초청,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브리핑과 한미 양측 간 토의를 실시하자고 제의
- ❋ 문화공보부는 방송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기와 같은 비공식적, 일시적인 조치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한미 양측 관계관으로 구성된 상설협의기구를 제안
- ❋ 문화공보부는 AFKN 종일방송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미국 대중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한 도덕관, 윤리관 저해, 일부 현실불만 세력의 대정부비판 이슈 제공 우려, 국민 간 반미감정 유발확산 및 정부의 사대성 비난 소지 제공, 일부 해외 반체제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지적

2. SOFA 미측 간사(Dr. Carroll B. Hodges)는 1984.3.23. 한국 측 간사(이양 외무부 안보과장) 앞 서한을 통해 AFKN 방송은 미 국방성이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 헌법상 AFKN 방송내용 심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 설치는 불가능하나, 한국 정부가 AFKN 방송의 구체사항에 관해 우려가 있다면 한국 대표들과 이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해 옴.

- ❋ 1984.10.15. 외무부는 상기 미측 입장을 문화공보부에 통보하면서 회의 개최일시 및 참석자 명단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
- ❋ 10.20. 문화공보부는 AFKN 방송 관련 실무자 회의의 84.10월말 개최를 희망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4

| 84-060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4 / 5 / 1~84(84p)

1.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로 1984.8.21. 배포된 1983년도 유엔사 활동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50.7.7.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거, 미국 지휘하의 유엔사가 창설되고 미국은 유엔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
- 휴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에 병력을 제공한 16개 유엔회원국과 한국을 대표하여, 그리고 북한 인민군 사령관 및 중국의용군 사령관이 공산 측을 대표하여 서명
- DMZ 내의 휴전협정 위반 감시를 위한 군사정전위원회는 1967년 이래 공산 측의 반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 측은 83년 중에도 유엔사 측의 21차에 걸친 공동조사 제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DMZ 지역 외의 휴전협정 위반감시를 위한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공산 측의 고집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며 쌍방 간 간접통로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은 북한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폭력과 도발에 대하여 큰 자제력을 행사하였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

2. 상기 문서에 대해 1984.9.17. 한시해 주유엔 북한대사는 아래 내용의 반박 서한을 유엔 안보리의장 앞으로 송부하고 안보리 문서로 배포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9.19. 동 서한은 안보리 문서로 배포됨.

- 유엔사의 유엔 명칭 사용은 부당
- 유엔사 보고서가 언급한 랑군 사건은 유엔사와 무관(랑군 사건 관련, 1983.12.12. 북한 외교부 메모랜덤 첨부)
- 한 · 미 측에 긴장조성 책임을 전가
- 팀 스피리트 훈련 비난
-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및 대미 평화협상체결 제의 사실 설명

3. 상기 북한대사 서한에 대해 1984.10.30. 주유엔대사는 안보리의장 앞 서한을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유엔사의 정통성에 대한 북한 측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1950.7.7.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되었고 연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는 것
- 랑군 사건에 관한 미얀마(구 버마) 정부의 조사보고서는 랑군 폭탄테러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고 있는바,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무력 적화 기도에 기인한바, 유엔사 보고서는 무력도발, 남침 땅굴공사, 테러활동 등 북한의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포함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 1981-84

| 84-0604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44 / 6 / 1~181(181p)

1. 주토론토총영사는 1981.8.26. 한국전 참전용사 99명이 9.29.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이들 참전용사들이 방한 후 한 · 캐나다 우호증진 및 친한 세력 확보에 다대한 공헌을 할 것임을 감안, 체한 중 산업시찰 일정을 포함시켜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9.10. 외무부는 국방부, 재향군인회와 협의하였으나 예산 관계상 산업시찰 일정 주선이 어려움을 회신

2. 주캐나다대사는 1981.8.21.~23. 주재국 노바 스코시(Nova Scotia)주 트뤼로(Truro)시에서 개최된 동부 5개주 참전용사 재회 행사에 참석한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대사는 8.22. Truro 시장 예방, 참전비 헌화, 참전용사 시가행진 및 사열, 재향군인회 만찬 참석 등 활동 수행

3. 주토론토총영사는 1981.9.23.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 플뤼머(Albert L. Plumer) 회장이 캐나다 정부의 요청으로 트뤼도 수상의 국립묘지 헌화식에 동석코자 방한 예정이며, 동인은 국군의 날 행사 및 리셉션에 참석 예정이라고 보고함.

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1983.4.21.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휴전협정 조인 30주년을 기념하여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명 이상 단체방한 시 항공료를 제외한 5박6일간의 숙식비 및 관광비, 차량 및 통역 등 일체의 경비를 재향군인회가 제공한다고 알려옴.

5. 주밴쿠버총영사는 한국전 참전 전몰장병 공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3.8.8. 빅토리아 공원(Victory Park) 내 현충비에 'Korea, 1950~1953'을 새겨 넣고 이를 봉헌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해 옴.

❋ 동 봉헌식은 Chock Cook 연방 국회의원, 밴쿠버 시 부시장, 참전용사 가족, 한국 해병동지회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이기백 합참의장 구주 및 미주 순방, 1984.11.7-12.6

| 84-060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안보과
MF번호	2014-44 / 7 / 1~148(148p)

1. 이기백 합참의장은 우방국과의 기존 군사협력 관계 발전 및 한국의 현 안보현황에 대한 적극적 대외 홍보 등을 위하여 1984.11.7.~12.6. 프랑스,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콜롬비아, 파나마, 미국 등 구주 및 미주 지역 9개국을 방문함.

2. 이기백 합참의장의 상기 국가 방문 시 주요 인사와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이 합참의장은 Carlos 스페인 국왕 예방 시 랑군 사태 등 북한 만행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국왕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 Barletta 파나마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한국 기업의 파나마 합작투자 진출을 기대
- ❁ 이 합참의장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베탄쿠르 콜롬비아 대통령 등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랑군 사태 관련 북한의 만행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북한의 대남 화해 접근시도가 대외적인 고립탈피를 위한 상투적인 기만전술임을 설명
- ❁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협조와 공동보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방문국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 ❁ 기타 군관계 인사와 인사 교류, 무관부 설치, 방산관련 교류 등에 대해 협의

3. 상기 인사 예방 이외에 군 관계 방문은 다음과 같음.

- ❁ 프랑스 전쟁지도본부, 벨기에 NATO사령부, 서독 1군단, 그리스 기갑부대훈련소, 이탈리아 국방대학원, 콜롬비아 한국참전대대, 미국 태평양사령부 등

4. 방문 평가 및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순방 각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과 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성장 등 한국의 국가 발전을 높이 평가
- ❁ 유럽의 사회당 정부 국가의 일부 인사들이 서울올림픽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미 국가들의 실리를 위한 대북한 접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바, 계속적인 노력이 요망
- ❁ 참전용사 및 각계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초청 외교의 강화를 건의

정호용 육군 참모총장 중남미 순방, 1984.5.24-6.5

| 84-060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중미과
MF번호	2014-44 / 8 / 1~161(161p)

1. 정호용 육군 참모총장은 군사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하여 1984.5.17.~6.9. 미국,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파나마, 태국 등 6개국을 순방함.

2. 정 참모총장은 각국의 주요 인사 면담 시, 한반도 안보환경을 설명하고 침투 저지를 위한 공동노력, 상호간 군사협력 및 방산수출 증대, 외교 및 경제협력 측면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바, 주요 인사 예방 시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Stroessner 파라과이 대통령은 북한의 랑군 만행, 김일성 사상을 비난하고 자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양국 간 적극적인 군사교류가 필요하며 적절한 시기 방한을 희망
- Pinochet 칠레 대통령은 환태평양 국가로서 활발한 양국 간 유대 및 군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 언급
- Alfonsin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양국 간 군사교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희망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양국 간 경제장관 회담을 제의
- Noriega 파나마 군사령관은 한국 방산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국산 무기구매를 제의해 온바, 8월중 군사 구매사절단의 방한을 희망
- Barletta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는 양국 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취임 전 방한 초청을 쾌히 수락
- Prem 태국 수상은 양국이 반공 전우로서 공동 안보노력을 다짐하면서 양국 간 군사,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전 참전협회에 대한 지원을 희망

3. 정 참모총장은 미국 방문 시 Marsh 육군장관, Armitage 국방성 안보차관보, Vessey 합참의장 등과 실질적 대한 군사지원, 군사교육 교류 등에 대해 협의

아르헨티나 군사 · 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1-84

| 84-0607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44 / 9 / 1~64(64p)

1. 내무부는 재외교민 보호,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증진 등을 위해 Sasiain 아르헨티나 연방 경찰청장의 방한을 추진해 왔으나 1981.12.12. 동인의 직책 사임으로 방한이 취소됨.

- 동인은 1982.10월 재차 연방 경찰청장으로 취임하여 방한초청 건을 재추진하였으나 1983.2.18. 안응모 치안본부장 명의 방한 초청장에 대해 Sasiain 연방 경찰청장은 현 아르헨티나 정세에 비추어 방한이 어려움을 회신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5.9.~14. 방한 예정인 Arguindegui 아르헨티나 육군 참모총장을 5.2. 관저 만찬에 초청 환담한바 동인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및 성취방법, 정부의 지도방법,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발전 희망 표명
- 군 관계자 면담 시 양국 군부 간 인적교류 확대 제의
- 한국의 군수산업분야 시찰, 동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보완관계 모색
- 국방상의 9월말 방한 가능성 시사

브라질 Sao Paulo시 경찰국장 방한, 1982-84

| 84-0608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44 / 10 / 1~176(176p)

1. 내무부는 상파울로 거주 한국교민들에 대해 호의적인 협조를 해온 친한 인사 Tuma 상파울로주 정치 · 사회 경찰국장을 1982.4.13.~15. 방한 초청함.

❋ 동인은 방한 기간 중 외무차관 예방, 치안본부장 만찬, 치안본부전산소, 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판문점 등을 시찰하였으며, 브라질의 신이민법은 불법체류자를 고립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하여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라고 언급

2. 내무부는 한국 교민 선도 및 보호를 위해 Amaral 상파울로 시경국장을 1984.7.5.~10. 방한 초청한바, 동 국장은 체한 중 영사교민국장 면담, 서울시경 국장 면담(자매결연 체결), 치안본부장 예방, 경주 및 포항 방문,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콜롬비아 군사 · 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 84-060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44 / 11 / 1~170(170p)

1. 1983.12.19.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은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콜롬비아 국방대학원생 일행의 방한 시(1984.3.22.~29.) 제반 분야를 시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옴.

❋ 국방대학원은 상기 일행을 위해 국방대학원 방문,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예방, 국립박물관, 비원, 민속촌, 임진각, 제3땅굴 방문 및 산업시찰(한국화약,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등의 일정을 주선

2. 1984.2.15. 주콜롬비아대사는 주재국 내 친한 인사인 Alvaro Arena Suarez 보안성 장관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1984.6.18. 국방부는 제3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초청인사에 포함하여 동인을 초청

❋ 방한(9.29.~10.4.) 주요 일정

- 9.29. 동인에게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
- 국립묘지 참배, 장관대리 예방, 재향군인회 방문, 콜롬비아 참전비 참배,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캐나다 원호성 장관 방한, 1983-84

| 84-061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44 / 12 / 1~28(28p)

1. Brittain 캐나다 원호성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원호성 관계자, 참전용사(43명), 상 · 하원의원, 언론인 등 74명으로 구성된 참전용사단이 1983.10.16.~21. 방한하여 가평 참전비 참배, 판문점 시찰, 부산 유엔군 묘지참배 등을 행함.

❁ 당초 Campbell 원호성 장관이 단장으로 인솔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사정으로 여행이 취소

2. Campbell 캐나다 원호성 장관은 1984.4.26.~28. 방한하여 국방부장관, 원호처장 예방, 국립묘지 참배, 가평 참전용사비 건립식 참석 등 일정을 마친 후 이한함.

인도 국방대학원 시찰단 방한, 1984.9.27-10.3

| 84-06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44 / 13 / 1~72(72p)

1. 인도 국방대학원 원장인 R.V. Arte 해군중장은 1984.3.30. 주인도대사 앞 서한을 통해 22명의 장교로 구성된 국방 대학원생 방문단이 84.9월 한국을 방문 예정이며, 체한 중 일정 주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 옴.

2. 주한 인도대사는 4.6. 외무부를 방문, 상기 인도 국방대학원생 방한 시 주요인사 예방, 군사 및 산업시설 시찰 등 일정을 주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함.

3.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계기로 인도 국방 대학원생 18명(교직원 2명, 인도인 학생 16명)을 1984.9.27.~10.3. 방한 초청함.

❁ 상기 방문단은 방한 중 국회의장, 국방장관, 합참의장, 외무차관 예방, 올림픽경기장, 삼성전자, 국립박물관, 민속촌 시찰, 국군의 날 행사 참석, 판문점 및 땅굴 견학 등 일정을 마치고 귀국

뉴질란드 군사 · 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 84-061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44 / 14 / 1~46(46p)

1. Holborow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84.4.3.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뉴질랜드 안보정보국의 Lindsay Smith 국장과 John Turner 부국장이 4.18.~20. 방한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방한 중 관계기관 방문 등 일정 주선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Linsay Smith 국장 일행은 방한 기간 중 보안사령관 예방, 판문점 및 땅굴 시찰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

2.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1984.1.6. 외무부를 경유하여 뉴질랜드의 David Thomson 국방장관에게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상기 초청에 따라 Thomson 국방장관 일행은 1984.6.16.~20. 방한하여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 예방, 부산 유엔묘지 참배, 가평 영연방참전비 참배, 특전사 방문 등 일정을 마치고 귀국

페루 군사 · 안보관계 인사 방한, 1984

| 84-061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44 / 15 / 1~119(119p)

1. Ricardo 페루 합참의장 겸 해군 사령관은 1984.8.13.~17. 방한하여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 등을 예방하고 판문점, 강남조선, 대우조선, 코리아 타코마를 시찰함.

❋ 대통령 예방 시 Ricardo 합참의장 아래 내용을 언급

- 페루에는 지금도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게릴라들이 산악지방에서 준동하고 있어 군부대가 전투 중인 곳도 있음을 설명
-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들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 페루는 원유, 농산물, 수산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한국은 공업이 발전하여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어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많다고 언급

2. German 페루 육군 감찰관은 1984.9.3.~8.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을 예방하고 제3땅굴, 판문점, 육사, 포항제철, 풍산금속, 올림픽경기장, 삼성전자 등을 시찰함.

❋ 대통령 예방 시 German 육군 감찰관은 페루 서남부 산악지대에서 인명살상, 테러행위를 일삼고 있는 공산 게릴라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훈련, 특수장비가 필요한바, 지원을 요청

❋ 대통령은 페루 측의 상기 요청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German 육군 감찰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

Fall, Ahmeth 세네갈 대통령 특별 참모장 방한, 1984.7.9-12

| 84-061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44 / 16 / 1~27(27p)

1. 세네갈 대통령 특별참모장 Ahmeth Fall 장군은 1984.5.24. 장세동 경호실장 앞 서한을 주세네갈대사관에 송부하여 옴.

- Fall 장군은 동 서한에서 7월 세네갈 대통령 수행 방한기간 중 경호실장 초청 내빈 자격으로 별도 일정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
- 6.20. 외무부는 경호실 측이 Fall 참모장의 서한 요청사항에 대해 수락하였음을 동인에게 통보하도록 주세네갈대사에게 지시하고 아울러, Fall 장군의 약력과 구체적 요망사항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

2. Ahmeth Fall 참모장은 세네갈 디우프 대통령 방한 시 수행 겸 대통령 경호실장 초청으로 1984.7.9.~12. 방한하여 대통령 경호실장 예방, 육군정보사, 특전사, 제3땅굴을 시찰함.

수리남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1-84

| 84-0615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44 / 17 / 1~71(71p)

1. Van Russel, F.A. 수리남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초청으로 1981.9.28.~10.3. 방한함.

❁ 1980.12월 김용휴 대통령 특사의 수리남 방문 시 동인의 방한초청을 약속

2. Neede, Laurens E. 수리남 국방 · 경찰장관은 국방부장관 초청으로 국군의 날 행사참석과 방산품 참관 및 구매를 위하여 1981.9.29.~10.5. 방한함.

❁ 동인은 방한 중 대통령, 국방부장관 예방 및 경복궁, 국립박물관 관람, 방산물자 전시장, 판문점, 제3땅굴 등을 시찰

❁ Neede 장관은 귀국 후 한국으로부터 과다한 뇌물을 받았다는 오해로 경질

3. 주수리남대사는 1980.6월 보우터스(Bouterse) 수리남 국군 총사령관을 면담한바, 동인은 수리남 군대가 창설된 지 일천하므로 훈련제도, 장비 면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주수리남대사는 동인이 종래의 좌경 노선에서 친서방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실력자이며 한국군 및 군수산업 시찰을 위하여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 국군의 날 행사를 전후하여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

- 김용휴 대통령특사는 1980.12.8. 보우터스 군총사령관 면담 시 방한을 초청

❁ 주수리남대사는 1981.2월 혁명 2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보우터스 군총사령관이 대통령이 되고 신아센 대통령이 하야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하면서, 1983.3월 뉴델리 비동맹정상회의를 전후하여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

❁ 외무부는 좌 · 우익 간 대립격화로 수리남 국내정세의 혼미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리남 군부의 거취 등 정세를 관망하기로 함에 따라, 보우터스 군총사령관 방한초청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보다 동인이 방한 의사를 표명해 올 경우 추진키로 결정

PRASONG Soonsiri 태국 국가안보국 사무국장 방한, 1984.1.23-25

| 84-061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44 / 18 / 1~65(65p)

1. 주태국대사관은 1983.12.21. Prasong Soonsiri 주재국 국가안보국 사무국장이 1984.1.20.~22. 서울에서 개최되는 태평양안보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동 기회에 한국 정부 명의로 동인을 방한 초청하여 동인이 회의 참석 후 3~4일 추가로 체한하면서 안보관계 인사들과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Prasong 사무국장은 1984.1.18.~25.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 태평양안보회의 참석 후 외무장관, 외무차관 예방, 국가안전 보장회의 및 새마을 운동본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Prasong 사무국장은 1984.1.23. 외무장관을 예방한바, 동 사무국장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민주캄푸치아연정 3파의 병력은 6만 정도로 증강되었으나 장비 부족으로 베트남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
   - ❋ 3파 중 크메르루즈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북한도 크메르루즈의 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서방 온건노선인 손산파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망
   - ❋ 소련은 베트남에 하루 3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지원 중지시 베트남의 몰락은 필연적
   - ❋ 북한의 위험성과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당분간 북한과의 관계증대는 없을 것임을 설명

Alonso Leguisamo, Justo M. 우루과이 국방장관 방한, 1984.9.27-10.2

| 84-061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44 / 20 / 1~55(55p)

1. 국군의 날 행사를 계기로 후스토 알론소(Justo M. Alonso Leguisamo) 우루과이 국방장관이 1984.9.27.~10.2. 방한함.

❁ 동인은 방한 중 일정으로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예방,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대우 옥포조선소 방문 등

2. 후스토 알론소 국방장관에게는 보국훈장 통일장이 수여되었으며 동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 · 우루과이 정상 간 친서가 교환됨.

한 · 가봉 군사협력, 1982-84

| 84-0618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44 / 22 / 1~152(152p)

1. 주가봉대사는 1982.9월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국 방문 시 공관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 경제협력 분야
- 가봉 횡단철도 제3단계 사업 참여 검토
- 해운협정, 항공협정 체결을 통한 자재 수송비 절감방안 강구
- 양국 간 기술교류 추진

❋ 국방 분야
- 대게릴라 특전대 훈련관 파견 문제
- 대가봉 무기 연불수출

❋ 교민 관계
- 국민들의 대가봉 진출확대를 위한 노력

2. 외무부는 1984.7월 아프리카제국의 군사 및 경호협력 요청과 대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 개도국과의 군사 및 경호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수혜국에 대한 외교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협력분야로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만 지게 되고 외교적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

❋ 개도국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분야는 경제 분야이며 군사원조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 대개도국 군사 및 경호협력 제공은 가급적 회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용히 수행

3. 외무부는 1984.9.19. 한 · 가봉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한국인 경호요원 고용 건은 해외개발공사를 창구로 한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 차원의 인력 송출로 추진하되 요원의 선발, 조직 및 경호 관계 교육 등은 관계부처에서 측면 지원

❋ 대가봉 방산품 수출은 초기 단계에는 가봉에 기 진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창구로 활용

파나마의 군사지원 요청, 1982-84

| 84-061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45 / 1 / 1~107(107p)

1. 주콜롬비아 대사관은 송인청 무관의 1981.11.15.~19. 겸임국 파나마 출장 후, 양국 간 군사 유대강화를 위하여 약 1만 벌 정도의 대파나마 군복류 기증 및 파나마의 유력 군부인사 방한 초청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주파나마대사는 1983.8.18. 주재국 방위군 민사참모 Purcell 중령을 면담한 후, 8.12. 발족한 신군부에 대한 외교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농기구(경운기, 농약 살포기 등), 우물 펌프,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운동복 및 운동화 등 약 1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건의함.

- ❁ 주한 파나마대사는 1983.10.25.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군선무 공작품(트럭, 땅 고르는 기계, 불도저, 그레이더, 포클레인, 수동식 물 펌프, 덤프트럭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3. 주파나마대사는 1984.1.10. 주재국 국방군 G-3 차장 Elias Castillo Figueroa 중령을 면담하고 주재국 군사 사절단의 방한 계획을 협의한바, 동인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파나마 정부는 1984~88년 기간 중 군사력 증강계획에 따라 필요장비(화기, 군용차량 등 군수품) 구입 및 양국 군부 간 협력증진 방안모색을 위해 Castillo 중령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
- ❁ 파나마 측은 한국 측이 주재국 최고 실력자인 Noriega 국방사령관을 초청하고 동 사령관은 Castillo 중령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사전 실무 협의차 파견하는 형식을 희망

4. 국방부는 1984.3.6. 공문을 통해 파나마 군사절단 방한 시 파나마 측이 군사훈련 목적으로 한국 교관단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온바, 외무부는 주파나마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1984.4.23.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회신함.

- ❁ 멕시코 등 Contadora Group 국가를 포함한 역내 비동맹 표방 제국이 중미분쟁의 당사국 간 해결과 모든 외국 군사고문단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현 시기에 교관단 파견은 중남미제국의 오해와 반사적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

5. 1984.10.3. 파나마 군사령부 측은 군 사절단의 10.17.~24. 방한을 희망하여 한국 측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파나마 측이 방한 계획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무기연기하게 되었다고 10.8. 주파나마대사관에 통보해 옴.

한 · 사우디아라비아 군사협력, 1984

| 84-062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4-45 / 2 / 1~250(250p)

1. 권영각 국방차관은 1984.7.20.~25.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한 · 사우디 양국 간의 군사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 · 사우디 군사교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 1984.8.31. 권영각 국방차관과 Humaid 사우디 국방항공성장관보는 한 · 사우디 군사교류협의체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 국방차관은 사우디 방문기간 중 제2부수상 겸 국방항공상, 국방차관을 예방하고 군총참모장 및 각 군사령관과의 합동회의 개최 및 군수공장시찰 등 일정을 가진바, 이번 사우디 방문으로 한국의 대이란 무기 유출설에 대한 사우디 측의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사우디 군사사절단의 방한 초청, 한 · 사우디 군사교류위원회 설치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을 촉진

2. 국방부는 Humaid 사우디 국방항공성장관보를 방한 초청키로 하고 구체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나 사우디 국내사정 및 동인의 건강악화로 방한이 무기 연기됨.

3. 제3차 외무 · 국방 정책협의 실무조정위가 1984.11.16. 국방부 정책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주요 협의 의제는 한 · 미 의사록 개정건, 미 태평양사 한국군 근무단 설치, 대미 실무외교 강화방안, 한 · 사우디 군사회의 추진, 제17차 SCM 계획 등임.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 · 미국 학술회의, 제3차. San Francisco, 1984.11.18-20

| 84-06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45 / 3 / 1~32(32p)

1. 외교안보연구원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 · 미 학술회의를 1984.11.18.~20. 후버 연구소에서 개최함.

❋ 한국은 박근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약 15명이 참가

2. 동회의 개막식에 참가한 Sherman 미 국무성 동아 · 태 부차관보는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제하의 기조연설을 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압적인 사회로서 소비자 경제를 외면한 채 군비증강에만 몰두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는 고립되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랑군 사건을 통해 확인

❋ 북한의 새로운 경제동향은 권력세습과도 관련이 있으나 권력승계가 대외관계, 경제정책, 대남태도 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

❋ 한국의 경제발전은 진정한 성공인바, 한국은 GNP 6%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군사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북한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 언급

❋ 미국의 일관된 정책목표는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이며 최선의 방안은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단계적 긴장완화라고 믿고 있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참여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보내거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

IISS 주최 동북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 국제학술회의. 서울, 1984.12.12-15

| 84-062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4-45 / 4 / 1~59(59p)

1. 런던 소재 국제 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동북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 국제학술회의가 1984.12.12.~15. 서울에서 개최됨.

2. Sidney Bearman은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통적으로 소련의 주관심사는 유럽이었으나 최근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소련에 대한 안보위협이 극동지역에서 증대하고 있는바, 중 · 소 분쟁, 미 · 일 · 중간의 반소련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 일본, 중국(구 중공) 군대의 현대화 등이 위협 요소
- 소련은 시베리아 지역의 석탄, 철강, 원유, 천연가스 등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시베리아지역 내 인구유입 장려, 인프라 확충, 일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합동위 개최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Tyumen 유전개발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
- 소련의 대북한 정책은 과거 15년간 늘 양면적이거나 애매하였으며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규모에 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보다 못한바, 소련은 변덕스런 북한의 리더십이 미 · 소 간 군사적 대립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우려

3. 드리프테 IISS 부소장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간담회에서 유럽에서조차 신뢰조성 조치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보다 심각한 긴장상태 하에 놓여 있는 한반도에서 신뢰조성 조치는 극히 필요하다고 언급함.

CSIS 주관 동북아문제 한 · 미국 학술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84.4.23-24

| 84-062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45 / 5 / 1~224(224p)

1.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 대학의 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는 1984.4.23.~24. 동북아문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바, Solarz 미 하원 아·태 소위위원장은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Brzezinski 박사는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2. 한국 측 단장인 이종찬 원내총무는 Bush 부통령, Wright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면담, 하원 외무위원장 주최 다과회, Hatch 상원의원주최 오찬에 각각 참석하였으며, 귀로에 뉴욕을 방문하여 Asia Society 만찬 참석 및 연설, 뉴욕시장 면담, NYT, Newsweek, Time 등 유력 언론과의 회견을 가짐.

중공 개최 국제기구회의 참가 추진, 1983-84

| 84-062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국제연합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4-45 / 6 / 1~414(414p)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철도수송 운영효율 제고에 대한 세미나(1983.9.14. 북경 및 상해)

❋ ESCAP 사무국은 철도수송 운영효율 세미나를 주최하는 중국(구 중공) 측과 협의하여 초청국을 역내 개도국 위주로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1개국을 선정하였으나 한국은 제외되었음을 설명하였다고 주태국대사관이 1983.8.10. 외무부에 보고함.

- 주태국대사관이 외무부의 8.19. 훈령에 따라 한국이 초청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ESCAP 측에 탐문한 바, 주최측인 중국과 사전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중국 측의 의사에 따라 한국이 제외되었다고 파악

2. 국내위성통신에 관한 세미나(1983.10.5.~12. 상해)

❋ 정부는 국제통신연합(ITU) 산하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와 중국 우정성 공동개최 동 세미나가 88올림픽 대비 통신용 위성발사 사업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가를 추진

❋ 체신부는 직원 2명 파견의사를 1983.4.21. 중국 체신부장관 앞 서한으로 통보하고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CCIR을 상대로 교섭한바, 체신부 서한이 한국으로부터의 등기우편물 취급 불가라는 표시와 함께 6.10. 반송되어 왔고 CCIR은 한 · 중 관계 때문에 한국대표를 접수할 수 없다는 7.12.자 중국 측 회신을 접수

❋ 주제네바대사는 중국 측이 재검토 결과 한국 전문가 2인을 참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CCIR 측에 알려왔음을 8.29. 외무부에 보고, 체신부 서울전파감리국장 등 2명이 홍콩에서 중국 입국비자 발급받아 동 세미나 참석

3. 국제표준화기구(ISO) 연수세미나(1984.4.2.~13. 상해)

❋ ISO 측(제네바 소재)이 중국비자 취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참석포기를 권유한 데 대해 ISO 본부를 상대로 교섭하면서 필요시 경비를 한국 부담으로 참가를 준비하였으나 중국 측이 남북한 공히 초청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사증발급 불가를 통보하여 참가가 무산된바, 외무부는 참가 추진을 일단락하고 ISO가 주관하는 회의에 모든 회원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ISO 측에 전달

4. 또한, 1984.4.2.~15. 북경 개최 Seminar on Remote Sensing for Geological Applications, 1984.8.16.~20. ESCAP 실크산업시찰 (중국 항주), 1984.9.3.~14. 중국 항주 개최 수리학 관련 UNIDO 워크숍, 1984.9.19.~30. 북경 개최 ESCAP 표준화 · 품질관리 세미나 등에 한국의 관련 전문가가 각각 참석함.

소련 개최 국제기구회의 참가, 1984

| 84-062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5 / 7 / 1~155(155p)

과학기술처는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이 소련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을 초청해 옴에 따라 미수교국 개최 회의 참가문제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 조회 후 참석 대표를 추천, 주일 소련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아래와 같이 소련 개최 세미나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킨 내용임.

1. 철도 전철화 관련 기술 이전과 훈련 제공을 목적으로 1984.8.28.~9.18. 모스크바 및 Rostov-on-Don에서 개최된 전철화 세미나에 철도청 전기국장이 참석

2. 항만개발정책, 화물처리,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1984.9.7.~17. Odessa에서 개최된 항만조직, 관리에 관한 세미나에 해운항만청 건설과장이 참석

3. ESCAP 역내 개도국의 개발기획 담당 관리들에게 지역개발 기법 등에 관한 경험습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1984.9.14.~29. 모스크바 및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지역개발 관련 세미나에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이 참석

4. 기술 및 조직 환경의 변화 가운데 통계가 직면하는 문제를 점검, 토의하기 위해 1984.9.26.~10.5.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환경변화 통계 관련 세미나에 환경청 기획조정국장이 참석

1984년도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4.11.7

| 84-062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5 / 8 / 1~190(190p)

1. 1984.11월초로 예정된 유엔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를 앞두고 UNDP(유엔개발계획), UNFPA(유엔 인구활동기금), UNICEF(유엔아동기구) 등이 동 활동에 대한 기여금 증액을 1984.6.15. 한국 정부에 요청함.

❁ 유엔 사무총장은 상기 서약회의가 1984.11.7. 개최되며 이와 별도로 유엔 난민사업 관련 서약회의로 UNHCR(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1984.11.6. UNRWA(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는 1984.11.19. 각각 개최됨을 통보

2.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 보건사회부의 소관 분야 기여금 관련 입장 확인 후 한국 정부의 기여금으로 UNDP 893천 달러 등 개발활동 1,183천 달러, UNHCR 1만 달러, UNRWA 5천 달러를 1984.11.1. 확정하였으며 주유엔대표부가 서약회의에 참석, 국회 동의 조건으로 1984.11.8. 서약함.

3. 주유엔대표부는 각종 활동, 기금의 권위와 사용용도, 결과 등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외교적, 실질적 이익 등 기준에 따라 자발적 기여금 전체를 재검토할 것을 1984.12.13. 외무부에 건의함.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1984

| 84-062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5 / 9 / 1~11(11p)

유엔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1962년 구입한 유엔공채의 제22차 연도 말 원금 상환액(18,800 달러) 및 이자(1,560달러)에 해당하는 총 20,360달러 수표를 1984.1.16.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해 온바, 외무부는 이를 1984.1.25.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재무부에 참고로 통보함.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 기본 대책

| 84-062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5 / 10 / 1~238(238p)

1. 한국은 1975년 제30차 총회에서 남북한 양측 결의안이 각각 통과된 이래 총회 기조연설 지지발언 문제에 중점을 두지 않았으나 친북한 국가들의 북한입장 지지발언이 계속됨에 따라 1981년 제36차 총회부터 지지발언 교섭을 적극 전개함.

❁ 외무부는 그간의 교섭활동이 외교적 부담, 남북한 간 지지발언 숫자경쟁 등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일방적 반한 선전 견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심유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남북한 외교대결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책동 견제를 위한 지지발언 교섭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

2. 외무부는 제39차 유엔총회대책을 작성하여 1984.6.9.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한바, 동 총회대책은 3자 회담의 허구성과 직접회담의 당위성 홍보, 한국의 유엔가입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확보, 한반도 문제 불상정 방침 견지 등의 기본대책과 함께 북한의 한반도 문제 기습상정 대비, 기조연설에서의 지지발언 확보를 위한 103개국 대상 교섭 등 시행계획을 담고 있음.

❁ 외무부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조연설 교섭용 비망록을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본 등으로 작성, 교섭대상국 주재 공관에 송부하여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훈령하는 한편, 외무부 본부에서도 주한대사관과 주요 방한인사를 상대로 교섭

3. 주유엔대표부는 책임교섭 대상국 27개국을 위시하여 각 회원국을 상대로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전개하면서 한반도 문제 기습상정 및 반한선전 등 북한 책동에 대비하여 총회 각 위원회 토의 참여(위원회별로 최소 1회 이상) 등 제39차 총회 대책을 마련, 시행함.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2 본회의

| 84-062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5 / 11 / 1~264(264p)

1. 제39차 유엔총회는 1984.9.18. 개회, Lusaka 주유엔 잠비아대사를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43개 의제에 대한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토의 후 예정대로 12.18, 정회(Suspension)한바, 본회의 토의 결과에 대한 아래 내용 등 주유엔 대사 보고와 관련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 (신임장) 제출된 신임장을 모두 접수하기로 한 신임장위원회 보고서를 10.17. 토의 후 표결 없이 채택한바, 이란이 신임장위원회 보고서 중 이스라엘의 신임장을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덴마크가 이란 제안에 no action motion을 동의하고 표결로 채택되어 신임장위원회 보고서 전체가 그대로 채택
- (중미사태)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적시하는 내용의 별도의 결의안을 니카라과가 제출했으나 의장의 중재로 표결에 회부되지 않고 Contadora Group이 제안한 결의안을 10.26. 표결 없이 채택
- (캄푸치아 사태) 캄푸치아에서의 모든 외군 철수, 캄푸치아 국내문제 불간섭 등 요지의 아세안 등 55개국 공동제안 결의안을 10.30. 표결로 채택한바, 동구권과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 22개국이 동 결의안에 반대
- 총회 본회의와 안보리에서 11.7. 각각 진행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 5인 선거에서 나이지리아(재선), 노르웨이, 폴란드(재선), 중국, 일본(재선) 후보가 선출
- (아프가니스탄 사태) 동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과 아프간 국민의 자결권을 재확인하는 요지의 결의안이 11.15. 표결 채택된바, 미 · 일 · 중국 및 다수 비동맹국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규탄하고 외군철수가 문제해결의 최우선 요소임을 강조한 반면 소련, 동구권 등은 유엔에서의 토의는 내정 간섭이며 현 카불정부를 인정해야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
-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시설 공격) 이라크가 23개국과 공동으로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을 제출한바, 동 결의안이 38차 총회 결의에 비해 너무 강하다는 견해가 다수 비동맹국에 의해 제기되자 이라크가 완화된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 11.16. 표결로 채택

2. 제39차 총회는 예년에 비해 온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바, 주유엔대사는 주유엔 일본,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대표부 등이 같은 견해를 보였으며 일본 측은 또한 미국 등 서방권의 영향력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11.17. 보고함.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3 위원회별 토의 I : 1위원회

| 84-06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5 / 12 / 1~125(125p)

제39차 유엔총회 각 위원회별 토의에서의 한국 관련 언급 현황과 제1위원회 토의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관련 언급현황(1984.12.7. 현재) 및 대처방안(외무부 보고자료)

- 제1위원회(군축 및 안보)에서 지중해 안보협력 등 국제안보 관련 안건 토의 시 소련대표는 한 · 미 · 일이 공산국가를 목표로 NATO류의 군사동맹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하고 유고슬라비아, 몽골,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가 북한의 통일제안에 대한 지지를 짤막하게 언급하였으며 라오스는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음을 언급
- 제3위원회(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토의 시 동독이 인권문제 관련 한국을 간략히 언급하였고 일부 친북한 국가들의 추가 언급 가능성이 존재
- 제1위원회의 관련 안건은 공산권이 제안한 의제들로서 서방은 대부분 동 안건 토의에 참여치 않고 있으며 제3위원회의 경우 대응 시 오히려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유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 한국 관련 언급이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묵살하는 방향으로 결정

2. 제1위원회 토의결과 보고서(유엔대표부 작성)

- 27개 의제를 다룬 제1위원회에서 동서 양 진영이 상대의 군축정책을 비난하는 열띤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미 · 소 양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

  - 미국, 소련, 중국(구 중공) 등 주요국의 제1위원회 토의에 임하는 입장과 제1위원회 소관 각 의제의 배경, 토의 경과, 채택 결의안 요지 등을 종합, 정리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4 위원회별 토의 II : 3, 4, 5위원회

| 84-063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5 / 13 / 1~184(184p)

주유엔대표부는 유엔총회 토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제39차 총회 토의 참여 의제로 1위(군축), 2위(경제) 및 6위(법률)와 함께 3위(사회)의 관련 의제를 선정한바, 한국의 3위 토의 참여와 4위(탈식민) 및 5위(예산) 토의 결과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제3위원회

❋ 토의 참여

- 한국 청년의 사회활동과 한국의 청소년 선도사업 소개,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노인인식 소개, 서구 물질문명과 동양 전통문화의 교류증진 필요성 강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 소개 등 방향으로 청년, 노인, 여성관련 의제 참여를 결정
- 문교부, 보건사회부, 노동부와 협조하여 청소년대책 관련사업 실적, 청소년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유교가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 노인문제 현황 및 실적, 여성관계 자료, 한국의 직업훈련 현황, 외국인력 초청 기술연수 현황 등 자료를 제공, 유엔대표부에서 관련 의제 토의에 참여
- 주유엔 대표부는 유엔이 1985년을 세계청년의 해로 지정하고 청소년 교육과 직업훈련 강화 등 많은 조치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 세계청년의 해 관련 국내행사를 보다 적극화해 줄 것을 건의

❋ 제3위원회 토의에서 동구권 국가들의 한국 관련 언급 내용을 정리

2. 제4위원회

❋ 식민지 독립을 저해하는 외국의 경제활동 관련 의제에서 남아공을 규탄하는 2개의 결의안이 채택된바, 특정국가(미국, 이스라엘) 지칭 부분의 삭제를 주장한 미국 측 수정안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39차 총회 전반의 온건화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

❋ 서부사하라 문제 관련, 모로코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고 유엔 감시하의 국민투표 요지의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다수 국가가 서부사하라의 자결과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모로코는 결의안을 철회하고 제38차 총회 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알제리 제출 결의안이 채택

3. 제5위원회

❋ 1986~88년 적용될 각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비율 산정기준 관련, 분담금위원회는 GNP 및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현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외채부담 등 경제사정 고려, 산유국 특별고려, GNP가 아닌 National Wealth 개념 적용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합의에 실패, 총회 속개회의(1985년도)로 논의를 연기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5 위원회별 토의 III : 특별정치위원회

| 84-063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5 / 14 / 1~302(302p)

제39차 유엔총회 특별정치위원회에서의 토의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핵 방사선의 영향

- 제10차(1955년)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된 이래 계속 논의되어 온 문제인바, 의제 관련 설립된 핵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가 전리방사선의 농도, 영향 및 위험도에 관한 지식축적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토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가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등이 남태평양에서의 프랑스의 핵실험 종식을 촉구하였으며 소련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치를 주장한바, 동 의제가 동 · 서 간 주요 쟁점의제는 아니나 동구권이 외기권에서의 군비경쟁 반대 등 군축관련 선전 forum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관측

2.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검토

- 토의 참여국 다수가 평화유지군에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하는 가운데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와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평화유지군 분담금 미납 회원국의 책임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소련 등 동구권은 신속배치군 또는 다국적군 배치는 유엔헌장 무시라고 서방 측을 간접 비난
- 1965년 총회가 설립한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임무를 재확인,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미국과 소련 등 주요국간 이견으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지침 작성이 난망시되어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3. 팔레스타인난민 구호사업기구(UNRWA)

- 1949년 설립되어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교육, 건강관리 등을 수행해 온 동 기구의 심각한 재정상황 관련, 중동국가들과 소련 등은 UNRWA 재정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원국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구제국은 국제사회의 재정분담 필요성을 역설
- 동 의제 관련 UNRWA에 대한 기여금 제공 내지 증액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11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공산권의 기여금 제공이나 서구권의 기여금 대폭 증액 가능성이 없어 UNRWA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4. 정보에 관한 문제

-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발표하고 영국의 탈퇴가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신정보통신 질서와 유네스코 운영에 대한 서구권의 비판이 강하게 제시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6 지지 교섭 I : 84.6.27-8.18

| 84-063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1 / 1~175(175p)

정부는 제39차 유엔총회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반한 선전책동을 견제하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공산권 및 친북 좌경국가를 제외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남북한 당국자 간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총회 기조연설에 포함해 줄 것을 교섭한바, 재외공관에 교섭방침 통보(1984.6.26.) 및 교섭용 비망록 송부(1984.7.21.) 이후 1984.8.18.까지 각국의 주요 반응은 아래와 같음.

- 파라과이(지지 발언에 어려움 없음), 칠레(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
- 요르단(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되도록 노력), 코트디부아르(총회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 것임), 카메룬(최선 노력, 담당국장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인상을 주기보다 대화촉구라는 선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는 사견 표명)
- 파나마(기조연설 포함되도록 최선), 캐나다(초안기초위원회에서 1983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언급 결정), 그리스(사이프러스, 에게해 문제 등 시급한 현안으로 한반도 문제 언급 어려울 것으로 예상), 태국(기조연설 포함 건의하겠음), 필리핀(적극 건의하겠음)
- 룩셈부르크(적극 노력), 인도(인도 입장 결정시 한국의 희망 유의), 바레인(최대 협조), 에티오피아(중립 입장을 취하게 될 것), 이탈리아(긍정적으로 검토), 페루(한국입장 지지 표명토록 최선), 스리랑카(직접대화 지지 포함하겠음)
- 미얀마(구 버마)(한반도 문제 불상정 이후 이 문제 거론하지 않았음), 오만(한국입장 지지), 바베이도스(직접대화 촉구 고려, 유엔가입 문제는 검토), 방글라데시(반영되도록 건의하겠음), 이라크(긍정적 검토를 건의하겠음), 라이베리아(한국입장 반영되도록 노력)
- 미국(한국의 요청 반영되도록 노력), 우루과이(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수리남(한국입장 고려하도록 노력), 이란(호의적으로 검토), 네팔(남북대화 필요성 강조하겠음, 유엔가입 문제는 검토), 브루나이(유엔가입 후 첫 총회로 특정 문제 공개적 언급 어려움), 피지(호의적 검토), 수단(마지막 단계에서 뉴욕 양국 대표부 간 긴밀 협조 권유)
- 사우디(한국정부 요청 수용 위해 최선), 쿠웨이트(비동맹, 분단국 등거리정책으로 한국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언 어려움), 노르웨이(총회 의제에 포함된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노르웨이 방침), 콜롬비아(적극 협조), 튀니지(한국입장 반영 위해 최선), 터키(한국입장 지지방침에 변화 없음), 도미니카(공)(한국입장 지지발언 건의하겠음)
- 벨기에(한국문제 언급 추진 중), 네덜란드(세계 주요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언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음), 핀란드(중립정책상 공식적으로 어느 일방 지지 발언을 할 수 없는 입장) 등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7 지지 교섭 II : 84.8.19-9.7

| 84-063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2 / 1~205(205p)

1. 정부는 제39차 유엔총회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반한 선전책동을 견제하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남북한의 유엔가입 지지와 남북한 간 직접 대화 촉구 입장을 총회 기조연설에 포함해 줄 것을 공산권 및 친북 좌경국가를 제외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한바, 1984.8.20.~9.8. 각국의 주요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말레이시아(남북한 직접대화 촉구내용 포함 노력), 독일(호의적으로 고려), 페루(남북한 직접대화 지지 표명, 유엔가입 문제는 검토), 나이지리아(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미국(레이건 대통령 연설이 군축문제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므로 지역문제 언급 가능성 거의 없음), 태국(남북한 직접대화 촉구 호의적 검토 중, 유엔가입 문제는 미묘한 문제로 언급하기 어려움), 바레인(한국문제 포함시키기로 결정), 포르투갈(개별 지역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음), 브라질(기조연설보다 제1위에서 언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세네갈(남북한 대화 촉구 문제없음, 유엔가입 문제는 상부 보고)
- 아일랜드(초안에 남북한 대화 관련조항 포함, 유엔가입 문제도 포함되도록 노력),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신정부 성향이 중립비동맹 색채가 강하여 한국문제 포함 어려울 것으로 보임), 오만(총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입장이나 한국 문제가 거론되면 한국지지 발언할 것임)
- 볼리비아(연설 초안에 남북대화 촉구 내용 포함하겠음), 레바논(레바논 사태로 그 밖의 문제는 언급하기 어려움), 인도네시아(아세안 국가와 협의를 거쳐 유엔에서 결정), 이탈리아(한국지지 초안에 포함됨) 등

2. 외무부는 1984.9.1. 현재 교섭결과를 종합, 지지발언 확실시 20개국, 가능성 높은 국가 14개국, 불확실한 국가 39개국, 지지 불가능 판단국가 19개국 등으로 분석,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하고 이후에도 교섭상황을 통보, 주유엔대표부의 기조연설 지지교섭 등을 지원함.

3. 외무부는 미국 측이 지역문제에 대하여는 언급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제의 3자회담 당사자로 지칭되는 미국이 남북 직접대화 지지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3자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미국이 한국입장 지지발언을 하도록 적극 교섭할 것을 1984.8.22. 주미대사에 훈령한바, 주미대사관이 8.31. 접촉한 미 국무성 고위 관계자는 지역문제를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반응을 보임.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도 8.23.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을 초치, 지지발언을 요청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8 지지 교섭 III : 84.9.8-10.11

| 84-063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3 / 1~230(230p)

1. 정부는 제39차 유엔총회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반한 선전책동을 견제하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남북한 당국자 간 직접대화 촉구와 남북한의 유엔가입 지지 입장을 총회 기조연설에 포함해 줄 것을 공산권 및 좌경국가를 제외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한바, 1984.9.11.~10.11. 교섭결과 주요 반응은 아래와 같음.

- ❋ 지지발언 확실 국가: 일본, 태국, 필리핀, 케냐, 세네갈, 독일, 이탈리아, EC(아일랜드가 대표로 연설), 파라과이 등
- ❋ 지지발언 불가 예상 국가: 카타르(한국입장 지지하나 공식 의제가 아니어서 거론 어려움), 싱가포르(소국인 싱가포르의 기조연설은 한두 개 핵심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관례), 오스트리아(한국의 요청 논의하였으나 중동, 아프리카 등 4개 문제만 다룬다는 방침에 따라 채택되지 못함), 뉴질랜드(군축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지역문제 불언급 방침), 베네수엘라(중미문제 외 지역문제는 불언급 방침), 과테말라(좌익 게릴라와의 대화 등 국내문제만 언급 방침), 파나마(Contadora Group 및 파나마 운하조약 관련사항만 언급 방침) 등
- ❋ 영국은 남북한 직접대화 촉구는 기조연설 초안에 포함하였으나 유엔가입 문제의 경우 한국만 언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남북한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이를 기회로 영국의 북한승인을 종용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발언이 곤란하다는 반응

2. 외무부는 1984.9.15. 현재 반응을 지지 확실시 30개국, 지지가능 16개국, 불확실 39개국, 지지불가능 21개국으로 종합,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하고 그 후 접수되는 교섭결과와 유엔에서의 교섭을 권고하는 반응 등을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하여 현지 막바지 교섭을 지원함.

3. 한편, 북한은 문서와 각국 정부 접촉을 통해 3자회담과 고려연방제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한 유엔가입 반대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됨.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9 기조 연설 I : 종합

| 84-063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4 / 1~166(166p)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3자회담 선전 등 북한책동을 견제하기 위해 공산권 및 친북 좌경국가를 제외한 107개국을 대상으로 전개한 제3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1984.9.24.~10.11.) 교섭결과를 분석(각국의 발언내용 포함)하여 재외공관에 배포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교섭 내용(비망록 요지)

- 한국의 한반도 정책(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요청
-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한반도 통일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가입 지지)

2. 기조연설 결과

- 기조연설 참여 150개국 중 100개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한바, 51개국이 한국입장 지지, 33개국이 북한입장 지지, 14개국이 중도적 입장을 표명
- 한국입장 지지(51개국)
  - 한반도 정책 지지(48), 유엔 가입 지지(22), 유엔사무총장의 중개역할 지지(2), 랑군범죄 언급(4), 북한의 수재 구호품 한국 접수 평가(3), 88올림픽 단일팀 구성 언급(1)
- 북한입장 지지(33개국)
  -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지지 (11) 외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3), 주한미군 철수(19), 한국의 핵 기지화(3), 한·미·일 3각 동맹(3) 등이 언급

3. 평가

- 한국입장 지지국가가 38차 총회 시 33개국에서 51개국으로 증가한 데 비해 북한지지 국가수는 33개국으로 변동이 없는 점에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충과 북한의 선전책동 견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 제3세계에서 한국입장 지지국가가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북한입장 지지국은 오히려 감소한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꾸준한 외교적 노력의 결실로 평가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0 기조 연설 II : 84.9.23-10.5

| 84-063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5 / 1~187(187p)

1. 정부는 공산권 및 친북한 좌경국가를 제외한 107개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제3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을 촉구해 줄 것을 교섭함.

   ❁ 기조연설은 1984.9.24.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된바, 주유엔대표부는 각국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관련 언급 여부와 언급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 보고를 기초로 기조연설 국가를 한국지지/북한지지 발언국가, 중도적 발언국가, 한반도 문제 불언급 국가로 분류하여 기조연설 결과를 일일 보고한바, 1984.10.5. 기준 기조연설을 행한 112개국 중 35개국이 한국지지, 31개국이 북한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4개국은 중도적 내용으로 발언하였으며 42개국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

3. 콜롬비아, 브라질, 벨기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필리핀, 카타르, 에콰도르, 요르단, 이란, 볼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재국 대표의 기조연설 내용을 보고 또는 연설문 송부하였으며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동국 외무장관 기조연설 중 한반도 관련 부분(한국의 유엔가입 지지)을 공한으로 보내옴.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1 기조 연설 III : 84.10.6-12.3

| 84-063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6 / 1~246(246p)

1. 정부는 공산권 및 친북한 좌경국가를 제외한 107개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제3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을 촉구해 줄 것을 교섭함.

❁ 기조연설은 1984.9.24. 시작된바, 주유엔 대표부는 각국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관련 언급 여부와 언급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는 주유엔 대표부 보고를 기초로 기조연설 국가를 한국입장 지지/북한입장 지지 발언 국가, 중도적 발언 국가, 한반도 문제 불 언급 국가로 분류, 일일 보고한바, 10.11. 현재 기조연설 국가 148개국 중 한국지지 52개국, 북한지지 34개국, 중도적 발언 12개국, 불언급 50개국으로 집계함.

3. 기조연설 종료 후 외무부는 한국입장 지지발언국인 주유엔 각국 대사에게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 감사서한을 발송토록 조치한바, 주유엔대사는 양국관계 등을 고려, 지지발언국 외에 중도입장을 표명한 일부 국가에게도 감사서한을 보냈으며 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스리랑카 대사도 주재국 정부에 구두 또는 서한으로 사의를 표함.

4. 주요르단대사는 요르단 외무성 측에 동국 기조연설의 한반도 관련 언급(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장애 상존)이 불분명했던 점에 실망을 표하고 금후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에티오피아가 종래의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친북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금후 중립적이고 공평한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함.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2 종합 보고

| 84-06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7 / 1~147(147p)

제39차 유엔총회가 1984.9.18.~12.18. 3개월간의 회기를 마치고 정회에 들어간바, 총회 결과 보고와 일부 의제 설명, 총회 속개회의(1985.4.9.~12.) 및 폐회(1985.9.16.) 관련 사항임.

1. 제39차 유엔총회 결과보고

❋ 주요 결정사항

- 143개 의제 중 안보리 이사국 증원문제 등 6개 의제는 제40차 총회로 토의를 이관하고 12개 의제는 미결로 남아 1985년도 속개회의에서 토의 결정
- 총회는 354개 결의와 88개의 결정을 채택한바, 군축 · 중동 · 아파타이트가 계속 유엔총회의 주요 문제로 토의되었으며 특히 한발 등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위기 문제가 새롭게 주요 문제로 등장
- 호주, 덴마크, 트리니다드토바고, 태국 및 마다가스카르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일본 등 18개국을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하였으며 ICJ 판사 5명(나이지리아, 폴란드, 일본, 노르웨이, 중국) 외에 14개 유엔기구와 산하기구의 위원국 및 위원을 선출

❋ 종합평가

- KAL기 사건 등으로 미 · 소 간 대립이 첨예하였던 제38차 총회와 대비할 때 특별한 대결 이슈가 없어 비교적 온건하고 사무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Lusaka 총회의장은 제39차 총회 전반을 타협과 조화의 회기로 평가)
-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군축회담 제의 등 동 · 서 간 긴장완화 움직임이 제39차 총회를 계기로 유도된 점이 주목
- 국제경제 분야는 남북 포괄협상(Global Negotiations) 의제에서 선진국과 77그룹 간 협상 실패 등 선 · 개도국 간 협력에 별 진전 없었다고 평가

2. 제39차 유엔총회 속개회의

❋ 1985.4.9.~12. 개최되어 KAL기 피격사건 안보리 토의경과 등이 포함된 안보리 보고서를 접수하고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포괄협상, 유엔예산 분담률 등 의제를 다루고 정회

❋ 1985.9.16. Lusaka 총회의장 사회로 속개되어 포괄협상, 중미사태, 사이프러스 문제 등 안건을 제40차 총회로 넘기고 제39차 총회 폐회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3 북한 동향

| 84-064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8 / 1~259(259p)

제3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과 북한의 유엔 총회 관련 활동에 관한 내용임.

1. 김영남 외교부장 방미(1984.9.20.~10.15.)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동지 주재 북한대사관이 유엔총회 기간 중 김영남 외교부장의 인도네시아 외상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1984.9.10.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김영남에 대한 사증발급 등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

- 주유엔대사와 주미대사는 김영남 외교부장 일행 8명의 입국사증 신청이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접수되었음을 9.11. 보고하였으며, 주미대사관은 김영남에게 사증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미 국무성 측에 강력히 요청
- 주유엔대사는 1977년 허담의 뉴욕방문 이후 최초인 북한 외교부장의 방미가 랑군사건 이래 위축된 외교적 입장을 만회하고 3자회담 및 수재민 구호품 전달 제의 등을 이용한 선전공세 목적인 것으로 분석

❋ 김영남 일행은 9.20. 뉴욕에 도착하였으며 주유엔대표부는 아래를 포함, 김영남의 뉴욕 체재 동정을 외무부에 보고

- 각국 대표단 접촉
- 10.4.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한바, 면담에 배석한 유엔 인사는 김영남이 북한의 종래 입장을 반복, 변화나 진전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
- 10.6. 워싱턴포스트지와 회견, 동 기사는 10.8. 게재된바, 김영남은 미국이 제의한 신뢰구축 조치를 3자회담의 맥락에서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김영남은 10.9. 미주매일 사장과 회견하였으며 미주매일은 동 내용을 8회에 걸쳐 게재한바,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은 동 기사가 북한 측의 허위선전에 이용되는 결과가 됨을 지적하고 게재 중단 또는 한국 측 입장 동시 게재 등을 촉구, 미주매일 측은 김영남 회견기사와 함께 동지 편집인 기명 반박 논단을 같은 크기로 게재

❋ 김영남 일행, 10.15. 암스테르담 향발 출국

2. 총회대비 북한의 교섭활동

❋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배포한 아래 요지의 총회대비 메모랜덤이 수록

- 한반도내 핵 위험 상존(미국의 핵 전초기지 등)
- 3자회담의 현실성, 합리성 주장
- 연방제 통일방안의 합리성 주장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분단 고착화 술책)

유엔총회, 제39차. New York, 1984.9.18.-12.18. 전14권. V.14 안보리 이사국 선출

| 84-06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6 / 9 / 1~70(70p)

1.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중 매년 5개국의 임기(2년)가 만료되어 유엔총회에서 후임 이사국을 선출하는바, 1984년 말 임기 만료국은 파키스탄(아시아), 짐바브웨(아프리카), 니카라과(중남미), 네덜란드 및 몰타(서구 및 기타) 등 5개국임.

2. 제39차 총회에서 예정된 동 5개국 후임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태국과 몽골(아시아),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아프리카), 에콰도르와 트리니다드토바고(중남미), 호주와 덴마크(서구 및 기타)가 입후보한바, 호주와 덴마크는 2개국 모두 소속 그룹의 추천을 받았고 중남미그룹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아프리카 그룹의 경우 에티오피아를 추천했음에도 에티오피아의 피선을 막으려는 소말리아가 입후보 입장을 견지하여 경쟁구도가 되었으며 아시아 그룹은 그룹 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총회 본회의에서 1984.10.22. 진행된 선거에서 호주와 덴마크 및 트리니다드토바고 3개국은 1차 투표에서, 태국은 4차 투표에서 당선되었으나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는 모두 2/3 득표에 실패, 아프리카 그룹에 할당된 비상임 이사국 선출이 지연됨.

4. 이어1984.11.28. 실시된 투표에서도 2/3 득표국이 나오지 않아 다시 연기된바, 아프리카 그룹이 수차례 조정을 도모한 결과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양국이 모두 입후보를 철회하고 마다가스카르가 그룹의 동의를 받아 입후보, 12.18. 투표에서 당선됨.

5. 한편 태국은 모로코,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등 3개국의 지지획득 관련 한국의 측면지원을 요청하였고 외무부는 안보리 구성 상황을 고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태국의 피선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하에 동 3개국을 접촉, 호의적 반응을 얻었으며 태국은 한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함.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V.1 사전 준비

| 84-064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서남아과
MF번호	2014-46 / 10 / 1~263(263p)

1. 주유엔대표부는 북한이 3자회담 제의, 남북 체육회담 등을 통해 전개하는 선전공세에 대응하고 랑군 범죄 관련, 북한을 규탄하는 근거 확보 차원에서 유엔총회의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 조치' 의제 하에 북한의 랑군범죄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제39차 유엔총회 개막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1984.5.10. 외무부에 건의함.

- 제38차 총회에서 동 의제 하에 채택한 결의(38/136)가 모든 국가에게 외교사절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반 발생 시 그 내용을, 사건발생 국가는 범인에 대한 재판 등 조치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1차적으로 미얀마(구 버마)의 보고서 제출을 교섭하고 미얀마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한국이 보고서를 제출

2. 한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랑군사건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에 타진한바, 미얀마 측이 보고서 제출 계획이 없다고 하여 한국이 보고서를 제출키로 하고 준비를 진행하던 중 미얀마 정부가 사건 발생지국이 제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변경하여 미얀마 측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

3. 미얀마 정부는 랑군사건 보고서 1부를 1984.9.13.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전달하고 9.14. 유엔에 제출한바, 7개절 93개 항으로 구성된 동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랑군사건의 경위, 미얀마 정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미얀마 정부의 대북한 외교조치, 범인 공판결과 등 상세히 기술
- 랑군사건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른 북한 장교의 소행이 명백하며 북한은 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언급
- 동 사건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4. 외무부는 제38차 총회 국제 테러리즘 의제 토의 시 북한의 랑군 범죄를 규탄한 43개국을 중심으로 제39차 총회에서 랑군범죄를 지적 내지 규탄해 주도록 교섭하였으며 북한은 랑군사건이 한국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등 요지로 1983.12월 발표한 북한 외무성 메모랜덤을 유엔문서로 제출함.

5. 주유엔대표부는 심리적 효과 거양을 위해 총회 제6위원회(법률)에서의 관련 의제 토의가 랑군사건 1주년인 1984.10.9. 전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미국, 일본, 미얀마와의 양자 협의와 서구그룹 국가들과의 회동을 통해 제6위원회 토의 대비 협조를 확보함.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V.2 결과보고

| 84-064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서남아과
MF번호	2014-46 / 11 / 1~314(314p)

1. 제39차 유엔총회에서의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 조치 의제 토의가 제6(법률)위원회에서 1984.10.2. 시작된바, 랑군사건에 대한 미얀마(구 버마) 정부의 보고서와 북한이 제출한 북한외무성 메모랜덤이 각각 동 의제 관련 총회문서로 배포됨.

2. 남북한을 포함 43개국이 1984.10.2.~5. 진행된 동 의제 토의에 참여한바, 22개국(아일랜드의 EC 10개국 대표발언 감안 시 31개국)이 미얀마 정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북한의 랑군범죄를 규탄하였으며, 동구권 및 좌경국가들은 외교사절에 대한 테러행위 자체는 규탄하면서 랑군사건은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북한을 소극적으로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

- 미국
  -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깡패집단과 같은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정권의 존재 자체가 여타 정부에 위협
- 아일랜드(EC 10개국 대표)
  - 미얀마 정부의 보고서는 랑군사건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기술한 것으로 EC 10개국은 외교관에 대한 테러행위를 무조건 규탄
- 일본
  - 이러한 가공할 행위는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인식하는 계기

3. 김경원 주유엔대사가 10.5. 회의에서 북한 규탄 발언을 하였으며 이어 북한대표는 랑군사건이 한국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요지로 발언한바, 남북한 대표가 각각 답변권을 행사하였고 미얀마대표도 답변권 행사를 통해 향후 외교사절에 대한 테러의 재발방지를 위해 외교사상 유례없는 랑군사건을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함.

4. 주유엔대표부는 의제 토의 종합평가를 통해 미얀마 정부의 보고서 제출이 북한 규탄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토의를 통해 북한규탄 국제여론 환기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남북한 관계 진전의 추이를 보아가며 랑군사건을 정치적, 법률적, 기술적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제기하여 계속 살아 있는 문제(live issue)로 가지고 가는 것이 외교전술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V.3 각국 지지교섭

| 84-064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서남아과
MF번호	2014-46 / 12 / 1~168(168p)

1. 외무부는 유엔총회 제6(법률)위원회에서 토의되는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 조치 의제의 배경과 미얀마 정부가 동 의제 하에 랑군사건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음을 41개 재외공관에 알리고 주재국이 제39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의 동 의제토의에 참여, 랑군범죄를 지적하고 가능하면 규탄해 줄 것을 교섭하도록 1984.9.29. 훈령함.

   ❋ 교섭 대상국은 제38차 총회 제6위에서의 국제 테러리즘 의제 토의 시 북한을 규탄한 바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

   ❋ 당초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동 의제 토의 일정이 10.2.~5.로 앞당겨짐에 따라 교섭의 긴급 시행을 독려

2. 해당 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의 교섭시행 결과 다수 국가가 발언, 협조약속 등의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일부 국가는 한국입장 지지하나 특정국을 적시한 규탄 곤란, 인력사정 등 이유로 동 의제토의 불참 반응을 나타냄.

3. 예정대로 진행된 동 의제토의에 남북한을 포함 43개국이 참여한바, 22개국(아일랜드의 EC 10개국 대표발언 감안 시 31개국)이 랑군범죄를 규탄하였고 동구권 및 좌경국가들도 외교사절에 대한 테러행위 자체는 규탄하면서 랑군사건의 경우 이미 다루어진 바 있어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다는 등 북한을 소극적으로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

4. 제6위원회 토의에서 랑군범죄 규탄 발언을 한 국가에 대해 주재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의를 전하였으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랑군사건 규탄 내용이 포함된 동국대표의 발언문을 외무부에 보내옴.

UN총회, 제39차(제2위원회) New York, 1984.9.18-12.18

| 84-064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6 / 13 / 1~67(67p)

1. 외무부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실질문제 토의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입각, 제39차 유엔총회 제2(경제)위원회 토의 참여를 준비함.

❋ 이에 따라 주유엔대표부 담당관이 1984.10.23. 및 11.19. 개발과 국제경제협력 의제 토의에 참여하여 산업화, 식량,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대개도국 훈련 제공과 아프리카 지원 등을 소개하고 선진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

2. 총회에서 채택한 개발과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결의가 화폐, 금융 및 채무 등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견해를 유엔 사무총장이 종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1985.1월말까지 한국 정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유엔의 공한을 1984.12.20. 접수하여 재무부와 협조함.

3. 주유엔 일본대표부 측은 1984.12.19. 제39차 총회 제2위원회가 140개에 달하는 결의안을 다루었으나 토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대아프리카 경제원조, 국제통화 및 재정문제 외에는 별다른 성과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통화 및 재정문제가 비중이 커져 40차 총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제3차 UN 국제개발전략 이행평가 및 검토위원회. New York, 1984

| 84-064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7 / 1 / 1~370(370p)

1. 1960년대 이후 2차에 걸쳐 10개년 유엔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해 온 유엔은 제35차 총회(1980년) 결의로 1981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유엔개발 10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아래 요지의 국제개발전략(IDS)을 채택하였으며, 제37차 총회(1982년) 결의를 통해 IDS 이행 검토 · 평가회의를 1984년 개최하고 이를 위해 검토 ·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목표
- 개도국 전체의 평균 GDP 성장률 연 7% 달성
- 수출 · 입 증가율 각각 7.5% 및 8%, 투자규모 1990년까지 GDP의 28% 도달, 국내저축 1990년까지 GDP의 24% 도달, 선진국은 1985년까지 GNP의 0.7% ODA 제공

❁ 정책조치
- 무역, 산업화, 식량 및 농업, 금융, 기술협력 등 15개 부문의 정책조치 활용

2. 한국은 개발원조 관련 보고서 제출을 권유한 상기 37차 총회 결의에 따라 대개도국 지원 실적을 유엔에 제출하고 1984.5.7.~25.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동 검토 ·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가한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위원회는 Working Group을 구성, 77그룹이 제출한 문서(IDS 이행을 위한 정책 조치)를 검토한바, 77그룹이 동 문서를 회의 최종문서의 기초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서구그룹은 별도의 합의문서 채택을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 1984.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제2차 회기(제네바) 시 비공식 협의를 갖고 제39차 유엔총회 개막전 검토 · 평가위원회 속개회의를 개최하여 최종문서를 채택하자는 의장단의 제안에 합의

3. 속개회의가 1984.9.10. 개최되어 검토 · 평가위원회 의장이 작성한 문서를 중심으로 토의, 회의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회의 결론문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선진국과 77그룹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채택에 실패한바, 한국 대표단은 동 결과가 유엔 무대에서의 국제경제문제 협상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평가함.

UN 안전보장이사회 / 이란 · 이라크 사태 토의, 1984

| 84-064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2 / 1~53(53p)

1. 사우디와 쿠웨이트 유조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걸프 6개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기, 안보리는 1984.5.25. 페르시아 만에서의 항해 자유에 대한 이란의 공격 문제 토의를 시작하였으며 걸프 6개국은 사우디와 쿠웨이트 왕래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 ❁ 이란은 안보리 토의의 불공정성을 들어 토의 자체를 무시하는 입장에서, 이라크는 동 안보리 의제가 이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항해자유 문제로 이라크와는 관계없다는 이유로 안보리 토의에 불참

2. 안보리는 1984.5.29. 및 5.30. 토의를 계속하면서 걸프 6개국이 제출한 초안을 기초로 막후 협상을 진행,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6.1. 회의에서 찬성 13, 반대 0, 기권 2(니카라과, 짐바브웨)로 채택함.
   - ❁ 모든 국가에 대해 자유항해권리 존중 촉구
   - ❁ 최근 쿠웨이트와 사우디를 왕래하는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규탄

3. 동 결의안 협상과정에서 인도 등 일부 비동맹 국가들은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이라크가 먼저 시작한 점을 들어 이란만을 규탄하는 걸프 6개국의 초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도 규탄 대상을 사우디와 쿠웨이트 왕래선박에 국한하는 데 반대한바, 협상 결과 이란을 적시하는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자유항해권리 존중 촉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이들 국가들과 합의가 이루어짐.

4. 동 결의 규정에 의해 유엔사무총장이 제출할 결의이행 보고서와 관련, 걸프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포함할 사건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유엔이 요청해 옴에 따라 한국선적으로 이란 국영 선박회사에 용선된 원진호 피격사건(1984.7.1.)의 통보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한국의 대이란 무기지원설 관련하여 이라크 측의 의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함.

ECOSOC(UN경제사회이사회) 회의, 1984

| 84-06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3 / 1~210(210p)

1.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1984.2.7.~10. 및 2.21. 뉴욕)

- ECOSOC 제1차회기 1984.5.1.~25. 뉴욕, 제2차회기 7.4.~27. 제네바 개최 등 1984년도 ECOSOC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77그룹이 주장한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제2차 회기의 우선적 과제로 선정
- 1984.2.21. 속개회의는 다국적기업 활동규범의 초안 완성을 위해 다국적기업 위원회 특별회의를 1984.6.11.~29. 개최하기로 결정

2. 제1차회기(1984.5.1.~25. 뉴욕)

-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구, 마약 등 의제 토의한바, 한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인구문제 토의에 참여, 동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제반 국내시책을 소개
- 주유엔대표부는 상기 토의 참여가 성장하는 한국의 국력을 유엔무대에 투영하는 기회였다고 보고 제2차 회기 토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3. 제2차회기(1984.7.4.~27. 제네바)

- 중점과제로 선정된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등 20여 개 의제를 토의한바, 동 중점 의제의 경우 토의 참여국들 모두 아프리카 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통의 견해를 표했으나 이 문제에 관한 ECOSOC성명 채택 관련, 개도국은 국제사회의 구체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한 반면 선진국은 구체적 언급 없는 포괄적 문안을 주장하여 미합의
- 한국은 최초로 ECOSOC 제2차 회기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다국적기업 관련 토의에 참여, 다국적기업의 역할을 평가하고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의 조속한 성안을 촉구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총회, 제7차. Libreville(가봉) 1984.4.30-5.11

| 84-064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7 / 4 / 1~51(51p)

1. 가봉 정부 및 유엔 사무국이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CHS, UN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제7차 회의 개최(1984.4.30.~5.11. 가봉의 Libreville)를 통보해 왔으며 외무부는 국제 무주택자의 해 준비 등을 위해 동 회의 참석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건설부와 협의, 건설부 주택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2. 동 회의에는 UNCHS 58개 위원국 중 43개국과 22개 비위원국이 참가, 유엔 인간정주 센터(Habitat) 활동 검토, 인간정주에 관한 인력훈련 및 정보교환, 국제 무주택자의 해 준비 등 의제를 논의한바, 그리스에 Habitat 훈련센터 설립,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활동 증대 등을 결정하고 제8차 회의를 자메이카에서 개최하기로 함.

3. 한국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 현황을 설명하고 국제 무주택자의 해 사업에 적극 참여 의지를 밝힘.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9-10차. New York, 1983-84

| 84-065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7 / 5 / 1~215(215p)

1.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제9차 회의

- 1982년도부터 UNCTC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1983.6.20.~30.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UNCTC 제9차 회의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이규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다국적기업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개도국 입장에 대체로 동조하되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추세를 감안,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일반지침을 훈령
- 대체적으로 선진국 측은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공산권과 개도국 측은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바, 개도국들은 다국적기업의 장점이 강화되고 단점이 규제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의 조속 타결을 촉구
- 한국대표는 결의안 투표 시 개도국 측에 동조하였고 의제토의에서 아래 요지 발언
  -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및 외국 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설명
  - 세계경기 회복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증대 호소 및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위한 다국적기업 역할 강조

2. UNCTC 제10차 회의

- 1984.4.17.~27.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UNCTC 제10차 회의에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재무부 직원을 포함한 대표단이 참석한바, 정부는 일반 지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조하되 투자 수용국 또는 투자 진출국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훈령
- 토의에서 개도국 측은 개발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기여 및 다국적기업 행동규범문제에서의 선진국의 양보를 촉구한 반면 선진국은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한국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
  -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설명
  - 선진국의 보호무역 제거를 위한 다국적기업의 역할 촉구
  -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의 조기 제정 희망

3. 1984년 말 다국적기업위원회 위원국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 1985년부터 시작하는 3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입후보, 1984.5.23.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재선됨.

ECA(아프리카 경제위원회) 회의, 1984

| 84-065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4-47 / 6 / 1~218(218p)

1. ECA 교통관계 기술자문회의

-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사무총장은 동 기구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교통관계 기술자문회의가 1984.3.15.~17. 마다가스카르에서 개최됨을 알리면서 한국의 참석을 초청함.
- 동 회의는 제32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교통 · 통신 10년(1978~88) 관련, 아프리카의 교통 · 통신망 통합 등을 위해 ECA, OAU, 유엔 전문기구 및 아프리카의 정부 간 기구 등이 공동으로 조직한 자문회의 중의 하나로 원조 공여국과 국제금융기구 및 수원국들 간의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함.
- 참석 여부 검토 결과 한국의 제한된 무상원조 규모에 비추어 실효적 참여가 불가능하고 회의 성격상 회의 개최국 마다가스카르 등 미수교국을 대상으로 한 관계개선 활동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을 결정하고 주에티오피아대사를 통해 통보함.

2. ECA 제10차 각료회의 및 제19차 총회

- ECA 사무총장은 주에티오피아대사 앞 공한을 통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1984.4.26.~30. 및 4.16.~23. 각각 개최되는 표제회의 및 동 회의 기술준비위원회 참석을 초청해 온바, 회의 주요 의제는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라고스 행동계획(1980.4월 라고스 개최 OAU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의 이행방안 등임.
- 외무부는 1984.5월 같은 장소(코나크리)에서 개최되는 OAU 정상회의 분위기 파악 및 미수교국 기니와의 관계개선 가능성 타진 등을 위해 동 ECA 회의에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등으로 구성된 옵서버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고 3.13.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을 통해 ECA에 통보함.
- 대표단의 회의 참석 준비 중 기니에 군사혁명 발발로 입국이 여의치 않게 되어 불참을 통보한 바, ECA가 회의 개최지를 변경, 동 회의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5.24.~28. 개최되었으며 주에티오피아대사가 옵서버로 참석함.

UN 중남미 경제위원회(CEPAL) 총회, 제20차. Lima(페루), 1984.3.29-4.6

| 84-065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7 / 7 / 1~45(45p)

1.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UNCEPAL)는 주칠레대사 앞 서한을 통해 동 위원회 제20차 총회(1984.3.29.~4.6. 리마)에 한국의 옵서버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주칠레대사관 직원이 리마에 출장, 회의에 참석함.

2. 총회는 34개 회원국, 25개 옵서버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개최된바, 중남미 국가의 외채문제가 중점적으로 토의됨.

- ❁ 중남미 국가들은 외채문제가 선진국 및 선진국 민간은행, 국제금융기관의 공동책임이며 특히 미국의 고금리, 보호무역주의가 중남미의 현 경제위기와 외채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외채문제 관련 결의안을 제출
- ❁ 외채문제의 원인을 주로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동 결의안 서문에 대하여 선진국 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절충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투표에 회부하여 다수결로 채택

3. 총회는 포르투갈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동 기구 명칭을 중남미경제위원회에서 중남미 및 캐리비안 경제위원회로 변경함.

- ❁ 스페인어 명칭 CEPAL은 유지

UN 지명 전문가 회의, 제11차. Geneva(스위스), 1984.10.15-23

| 84-065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8 / 1~40(40p)

1. 제네바에서 1984.10.15.~23. 개최된 유엔 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제11차 회의에 국립지리원장이 참석함.

2. 동 회의는 36개국 56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 수로 측량 및 해양지도 작성 등 최신기술 검토, 로마자표기 system에 관한 Working Group 보고 등 의제를 다룬바, 한국 전문가는 1984.1월 시행된 문교부 표기방식에 의한 한국 지명록을 제출하고 한글의 로마자화 표기원칙 시행 관련 입장을 설명함.

UN 사무총장 동정, 1983-84

| 84-065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9 / 1~165(165p)

1. Perez de Cuellar 유엔사무총장은 남북한 수뇌와의 서한 교환 및 남북한 주유엔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희망하고 자신도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랑군만행을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1983.11.11.자 서한을 사무총장에게 보냈으며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사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랑군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보인 인내와 자제를 평가하며 김일성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송부한다는 요지의 11.29.자 서한을 대통령 앞으로 송부

❋ 전두환 대통령은 상기 사무총장 서한에 대해 동 총장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회신(12.12.자)하였으며 북한도 김일성의 12.14.자 회신을 주유엔 북한 대사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바, 사무총장은 1984.1.6. 주유엔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김일성 서한을 보여줌

- 김일성 회신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한 측에 달려 있으며 사무총장이 미국 및 남한 당국자와 사업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
- 사무총장이 김일성의 서한을 전달한 북한대사에게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개역할 용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대사는 남한의 현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

❋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에 어떤 역할을 의뢰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를 타진한바, 미국은 사무총장의 관심을 평가하며 남북대화 촉진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사무총장의 어떤 노력도 환영하나 현 단계에서 어떤 특별한(any particular) 역할을 권고할 수 없다(cannot recommend)는 입장을 사무총장 측에 전하도록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훈령하였다고 언급

- 주유엔 미국대표부가 동 훈령 내용을 사무총장실에 전달하고 현 시점에서 사무총장의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사무국 측은 특별한 반응 보이지 않음

❋ 유엔사무총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1983.12.12.자 서한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성취 여건조성에 기여할 용의를 표명하는 요지의 1984.2.8.자 서한을 대통령 앞 송부

- 유엔 사무국 측은 유엔에 부정적이던 북한이 사무총장의 1983.11월 서한에 회신한 데 고무되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겠다는 희망을 표하기 위해 동 서한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

❋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의 협의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이나 사무총장의 관심표시를 배제 또는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하였으며 아래 요지의 3.16.자 전두환 대통령 회신을 주유엔대사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전달

- 남북한 직접대화 원칙 강조
- 북한이 랑군 테러사건 사과를 통해 진지한 대화 자세를 보일 필요성 지적
- 사무총장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를 다짐

2. 주유엔대표부는 상기 관련 이외에도 중남미, 중동 및 유럽 순방과 제반 계기 기자회견 등 유엔사무총장의 동정을 외무부에 보고함.

UN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리카지역 세미나. Tunis(튀니지), 1984.8.13-18

| 84-065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중동과
MF번호	2014-47 / 10 / 1~126(126p)

1.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치)가 주관하는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가 1984.8.13.~18.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개최됨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참가를 초청함.

2. 한국은 1981년 이후 6회에 걸쳐 동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바,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감을 표시하고 한국의 중동정책 수립에 기여할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정보입수 및 분위기 파악을 위해 주튀니지대사관과 본부 직원으로 대표단을 구성, 파견함.
   - ❁ 대표단에 회의 참석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중동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한국이 취한 제반 조치를 설명하고 중동문제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것과 중동정세가 미묘하고 각국의 입장이 상이함을 감안, 적극적 발언은 자제하되 한국을 비방하는 발언 등의 경우 한국의 입장을 밝힐 것 등을 훈령

3. 회의는 예루살렘의 지위문제, 팔레스타인 발전을 위한 PLO의 역할, 중동평화 국제회의 개최문제 등 5개 의제별로 주제발표와 토론 후 아래 요지의 최종 보고서를 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함.
   - ❁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역할의 중요성 강조
   - ❁ 유엔주관 중동평화 국제회의 조속 개최를 위한 노력 촉구
   - ❁ 소련이 제의한 중동평화안 긍정평가
   - ❁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타협적 태도 완화를 위한 서구제국의 노력 촉구
   - ❁ PLO에 대한 긍정적 국제여론 유도 노력 필요성 강조

4. 동 회의는 서구 6개국 포함 45개국 정부대표 등이 참가 등록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서구제국은 공식 참석하지 않는다는 공동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된바(공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개막식에만 일부 서구 외교단 참석), 동구 공산권과 일부 아랍 및 아프리카 대표 외에는 대부분 토론에 불참하여 PLO에 대한 단순한 연대감 표명이라는 회의 성격이 재차 부각되었으며 한국 대표단도 토의에 참여하지 않음.

5. 한국 대표단은 또한 PLO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PLO의 대한국 기본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관측을 보고하였으며 PLO 측이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로 한국에 대해 상당한 편견(6.25 북침설)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함.

주UN 한국대표부 대외활동, 1984

| 84-06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11 / 1~66(66p)

1984년 주유엔대표부 활동 중 소련, 중국(구 중공) 등 공산권 인사 접촉, 학회 참석, 대표부 친선행사 등 내용임.

1. 김경원 주유엔대사는 영국의 학술 · 친목 재단인 The Ditchley Foundation이 국제분쟁의 해결 방안 주제로 런던 근교에서 1984.5.11.~13. 주최한 학술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함.

- 국제분쟁에서 이론적으로는 유엔사무총장의 중재 등 역할이 바람직스러우나 실제로는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미국이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관건은 미국의 태도라는 방향으로 토의가 진행됨에 따라, 김경원 대사는 북한의 3자회담 논리와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하여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남북 직접대화에 의한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입장을 설명

2. 주유엔대사는 Asia Society의 China Council과 Yale University Press가 합동 개최한 중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3.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는 Yevstafiev 유엔사무총장 보좌관(소련인)을 면담한바, 동인은 한국 측이 현 단계에서 유엔가입 문제를 안보리나 총회에 제기하는 것보다는 막후교섭을 통해 여건조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NPT 가입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함.

4. 콜롬비아대학에서 열린 중 · 소 문제 세미나에서 이시영 공사가 만난 인사(전 콜롬비아 대 동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원)는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고위사절이 Chernenko 서기장에게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한 데 대해 Chernenko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짤막한 반응을 보였다고 안보리 산하 군사참모위 중국대표가 말했다고 전함.

5. 주유엔대표부는 1984.10.23. 뉴욕 필하모니 연주회 종료 후 주유엔 각국 대사, 사무국 인사 등 60여 명을 초청, 연주자(정명훈, 정경화) 참석하에 칵테일파티를 개최함.

주UN 북한대표부 동향, 1984

| 84-06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12 / 1~133(133p)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동향 관련 내용임.

1. 북한대표부 직원 변동 등 내부 동정

- 1977.11월 이래 7년여 재직 후 이임하는 한시해 대사는 1984.12.21. 유엔사무총장을 고별 예방함.
-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교체 등 직원 이·부임 동향과 북한대표부 직원 현황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대표부는 1973년 이래 사용해 온 사무실 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유엔 본부 인근에 신축 중인 아파트 임차교섭을 진행하면서 동 건물 완공 시까지 사용할 임시 사무실로 이전함.
- 북한의 UNCTAD 등 유엔주관 회의 참석에 따른 부담금 체납액(US$118,090) 현황을 한국대표부가 파악, 보고함.

2. 리셉션, 기자회견 등 북한대표부 주관 행사

- 북한대표부의 이인호 공사는 1984.1.13. 유엔 Press Room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자회담에 관한 평양발 중앙통신 기사를 낭독함.
- 김일성 생일기념 리셉션을 1984.4.12. 유엔 Delegate Dining Room에서 개최하였으며 동구권 및 중국(구 중공) 외교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함.

3. 북한대표부의 유엔업무 외 활동

- 북한대표부 측이 NBC 프로듀서 겸 기자에게 3자회담 제의 관련, 한시해 대사가 미국 TV 출연 용의가 있다고 하여 NBC가 한·미(스나이더 전 주한대사)·북한대사가 출연하는 Today 뉴스쇼를 구상함.
- 주유엔대사는 이러한 방식의 프로가 미국과 한국 외교관을 동석시켜 변형된 일종의 3자회담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주미대사도 북한이 한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미국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대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 동 프로 저지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미대사관이 미 국무성을 접촉, 북한의 TV 출연 제의 및 동 프로 출연이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목적을 일탈한 행동이므로 이를 경고하고 NBC에 대해서도 동 계획을 포기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바, 미국 측은 조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주유엔대표부가 접촉한 NBC 기자는 한국 측과 스나이더 대사가 공히 동 제의를 수락하지 않는 한 NBC가 북한에게 일방적 선전 기회를 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므로 동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함.

Deigo Cordovez UN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 방한, 1984.7.28.-8.1. 전2권. V.1 기본문서

| 84-065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13 / 1~357(357p)

1. Cordovez 유엔 사무차장은 경희대로부터 1984.9.18. 서울 개최 국제평화의 날 행사 참석 초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Perez de Cuellar 유엔사무총장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려, 방한 기회에 한국정부 요로와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도 방문하는 가능성을 검토함.

2. 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사무총장의 관심과 사무국 동향에 유의하여 한국이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내외에 확인시키는 한편, 유엔 고위인사에게 한반도의 실상을 보여주고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알리기 위해 동 사무차장의 정부 초청 방한을 추진함.

3. Cordovez 사무차장이 정부 초청 방한을 수락하고 북한에 자신의 평양 방문 희망을 전달한 데 대하여 북한은 동 사무차장이 방한과는 별도로 1984.5월 방북할 것을 제의한바, 정부는 사무차장이 평양만을 먼저 방문하게 되면 국내외에 불필요한 추측을 유발하고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남북한 동시방문을 교섭, 동 사무차장은 북한(7.16.~20.), 중국(구 중공), 일본, 한국(7.28.~8.1.) 일정으로 방한함.

❋ 정부는 주유엔대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동 사무차장에게 설명하고 이산가족 재회 실현을 위해 북한이 성의를 표하도록 촉구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미국도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입장 자료를 사무차장에게 전달

4. 사무차장은 1984.7.28.~8.1. 방한 중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무장관 및 외무부 제1차관보 등과 면담한 바, 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북한 및 중국 방문결과 청취

- 북한은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3자회담을 주장하고 남북한 직접회담을 거부
- 북한은 분단영구화 이유로 남북한의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을 반대
- 중국은 북한을 다루기 곤란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태도였으나 표면상으로는 유엔가입 문제 등에 관하여 북한의 입장을 지지

❋ 한국 측의 입장 설명

-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하고 랑군테러 관련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 상호 신뢰구축, 스포츠 등 비정치적 교류 필요성, 유엔가입 당위성 등을 동 사무차장에게 설명

❁ 평가

- 북한이 유엔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경직된 대한국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무차장의 관찰에 비추어 현 상황에서 유엔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Deigo Cordovez UN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 방한, 1984.7.28.-8.1. 전2권. V.2 언론보도 및 자료

| 84-065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14 / 1~255(255p)

Cordovez 유엔 사무차장의 1984.7.28.~8.1. 방한 관련 보도기사 및 자료임.

1. 언론기사

❁ 국내 언론은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및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 방문 등에 이어 이루어지는 동 방한에 큰 관심을 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또는 남북한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바, 일부 언론은 동 사무차장이 유엔과 남북한 3자회담 구상 등을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동 사무차장은 국내 언론의 이러한 보도와 관련, 남북한 방문 목적이 양 정부의 공식입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유엔사무총장이 관련 제반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함에 있으며 이번 순방 중 여타국 방문은 서울 및 평양에서의 회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Press Statement를 발표

❁ 언론은 또한 3자회담만을 고집하는 북한의 자세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하고 동 사무차장이 이번 순방을 통해 남북한 간의 두터운 벽과 주변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관측

2. 자료

❁ 한국의 통일정책,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 유엔가입 문제 등 관련 사무차장 면담자료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 경과, 랑군사건 이후 북한의 외교공세 일지, 미국의 대북한 정책 등 Cordovez 사무차장 방한에 대비하여 작성한 참고자료 수록

주UN 미국 및 코스타리카 차석 대사 방한, 1984

| 84-06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15 / 1~35(35p)

1. Jose S. Sorazano 주유엔 미국차석대사 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대사, 제39차 유엔총회 대비 정무협의 일환으로 일본과 인도 방문 기회에 한국을 사적으로 방문한다고 주유엔 한국대사에게 알려왔으며 외무부는 동 대사의 외무차관 예방과 차관주최 오찬 일정을 마련
- 1984.7.25. 동 대사의 외무차관 면담에서는 1983년 KAL기 피격사건 안보리 토의와 총회 6위원회에서의 랑군사건 토의 시 한·미 양국 간 협조, 제39차 총회 기조연설 교섭관련 협력 등 유엔에서의 협력문제 언급

2. Emila Castro De Barish 주유엔 코스타리카 차석대사(유엔 비정부기구위원회 의장) 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유엔대표부는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초청으로 1984.4.6.~12. 방한하는 동 대사가 10여 년간 한국에 적극 협조한 친한 인사임을 감안, 방한 중 적절한 예우를 건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이산가족 관련 세미나 참석 외에 통일원 장관, 외무부 차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예방 등 일정 수행

UNMCK(UN기념묘지위원회) 1984

| 84-06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7 / 16 / 1~172(172p)

1. 유엔기념묘지위원회(UNMCK) 소위원회

- 유엔 기념묘지에 자국 영현이 안치되어 있는 11개국의 교체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제32차 회의와 제33차 회의가 각각 1984.4.17. 및 9.24. 의장국인 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됨.
- 제32차 회의에서 기념묘지 관리소장은 기념묘지 미화를 위해 꽃씨와 묘목을 기증한 위원국에 사의를 표했고 관리소 직원 퇴직수당 관련,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 근무 연수에 1개월분 봉급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현 관행을 규정으로 확립할 것을 제안한바, 토의 결과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차기 소위원회에 과거 지급된 퇴직수당 사례 등 구체적 정보를 제출토록 함.
- 제33차 소위원회는 관리소 직원 퇴직수당에 대한 관리소장의 상기 제안을 승인하고, 퇴직수당 지급을 소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위원회 규정을 소위원회 의장 승인으로 개정하자고 관리소장이 제안한 데 대하여 동 제안 승인을 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함.

2. 유엔기념묘지위원회 제11차 회의(1984.10.26. 부산)

- 소위원회 의장이 퇴직수당 지급을 승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 개정을 건의한 제33차 소위원회 결정을 승인함.
- 271,223달러 규모(한국 분담금 122,050달러)의 1985년도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3. 위원회 의장인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1984.6.8. 서한을 통해 1981.9월 임명되어 1984.9월 임기 만료되는 문철순 유엔기념묘지 관리소장의 재임명을 제의하였으며 한국도 이에 동의함.

제3회 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984

| 84-06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8 / 1 / 1~79(79p)

1. 1981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의가 평화의 날, 달, 해를 제정하는 문제를 제기, 코스타리카 정부는 동 문제를 제36차 유엔총회 보충안건으로 제출한바, 유엔은 1981.11월 제36차 총회에서(결의 36/67) 유엔총회 개막일(9월 셋째 주 화요일)을 '국제평화의 날'로 결정하였으며 1982.11월 제37차 총회는(결의 37/16) 1986년을 '국제평화의 해'로 결정하고 이를 1985.10.24. 선포하기로 함.

   ※ 평화의 달은 행사지속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총회에 상정되지 않음

2. 유엔은 제38차 총회 결의 38/56(1983.12.7.)을 통해 유엔사무총장이 상기 국제평화의 해 사업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설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유엔사무총장은 동 결의에 따라 사무국이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과 제공 가능한 기여금 규모를 알려줄 것을 1984.2.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요청해 옴.

3. 외무부는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가 1984.9.17.~20. 주최한 국제평화의 날 기념식, 세미나 및 음악회에 참석하는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제적십자연맹 총재 등 귀빈의 대통령 예방 등 일정과 예우에 협조를 제공함.

나미비아의 날 기념행사, 1984

| 84-066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48 / 2 / 1~28(28p)

1 유엔은 1973년 총회 결의로 매년 8.26.을 나미비아의 날로 지정한바,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감 제고와 독립 후의 나미비아와의 관계수립 대비 차원에서 매년 외무장관 명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1984년에도 아래 요지의 메시지를 송부함.

- 자결, 자유, 그리고 독립을 위한 나미비아인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
- 나미비아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는 것은 남아공의 완고함 때문
- 나미비아 문제는 유엔 감시하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을 언급
- 남아공이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한 유엔의 계획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국제사회가 나미비아인에 대한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

2. 주유엔대표부는 상기 메시지를 유엔에 전달하고 Press Release하였으며 아프리카지역 공관도 주재국 정부에 전달 또는 Press Release하여 홍보함.

3. 나미비아의 날 기념회의가 1984.8.27.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의장 주재하에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바, 국가 원수급 메시지는 해당국 대표가 낭독하고 기타 명의 메시지는 송부한 국가 명단이 별도로 발표됨.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 행사, 1984

| 84-066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48 / 3 / 1~21(21p)

1. 유엔은 1977년 총회 결의로 매년 11.29.을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유대의 날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매년 11.29. 유엔 본부에서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 행사위원회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함.

- ❁ 한국은 비동맹 제국의 주요 관심사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 표시 및 중동국가들과의 유대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1981년 이래 동 행사에 메시지 발송

2. 유엔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 행사위원회 의장은 1984.10.9. 서한으로 11.29. 개최되는 기념행사에 한국의 참석을 초청하여 왔으며 정부는 아래 요지의 외무부 장관 명의 메시지를 송부함.

- ❁ 자결과 독립의 불가양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쟁하는 팔레스타인인과의 연대와 지지 표명
- ❁ 국제분쟁은 평화적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은 국제법상 받아들일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음을 확신
- ❁ 관련 유엔 결의를 따를 것이며 가능한 분야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천명하는바,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 100만 달러 제공 약속을 이행

3. 주유엔대표부는 상기 메시지를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 행사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1984.11.29. 기념행사에 참석한바, 북한(김일성 명의 PLO 의장 앞 메시지) 포함 52개국이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의 메시지를 보내 옴.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이사회) 총회 유치 검토, 1983-84

| 84-066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4 / 1~94(94p)

1. 외무부는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관련회의 참가 또는 유치 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 사항의 파악, 보고를 주태국대사관에 훈령함.

- ESCAP 주관 또는 ESCAP과 여타 국제기구 공동주관 워크숍, 세미나 등 회의에 한국의 참가 희망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1984.4월~85.3월 ESCAP 사업계획 수립여부와 차년도 회의 개최장소 결정방법 및 결정시기
- 1984년 ESCAP 총회의 동경 개최 관련, 일본의 총회 유치 경위

2. 주태국대사관은 ESCAP 총회와 분야별 각료회의 등은 회원국에 개방되나 세미나, 워크숍 등은 회의 성격과 예산에 따라 참가국과 참가자를 제한하는 것이 상례이며 일본은 1982년 ESCAP 총회 연설에서 비공식 의사 표명 후 1983년 공식 제의, 총회의 결정을 얻고 동 결정을 1983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유엔총회가 승인하여 1984년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함.

- 주태국대사관이 접촉한 ESCAP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은 한국의 ESCAP 총회 개최를 찬성하며 1987년 또는 1988년이 서울개최 적기라는 의견과 함께 본부 소재지 이외의 도시 개최에 대해 추가 소요비용 때문에 서구국가들이 반대한다는 점과 한국이 유엔 비회원국인 관계로 유엔 총회 승인 획득 교섭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3. 외무부는 ESCAP 참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기구 연차총회의 서울유치 문제를 검토하면서 주유엔대표부가 유엔의 요로와 접촉, 한국의 1987년 또는 1988년도 총회 유치 추진 시 유엔의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회보하도록 훈령함.

- 주유엔대표부는 ESCAP 회원국 중 77그룹 국가 및 일본 등과 사전교섭 후 1984년 ESCAP 총회에서 서울개최를 비공식 제의, 각국의 반응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

4. 외무부는 1987년 또는 1988년 ESCAP 총회 유치를 목표로 먼저 미 · 일 등 우방의 지지확보 후 ESCAP 회원국의 반응 타진, 1984년 ESCAP 동경 총회에서 유치의사 비공식 표명, 1985년 총회에서 서울 개최 공식 제의하여 결의 채택, 총회 개최 승인을 위한 대유엔 교섭활동과 국내 준비위원회 구성 등 내용의 ESCAP 총회 유치 검토 자료를 작성함.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1 기본계획 I (1983)

| 84-066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5 / 1~275(275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39차 총회가 Technology for Development를 제40차 총회(1984.4월, 동경)의 주제로 선정함에 따라 동경 총회에서 동 주제에 대한 토의 기초가 될 주제문서의 기본개요 작성 및 주제연구를 준비할 Task Force가 구성된바, ESCAP 사무국은 1983.6.2. 서한을 통해 동 Task Force의 주제연구 사업문서에 대한 견해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부국의 재정지원을 요청해 옴.

❋ ESCAP 사무국은 140,634달러 규모의 동 연구 사업에 한국의 5만 달러 지원을 요청하는 1983.6.10.자 공한으로 주태국대사관에 송부

- 사무국은 일본, 호주, 네덜란드, 한국 등 4개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한국 등 3개국 지원액을 합하여 부족한 부분을 일본이 전담하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

❋ 외무부는 1984년도 예산규모 동결 등 감안, 동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1차로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하였으나 ESCAP 측에서 요청금액 전체가 아니라도 참여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1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고 1983.9.30. ESCAP 측에 통보

2. 상기 주제연구사업 내용 관련, Task Force의 theme paper는 농업, 에너지, 공업 및 교통을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역내 기술개발 상황 검토, 기술이전 검토 및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인력개발 정책 등의 추가 필요성을 제시함.

3. 외무부는 ESCAP이 각종 세미나 등 행사에 한국 인사를 개별적으로 지명, 초청하는 사례와 관련, 회의성과 극대화나 특정인의 전문지식, 시간의 급박성 등의 사유로 지명 초청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초청서한 등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ESCAP 측에 요청하도록 1983.11.15. 주태국대사에게 훈령함.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2 기본계획 II (1984.1-2)

| 84-066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6 / 1~233(233p)

1. 개발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Development)에 관한 ESCAP 정부 간 회의

❋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제40차 총회 주제로 선정된 개발을 위한 기술 문제 관련, Task Force를 통한 연구와 외부 자문 등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83.12.12.~16. 방콕에서 개최된 고위전문가회의는 동 보고서를 기초로 아래 요지의 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한 ESCAP 행동계획을 작성함.

- 정부와 민간, 연구소와 생산 부문을 연결하는 기관 설립 필요
- 전문가 중심의 국가기술센터 설립
- 개발을 위한 기술 부문에서의 ESCAP 역할 강화

❋ 동 행동계획이 포함된 고위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40차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가 1984.2.1.~3. 방콕에서 개최된바, 외무부, 과학기술처, 주태국대사관 직원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아래 요지의 훈령하에 참석함.

- GNP의 0.2~0.8%에 불과한 ESCAP 개도국의 R&D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GNP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 국가기술센터 설립은 바람직하며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모색 필요

❋ 정부 간 회의는 행동계획에 대한 토의 후 보고서를 채택한바, 대부분의 개도국이 행동계획의 기본 정신을 적극 지지한 반면 선진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특히 신규 사업으로 인한 예산 증액에 거부반응을 보임.

2. ESCAP 제40차 총회(1984.4.17.~27. 동경)

❋ ESCAP 사무총장은 초청서한을 통해 총회 주제인 개발을 위한 기술 문제, ESCAP 총회 운영체계 개선 문제, 아태지역 교통 · 통신 10년 선포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특별히 언급함.

❋ 주태국대사관은 많은 회원국이 외상 또는 경제 각료를 수석대표로 파견해 온 사례에 비추어 한국도 각료급 수석대표와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고위 실무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3 기본계획 III (1984.3-4)

| 84-066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7 / 1~170(170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40차 총회 대표단 임명

❁ 총회 주제가 개발을 위한 기술인 점과 아시아 제1의 모범개도국인 한국이 각료급을 파견해 달라는 ESCAP 측 요청 및 개최국 일본과의 관계 등 감안하여 정부는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을 수석대표로, 주태국대사를 교체수석 대표로 하고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체신부, 환경청 직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1984.4.11. 대통령 재가)하여 파견함.

❁ 대표단의 목표로 총회 토의과정 적극 참여, 역내 개발문제 관련 개도국 간 협력강화 문제 협의,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계획 발표를 통한 ESCAP에서의 주도적 위치 견지 등을 설정함.

- 부처별로 총회 의제 중 소관사항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총회 준비를 위한 대표단 회의를 개최

2. 주피지대사는 키리바시 측이 제40차 총회에서 동국을 최저개발 국가군으로 추천하는 결의를 한국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1984.4.6. 보고한바, 외무부는 동건 호의적으로 검토, 지원 예정임을 4.9. 주피지대사에게 회신함.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4 결과 보고

| 84-066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8 / 1~232(232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40차 총회가 회원국 35개국과 준회원국 5개국, 옵서버국 27개국 및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4.4.17. 동경 뉴오타니호텔에서 나카소네 수상의 개회사 및 개막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 수석대표인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은 아래 요지로 기조 발언함.

- 보호주의 대처를 위한 개도국 간의 자조협력 강조 및 이를 위한 한국의 노력 설명
- 한국의 과학기술 증진정책 설명 및 과학기술 협력의지 표명
- 한국의 개발경험 및 기술과 선진국의 자본 참여를 통한 대개도국 3각 협력 제시
-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방콕협정의 활성화 제의

2. 신임장위원회에서 몽골대표가 캄푸치아의 대표권에 반대하고 한국의 대표권에 대해 유보발언한 데 대해 한국대표는 한국이 ESCAP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ESCAP 총회가 정치적 논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몽골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가 한국지지 발언을 함.

- 의장과 사무총장의 제안 및 중재로 논의기록에서 특정국 명칭을 삭제한 가운데 모든 참가국의 신임장에 이상이 없음을 선언

3. 주요 의제 토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개발을 위한 기술
  -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필요성, ESCAP 행동계획의 적시성과 중요성 인정 및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의 필요성 등에 합의하고 Technology Atlas 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설립 등을 초기 착수사업으로 선정
  - 동 합의 내용은 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한 동경 프로그램 결의에 포함,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동 결의안을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등과 함께 공동 제안
- 총회 구조 개편
  - 총회 매년 개최, 회의기간 등 현재대로 유지하되 전원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로 분리 운영하고 결의안 심의를 위한 비공식 실무회의 운영 문제는 계속 검토
- 아 · 태 교통통신 10년
  - 1985~94년을 아 · 태 교통통신 10년으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 동원 문제를 사무국이 해결하도록 요청

4. 대표단은 총회 참가 보고서를 통해 각료급 수석대표의 계속 파견,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지속적 회의 참가, 대ESCAP 활동 강화 등을 건의함.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V.5 자료

| 84-067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9 / 1~227(227p)

1984.4.17.~27. 동경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40차 총회 참가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기본입장)

- ❋ 남남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표명, ESCAP 개도국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부응하고, ESCAP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과시하여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지위 고양을 도모
-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ESCAP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개도국의 국제수지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촉구
- ❋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한국이 1949년 가입 이래 성실한 회원국으로 활동해 온 역사적, 현실적 정당성을 들어 적의 대처하도록 하되 국명 지칭이나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한국의 대표권에 대해 유보하는 경우 반론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
- ❋ 유엔 회원국이며 ESCAP 준회원국으로 활동해 온 바누아투의 정회원 가입을 환영

2. 주요 쟁점별 입장

- ❋ 개발을 위한 기술
  - 한국의 공업개발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러한 경험을 선진국의 자금지원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기술이전을 통해 ESCAP 회원국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선진국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
- ❋ 제3차 유엔개발 10년
  - 제3차 유엔개발 10년 이행에 장애 요소의 하나가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임을 지적
  - 자본과 자원의 이동, 기술이전 등을 통한 국제협력이 국제수지 개선에 필수인바,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ESCAP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
- ❋ 보호무역주의 문제
  -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에 의존하므로 국제무역의 투명성을 저해
  - ESCAP이 각종 경제관계 forum을 통해 보호주의 억제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전파할 필요

3. 그 밖에 의제 및 일정 등 총회 일반 사항과 함께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초안과 국제개발 전략, 농업, 사회개발, 다국적기업, 환경, 인구 등 20개 분야별 발언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개발계획위원회, 제5차. Bangkok, 1984.12.17-21

| 84-067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10 / 1~285(285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1984.8.24.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1984.12.17.~21. 방콕에서 개최되는 개발계획위원회 제5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면서 동 위원회가 아래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토의 사안에 정통한 고위인사의 참석을 희망함.

❋ 1980년대 중반 ESCAP 역내 경제사회개발에서의 중심적인 문제들과 침체된 세계경제에 대한 역내 경제의 반응 및 80년대 잔여기간 성장 · 개발을 위한 환경 등 논의

-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정책과 정책수단 검토 및 평가

❋ 최저개발국을 위한 80년대 행동계획 이행 평가

❋ 아 · 태지역 개발 이슈 및 정책 관련 프로그램과 다국적기업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국 활동 검토

2. 상기 ESCAP 개발계획위원회 제5차 회의에는 주태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하여 아래 요지로 발언함(동 회의 시 회원국 18개국, 준회원국 3개국 및 9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 **개발정책 분야**

-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시행 간소화 및 원조조건 개선 필요
- 방콕협정의 확대문제 등을 논의할 1985.5월 서울 회의에 많은 국가의 참석 요망
- 선진국의 보호주의 완화 및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적극적 활동 촉구

❋ **개발계획 분야**

- ESCAP 개도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성장 및 개발패턴과 정책 및 정책수단 분석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지지
- 역내 국가 간 상호 경험 교환과 문제해결 위한 프로젝트 참여 용의

❋ **다국적기업**

- 다국적기업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 전환 및 발전 가능
- 접수국 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기술전수 조건, 다국적기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의 성격 및 내용 등에 관심
- 다국적기업 관련 공해 문제가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향후 환경문제를 고려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다국적기업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련 기준설정을 위한 작업단 구성을 제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8차. Bangkok, 1984.9.11-17

| 84-06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11 / 1~185(185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1984.5.30. 외무장관 앞 공한을 통해 1984.9.11.~17. 방콕에서 개최되는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면서 동 회의 초점이 공업과 기술 분야에 있으며 공업 분야에서는 ESCAP 지역 공업화 관련 주제문서와 제4차 UNIDO 총회 후속조치 문제를, 기술 분야에서는 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한 ESCAP 행동계획 이행상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2. 외무부는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무부와 주태국대사관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하고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입장을 개진하라는 기본입장과 의제별 입장을 훈령함.

3.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 시 회원국 20개국, 준회원국 1개국 및 13개 유엔 산하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바, 동 회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ESCAP 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 결의안 채택은 없었으며 토의 결과를 기초로 1985년 제41차 ESCAP 총회에 결의안을 제출, 채택).

❁ ESCAP 지역 공업화
- 개도국 공업개발 전략을 국내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및 개발이라는 국내 요인에 중점 부여
- 공업개발 초기단계 국가는 수출증진 및 수입대체산업개발 정책의 동시 추진을 권고

❁ 개발을 위한 기술
- 사무국의 ESCAP 행동계획(Tokyo Program) 추진 방안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지역기술이전센터(RCTT)의 정보교류활동 확대 및 각국 기술센터로 구성된 정보망 설치 필요성 인식

❁ 주거 문제
- 대도시 집중 완화를 위해 중소도시 개발 및 주변 위성 농촌도시 개발 전략 합의

❁ 환경 문제
- 1985.2월 개최되는 아시아 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아시아환경선언 및 동 행동계획 내용을 일부 수정, 환경장관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교통 · 통신 10년대 정부 간 특별회의, 제1-2차. Bangkok, 1983-84

| 84-067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12 / 1~328(328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39차 총회(1983.4월)는 아 · 태 지역 교통통신 10년대(1985~94년)를 선포할 것과 동 10년대를 위한 행동계획 준비와 소요경비 산출 등을 위한 정부 간 그룹 설립을 제안한바, 사무총장은 동 결의에 따른 정부 간 그룹 제1차 회의가 1983.8월말~9월초 개최됨을 알리면서 10년대 행동계획 준비를 위해 각국의 교통통신 개발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 한국은 해운항만 장기개발 계획과 통신개발 계획을 제출하고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음

2. 한 차례 연기되어 1983.10.10.~13. 방콕에서 개최된 동 제1차 회의는 경제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통신 분야의 자립을 가능케 하는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교통통신 시스템 개발과 이를 위한 지역협력을 교통통신 10년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및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제시함.

3. 정부 간 그룹 제2차 회의가 1984.1.23.~26. 방콕에서 개최된바, 체신부 관계관이 아래 요지의 기본 입장을 포함한 훈령하에 동 회의에 참석함.
   - ❁ 한국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국익 증진에 최대한 노력 경주
   - ❁ 각국의 통신개발 전략에 관한 기술정보 및 관련자료 수집
   - ❁ 한국의 교통통신 발달 현황을 홍보하여 대외 이미지 고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도로운수 관계회의. Bangkok, 1984.11.20-23

| 84-06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13 / 1~74(74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ESCAP과 국제도로운수연맹(IRU) 공동주관으로 1984.11.20.~23. 방콕에서 개최되는 도로운수 관계 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석을 초청하면서 동 회의가 제40차 ESCAP 총회에서 채택된 아태지역 교통통신 10년 계획과 관련,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정부 및 민간단체가 망라된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2. 동 회의에 주태국대사관 및 교통부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훈령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현 수송체제에서 도로교통의 비중 및 도로 교통량의 증가를 감안, 도로교통 부문 연구에 대한 집중투자 필요성 강조
   - ❁ 도로운송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제에 대하여 언급

3. 동 회의는 16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로교통의 현재와 미래, 도로교통에서의 정부의 역할, 도로교통 분야의 재무 · 상업적 측면, 인력훈련 등을 논의한바, 한국대표는 현 수송체제하에서 도로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도로교통 현황을 설명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무역위원회 회의, 제25차. Bangkok, 1984.11.6-12

| 84-06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8 / 14 / 1~330(330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차장은 1984.7.10.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1984.11.6.~12. 방콕에서 개최되는 무역위원회 제25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면서, 위원회 토의가 주요 무역정책 이슈에 집중될 수 있도록 참가국의 주요 통상정책에 관한 국별 보고서와 토의에 도움이 될 여타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2. 정부는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와 재무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 바, 대표단에게 아래 기본입장과 의제별 세부입장을 훈령함(외무부는 유관부처와 협조, 무역에 관한 country paper와 관세관계 서적 등 자료를 ESCAP 사무국에 전달).
   - ❋ 역내 선발 개도국으로서 ESCAP의 무역진흥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고 관련 토의에 적극 참여
   - ❋ 한국의 각종 경제개방 시책을 설명하고, 특히 방콕협정 확대를 통한 ESCAP 회원국 간 무역확대 필요성을 강조

3. 동 회의는 22개 회원국과 16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바, 주요 의제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각국의 교역실적 및 무역정책 검토
     - 한국은 선진국의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집단적 자조에 입각한 남남협력 강화를 강조
     - 다수 국가가 보호주의 만연으로 범람하고 있는 무역규제수단의 roll back을 촉구
   - ❋ ECDC
     - 한국, ECDC의 효율적 수행에는 선진국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국은 GSTP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언
     - ECDC/TCDC는 개도국의 집단적 자조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견해가 표명
   - ❋ 역내 통상장관회담 개최
     - 한국은 각료급 회의의 유용성을 인정, 역내 통상장관회담이 예정대로 1985년 중 개최되기를 희망
     - 의제와 시기 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논란 끝에 ESCAP 총회 심의에 부의하며 개최 시기는 1985.11월을 희망한다는 형식으로 결론

4. 동 위원회 기간 중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방콕협정 회원국과 ESCAP 사무국이 동 협정 확대협상 관련 비공식 회의를 갖고 가입교섭 대상국에 대한 사절단 파견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확대협상 제1차 회의를 한국이 제의한 시기(1985.5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ESCAP/ 정부 정보 체계 조정연구단 회의, 제3차. Paris, 1984.2.7-13

| 84-067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 / 1~88(88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34차 총회(1978년)가 정보체계와 문서서비스 프로그램을 ESCAP 사업에 추가하면서 정부 내 전산화된 정보의 조정, 관리의 개선을 촉구한 이후 정부정보체계 조정 연구단회의가 2차(1979년 및 1981년)에 걸쳐 개최됨.

2. ESCAP 사무총장은 동 연구단 제3차 회의가 프랑스의 재정지원으로 1984.2.7.~13. 파리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정부 관리 1명의 참석을 초청해 온바, 3차 회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됨.
   - ❁ 제2차 회의 이후 ESCAP 회원국의 정부정보체계 발전 검토
   - ❁ 정부정보체계 요소로서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회원국의 필요 평가
   - ❁ 정부정보체계 관련 ESCAP 지역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권고

3. 정부는 동 회의에 총무처 관계관의 참석을 통보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제1회 아시아실크박람회 운영위원회 회의, 제2차. Hong Kong, 1984.7.2-4

| 84-067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2 / 1~204(204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1982.12월 개최된 실크 전문가그룹회의가 실크박람회의 1984.3월 또는 8월 개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회원국에게 동 박람회 참가 여부를 문의하면서, 1983.12.12.~16. 및 12.19.~21. 방콕과 홍콩에서 각각 개최되는 실크에 관한 제2차 지역협력단회의와 아시아실크박람회 제1차 준비회의 참석을 초청해 옴.

❋ 유관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수산부는 실크협력단회의의 경우 실익이 없음을 감안, 불참하고 아시아실크박람회는 중국(구 중공)의 저렴한 실크제품 판매활동으로 판단되어 신중히 대응한다는 고려에서 역시 불참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상공부는 한국 실크제품의 수출증대 및 중국과의 직교역 실현을 위한 활동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실크박람회 제1차 준비회의에 참가

2. 아시아 실크박람회 제1차 준비회의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박람회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동 준비회의를 운영위로 전환, 제1차 운영위로 진행함.

❋ 동 운영위는 아시아 실크박람회를 ESCAP 사무국 주관으로 1984.8.16.~20. 홍콩 전시센터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박람회 공동경비의 참가국 간 배분, 박람회 기간 중 실크 판매/구매자 세미나 개최 등을 결정하였으며 실크산업 시찰을 제의

❋ 한국은 171평방미터(중국 431, 인도 299)의 전시공간을 임차 계약하고 공동경비 $HK102,000 중 $HK18,000을 부담하기로 결정

3. 아시아 실크박람회 제2차 운영위원회가 1984.7.2.~4. 홍콩에서 개최되어 개막식 행사, 세미나, 전시장 운영 등 박람회 세부사항을 협의하였으며 한국대표단(대한무역진흥공사)은 중국대표단을 만찬에 초대, 대화하는 등 중국대표단과 접촉함.

4. 상기 제1차 운영위 제의에 따라 ESCAP 사무국이 중국 측과 협의, 1984.8.22.~29. 중국 실크산업의 중심지인 항주를 시찰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상공부 관계관과 동아견직 사장 등 실크박람회 참가업체 임원의 동 시찰 참가를 추진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11차. Bangkok, 1984.10.16-22

| 84-067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3 / 1~58(58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1984.7.4. 외무부장관 앞 공한으로 1984.10.16.~22.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 천연자원 위원회 제11차 회의 참가를 초청하면서 회의 주제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리이며 동 주제하에 아태지역의 에너지 상황을 점검하고 아래 의제를 토의할 것이라고 밝힘.

- 개발을 위한 기술 – 에너지 분야 전략
- 신 재생에너지(NRSE) 개발 촉진
- 대체 에너지로서의 석탄과 천연가스의 전망
- 아태지역의 전력 추세

2. 정부는 동 회의에 주태국대사관 및 동력자원부 관계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한바, 동 회의에는 회원국 22개국, 옵서버 6개국 및 1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함.

3. 정부대표단은 훈령에 따라 의제별로 아래와 같이 토의에 참여 발언함.

-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에너지
  - 부존자원의 부족 등 한국의 에너지 현황 및 정책을 설명하고 역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NRSE 개발 촉진
  - 나이로비 회의 이후 NRSE 개발을 위한 역내 협력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왔음을 강조하고 더욱 구체적인 협력강화를 제안
- 대체 에너지로서의 석탄과 천연가스의 전망
  - 석탄 개발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알리고 역내 석탄개발에 공동참여 용의를 표명
- 아태지역의 전력 추세
  - 발전원의 다양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의 전력 추세 관련 country paper 배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특별 통상장관회의 한국개최 검토, 1983-84

| 84-067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4 / 1~34(34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의 Arzadon 무역국장은 1984.11월 개최되는 ESCAP 특별통상장관 회의의 한국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978년 뉴델리 특별통상장관 회의 개최 관련 자료를 주태국대사관에 보내 옴.

❁ 동 국장은 한국이 개최를 희망하면 ESCAP 사무총장 이하 모두 이를 찬성, 추진할 것이며 경합국이 없으므로 별 문제 없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비는 약 2만5천 달러 정도 소요되며 그 밖에 회의장 등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

2. 외무부는 Arzadon 국장이 언급한 소요경비의 항목과 증액 가능성 등을 점검하면서 동 회의 개최문제 검토를 상공부에 요청한바, 상공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으며 IMF 총회 등 다수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1984~85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

❁ 외무부는 동 회의의 한국 개최가 곤란함을 ESCAP 측에 설명하도록 1984.2월 주태국대사에 훈령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환경개발통합에 관한 정부간회의. Bangkok, 1984.11.26-30

| 84-068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5 / 1~65(65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환경개발 통합에 관한 전문가그룹회의(1984.6.5.~11. 동경)가 제출한 제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1984.11.26.~30. 방콕에서 개최되는 정부 간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서한을 송부, 동 회의는 아태지역의 환경상황을 검토하고 환경고려의 개발 과정 통합 개념과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2. 환경청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한바, 동 대표에 대한 정부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아태지역 환경현황 보고서 검토시 한국 관련 사항 중 필요한 경우 내용을 보완하고 최근 추진 중인 환경보전 시책사업을 소개
   - ❁ 환경개발 통합에 관한 전문가그룹 보고서의 국제협력 부문에 동조하고 국내조치 사항 중 한국이 제도화, 법제화한 사항을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
   - ❁ 예정된 아시아 환경장관 회의에 대한 적극 참여 의사 표명

3. 상기 환경개발통합에 관한 정부간회의에는 15개국이 참가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NRSE(신대체에너지) 재정동원회의. Bangkok, 1984.9.4-10

| 84-068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6 / 1~34(34p)

1. 주태국대사는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이 1984.9.4.~10. 방콕에서 개최되는 신재생에너지(NRSE)를 위한 재원동원 지역협의회에 한국의 대표 파견을 요청하여 왔음을 1984.8.9. 외무부에 보고함.

2. 동력자원부는 NRSE 재정동원회의에서 검토될 신재생에너지(NRSE) 사업계획 관련, 총 소요자금 1,239만 달러 중 일본이 약 50% 부담하고 나머지를 여타 유수 ESCAP 회원국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한국의 부담에 관한 입장을 문의하였고, 외무부는 재정문제는 대표단 귀국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보함.

3. 동력자원부 정책실장 외 1인이 정부대표단으로 동 회의에 참석한바, 대표단에 대한 훈령은 아래 요지임.
   - NRSE 사업 내용 파악 및 대강의 재정부담 범위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 기여 규모는 언급하지 말 것
   - NRSE 사업계획에 포함된 35개 프로젝트 중 30개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바, 특히 태양에너지 등 한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사업에 적극 참여의사 표명

4. NRSE 재정동원회의는 사무국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이를 통합하여 13개 프로젝트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바, ESCAP 사무국은 동 권고에 따라 우선 작성한 11개 프로젝트를 1984.11월 송부해 옴.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운영위원회, 제2차. Bangkok, 1984.8.29-30

| 84-068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7 / 1~48(48p)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지역에너지개발계획(Regional Energy Development Program, REDP)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초청서한을 통해 동 위원회가 지역에너지개발계획 프로젝트 문서에 의거, 한국 등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국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가급적 1차 회의 참석인사를 2차 회의 대표로 지명해 줄 것을 희망함.

- ESCAP은 상기 사무총장 서한 이후 당초 1984.8.7.~8. 계획하였던 동 회의 일자를 8.29.~30.으로 변경, 통보하면서 운영위원회 참가 대표가 9.4.~10. 개최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 절약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

2. REDP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정부대표로 동력자원부 관계관이 파견된바, 동 대표에 대한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지역에너지개발계획 1단계 2차 사업(1984~86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관련, 참여방법과 참여대상 기관 등을 사업별로 제시
- 2단계 사업(1987~91년)으로는 집단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정보자료 축적과 상호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
- 1986년 아시아 에너지장관회의 개최를 지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제7차. Manila, 1984.11.28-30

| 84-068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8 / 1~162(162p)

1. 아태지역 개도국의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한국 등 8개국 참여하에 ESCAP 주관으로 1977년 발족한 농기계지역망사업(RNAM, Regional Network for Agricultural Machinery)의 2단계(1982~84년)가 종료되고 회원국의 요청으로 3단계(1985~86년) 사업이 추진된바, UNDP가 사업경비는 계속 지원하되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은 중단하기로 하여 재정 곤란이 예상됨에 따라 ESCAP 사무국은 회원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함.

2. 외무부는 유관부처와 협의(1984.1월)하는 한편 ESCAP 사무국의 요청에 대한 여타 회원국의 반응을 확인(1984.3월)한바, 농촌진흥청의 입장과 여타 회원국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농촌진흥청

- RNAM 발족 이후 해외연수훈련, 기술서적, 시험기기 및 장비 등 형태로 상당한 지원을 받아 연구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농기계 연구개발에 큰 도움
- 한국의 농기계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적인 RNAM 참여가 필요

❁ 여타 회원국

- 인도는 검토 중이라고 하나 부정적 시사, 인도네시아는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 중, 이란은 증액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 필리핀(사무국 소재지)은 증액 예정, 스리랑카는 증액 곤란하며 1985년도에 재검토 예정

3. RNAM 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가 1984.11.28.~30.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3단계 사업계획서와 예산 등을 심의한바, 한국 대표(농수산부)는 훈령에 따라 1985년도 분담금 증액(1982~84년 기간 연 10,500달러에서 1985년 20,000달러)을 발표하고 1986년 이후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TCG(무역협력단) 회의, 제6차. Bangkok, 1984.10.25-26

| 84-068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9 / 1~333(333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1984년 중 아래와 같이 방콕에서 개최되는 무역협력단(TCG, Trade Co-operation Group) 및 동 Subgroup 회의 초청장과 회의문서를 보내옴.

- 9.4.~6. 교역창출 합작투자 관련 전문가 회의, 9.25.~26. 장기계약 Subgroup 제5차 회의, 10.2.~3. 통화 · 신용 Subgroup 제4차 회의, 10.9.~10. 교역창출 합작사업 Subgroup 제6차 회의, 10.11.~12. 무역진흥센터 네트워크 Subgroup 제6차 회의, 10.25.~26. 무역협력단 제6차 본회의, 10.15.~16. 상품 Subgroup 제6차 회의

2. 한국은 상기 회의에 아래와 같이 대표단을 파견함.

- 장기계약 Subgroup회의: 조달청 관계관
- 교역창출 합작사업 관련 전문가회의: 재무부 관계관
- 교역창출 Subgroup회의: 주태국 대사관 재무관
- 무역진흥센터 네트워크 Subgroup회의: 주태국대사관 관계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직원
- 통화신용 Subgroup회의: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관계관 및 수출입은행 직원
- 무역협력단회의: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및 상공부 관계관
- 상품 Subgroup회의: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3. 회의 참가 대표의 회의결과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통화신용 Subgroup
  - 한국대표는 역내 수출금융 리파이낸스 기관 설립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며 동 기관의 기본 업무는 직접대출 지원 외에 지급보증 업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요지로 발언
- 교역창출 합작사업 Subgroup
  - 주 의제인 식용해산물 분야의 교역창출 합작투자 문제 관련, ESCAP 사무국으로 하여금 지역 수준의 합작투자 추진 감시 체계의 개발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토록 하는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
- 무역진흥센터 네트워크 Subgroup
  - 역내 무역정보 네트워크 현안문제 및 장래 사업방향 검토하고 중국 개최예정인 아태 국제무역박람회(ASPAT 1985년) 추진현황 등 논의한바, 한국대표는 ASPAT 1985년에 모든 회원국에게 동등한 참가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상품 Subgroup
  - 주 의제인 황마, 실크, 열대목재에 관한 지역 협력체제 및 역내 상품기구 지원문제 등 협의하고 결의안 채택
- 무역협력단
  - 한국대표, 무역협력단 Subgroup 활동 평가, 회원국 간 교역촉진을 위한 관세 양허와 비관세장벽 제거 촉구, 방콕협정 확대협상에 다수국의 참여 희망 등 요지로 발언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 태풍위원회 회의, 제17차. Manila(필리핀) 1984.12.4-10

| 84-068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0 / 1~109(109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동 기구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주관하는 태풍위원회(Typhoon Committee) 제17차 회의(1984.12.4.~10. 마닐라) 초청서한을 보내왔으며 한국은 중앙기상대 예보국장과 건설부 관계관 등 2명의 대표단을 파견함.

2.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초청 오찬에 참석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 · 남서태평양지역 국장은 1984.8.22. 중국(구 중공)이 상기 회의에서 1985년 제18차 태풍위원회의 중국 개최를 제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한국대표가 동 18차 회의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1986년 제19차 회의 한국 개최를 제의하면 한 · 중 관계 증진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바,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86년 회의 유치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함.

- 정부는 차기 회의 중국 유치문제가 거론될 경우 적극 발언은 삼가고 한국의 입장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도록 마닐라 회의 대표단에게 훈령
- 과학기술처는 제19차 태풍위원회 한국유치 여부는 마닐라 회의 참석 이후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

3. 제17차 태풍위원회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태풍실무실험(TOPEX, Typhoon Operational Experiment)
  - TOPEX와 같은 실험이 태풍의 위치 예상 등에 매우 유익하였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실험이 계속되기를 요망
  - 수문(Hydrology) 분야에서도 TOPEX와 같은 형태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포함
- 1985년 이후의 Program
  - 기상, 수문, 방재, 훈련, 연구 분야 등에서 1985년 이후의 중점 업무추진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동남아 지역에 열대성 저기압 경보센터 설치문제는 보류한바, UNDP가 동 센터 설치에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
- 제18차 회의 장소 및 시기
  - 중국이 유치를 제안하여 받아들여졌으며 장소와 시기는 ESCAP, WMO 및 태풍위원회 사무국이 협의하여 추후 결정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V.1 기본문서

| 84-068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1 / 1~329(329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방콕협정(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SCAP) 제13차 상임위원회의 1983.3.15.~17. 방콕 개최를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방콕협정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변동사항 등 협정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상기 일정에 한국은 동의하였으나 방콕협정 주요 회원국인 인도 측의 요청 또는 회원국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수차 연기되었으며 결국 제13차 상임위원회는 제40차 ESCAP 총회(1984.4월, 동경)에서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1984.7.2.~4. 방콕에서 개최

2. 1975년 체결(1976년 발효)된 방콕협정은 회원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5개국)이 적을 뿐 아니라 이질적이며 적은 수의 양허 품목(101개), 한국의 여타 참가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흑자 등 여러 요인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바, 정부는 국내 관세율 인하로 가능해진 협정 양허세율 인하를 대개도국 교역증진을 위한 교섭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콕협정의 활성화와 확대를 추진함.

- 양허관세율 인하와 양허품목 확대를 통해 활성화 추진
- 1975년 체결 시 원 협상 참가국 16개국 중 협정 비회원국 11개국과 협정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참여 교섭

3. 정부는 유관부처(재무부, 외무부, 상공부) 협의를 통해 방콕협정 확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 확대문제가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제13차 상임위원회 대표단(수석대표 주태국 대사, 대표 재무부, 외무부 및 상공부 직원)에게 아래 요지 훈령함.

- 방콕협정을 명실상부한 지역협력 협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정확대 협상 개최문제가 주의제로 토의되도록 유도
- 인도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을 감안, 한국이 확대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인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인도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

4. 순서에 따라 한국이 의장을 맡은 동 회의는 원산지 규정 등 회원국 간 미합의 현안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방콕협정 확대협상 개최에 합의함.

- 스리랑카의 각료급 인사와 ESCAP 대표로 구성된 방콕협정 가입유도 사절단을 가입교섭 대상국에 파견
-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를 제41차 ESCAP 총회(1985.3월) 직후 서울에서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V.2 자료

| 84-068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2 / 1~186(186p)

1. 방콕협정 제13차 상임위원회(1984.7.2.~4.) 관련 자료와 방콕협정 운영과 관련된 아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 UNCTAD, UNDP, UNESCAP 공동위탁 연구보고서
  - 방콕협정 맥락에서의 교역과 생산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서 방콕협정 회원국 경제의 특징과 회원국간 교역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의 각료급 격상과 전문가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개선을 제안
- ASEAN 특혜무역협정(PTA) 관계자료
  - 방콕협정과 ASEAN PTA의 연계 가능성 연구를 위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ASEAN PTA 협정문과 양허품목 리스트 및 ASEAN 경제장관회의 관련 보도자료
- ESCAP 사무국의 요청으로 제출한 한국의 방콕협정 역내교역 관련 통계와 협정 양허세율

2. 1982년도 한국의 관세제도 변경에 관한 영문자료, 한국의 ESCAP 지역 및 여타 지역에 대한 교역량 등 자료를 ESCAP 사무국의 요청으로 제출한바, 자료(첨부물)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Koji Nakagawa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이사회) 사무차장 방한, 1984.7.29-8.2

| 84-068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3 / 1~52(52p)

1.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Koji Nakagawa 사무차장과 Harahap 수석조정관(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래의 목적으로 방한할 계획임을 알려옴.
   - ❋ 신재생에너지(NRSE) 사업계획 관련 의견 교환 및 한국의 재정지원 요청
   - ❋ NRSE를 위한 재정동원 지역자문회의(1984.9.4.~10. 방콕)에 한국의 고위 정부대표 참석 요청

2. 외무부는 동 방한을 준비하면서 NRSE 사업 재정지원 문제에 대한 주태국대사의 견해를 문의한바, 주태국대사는 Nakagawa 사무차장 측이 이번 방문에서 지원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으며 자문회의에 고위급 대표 파견 요청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함. 주태국대사는 또한 한국의 중국(구 중공) 개최 국제박람회(ASPAT '85) 참가문제 관련, 방한 전 중국 방문 기회에 중국 당국과 접촉, 그 결과를 방한 시 전달하겠다는 동 사무차장의 언급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3. 동 사무차장은 1984.7.29.~8.2. 방한하여 외무부 제2차관보 및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과의 업무협의 등 일정을 가진바, 중국 방문 시 ASPAT '85 한국참가 문제에 관하여 거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고 귀임 후 주태국 중국대사관과 협의, 한국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 외무부는 ASPAT '85 관련, 아래 한국 입장을 ESCAP 사무총장 등 사무국 인사들에게 재확인시킬 것을 주태국대사에게 훈령
     - 중국이 11개 미수교국에 발송한 것과 동등한 초청장 접수
     - 정부 및 민간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정부 관리는 정부대표 자격으로 참가)
     - 전시관은 자진해서 설치하지 않고 세미나, 상담활동 등 참가

4. 동력자원부는 상기 지역자문회의에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참가를 결정함.

ESCAP/산업자문 지역망 설치 사업, 1982-84

| 84-068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4 / 1~111(111p)

1. 제3차 UNIDO 총회 준비를 위한 ESCAP 산업장관 회의가 자문능력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이래 산업개발을 위한 자문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ESCAP 개도국의 인식이 증대된바, 1981.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관련 세미나는 ESCAP 역내 산업자문개발 네트워크 설립을 권고함.

2. UNIDO와 ESCAP은 동 세미나 권고에 따라 1983.1.11.~13.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a Reg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nsultancy)를 개최한바, 한국을 비롯한 10개 회원국과 3개 국제기구에서 13명의 전문가가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동 회의는 아래 요지의 결론을 채택함.

- ESCAP 역내 산업자문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 UNIDO/ESCAP, 자문협회와 여타 유관기구 등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산업자문개발 네트워크는 아래 목표를 추구
  - 자문훈련 제공, 자문 방법론 개발 및 교류촉진, 최저 개발국에 대한 특별자문 제공 등

3. ESCAP은 상기 세미나 및 전문가회의 건의에 따라 산업자문 Regional Network 설립을 위한 아래 요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회원국의 동의 여부를 문의한바, 정부는 동 사업추진에 회원국의 재정부담은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 입장을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통보토록 함.

- ESCAP 역내 개도국의 산업개발계획 수립 및 수행능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
- UNDP가 소요자금 213,400달러를 지원하고 UNIDO와 ESCAP이 사업 시행
- Network의 주요 활동
  - 산업자문 분야 전문가 훈련
  - 국별 상황에 맞는 자문기법 개발
  - 산업자문에 관한 경험, 전문가 및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 간 및 기업 간 협력증진

ESCAP/4개 산하기구 재정 지원 문제, 1983-84

| 84-069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5 / 1~216(216p)

1. 1983.4월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39차 총회는 UNDP가 지역기구의 제도부문(사무국 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삭감함에 따라 악화된 ESCAP 산하기구의 재정문제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을 결정함.

2. 1983.7.6.~8. 방콕에서 개최된 동 실무위원회는 ESCAP 산하 SIAP(아태통계연구소), CGPRT(잡곡류 연구개발센터), RMRDC(지역광물자원개발센터), RCTT(지역기술이전센터) 등 4개 기구의 연간 예상 적자(필요 재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동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국에 협의단(실무그룹)을 파견할 것을 권고함.
   - ❋ SIAP 230,000달러, CGPRT 150,000달러, RMRDC 260,000달러, RCTT 400,000달러

3. 동 권고에 따라 네팔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된 협의단이 한국 등 11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에서는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농업진흥청, 동력자원연구소 등 관계부처 인사를 면담한바, 동 방문 이후 관계부처 협의에 부쳐진 검토서 중 건의부분은 아래와 같음.
   - ❋ 1984년도 예산의 1983년 수준 동결 등 고려, 1984년도 지원 증액은 고려 불가
   - ❋ 한국과 이해관계가 비교적 많은 기구(RMRDC, SIAP 등)에 대해 1985년 이후 소폭의 기여금 증액
   - ❋ 장 · 단기 전문가 파견 및 잉여장비 지원 등 직접적 재정지원 이외의 가능한 지원 검토

4. 동 협의단이 방문한 여타 국가의 주요 반응은 아래인바, 전체적으로 신규 기여 또는 증액 여력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자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구에 관심을 표함.
   - ❋ 일본: SIAP(일본 소재)의 운영비는 일본이 대부분 부담, 여타 3개 기구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경비 지원은 고려
   - ❋ 인도네시아: 자국 소재 RMRDC 및 CGPRT 계속 유지 방침이며 예산 증액 요청 중이나 증액 가능성 희박
   - ❋ 싱가포르: SIAP 활동에만 참여하고 있고 현 기여금 이상 증액 고려 불가
   - ❋ 필리핀: 예산 동결로 어느 기구에도 추가지원 불가능

5. ESCAP 측은 협의단 방한 후속조치로 1984년도 한국의 기여금 증액 가능성과 5년 정도 장기에 걸친 기여금 관련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해 옴.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CU(아시아청산동맹) 가입문제, 1983-84

| 84-069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6 / 1~262(262p)

1. 회원국의 통화를 결재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원국 간 국제거래 확대를 추구하는 아시아청산동맹(ACU, Asian Clearing Union)에 북한이 가입을 신청하였다는 주태국대사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1983.12.22. 주태국 및 주이란(ACU 사무국 소재지) 대사관에 각각 훈령, 북한 가입신청 건의 상세 경위를 아래와 같이 파악함.

- 북한은 1982.5월 테헤란 소재 ACU 사무국장 앞으로 가입신청서 제출
- ACU 사무국장은 동건 ESCAP에 의견조회 한바, ESCAP 측은 ACU 협정상 ESCAP 회원국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 ACU 협정개정 의견을 제시
- 1983.5월 테헤란 개최 이사회에서 북한 가입문제가 토의된바, 스리랑카 대표가 ACU 협정조항을 근거로 이의 제기하여 북한가입 저지
- 1983.12월 방콕 개최 ACU Technical Committee에서도 상기 ACU 가입조항 관계로 북한가입에 대한 회원국의 동의획득 실패

2. 카라치에서 1984.2.11.~12. 개최되는 ACU 이사회가 북한 가입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이 경우 ACU 협정의 가입조항 개정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태국대사의 1984.1.11.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1984.1.12. ACU 회원국 7개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이란,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주재 대사와 주카라치총영사에게 북한가입 저지 교섭을 훈령함.

3. 상기 카라치 이사회는 북한가입 문제 관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북한의 가입 시도가 저지된바, 가입 조항 문제는 개정 후 가입 신청국이 많지 않으면 개정 의의가 없으므로 당분간 현 규정을 존치하자는 다수 이사의 주장으로 개정이 실현되지 않음.

4. 주태국대사는 북한이 중앙은행 총재 명의로 ACU 가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동건이 1985.2월 카트만두 개최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라고 1984.11월 보고하였으나, 외무부는 아래를 감안하여 북한가입 저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취하지 않기로 함.

- 회원국 확대를 위한 최근 ACU의 노력을 감안할 때 어느 국가의 가입도 환영할 가능성
- 한국이 ACU와 유사한 ESCAP 산하 방콕협정의 회원국 확대 노력을 경주하면서 ACU에는 가입하지 않고 타국의 가입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상이체제국가간 무역협상, 1984

| 84-069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7 / 1~72(72p)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결의에 따라 상이체제 국가 간 교역증진을 위하여 관심 있는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자 및 다자간 협의회를 매년 주선하여 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1984년에도 제29차 무역개발위원회(TDB, Trade Development Board) 기간 중(1984.9.10.~21.) 또는 1984년 중 적절한 시기에 협의회를 주선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 협의회 주선 희망여부를 문의하여 옴.

❁ UNCTAD 사무국은 1969~83년간 350여 회의 협의회를 주선한바, 한국은 수차례 동구권 국가들과의 양자협의 주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상국들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황

2. 외무부는 부내 협의와 재무부, 상공부, 국가안전기획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협의회 주선을 의뢰하기로 결정함.

❁ 협의 대상국
- 동구권 국가(9개국), 중국(구 중공), 베트남, 몽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 협의회 형식
-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
- 중국, 베트남, 몽골 및 캄보디아는 다자협의회 추진 (북한을 의식하는 이들 국가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회 주선 요청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자간 협의는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검토의견)

❁ 협의 의제
- 직교역체제 확립방안 및 은행간 corres 계약 체결
- 경제, 무역관계 인사 교류
- 관세상 상호 편익 부여 등

3. 상기 결정에 따라 외무부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협의회 주선을 추진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훈령하고 한국의 관세제도, 대공산권 수출입 실적, 대상국별 수출입 관심품목 등 참고자료를 송부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8차. Geneva, 1984.3.26-4.6

| 84-0693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49 / 18 / 1~193(193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무역개발이사회 제28차 회의의 1984.3.26.~4.6. 개최를 통보하는 회의문서를 보내옴에 따라, 정부는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고 아래 요지로 훈령함.

❁ 기본지침

-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분야에서 개도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되, 한국과 주요 이해관계가 있는 실질문제 토의에서 77그룹 내 이질성으로 인해 논란이 있을 경우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선발개도국과 공동행동을 모색하여 최대한 국익 반영

❁ 의제별 입장

- (국제무역의 발전 및 GSP 제도)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 및 다자간 협상원칙이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특히 선진국이 관리무역 실시에 앞장서고 있는 현상에 우려 표명
-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졸업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
- (개도국의 부채 및 개발) 한계성을 드러낸 국제금융제도의 개편방안으로서 개도국의 증가된 잠재역량을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IMF 기능 강화로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
- (보호주의 및 구조조정) 선진국의 보호주의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 분업체제를 무시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개도국에 전가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국제무역질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

2. UNCTAD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동 회의 중점의제가 개도국 부채문제와 보호무역주의라고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토의를 촉구한바, 회의 주요 결과는 아래 요지임.

❁ 개도국 부채 문제

- 제21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채택된 '개도국 부채조정에 관한 지침' 이행상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
- 부채조정 협상에서 관련국가의 특수상황 고려, 제34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지침 이행상황 재검토 등 요지의 의장 제출 agreed conclusion 채택

❁ 보호무역주의 및 구조조정

- 77그룹은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 해소와 구조조정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자유무역만이 개도국 부채문제 해결책은 아니며 구조조정은 시장 기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바, 매년 전반기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구조조정 이행을 검토하고 각국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요지의 의장 타협안 채택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9차. Geneva, 1984.9.10-27

| 84-069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1 / 1~324(324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1984.7.30. 공한으로 제29차 무역개발이사회(TDB, Trade Development Board)의 1984.9.10.~21. 개최를 알려온바, 정부는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재무부(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고 아래 요지 훈령함.

❋ 기본지침

-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분야 토의과정에서 개도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되 한국이 주요 이해관계가 있는 실질문제에서 77그룹 내 이견으로 인해 논란이 있을 경우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주요 선발개도국과 공동행동을 모색하여 국익을 최대한 반영
- 동구권과의 교역을 희망하는 모든 개도국을 위하여 양자 협의회 주선뿐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협의가 타결되도록 제반 협조를 제공하도록 UNCTAD 사무국에 촉구

❋ 의제별 입장

-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 GSP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UNCTAD가 GSP 운영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졸업정책의 부당성 지적 및 시정 촉구
- (개도국 외채 및 개발문제) 국제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고려, IMF Conditionality 완화, 국제유동성 확대를 위한 선진국의 IMF 증자와 IMF 쿼터의 개도국 특별배분, IBRD 등 개발금융 기구의 대출재원 대폭 확대 등 필요성 강조

2. 동 회의는 9.10. 개막, 9.22. 새벽까지 모든 의제를 처리하고 9.27. 속개하여 보고서 채택 후 폐막한바, 주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품 및 서비스분야 국제무역

- 77그룹은 UNCTAD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결의안을 제출하고 선진국 그룹은 서비스 분야에서 UNCTAD의 역할은 타 국제기구와 보완관계임을 주장, 타협을 보지 못하고 77그룹 결의안을 회의 보고서에 첨부하기로 결정

❋ 개도국 외채 및 개발문제

- 77그룹이 채무국의 요구사항을 망라한 결의안을 작성하였으나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남미그룹 일부 국가의 반대로 제출하지 않고, 77그룹 의장이 동 결의안 요지를 포함한 연설문을 낭독하고 이를 회의 보고서에 수록 요청하는 것으로 토의를 마무리

3. 대표단은 이번 회의가 세계경제 현안문제를 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본 인식의 괴리로 별 성과 없이 종료되었으나 개도국 부채문제에 대한 77그룹 결의안 상정 철회 등을 선 · 후진국 간 대결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함.

4. 한편 상이체제 간 교역과 관련, 한국이 주선을 요청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비공식 협의는 대상국의 불응으로 실현되지 않음.

- UNCTAD 사무국 관계자는 대상국과의 직접 비밀교섭을 권유하였으나, 대표단은 UNCTAD를 통한 공산권 국가와의 협의가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UNCTAD측에 동 협의 주선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

UNCTAD (UN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11차. Geneva, 1984.11.19-30

| 84-069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2 / 1~547(547p)

1. UNCTAD 사무총장은 1984.10.8. 공한으로 제11차 해운위원회 개최(1984.11.19.~30. 제네바)를 알려 왔으며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한바,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 중 기본입장은 아래와 같음.

- ❋ 해운에 있어 자유시장정책 대신 공평적취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에 동조하되 선진국형으로 전환과정에 있는 한국 해운의 입장을 감안, 개도국의 급진적인 해운질서 개편요구에 대해서는 관망태도 표방
- ❋ 이미 한국 해운정책의 일부로 수용한 Liner Code 문제나 선진국의 기술이전 문제 등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

2. 동 회의에서 각 그룹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기본입장 중 77그룹과 선진국 입장은 아래와 같음.

- ❋ 77그룹
  - 개도국의 선복량과 무역량 사이에는 커다란 gap이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 tanker, dry bulk 분야에 개도국의 참가가 미미
  - 미래에 대한 선주들의 낙관과 해운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정부보조가 선박공급 과잉의 주원인이라고 판단
  - 따라서 개도국으로서는 보호주의 강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바,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해 선 · 개도국간 협력이 필요
- ❋ 선진국
  - 최근 세계 해운산업의 대개도국 이전현상이 두드러지는바, 이는 해운산업의 시장경제 체제 적응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체제 이탈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3. 동 회의는 상선대 발전(Merchant fleet development) 등 7개 의제별 결의/결정을 채택한바, 하주의 이익보호(Protection of shipper interests) 의제는 선진국 및 개도국 그룹이 각각 결정안과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결정안과 결의안을 회의 보고서에 첨부,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특별회의, 제1차. Geneva, 1984.2.13-22

| 84-069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3 / 1~88(88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1984.1.3. 공한으로 제6차 UNCTAD 총회 결의에 따른 기술이전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가 1984.2.13.~22. 제네바에서 개최됨을 알려온바, 동 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함.

2. 개도국의 기술변형전략 의제를 토의한 동 회의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 그룹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보임.

- 77그룹
  - 기술변형전략은 개도국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주적인 결정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자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국제기술관계의 패턴을 재편하는 목적에 입각하여 작성
  - 제1차 특별회의에서는 동 전략의 기본골격만 만들고 구체적 전략은 정부 간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1986년까지 작성하도록 결정
- 선진국 그룹
  - 개도국의 기술발전은 개도국 스스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변형전략은 국가 간 기술교류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
  - 기술변형전략 작성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종결지어야 하며 동 전략작성을 위한 별도의 회의 개최에 반대

3. 동 회의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개도국 그룹은 전략작성 완결을 위한 정부 간 그룹회의 개최 요지의 결의안을, 선진국 그룹은 개도국 기술변형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각각 제출
- 의장이 상기 2개의 결의안을 통합한 결의안을 작성, 토의의 기초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선진국 그룹은 의장 제안이 개도국 그룹의 입장에 기울고 있다고 이를 거부
- 그룹 간 이견조정이 불가능하여 기술변형전략 자체에 대한 토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기 기술이전위원회 회의에서 개도국 기술변형전략 작성 작업을 계속한다는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5차. Geneva, 1984.12.3.-20. 전2권. V.1 기본문서

| 84-069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4 / 1~235(235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주제네바대표부에 1984.10.22. 공한으로 제5차 기술이전위원회가 1984.12.3.~19. 개최됨을 알려왔으며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동 회의에 참석한바, 대표단에 대한 훈령 중 일반지침과 개도국의 기술변형전략 의제 관련 지침은 아래와 같음.

❁ 일반지침

- 일반적인 대선진국 협력촉구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도국 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
-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실질문제 토의에서는 77그룹 내에서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개도국과 공동입장을 취할 것

❁ 개도국의 기술변형전략

- 개도국의 산업발전은 도입기술과 자체개발 기술의 변형, 발전에 달려 있는바, 동 기술변형발전은 기술제공자가 핵심적 기술을 조기에 성의 있게 이전하는 여부에 좌우
- 따라서 선진국의 대개도국 핵심기술 조기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에 동의하고 기술정보 교환을 위해 정보네트워크 구성에도 찬동

2. 동 회의는 합의사항을 망라한 개도국 기술변형 촉진 제목의 결의안과 미합의 안건을 차기 무역개발이사회 및 기술이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결정문 및 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12.20. 폐막한바, 당초 1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77그룹과 선진국 그룹 간 타협이 되지 않아 20일까지 교섭 후 결국 차기 회의로 이관키로 함.

3. 최종일까지 교섭이 계속되었던 분야는 사무국의 기술이전 자문활동, 첨단기술의 경제 · 상업 · 개발적 측면, 식품가공과 에너지 등 개도국에게 특히 중요한 분야, 기술의 이전 · 습득 · 발전에 관한 국내법규 등 4개 분야인바, 한국 대표는 개도국에게 특히 중요한 분야 의제 토의 시 한국의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무국의 연구보고서를 언급 후 발전소 건설 분야에서의 경험 제공 용의를 표명하고 선진국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기술이전을 촉구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5차. Geneva, 1984.12.3.-20. 전2권. V.2 자료

| 84-069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5 / 1~318(318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5차 기술이전위원회(1984.12.3.~20. 제네바) 회의 자료로서 의제 관련 아래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 대개도국 기술이전에서 선진국 중소기업의 역할에 관한 UNCTAD 사무국의 보고서로 2개의 사례연구를 포함

2.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 기술혁신, 특히 공업 분야에서의 혁신 과정과 이를 위해 각국이 채택한 정책에 관한 1차적 검토보고서로 개도국 간 기술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정책수단의 각각의 국가에 대한 적절성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는 등의 결론을 제시

3. Technical and Operational Assistance Provided by the Advisory Service on Transfer of Technology

- 전략과 정책의 수립 등 기술이전 분야에서 개도국들이 취한 조치와 개도국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UNCTAD가 제공한 자문활동의 내용에 관한 사무국의 보고서

4. International Linkages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 UNCTAD 총회가 기술이전 관련 지역 간 연계와 개도국 간 협력장치 수립문제를 논의할 것을 기술이전위원회에 요청함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이며 개도국 간 기술교류 현황, 개도국 간 기술거래 확대를 위한 조치, 개도국 간 공통의 문제 또는 우선 관심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가능 분야를 제시

UNCTAD(UN무역개발회의)/선박 등록조건에 관한 회의. Geneva, 1984.7.16-8.3

| 84-069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6 / 1~169(169p)

1. 라이베리아 외상대리는 1984.7.11. 주라이베리아 한국대사를 초치, 1984.7.16.~8.3.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선박등록조건 회의에서 한국이 라이베리아 입장을 강력히 지지해 줄 것을 요망함.

❁ 라이베리아는 선박등록 조건의 결정은 개별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국제협약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자국의 입장임을 설명

❁ 동 외상대리는 라이베리아가 제52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호혜주의에 입각, 한국의 라이베리아 입장 지지를 요청

2. 상기 주라이베리아대사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편의치적 제도의 폐해, 해운에서의 남북문제 등 선박등록조건 회의(선박등록 조건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회의) 배경과 77그룹 등 그룹별 입장, 편의치적 제도 폐지 시 예상 결과 등을 검토하고 라이베리아 측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토록 조처함.

❁ 주제네바대사 앞 훈령(1984.7.13.)

- 77그룹과의 유대를 고려, 라이베리아 입장 적극지지는 어려운 상황
- 편의치적 제도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폐지가 일부 개도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 선박등록 조건 협의에서 각국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주라이베리아대사 앞 회신(1984.7.16.)

- 77그룹과의 유대관계를 감안, 기본적으로 77그룹 입장에 동조하되 편의치적 제도의 폐지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님에 비추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관망 태도를 취하도록 대표단에게 훈령한 바 있음을 참고 바람

3. 주제네바대사는 1984.8.10. 상기 선박등록조건 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번 회의는 주요 이슈에 대한 각 그룹 간 기본입장의 상이로 타협 가능 분야에 대한 단일안 작성에 주력

- 의견안 차이가 미미한 부분은 진전이 있으나 선원, 자본, 경영 등 3대 핵심 부분은 의견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1985.1월 개최 Resumed Session에서도 협약안 채택 어려울 전망

❁ 한국 측 조치

- 기존 방침에 따라 이번 회의 시 77그룹의 입장에 동조
- 라이베리아와의 관계를 감안,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삼가는 한편 동 대표단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유의

UNCTAD(UN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제16차. Geneva, 1984.12.10-14

| 84-070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7 / 1~154(154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텅스텐위원회 제15차 회의(1983.12월)가 텅스텐 시장 현황분석과 전망을 토의하기 위한 Working Group 회의 개최를 제안, 사무국이 Working Group 관련 시안을 작성하였으며 동 시안 협의를 위한 텅스텐 주요 생산국(한국 포함 4개국)/소비국(미국 등 5개국) 대표 간 비공식 협의에서 Working Group 설치 원칙에 합의함.

- Working Group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동 Working Group 운영과 관련, 텅스텐위원회 제16차 회의 중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

2. 제16차 텅스텐위원회가 1984.12.10.~14.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과 대한중석 직원이 참석한바,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텅스텐 시장의 최신 통계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수집, 편집업무가 개선되어야 하며 각국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
- 특히 중국(구 중공) 등 주요 텅스텐 생산국이면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국가들이 생산량, 국별 수출량 등 자료를 제출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개선에 기여토록 강력 요청

3. 24개 회원국 및 10개 옵서버국이 참가한 제16차 텅스텐위원회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Working Group 설치문제
  - 차기 회의부터 본회의와는 별도로 Sessional Working Group을 동시에 운영
  - 동 그룹 위임사항 관련, 생산국들은 시장안정화방안 연구 포함을 주장했으나 소비국 반대로 사무국이 제출한 시안에 텅스텐 시장 변동요인 분석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
- 통계문제
  - 텅스텐 정광의 국별 수출입 통계가 비밀을 이유로 사무국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통계라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무국에 요청
  - 사무국의 연간통계에 기존의 채광 및 가공능력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도록 요청

4. 정부대표단은 텅스텐위원회의 역할이 가격안정 메커니즘 설립을 통한 시장안정화보다 시장정보 교환의 창구로 변모하는 경향이 관찰됨을 보고하고, 차기 회의부터 개최되는 Working Group에서 업계 대표들 간 상세한 시장현황 분석이 예상됨에 비추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참가를 건의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2차. Geneva, 1984.4.24-5.4

| 84-070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8 / 1~310(310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특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 제12차 회의의 1984.4.24.~5.4. 개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고, 별도 공한을 통해 동 기간 중 GSP 공여국/수혜국 간 비공식 다원협의회를 가질 예정임을 알리면서 협의회 희망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동 협의회는 GSP 공여국의 수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수혜국의 GSP 활용증대를 위해 특혜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설치되었고 한국은 제10차, 제11차 특혜특별위 기간 중 미국, 일본 및 EEC와 비공식 협의

2. 정부는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미국, 일본 및 EEC와의 협의 희망을 통보하고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3. 제12차 특혜특별위원회는 기조연설 후 각 지역그룹 대표들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안 교섭을 진행, 지역그룹 간 합의된 내용만 수록한 Agreed Conclusion을 작성하였으나, 선진국 그룹이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77그룹이 Agreed Conclusion 채택을 포기하고 회의는 합의문서 없이 폐회함.

- 한국대표는 일부 GSP 공여국의 non-reciprocity, non-discrimination 등 GSP 기본원칙 불이행에 대한 우려 표명, 미국의 GSP 제2기 연장법안의 문제점 지적 등 요지로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77그룹이 미국의 제2기 연장법안의 문제점 지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지로 77그룹회의에서 발언

4. 비공식 협의회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음.

- EEC
  - 한국 측이 1981년 이후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쿼터가 증가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GSP 수혜한도의 증가를 촉구하고 Community Tariff Quota 품목의 축소, 원산지 규정 개선 등을 요구한 데 대해 EEC 측은 한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적, 수혜한도 증가에 난색을 표하고 그 밖의 문제는 검토 입장을 표명
- 일본
  - 한국 측이 일본의 1984년 GSP 개정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GSP 수혜대상 품목 확대, 원산지 규정 개선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GSP 개정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여타 문제는 검토하겠다는 반응
- 미국
  - 미국의 제2기 GSP 연장법안 관련, 한국 측이 졸업정책의 적용으로 한국이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수혜국을 GSP 수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데에는 미국 행정부도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부안의 의회 통과 전망,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하여 협의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4.11.7-16

| 84-070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9 / 1~140(140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1980.12.5. 제35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원칙 및 규칙 세트(set)'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NCTAD 무역개발이사회가 구성한 정부 간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 개최(1984.11.7.~16. 제네바)를 통보해 왔으며 정부는 경제기획원 및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한바,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자율적인 민간주도 경제체제와 대외개방 체제 전환에 따른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업종 확대 정책을 적극 설명
- 부품 등의 공급자 지정, 수출제한, 계약만료 후 기술사용 제한 등 국제계약상 선진국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를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
- 공정거래제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진국과의 정기적인 교육훈련 및 정보교환체제 확립방안 모색

2. UNCTAD 사무차장은 개회 연설을 통해 1980년 채택된 원칙 및 규칙 세트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동 원칙 및 규칙 세트를 권고적 성격에서 구속적 성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77그룹은 구속적 성격 부여 및 이행 점검을 위해 UNCTAD에 특별위원회 설치 등 원칙 및 규칙 세트 개선안과 결의안을 제출함.

3. 동 회의는 77그룹 제출안을 일부 수정한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77그룹이 제출한 원칙 및 규칙 세트 개선안은 선진국 그룹의 불응으로 토의되지 못하고 회의 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한바, 선진국 그룹은 동 회의가 제한적 영업관행의 본질문제 토의보다 결의안 작성에 주력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제4차 회의에서는 결의안 작성 작업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원칙 및 규칙 세트 이행부진을 지적하고 각국의 이행을 촉구
- 제한적 영업관행 관련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UNDP의 자금공여 및 각국의 기여금 제공 촉구
- collusive tendering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서비스 분야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 보완 등을 UNCTAD 사무국에 요청

Corea, Gamani UNCTAD(UN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방한, 1984.5.23-29

| 84-0703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0 / 10 / 1~270(270p)

1. Gamani Corea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스리랑카 출신)은 1981.12.7. 주제네바 한국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한국을 제24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1982.3월) 이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정부는 UNCTAD와의 관계 및 UNCTAD 내 77그룹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동 사무총장 방한초청을 결정함.

2. Corea 사무총장의 방한은 동 총장 및 한국 측 사정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수차 연기된 후 양측 사정이 공히 허락하는 1984.5월 방한에 합의,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 초청장을 송부하였으며 동 총장은 1984.5.23.~29. 방한, 아래 일정을 가짐.
   -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차관(장관 대행) 예방 및 면담
   - KDI 원장 면담 및 강연, 대한 상공회의소 부회장(회장 대행) 면담
   - 판문점 시찰
   - 수원 삼성전자, 옥포 대우조선, 경주 사적 시찰
   - 방한 중인 스리랑카 대통령 사적 면담 및 동아일보 기자회견

3. 동 총장 방한 결과에 관한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는 동 방한의 주요 성과를 아래와 같이 적시함.
   -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 한국의 남남협력 정책과 실적 인식
   - 한국의 무역자유화 조치와 대외개방 정책 등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적극적 자세 인식
   - 1984.3월 북한을 방문했던 동 총장의 남북한 현실 비교 인식

4. 동 사무총장 방한 관련 사진도 수록되어 있음.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1 1983

| 84-070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51 / 1 / 1~216(216p)

1. 미 행정부는 1983.7.22. 제2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현행(제1기): 76.1.1.~85.1.3.(10년간)
- 개정법안(제2기): 85.1.4.~95.1.3.(10년간)

2. 동 개정 법안에 대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미국이 제1기 GSP 기간 중에는 개도국 경제발전 기여에 비중을 두었으나, 제2기 개정안에는 개도국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카드로 GSP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
- 미 의회 및 산업계는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폐쇄되어 있다는 여론이므로, 미측 여론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GSP 수혜 정지 가능

3. 미 의회는 하원(83.8.3.) 및 상원(83.8.4.) 청문회를 개최하여 GSP제도의 존속 의의, 수혜국 선정기준 및 조건 등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참석자
  - 하원 청문회: 미 대외통상대표부(USTR) 대표, 국무부 부장관 등 행정부 대표, 하원 무역소위 위원, 업계 및 노조 대표
  - 상원 청문회: 미 대외통상대표부(USTR) 대표, 상원 무역소위 위원
- 행정부의 제2기 GSP 개정 법안에 대해 상원 청문회가 하원 청문회에 비해 협조적이었지만, 양원 공히 한국 · 대만(구 자유중국) · 홍콩 등 선발개도국(NICs)의 GSP 수혜존속 여부에 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
- 청문회 이후 의회의 바쁜 일정 및 GSP 연장 자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GSP 개정 법안은 83년 회기 중에는 심의 불가

4. 외무부는 GSP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83.11월 한 · 미 정상회담(Reagan 대통령 방한계기)의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함.

- 미측 요망사항인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시장 개방 및 대한국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내용을 미측에 전달
- 한국의 호의적 조치에 상응하는 GSP 수혜 연장을 위한 미 행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

5.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 미 외무장관회담 참석계기에 83.11.29. 미국 USTR 대표 및 상무장관과 면담, 상기 제4항 한국 측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GSP 수혜연장을 위한 미측의 협조를 요청함.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2 1984.1.

| 84-070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51 / 2 / 1~209(209p)

1.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제2기 GSP 개정법안과 관련, 외무부는 1984.1월 주미대사관에 의회 심의 일정 및 동향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하고, 또한 대만(구 자유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등의 GSP 대응 동향도 파악, 보고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2. GSP 개정에 대한 미국 내 동향,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관해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1984.1.12. 개최되었으며, GSP 대책 시행과 관련된 정보 보고 및 관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주관키로 결정함.

3. 미 상원 무역소위는 1984.1.27. GSP 개정법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바, 동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83.8.4. 제1차 청문회 개최, V.1 내용 참조).

- ❁ 참석자: 상원 무역소위 위원, 미 국제무역위(ITC) 위원장, 18개 경제단체 및 업계대표
- ❁ 주요 발언 요지
  - GSP 수혜축소 주장: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 미 전국노조(AFL-CIO), 농업계 대표 등
  - GSP 수혜연장 찬성: 상원 무역소위 위원장, ITC 위원장, 상공회의소, 완구제조협회 등
- ❁ 청문회 결과에 대한 주미국대사관의 분석 및 평가
  - 지적 소유권 보호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어 GSP 수혜연장과 결부시키자는 움직임
  - 상원의원들은 1984년 실시될 의회선거를 의식하여 GSP 문제를 선거구 관심문제(담배 등)와 연계
  - 미국 업계는 GSP 제도 자체보다는 각각의 업계 이해와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

4. 한국 정부는 1984.1월 GSP 수혜연장 관련 비망록(Aide-Memoire)을 작성하여 미국 정부에 전달키로 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1983.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과 같이 GSP 수혜연장을 위한 미 행정부의 협력 요청
- ❁ 다자관계에서 본 GSP의 의의
  - GSP 특혜축소는 남·북간 교역확대 및 개도국 경제개발 노력 저해,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반발 초래
- ❁ 한·미 관계에서의 GSP의 중요성
  - GSP는 한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 한·미 간 특수 관계 감안 필요
- ❁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요망
  - 점진적이고 신중한 경쟁력 충족 기준 적용



5.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GSP 대책(84.1.10. 외무부), 미국의 GSP제도 현황과 대응전략(84.1.12. 대통령비서실), GSP 대책 및 대미 실리경제 외교방안((84.1월, 주미대사관), 미 상원 청문회 경과 및 우리의 조치 내용에 대한 대통령 앞 보고(84.1.28. 외무부), GSP 수혜연장 교섭과 관련한 비망록(84.1월, 외무부), 미국의 GSP제도와 우리의 입장(84.1.31. 대통령 경제비서실), GSP 계속공여를 위한 대미 설득자료(84.1월, 해외협력위원회) 등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3 1984.2-3

| 84-070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51 / 3 / 1~165(165p)

1. GSP 연장에 대한 한국 입장을 요약한 비망록을 1983.11.28.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는 미측 입장을 비망록으로 작성하여 84.2.7. 주미대사관에 전달해 온바, 미측 비망록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에 긍정적 입장
- 무역마찰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체 설립 제의는 한 · 미 경제협의회에서 협의 희망
- GSP 관련 의회 심의결과는 예측 곤란하며, 수혜국의 시장개방이 관건이라는 입장

2. 또한, 정부는 국내 주요인사의 미국방문 계기에 GSP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토록 함.

- 이태섭 정무장관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귀로에 1984.2.4.~8. 워싱턴을 방문,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면담하여 우리 입장을 전달한바, 면담 인사들은 대부분 한국의 GSP 수혜연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미 참전용사협회 회의 참석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갑종 의원은 1984.2.6.~8. 참전용사를 중심으로 한 · 미 의회 인사들과 접촉하여 한국 입장을 전달한바, 대부분의 접촉 인사들은 한국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일부 의원은 내부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3. 미 하원 무역소위는 1984.2.7.~8. GSP 개정법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83.8.3. 제1차 청문회 개최, V.1 내용 참조).

- 참석자: 하원 무역소위 위원, 12개 경제단체 및 업계대표
- 주요 발언 요지
  - GSP 수혜축소 주장: 대부분의 의원, 미 전국노조(AFL-CIO), 운동용구 제조협회 등
  - GSP 수혜연장 찬성: 미 수출입협회, 각 지역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
- 청문회 결과에 대한 주미국대사관의 분석 및 평가
  - 노조단체 및 특정품목 생산업계의 대의회 압력이 가중되어 의회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 미국 업계의 선발개도국(NICs)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어 의회에서 행정부 안보다 불리한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
  - 미 행정부는 미 의회의 선발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의 개방화정책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4. 미측이 미국산 제조담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는 담배수입 완전개방은 국가재정에 큰 타격을 초래하므로 아직 시기상조이며, GSP 수혜문제를 담배 수입개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1984.2월 미측에 전달함.

5.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방미 결과 대통령 앞 보고(84.2월, 정무장관 이태섭), 미 하원 무역소위 청문회 개최결과 대통령 앞 보고(84.2.13. 외무부), 일본 및 EC의 GSP 관련 자료, USTR의 84년도 GSP 운용계획 등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V.4 1984.4-10

| 84-070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51 / 4 / 1~180(180p)

1. 미 행정부는 제2기 GSP 개정법안 제정과 관련, 관련국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83.4.5.~15. 워싱턴,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를 개최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

- 미측: 무역대표부, 국무부, 재무부 및 상무부 등 7개 기관, 미국 전국노조(AFL-CIO) 등 민간단체
- 13개국: 한국, 이스라엘, 대만(구 자유중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포르투갈

❁ 주요 쟁점

- GSP 수혜와 교역상대국 시장개방을 연계하는 상호주의
- 한국 등 선발개도국(NICs)에 대한 국별 졸업정책
- GSP 수혜범위 축소

❁ 미국 입장

- 행정부 및 수출입업자협회(AAEI) 등은 GSP제도가 미국의 교역확대와 미국 소비자들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개도국 입장지지
- AFL-CIO 등 노조는 한국을 비롯한 5대 수혜국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부분의 미국 업계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국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 입장

- 개도국에 대한 GSP 축소는 그 이익이 선진국에 고착
- GSP 수혜범위 축소는 미측에도 불이익 초래

2. 주미대사관은 미국 내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GSP 설명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의회, 행정부 및 용역회사 등을 통해 GSP 논의 동향을 파악함.

3. 미 의회는 상원(84.9.21.) 및 하원(84.10.3.) 본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제2기 GSP 연장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984.10.5. 상 · 하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이 계속 GSP 수혜국으로 남게 된바, 미 의회 심의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상 · 하원 단일법안 요지

- 제2기 GSP 시행기간을 10년에서 8년 6개월로 단축
- GSP 공여 시 수혜국의 시장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및 노조권 보장 상태 감안
- 품목별 수혜한도 인하(금액기준 5,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인하, 시장점유율 현행 50%에서 25%로)

❁ 단일 법안은 재차 상 · 하원에 보고되어 각각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 앞 회부

❁ GSP 연장 단일법안 통과의 의의 및 한국의 평가

- 한 · 미 양국 경제관계 발전과 대미 수출 증진을 위해 다행스러운 결과
- 한국에 GSP를 공여하고 있는 EC 등 선진국의 수혜졸업 압력 저지 용이
- 수혜국의 시장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노동조합권 보장을 GSP와 연계시키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804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미국 GSP 공청회 참가결과 보고(83.4.5.~15.), Pease 하원의원의 GSP 개정안 및 공화당 Task Force 합의록, 상원 무역소위 위원장 수정안, 미 상원 재무위 연장법안 수정통과 관련 대통령 앞 보고(84.5.7.), 미 의회의 GSP 연장법안 심의결과 대통령 앞 보고(84.10.6.) 등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각국의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 84-070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1 / 5 / 1~267(267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자료를 발간함.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에서 수집한 UNCTAD 발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UNCTAD 자료 발간일자).

1. 노르웨이

- GSP 수혜국으로부터의 1980년 수입현황(83.9.20.) 및 1981년 수입현황(84.5.15.)

2. 스웨덴

- GSP 수혜국으로부터의 1980~81년 수입현황 및 주요 공급국 현황(84.1.6.)

3. 스위스

- GSP 수혜대상국에 일부 국가 추가(83.10.6.), GSP 수혜국으로부터의 1982년 수입현황 및 주요 공급국 현황(84.3.21.)

4. 오스트리아

- GSP 수혜대상국에 일부 국가 추가(83.6.6.), 원산지 규정 일부 개정(84.10.2.)

5. 캐나다

- GSP 수혜국으로부터의 1981년 수입현황(84.1.6.)

6. 헝가리

- GSP 수혜국으로부터의 1980~81년 수입현황 및 주요 공급국 현황(83.1.28.)

7. 호주

- GSP 관련 규정 일부 수정(83.10.7. 및 84.4.17.)

8. 기타 주벨기에대사관 및 브뤼셀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EC(구주공동체)의 1983~84년 기간 중 GSP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

제4차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대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지역 공업장관회의. Bangkok(태국) 1984.3.12-16

| 84-070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1 / 6 / 1~170(170p)

1.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사무국은 1984.1.12.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제4차 총회에 대비하여 ESCAP 회원국의 입장을 종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해 오면서, 한국대표의 참석을 요청해 옴.

- ❋ 고위실무자회의(84.3.12.~14. 방콕)
  - 제2차 ESCAP 공업장관회의(1981.8월) 이후 각국의 활동상황 검토 및 행동지침 마련
- ❋ 공업장관회의(84.3.15.~16. 방콕)
  - 제4차 UNIDO 총회에 대비, 지역 내 개도국 공업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현안 토의

2. 외무부는 1984.3월 동 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정부훈령을 시달함.

- ❋ 정부대표단
  - 공업장관회의: 수석대표 권태웅 주태국대사, 대표 경제기획원 최창림 과장 등 4명
  - 고위실무자회의: 수석대표 권병현 주태국공사, 대표 경제기획원 최창림 과장 등 3명
- ❋ 회의 참가목적
  - UNIDO 제4차 총회(84.8. 비엔나) 개최에 대비한 ESCAP 지역 공동입장 수립
  -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 대한 경험 및 대개도국 협력 현황 소개
  - 에너지, 기술, 금융, 인력개발 등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 추세 파악
- ❋ 정부훈령
  - 개도국 간의 무역장벽 완화 및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공동노력 촉구
  - 개도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선진국의 단계적인 산업구조 조정 촉구
  - 선진국, 개도국 간의 산업 · 기술협력 강화 촉구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 제한 움직임에 대한 저지 노력 촉구

3. 정부대표단은 외무부에 주요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 참가국: 아 · 태지역 25개국 및 UNIDO 등 국제기구 대표
- ❋ 주요 의제에 관한 토의
  - ESCAP 지역 공업화와 관련된 문제점 토의 후 지역협력 강화를 통한 보호주의 대처, 역내 마케팅 활동 증진, 기술이전 등 11개 항목에 관한 보고서 채택
- ❋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공업정책, 선진국 · 개도국 간 협력, 남 · 남 협력현황을 소개하고, 국제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구 중공)대표는 한국 측 대표와 대화 시 84.4월 서울 개최 예정인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에 중국이 참가하게 되어 기쁘다는 반응 표명

4. 본 문서철에는 ESCAP 사무국 회의소집 공한 및 잠정의제별 설명자료, 회의 참가결과 보고서(주태국 대사관 및 상공부) 등이 수록되어 있음.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1 기본문서

| 84-071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1 / 7 / 1~314(314p)

1. 외무부는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국의 제4차 총회 준비상황 및 UNIDO의 유엔전문기구 전환과 관련한 최근 진전사항을 파악하는 등 총회 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함.

❋ 유엔직속기구인 UNIDO는 매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며, 1985년부터는 유엔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로 전환되어 매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할 예정

2. 외무부는 1984.7월 UNIDO 제4차 총회(84.8.2.~20. 비엔나)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 교체수석대표 장만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
- 대표: 재무부 양만기 국제금융과장 등 7명

❋ 주요 토의 의제

- 개도국 공업화 촉진 전략 재검토(공업인력 개발, 과학기술 증진, 금융, 산업구조 조정, 농촌개발 등)

❋ 훈령

- 개도국, 선진국 간 의견대립 시 원칙적으로 개도국 노선에 따르되, 선진국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한국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적극적 태도 표명 보류
- UNIDO가 유엔전문기구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 우리의 이사국 진출 여건 파악
-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하여 개도국 공업화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 지적, 개도국 공업화 촉진을 위한 개도국 부채문제 해결 등 국제협력 및 개도국의 자조 노력 촉구, 남남협력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기여 입장 개진
- 공업화와 관련된 12개 주요 토의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세부훈령에 따라 대처

3. 정부대표단은 외무부에 주요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주요 회의결과

- 개도국은 개도국 공업화 지연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요구(재정지원 증가,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를 하여 선진국의 반발 초래
- 선진국은 세계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 개도국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도국 국내정책의 중요성도 강조
- 공산권은 자본주의 체제 폐단과 군비경쟁을 거론하여 UNIDO 총회의 정치화를 시도

❋ 종합 평가

- 총회 자체가 정치화하여 실질 성과 없이 실천성 없는 결의안 표결로 종료
- 선진국은 개도국이 총회를 정치화하려는 추세에 강한 반응으로 대처

4. 정부는 UNIDO 측 요청에 따라 최후진국 대표의 UNIDO 총회 참석여비 지원 명목으로 기여금 3,000달러를 납부함.

5. 본 문서철에는 제4차 총회 개최 준비 및 총회 참가초청 관련 UNIDO 사무국 공문, 제4차 UNIDO 총회 회의결과에 대한 대통령 앞 보고(84.8.22. 외무부) 등이 수록되어 있음.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2 의제

| 84-071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1 / 8 / 1~392(392p)

1. 본 문서철에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국에서 배포한 제4차 총회 잠정의제와 관련, 다음 의제에 대한 국내 관련 부처별 한국 측 입장이 수록되어 있음.

- 의제 4: 리마 및 뉴델리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개도국 공업화의 회고와 전망)
- 의제 5(a): 공업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촉진
- 의제 5(b): 개도국 과학기술 능력 강화
- 의제 5(c): 공업개발을 위한 재원 조성
- 의제 5(d): 공업화와 에너지 문제
- 의제 5(e): 세계 산업구조 조정과 공업 재배치
- 의제 5(f): 원료의 산업적 가공에 관한 국내 정책 및 조치
- 의제 5(g): 농촌 개발과 식량 자급을 위한 공업화 정책
- 의제 5(h): 최후진국 문제(SNPA ; 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 이행문제)
- 의제 5(i): 개도국 간 협력(ECDC ; 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 의제 6: 아프리카 개발 60년대(진전상황 검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과 수단)

2.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

- 제4차 총회 잠정의제 관련 UNIDO 사무국 자료(84.1.16.)
- 제4차 총회 잠정의제에 대한 UNIDO 사무국 주해(annotated) 자료(84.2.1.)
- 아프리카 개발 10년대(Industrial Dev't Decade for Africa) 이행계획에 관한 UNIDO 사무국 자료(84.7.5.)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3 회의록

| 84-071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1 / 9 / 1~529(529p)

본 문서철에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제4차 총회 개최 결과와 관련, UNIDO 사무국에서 작성, 배포한 다음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전체회의 회의록(Summary Record, 괄호 안은 배포 일자)

- 전체회의 회의록에는 의제4(리마 및 뉴델리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및 의제5(국제협력)에 관한 각국 수석대표의 연설내용 수록
- 제1차 전체회의(84.8.3.), 제2차(84.8.6.), 제3차(84.8.6.), 제4차(84.8.6.), 제5차(84.8.7.), 제6차(84.8.8.), 제7차(84.8.8.), 제8차(84.8.8.), 제9차(84.8.9.), 제10차(84.8.9.), 제11차(84.8.10.), 제12차(84.8.10.) 회의록

2. 각 위원회 토의결과 보고서(Report, 괄호 안은 배포 일자)

- 제1위원회 보고서(84.8.16.)
  - 공업개발을 위한 재원 조성, 세계 산업구조 조정과 공업 재배치, 최후진국 문제, 개도국 간 협력(ECDC), 아프리카 개발 10년대(Industrial Dev't Decade for Africa) 이행계획
- 제2위원회 보고서(84.8.16.)
  - 공업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촉진, 개도국 과학기술 능력 강화, 공업화와 에너지 문제, 원료의 산업적 가공에 관한 국내정책 및 조치, 농촌 개발과 식량 자급을 위한 공업화 정책, 유엔체제하에서의 공업발전문제에 관한 UNIDO의 역할

3. 각국 및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다수의 잠정결의안

4. 제4차 총회 결과 잠정보고서(84.8.16.)

5. 회의 일정에 관한 일일 보도자료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4차. Vienna, 1984.8.2-20. 전4권. V.4 자료

| 84-071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2 / 1 / 1~206(206p)

본 문서철에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제4차 총회에 참석한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문 및 제4차 총회 관련 참고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 한국 수석대표(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 연설 내용은 V.1 제2항 참조
- 북한 수석대표(최기철 주오스트리아대사)
- Abdel Rahman Khane UNIDO 사무국장
- Kibria ESCAP 사무국장
- 기타: 태국, 알제리, 이스라엘,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및 인도 수석대표

2. UNIDO 사무국 발간 제4차 총회 관련 참고자료(괄호 안은 배포 일자)

- Some Views of Group B on the Orientations for UNIDO VI(84.5.28.)
- Schedule of United Nations and UNIDO Meetings for 1984(84.8.10.)

UNIDO(UN공업개발기구) / 상임위원회, 제21차. Vienna, 1984.11.19-23

| 84-071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2 / 2 / 1~275(275p)

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총장은 1984.9.17. 공문을 통하여 제21차 상임위원회가 84.11.19.~23. 비엔나에서 개최됨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대표단의 옵서버 참가를 요청함(한국은 상임위원회 위원국이 아님).

2. 동 회의에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장만순 공사 및 한영성 과학관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 전체 상임위원국들은 UNIDO가 1985년 중으로 유엔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로 전환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
- 회의 초반에 B그룹(선진국)과 77그룹(개도국)이 매 의제마다 의견대립을 보였으나, 회의 종반에 B그룹이 77그룹 및 D그룹(공산권)에 양보하는 태도
- 의제별 토의 결과
  - 1986-87년 사업계획은 UNIDO 제4차 총회 결의 및 권고를 반영하여 재구성
  - 유사한 국제기구 간의 업무중복 회피를 위한 조정의 중요성 강조
  - UNIDO의 자체평가제도에 대해 긍정적 반응 표명
  - 공업개발에 관한 고위 현장 자문관 제도(SIDFA ; Senior Industrial Dev't Field Advisor) 유지를 위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 요청

3.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로는 회의 잠정의제, 의제별 자료(86~87년 UNIDO 사업계획, UNIDO 자체평가제도 등), 회의 결과 보고서, 참석자 명단 등이 포함됨.

UNIDO(UN공업개발기구) / IDB(공업개발이사회) 제18차. Vienna, 1984.5.2-18

| 84-071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2 / 3 / 1~230(230p)

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총장은 1984.3.17. 공문을 통하여 제18차 공업개발이사회(IDB)가 1984.5.2.~18. 비엔나에서 개최됨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대표단의 옵서버 참가를 요청함(한국은 이사국이 아님).

❋ 잠정 의제

- 세계공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 아프리카 공업개발 10년대
- 유엔공업개발기금
- 최후진국 공업화 문제, 여성의 공업개발 참여문제, 나미비아 및 팔레스타인 지원 등

2. 정부는 1984.4.20. 동 이사회에 참석할 대표단(옵서버)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정부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수석대표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 대표 조창범 서기관

❋ 회의 참가 목적

- 제4차 UNIDO 총회(84.8.2.~18. 비엔나) 준비상황 파악
- UNIDO가 1985년에 유엔전문기구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신헌장 발효 후 이사회 운영방향 등을 파악하여 한국의 이사국 출마기반 조성

❋ 정부 훈령

- UNIDO의 1년간 주요 활동 사항 및 운영 방향 파악
- UNESCO, UNCTAD 등 유엔관련 기구의 정치화 경향과 관련, 선진국, 개도국 간 관계를 주시하여 한국의 대UNIDO 활동 방향 정립에 활용
- 기존 이사국과 UNIDO 신헌장 발효 이후 선출 예정인 이사국 간의 관계 파악

3.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로는 회의 잠정 의제, 의제별 자료(세계공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기술이전 및 개발 등), 외무부 작성 내부 자료(의제별 한국 입장) 등이 포함됨.

UNCSTD(UN과학기술개발회의) / ICSTD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6차. New York, 1984.5.29-6.8

| 84-071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2 / 4 / 1~141(141p)

1. 유엔 사무총장은 1984.4.11. ICSTD 제6차 회의가 1984.5.29.~6.8. 유엔본부에서 개최됨을 알려오면서 한국의 참가를 요청해온바, 정부는 1984.5.22.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 교체수석 최영환 과기처 진흥국장 등

❁ 참가 목적

- 세계적 기술경쟁에 능동적 대처 및 과학기술외교 강화

❁ 정부 훈령

-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하므로 한국의 실익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개도국 입장에 동조
- 비엔나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선진국 및 UN시스템의 지원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강조

2. 동 회의는 과학기술기금 조달문제에 관해 선진국,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차기 유엔총회 기간 중 기여금 서약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며, 과학기술센터 활동 등 8개 결의안을 채택하고 종료됨.

3.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975년 제7차 유엔특별총회에서 UNCSTD 개최 결의

❁ 1979.8월 개최된 UNCSTD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

- ICSTD 회의 연 1회 개최
- 유엔과학기술개발지원체제(UNFSSTD) 설치 추진

4. 기타 UNFSSTD 기금 모금 예비회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엔사무총장은 1984.7.31. UNFSSTD 기금 모금을 위한 예비회의가 1984.10.30.~31. 유엔본부에서 개최됨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정부의 참가를 요청해 옴.

❁ 동 회의에 강웅식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이 참석하여 한국 정부가 예년 수준의 기여(3만 달러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UNIDO(UN공업개발기구) / ICGEB(국제유전 및 생물공학센터) 설립 전권대표회의. Vienna (오스트리아) 1984.4.3-4

| 84-071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52 / 5 / 1~153(153p)

1. 국제유전 및 생물공학센터(ICGEB) 설립 개요는 다음과 같음.

- 1981.2월 UNIDO가 주최한 '유전 및 생물공학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국제유전 및 생물공학센터 설립 논의
  - 설립 목적: 유전 및 생물공학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개도국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1983.9.13. 마드리드에서 ICGEB 설립규정 채택
  - 49개국, 13개 국제기구 참가
  - 한국 정부는 동 채택회의에 옵서버대표단 파견(수석대표: 주스페인대사)

2. UNIDO는 1984.2.24. 한국 정부가 ICGEB 설립규정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84.4.3.~4.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CGEB 설립에 관한 전권대표회의(Plenipotentiary Meeting)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함.

3. 정부는 ICGEB 설립에 관한 전권대표회의에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참사관을 옵서버로 참석시킴.

-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처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유전 및 생물공학 분야 선진국들이 불참하기 때문에 한국의 참가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입장 표명

4. ICGEB 설립에 관한 전권대표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협약 당사국 25개국, 옵서버(한국 등 9개국)
- 주요 결정사항
  - 센터를 인도(뉴델리) 및 이탈리아(Trieste)에 설치한다는 권고를 표결로 채택
- 스페인은 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치 장소에 관한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전권대표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5. 기타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전권대표회의 잠정 일정, 준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참석자 잠정 명단, UNIDO 사무총장의 전권대표회의 연설문, 전권대표회의 개최 결과보고(84.4.10.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등이 있음.

UNDP(UN개발계획)집행이사회, 제31차. Geneva, 1984.6.4-30

| 84-071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6 / 1~299(299p)

1. UNDP(유엔개발계획)는 1984.2.22.~23.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조직회의에서 제31차 집행이사회를 1984.6.4.~30.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잠정 의제를 채택함.

- UNDP 조직회의에는 김동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이 옵서버로 참석
- 집행이사회 잠정 의제
  - 일반정책문제 검토(개도국의 기술협력 요구에 호응하여 취할 조치)
  - 제3주기(1982.~86.) 사업계획 중간평가 및 검토/제4주기(1987.~91.) 사업계획 준비작업
  -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문제 등 특별지원계획
  -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등 기구와의 업무 협조

2. UNDP는 제31차 집행이사회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석해 줄 것을 1984.4.24. 요청한바, 정부는 6.2. 동 집행이사회에 참석할 대표단(옵서버)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 수석대표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대표 정우성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등
  - 수석대표는 6.15. UNIDO 집행이사회에서 기조연설

3. 제31차 집행이사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안건이 사무국이 사전 준비한 대로 순조롭게 개최
- 아프가니스탄의 국가계획은 동서진영 간 이견으로 불채택
- UNDP 사무국이 제의한 인적자원개발 국제회의 개최문제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채택
- 일반정책 문제에 관한 토의를 위해 6.12.~15. UNDP 이사회 고위대표회의 별도로 개최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제31차 집행이사회 개최를 위한 조직회의 참가 보고서(84.3.2. 주유엔대표부)
- 제31차 집행이사회 결과 보고서: 기초위원회/예산재정위원회 보고서 및 결의안 등

UNDP(UN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지원조정관회의, 제2차. Bangkok(태국) 1984.4.30-5.8

| 84-071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7 / 1~281(281p)

1. Vunibobo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는 1984.2.14.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84.4.30.~5.8.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지원조정관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요청해 옴.

❋ 잠정 의제

- UNDP 제3주기(1982~86) 아·태지역 내 국가 간 기술협력사업 중간평가
- UNDP 제4주기(1987~91) 아·태지역 내 국가 간 기술협력사업 전망 토의
- UNDP 사업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토의

2. 정부는 1984.4.23.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이규일 주태국공사, 대표 김용환 과기처 국제협력과 사무관 등 3명

❋ 정부훈령 요지

- ICP사업 참가국은 대부분이 개도국이므로 남남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 표명

3. 정부대표단은 동 회의 참가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 참가국: 27개국, 20개 국제기구

❋ 대표단 활동사항

- 국가 간 계획사업 검토, 정부집행, 사업구성원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입장 소개
- 4개 사업(물관리, 영양가 분석 및 평가, 원양어업개발, 냉동·냉장 및 저장기술 훈련사업)에 대한 UNDP 지원 요청

❋ 대표단 건의사항

-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자금 분담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호의적 반응을 보이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운영 필요

4. 한편, UNDP는 1984.2.5. 수혜국 정부와의 자금 분담제도하에서 UNDP의 대한국 사업에 대해 한국 측이 소요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한국 내 사업도 확대하고 주한 UNDP사무소 기구도 확충될 수 있기를 희망함.

5. 본 문서철에는 UNDP와의 공동협력사업 개발문제도 일부 수록되어 있음.

UNDP(UN개발계획) 인사 방한, 1984

| 84-072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8 / 1~113(113p)

1. Ben-Yehuda UNDP(유엔개발계획) 동북아담당과장 방한(1984.4.8.~11.) 관련 내용임.

❋ 주한 UNDP사무소는 84.3.6. Ben-Yehuda 과장이 주한 UNDP사무소와 업무협의(한국에서의 UNDP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 검토)를 위해 84.4.8.~11. 방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외무부 관계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

❋ Ben-Yehuda 과장은 84.4.10. 외무부 조약심의관을 방문, 면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UNDP 측 입장을 표명

- 한국이 UNDP사업에 대한 자금 분담 및 기여금 증액 등을 통해 UNDP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
- UNDP와의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처뿐만 아니라 외무부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동 과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기획부서 및 외무부가 UNDP사업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과기처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 예산부담 문제를 수반치 않으면서 유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국 측이 활용 희망

❋ 동 과장은 방한 기간 중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도 방문하여 면담

2. UNDP 사업평가단 방한(1984.11.19.~12.7.) 관련 내용임.

❋ 주한 UNDP사무소는 84.11.2. 다음과 같이 UNDP 사업평가단이 방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외무부 관계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

- 방한 기간: 84.11.19.~12.7.
- 방한 목적: 한국 내에서의 UNDP 활동 검토 및 한국의 장기개발계획 파악
- 평가단 구성: A. Ventura 단장 등 4명

❋ UNDP 평가단은 84.11.26.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을 방문,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교환

- 평가단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UNDP 자금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donor nation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한국 측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UNDP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한국 측은 UNDP에 많은 한국인이 진출하여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

❋ 평가단은 방한 기간 중 다음과 같은 기관을 방문

- 정부 부처: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농업진흥청 등
- 연구기관: 한국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소 등
- 시찰: 포항종합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한국기계연구소 등

UNDP(UN개발계획)의 대북한 지원사업, 1983-84

| 84-072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9 / 1~180(180p)

1. UNDP(유엔개발계획)의 대북한 사업계획 관련 내용임.

- UNDP는 1982~85 중 1,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평양 신공항 등 북한 민간항공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181만 달러가 포함
- 외무부는 상기 대북한 사업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가능성에 유의, 1983.2월 개최되는 UNDP 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 등 사전대책을 검토
- 외무부는 미국 및 UNDP 측과 협의한 결과, 한국 측이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실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또한 한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련 등 공산권에서도 UNDP의 대한국 사업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UNDP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 외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1983.7월 대통령에 보고

2. UNDP 북한안내서 관련 내용임.

- 평양주재 UNDP사무소는 1983.4월 북한 생활조건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
  - 북한의 교통, 통신, 화폐, 주택, 음식, 교육 등에 관한 14페이지 안내서
- 동 안내서를 비공식 입수한 주유엔대표부는 안내서 내용 중에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기록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UNDP 측에 오류를 시정하도록 비공식 제기할 예정임을 외무부 본부에 보고
  - 외무부 본부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기록은 북한의 주장과 자료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유엔에서 이미 발간한 자료에 입각하여 안내서를 작성하도록 UNDP 측에 요청할 것을 지시
- UNDP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1983.5.5. 인쇄 완료된 동 안내서 배포를 중지시키고, 평양 주재 UNDP대표에게도 동 안내서 배포를 금지하라고 지시

3. 주프랑스대사는 1984.4.17. 유네스코가 UNDP 자금 140만 달러를 활용하여 5년 동안 북한의 외국어 연구소 시설 현대화와 외국어 통역전문가 양성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본 문서철에는 UNDP 자금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침 및 절차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UNICEF(UN아동기금) 일반, 1984

| 84-072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10 / 1~77(77p)

1. UNICEF(유엔아동기금) 카드 한국 내 판매 허용 관련 내용임.

❁ 주한 UNICEF사무소는 1984.3.29. UNICEF 카드를 한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

- UNICEF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원 일부 조달 목적

❁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판매를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2. 북한 UNICEF 사업시찰팀 파키스탄 방문 관련 내용임.

❁ 주파키스탄대사는 렴경식 북한 외교부 제9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4인의 대표단이 1984.6.8.~15. 파키스탄을 방문 중임을 보고

- 동 방문은 UNICEF 본부가 주선
- 목적: 파키스탄의 대UNICEF 활동에 대한 시찰
- 일정: 파키스탄 보건성 과장 면담, 편잡주 등 방문

3. UNICEF 아시아지역 예산검토회의 주재를 위해 1984.8.27.~31. 방한한 K. E. Knutsson 사무차장은 8.30. 이원경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외무장관이 유엔을 방문할 경우 UNICEF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아동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개도국 기술협력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외무장관은 84.10.5. J. P. Grant UNICEF 사무총장과 뉴욕에서 면담

- Grant 사무총장은 한국의 UNICEF 이사국 입후보 및 재정지원 증액을 요청하면서, 한국의 재정지원 증액은 이사국 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

4. Grant 사무총장은 1984.11.7.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기여금 서약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UNICEF에 147,000달러 기여를 서약한 데 대해 1984.12.1. 외무장관 앞 감사서한을 보내옴.

공무원등 UNICEF(UN아동기금) 파견 및 훈련, 1982-84

| 84-0723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11 / 1~127(127p)

1. 보건사회부는 UNICEF(유엔아동기금)와의 협약에 따라 UNICEF 재정 지원하에 보건의료사업 관계자에 대한 1차 해외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방문자: 배효원 서울시 의약과장 등 10명
- 방문 기간: 1984.11.1.~6.
- 방문 기관: 홍콩, 필리핀, 태국 등의 1차 보건의료 관계 기관

822

2. UNICEF는 1983.6월 한국 측 비용부담 조건으로 한국 공무원을 UNICEF에 파견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데 동의함.

- UNICEF는 한국 측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자체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 결정
- 후보자 자격 요건은 대학원 졸업자, 해외근무 경험자, 외국어 구사 능력자
- 보사부는 신홍권 약무식품국 사무관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UNICEF는 이를 수락
  - 다만, 신홍권 사무관의 UNICEF 내 근무처 및 근무자격에 대해서는 미합의

3. UNICEF는 보사부 직원의 UNICEF 사무국 파견훈련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 희망대로 훈련을 겸한 준직원 자격 채용은 어려우므로 한국 측에서 UNICEF-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것을 권고함.

UNRWA(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기여금, 1978-84

| 84-0724 |

생산연도	1978-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12 / 1~91(91p)

1. 본 문서철에는 UNRWA(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와 관련, 매년 각국에 대해 기여금 증액을 요청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음.

- 1980년 총 소요예산 2억2천만 달러 (5,600만 달러 적자 예상)
- 1981년 총 소요예산 2억4천만 달러 (6,130만 달러 적자 예상)
- 1982년 총 소요예산 2억6천만 달러
- 1983년 총 소요예산 2억7천만 달러
- 1985년 총 소요예산 2억6천만 달러

2. UNRWA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금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 1981년: 10,000달러
- 1982년: 5,000달러
- 1983년: 5,000달러

3. 유엔 사무총장은 1982.3.1. 공한을 통해 제36차 유엔총회 결의(36/146)와 관련, UNRWA에 대한 기여금 제공을 촉구하고 동 결의 이행에 관한 각국 정부의 조치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UNV(UN봉사단) 자문회의, 제2차. Geneva, 1984.4.9-11

| 84-072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2 / 13 / 1~96(96p)

1. 주한 UNDP대표부는 제2차 UNV(유엔봉사단) 자문회의가 1984.4.9.~11.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1984.1.10. 알려오면서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을 지명 초청함.

❋ 회의 주제: 국제 봉사활동과 개발

2. 동 회의에는 전경환 사무총장, 한양수 내무부 개발국장 등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대표단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824

❋ 전경환 사무총장은 84.4.10. UNV 자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 성과 및 조직 등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UNV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

❋ 한국 대표단은 UNV 측 요청에 따라 84.4.10. UNV 측과 업무협의회 개최

- 한국 측은 UNV계획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UNV 측은 이를 환영
- 한국은 86번째 UNV 참여국으로 확정

3. 본 문서철에는 UNV 사무국이 작성한 제2차 UNV 자문회의 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WFP(세계식량계획)/CFA(식량원조정책 · 계획위원회) 제17차. Rome, 1984.5.28-6.6

| 84-072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2 / 14 / 1~223(223p)

1. 외무부는 1984.5.24. 주이탈리아대사관에 1984.5.28.~6.6.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17차 WFP(세계식량계획)/CFA(식량원조정책계획위원회) 회의에 동 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로 참석시키도록 지시함.

2. 농무관은 회의 참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참가국: 30개 회원국 및 60개 비회원국
- WFP 운영에 관한 5개 정책분야 및 30개 신규 사업 승인 검토
- WFP는 1983년도 세계 총 식량원조의 25%에 해당하는 140만 톤(7억 달러 상당)을 개도국 농업개발 및 난민구제용으로 지원
- 1985/86년 WFP 기금조성 목표는 1,350만 달러
- 이번 회의에서 WFP 사업집행에 대한 FAO의 관여 범위가 집중 논의됨으로써, WFP와 FAO 간의 불협화음 노정
- 쿠바에 대한 WFP 사업지원과 관련,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의 주장으로 동 사업을 승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1 기본 문서 : 1-3월

| 84-072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1 / 1~179(179p)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개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1983.9.1. KAL기 사건 발생과 관련 한국 정부 요청으로 소집된 ICAO 특별이사회(1983.9.15.~16.)는 KAL기 사건에 대한 대소규탄 결의 안을 채택하고, 9.16. 프랑스 제안에 따라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를 포함한 시카고협약 개정 및 채택을 위하여 1984년 1/4분기 중 ICAO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찬성 26, 반대 2, 기권 2, 반대 2는 소련과 체코)
- 프랑스는 기존 국제법상 영공(領空)국의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력사용 금지 의무조항 강화를 주장

2. ICAO 이사회는 제25차 특별 총회 개최 관련 1983.12.6. 다음과 같이 결정함.

- 개최 기간 및 장소
  - 1984.4.24.~5.11. 몬트리올
- 잠정 의제
  - 각국이 제출한 협약 개정 초안(프랑스 · 오스트리아안, 미국안 등) 및 관련 제안(소련, 스위스, 이집트 등) 검토

3. 서방 선진국들은 비공식 회의를 개최(83.12월 파리, 84.2월 비엔나)하여 프랑스 · 오스트리아 초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미, 일 등 20여 개국 참석)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공관을 통하여 비공식 회의 결과,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파악함.

- 프랑스 · 오스트리아 안에 자위권을 포함한 배경 및 경위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기 자위권 발동의 요건 및 사례

4. 외무부는 시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다음과 같은 선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1984.3.22. 관련 공관에 참고하도록 통보함.

- 영토주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민항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자위권 포함)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 시카고협약에서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현행 제도로부터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며, 시카고협약에 명시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점

5.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ICAO 제25차 특별 총회 참석에 앞서 프랑스 및 스위스를 방문하여 시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관해 협의함.

- 프랑스는 시카고협약 개정과 관련된 정치적 요인과 각국의 상이한 입장 때문에 협약 개정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시인
- 스위스는 협약 개정과 관련된 정치적 요인 때문에 특별 총회 성공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2 기본 문서 : 4.3-19

| 84-072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2 / 1~222(222p)

1.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1984.4.24.~5.11. Montreal에서 개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참석에 앞서 영국, 캐나다, 미국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시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관해 협의함.

- 영국은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현행 국제법 원칙을 지지하지만, 국제현실에 비추어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프랑스 · 오스트리아 안이 차선의 대안이라고 언급
- 캐나다는 프랑스 · 오스트리아 안이 민항기 안전에 도움을 주느니 오히려 해를 끼친다면 채택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이번 특별총회가 1973년 로마 총회와 같이 성과 없이 끝날 것을 우려
- 미국은 프랑스 · 오스트리아 안을 대체로 지지하며, 특별총회에서 동안이 정식 제출되면 미국 개정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언급

2. 외무부는 84.4.6. 시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관련 공관에 통보함.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의무를 인도적 차원에서 일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 확립 필요
- 프랑스 · 오스트리아 안과 같이 개정안에 자위권을 규정하는 것은 무력사용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줄 수 있어 오히려 현행제도보다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위권 포함 반대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를 위반할 때 적용시킬 법적 책임과 제재를 시카고협약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3. 외무부는 1984.4.19. 제25차 ICAO 특별 총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수석대표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교체수석 장만순 주오스트리아 공사, 기타 외무부, 교통부 대표 6명

  -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은 V.5 제2항 참조

4. 외무부는 1984.4월 시카고협약 개정에 관한 한국 측 개정안을 작성, 관련 재외공관에 송부하여 각국의 반응을 타진함.

- 캐나다는 한국 측 개정안이 자국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특별 총회에서 적극 협조할 뜻을 표명
- 영국은 프랑스 · 오스트리아 안이 먼저 투표에 부쳐진 뒤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현행 규약을 재확인하는 안이 투표에 상정되므로 한국측 안이 기술적으로 유리하다고 전망
- 미국은 한국측 안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식으로 ICAO에 제출하기 전에 미국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을 요청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3 기본 문서 : 4.20-27

| 84-072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3 / 1~221(221p)

1. 외무부는 1984.4월 시카고협약 개정에 관한 한국 측 개정안을 관련 재외공관에 송부하여 각국의 반응을 타진한 데 이어, 한국 측 개정안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교섭한 바, 한국측 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한국 측 개정안의 절대적 무력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등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긴밀한 협의 희망
- 프랑스는 KAL기 사건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자위권을 도외시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
- 네덜란드는 가급적 한국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 표명
- 대부분 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KAL기 사건)에 대해 이해 표명

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에 참석한 노재원 수석대표는 4.25. 기조연설을 함. 정부대표단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직후 한국 측 개정안 체제를 일부 수정(주요국의 의견 반영)하여 ICAO 사무국에 제출한바, 한국 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현행 국제법 규칙을 성문화한다는 입장 견지
- 민항기 안전과 관련된 시카고협약 속에 일반국제법상 영토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위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하에 민항기에 대한 무력 불사용 강조
- 무력 사용국의 법적 책임 추궁 및 제재 규정을 확립

3. 정부대표단은 특별 총회 참석 중에도 각국 대표단을 접촉하여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한 반응 타진 및 지지 요청을 계속하였으며,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 반응
  - KAL기 관련 희생국으로서 인명 안전에 초점을 둔 한국의 개정안 제출은 당연
  - 한국의 독자안 제출은 서방 전략에 기여
- 영국은 강한 내용의 한국 측 개정안이 서방측 안 반영에 유익하다는 입장
- 캐나다는 한국 개정안이 서방측 안 통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노르웨이는 무력사용 억제조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표명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4 기본 문서 : 4.28-6월

| 84-07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4 / 1~212(212p)

1. 노재원 수석대표는 1984.4.2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중간보고함.

- 시카고협약 개정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상당수의 대표들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
  - 회의 초반에 소련과 인도 등은 협약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 중남미그룹이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및 요격절차 보완에 관한 원칙을 제출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와 영공 불가침의 2개 원칙 간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토의의 주안점
- 서구,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유보

2. 노재원 수석대표는 4.27. ICAO 집행위에서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스위스, 독일 등은 인명 안전이 주권 보호보다 중요하며, 자위권 규정은 남용 가능하므로 언급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측 안에 대해 동조 발언

3. 특별 총회는 각국이 제출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키로 함.

- 16개국이 제출한 개정안 중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영공주권 존중(자위권), 민항의 남용 금지 및 요격절차 보완이라는 3개 요소를 공통분모로 하는 조정안을 작성
- 단일 조정안 작성을 위해 23개국이 참석하는 작업그룹 구성
  - 한국은 미국, 소련, 일본 등과 함께 작업그룹에 참석
- 집행위에서 단일안에 대해 심의 후 본회의에서 채택

4. 작업그룹이 작성한 조정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대립됨에 따라 특별 총회 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절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소련이 반대함. 의장이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한 개정안을 미국과 소련이 수락함에 따라, 의장 절충안은 5.10. 오전 집행이사회, 동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비행 중인 민항기에 대한 무기 불사용 규칙 인정
- 요격을 하는 경우에 인명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인정
- 허가 없이 영공을 비행하는 민항기에 대한 영토국의 지정 공항 착륙 요구권 인정
- 영공국의 지시에 대한 민항기의 복종

5. 개정안 채택 후 한국 수석대표는 개정안 일부 내용의 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특별 총회는 5.10. 저녁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마친 후 폐회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5 대책 및 참석보고서

| 84-073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5 / 1~224(224p)

본 문서철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관련, 관계부처 대책 자료 및 정부 대표단에 대한 훈령과 특별 총회 참석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1. 외무부는 ICAO 특별 총회 대책협의를 위해 1984.3.27. 및 4.16.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시카고협약 개정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상호 협의함.

❋ 제25차 ICAO 총회(특별회기) 대책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제도의 확립(84.3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2.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 입장

- KAL기 사건의 주(主)피해 당사국으로서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기여
- KAL기 사건 이후 한국의 일관된 기본입장(소련이 기존 국제법 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견지하고,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시카고협약에 성문화시킨다는 입장을 유지

❋ 세부 시행 지침

- 한국 측 개정안 제출(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으로 규정, 민항기에 대한 무기사용 금지 의무 재확인, 자위권 행사 조항 포함에 반대, 무기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 부담 및 ICAO의 제재 조치 필요)
-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공동제안국 확보 교섭 시행
- 한국측 안이 서방측 안 관철에 전략상 도움이 되는 점을 강조

3. 정부대표단은 1984.12월 ICAO 제25차 특별 총회 참석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함.

❋ 특별 총회에서 채택된 시카고협약 개정안을 조속히 비준하여, KAL기 사건의 주(主)피해 당사국으로서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기존 원칙을 지지하는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국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 공군과 교통부에서 내규 또는 지침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요지역 상공 통과 항공기에 대한 적용 규정은 각국 항공기관에까지 전달되는 것이므로 과격한 표현을 피하고 적절하게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6 연설문

| 84-073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6 / 1~105(105p)

본 문서철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음.

1. 한국 수석대표(노재원 주캐나다대사) 연설문(1984.4.25.)

- 1983.9월 이사회 이래 KAL기 사건을 처리해 온 ICAO의 노력과 업적을 평가
- 공중에서의 인명안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 측 수정안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설명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주권국의 안보 이해와 국제민항 이익의 조화, 공중에서의 사건 및 사고 해결)
- 불법적 무력사용에 의해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명문화 주장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관련 국제협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 필요성 강조 (이사회에서의 투표권 정지 또는 ICAO 회원국 자격 박탈 등)

2. Dr. Assad Kotaite 총회 의장 개회 연설문(1984.4.24.)

- 세인트 빈센트의 가입으로 ICAO 회원국이 152개국이 되었음을 발표
- 제1~4차 특별 총회 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제5차 특별 총회의 개최 배경 및 의의에 대해 설명
- 그간의 ICAO협약 개정이 행정적, 제도적 분야에 대해서 행해졌으나, 제5차 특별 총회에서는 국제법과 직접 연관된 사안에 대해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그간 관습법 등에 의해 규율되어 오던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성 강조
- 총회 참가국들이 과거에 대한 언급보다는 미래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최대한의 민항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3. 기타 국가 연설문: 영국, 소련,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인도네시아, 스위스 등

- 소련, 중국(구 중공), 불가리아, 쿠바 등은 ICAO 협약 개정 반대 입장 표명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V.7 참고자료

| 84-073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7 / 1~260(260p)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이 발행한 각종 회의기록은 다음과 같음.

- 제79차 ICAO 이사회(1973.5.29.~6.27. 몬트리올)
  - 총회 결의 및 결정에 관한 조치
  - 총회 결의 A19-1(1973.2.21. Sinai에서의 이스라엘 공군기에 의한 리비아 항공기 격추) 관련 조치
- 제105차 항공위원회(1984.1.24.~2.15. 몬트리올)
  - 항공위원회(ANC) 작업계획 수정
  - 1983.9.16.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실시된 조사관련 최종 보고서 심의
- 제20차 ICAO 특별 총회(1973.8~9월, 로마) 시카고협약 개정 관련 발췌 회의록
  - 협정문 Chapter XVI bis 개정 관련 프랑스대표 제안 설명
  - 동 개정 관련 영국, 소련, 우간다, 스리랑카 등 각국 대표 입장 발표
- 제25차 ICAO 특별 총회(1984.4.24.~5.11. 몬트리올) 잠정 의제
  -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제안한 협정 개정안(A25-WP/2)
  - 미국이 제안한 협정 개정안(A25-WP/3)
  - 총회 의사규칙에 관한 아랍어본 승인

2. 본 문서철에는 민항기 사건의 국제기구 제소와 관련 외무부에서 내부 검토한 자료도 수록되어 있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1 83.12-84.2.22

| 84-073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8 / 1~305(305p)

1. 소련 전투기에 의한 1983.9.1. KAL기 격추사건(269명 사망)과 관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1983.12.13. 동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1984.2월 개최 예정인 제111차 이사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함.

❁ 최종보고서 요지

- 소련이 주장하는 고의적 항로이탈(첩보비행설) 부인, 연료절약을 위한 항로단축설 부인
- 소련의 요격절차 이행 주장을 일축하고 육안 식별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격추했음을 지적, 항로이탈은 조종사의 과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

2. 정부는 ICAO 이사회에서 미, 일 등 우방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소련의 격추만행과 이에 대한 책임추궁 및 ICAO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소련의 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함.

❁ 외무부는 제111차 이사회에서의 결의가 최종적인 것이므로, ICAO 이사국 주재공관에 이사회에서 주재국이 한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

3. 한편, 이사회 직속 전문가기구인 항공위원회(ANC)는 최종보고서에 대해 ANC는 (KAL기 조종사의 실수를 전제로 한) 항로이탈 시나리오와 관련된 최종보고서상의 결론을 정당화시키고 지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지의 기술적 검토의견을 1984.2.16. 이사회에 제출함.

4. 일본은 1984.2.7. 이사회에 제출할 일본 측 결의안 초안을 한국 측에 전달, 입장을 문의하고 우방국(한국 포함 12개국)들은 수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일본 측 초안을 중심으로 우방국 결의안 내용에 관해 협의한바, 2.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

❁ 초안 내용

- 소련의 격추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과 시카고협약에 위반(요격절차 불이행 포함)
- 소련의 배상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촉구
- 수색 구조 및 ICAO 조사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를 규탄
- 조사 결과 KAL기의 고의적인 항로 이탈 근거가 없음을 강조

❁ 정부는 우방국 결의안에 좀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하여 우방국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나, 우방국들이 수정안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제3세계 지지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우방국 결의안에 원칙적 동의

5. 정부는 제111차 ICAO 이사회에 박 근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부, 교통부, 대한항공 실무자로 구성된 대표단(옵서버)을 파견,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의하에 소련의 격추 행위를 계속 규탄하고 이에 따른 소련의 법적 책임을 추궁키로 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2 84.2.23-2.29

| 84-073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9 / 1~236(236p)

1. 몬트리올에서 1984.2.29.~3.6. 개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에 참석하는 서방국가들은 수차례 전략협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1984.2.17. 합의된 우방국 결의안 초안(V.1 제4항 참조)을 일부 수정 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채택(2.21.)하고, 비서방 이사국에 대한 결의안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함.

- 결의안 요지
  - 소련의 KAL기 격추행위 규탄, ICAO 구조 및 수색 활동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 개탄
  - 소련에 대한 책임인정 촉구,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체약국 협조 촉구
  -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 서방 측은 비동맹 이사국에 대한 결의안 지지교섭을 국별로 분담
- 외무부는 소련 등을 제외한 26개 ICAO 이사국 주재 공관에 대해 서방 측 결의안 지지 및 공동제안국 가담을 교섭토록 지시

2. 서방 측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중간반응은 다음과 같음.

- 결의안이 직접 소련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일관할 경우 최대 다수의 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일부 문안 완화가 필요
- 규탄 대상이 소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다수의 지지 확보를 위해 Soviet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
- 결의안 채택을 통해 KAL기 사건의 조속한 종료 희망

3. 한편, 일부 비동맹 이사국들은 소련을 의식, 서방 측 결의안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KAL기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관제사의 책임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외무부는 ICAO 최종보고서에 조종사 실수가 언급된 것은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며, 이사회 기술위원회(ANC)도 항로이탈 원인으로 자동항법장치(INS) 고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만큼 조종사 실수를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4. 서방 측은 전략회의를 통해 결의안 제안국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소극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며, 미국만이 소련에 의한 격추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대소 강경입장을 견지함. 한편, 소련은 민항기인 줄 알았다면 격추하지 않았을 것이며 KAL기가 첩보임무를 수행중이었다는 종전 주장을 반복하면서, 인도 등 비동맹국을 통해 서방 측의 대소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함.

5. 중남미제국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한을 정해 소련의 자체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결의안만 채택하고, 4월중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련 규탄 및 책임을 추궁하자고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서방측은 ICAO 조사와 소련의 자체조사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동 제안을 수락하지 않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3 84.3.1-7

| 84-073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10 / 1~266(266p)

1. 서방 측은 다수 비동맹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984.2.21.자 결의안(V.2 제1항 및 제2항 참조) 내용을 완화시킨 결의안(Soviet라는 명칭 및 배상조항 삭제)을 채택하고, 미국이 제안국으로서 서방 측 결의안을 2.29. 이사회에 제출함.

- 외무부는 서방 측 결의안 내용이 완화되었음을 관련 공관에 통보하고, 서방 측 결의안에 대한 주재국 지지를 요청토록 지시

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2.29. 사무총장 최종보고서 및 기술위원회(ANC) 보고서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심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소련대표가 1차로 발언하여, KAL기 첩보행위설을 반복 주장하면서 사무총장 최종보고서 내용을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
- 소련대표 발언 후 한국 측 수석대표(박 근 외교안보연구원장)가 발언하여, 소련의 격추 행위를 규탄하고, 소련이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과 이사회가 소련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
- 미국 및 일본대표는 한국대표 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하고 소련의 책임전가 발언에 대해 반박

3. 이사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련은 3.1. 자국 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함.

- 사무총장 보고서가 KAL기 항로이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점, 소련이 자체조사를 완료치 않았다는 점, 소련의 자체조사가 미 · 일의 자료제공 거부로 방해받고 있음을 지적

4. 이사회는 KAL기 사건에 관한 사무총장 최종보고서 심의를 종료한 후, 3.6.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소련의 불법 무력사용을 규탄하는 서방 측 결의안을 채택함.

- 결의안 내용
  - 소련의 KAL기 격추행위 규탄, ICAO 조사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 개탄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 소련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배상을 의미)
  - 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시카고협약 개정 촉구
- 결의안 공동제안국
  - 미, 일, 영, 독,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과테말라 등 9개국
- 표결 결과
  - 찬성 20, 반대 2(소련, 체코), 기권 9, 결석 2
- 소련은 서방 측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자국 결의안을 자진 철회

5. 외무부는 3.7. 당국자 논평을 통하여 ICAO 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소련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지체 없이 적절한 배상을 지불할 것을 촉구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V.4 84.3.8-4월

| 84-073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3 / 11 / 1~237(237p)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가 소련의 불법 무력사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ICAO 사무국 법률담당관은 1984.3.8.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함.

- 1984.3.6. 결의안 채택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한, ICAO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토의는 종결
- 다만, 소련이 이사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최종보고서를 추가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의한 KAL기 사건 토의는 불가피

2. 한국 측 수석대표(박 근 외교안보연구원장)는 제111차 ICAO 이사회 결과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1984.3.9.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KAL기 사건 조사자료의 불충분과 항로이탈 원인에 대한 의문은 일부 우방국의 미온적 태도와 제3세계 이사국의 친소적 태도를 초래
- 규탄대상이 소련이기 때문에 KAL기 사건 관계 당사국으로서의 미국의 관여는 ICAO 결의안 채택이 미 · 소간 대결이라는 인식 (미국이 서방 측 결의안 제안국이 되고, 소련도 자체 결의안 제출)
- 소련의 KAL기 첩보행위설 주장 관련, 일부 제3세계 이사국은 서방 측이 설득력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서방 측 이사국들은 항로이탈이 고의적이 아니라는 점과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
-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ICAO 이사국 진출 작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

3. 외무부는 후속조치로서 피해자 소속국 간의 공동보조하에 배상을 포함한 소련의 책임을 계속 추궁하고,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금지와 관련 시카고협약 개정에 적극 참여키로 함.

4. 본 문서철 내 아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ICAO 제111차 이사회 심의 결과 및 결의안 채택 관련, 각국의 반응 및 국내외 주요 언론보도
- ICAO 제111차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안
- 결의안 채택 관련 각국의 표결 태도에 관한 외무부 분석 자료

IMO(국제해사기구) 기본문서, 1982-84

| 84-0738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1 / 1~361(361p)

본 문서철에는 IMO에서 발행한 다음과 같은 문서들과 관련 현황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 IMO 분담금 납부관련 문서(1982.1.24.)
- IMO 재정규칙 개정(1981.8.10.) 및 투자결과에 관한 보고(1982.5.4.)
- IMO 재정관련 규정 및 규칙(1977.11.17. 현재)
- IMO 직원 복무관련 규정 및 규칙(1980.6월 현재)
- IMO 설립에 관한 IMO와 영국정부 간 양해각서
  - IMO 상주대표의 특권면제 추가
  - IMO 상주대표 및 직원 임명절차와 관련 영국 정부와 상호 협의
-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헌장 개정 결의문(1977.11.17./1975.11.14.)
  - IMCO는 IMO의 전신
- IMCO 개요 및 활동에 관한 책자(1971.5.31.)
  - IMCO 구조, 각종 위원회, 협정 및 권고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V.1 참가국별 교섭

| 84-07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2 / 1~352(352p)

1. 외무부는 1984.6.11.~15. 런던에서 개최되는 IMO(국제해사기구) 제52차 이사회 의제에 북한의 가입신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랑군 사건 시 북한이 상선을 테러행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 가입문제 토의를 연기시킨다는 목표를 정함.
   - ❁ 제50차 IMO 이사회(83.5월)에서는 토의시간 부족을 이유로 북한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를 제52차 이사회로 연기 결정

2. 외무부는 북한 가입문제 토의 연기에 대한 이사국들의 1차적 반응을 파악한바, 영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보편성 원칙 때문에 북한 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 ❁ 제50차 이사회에서 북한 가입안 토의를 1차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제52차 이사회에서 다시 토의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가입안 토의 연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많은 대표의 발언 확보가 중요한데 용이한 일이 아니라 판단
   - ❁ 북한의 IMO 가입은 북한대표부의 영국 진출과 직결되므로 가입 저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상황(영국 등 우방 이사국 입장)

3. 외무부는 IMO 주최국인 영국 및 미 · 일 등 이사국들과 이사회 대책을 협의, 북한 가입안 토의를 1985.11월 IMO 총회 시까지 연기시키는 데 주력하며, 토의 연기 목표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우편투표로 북한가입 신청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수립함.
   - ❁ 우편투표 추진 이유: 우편투표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실시되며, 다수의 기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기권은 사실상 반대로 간주된다는 점과 IMO 이사회 의장 등이 우편투표 방식이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을 감안

4. 이사회 개회에 앞서 개최된 우방국 전략회의(84.6.8. 런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한국과 라이베리아가 북한 가입문제 토의 연기를 제의하는 선두 발언
   - ❁ 제3세계 이사국 중에서 연기 동의를 하도록 추진하며, 우방국들이 후속 지지 발언
   - ❁ 85.11월 IMO 총회까지 연기가 어려울 경우 제53차 이사회(84년 가을)까지 연기한다는 제안을 검토

5. 북한은 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1984.5월 각국에 IMO 가입지지 요청 공한을 발송함. 한편, 이사국 간 비공식협의 시 소련은 북한가입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중국(구 중공)은 일본 측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할 것을 당부함.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V.2 결과보고

| 84-074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3 / 1~175(175p)

1. IMO(국제해사기구) 제52차 이사회가 1984.6.11.~15. 런던에서 개최되어 북한 가입문제가 6.13. 토의된바, 동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수석대표(강영훈 주영국대사)는 IMO 이사회가 북한의 가입자격에 관한 충분한 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북한 가입안 토의를 연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라이베리아가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여 85년 가을 IMO 총회 시까지 토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
  - 이어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 우방국들이 한국 측 제안에 동의
- 중국(구 중공)과 소련 등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북한의 IMO 가입이 정당하며,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의 가입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쿠바, 알제리, 이집트 등이 이에 동의
- 인도는 남북한이 이미 많은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하고 있으며, 북한의 IMO 가입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호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칠레는 보편성 원칙도 존중하지만, 결정은 consensus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때까지 토의를 연기할 것을 주장

2. 상기와 같이 토의 연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중요 문제가 투표로 결정되기보다는 consensus로 결정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던 만큼, 관련국과 의견을 조율하여 의장 조정안을 제시키로 함.

- IMO 법률고문은 토의시기 연기문제는 전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달려 있다는 의견 표명

3. 이사회 의장은 관련국과의 협의 후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함.

- 금일 토의 중 북한의 가입을 거부하는 제의는 없었으며, 북한의 가입신청 절차는 협약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제53차 이사회(84.11월)에는 8개 이사국이 신규 임명되는바, 신규 이사국에 대해 처음부터 부담되는 의제를 토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제53차 이사회에서는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주의만 환기시킨다는 의견
- 제54차 이사회(85.5~6월)에서 북한 가입문제를 토의하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며, 사무총장은 그 직후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문의

4. 이사회 의장 조정안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국이 없어, 제54차 이사회까지 토의를 1년간 연기하자는 의장 조정안이 consensus로 채택됨.

- 중국, 소련 등은 어느 국가도 북한의 가입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토의가 연기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토의기록에 남겨 주기를 요청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3차. London, 1984.11.12-16

| 84-07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4 / 1~71(71p)

1. 정부는 1984.11.12.~16. 런던에서 개최되는 IMO(국제해사기구) 제53차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대표단(옵서버)을 임명함.

- 대표단: 수석대표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 외 대표 3명
- 참가 목적
  - 제54차 이사회에서 토의될 예정인 북한의 IMO 가입신청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IMO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정보 수집
- 회의 의제
  - 북한의 가입 신청
  - 법률위원회 등 각 위원회 활동 보고
  - 본부 청사 실무작업반 보고서 검토
  - 1985년 예산 재편성 및 재정 문제
  - 사무총장과의 계약 갱신 등

2. 북한 가입신청 문제는 11.12. 개최된 회의에 상정된바, 이사회 의장이 동 문제는 제52차 이사회(84.6월) 결정에 따라 제54차 이사회(85.5~6월)에서 토의, 결정케 되었다고 보고한 후 추가적인 발언이나 토의 없이 종결됨(V.2 제3항 참조).

3. 기타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32개 이사국 및 한국 등 비이사국 옵서버 참가
- 해사 선취권 및 저당권 협약안 검토
- 세계해사대학 재정지원 권고 계속
- 유독물질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회의에서의 권고문제 검토
- 1985년도 국제해사일 주제로 Maritime Search and Rescue 채택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의 IMO 가입 신청 문서
- 제53차 이사회 잠정 의제
- 제53차 이사회 참가 보고서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1984

| 84-074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5 / 1~216(216p)

1. 제29차 선박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1984.1.16.~20.)

- 서재국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박남구 어선협회 회장 등 참가
- 토의 의제
  - RO/RO선을 포함한 모든 건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 복원성, 무손상 복원성, IMO협약의 시행과 해석 (1974년 SOLAS협약, 1966년 LL협약, 1966년 톤수협약, 1977년 어선안전협약)
  - 여객선 구획 및 손상복원성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험 검토

2. 제29차 화재보호 소위원회 회의(1984.2.6.~10.)

- 토의 의제
  - 해사안전위원회 결정사항, 비활성가스 체계에 관한 기준
  - 비활성가스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유류탱커에 대한 적용 기준
  - 화재사고기록 분석, 화재점검 절차

3. 제25차 컨테이너 및 화물 소위원회 회의(1984.2.13.~17.)

- 서재국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등 2명 참석
- 토의 의제
  - 컨테이너 안전협약, 화물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훈련에 관한 IMO/ILO 지침서 개선, 고체 산적 화물의 안전 규범화물 · 단위화물 및 차량의 안전 적재 및 구속

4. 제27차 선박 설계 및 의장 소위원회 회의(1984.2.27.~3.2.)

- 신호철 한국선급협회 런던소장 참석
- 토의 의제
  - 기관 및 전기설비 요건, 선박의 기동 특성, 잠수장치, 이동식 해저시추선 규범 검토
  - 모든 선박을 위한 헬리콥터 설비

5. 제13차 선적화학물 소위원회 회의(1984.6.4.~8.)

- 토의 의제
  - 신규 화공품의 안전 위험도 평가, 73/78 MARPOL 물질 목록 현실화
  - 유해 액체물질 배출 설비기준, 해상 투기를 위하여 수송되는 위험 폐기물 취급 안전

6. 제36차 위험화물 운송 소위원회 회의(1984.6.25.~29.)

- 서재국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등 2명 참석
- 토의 의제
  - IMDG 규범 검토 및 개정

7. 제17차 선원훈련 및 당직 기준에 관한 소위원회 회의(1984.7.9.~13.)

- 서재국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등 2명 참석
- 토의 의제
  - 1978 훈련 · 당직 협약 시행, 해상 조난 및 안전시스템상 통신사의 직능

IMO(국제해사기구) 위원회 회의. London, 1984

| 84-074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6 / 1~60(60p)

1. 제2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1984.9.3.~7.)

- 서재국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등 2명 참석
- 토의 의제
  -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 채택 현황 검토
  - 73/78 MARPOL협약(부속서 개정 검토, 협약의 통일 해석)
  - 강제보고 시스템 및 보고 양식, 검사 및 증명 조화 시스템

2. 제52차 법률위원회 회의(1984.9.10.~14.)

- 서재국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참석
- 토의 의제
  - 구난문제 검토(해상 구난 및 원조에 관한 1910협약 개정/구조작업 시행, 구조자 권한 및 책임, 청구 및 소송)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49-50차. London, 1984

| 84-074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7 / 1~241(241p)

1. 제49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1984.4.2.~6. 런던)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외 대표 4명

❁ 정부 훈령

-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며, 국제동향과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해운정책 수립에 기여
- 세계 주요 해운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해운 및 조선 분야 발전상을 소개
- 구체적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세부 훈령에 따라 대처

❁ 회의 결과(주요 결정사항)

- 각 소위원회의 작업계획 검토 및 승인, 소위원회 재편성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검토
- SOLAS협약에 기재된 톤수 파라미터 대체를 위한 작업그룹 보고서에 유의
- 제9차 MSC/MEPC 합동 작업그룹에서 작성한 보고서 검토

❁ 대표단은 IMO가 중대해난으로 분류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적기 IMO에 제출할 것을 건의

2. 제50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1984.11.19.~30. 런던)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김종길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외 대표 5명

❁ 정부 훈령

- 해상안전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정책 수립에 기여
- IMO 사무총장 방한, 세계해사대학에 대한 지원, 연수생 파견 및 아태지역 세미나 개최 등 IMO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지원에 대해 홍보
- 북한의 IMO 가입 신청과 관련, 회원국들의 동향을 관찰
- 구체적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세부 훈령에 따라 대처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추진, 1981-84

| 84-0745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8 / 1~251(251p)

북한은 1981년 이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을 추진해 오면서, 1983.4.14. IMO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제50차 이사회(83.4월) 및 제52차 이사회(84.6월)에 의해 2차례 토의가 연기됨.

1. 1981~82년

- 영국 외무성은 81.6월 북한이 IMCO(국제해사자문기구, IMO의 전신) 가입을 신청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영국 내 상주대표부 개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북한대표부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
  - 정부는 6.23선언에 따라 북한 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나, 가입 후 북한이 영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비, 북한 가입문제 토의를 지연시킨다는 대책을 수립
- 영국 외무성은 81.6.9. 북한 외교부 직원 2명이 IMCO 방문 명목으로 영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여 부여하였으며, 이들의 방문 목적은 제46차 IMCO 이사회(81.6.15.~19.)에 북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영국대사관에 통보
  - 한국 측은 IMCO가 북한 요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영국 측에 비자발급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영국의 비자 발급 취소에 따라 이들의 입국은 좌절
  - 결과적으로 제46차 IMCO 이사회에 북한의 가입 신청 불가
- IMCO 이사회는 81.6.17. 소련이 제안한 IMCO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안을 승인
  - 소련 등은 그간 IMCO 상주대표부 설치안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영국에 상주 공관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별도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표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고 미국 등은 입장 유보

2. 1983년

- 주영국대사관은 83.1월 북한이 IMO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IMO 가입 추진 움직임이 있으므로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
- 이와 관련, 외무부는 북한의 국제기구대표부가 고유기능 이외의 정치활동을 한 사례를 조사
- 북한은 83.4.14. IMO 가입을 신청하고 제50차 이사회(83.4월)는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토의를 제52차 이사회(84.6월)까지 연기키로 결정(상세는 제50차 IMO 이사회 문서철 참조)

3. 1984년

- 제52차 이사회는, 제50차 이사회에 이어 북한 가입안 토의를 제54차 이사회(85.5~6월)까지 1년간 연기하자는 의장 조정안을 consensus로 채택(상세는 제52차 IMO 이사회 문서철 참조)

중공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입, 1983-84

| 84-074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9 / 1~28(28p)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H. Blix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중국(구 중공) 초청에 따라 1983.8.10.~19. 중국을 방문하며, 동 방문 시 중국의 IAEA 가입 문제가 협의될 전망이라고 1983.7.21. 외무부에 보고함.

- IAEA 이사회는 1971.12월 중국 정부를 IAEA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구 자유중국)대표의 축출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 중국은 대만이 축출된 이후에도 13년간 IAEA에 가입하지 않았는바, 대만 정부의 IAEA 규정에 대한 서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2. 주캐나다대사관은 주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IAEA 가입 및 핵확산방지협정 서명을 거부해 온 중국이 IAEA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20세기 말까지 1,500만 KW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 중국이 남아프리카 및 파키스탄에 농축우라늄을 선적했다는 보도 관련 대외 이미지 악화 방지
- IAEA와 대만 간 협조체제 제거를 위한 수단

3. 중국은 1983.9.5. IAEA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983.10월 IAEA 이사회 및 총회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함.

- 중국은 IAEA 규정 수탁국인 미국에 규정 가입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84.1.1. IAEA 회원국 자격을 취득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8차. Vienna, 1984.9.24-28

| 84-074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10 / 1~270(270p)

1. 정부는 1984.9.24.~28.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28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 교체수석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 외 외무부 및 과학기술처 대표 9명

❋ 정부 훈령

- 향후 한국의 IAEA 고위직 및 사무국 직원 진출을 염두에 두고 IAEA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북한 및 동조국가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 등 정치적 책동이 있을 경우, 한국 비난 발언을 봉쇄 또는 논박
- 세부 훈령: 자발적 기여금 2,600만 달러의 0.18%인 46,800달러 분담을 서약, 이사회 구성 변경에 관한 헌장 개정에 찬성, 남아프리카에 대한 핵물질 및 핵기술 이전 금지조치에 찬성, 이라크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공격 관련 국제기구의 제재에 찬성, 개발도상국 출신의 IAEA사무국 진출 확대 찬성

2. 동 총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라크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공격 관련 제재문제

-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 제재 결의안 제출
- 미국은 이스라엘 제재 시 IAEA 활동을 중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제재에 반대
- 아랍국가들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충분한 지지 확보를 위하여 결의안 내용을 대폭 완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절충안 채택(동 절충안은 찬성 53, 반대 17, 기권 23으로 채택)
- 미국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한국 대표단에 반대 또는 기권을 요청하였으나, 대표단은 아랍·아프리카 국가들의 강경한 이스라엘 제재 입장 및 절충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절충안에 찬성

❋ 남아공 핵능력 문제

- 남아공에 대한 핵시설 및 기술이전 금지 등을 규정한 아프리카그룹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 1983년 가입한 중국(구 중공)을 원자력 선진이사국으로 선정

❋ 북한은 기조연설 시 예년과 달리 남한 내 핵무기 철수 및 동북아 비핵지대 설치 등 한반도 관련 언급을 자제 또는 완화

3. 한국 측 수석대표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원자력 효율증대,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검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985.5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태평양연안 원자력회의(PBNC)에 많은 국가들의 참석을 요청함.

- 또한, 총회 참석기간 중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및 오스트리아 과학성장관과 면담하여 양국 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타 회의. Vienna (오스트리아), 1984

| 84-07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11 / 1~67(67p)

1. IAEA(국제원자력기구) 1984.2월 이사회 회의록 자료(GOV/OR.617)

- 토의 의제
  - 안전규정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재정문제, 헌장 조항 일부 개정

2. 제11차 공급보장위원회(CAS) 회의(1984.3.14.~15.)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조창범 참사관 참석
- 회의 결과
  - 그룹 간 순환제 원칙에 따라 77그룹 단일후보로 이집트 대표를 84년 의장으로 선출
  - 핵 비확산 및 공급 보장의 개념에 대한 토의
  - 핵물질 및 장비의 국제적 수송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추진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능력에 관한 IAEA 총회 결의안(GC27/RES/408) 관련, 결의안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1984.5.30.)

4. IAEA 1984.6.6. 이사회 회의

- 이란 Bushehr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군사공격과 관련한 이란의 제안이 타 이사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의제에서 제외

5. 제12차 공급보장위원회(CAS) 회의(1984.7월)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을 고려하여 동 회의에 대표단 참석을 건의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 지역회의, 제8차. Geneva(스위스), 1984.11.5-16

| 84-074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12 / 1~100(100p)

1. 주한 이라크총영사관은 외무부에 WMO(세계기상기구) 제8차 아시아지역회의(84.11월 테헤란 개최예정) 개최지 변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라크는 개최지 변경을 이미 WMO 측에 요청하였다고 언급함.

❋ 외무부는 개최지 변경문제에 대한 WMO 측의 입장을 파악한바, WMO 측은 여러 나라로부터 회의가 테헤란에서 개최될 경우 참가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 회의를 84.11월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다고 통보

2. 정부는 WMO 제8차 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정부대표

- 정을영 중앙기상대 물리부기감

❋ 정부 훈령

- 기상 분야에 관한 각국의 정책관계 자료를 수집, 한국의 기상정책 개발에 활용
- 북한 및 동조국가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 등 정치적 책동이 있을 경우, 한국 비난 발언을 봉쇄 또는 논박
- 세부훈령: 관측체제 관련 한국의 활동사항과 협력계획 홍보, 세계기상센터(WMC) 및 지역기상센터(RMC)와의 계속적 협력체제 유지의사 표명, 한국의 지역기상통신 개선현황 홍보, 기상예보의 공동연구 개발계획 적극 지지, 자연대기 오염 관측범위를 넓힐 것을 주장

3.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측체제

- 아시아지역 내의 기본관측망 확충, 지원관측선 보완, 지상기후 관측소의 조정, 측기비교검정, 위성관측체제 등에 관해 토의

❋ 자료처리체제

- 세계기상센터와 지역기상센터에서 처리한 기상정보의 이용과 배포문제에 대해 토의
- 한국 대표는 아시아지역센터와의 계속적 협조체제 유지 강조

❋ 통신체제

- 아시아지역 내의 통신체제 개선에 관해 토의
- 한국 대표는 지역통신센터인 서울과 도쿄 간 전용회선 고속화에 대해 홍보

❋ 환경오염 감시연구

- 아시아지역 내 자연대기 오염감시 계획에 관한 개선방안 토의
- 한국 대표는 1986년까지 대전측후소에 대기오염 관측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Geneva, 1984

| 84-075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13 / 1~148(148p)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제7차 수문학전문위원회 회의(1984.8.27.~9.7. 제네바)

- ❁ 정부대표: 김영환 건설부 하천계획과장 외 고문 2명
- ❁ 정부 훈령
  - 선진국의 최신 수문운영계획기법을 도입하여 한국의 수자원개발 및 정책수립에 활용
  - 수문학 운영계획, 수문학 및 수자원 분야에 관한 각국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정책수립에 기여
  - 북한 및 동조국가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 등 정치적 책동이 있을 경우, 순수과학기술회의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부당함을 지적하여 발언을 봉쇄 또는 논박
- ❁ 토의 의제
  - 수문학 표준화 및 규정, 수문자료 수집 시스템, 수문자료 처리 · 보관 · 보정 및 배분 방법, 수문분석 · 모형화 및 예보방법

2. 제9차 해양기상전문위원회 회의(1984.10.1.~12. 제네바)

- ❁ 정부대표 이지용 중앙관상대 관측국장
- ❁ 정부 훈령
  - 해양기상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정책개발에 활용
- ❁ 주요 회의 결과
  - 해양기상지원: 해양기상정보의 배포 등에 관한 결의안 채택
  - 해양관측과 자료수집: 해양관측 방법과 측기, 파도계획(Wave Program), 자료전송과 수집을 위한 해양통신망 등에 관해 토의
  - 해양기후학: 자료교환에 관한 국제해양기상 천공카드(IMMPC)와 국제해양기상테이프(IMMT) 형식상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권고안 채택
- ❁ 정부대표 건의사항
  - 해양기상지원의 개념을 연근해 어로 및 해상 교통에 관한 지원 체제에서 인접국과의 해상 교역과 자원 개발에 연관된 해상기상지원이라는 정책방향으로 전환 필요
  - 연근해 예보지원에 있어 해양실측자료에 근거한 기상정보 생산체제 확립 필요
  - 해상관측체제 확충은 원격탐사(기상위성 등의 활용)를 중점 개발과제로 추진 필요

Obasi, Godwin O. P. WMO(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북한 방문, 1984.10.22-26

| 84-075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14 / 1~13(13p)

1. 주제네바대사는 1984.1.23. G. Obasi 신임 WMO(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WMO와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동 사무총장의 극동지역 방문 계획을 문의함.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중국(구 중공)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북한으로부터도 방문 초청을 받았으나 방문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2. Rajendram WMO 아 · 태지역국장은 주제네바대사의 1984.8.22. 오찬 초청 면담 시 Obasi 사무총장이 모스크바 경유 1984.10.22.~28. 방북 예정이며, 방북 후 일본과 필리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아 · 태지역국장은 사무총장의 3국 방문 시 수행

3. 주제네바대사는 방북을 앞둔 Obasi 사무총장을 1984.10.11. 만찬에 초청,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 남북한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기본 입장, 북한의 고려연방제 안의 허구성 등 최근 남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함. Obasi 사무총장은 방북 시 WMO 사무총장으로서 균형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남북한 간 기상자료의 직접 교환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시 김일성 주석에게 줄 선물 지참을 권유 받았다고 밝힘.

❋ 주제네바대사는 Obasi 사무총장이 1985.2월 북경 개최 WMO 집행이사회에 참석 후 동북아시아 국가를 순방할 계획이므로 동 계기 사무총장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

4. 주제네바대사는 1984.11.19. 사무총장을 수행하여 방북한 WMO 아 · 태지역국장으로부터 사무총장의 방북 결과에 대해 청취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북 전체일정은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대체로 각 행사 개시 2시간 전쯤 통보

❋ 김일성 주석은 면담치 못하였으며 박성철 부주석, 공진태 부총리 등을 면담

- 이들은 주로 통일문제와 관련 3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침 의사가 없으며, 남한 당국과 주한미군이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 방북 중 WMO와 북한 기상당국 간 협력사업에 관한 협의는 없었으며, UNDP를 통한 50만 달러 상당의 현대화된 기상장비 지원도 현재로서는 난망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19-120차. Paris, 1984

| 84-075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4 / 15 / 1~134(134p)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의 회의 개최 상황은 다음과 같음.

1. 제119차 집행위원회(1984.5.9.~24. 파리)

- 정부대표(옵서버):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 및 오상식 서기관
- 동 회의는 83.12월 미국의 UNESCO 탈퇴 결정 및 84.4월 영국의 UNESCO 개선 요구 이후 처음 개최되는 집행이사회여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됨.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유네스코 기능개선, 예산집행 명료화 및 사무국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M'Bow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무국 개편안을 지지
-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문제
  -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문제를 자신이 주도하여 의제로 상정하였다고 언급
  - 대부분의 국가들은 탈퇴문제가 주권국가의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네스코 창설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해 온 미국의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이 보편성 원칙에 따라 탈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
  - 미국대표는 유네스코가 관료주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 결정 방식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유네스코는 정치문제보다는 창설이념에 따라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고유 목적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
  - 소련대표는 유네스코가 비효율적이며 정치화되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의 조치는 유엔체제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주장
  - 77그룹은 미국이 탈퇴결정을 재고하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이 결의안에 구체적 개혁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채택(찬성 32, 반대 6, 기권 2)
- 영국의 유네스코 개선 요구
  - 대다수 이사국들이 유네스코 기능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
  - 77그룹과 서방제국은 유네스코 기능개선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채택

2. 제120차 집행위원회(1984.9.26.~10.22. 파리)

- 정부대표(옵서버):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 및 오상식 서기관
- 제119차 회의에 이어 미국 탈퇴문제 및 유네스코 개선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제119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네스코 기능개선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작업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

❁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문제

- 미국대표는 미국이 탈퇴결정을 재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마지막 참가회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사무총장 개혁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
- 집행이사회는 미국의 탈퇴에 따른 영향을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회원국 탈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는 기구의 사업규모 축소로 상쇄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 한국 정부대표는 미국이 1984년 말 탈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동구권 및 비동맹권과 연대하여 유네스코를 정치화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평가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8차. Manila(필리핀) 1984.11.29-12.4

| 84-075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 / 1~292(292p)

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위원회는 동 위원회 창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UNESCO 제8차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의 서울 개최를 추진키로 하고, 1983.6월 회의유치 신청서를 UNESCO 사무국에 제출함.

- 한편, UNESCO 제22차 총회(83.10.25.~11.26.) 기간 중인 11.5. 방글라데시가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북한도 한국의 유치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11.8. 유치 신청서를 제출

2. 제22차 UNESCO 총회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 · 태지역 국내위원회 비공식회의(31개 국내위원회 대표 참석)에서 방글라데시가 한국 측 요청을 받아들여 11.8. 유치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유치신청국이 한국과 북한으로 좁혀짐.

- 비공식회의에서 다수 국가들이 한국 개최 지지 발언을 하였으나, 북한(김충일 외교부 부부장 참석)을 비롯하여 소련, 중국(구 중공),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등 8개 사회주의 국가와 이란이 한국 개최를 반대함에 따라, 결국 비공식회의는 방글라데시에 대해 유치신청 철회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
- 방글라데시는 유치신청 철회를 재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83.12.31.까지 제3국의 추가 유치 신청을 접수한 후 84.1월경 회의 개최 준비위원회가 방콕에서 개최지 문제를 재논의 결정

3. 1984.3월 UNESCO 사무국은 회의 개최 준비위원회가 제8차 회의 장소로 필리핀을 선정하였고, 회의는 10월경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옴.

4. 최종적으로 제8차 아 · 태지역 국내위원회 회의는 1984.11.29.~12.4. 마닐라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에는 조성옥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 59개 항목에 달하는 최종보고서 안을 토론, 협의, 수정을 거쳐 컨센서스로 채택
- 회의 도중 한국의 사례와 경험 등이 빈번하게 인용, 거론
- 북한대표단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선전, 선동 발언을 지양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북한대표부 동향, 1983-84

| 84-075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2 / 1~100(100p)

1. 주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북한대표부는 1983.2.2. UNESCO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하여 팀 스피리트 83훈련을 비방하는 한편, UNESCO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적 군사훈련을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주유엔대사로 하여금 정부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허위선전을 반박하는 서한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북한에 대한 외국어연구소 지원을 위하여 1982년경 북한을 방문한 UNESCO 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한 동인의 북한 방문 소감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북한의 어학시설 완비에 놀랐으며, 대학생 교과과정의 절반이 외국어 학습에 치중
   - ❋ 국립도서관에 UNESCO 자료실이 3개였으며, UNESCO가 발행한 각종 간행물이 구비

3. UNESCO는 1984.4월 UNDP 자금 30만 달러를 활용하여 북한의 국립자료센터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동 사업은 각종 문헌 및 문서관리 프로그램, 인쇄물의 분류 · 정리 · 보관 등에 관한 것임.

4. 북한은 1984.9.18.~27. UNESCO 본부에서 북한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함.
   - ❋ 행사 내용은 민속 · 고구려 벽화 · 고화 · 자수 등 전시, 춘향전, 묘향산 위의 상봉 등 영화 상영, 고구려인의 투혼에 관한 회의 개최를 병행하고 상당수의 전시품은 행사 후 매각되어 매각대금은 UNESCO와의 공동사업에 사용
   - ❋ 동 행사장은 300~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관객은 일일 평균 30~40명 정도였으며, 그나마 외국인은 5~10명에 불과하여 UNESCO 사무국 직원 및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동 행사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

5. 손성필 북한 인민회의 부의장이 프랑스를 방문(84.10.8.~15.)하여 Perrein 상원부의장 주최 만찬 참석 및 Pontoise 지방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BE (국제교육국) 회의, 제39차. Geneva(스위스) 1984.10.16-25. 전2권. V.1 기본문서

| 84-075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3 / 1~172(172p)

1. 정부는 1984.10.16.~25.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BE(국제교육국) 제39차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으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수석대표) 외 박봉식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7명을 임명함.

2. 한국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주요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 훈령

- 교육 분야의 국제적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한국의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
- 북한 적십자사의 수재의연품 제공 제의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한국 측이 북한 제의를 수락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

❁ 세부 훈령

- 만인을 위한 교육 의제와 관련,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기회 보편화 추진에 대해 설명
- 교육발전의 주요 동향 관련, 평생교육의 헌법적 권리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9개년 의무교육 등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설명
- 특별주제인 초등교육 보편화와 쇄신 관련 권고가 채택될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

3. 한국 대표단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의제

- 신과학기술 환경에 처한 교육의 제문제
- 1981~83년간 주요 교육동향

❁ 제1분과위는 교육재원의 배분문제 및 정규, 비정규 교육의 상대적 중요성과 보완성에 관해 토의

❁ 제2분과위는 특별주제와 관련 회원국 문교부에 대한 권고안을 심의하였으며, 초등교육의 보편화 및 재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

❁ 총회 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3세계 여성 교육학자들이 총회 의장, 부의장 및 보고관으로 선출되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과시함으로써 평등과 사회정의를 실천하였다고 강조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로는 IBE 사무국 작성 회의 결과 잠정 보고서가 포함됨.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BE (국제교육국) 회의, 제39차. Geneva(스위스) 1984.10.16-25. 전2권. V.2 자료

| 84-07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4 / 1~266(p)

본 문서철에는 1984.10.16.~25. 제네바에서 개최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BE (국제교육국) 제39차 총회 관련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회의 개최 안내서

2. 잠정 의제별 배경 설명문서

-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과 불이익 집단을 고려한 만인을 위한 교육의 과제
- 1981~83년 기간 중 주요 교육 동향
- 특별의제 관련 회원국 문교부에 대한 권고안 초안
- 특별의제 토의와 관련한 국제교원연맹의 기여

3. 한국 수석대표(박쌍용 주제네바대사)의 연설문 요지

- 1981~83년 한국의 교육정책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외래 문물의 무차별 수입으로 인한 교육적 가치관 훼손 시정에 치중
- 1980년대 한국의 교육혁신은 전인교육 및 정신교육의 2대 이념과 과학교육 및 평생교육의 2개 원리 등 4대 원칙에 의해 추진
- 각국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UNESCO의 노력이 필요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CPES (체육및스포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4차. Paris, 1984.10.9-16

| 84-07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5 / 1~307(307p)

1. 정부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CPES(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 제4차 회의에 김승호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 오지철 체육부 해외협력 담당관 등 3명을 대표로 임명함.

2. 한국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주요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 훈령

- 회의 참가 시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반영시켜 체육 및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노력을 경주
- 한국의 체육 및 스포츠 분야 현황을 소개하여 ICPES에서의 활동기반을 조성

❁ 세부 훈령

- 198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체육 및 스포츠 지도자 훈련 세미나 한국개최를 홍보
- 국제체육 및 스포츠 개발기금 확대와 관련 한국 정부가 1984년도에 1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임을 발표
- 제2차 세계체육 및 스포츠 장관 회의 개최에 찬성하고, 동 회의의 국내유치 가능성을 타진

3. 한국 대표단이 외무부에 보고한 동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2차 세계체육장관회의 개최 결의안 관련, 미국 등 서방제국은 회의 개최로 인한 재정문제 등을 들어 당분간 회의 개최가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동구권 및 개도국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한국은 기권)

❁ 한국 대표단은 제5차 ICPES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미국, 소련 등이 ICPES 회의를 UNESCO 본부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 추가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본부 개최를 주장함에 따라 제5차 회의 장소는 사무국에서 추후 결정키로 합의

❁ UNESCO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한국이 UNESCO 회원국 중 국제체육진흥기금(FIDEPS)에 계속적인 기부를 약속한 유일한 나라라고 소개

❁ 한국 대표단은 제5차 ICPES 회의와 제2차 세계체육장관 회의의 동시 유치문제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86년 아시아경기대회에 UNESCO 사무총장을 초청할 것을 건의

❁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이 유네스코 가입 이래 최초로 제1분과 위원회 부의장에 피선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 (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5차. Paris, 1984.5.3-9

| 84-075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6 / 1~21(21p)

1. 파리에서 1984.5.3.~9. 개최되는 UNESCO/IPDC(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과 오상식 서기관이 옵서버로 참석함.

2. 동 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제4차 회의(1983.9월, 타시켄트) 이후의 활동경과 보고
- 자발적 기여금 공표
- 정보 및 통신개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설치 문제
- 1984~85년 예산 심의

3. 동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등이 IPDC 특별계정에 매년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키로 결정
- 각국이 자발적 기여금을 서약(캐나다 1,000달러 상당 양자협력, 일본 특별계정에 30만 달러 기탁, 독일 신용계정에 150만 마르크 기여, 미국, 소련도 개별사업 추진의사 표명)
- 각국의 통신기술 분야 발전단계가 상이하므로 정보수집의 어려움, 데이터의 효율적 이용 및 예산문제 등에 대해 검토 추진
- 사무국이 작성한 총 2,168천 달러의 1984~85년도 예산안을 수정 없이 채택

4. 한국 대표단은 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

- 한국 정부의 개도국 통신분야 연수생 초청 및 이를 위한 IPDC 기금 기여사실이 회의에서 수차례 언급됨으로써 IPDC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널리 홍보
- 한국의 TV, Radio 방송분야 훈련실시가 회원국의 호응을 받은 만큼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이 차기 IPDC 위원국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협력사업 평가회의. Pattaya(태국) 1984.6.25-28

| 84-075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7 / 1~123(123p)

1. 정부는 1984.6.25.~28. Pattaya(태국)에서 개최되는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아 · 태지역 개발협력사업 평가회의 대표를 다음과 같이 임명함.

- 정부대표
  - 최태창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
- 참가 목적
  - 1982~84년 아태지역 공업소유권제도 확립을 위한 WIPO 사업의 평가
  - 1985~86년 역내 개도국에 대한 공업소유권 분야 협력사업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 공업소유권 분야 행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교환

2. 한국 대표에 대한 정부의 주요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85~86 기간 중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맞추어 공업소유권 분야에 대한 WIPO 개발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사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한국 정부가 계획 중인 제2단계 공업소유권제도 현대화 사업이 1985년 이후의 WIPO/UNDP 지역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한국의 공업소유권제도 발전 현황을 소개

3. 한국 대표가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WIPO는 역내에 지역사업소를 설립하여 본사업의 효과를 높이기로 결정
- 공업소유권 신규 채용자 및 전산화 요원 등에 대한 역내 개도국 또는 선진국 특허청에서의 훈련을 위한 3~5년 훈련계획 수립에 대해 검토
- 역내 보건, 농업 및 개도국 발전에 공헌하는 발명에 대한 시상을 장려
- 특허문헌의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특허정보 체제를 강화

4. 한국 대표는 역내 개도국 중에서 한국이 공업소유권 제도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 공업소유권 전문가가 역내에 파견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파견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건의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제9차. Geneva, 1984.9.18-21

| 84-07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8 / 1~189(189p)

1. 정부는 1984.9.18.~2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개발협력상설위원회 (Permanent Committee for Dev't Cooperation) 제9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홍성좌 특허청장 외 2명
- 파견 목적
  - 한국 공업소유권제도 개선과 기술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협의
  - 특허청 2단계 현대화사업(85~91년) 수립에 따른 WIPO 지원문제 협의

2. 한국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은 다음과 같음.

- 기본 훈령
  - 공업소유권제도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제도 개선에 활용
- 세부 훈령
  - WIPO 개발협력 사업이 개도국의 공소권제도 및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 WIPO 중기사업계획의 기본 지침과 방향을 지지하고, 동 계획이 개별국가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되도록 요청
  - 개도국 간 협력증진 관련 한국의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전문가의 개도국 파견을 추진

3.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설위원회 활동 검토 및 평가와 관련, 미국 · 일본 · 호주 등 선진국들은 WIPO 상설프로그램에 따른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지적소유권 분야에 대한 개도국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
  - 대다수 회원국들은 WIPO 상설프로그램이 공여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공여국과 수혜국 간 쌍방 협력인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
- 1985~91년 중기 계획 관련, 훈련 · 자문 · 특허인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 개도국 간 협력증진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적 경험 전수 간 보완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FAO(UN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86차. Rome, 1984.11.19-30

| 84-07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9 / 1~69(69p)

1. 1984.11.19.~30. 로마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86차 이사회에 신구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옵서버로 참석함.

2. 동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계 식량 및 농업 현황
- 1970년대 초 식량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제 현황 분석
- 개도국의 재원부족 및 개도국에 대한 농업개발 지원 감소 등 개도국 농업발전에 대한 우려 표명
- 개도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보호조치 해제 촉구

❁ 제9차 세계식량이사회(WFC) 보고서 토의
- 식량안보 개념에 관한 FAO 사무총장의 제반 조치 지지
- 곡물 가격 및 비축에 관한 새로운 곡물협정 체결 필요성 촉구
- 다수 개도국의 식량안보 비축제도 설치 환영

❁ 제7차 산림위원회 보고서 토의
- FAO가 주도적으로 산림자원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 1985년을 국제 산림의 해 선언

❁ 니제르 대통령 및 이탈리아 수상이 특별연설을 시행

❁ 솔로몬군도가 FAO 가입을 신청하여 차기 총회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

FAO(UN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17차. Islamabad(파키스탄) 1984.4.24-5.3

| 84-076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0 / 1~183(183p)

1. 주파키스탄대사관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7차 아 · 태지역 총회가 한국과 파키스탄 간 수교 직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것이므로 양국 관계 긴밀화 및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각료급 수석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유종탁 농수산부 차관보 외 외무부, 농수산부 대표 등 6명

❁ 기본 훈령

- 식량증산, 농촌개발, 소농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
-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자체적인 식량증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성과와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북한 또는 그 동조국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정치적 비방 등이 있을 경우 한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반박

❁ 세부 훈령

-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훈련 분야에서 후발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의사를 표명
-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가락동 도매시장을 FAO 역내 유통훈련소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FAO와 역내국가 간 협력체로서 아태지역 식량안보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

3. 동 회의는 의제별 각국 입장을 청취하고, 특별한 결정사항 없이 폐회되었으며, 농업경영위원회는 일부 국가의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기로 함.

4. 북한 측에서는 전영진 순회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북한에 대한 FAO의 자문과 훈련확대를 요청함.

5. 한국 대표단은 회의 참석 기간 중 휴식시간 및 공식만찬 계기에 북한대표단과 비공식 접촉한바, 북한 측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함. 한국 측은 북한 측과 랑군 사건, 남북대화, 88 서울올림픽, 최은희 부부 납치, 대한항공기 사건 등과 농산물 작황 등 경제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교환하였으나 북한 측은 종전의 공식입장을 반복 (본 문서철에는 9회에 걸친 양측 간 상세 대화기록이 수록되어 있음)

6. FAO 77그룹은 FAO 총회 시 77그룹 의장의 일부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1991년까지의 각 대륙 간 지역 순환 원칙을 정함.

FAO(UN식량농업기구) 수산업 경영 및 개발에 관한 세계대회. Rome, 1984.6.27-7.6

| 84-076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1 / 1~278(278p)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이 선진 수산국인 점을 고려, 1984.6.27.~7.6. 로마에서 개최되는 수산업 경영 및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에 고위직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바,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강영식 수산청장 외 외무부, 농수산부 대표 4명

❁ 파견 목적 및 기본 훈령

- 동 회의는 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선포 등 관할권 확대실시에 대처한 회의 참가국의 수산업 경영 및 개발 전략 등을 심의하는 FAO 사상 최대의 회의이므로, 회의 참가를 통하여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
-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개발에 관한 한국의 입장 반영
- 한국어선 출어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한 수산분야 국익 증진

❁ 세부 훈령

- 수석대표 연설시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한국의 수산업 발전상, 연근해 및 양식 어업 개발시책, 원양어업 정책 등에 대하여 강조
- 수산관리 및 개발에 대한 토의 시 한국 수산업의 GNP 기여도 및 단백질 공급 기여도, 대외기술공여를 통한 한국의 대개도국 수산진흥 기여 현황, 수산관리 및 개발투자 확대 등에 관해 홍보
- 수산관리 및 개발에 대한 계획은 기간이 장기적이고 소요경비 산정이 예시적이므로 경비 충당방법, 사업 집행을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의 확보 등 세부항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한국의 입장 표명

2. 대표단은 회의 참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FA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의 기본방향은 연안국과 원양어업국 간 어업 조정문제, 개도국 수산개발 문제, 장래 수산업 종사자의 생활복지 증진과 관련한 수산개발 전략 및 동 전략 실천을 위한 5개 행동계획에 있다고 강조

❁ 수석대표는 한국의 수산개발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일본 · 튀니지 · 스리랑카 등은 새마을운동이 수산개발 및 어민소득 증대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관심을 표명

❁ 북한대표는 북한이 수산자원개발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고, 어업협동조합 등에 새로운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재정 및 정책지원을 해 왔다고 소개

❁ 회의는 FAO가 제안한 수산개발전략 및 5개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9개 결의안을 채택

- 9개 결의안: 수산업 경영 및 개발 전략, 행동계획, 후속조치, 재정지원 등

3. 멕시코와 케냐는 각각 회의 의장직에 입후보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온바, 한국 측은 한국의 출어국인 멕시코 후보를 지지키로 하였으며, 대표단은 멕시코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 회의. Rome, 1984

| 84-076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2 / 1~167(167p)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의 정부 간 연구단 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제18차 유실유지연구단 회의(1984.2.20.~24.)

- 김광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참석
- 회의 개최 결과
  - 84년도 유실·유지(oilseeds, oils and fats) 수급은 전년대비 떨어질 전망이며, 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
  - EC가 식용유 소비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식용유 수출국은 소비세 부과가 일종의 무역 제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EC의 재검토를 요구
  - 연구단은 1980년 채택된 식용유지 부문 국제협력 행동지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UNCTAD Common Fund 설치협정 발효를 위한 미비준국의 관심 촉구

2. 제27차 미곡연구단 회의(1984.3.5.~9.)

- 수석대표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외 2명이 참석
- 정부 훈령
  - 미곡 주산국으로서의 한국 입장을 반영하고, 미곡의 세계적 수급 동향 및 각국 정책을 파악
  - 식량안보와 관련, 개도국의 식량 하부구조 구축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촉구
- 회의 개최 결과
  - 중국(구 중공), 세네갈 및 코트디부아르의 미곡정책에 관해 검토
  - 기초위원회 참석과 관련, 한국은 참석하고 북한은 불참의사를 표명

3. 제22차 곡물연구단 회의(1984.10.8.~12.)

- 김정호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참석(북한은 불참)
- 정부 훈령
  - 세계 곡물 공급 과잉문제와 관련, 개도국 수입국의 유효 수요증가를 지원하는 적극적 대처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
  - 저소득 개도국의 생산 동요 방지를 위해 선진국이 저소득국의 재고비축과 수입능력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지
- 회의 개최 결과

- 연구단은 미국, EC의 주요 정책 변화가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제안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사료 이용 패턴 및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영향에 관해 토의
- 옥수수 생산 촉진을 위한 농가 지지 가격제 실시에 관해 토의

FAO(UN식량농업기구) / CFS(세계식량안보 위원회) 회의, 제9차. Rome, 1984.4.11-18

| 84-076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3 / 1~95(95p)

1. 정부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CFS(식량안보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김광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외 1명

❋ 기본 훈령

- 세계식량안보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지원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추진을 강조
- 식량비축 및 식량증산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세부 훈령

-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생산 부족 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식량원조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식량부족국의 자급능력을 배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FAO 사무총장의 제안(식량안보 개념 정립, 행동계획 수립 및 기금 설치 등)에 지지를 표명하고, 사무총장의 제안은 기존제도의 조정 보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
- 식량안보지원 계획 추진은 조기경보체제와 국가식량기관에 대한 자문 및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

2.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석자 현황

- 90개 회원국 및 17개 국제기구
- 북한은 FAO 상주대표 송호경 외 3명 참석

❋ 국가단위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국별 가격정책 및 식량비축에 대해 검토

❋ 구체적인 국제식량 비축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미국 등 식량생산 초과국에 대해 외국원조용 비상예비식량을 확보토록 권고

❋ 식량안보 관련 협력체제 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1985년 중 FAO 주관으로 워크숍을 개최키로 결정

❋ 미국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FAO가 세계식량안보헌장(안)을 차기 회의에 제출키로 결정

3.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의 특징은 세계식량안보에 대한 FAO의 업무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FAO가 기술뿐만 아니라 식량정책 면에서도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함.

FAO(UN식량농업기구) / 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7차. Rome, 1984.5.7-11

| 84-076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4 / 1~125(125p)

1. 정부는 1984.5.7.~11. 로마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제7차 식량안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강태홍 산림청차장 외 1명

❁ 기본 훈령

- 각국의 2,000년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산림시책 및 임업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정책에 반영
- 특히, 열대원목 생산국의 원목수출 및 개발전망에 관한 정책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장기적 자원확보 대책에 기여

❁ 세부 훈령

- 2,000년대의 산림 전망 관련, 한국의 기본입장은 산림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강조
- 열대목재는 인류공동 자산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농촌발전에 있어서 임업의 역할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한국의 산림시책을 소개
- UNDP 제3차 국가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업시험장의 용재생산을 위한 산림경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FAO의 지원을 요청

2. 대표단은 회의 참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참석자 현황

- 70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북한은 불참)

❁ 대표단은 한국 영일지구 사방사업 홍보필름을 상영하여 한국의 산림개발사업을 소개한바, 호주 등 각국 대표들이 관심을 표명하여 회의 종료 직전 다시 상영

❁ 열대임업개발과 관련, 대표단은 목재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조림 · 벌채 · 경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FAO의 기술지원 강화를 촉구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FAO 회의 정부대표단 구성과 관련, FAO 및 각국 대표단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대표단 구성 시 주이탈리아대사관 관계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FAO(UN식량농업기구) · 북한 관계, 1984

| 84-076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5 / 1~62(62p)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W. Chalmers 자문관은 북한의 목재산업 분야 현황 파악을 위해 1983.11월 북한을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북한 방문 보고서를 작성함.

- 방문지
  - 평양, 함흥, 길주, 혜산 내 제재소 및 가구 제작소
- 목재산업 실태
  - 12개의 중규모 공장 및 60여 개의 소규모 제재소 운영(산림부에서 관할)
  - 12개 공장: 연간 Swan Timber(650천㎥), Ply Wood(1만9천㎥), Particle Board(3만6천㎥), Fibre Board (8천 ㎥) 생산 추정
  - 60개 제재소: 연간 Swan Timber 75만 ㎥ 생산 추정
- 방문 소감
  - 제재소 시설 대부분이 노후하여 시설 개선 필요 (대부분 공장이 25~30년 전에 건설)
  - 북한은 FAO 기술원조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Chalmers 자문관을 통해 FAO 자금 지원을 요구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3년 말 기준 남 · 북한의 FAO 사업 관련 현황을 분야별로 비교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비교분야 : TCP사업, WFP사업, FAO/UNDP사업, FAO 투자센터를 통한 지원 등

3. 평양 주재 UNDP 대표가 1984.4.3.~4. FAO를 방문하여 북한 · FAO-UNDP 현안사업(옥수수 육종 및 종자 공급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논의함.

4.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북한에 대한 FAO-TCP사업(곡류 및 과실류 저장 가공)과 관련, 북한시찰단 8명이 1984.5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유고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주독일대사관은 북한시찰단이 독일의 곡류가공시설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5.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북한 FAO 사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기술지원 성격보다는 최신 기자재 원조를 희망하며, FAO/UNDP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
- 해외전문가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보다는 북한 전문가의 해외시찰에 중점을 두며, FAO 담당자에 의하면 북한은 자체 농업기술 수준을 과대평가한다고 전언



- FAO 사업 중 해외시찰 성격이 강한 TCP(기술협력사업)에 관심
- 종래의 간척, 육종사업 등 농업기반 및 종자개량 중심에서 저장 · 가공 · 화훼 · 화초분야 등 사업 내용이 다양화

FAO(UN식량농업기구) 아시아 · 태평양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4.7.26-8.1

| 84-076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5 / 16 / 1~59(59p)

1. 정부는 1984.7.26.~8.1. Jakarta(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아 · 태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박종수 농수산부 농수산통계관 외 3명

❋ 파견 목적

- 1986년도 제11차 회의의 한국 유치 교섭을 전개함 (1982년 제9차 회의에서 유치 의사 표명)
- 한국의 농업통계 발전상을 소개하고, 각국과 통계정보 교환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한국의 정책수립에 기여

2.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은 다음과 같음.

❋ 기본 훈령

- 한국 농업통계 현황을 설명하여 농업 통계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거양
- 북한의 참석 가능성에 유의하여 회의 참가활동 및 신변보장 등 제반 대책에 관해 현지 대사관과 협의

❋ 세부 훈령

- 아 · 태지역 식량 및 농업통계 현황과 관련, 한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농업통계에 관한 소개 자료도 별도 작성하여 배포
- 1990년도 세계농업센서스 실시계획 관련, 한국의 1980년도 센서스 실시 경험을 소개
- 농림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농가조사 방법의 활용과 관련,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기구, 인원 등)에 대해 설명

3.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가국: 15개국 및 12개 국제기구

- 회원국인 중국(구 중공) 및 비회원국인 북한 불참

❋ 1986년에 개최될 제11차 위원회는 서울에서 개최키로 만장일치로 결정

4. 본 문서철에는 한국이 FAO 재정지원으로 실시 예정인 마을단위 통계체제 개발연수(TCP/ROK)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FAO(UN식량농업기구) / APFC(아시아태평양 산림위원회) 회의, 제12차. Bangkok(태국) 1984.3.19-23

| 84-076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1 / 1~137(137p)

1. 정부는 1984.3.19.~23. 방콕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FC(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제출할 국별 보고서를 1984.2월 FAO 본부와 아 · 태지역사무소에 제출함.

2. 정부는 FAO/APFC 제12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한청수 산림청 기획관리관 외 임업시험장 대표 1명

❁ 파견 목적 및 기본 훈령

- 회의 참가국의 산림정책 및 추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
- 동남아 원목 도입 대상국들의 원목 수출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상호협력 가능성 파악을 통하여 장기적 자원 확보 대책을 강구

❁ 세부 훈령

- 농촌개발과 연계한 산림사업을 새마을사업 및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과 함께 소개
-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UNDP 임업연수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FAO의 지원을 요청
- 국제 임업기술 교류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FAO의 지원확대를 요청

3. 본 문서철에는 산림청이 작성한 Nat'l Progress Report on Forestry 1981~1983 등이 수록되어 있음.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제3차 어업통계 및 제7차 자원평가 실무반 회의. Santa Cruz de Tenerife(스페인) 1984.5.7-15

| 84-077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2 / 1~57(57p)

880

1. 정부는 1984.5.7.~15. Santa Cruz de Tenerife(스페인)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제3차 어업통계 실무반 회의 및 제7차 어족자원평가 실무반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를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정부대표

- 박재영 주라스팔마스 수산관

❋ 훈령

(제3차 어업통계 실무반 회의)

- 제2차 회의 권고사항과 관련, 1983년부터 수집 중에 있는 폐기량 자료가 축적되면 그 결과를 CECAF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임을 설명
- 라스팔마스기지 국제선단 조사와 관련, 1982/83년 CECAF 통계자료와 한국 정부 공식통계 간 어획량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CECAF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임을 설명
- 기타 사항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

(제7차 어족자원평가 실무반 회의)

- 1981~82 CECAF 해역 내 한국 조업선의 조업상태에 대한 국별 보고서를 CECAF 사무국에 제출하였음을 보고
- 한국 정부의 폐기량 조사결과를 1986년에 제출할 계획임을 설명
- 갑오징어의 생물학적 조사는 연안국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 기타 사항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한국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

2. 한국 대표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차 어업통계 실무반 회의

- 각 국별로 CECAF Project에 의한 어업통계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진전사항 보고
- CECAF의 새로운 통계구역에 관한 검토

❋ 제7차 어족자원평가 실무반 회의

- 국별 보고서 검토
- 지역별 주요 자원에 대한 평가
- 금후 활동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권고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 수산위원회) 회의, 제9차. Banjul(감비아), 1984.10.15-18

| 84-077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3 / 1~52(52p)

1. 정부는 1984.10.15.~18. Banjul(감비아)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를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정부대표단

- 김문경 주세네갈대사관 참사관, 이창기 수산청 제조과장

❁ 정부 훈령

- 자원관리 소위원회의 기능강화와 관련, 원양어업국인 한국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아프리카 연안국과 협조
- 어족 분포 · 회유 및 성장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동협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
- CECAF 회의 참가 관련, 비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회원 자격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가 유지되도록 노력
- 어족자원 관리문제는 우리의 CECAF 수역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 청훈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CECAF 통계구역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 의견을 FAO 사무총장의 의견조회 후 2개월 내 회신하도록 결정

❁ 비아프리카 연안국의 CECAF 회의 참가는 종전과 같이 회원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확인

❁ CECAF 사업자금 확보문제와 관련, FAO 측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

- 연안국 어업연수생 연 2~3명 초청, 라스팔마스에 한국생물통계 담당자 1명 상주, CECAF 사무국용 장비(자동차, 타자기, 사무용품 등) 지원

❁ 한국 대표단은 국별 어업활동 보고 시 CECAF 해역 내에서의 한국 어선의 조업 동태, 연구조사 현황 및 계획, 연안국 기술지원 현황을 발표

FAO(UN식량농업기구) / IPC(국제포플라 위원회) 회의, 제17차, Ottawa(캐나다), 1984.10.1-4

| 84-07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4 / 1~106(106p)

1. 정부는 1984.10.1.~4.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C(국제포플러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를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정부대표

- 현신규 산림청 임목 · 육종연구소 전문직(국제포플러위원회 집행위원)

❋ 정부 훈령

- 우리의 발전된 포플러 육종기술 및 재배에 관하여 홍보할 것
- IPC 회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시나무속(屬)의 명명 등록 기준형질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여, 동 결과가 실제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
- 포플러 및 버드나무의 조림, 벌채 및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 검토와 관련, 한국의 사례를 소개
- 집행위원에 재선되도록 노력

2. 동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포플러 및 버드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토의

- 정책 및 입법 분야의 주요 발전사항, 통계 및 경제성, 등록 및 통제, 보호, 바이오매스 생산체제 등

❋ 회의 주제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포플러 및 버드나무류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전망에 대해 토의

3. 정부는 현신규 대표를 국제포플러위원회 집행위원 후보로 재추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제17차 회의 직후 현신규 대표를 집행위원(Co-opted Member)으로 재선출함.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한국포플러위원회 작성 국가보고서 등이 있음.

FAO(UN식량농업기구) / 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 제21차. Kuala Lumpur(말레이지아) 1984.12.10-15

| 84-077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5 / 1~114(114p)

1. 정부는 1984.12.10.~15. Kuala Lumpur(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제21차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김시문 수산청 어업정책국장 등 3명

❁ 정부 훈령

- 인도 · 태평양 수역 조업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어선 입어 및 한국 정부의 어업협력 사업에 대한 협조를 유도
- 어족관련 자료의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유사한 자원 조사 작업에 계속 노력할 것임을 설명
- 국별 내수면자원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 활용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결과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일부 수산자원의 과도한 개발(새우류에 대한 우려), 소규모 어업 간의 마찰 및 균형개발 문제, IPTP(인도태평양참치개발관리계획) 수행에 대한 평가, 향후 참치자원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각국의 통계자료 협조 문제

❁ 유류이용 및 마케팅 문제와 관련 INFOFISH(기술정보)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과 IFC 기능에 내수면 개발을 포함하는 문제도 토의

❁ 대표단은 회의 참석기간 중 말레이시아 및 대만(구 자유중국)대표와 접촉, 정어리 통조림 · 한천 · 김 · 미역 등 한국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

❁ 또한 대표단은 한국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원조사활동의 강화, 국제회의 및 수산기구에의 적극 참여, 연안국과의 공동협력, 기술지원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업계현지조사 실시를 정부에 건의

3.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PFC) 제21차 회의 참가보고서(수산청) 등이 있음.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8차. Paris, 1984.10.22-26

| 84-07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6 / 1~227(227p)

1. 정부는 1984.10.22.~26. 파리에서 개최되는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제8차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지연태 주이탈리아대사, 대표 김정호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보

❋ 정부 훈령

- 이번 아시아지역 이사국 교체 시 한국이 카테고리III의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984년 총회 시 선출이 어려울 경우 1986년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접촉을 강화
- IFAD 기여금 재조성 관련, 회원국의 분담금 서약 동향 파악 후 우리의 서약 규모를 결정할 것이므로 우리의 기금 규모에 대한 현지 공관의 건의를 첨부
- IFAD 대부정책 및 기준관련 이사회 보고서에 대해서는 수석대표 재량으로 대처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총회 최대 관심사인 IFAD 제2차 기금조성(1984~86년) 문제는 카테고리I(OECD 국가)와 카테고리II(산유국) 간 의견대립으로 부담비율에 미합의

- 수석대표는 한국 측에서 3년간 30만 달러 기여금 서약을 건의

❋ 아주그룹에서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선출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대표단은 차기 1986년 이사국 출마의사를 밝히고 각국의 협조를 요청

❋ 차기 IFAD 총재로 단독 입후보한 I. Jarairi 주벨기에 알제리대사가 선출(임기 3년)

❋ IFAD 대여정책 및 기준에 관한 개정안은 차기 총회에서 심의키로 결정하였으며,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농업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 · 저리정책 유지 필요성을 강조

❋ 한국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2차 기금 조성의 조기 타결을 강조하고, IFAD 대여정책과 관련, 저금리 · 장기대여 방향으로 유지될 것을 주장

3.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연설문(한국 수석대표, IFAD 총재,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등)

❋ 제2차 기금조성 관련 결의문

❋ 카테고리III 주요국 제2차 기금 서약 규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7차. Geneva (스위스) 1984.5.7-18. 전2권. V.1 기본문서

| 84-07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7 / 1~139(139p)

1. 정부는 1984.5.7.~18.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HO(세계보건기구) 제37차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김정례 보건사회부장관, 교체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 외무부 및 보사부 대표 5명

❁ 기본 훈령

- 실질문제 토의 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
- 북한 또는 그 동조국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 중상 등 정치적 책동이 있을 경우, 전 인류의 보건 및 의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WHO를 정치선전장화 하는 것은 WHO 기본정신에 위배됨을 들어 반박

❁ 세부 훈령

-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적극 표명 (WHO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 회원국에 대한 이사국 진출의 균등한 기회 부여 등)
- 팔레스타인 포함 아랍 피점령지 주민 보건상태와 관련, 이스라엘 축출 또는 투표권 정지 등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결의안에는 반대 또는 기권하고, 단순한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는 찬성
- 아프리카 난민지원 및 한발 · 기아 피해국가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과 관련, WHO의 제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이와 관련된 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찬성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수석대표는 '전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WHO의 목적 달성과 관련 한국의 보건의료 시책에 대해 소개 (개인위생을 자진 실천토록 동기부여, 보건의료문제 영역확대에 부응한 급수 · 식품위생, 아동건강을 위한 어린이 심장재단 발족 등)

❁ 북한 수석대표(김용익 보건부차관)는 1983년 평양 개최 동남아지역 보건의료봉사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선전하고, 정치적 발언은 전무

❁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는 2000년까지 전 인류 건강 달성(의제 19)과 필수약품 및 백신에 관한 행동계획(의제 22)인바, 동 의제 관련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

❁ 중국(구 중공)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60~63년 이사국 피선 이래 21년 만에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성우 보건국장을 한국 측 집행이사로 임명

❁ 아랍국가가 주동이 된 팔레스타인 포함 피점령 아랍영토의 주민 건강상태(의제 31)에 관한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한국은 찬성)

❁ 화학무기 사용 관련 이라크를 규탄하는 이란 측 결의안은 채택 불발

3. 리비아 보건장관은 총회 참석기간 중 한국 수석대표에게 간호원 · 의료기사 등 1,500명의 한국 의료요원 파견을 요청함(동 문제 협의를 위해 10월 중 방한 희망).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7차. Geneva (스위스) 1984.5.7-18. 전2권. V.2 한국의 집행이사국 선출

| 84-077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8 / 1~144(144p)

1. 주제네바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이사국(1985~87년 임기)에 출마할 것을 1984.3.20. 외무부에 건의함.
   - ❋ 한국은 1960~63년 이사국으로 피선된 이래 이사국에 출마하지 않은 상황
   - ❋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H. Nakajima)이 서태평양지역 내에서 한국의 이사국 출마를 간접적으로 지원
   - ❋ 중국(구 중공)의 태도가 불확실하지만 중국이 반대치 않을 경우 피선 가능성이 농후

2. 외무부는 한국이 속한 서태평양지역에서 1984년도에 일본, 1985년도에 중국 및 말레이시아가 교체되는 점을 고려할 때, 1984년 총회와 1985년 총회가 한국의 이사국 진출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추진키로 결정하고, 관련 공관에 대해 한국의 입후보 지지교섭을 시행하도록 1984.4.18. 지시함.
   - ❋ 서태평양지역 내 유력한 입후보국이었던 호주는 한국이 입후보할 경우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통보
   - ❋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지역 내 출마가 예상되는 국가(월남 및 통가)의 출마 철회를 위해 적극적 중재의사를 표명
   - ❋ 남북한은 각각 다른 지역그룹에 속해 있어 북한과의 직접 대결을 피할 수 있는 상황
     - 북한은 동남아지역 그룹 소속

3. WHO 총회 운영위 측은 1984.4.27. 한국의 이사국 진출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한국을 총회 부의장국으로 추천할 예정이므로 한국 측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5.8. 현재 서태평양지역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입후보의사 표명 국가이지만, 파푸아뉴기니(PNG)가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중국 등의 강한 종용으로 PNG가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PNG가 우리의 입후보를 지지하도록 적극 교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한바, PNG는 한국 측 교섭에 따라 한국의 입후보를 지지키로 결정함.

5. PNG가 한국 측 입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호주 및 서사모아를 입후보국으로 내세우는 등 한국의 입후보를 방해하였으나, 호주가 한국의 입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WHO 총회 운영위는 5.14. 한국을 서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추천키로 결정하였으며, 5.16. 개최된 총회 본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이사국으로 선출함.

- 동남아지역을 대표하는 이사국(2개국 선출)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및 북한이 입후보하였으나, 북한은 WHO 총회 운영위 심의과정에서 탈락

6. 정부는 이성우 보건사회부 보건국장을 한국 측 집행이사로 임명하고, 이를 WHO 측에 통보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35차. Suva(휘지) 1984.9.5-11

| 84-077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9 / 1~375(375p)

1. 정부는 1984.9.5.~11. Suva(피지)에서 개최되는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제35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외 대표 2명

❋ 정부 훈령

- 지역사무처가 제시한 예산 편성의 방향 설정 및 지침에 동의하고, 한국이 신청한 예산은 수정 없이 승인되도록 노력
- 여성 · 보건 및 개발 의제와 관련, 여성문제 전담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 여성의 교육 · 고용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참여 증가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을 소개
- 공중보건 문제로서의 간염 의제와 관련, 한국의 간염예방을 위한 장 · 단기사업 추진 현황 및 간염백신 개발 현황을 소개
- 식수관리를 위한 WHO 지침과 관련, 한국의 간이급수시설 추진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를 소개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83.7.1.~84.6.30. 시행된 사업에 대한 지역사무처장의 보고에 대해 각국 대표가 발언

❋ 1986~87 회계연도 예산을 심의

- 정규예산 5,100만 달러, 비정규예산 500만 달러

❋ 여성의 건강 및 개발을 위해 상호협조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대표단은 한국의 여성개발원 발족을 소개하여 좋은 반응

❋ 모든 회원국이 간염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검사시설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수석대표는 9.10. 지역사무처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WHO 이사국 피선을 위한 동인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보사부장관의 방한초청의사를 전달

3. 대표단은 WHO 지역회의, 이사회 및 총회 등에서 있게 될 기술토의에는 그 주제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토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단을 보강하여 파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4. H. Nakajima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은 보사부장관의 초청으로 1984.11.6.~12. 방한하여 한국과 지역사무처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보사부 및 문교부장관 예방, 서울대 보건대학원, 녹십자사 등 의료관계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가짐.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1984년(Ⅰ) |

인 쇄 2015년 12월 20일
발 행 2015년 12월 31일

발 행 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 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김종일, 김주석, 박승무, 엄근섭, 오상식, 이주흠, 홍종기
디자인/인쇄 (주)미루기획 Tel. 02)543-2340